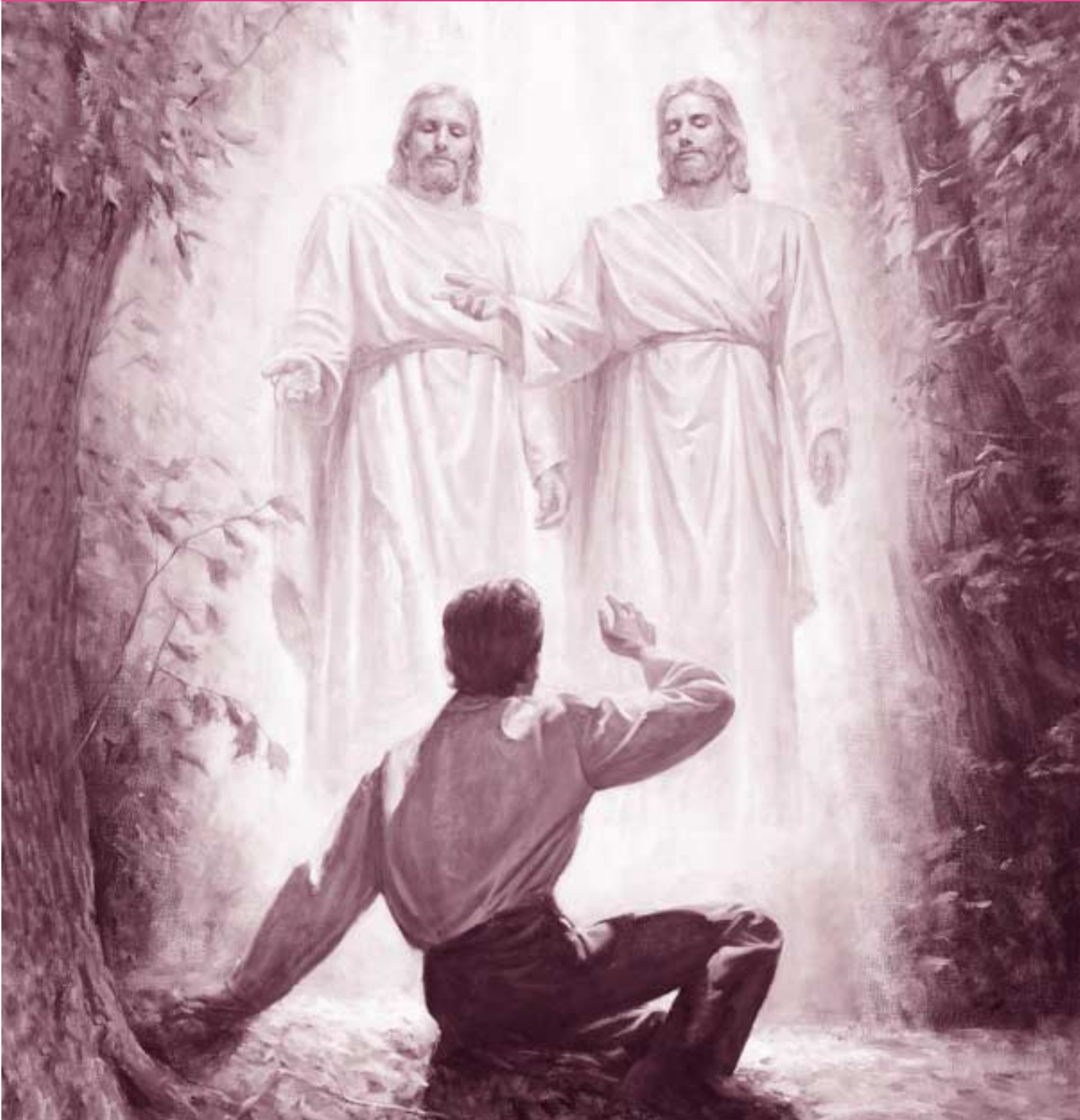


# 교리와 성약 및 교회사

복음 교리반 교사 교재



예수 그리스도  
후기성도교회

KOREAN



# 교리와 성약 및 교회사

---

복음 교리반 교사 교재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 발행

## 의견 및 제언

본 교재에 관한 의견이나 제언이 있다면 다음 주소로 보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Curriculum Planning**  
**50 East North Temple Street, Floor 24**  
**Salt Lake City, UT 84150-3200**  
**USA**  
**E-mail: cur-development@ldschurch.org**

먼저 성명, 주소, 워드, 스테이크 명칭을 기재하신 후, 교재 제목 및 교재의 장점에 대한 의견과 개선점을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

표지 그림: 델 파슨, 첫번째 시현

151쪽 그림: 시 시 에이 크리스턴슨, 미주리 주 잭슨 군에서 쫓겨나는 성도들.  
브리검 영 대학교 미술 박물관, 판권 소유.

184쪽 그림: 데이비드 린슬리, 조셉 형제.

192쪽 그림: 케네스 에이 콜베트, 미국의 모세인 브리검 영.

© 1999 by Intellectual Reserve, Inc.

판권 소유

2003년 개정

영어 승인: 11/03

번역 승인: 11/03

*Doctrine and Covenants and Church History : Gospel Doctrine Teacher's Manual*의 번역  
Korean

# 목차

| 공과 번호 및 제목  | 쪽   |
|---|-----|
| 교사 지침   | v   |
| 1 교리와 성약 및 교회사 소개                                 | 1   |
| 2 “보라, 나는 예수 그리스도, 세상의 구주라”                       | 6   |
| 3 “내가 시현을 보았다”                                    | 11  |
| 4 “새 성약 곧 물문경 ... 을 기억하여”                         | 16  |
| 5 “이것은 계시의 영이니”                                   | 24  |
| 6 “나는 네게 임하여 네 마음에 거할 성신으로 말미암아 네 생각과 네 마음에 말하리라” | 29  |
| 7 “복음의 첫째 되는 원리와 의식”                              | 35  |
| 8 신권의 회복  | 41  |
| 9 “유일한 참되고 살아 있는 교회”                              | 48  |
| 10 “이것은 모두에게 주는 나의 음성이니라”                         | 53  |
| 11 “밭은 이미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음이라”                         | 58  |
| 12 “나의 백성들의 집합”                                   | 63  |
| 13 “이 세대는 너를 통하여 나의 말을 가지게 되리라”                   | 69  |
| 14 헌납의 법  | 75  |
| 15 “가장 좋은 은사들을 간절히 구하되”                           | 81  |
| 16 “나의 거룩한 날에 ... 네 성찬을 바칠지어다”                    | 87  |
| 17 십일조의 법과 금식의 법                                  | 93  |
| 18 “하나님의 집을 세우라”                                  | 99  |
| 19 구원의 계획   | 105 |
| 20 영광의 왕국   | 110 |
| 21 “주의 큰 날이 임하기를 ... 바라며 기다리리라”                   | 115 |
| 22 지혜의 말씀: “약속이 따르는 원리”                           | 121 |
| 23 “연구와 또한 신앙으로 학문을 구하라”                          | 127 |
| 24 “속지 말고 계속하여 굳건하며”                              | 134 |
| 25 신권: “경건의 능력”                                   | 140 |
| 26 “온 세상에 다니며 나의 복음을 ... 전파하라”                    | 145 |

|                                     |   |     |
|-------------------------------------|---|-----|
| 27                                  | “아브라함같이, 그들은 반드시 징계를 받고 시험을 받아야 할 필요가 있느니라” | 150 |
| 28                                  | “오 하나님이시여, 당신은 어디 계시나이까?”                   | 157 |
| 29                                  | 일리노이 주 나부에서 하나님의 왕국을 건설함                    | 163 |
| 30                                  | “옥에 갇힌 자들이 놓여날 것임이니라”                       | 170 |
| 31                                  | “현세만 아니라 영원무궁토록 인봉되되”                       | 176 |
| 32                                  | “증거를 인봉하기 위하여”                              | 183 |
| 33                                  | 브리검 영 회장이 성도들을 인도함                          | 190 |
| 34                                  | 모든 발자취엔 신앙이                                 | 196 |
| 35                                  | “다른 사람을 구해 주어야 할 우리의 사명”                    | 202 |
| 36                                  | “사막이 백합화 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 208 |
| 37                                  | “말일에 예언자 주신 하나님”                            | 213 |
| 38                                  | “내 자신의 방법으로”                                | 220 |
| 39                                  | “자녀들의 마음은 그들의 아버지들에게로 돌이키리라”                | 226 |
| 40                                  | 성전 사업과 가족 역사 사업에서 기쁨을 찾음                    | 232 |
| 41                                  | “모든 회원은 선교사입니다”                             | 237 |
| 42                                  | 후기의 선지자들에게 계속되는 계시                          | 243 |
| 43                                  | “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 249 |
| 44                                  | 훌륭한 시민이 됨                                   | 255 |
| 45                                  | “가족은 하나님께서 제정하여 주신 것이다.”                    | 260 |
| 46                                  | “시온 — 마음이 청결한 자”                            | 266 |
| 교회 역사 연대기                           |   | 272 |
| 지도 1: 미국 뉴욕 주, 펜실베이니아 주 및 오하이오 주 지역 |   | 274 |
| 지도 2: 미국 미주리 주, 일리노이 주 및 아이오와 주 지역  |   | 275 |
| 지도 3: 교회의 서부 이동                     |   | 276 |

# 교사 지침

올해의 학습 과정은 교리와 성약 및 교회사이다. 교리와 성약은 선지자 조셉 스미스와 교회 회장으로서 그의 뒤를 이었던 선지자들에게 주어진 예언, 시현, 계명, 그리고 가르침의 편찬물이다. 선지자 조셉은 이 경전이 “이 마지막 날에 교회의 기초가 되고, 세상에 유익이 되며, 우리 구주의 왕국의 여러 비밀의 열쇠가 또다시 사람에게 위임되었음을 보여 주는 것”이라고 말했다.(교리와 성약 70편 머리글) 이 책에 담긴 계시는 ‘필요한 때에 기도의 응답으로 받은 것이며, 실제 인물이 관련된 실생활의 상황에서 나온’ 교회 역사의 주요 부분이다.(교리와 성약 소개 참조)

교리와 성약 및 교회사를 통해 복음을 가르치면서, 여러분은 반원들이 과거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현재 상태에 대한 힘과 미래에 대한 소망을 얻도록 도움을 줄 수 있다. 고든 비 헝클리 회장은 이렇게 선언했다.

“이 위대한 대업의 과거는 참으로 영광스럽습니다. 이 과거는 영웅담과 용기와 대담함과 신앙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주님의 종들의 메시지를 듣게 될 백성들의 생활을 축복하기 위해 우리가 앞으로 전진하는 현재는 참으로 훌륭합니다. 전능하신 분께서 그분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대로 생활하려는 모든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을 끼치며, 세상의 구속주에 대한 사랑으로 가득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의 사심 없는 봉사를 통해 심지어 앞으로 온 세대에 태어날 그분의 자녀들까지도 축복을 해주기 위해 노력하는 영광스러운 사업을 전진시켜 나아갈 때 미래는 얼마나 장엄하겠습니까?”(Conference Report, 1995년 10월, 95쪽; 또는 성도의 벗, 1996년 1월호, 72쪽)

## 본 과정의 목적

본 과정의 공과는 순차적으로, 즉 제1편 그 다음 제2편을 다루는 식의 방법보다는 교리와 성약 및 교회사에서 가르치고 있는 주요 주제에 그 초점을 맞추고 있다. 공과는 여러분이 아래와 같이 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계획되었다.

1. 회복된 복음의 교리, 의식 및 성약을 가르친다. 이러한 것들은 개인과 가족이 그리스도에게로 나아와 영생을 상속받는 데 필요한 것들이다.
2. 회복된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역사를 가르친다.
3. 영이 교실에 임하도록 한다.
4. 반원들이 경전을 이해하고 또 사랑하도록 돕는다.
5. 반원들이 복음 진리를 그들의 생활에 적용하도록 돕는다.
6. 반원들이 서로를 가르치고 또 교화하도록 격려한다.
7. 반원들이 교회 역사에서 자기가 살고 있는 시대의 중요성을 이해하도록 돕는다. 반원들이 자신들은 위대한 유산을 상속받았으며, 주님의 사업을 계속해서 전진시키는 책임을 수행하는 가운데 기쁨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하도록 돕는다.

---

**활용해야 할 자료**

이 과정에서 공과를 준비하고 가르치면서, 여러분은 다음의 자료를 활용해야 한다.

1. 경전 (“경전에서 가르침”, viii쪽 참조)
2. 본 교사 교재 (아래의 “본 교재의 활용 방법” 참조)
3. *교리와 성약 및 교회사 반원 학습 지도서*(35686 320). 본 소책자는 각 과별 독서 과제와 토론 질문을 담고 있다. 각 과를 준비하면서, 여러분은 학습 지도서에 있는 자료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고려해 본다. 반원들이 미리 독서 과제를 학습하고 또 그들이 답할 수 있도록 준비한 질문을 여러분이 한다면, 반원들이 토론에 좀 더 잘 참여할 수 있을 것이다. 반원들이 각자의 개인 학습과 가족 토론에서 학습 지도서를 활용하도록 격려한다.

각 반원은 학습 지도서를 한 부씩 가지고 있어야 한다. 여러분은 주일학교 회장단, 와드 서기, 또는 자료를 담당하는 와드 보조 서기로부터 지도서를 얻는다.

4. *우리의 유산: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 역사*(35448 320). 이 책은 선지자 조셉 스미스의 시대로부터 현재까지의 교회 역사에 대한 영감에 찬 기사를 제공하여 주고 있다. 이 책의 많은 기사들이 공과에서 다루어지고 있다.

각 반원은 개인 학습을 위해(적어도 한 가정에 한 부씩) 언제라도 볼 수 있도록 *우리의 유산*을 비치해 두어야 한다. 여러분은 주일학교 회장단, 와드 서기, 또는 자료 담당 와드 보조 서기로부터 이 책을 얻을 수 있다. 서기는 필요한 때에 추가로 이 책을 주문하도록 도움을 줄 수 있다.

5. *교리와 성약 및 교회사 비디오 발표 자료*(53912 320)와 *교리와 성약 및 교회사의 가르침* (53933). 두 비디오는 공과를 보충하여 주는 발표 자료를 담고 있다. 비디오를 활용하는 제언이 교재 내의 많은 공과에서 “추가로 가르칠 개념” 부분에 나와 있다. 이 비디오 발표 자료는 복음 원리 및 교회 역사에 대한 반원들의 이해를 강화시켜 줄 수 있다. 그러나 이 발표 자료를 너무 자주 사용하거나 경전에 토대를 둔 토론을 대치하는 방편으로 활용하지 않도록 유의한다.

기본적인 복음 원리를 가르치는 데 도움이 되도록 본 소개 부분의 지침과 다음의 자료를 참고한다.

*교회 지침서, 제2권, 신권 및 보조 조직 지도자*, 제16편, “복음 교육 및 지도력” (35209 320 또는 35903 320)

*교사, 가장 중요한 부름*, 1999년 판 (36123 320)

*교수법 지도서* (34595 320)

---

**본 교재의 활용 방법**

본 교재는 여러분이 경전과 교회 역사에 담겨 있는 복음 교리들을 가르치는 것을 돕기 위한 도구이다. 본 교재는 청소년 및 성인 복음 교리반을 위해 씌어졌으며 4년마다 다시 사용될 것이다. 공과를 가르치기 위해 추가 참조 자료와 주해서는 필요하지 않다. 엠 러셀 벨라드 장로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교사들은 추가 보조 자료를 활용하려고 하기 전에 경전과 그들의 교재를 주의 깊게 연구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너무나 많은 교사들이 승인된 교과 과정 자료를 충분히 살펴보지도 않고 옆길로 빠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만일 교사가 공과를 가르치는 데 경전과 교재 이외의 훌륭한 보조 자료를 추가로 사용할 필요를 느낄 경우에는 먼저 교회 잡지를 사용할 것을 고려해야 합니다.” (Conference Report, 1983년 4월, 93쪽; 또는 *성도의 벗*, 1983년 7월호, 106쪽)



매 공과를 최소한 일주일 전에 미리 검토한다. 독서 과제와 공과 자료를 미리 공부해 두면 그 한 주일 동안 공과를 가르치는 데 도움이 될 느낌과 생각들이 떠오르게 될 것이다. 한 주일 동안 공과에 대해 깊이 생각함과 동시에 영이 여러분을 이끌어 주시도록 기도한다. 주님께서 여러분을 축복해 주실 것이라는 신앙을 갖는다.

본 교재에 있는 공과에는 공과 시간에 가르칠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은 내용이 담겨져 있다. 반원들의 필요 사항에 가장 잘 부합되는 경전 이야기, 질문 및 공과에 나와 있는 다른 자료들을 선택하는데에서 주님의 영을 구한다. 반원들의 연령, 관심사, 그리고 배경을 염두에 둔다.

본 교재는 46과로 구성되어 있다. 가르치는 주가 46주가 넘기 때문에, 여러분은 한 과를 가르칠 때 때로는 두 주를 사용할 수도 있다. 특별히 4, 7, 27과와 같이 비교적 긴 공과를 가르칠 때 이러한 방법이 도움이 될 수 있다.

각 공과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포함되어 있다.

1. **목적.** 목적 부분은 여러분이 공과를 준비하고 가르칠 때 초점을 맞추어야 할 주개념을 제안하여 주고 있다. 대체로 여기에는 공과의 결과로 반원들이 행해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다.
2. **준비 사항.** 이 부분에는 공과 개요에 나오는 성구 내용과 다른 자료가 열거되어 있다. 여기에는 또 반에 가져 와야 할 자료와 같은, 준비를 위한 다른 제안이 포함되어 있을 수 있다. 이 가운데서 많은 자료들을 집회소 도서실에서 구할 수 있다.(제언된 물품 뒤에 있는 다섯 자리 번호가 물품 번호이다. 만일 그림이 복음 그림 패키지[34730 320]에 들어 있는 경우, 그 번호 또한 표기하였다.)
3. **주의 집중 활동.** 이 부분은 반원들이 배우고, 참여하고, 영의 영향력을 느낄 수 있도록 준비시키는 데 도움이 되는 간단한 학습 활동으로 구성되어 있다. 교재에 나오는 주의 집중 활동을 활용하든, 자신이 직접 준비한 주의 집중 활동을 사용하든 공과 시작부터 반원들의 주의를 집중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이 활동은 간단해야 한다.
4. **토론과 적용.** 공과 가운데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효과적으로 가르치고 토론할 수 있도록 경전과 역사적 내용을 기도하는 마음으로 공부한다. 여러분이 가르치는 방법을 다양하게 하고 또 반원들의 관심을 유지하기 위해 “경전에서 가르침”(viii쪽)과 “반 토론을 격려함”(ix쪽)에 있는 제언을 활용한다. 반원들의 연령과 경험에 적합한 질문과 교수법을 선정한다.
5. **결론.** 이 부분은 여러분이 공과를 요약하고 또 여러분이 토론한 원리에 따라 생활하도록 반원들을 격려하도록 도움을 준다. 또한 결론은 여러분이 간증을 하도록 상기시켜 주기도 한다. 각 공과를 끝맺기 전에 충분한 시간을 확보하도록 한다.
6. **추가로 가르칠 개념.** 이 부분은 교재의 대부분의 공과에 제공되어 있다. 경전 내용, 활동, 또는 공과 개요를 보충해 주는 다른 제언에 들어 있는 추가적인 진리를 포함할 수도 있다.

교재에는 교회 역사 연대기(272~273쪽)와 주요한 교회 역사 사적지를 표기한 지도 세 장(274~276쪽)이 들어 있다. 많은 공과에서 이 자료들을 참조하고 있으며, 이 자료들은 또한 **반원 학습 지도서**(27~31쪽)에도 들어 있다.

---

## 영으로 가르침

복음을 가르칠 준비를 할 때는, 여러분이 성신으로부터 영감과 인도를 구하는 것이 중요하다.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리고 영은 신앙의 기도로써 너희에게 주어지리니, 만일 너희가 영을 받지 아니하거든 가르치지 말지니라.” (교리와 성약 42:14) 여러분의 반에서 성신이 교사가 되어야 한다는 점을 기억한다.

여러분은 기도하고, 금식하며, 매일 경전을 공부하고, 또 계명에 순종함으로써 영을 구할 수 있다. 공과를 준비하는 동안, 경전과 반원들의 필요 사항을 여러분이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는 영을 간구한다. 영은 또한 성구에 대해 토론하고 또 그것들을 오늘날 적용하는 의미 있는 방법들을 계획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영을 여러분의 반으로 불러들이기 위한 몇 가지 제안이 아래에 주어졌다.

1. 공과 시작 전과 끝난 후에 기도를 드릴 것을 반원들에게 부탁한다. 공과 동안, 영이 여러분을 인도해 주시고, 반원들의 마음을 열어 주시고, 또 증거하고 영감을 주실 것을 여러분의 마음속으로 기도한다.
2. 경전을 활용한다.(아래의 “참된 교리를 가르침”과 “경전에서 가르침” 참조) 반원들에게 선정된 구절을 소리내어 읽게 한다.
3. 수업의 끝부분에서만뿐만 아니라, 영이 여러분에게 속삭일 때마다 간증을 전한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간증한다. 반원들에게 자주 간증을 하도록 권유한다.
4. 반원들이 영을 느끼도록 마음을 준비시키기 위해 찬송가, 초등학교 노래, 그리고 다른 성스러운 음악을 활용한다.
5. 반원들과 다른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여러분의 사랑을 표현한다.
6. 적당한 때에, 공과와 관련된 통찰, 느낌, 그리고 경험을 이야기해 준다. 반원들에게도 그렇게 하도록 권유한다. 반원들은 또한 그들이 이전의 공과에서 토론한 원리를 어떻게 적용하였는지에 관해 이야기할 수 있다.

---

## 참된 교리를 가르침

십이사도 정원회의 보이드 케이 패커 장로는 다음과 같이 가르쳤다. “참된 교리란 이해되기만 한다면, 태도와 행동에 변화를 줍니다.”(Conference Report, 1986년 10월, 20쪽; 또는 성도의 빛, 1987년 1월호, 21쪽)

준비하는 동안이나 공과를 진행하는 동안에, 경전과 후기 선지자들의 가르침에 나타난 복음의 구원의 교리들에 초점을 맞춘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경전을 부지런히 그리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공부하는 것이 필요하다. 주님께서는 이렇게 명하셨다. “내 말을 선포하려 힘쓰지 말고 먼저 나의 말을 얻으려 힘쓰라. 그리하면 네 혀가 풀리리라. 그런 후에 네가 원하면, 너는 나의 영과 나의 말, 참으로, 사람을 확신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게 되리라.”(교리와 성약 11:21)

---

## 경전에서 가르침

복음의 교리를 가르치기 위해 경전을 활용할 때에는 위대한 힘이 존재한다. 반원들이 선정된 성구를 함께 읽을 수 있도록 매주 공과 시간에 각자의 경전을 가져오도록 격려한다.

경전의 기사를 효과적으로 그리고 다양하게 가르치기 위해 다음의 제안을 활용한다.

1. 경전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가르치고 있는 바를 반원들이 이해하도록 돕는다. 반원들에게 어떤 성구가 어떻게 구주를 믿는 그들의 신앙을 강하게 해주었는지, 또 그들이 주님의 사랑을 느끼도록 도움을 주었는지를 생각해 보게 한다.
2. 반원들에게 선정된 성구에서 그들의 이름을 마음속으로 대치 삽입시켜서 경전을 자신에게 적용시켜 보도록 권유한다.
3. 성구가 우리의 생활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보여 주기 위해 교회 역사에 있는 영감에 찬 이야기를 들려준다.
4. 반원들에게 성구에서 자주 반복되거나 그들에게 특별한 의미를 주는 단어, 구절, 또는 개념을 찾아보게 한다.
5. 반원들에게 몰몬경/교리와 성약 합본의 끝에 있는 색인과 같이 각종 학습 보조 도구를 활용하도록 격려한다.
6. 경전의 기사와 관련된 구절, 핵심 단어, 또는 질문을 칠판에 적는다. 그리고 나서 그 기사를 읽거나 요약한다. 반원들이 읽다가 그 구절, 핵심 단어, 또는 질문에 대한 답을 보게 되면, 멈추어 그것들에 대해 토론한다.
7. 반원들을 둘 이상의 작은 그룹으로 나눈다. 경전의 기사를 살펴본 후에, 각 그룹에게 그 기사에서 가르치고 있는 원리와 교리를 각각 적게 한다. 그리고 나서 각 그룹에게 돌아가면서 이러한 가르침이 그들의 생활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토론하게 한다.
8. 반원들에게 연필을 가져와 그들에게 특별히 의미가 있었던 구절에 표시하도록 제안한다.

## 반 토론을 격려함

일반적으로 여러분은 강의식으로 가르쳐서는 안 된다. 그 대신 반원들이 성구 토론에 의미 있는 참여를 할 수 있도록 돕는다. 반 토론에 관한 주님의 권고를 교리와 성약 88편 122절에서 찾아볼 수 있다. “너희 가운데 교사 한 사람을 지명하여 모두가 동시에 말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고, 한 번에 한 사람이 말하게 하여 모두가 그의 말하는 것을 듣게 하라. 그리하여 모두가 말하고 난 후에 모두가 모두에게서 교화되며, 또 모든 사람이 동등한 특권을 누리게 하라.”

반 토론을 격려하면서 다음의 지침을 활용한다.

1. 생각을 하게 하는 질문을 한다. 왜, 어떻게, 누가, 무엇을, 언제, 어디서로 시작하는 질문은 대체로 반 토론을 격려하는 데 대단히 효과적이다. 본 교재에 있는 질문을 공부하면서 영의 인도를 구하고 또 어떤 질문을 한 것인지를 결정한다.
2. 반원들에게 토론 중인 경전상의 원리와 관련된 경험을 간략하게 이야기하도록 권유한다. 또한 그들이 경전에서 배우고 있는 것에 관한 그들의 느낌을 이야기해 주도록 격려한다. 반원들이 영적인 경험과 느낌을 “신중히 그리고 영이 권하는 대로” (교리와 성약 63:64 참조) 말해야 한다는 점을 이해하도록 돕는다. 어떤 경험과 느낌은 이야기하지 않는 것이 좋을 수도 있다.
3. 각 반원의 필요 사항을 세심히 배려한다. 모든 반원들을 격려하여 반토론에 참여시켜야 하지만, 대답하기를 주저하는 반원들이 있을 수 있다. 여러분은 그들과 개별적으로 이야기를 하여 소리내어 읽는 것과 공과에 참여하는 것에 관하여 어떻게 느끼고 있는지를 알아볼 수 있다. 반원을 당황스럽게 할 가능성이 있다면 그 반원을 시키지 않도록 주의한다.

4. 반원들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것을 돕기 위해 참조 성구를 가르쳐 준다.
5. 몇몇 반원들만이 대부분의 공과 토론 시간을 쓰고 있는 것같이 보이면, 아직 참여하지 않고 있는 사람들을 참여시키기 위해 최대한 노력한다. 여러분은 “다른 분의 의견을 들어보도록 합시다” 또는 “이제까지 이야기된 것에 덧붙여 말씀하실 분 없으신가요?”라고 말하여 토론의 흐름을 부드럽게 바꿀 필요도 있을 수 있다.

여러분이 준비한 공과 자료 모두를 가르치는 것보다도 반원들이 경전을 이해하고 또 적용하도록 돕는 것이 더욱더 중요하다. 반원들이 훌륭한 토론을 통해 배우고 있는 중이라면, 공과 자료 모두를 소화하려고 노력하는 것보다 토론이 계속되도록 하는 것이 종종 도움이 된다. 그러나 토론이 도움이 되지 않거나 교화시키는 것이 아니라면, 여러분은 방향을 다시 조정해야 한다.

### **새로운 회원을 도움**

여러분에게 교회에 들어온 지 얼마 안 되는 새로운 회원을 가르칠 기회가 있을 수 있다. 이러한 회원들이 굳건한 신앙을 갖는 데 여러분의 가르침이 도움이 될 수 있다. 제일회장단은 이렇게 말씀했다.

“교회의 모든 회원들은 특히 침례 받은 후 처음 몇 달 동안에 사랑 받고 양육되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새 회원들이 진실한 우정을 경험하고 봉사할 기회를 얻게 되며,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함으로써 오는 영적인 양식을 얻을 때 그들은 오래 지속되는 개종을 경험하고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에베소서 2:19)이 되는 것입니다.”(제일회장단 서신, 1997년 5월 15일)

### **청소년들에게 복음을 가르침**

여러분이 청소년을 가르치고 있다면, 그들에게는 종종 활동적인 참여와 토론하고 있는 교리에 대한 시청각 발표 자료가 필요하다는 점을 기억한다. 청소년들이 공과에 관심을 갖도록 돕는 데 활동, 비디오 발표 자료, 그리고 교재에 제언된 그림이 도움이 될 수 있다.

# 교리와 성약 및 교회사 소개

## 제 1 과

---

**목적**                   반원들에게 올해의 학습 과정인 교리와 성약 및 교회사를 소개하고 또 그들이 때가 찬 경륜의 시대에서 그들의 역할을 이해하도록 돕는다.

---

- 준비 사항**
1. 기도하는 마음으로 다음의 성구와 다른 자료를 공부한다.
    - ㄱ. 교리와 성약 소개; 교리와 성약 1편.
    - ㄴ. 우리의 유산 소개.
  2. 한 반원당 한 부씩 나누어 줄 수 있게 *교리와 성약 및 교회사 반원 학습 지도서(35686 320)*를 구한다. 여러분은 주일학교 회장단, 워드 서기, 또는 자료 담당 워드 보조 서기에게서 이 소책자를 받을 수 있다. 학습 지도서에서 본 과에 대한 자료를 살펴보고, 공과 시간에 자료를 참조하기 위한 방법을 계획한다.
  3. *우리의 유산: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 약사(35448 320)*를 충분히 구하여 모든 반원들이 개인 학습을 위해 (적어도 한 가정에 한 부씩) 언제라도 볼 수 있도록 한다. 많은 회원들이 이미 이 책을 가지고 있다. 여러분은 주일학교 회장단, 워드 서기, 또는 자료 담당 워드 보조 서기로 부터 이 책을 얻을 수 있다. 서기는 필요한 때에 추가로 이 책을 신청하도록 도움을 줄 수 있다.
  4. 여러분이 주의 집중 활동을 활용하려면, 솔트레이크 성전 사진을 반으로 가져온다.(62433;복음 그림 패킷 502)
- 

### 공과 전개 제언

주의 집중 활동                   적절한 경우, 공과를 시작하기 위해 다음 활동이나 여러분 자신이 준비한 활동을 활용한다.

솔트레이크 성전 사진을 보여 준다. 성전 꼭대기에서 모로나이 천사상이 닫고 서 있는 공을 가리킨다. 그 공의 윗부분 반이 솔트레이크 성전의 관석이라고 설명한다. 1892년 4월 6일, 교회는 태버넌클에서 연차 대회를 열었다. 윌포드 우드럽 회장은 정오 바로 직전에 그 모임을 끝냈다. 40,000명의 사람들이 템플 스퀘어에 모였으며, 그 주위로도 수천 명의 사람들이 더 있었다. 우드럽 회장이 전기 스위치를 누르자, 관석이 내려가 자리를 잡았다. 그 아래서 악주단이 반주를 하는 가운데, 태버넌클 합창단이 “타는 듯한 하나님의 영”을 노래하기 시작했으며, 성도들도 가세하여 함께 찬송했다. 그리고 그들은 솔트레이크 성전이 거의 완성된 것을 기뻐하면서 호산나 외침을 하면서 하얀 손수건을 흔들었다.

제13대 교회 회장인 에즈라 테프트 벤슨 회장은 교리와 성약이 우리 종교의 관석으로 묘사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교리와 성약은 인간을 그리스도의 왕국, 즉 온 땅위에 ‘유일한 참되고 살아 있는 교회’인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로 나아오게 해줍니다.[교리와 성약 1:30] …

“물론경은 우리 종교의 ‘종석’이며 교리와 성약은 계속되는 후기의 계시로 된 ‘관석’입니다. 주님께서는 종석과 관석 모두를 승인해 주셨습니다.”(Conference Report, 1987년 4월, 105쪽; 또는 성도의 벗, 1987년 7월호, 94쪽)

이 종석과 관석은 우리에게 우리 종교의 모퉁잇돌 (에베소서 2:20)이신 구주에 관해 가르쳐 주고 있다고 증거한다. 이 두 경전은 또한 구주에 관해 그리고 그분의 복음의 진실됨에 대해 증거하고 있다.

## 토론과 적용

본 공과에는 한 공과 시간 동안에 가르칠 수 있는 것보다도 많은 자료가 포함되어 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반원들의 필요 사항을 가장 잘 충족시켜 줄 수 있는 공과 자료를 선정한다.

본 과정은 교리와 성약 및 교회사를 주제별로 공부할 수 있도록 마련되었다고 설명한다. 공과는 교리와 성약 및 교회가 특정한 복음 주제에 관해 가르치는 내용을 반원들이 배우고 적용하는 것을 돕도록 계획되었다. 올해의 학습 과정을 공부한 결과로, 반원들은 복음의 축복을 더 열심히 추구하겠다는 강한 소망을 가져야 한다.

올해의 공과가 주제별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교리와 성약의 일부 편들이 독서 과제에 포함되어 있지 않음을 지적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원들은 올해 동안 교리와 성약 전체를 읽으려고 계획해야 한다.

반원 학습 지도서를 배부한다. 학습 지도서에 독서 과제와 각 과에 대한 토론 질문이 들어 있다고 설명한다. 반원들이 매주 독서 과제를 읽고 공과 준비를 하겠다는 결심을 하도록 권유한다. 반원들에게 지정된 과제를 매주 읽는 것이 습관이 되도록 하는 방법에 관해 좋은 생각을 이야기해 주도록 부탁한다.

우리의 유산을 보여 주고, 각 가정에 최소한 한 부씩은 지닐 수 있도록 필요한 만큼 배부한다. 이 책은 선지자 조셉 스미스 시대로부터 현재까지의 교회 역사에 관해 영감에 찬 기사를 제공하여 주고 있다고 설명한다. 반원들은 한 해 동안 이 책을 읽어야 한다. 이 역사의 많은 부분들이 공과에서 토론될 것이다.

반원들이 이 과정을 성공적으로 만드는 데 책임을 나누어 지고 있음을 지적한다. 반원들에게 공과에 참여하여 복음 원리를 그들의 생활에 적용하는 방법을 배운 경험을 이야기해 주도록 격려한다.

### 1. 교리와 성약에 있는 계시는 우리 시대의 필요 사항을 다루고 있다.

- 교리와 성약에는 다른 경전과는 다른 면이 있는데, 이는 이 책이 고대 기록의 번역이 아니라 현대에 그 기원이 있고 또 그분께서 선택한 선지자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이다.(교리와 성약 소개 참조) 교리와 성약이 어떻게 다른 경전과 다른가? 교리와 성약의 어떤 구절이 여러분에게 특별히 도움이 되었거나 의미가 있었는가?
- 이 신성한 계시들은 기도의 응답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에, 그리고 … 실제로 살았던 사람들의 실생활 가운데서 받게 되었다. 계시의 대부분이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받게 되었다는 것을 아는 것이 왜 도움이 되는가?

- 교리와 성약에서 설명하고 있는 복음의 교리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가? (이러한 교리 가운데서 두세 가지를 선정하고, 교리와 성약에 제시되어 있는 진리가 없었다면 그들의 생활이 어떻게 다르게 되었을 것인지에 관해 토론한다.)

## 2. 주께서 교리와 성약의 서문을 계시로 알려 주셨다.

다음의 내용을 살펴봄으로써 교리와 성약 1편을 소개한다.

1831년 11월 1일, 선지자 조셉 스미스는 오하이오 주 하이럼에서 장로들의 특별 대회를 감리하고 있었다. 참석한 사람들은 선지자 조셉 스미스가 받은 계시들 가운데서 일부를 모아서 계명의 책이라 불리는 한 권의 책으로 출판하기로 결정했다. 이 대회의 다음 모임에서 주께서는 친히 “나의 계명의 책에 붙이는 나의 서문”(교리와 성약 1:6)이라고 부르시는 한 편의 계시를 조셉 스미스에게 주셔서 책의 출판을 승인하시겠다는 뜻을 밝히셨다. 이 계시가 현재 교리와 성약 제1편이다.

에즈라 태프트 벤슨 회장은 이렇게 말씀했다. “교리와 성약은 주님께서 친히 쓰신 서문이 있는, 세상에서 유일한 책입니다. 이 서문에서 주님은 세상 사람들에게 그의 음성은 모든 사람에게 미치며(2절 참조), 주의 재림이 가까이 왔고(12절 참조) 교리와 성약에 있는 진리는 모두 이루어질 것(37~38절 참조)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Conference Report, 1986년 10월, 101쪽; 또는 성도의 벗, 1987년 1월호, 103~104쪽)

- 교리와 성약 제1편에서 주님은 “경고의 음성”(교리와 성약 1:4)을 높이셨다. 그리고 교리와 성약 전편을 통해 경고의 음성을 계속 전하셨다. 주님께서 교리와 성약 제1편에서는 어떤 경고를 주셨는가?(교리와 성약 1:7~10, 12~16, 31~33 참조. 이 참조 성구들을 칠판에 적을 수도 있다.) 이러한 경고가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되는가?
- 교리와 성약의 메시지는 누구를 위하여 마련되었는가?(교리와 성약 1:1~4, 11, 34~35 참조) 어떻게 이 메시지가 모든 사람들에게 나아가는가?(교리와 성약 1:4 참조)
- 교리와 성약 제1편에서 주께서는 그분의 후기의 사업의 위대한 운명을 미리 이야기하셨다.(교리와 성약 1:23, 30) 주께서 이 편을 계시하셨을 때, 교회가 조직된 지 겨우 1년 반이 지났던 때이고 또 단지 수백 명의 회원만이 있었을 때라고 설명한다. 교회 성장에 관한 예언이 우리 시대에 어떻게 성취되고 있는가?
- 교리와 성약 제1편에서, 주께서는 교리와 성약에 있는 계시가 지닌 목적의 일부를 설명하여 주셨다. 반원들과 함께 교리와 성약 1편 17~28절을 읽는다. 이 구절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에 따르면, 계시가 지닌 목적의 일부는 무엇인가? (답에는 아래에 열거된 내용이 포함될 수 있다.)
  - ㄱ.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주 하나님 곧 세상의 구주의 이름으로 말하게” 하기 위해서(교리와 성약 1:20)
  - ㄴ. “신앙이 또한 땅에서 증가되게” 하기 위해서(교리와 성약 1:21)
  - ㄷ. “나의 영원한 성약이 굳게 세워지게” 하기 위해서(교리와 성약 1:22)
  - ㄹ. “나의 복음의 충만함이 … 선포되” 게 하기 위해서(교리와 성약 1:23)
  - ㅁ. 주님의 종들이 “이해할 수 있” 게 하기 위해서(교리와 성약 1:24)
  - ㅂ. “그들이 잘못을 범한 만큼, … 알려지게 하기” 위해서(교리와 성약 1:25)
  - ㅅ. “지혜를 구한 만큼, 가르침을 받게” 하기 위해서(교리와 성약 1:26)

- . “죄를 범한 만큼, 회개하도록 징계를 받게” 하기 위해서(교리와 성약 1:27)
- 즈. “겸손한 만큼, 강하게 되게 하며, 높은 곳에서 오는 복을 받게 하며, 시시로 지식을 받게” 하기 위해서(교리와 성약 1:28)
- 교리와 성약에 대한 주님의 서문의 끝에는 그분의 말씀을 상고하라는 계명이 들어 있다. 반원들과 함께 교리와 성약 1편 37~38절과 18편 34~36절을 읽는다. 이 구절에서 주님께서는 그분의 말씀과 음성에 관하여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고 있는가? 경전을 상고하는 것이 어떻게 경전을 그저 읽는 것과 다른가? 교리와 성약에 있는 주님의 말씀을 상고하여 우리는 어떻게 유익을 얻었는가?

### 3. 본 과정에서 때가 찬 마지막 경륜의 시대에 일어난 주요 사건에 대해 토론하게 될 것이다.

올해 공과를 통하여 우리가 살고 있는 경륜의 시대, 곧 때가 찬 경륜의 시대(교리와 성약 112:30~32)에 일어난 주요 사건들 가운데 많은 사건들을 다루게 될 것이라고 설명한다. 선지자 조셉 스미스의 다음 말씀을 읽어 준다.

“선지자, 제사장 및 왕들 ... 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기쁨으로 기다리면서 이날을 노래하고 글로 쓰고 예언하였으나 결국 보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후기의 영광을 가져 오도록 택하신 은총을 입은 백성입니다. 우리는 다만 후기의 영광이 이를 수 있도록 조력하고, 참여하며, 보면 되는 것입니다. 후기는 ‘때가 찬 경륜의 시대입니다.’”(선지자 조셉 스미스의 가르침, 조셉 필딩 스미스 편집, 217쪽)

- 우리의 경륜의 시대가 이전의 경륜의 시대들과는 왜 다른가? (대답에는 이 경륜의 시대가 배도로 끝나지 않을 것이라는 점과 교회가 이 지상을 채우는 날까지 계속되어 주님의 재림을 위한 길이 예비될 것이라는 점이 포함될 수 있다.) 이 경륜의 시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받는 축복과 책임 가운데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이 경륜의 시대는 여섯 개의 역사적 시기로 나뉘어질 수 있다. 여러분은 다음의 내용을 칠판에 적을 수도 있다.

|             |             |
|-------------|-------------|
| 뉴욕 시대       | 1820년~1830년 |
| 오하이오-미주리 시대 | 1831년~1838년 |
| 나부 시대       | 1839년~1846년 |
| 서부 개척 시대    | 1846년~1898년 |
| 교회의 팽창      | 1899년~1950년 |
| 세계적인 교회     | 1951년~현재    |

이 여섯 역사적 시기에 있었던 중요한 사건들 가운데 많은 사건들이 본 교재 272~273쪽과 반원 학습 지도서 27~28쪽의 “교회 역사 연대기”에 요약되어 있다고 지적한다. 반원들에게 이러한 사건들을 간략하게 살펴보게 한다.

- 교회 역사에서 어떤 사건들이 여러분에게 특별한 중요성을 지니고 있는가?



#### 4. 우리 각자는 후기의 이 위대한 사업이 전진해 나가도록 도울 수 있다.

반원들에게 방을 돌아보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살펴보게 한다. 우리가 우연히 이 시기에, 이곳 지상에 있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한다. 하나님께서는 이 마지막 경륜의 시대에 그분의 왕국을 건설하는 것을 돕기 위해 우리를 보내셨다. 에즈라 테프트 벤슨 회장은 이렇게 말씀했다. “우리의 시대처럼 짧은 기간 내에 충실한 자를 그토록 많이 필요로 했던 적은 없었습니다.”(마빈 제이 애쉬튼 인용, Conference Report, 1989년 10월, 48쪽; 또는 성도의 벗, 1990년 1월호, 47쪽)

고든 비 힝클리 회장은 이렇게 말씀했다.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가장 심각한 도전과 가장 놀라운 도전은 성장하는 가운데서 오는 도전들입니다.”(“고든 비 힝클리 회장”에서 인용, Ensign, 1995년 4월호, 6쪽)

- 교회가 이룩한 엄청난 성장에 따른 도전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이러한 도전을 헤쳐 나가기 위한 교회의 노력에는 어떤 예가 있는가?(답에는 성전 건축의 극적인 증가, 신권 지도자가 지도력을 쌓기 위한 노력, 많은 언어로 경전을 번역하는 것을 촉진하는 것이 포함될 수 있다.)

우리는 교회의 성장을 보고 큰 기쁨을 느낄 수 있다고 강조한다. 그러나 주님께서 참여하지 않고 주변에서 환호만 보내는 것 이상의 것을 필요로 하고 계시다. 우리는 우리에게 요구되고 있는 일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가족과 개인으로서 우리가 맡은 역할을 하고 있는지를 자문해 보아야 한다. 고든 비 힝클리 회장은 이렇게 말씀했다. “지금은 기회가 풍성한 시대입니다. 그 기회를 잡고 발전해 가는 것은 우리의 몫입니다. 주님의 사업을 거대한 목적지로 움직여 나가는 데 우리들이 각자 작은 기여를 할 수 있다니 얼마나 위대한 시대입니까?”(Conference Report, 1997년 10월, 90~91쪽; 또는 성도의 벗, 1998년 1월호, 67쪽)

- 우리 각자는 주님의 위대한 후기의 사업을 전진시키는 것을 돕기 위해서 개인적으로 그리고 가족으로서 무엇을 할 수 있는가?

#### 결론

우리는 때가 찬 경륜의 시대에 살고 있는 특권을 누리고 있다고 강조한다. 우리는 고대에 예언된 대로 교회가 앞으로 전진하여 나가는 것을 볼 수 있다.(다니엘 2:44~45; 또한 교리와 성약 65:2 참조) 우리는 회복된 복음의 축복을 누리고 있다. 우리는 교리와 성약을 읽을 때 주님의 음성을 듣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살아 계신 선지자에 의해 인도되고 있다. 올해의 학습 과정은 이 경륜의 시대에서 생활하는 것이 주는 기회와 축복에 관해 더 많은 것을 이해하도록 도움을 줄 것이다.

# “보라, 나는 예수 그리스도, 세상의 구주라”

**목적**

반원들이 교리와 성약을 통하여 오는 구주에 대한 강력한 간증을 느끼고 또한 구주의 속죄에 대한 그들의 간증을 강화하도록 돕는다.

**준비 사항**

1. 기도하는 마음으로 본 공과에 있는 성구를 공부한다. 8~9쪽에 있는 성구를 공부하면서 어느 것이 반원들에게 가장 도움이 될지를 결정한다. 여러분이 선정한 구절을 잘 알 수 있도록 하고 또 그것들을 공과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준비한다.
2. 반원 학습 지도서(35686 320)에서 본 공과에 대한 자료를 살펴본다. 공과 시간에 자료를 참조할 수 있는 방법을 계획한다.
3. 다음의 그림을 구할 수 있다면, 공과 동안에 그것들을 활용할 수 있도록 준비한다. 예수 그리스도 (62572; 복음 그림 패킷 240); 셋세마네에서 기도하시는 예수님(62175; 복음 그림 패킷 227); 십자가에 못박히심.(62505; 복음 그림 패킷 230) 여러분은 수업을 진행하는 동안 예수 그리스도 그림을 내내 전시해 둘 수 있다.
4. 여러분이 주의 집중 활동을 활용하려면, 나뭇가지 하나를 반으로 가져온다.

**공과 전개 제언**

주의 집중 활동

적절한 경우, 공과를 시작하기 위해 다음 활동이나 여러분 자신이 준비한 활동을 활용한다.

나뭇가지 하나를 보여 준다. 이 가지가 생명을 지키는 데 필요한 영양분을 더 이상 받지 못한다는 점을 지적한다.

- 이 가지는 왜 필요한 영양분을 받을 수가 없는가? (이 가지는 뿌리에서 분리되었다.)

십이사도 정원회의 보이드 케이 패커 장로의 다음 말씀을 이야기해 준다.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는] 기독교 교리의 뿌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복음에 대한 많은 것이 거기서 파생되어 나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만일 여러분이 가지들만 알고 있는데 그 가지들이 뿌리에 닿아 있지 않는다면, 즉 그 가지들이 그 진리에서 잘려 나간 것이라면, 그 가지들에게는 아무런 생명도 실체도 구원도 없게 될 것입니다.”(Conference Report, 1977년 4월, 80쪽; 또는 성도의 빛, 1977년 10월호, 56쪽)

죽은 나뭇가지를 강하고 건강한 나무와 대비시킨다.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가 우리에게 생명을 가져다주고 또한 다른 모든 복음 교리에 의미를 주었음을 강조한다. 우리는 본 과정 전체를 공부하는 동안 다른 원리들을 공부하면서 속죄를 기억해야 한다.

토론과 적용

기도하는 마음으로 반원들의 필요 사항을 가장 잘 충족시켜 줄 수 있는 공과 자료를 선정한다.

## 1. 교리와 성약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증거함

모든 경전의 한 가지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또 사람들이 그에게 나아와서 구원에 참여하도록 그들을 설득하는 것이다. 성경, 값진 진주에 있는 모세서와 아브라함서, 그리고 물몬경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고대의 성약, 즉 증언이다. 교리와 성약은 이 경륜의 시대에 주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성약이다. 이 경전은 예수는 그리스도이시고, 살아 계시며, 또한 오늘날에도 계속해서 선지자들에게 이야기하고 계시며 그의 백성들을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다.

반원들에게 교리와 성약 소개 부분을 펴보게 한 후 일곱 번째 문단의 마지막 문장을 읽게 한다. (이 문장은 “마지막으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주어진 증언”으로 시작된다.)

교리와 성약에는 구주와 그분의 사업에 대한 강력한 간증이 포함되어 있다고 지적한다. 이 간증의 대부분은 구주께서 친히 주신 것들이다. 반원들에게 그 예로서 다음 구절들을 읽게 한다. 교리와 성약 50편 41~44절과 76편 22~24절.

본 공과는 교리와 성약에 있는 구주에 관한 가르침에 대해 토론하고 있다고 설명한다.

## 2.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만인으로 하여금 회개하여 자기에게 나아 오게 하시려고 만인의 고통을 맛보셨다.”

셋세마네에 계시는 예수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의 그림을 보여 준다. 교리와 성약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에 대해 우리가 잘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많은 계시가 들어 있다고 설명한다. 이러한 계시는 우리에게 구주의 고통의 깊이와 그분과 하나님 아버지께서 가지고 계시는 우리에게 대한 사랑을 느낄 수 있도록 해 준다.

*구주께서 자신이 속죄의 희생을 하신 것을 묘사하시다*

- 반원들과 함께 교리와 성약 19편 16~19절을 읽는다. 이것은 구주께서 속죄의 희생을 하시는 동안에 겪었던 자신의 고통을 친히 묘사하신 유일한 구절이라고 설명한다. 이 구절은 우리를 위한 구주의 고통에 관하여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고 있는가? 구주께서는 왜 우리를 위하여 그토록 커다란 고통을 기꺼이 경험하시기로 하셨는가?(교리와 성약 18:10~11; 19:19, 24; 34:3 참조)

*속죄를 통하여 우리 모두는 부활할 것이다*

- 반원들과 함께 다음 구절들을 읽는다. 교리와 성약 88:14~18; 93:33; 앨마서 11:42~44. 우리는 이 구절에서 부활에 관하여 무엇을 배울 수 있는가? (답에는 아래에 열거된 내용이 포함될 수 있다.)
  - ㄱ. 부활은 인간의 구속이다. 영과 육신은 완전한 형태로 다시 재결합된다.(교리와 성약 88:14~16; 93:33; 앨마서 11:42~43)
  - ㄴ. 부활은 우리가 해의 영광에 대한 준비를 갖추게 해 준다.(교리와 성약 88:18)
  - ㄷ. 부활은 우리가 충분한 기쁨을 받는 데 필요하다.(교리와 성약 93:33)
  - ㄹ. 모든 사람은 부활할 것이다.(앨마서 11:44)

*속죄를 통하여 우리는 우리 죄에 대해 용서를 받고 해의 영광을 상속받을 수 있다*

- 반원들과 함께 다음 구절을 읽는다. 교리와 성약 18:11~12; 19:16~17, 20; 58:42; 76:62~70. 우리가 구주의 속죄를 통해 받을 수 있는 축복에 관해 이 구절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있는가? (답에는 아래에 열거된 내용이 포함될 수 있다.)

- ㄱ. 우리는 우리 죄를 회개하고 주님께 나아갈 수 있다.(교리와 성약 18:11~12)
- ㄴ. 우리가 회개한다면, 우리 죄의 고통을 그분께서 친히 짚어지신다.(교리와 성약 19:16~17, 20)
- ㄷ. 우리가 회개한다면, 주님께서는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죄를 더 이상 기억하지 않으신다.(교리와 성약 58:42)
- ㄹ. 우리는 첫째 부활에 나아오고, 그리스도를 통하여 완전하게 되며 또 해의 영광을 상속받을 수 있다.(교리와 성약 76:62~70)

속죄를 통하여 구주께서는 모든 슬픔, 고통, 고난에 있는 우리를 완전히 이해하셨다

그분의 생애 동안에, 그리고 속죄를 위한 최후의 고난에서, 구주께서는 우리의 모든 고통과 고난을 완전히 이해할 수 있는 방법으로 고통을 겪으셨다.

반원들에게 교리와 성약 122편을 펼치게 한다. 이 편은 선지자 조셉 스미스가 미주리 주 리버티 감옥에 있는 동안 그에게 주어진 계시이다. 처음의 일곱 구절에서 주님께서는 선지자 조셉 스미스의 시련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그리고 나서 8절에서 주님께서는 자신의 고통에 대해 이야기하신다.

- 반원들과 함께 교리와 성약 122편 8절을 읽는다. 구주께서는 어떠한 방법으로 모든 것 “아래로 내려갔”는가? (앨마서 7:11~12; 교리와 성약 62:1; 133:53 참조; 도울지라는 단어가 도움을 의미하고 있음에 유의한다. 구주께서는 우리의 모든 슬픔, 고통, 그리고 고난을 경험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느끼는지를 이해하고 계신다. 그분께서는 우리를 도와주는 방법을 알고 계신다.) 이러한 지식이 어떻게 우리가 시련을 경험할 때 우리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가?

제프리 알 홀런드 장로는 이렇게 말씀했다. “어려운 시기가 닥쳐올 때 그리스도께서는 만물보다 위에 오르시기 전에 그들보다 더 낮아지셨고, 고난과 고통과 온갖 종류의 유혹에 시달리심을 통해서 자비가 충만해지셨으며, 어떻게 그의 백성들의 허약함을 치유할 수 있는지를 알고 계십니다 (교리와 성약 88:6; 앨마서 7:11~12 참조)” (Conference Report, 1995년 10월, 91쪽; 또는 성도의 벗, 1996년 1월호, 69쪽)

- 여러분의 생활에서 언제 속죄의 힘을 느껴 본 적이 있는가? 이러한 힘을 더욱더 완전하게 느끼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는가?
- 속죄에 대해 우리는 어떻게 그분에게 감사를 드릴 수 있는가? 속죄에 대한 우리의 이해가 어떻게 우리의 일상 생활에 영향을 주는가?

### 3. 교리와 성약은 우리가 구주의 역할과 속성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준다.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행사할 수 있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분의 성격, 완전함, 그리고 속성에 대한 올바른 개념”을 가져야만 한다.(조셉 스미스, comp. 신앙강좌1985년, 38쪽) 교리와 성약은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준다.

- 오늘 읽은 구절에서 우리는 구주의 어떤 속성을 볼 수 있는가? (반원들의 대답을 칠판에 적는다. 대답에는 사랑, 순종, 겸손, 그리고 복종이 포함될 수 있다.)

다음 성구에서 몇 가지를 선정하여 반원들과 함께 읽는다. 구주의 역할과 속성에 관하여 각 구절이 가르치고 있는 바에 대하여 토론한다. 그 내용을 칠판에 요약한다.

- ㄱ. 교리와 성약 6:20~21.(우리가 충실하고 부지런하다면, 구주께서는 그분의 사랑의 팔로 우리를

안아주실 것이다. 그분은 어둠에 비치는 빛이시다.)

- ㄴ. 교리와 성약 6:32~37.(우리가 그분을 기억하고 그분의 계명에 순종할 때, 그분은 우리에게 보호와 위안을 주시며 또한 우리를 축복하실 준비가 되어 있으시다.)
- ㄷ. 교리와 성약 19:1~3.(아버지의 뜻을 다 행하시고 나서, 그분은 만물을 정복하셨으며 모든 권능을 지니셨다. 그분은 사탄과 그의 사업을 멸망시킬 것이다. 그분은 사람들을 그들의 행위에 따라 심판하실 것이다.)
- ㄹ. 교리와 성약 29:1~2.(그분의 자비의 팔은 우리의 죄를 위해 속죄하셨다. 우리가 그분의 음성을 귀 기울여 듣고 스스로를 겸손히 낮추면, 암탉이 병아리를 모으듯이 그분은 우리를 모으실 것이다.)
- ㅁ. 교리와 성약 38:1~3.(그분은 세상의 창조주이시며, 모든 것을 알고 계시다.)
- ㅂ. 교리와 성약 43:34.(그분은 세상의 구주이시다.)
- ㅅ. 교리와 성약 45:3~5.(그분은 아버지와 우리 사이의 변호자이시다.)
- ㅇ. 교리와 성약 50:44.(그분은 선한 목자이시며 이스라엘의 반석으로 우리를 세울 수 있는 확실한 토대이시다.)
- ㅈ. 교리와 성약 76:5.(그분은 그분을 두려워하는 이들에게 자비롭고 은혜로우신 분이며, 의와 진리로 끝까지 그분을 섬기는 이를 존귀하게 하기를 기뻐하신다.)
- ㅊ. 교리와 성약 93:5~19.(그분은 아버지의 독생자이시다. 그분은 “은혜에 은혜를 더하여” 가서 마침내 아버지의 영광과 권능의 충만함을 받으셨다.)
- ㅋ. 교리와 성약 133:42~52.(그분은 권능 가운데서 강림하실 때, 그분이 구속한 이들은 그분의 자애로운 친절과 선함을 이야기할 것이다.)
- ㅋ. 교리와 성약 136:22.(그분의 팔이 뻗어져 그분의 백성을 구원하실 것이다.)
- 구주의 이러한 역할과 속성을 우리가 아는 것은 왜 중요한가? 교리와 성약에 있는 계시들이 어떻게 구주에 대한 여러분의 간증을 강하게 해 주었는가?

## 결론

- 반원들과 함께 교리와 성약 19편 23절을 읽는다. 오늘 우리가 토론한 진리가 어떻게 여러분이 평화를 받는 데 도움을 주었는가?

영이 속삭이는 대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간증한다. 그분의 속죄 때문에, 우리 모두는 부활할 것이라는 점을 강조한다. 속죄를 통하여, 그분은 우리에게 회개하여 그분께 나아와서, “이 세상에서는 평화를, 장차 올 세상에서는 영생을”(교리와 성약 59:23) 받으라는 권유를 주셨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을 행사하고, 회개하며, 계명에 순종하고, 끝까지 견딤으로써 속죄가 주는 모든 축복에 참여할 것을 반원들에게 권유한다.

올해 반원들이 교리와 성약을 공부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 가르치고 있는 내용을 찾아볼 것을 제안한다. 그분은 이 책에서 중심 인물이시다. 이 계시들이 주는 강력한 증거와 진리가 그분에 대한 각 사람의 간증을 강하게 해 줄 수 있다.

## 추가로 가르칠 개념

### 1. “예수께서 베푸신 사랑”

공과 전에 “예수께서 베푸신 사랑”(찬송가, 111장)의 가사를 공부한다. 가사에서 교리와 성약을 뒷받침해 주는 표현을 찾는다. 다음의 예가 여러분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

---

## 찬송가의 표현

“예수께서 베푸신 사랑에 놀라며”  
“이 죄인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주 거룩한 보좌를 버리고 내려와”  
“짓밟 인해 못박혀 피흘리셨으니”  
“그 자비 사랑 헌신 내어찌 잊으리”

## 뒷받침해 주는 구절

교리와 성약 34:3  
교리와 성약 19:16~19  
교리와 성약 88:6; 122:8  
교리와 성약 6:36~37  
교리와 성약 20:77

---

찬송가에서 적절한 표현을 찾은 후, 반원들에게 뒷받침해 주는 표현을 찾는 것을 중지시키고 공과 중에 찬송가의 가사를 소리내어 읽는다.

## 2. “아버지와 우리 사이의 변호자”(교리와 성약 45:3)

칠판에 변호자라고 적는다. 교리와 성약에서 여러 번에 걸쳐 주님께서는 자신이 우리의 변호자라고 말씀하셨다.(교리와 성약 29:5; 45:3; 62:1; 110:4).

- 변호자란 어떤 사람인가?(다른 사람의 대의를 위해 변론하는 사람)
- 반원들과 함께 교리와 성약 45편 3~5절을 읽는다. “아버지와 우리 사이의 변호자”는 왜 필요 한가? 4절과 5절에서, 우리가 영생을 받아야 한다는 것을 보여 주기 위해 구주께서는 어떤 증거 를 아버지께 내었는가?(먼저 그분은 자신의 속죄, 즉 자신의 고난, 죽음, 그리고 피에 대해 이야기 하셨다. 그리고 나서 그분은 그분에 대한 우리의 믿음을 언급하셨다.)

## 3. 그분의 칭호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함

교리와 성약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60가지 이상의 칭호를 담고 있으며, 각각의 칭호는 그분에 대 한 특별한 존경을 나타내고 있다고 설명한다. 예를 들면, 주께서는 자신을 “구속주”, “구주”, 그리고 “세상의 빛이요 생명”으로 지칭하셨다.

반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다른 칭호를 열거하게 한다. 그들이 찾은 것을 칠판에 적는다.

- 예수님의 칭호는 그분의 속성과 그분의 사명에 관하여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가?

## 4. 그리스도의 빛

그리스도의 빛은 때때로 우리의 양심으로 불리기도 하지만, 사실 그것 이상의 것이라고 설명한다. 반원들이 그리스도의 빛에 대하여 더욱 잘 이해하도록 돕기 위해, 반원들에게 그리스도의 빛을 나타 내는 구절을 찾아보게 한다. 그리고 나서 교리와 성약 88편 6~13절, 93편 2절, 모로나이서 7장 13절, 16~19절을 읽게 한다.

- 이 구절에서 그리스도의 빛에 관하여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 있는가? (대답에는 아래에 열거된 내용이 포함될 수 있다.)
  - ㄱ. 그리스도의 빛은 “광활한 우주를 채우”며 또 “만물에게 생명을” 준다.(교리와 성약 88:12~13)
  - ㄴ. 그것은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에게 주어지는 고양시키는 영향력이다.(교리와 성약 93:2)
  - ㄷ. 그것은 우리가 선악을 분별하고 또 선을 행하도록 권유하며, 그리스도를 믿도록 도움을 준다. (모로나이서 7:13, 16~19)
- 우리는 어떻게 그리스도의 빛이 우리의 생활에서 더욱 큰 영향을 미치도록 할 수 있는가?

---

**목적** 첫번째 시현에 대한 반원들의 간증을 강화시키고, 또한 하나님께서 충만한 복음을 지상에 회복시키는 도 구였던 선지자 조셉 스미스의 선지자로서의 부름에 대한 반원들의 간증을 강화시킨다.

---

- 준비 사항**
1. 기도하는 마음으로 다음의 경전 구절과 다른 자료를 공부한다.
    - ㄱ. 조셉 스미스-역사 1:1~26.
    - ㄴ. 우리의 유산, 1~4쪽.
  2. 반원 학습 지도서(35686 320)에서 본 공과에 대한 자료를 살펴본다. 공과 시간에 자료를 참조 할 수 있는 방법을 계획한다.
  3. 반원 한 명에게 어린 시절 조셉 스미스의 다리 수술에 관한 기사를 요약하도록 준비시킨다. (우 리의 유산, 1~2쪽)
  4. 다음의 그림을 구할 수 있다면, 몇 가지를 선정하여 공과 동안 활용한다. 선지자 조셉 스미스 (62002; 복음 그림 패킷 401); 조셉 형제 (62161); 조셉 스미스가 성경에서 지혜를 찾음 (복 음 그림 패킷 402); 첫번째 시현 (62470; 복음 그림 패킷 403).
  5. 여러분이 주의 집중 활동을 활용하려면, 시계, 세계 지도 또는 지구본, 남자 옷 한 점을 가져온 다. 각 물건에 다음의 이름표를 준비한다. 적절한 시간, 적절한 장소, 적절한 사람.
- 

## 공과 전개 제언

주의 집중 활동 적절한 경우, 공과를 시작하기 위해 다음 활동이나 여러분 자신이 준비한 활동을 활용한다.

시계, 지도 또는 지구본, 그리고 그 이름표를 반원들에게 보여 준다. (“준비 사항”의 5번 항목 참조) 오늘 공과에서는 수세기 동안의 배도 상태 이후에 주님께서 그분의 복음을 회복하기 위해서 적절한 시간과 장소를 어떻게 준비하셨는가에 대해 토론한다고 설명한다.

남자 옷 한 점과 그 이름표를 반원들에게 보여 준다. 오늘 공과에서는 또한 하나님께서 어떻게 적절 한 사람, 곧 조셉 스미스를 선지자로 택하시고 준비시켜서 그를 통하여 복음을 회복하셨는가에 대해 토론한다고 설명한다.

토론 및 적용 본 공과에는 한 공과 시간 동안에 가르칠 수 있는 것보다도 많은 자료가 포함되어 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반원들의 필요 사항을 가장 잘 충족시켜 줄 수 있는 공과 자료를 선정한다.

### 1. 배도 후에, 하나님께서는 회복의 방편을 마련하셨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후에, 그분의 사도들이 교회를 관리했다고 설명한다. 그러나 곧 박해와 분열, 배도가 커져갔다. 몇 십 년 이내에, 선지자들이 예언한 것처럼 교회에서 배교가 있었다 (사도행전 20:28~30; 데살로니가후서 2:1~3; 디모데후서 4:3~4). 이 배교는 대배도로 알려 져 있다.

- 대배도의 결과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교리와 성약 1:15~16; 조셉 스미스-역사 1:8~9, 19, 21; 몰몬서 1:13~14 참조. 답에는 아래에 열거된 내용이 포함될 수 있다.)
  - ㄱ. 지상에 신권 권세가 없었다.
  - ㄴ. 지상에 사도 또는 선지자가 없었다.
  - ㄷ. 하나님의 본질에 관한 근본적인 지식을 잃어버렸다.
  - ㄹ. 복음의 교리가 순수성을 잃고 잘못된 교리가 들어와 변경되었다.
  - ㅁ. 침례와 같은 신성한 의식이 변경되었다.
  - ㅂ. 초대 교회가 서로 다투는 무리들로 나뉘어졌다.

배도의 어두움은 여러 세기 동안 계속되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것을 미리 아시고 후기에 복음의 회복을 계획하셨다. 십이사도 정원회의 브루스 알 맥쿱키 장로는 첫번째 시현이 있기 수세기 전에 복음의 회복을 위한 준비가 시작되었다고 가르쳤다.

“14세기가 시작되면서, 주님께서는 마지막 시대를 위한 복음의 회복을 더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사회적, 교육적, 종교적, 경제적, 그리고 정치적 상황들을 준비하기 시작하셨다.”(몰몬 교리, 제2판 [1966년], 717쪽)

- 조셉 스미스가 태어나기 전에, 어떤 사건들이 복음의 회복을 위한 길을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되었는가? (여러분은 반원들의 대답을 칠판에 적을 수 있다. 대답에는 아래에 열거된 내용이 포함될 수 있다.)
  - ㄱ. 르네상스는 학문, 특별히 문학, 예술, 그리고 과학의 재탄생이었다. 인쇄기와 같은 발명이 이루어졌다.
 

십이사도 정원회의 제임스 이 탈매지 장로는 이렇게 말씀했다. 르네상스는 우연히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몇 세기 후에 이루어지도록 정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회복을 위한 준비에 있어 인간의 미개한 마음을 밝혀 주기 위해 하나님의 마음에 미리 정하신 진전이었다.”(예수 그리스도, 747쪽)
  - ㄴ. 존 위클리프, 마틴 루터, 그리고 존 칼빈과 같은 종교 개혁자들이 기존의 교회가 그리스도의 가르침에서 벗어났다는 것을 인식하고는 그 교회의 관습과 가르침에 도전하기 시작했다.
 

십이사도 정원회의 엠 러셀 벨라드 장로는 이렇게 말씀했다. “마틴 루터와 다른 종교 개혁자들이 잃어버린 진리와 신권의 권세를 하나님께서 회복하실 수 있도록 종교적인 분위기를 만드는 영감을 받았습니다.”(Conference Report, 1994년 10월, 85쪽; 또는 성도의 벗, 1995년 1월호, 66쪽)
  - ㄷ. 미대륙이 발견되었다. 종교적인 사람들이 미합중국으로 이주를 하였으며 결국 독립 국가를 만들었다.(니파이전서 13:12~19)
  - ㄹ. 미합중국에서 종교적 자유를 보장하는 미합중국 헌법이 제정되었다.(교리와 성약 101:77~80)
 

벨라드 장로는 이렇게 말씀했다. “하나님께서는 초기의 미대륙의 탐험가와 식민지 개척자, 그리고 미합중국의 헌법의 초안자들이 복음을 회복할 수 있도록 나라와 통치 원리를 조성하게 영감을 주셨습니다.”(Conference Report, 1994년 10월, 85쪽; 또는 성도의 벗, 1995년 1월호, 66쪽)



## 2. 하나님께서는 조셉 스미스가 회복의 선지자가 되도록 준비시키셨다.

복음의 회복을 위한 적절한 조건을 마련하는 것 이외에도, 하나님께서는 회복의 선지자로 한 사람을 마련하셨다고 설명한다. 이 사람이 바로 조셉 스미스로 버몬트 주 샤론에서 1805년 12월 23일에 태어났다. 조셉 스미스의 그림을 보여 준다. 다음의 자료를 활용하여 조셉 스미스를 회복의 선지자로 준비시키는 것에 대해 토론한다.

### 조셉의 가족이 그를 준비시키는 데 도움을 주었다

조셉 스미스는 영적으로 풍부한 유산을 가진 가정 출신이었다. 그의 부모와 조부모는 종교적이고, 애국적이었으며 또 교육에 열심이었을 뿐 아니라 도덕적으로 강한 신념을 지니신 분들이었다. 그의 친할아버지인 아사엘 스미스는 조셉이 태어나기 오래 전에 “내 후손 가운데서 한 사람이 종교계를 근본적으로 바꾸어 놓을 일을 시행할 것이라는 생각을 내 마음속에 품어 왔다.”고 말했다.(조셉 필딩 스미스, *Essentials in Church History*, 27판 [1974년], 25쪽)

조셉 스미스의 부모인 조셉 스미스 일세와 루시 맥 스미스는 조셉의 생애에 커다란 영향을 주었다. 두 사람 모두 하나님에 대한 신앙심이 깊은 사람들이었다. 그들은 또한 헌신적인 부모였으며, 자녀들에게 신앙과 의의 원리를 가르쳤다.

조셉의 부모는 깊은 종교적 경험을 지니고 있었다. 조셉 스미스 일세는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복음의 축복을 누리게 될 것이라는 확신을 주는 꿈을 여러 차례 꾸었다.(루시 맥 스미스, *History of Joseph Smith*, ed. Preston Niebley[1958년], 47~50, 64~66쪽) 한번은 루시 맥 스미스가 젊은 어머니로서 매우 아프게 되었을 때, 그녀는 하나님께서 자기의 생명을 살려 주셔서 가족을 돌볼 수 있게만 해주신다면 하나님을 온전하게 섬기겠다고 하나님과 성약을 맺었다. 곧 그녀는 그녀에게 위안을 주는 음성을 들었으며, 그녀는 놀랄 만큼 빠르게 회복되었다.(*History of Joseph Smith*, 33~35쪽)

조셉 스미스 일세와 루시는 종교적 진리를 열심히 찾았다. 두 사람은 모두 기존의 어느 교회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교회와는 일치하지 않는다고 느꼈다. 이러한 이유로, 조셉 스미스 일세는 어느 교회에도 가입하지 않았다. 루시는 침례 받는 것이 자신의 의무라고 느껴서 장로 교회에 가입했다. 복음이 회복되었을 때, 두 사람은 진리를 알아보고 그것을 받아들였다.

- 회복의 선지자로서 조셉 스미스를 그의 사명에 대해 준비시키는 데 가족의 유산은 왜 중요한가?

### 역경이 그를 준비시키는 데 도움이 되었다

조셉 스미스가 성장하는 동안, 그와 그의 가족은 많은 어려움에 직면했다. 일곱 살이었을 때, 그는 다리가 감염되어 매우 아프게 되었다. 지명한 반원에게 *우리의 유산*, 1~2쪽에서 이와 관련된 기사를 요약해 주도록 부탁한다.

- 우리는 이 경험에서 어린 조셉 스미스의 성품에 관해 무엇을 배울 수 있는가? 조셉의 어린 시절에 있었던 시련과 고난이 어떻게 회복의 선지자가 되도록 그를 준비시키는 데 도움이 되었는가? 시련과 고난이 어떻게 여러분이 받은 책임들에 대해 여러분을 준비시키는 데 도움이 되었는가?

### 뉴욕 서부에서의 종교적인 분위기가 그를 준비시키는 데 도움이 되었다

조셉 스미스가 열 살이었을 때, 버몬트에서 3년 동안 흉년이 들어 스미스 가족은 재정적으로 심각한 어려움에 빠지게 되었다. 심사 숙고한 끝에 그 가족은 좀 더 좋은 농업 환경이 예상되는 뉴욕 주 팔마이라 지역으로 이사를 했다. 그 당시에 뉴욕 서쪽 지방에는 개종자들을 확보하려고 다투는 많은

교회 때문에 커다란 종교적 열광과 혼란이 있었다.

- 조셉이 어느 교회에 가입해야 할 것인가에 관해 혼란스러웠던 이유는 무엇인가?(조셉 스미스-역사 1:5~10 참조) 오늘날 진리를 찾고자 하는 사람들의 상황과 조셉의 상황은 어떻게 유사한가?
- 조셉이 이 혼란을 해결하는 데 경전 공부가 어떻게 도움이 되었는가?(조셉 스미스-역사 1:11~12 참조. 성경을 읽고 있는 조셉 스미스의 그림을 보여 준다.) 조셉의 예에서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 있는가? (여러분은 조셉 스미스가 경전을 읽었을 뿐만 아니라 또한 경전을 연구하고 상고했으며 나아가 그것을 생활에 적용했다고 강조할 수 있다.) 여러분이 곤경에 처해 있거나 혼란스러울 때 경전이 어떻게 도움이 되었는가?

### 3. 첫번째 시현이 복음의 회복의 시작을 알렸다.

1820년 어느 봄날 아침에 조셉 스미스는 집 근처 숲으로 가서 인도를 구하는 기도를 드렸다고 설명한다.

- 이 날 아침 조셉의 기도는 그가 드렸던 다른 기도와 어떻게 달랐는가?(조셉 스미스-역사 1:14 참조) 우리가 우리 가슴에 담긴 소망을 하나님께 기도드릴 때, 은밀히 소리내어 드리는 기도가 도움이 되는 이유는 무엇인가?
- 조셉 스미스가 기도드리기 시작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조셉 스미스-역사 1:15 참조) 이 강력한 암흑에서 그는 어떻게 구출되었는가?(조셉 스미스-역사 1:16~17 참조. 첫번째 시현 그림을 보여 준다.) 사탄의 영향력을 극복하는 것에 관하여 이 경험에서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 있는가? 암흑과 시련의 시기에 기도를 계속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무엇인가?(반원들에게 그러한 어려움 속에서 기도가 도움이 되었던 경험을 이야기해 주도록 권유한다.)
- 조셉 스미스는 왜 어느 교회에도 가입해서는 안 된다는 명령을 받았는가?(조셉 스미스-역사 1:18~19 참조.)

### 4. 많은 진리가 첫번째 시현에서 밝혀졌다.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이 조셉 스미스를 방문한 것은 교리적으로 중요한 것을 많이 포함하고 있다고 강조한다. 고든 비 힝클리 회장은 이렇게 말씀했다. “조셉 스미스가 아버지와 아들과 함께 있었던 그 몇 분 동안, 그는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와 부활하신 주님의 본성에 관해 여러 세기 동안 그 많은 토론을 통해 공부한 모든 학식 있는 이들보다 더 많은 것을 배웠다고 저는 생각합니다.”(*Church News*, 1998년 10월 24일, 6쪽)

- 우리가 첫번째 시현에서 배울 수 있는 진리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대답을 칠판에 요약한다. 아래에 열거된 내용들이 대답에 포함될 수 있다.)
  - ㄱ.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 계시다.
  - ㄴ. 아버지와 아들은 실재하며, 살과 뼈로 된 영화로운 육체를 지니신 별개의 존재이다.
  - ㄷ.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
  - ㄹ. 사탄과 그의 힘은 실재하지만, 하나님의 힘은 무한하게 더 크다.
  - ㅁ.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며 또한 우리를 보살피 주신다.
  - ㅂ. 지상의 어떤 교회도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음을 갖고 있지 않았다.
  - ㅅ. 계시는 그치지 않았다.

제9대 교회 회장이었던 데이비드 오 맥케이 회장은 이렇게 증거했다. 첫번째 시현은 “하나님과 그분의 신성한 특성에 관한 모든 [질문에] 답을 주었다. … 그분과 그분의 자녀와의 관계가 명확해진 것이다. 인간에게 위임된 권한을 통해 인간에 대해 갖고 있는 그분의 관심이 명백해졌다. 그분의 사업의 미래가 보장된 것이다. 이러한 진리와 다른 영화로운 진리가 그 영화로운 첫번째 시현에 의해 명확하게 되었다.” (*Gospel Ideals* [1954년], 85쪽)

- 십이사도 정원회에서 봉사할 때, 에즈라 태프트 벤슨 장로는 이렇게 말씀했다. “구주께서 부활하신 이래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소년 조셉 스미스에게 나타나신 일은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기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Conference Report, 1971년 4월, 20쪽; *성도의 벗*, 1972년 4월호, 13쪽) 우리 각자가 첫번째 시현에 대한 간증을 갖는 것은 왜 중요한가? 첫번째 시현에 대한 간증이 어떻게 우리 생활에 축복이 되었는가?

## 결론

“나는 실제로 빛을 보았고”로부터 시작하여 조셉 스미스-역사 1장 25~26절을 읽는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복음의 회복을 위하여 적절한 시간, 적절한 장소, 그리고 적절한 사람을 준비시키셨는가를 요약한다. 첫번째 시현과 그 중요성에 관한 여러분의 간증을 전한다. 여러분은 또한 고든 비 힝클리 회장의 다음 간증을 읽어 줄 수 있다.

“1820년 어느 봄날 아침에 가장 놀라운 나타나심이 있었습니다. 바로 아버지와 아들이 소년 조셉 스미스에게 나타나신 것입니다. … [그 시현에 대한] 간증은 여러 나라에서 수백만 명의 사람들의 가슴에 감동을 가져다주었습니다. 저는 이 놀라운 사건에 대한 선지자 조셉 스미스의 설명이 참되다는 것,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와 부활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우리가 대화를 나누는 것처럼 그때에 조셉과 함께 실제로, 그리고 직접 친밀한 대화를 나누었다는 점에 대해 주님의 영이 저에게 주신 제 자신의 증거를 덧붙입니다.”(*Be Thou an Example* [1981년], 10쪽)

## 추가로 가르칠 개념

여러분은 제언된 공과 개요를 보충하기 위해 다음 개념 가운데서 한 두 가지 개념을 활용할 수 있다.

### 1. 비디오 발표

*교리와 성약 및 교회사의 가르침*(53933 320) 비디오를 구할 수 있다면, “진리의 추구”(16분)를 보여 주는 것을 고려한다. 이 비디오는 훗날 제4대 교회 회장이 된 월포드 우드럽의 개종 이야기를 담고 있다. 또한 배도와 이에 따른 복음의 회복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있다.

반원들이 비디오 발표 자료를 보기 전에, 월포드 우드럽이 참된 복음을 찾으면서 열거했던 네 가지 사항을 찾아보도록 그들에게 부탁한다.(선지자와 사도, 신권 권세, 올바른 교리, 구원의 의식)

*교리와 성약 및 교회사 비디오 발표 자료*(53912 320)를 구할 수 있다면, “첫번째 시현”(9:44)을 보여 주는 것을 고려한다.

### 2. 청소년으로서의 조셉 스미스의 모범

청소년을 가르치는 교사는 조셉 스미스가 첫번째 시현을 받았을 때 겨우 14세였음을 강조할 수 있다.

- 청소년으로서 조셉 스미스가 보여 준 행위가 어떻게 오늘날 젊은이들에게 모범을 보여 줄 수 있는가? 조셉의 모범은 여러분이 진리를 알기 위해 무척 애쓸 때 여러분에게 어떻게 도움이 될 수 있는가?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반대하거나 여러분을 조롱할 때 여러분에게 어떻게 도움이 되는가? 그러한 조롱에 직면하여 여러분이 어려운 결정을 내려야 할 때 여러분에게 어떻게 도움이 되는가?

# “새 성약 곧 몰몬경 ... 을 기억하여”

**목적**

반원들이 몰몬경의 출현 과정에서 주님의 손길이 있었음을 인식하도록 도우며, 또 몰몬경을 공부하고, 그 가르침에 따르며, 다른 사람에게 전하도록 격려한다.

**준비 사항**

1. 기도하는 마음으로 다음의 성구와 다른 자료를 공부한다.
  - ㄱ. 조셉 스미스-역사 1:27~65; 교리와 성약 3편; 5편; 10편; 17편; 20:5~15; 84:54~62.
  - ㄴ. *우리의 유산*, 5~10쪽.
2. *반원 학습 지도서*(35686 320)에서 본 공과에 대한 자료를 살펴본다. 공과 시간에 자료를 참조할 수 있는 방법을 계획한다.
3. 반원 한 명을 지명하여 116쪽의 원고를 잃어버린 마틴 해리스의 이야기를 준비하여 요약하도록 부탁한다. 그 반원에게 교리와 성약 3편, 10편의 해설 부분들, 그리고 *우리의 유산*, 7~8쪽에 있는 “번역 작업”의 처음 세 단락을 참조하게 한다.
4. 다음의 그림을 구할 수 있다면, 준비하여 공과 중에 활용한다. 조셉 스미스의 방에서 조셉에게 나타난 모로나이 (62492; 복음 그림 패키지 404) 및 조셉 스미스가 금판을 받음 (62012; 복음 그림 패키지 406)

**공과 전개 제언**

주의 집중 활동

적절한 경우, 공과를 시작하기 위해 다음 활동이나 여러분이 준비한 활동을 활용한다. 칠판에 다음 글을 적는다. 반원들에게 이 글의 의미를 아는지 물어본다.



여러분이 “몰몬경”이라는 글을 일본어, 러시아어, 아랍어로 적었다고 설명한다. 이 경륜의 시대에서 보잘것없이 시작된 몰몬경은 온 세상에 살고 있는 수백만 명의 사람들의 생활에 축복을 가져다 주었다. 본 공과에서는 몰몬경의 기적과 “몰몬경으로 온 세상과 우리의 생활을 덮”어야 하는 우리의 책임에 대해 토론할 것이다.(에즈라 태프트 벤슨, Conference Report, 1989년 4월, 3쪽; 또는 성도의 벗, 1989년 7월호, 4쪽)

기도하는 마음으로 반원들의 필요 사항을 가장 잘 충족시켜 줄 수 있는 공과 자료를 선정한다. 여러분은 본 공과를 나누어 두 번에 걸쳐 가르칠 수 있다.

### 1. 물몬경을 받아서 번역하기 위한 조셉 스미스의 준비

- 첫번째 시험 이후로 삼 년 동안, 조셉 스미스는 “심한 핍박”을 겪었으나 자신의 간증을 충실히 지켰다.(조셉 스미스-역사 1:27) 핍박을 받을 때에도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간증을 충실히 지킬 수 있는가?
- 조셉이 17세가 되었을 때, 그는 모로나이의 방문을 받았다.(필요하다면, 모로나이가 물몬경에 기록을 추가한 마지막 선지자였으며 서기 421년경에 금판을 문었다고 설명한다.) 모로나이가 그에게 나타났던 날 밤에 조셉은 무엇을 위해 기도를 하고 있었는가?(조셉 스미스-역사 1:28~29 참조) 우리의 “약점과 불완전함으로 인해 정죄”받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 우리는 조셉의 모범으로부터 무엇을 배울 수 있는가?(적절한 경우, 반원들에게 그들이 하나님을 실망시킨 것 같은 느낌이 들 때 기도가 어떻게 그들에게 도움이 되었는지를 말해 주도록 권유한다.)

조셉 스미스-역사 1장 30~59절을 요약한다. 반원들에게 선정한 구절을 소리내어 읽게 한다. 적절한 때에, 조셉 스미스에게 나타난 모로나이의 그림과 판을 받고 있는 조셉의 그림을 보여 준다. 여러분은 또한 본 교재의 274쪽과 반원 학습 지도서 29쪽에 있는 지도 1을 참조할 수 있다.

- 처음으로 금판을 보았을 때, 조셉 스미스는 그것을 받아서 번역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 주님께서는 조셉이 판을 받아서 번역할 수 있도록 그를 어떻게 준비시키셨는가?(조셉 스미스-역사 1:33~35, 42, 44~46, 53~54 참조) 주님께서는 여러분이 책임을 성취하도록 어떻게 여러분을 준비시키셨는가?(또는 그분께서는 지금 여러분을 어떻게 준비시키고 계신가?) 미래에 부여 받게 될 책임을 성취하도록 여러분은 자신을 어떻게 준비시킬 수 있는가?
- 조셉이 모로나이에 관해 아버지에게 말했을 때, 아버지는 어떻게 반응했는가?(조셉 스미스-역사 1:50 참조) 이것은 조셉의 성실성과 신뢰받음에 관해 무엇을 말해 주고 있는가? 가족 안에서 식구들이 주님을 따르려 애쓸 때 그 식구들을 지지해주는 것은 왜 중요한가? 식구나 다른 사람들이 주님을 따르려 할 때 우리는 어떻게 그들을 더 잘 지지해 줄 수 있는가?

### 2. 물몬경 보존의 기적

사탄이 물몬경이 나타나는 것을 막으려 노력했다고 설명한다. 그는 사람들을 유혹하여 금판을 훔치려 하였으며 또 사람들은 계속해서 조셉 스미스와 그 가족을 핍박했다.(조셉 스미스-역사 1:60~61 참조) 하지만 주님께서는 물몬경의 출현을 방해하려는 사탄의 모든 시도를 무산시키셨다.

조셉 스미스의 서기 가운데 한 사람이었던 마틴 해리스가 116쪽의 번역된 원고를 잃어버렸을 때, 물몬경이 기적으로 보존되었던 한 예가 일어났다. 지명한 반원에게 이 이야기를 요약해 주도록 부탁한다.(“준비 사항” 3 참조) 그리고 나서 원고를 잃어버리고 난 후에 주님께서 계시하여 주셨던 교리와 성약 3편과 10편을 가르치고 토론한다.

- 116쪽의 원고를 잃어버린 후, 주님께서는 하나님보다도 사람을 더 두려워했던 것에 대해 조셉을 징계하셨다.(교리와 성약 3:7) 조셉은 한 동안 번역의 은사를 잃어버리게 되었다.(교리와 성약 3:14; 10:1~2 참조) 어떠한 면에서 조셉은 하나님보다도 사람을 더 두려워했는가? 우리의 행동이 때때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보다도 사람을 더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 줄 수 있는가?(교리와 성약 30:1~2 참조. 우리가 또래 집단으로부터의 압력에 굴복하여 그릇된 것을 행하는 것이 한 예이다.) 인간에 대한 우리의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는

가?(이 질문에 대한 답에 대해서는 교리와 성약 3:8; 10:5 참조)

- 116쪽의 원고가 분실된 이후에 조셉 스미스에 대한 주님의 사랑이 어떻게 명백하게 나타났는가?(교리와 성약 3:8~10; 10:1~3 참조) 여러분이 충실하다면, 하나님께서는 “고난의 때마다 나와 함께” 할 것이라는 점을 여러분은 어떤 경험을 통해 알게 되었는가?(교리와 성약 3:8) “하나님은 자비”롭다는 점을 어떤 경험을 통해 여러분은 알게 되었는가?(교리와 성약 3:10)
- 116쪽의 원고를 훔쳤던 사람들의 계획은 어떤 것이었는가?(교리와 성약 10:10~19, 29~33 참조. 만일 조셉이 잃어버린 자료를 다시 번역하였다면, 그들은 원고에서 그 표현을 변경했을 것이다. 그들은 변경시킨 원고를 다시 번역한 것과 대조하여 두 개의 번역이 서로 상이하다는 것을 증명하려 하였을 것이다.)
- 원고를 훔쳤던 사람들의 계획을 무산시키기 위해 주님께서는 수세기 전에 이미 어떤 조치를 해 놓으셨는가?(교리와 성약 10:38~39 참조; 또한 니파이전서 9:2~5; 몰몬의 말씀 1:3~7 참조. 주님께서는 원고의 분실을 미리 아셨다. 약 2,400년 이전에, 주님께서는 니파이인들의 세속적인 역사를 적고 있던 니파이에게 영감을 주셔서 다른 기록을 준비시켰다. 이 기록에는 같은 기간 동안에 있었던 니파이인들의 성역의 기록이 담겨져 있었으며 첫 번째 것보다 더욱 큰 교리적 가치를 지니고 있었다.)
- 원고를 훔쳤던 사람들의 계획을 무산시키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선지자에게 무엇을 행하도록 가르침을 주셨는가?(교리와 성약 10:40~45 참조. 조셉은 116쪽의 원고를 니파이인들의 세속적인 역사에서 번역했다. 주님께서는 조셉에게 그 자료를 다시 번역하지 말고 니파이의 다른 기록에서 번역하도록 명하셨다.)
- 잃어버린 원고에 관한 이야기는 주님의 힘에 관하여 무엇을 가르쳐 주고 있는가?(반원들이 이 질문에 대해 토론할 때, 다음 구절을 읽게 한다. 교리와 성약 3:1~3; 10:14, 43; 니파이전서 9:6) 우리가 방해와 실망을 경험할 때, 이러한 지식이 우리에게 어떻게 도움이 될 수 있는가?
- 반원들에게 교리와 성약 3편 16절, 19~20절, 10편 46~52절, 60~66절을 읽게 한다. 이 구절에서 우리는 몰몬경의 목적에 관하여 무엇을 배울 수 있는가? 이러한 목적은 오늘날 어떻게 성취되고 있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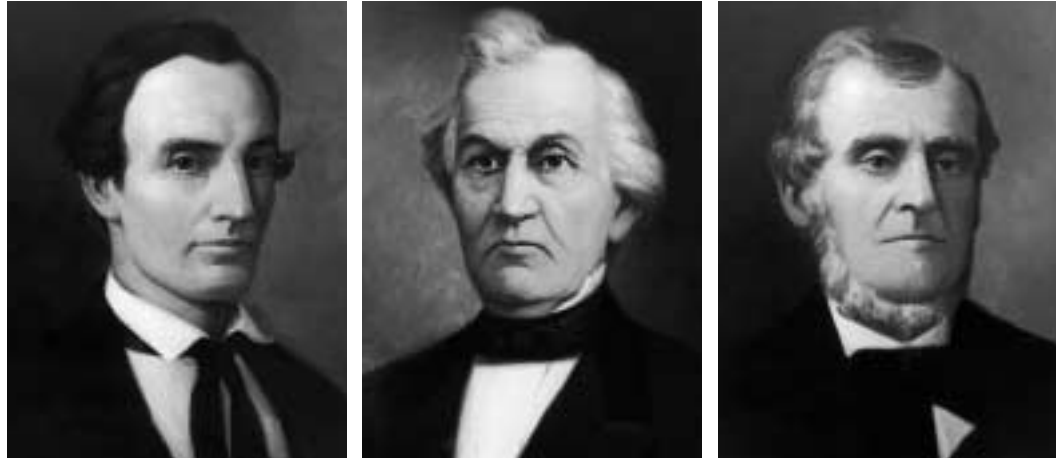
### 3. 몰몬경의 증인

- 몰몬경을 번역하면서, 조셉은 주님께서 세 명의 증인과 소수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판을 보게 하실 것임을 알았다.(니파이후서 27장 12~14절과 이더서 5장 1~3절에 있는 증인에 관한 내용을 참조한다.) 세 명의 증인은 누구인가? (몰몬경, “세 증인의 증언” 참조) 그들은 무엇을 하라는 명을 받았는가?(교리와 성약 5:11~15, 24~25; 17:3, 5) 그들의 간증은 왜 중요한가?(이더서 5:4; 교리와 성약 5:16~18; 17:4 참조)

세 증인 이외에도, 다른 여덟 사람에게 금판이 보여졌다고 설명한다.(몰몬경, “여덟 증인의 증언” 참조) 세 증인 모두와 여덟 증인 중 세 명이 훗날 교회를 떠났다. 몇몇 사람만이 다시 돌아왔으나 어느 누구도 (돌아오지 않은 사람들을 포함해서) 자신이 본 것에 대한 자신의 간증을 부인하지는 않았다.

생애 마지막 해에 데이비드 휘트머는 그릇된 비난에 대응하여 이러한 간증을 출판했다.

“*아메리칸 백과사전과 브리태니커 백과사전*에는 나 데이비드 휘트머가 몰몬경의 신성에 대한 세 증인 가운데 한 사람으로서 내 자신의 간증을 부인하였으며, 또한 다른 두 증인인 올리버 카우드리와 마틴 해리스가 그 책에 대한 자신들의 간증을 부인했다고 기록되어 있다. 내가 다시 한 번 온 인류



세 증인. 올리버 카우드리, 데이비드 휘트머, 마틴 해리스.

에게 말하건대, 나는 어느 때에도 내 간증 전부 또는 그 일부라도 부인한 적이 없다. 또한 올리버 카우드리나 마틴 해리스 어느 사람도 그들의 간증을 어느 때에도 부인한 적이 없음을 세상에 증거하는 바이다. 그 두 사람은 몰몬경의 신성한 출처의 참됨을 재차 확인하고 사망했다.”(*Address to All Believers in Christ* [1887년], 8쪽. 다음 책에서 인용함, B. H. Roberts, *A Comprehensive History of the Church*, 1:145)

구주께서 또한 몰몬경의 증인이 된다는 점을 지적한다. 반원들과 함께 교리와 성약 17편 6절과 19편 26절을 읽는다.

- 어떠한 방법으로 우리는 몰몬경의 증인이 될 수 있는가?(모로나이서 10:3~5 참조. 여러분은 반원들에게 몰몬경에 대한 간증을 하도록 권유할 수 있다.)

세 증인과 여덟 증인이 그들이 보고 들은 것에 대해 증거했음을 강조한다. 오늘날 수백만 명의 교회 회원들이 성신의 증거를 느꼈기 때문에 몰몬경에 대해 증거하고 있다. 십이사도 정원회에서 봉사할 때, 고든 비 힝클리 장로는 이렇게 말씀했다.

“교회의 힘은 ... 온 세계에 널리 퍼져 있는 교회 건물에 있는 것도 아니요, 대학교 ... 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이 교회의 힘은 성도들의 마음에 자리잡고 있으며, 이 사업이 참된 것임을 아는 간증과 확신에서 나옵니다.”(*Conference Report*, 1973년 4월, 73~74쪽; 또는 *성도의 벗*, 1974년 2월 호, 44쪽)

#### 4. “새 성약 곧 몰몬경 ... 을 기억”해야 할 우리의 의무

- 1832년 9월에 선지자 조셉 스미스는 한 편의 계시를 받았는데 주님께서는 그곳에서 “온 교회”가 “정죄 받”고 있다고 말씀하셨다.(교리와 성약 84:55) 왜 온 교회가 정죄받고 있었는가?(교리와 성약 84:54~56 참조) 이 정죄가 거두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교회 회원들은 무엇을 할 필요가 있었는가? (교리와 성약 84:57~58, 60~62 참조.)

에즈라 태프트 벤슨 회장의 다음 말씀을 읽는다.

“초기의 성도들이 몰몬경을 가볍게 대함으로 꾸짖음을 받았을진대, 우리가 그와 같이 행한다면, 그보다 저주를 덜 받게 됩니까?”(*Conference Report*, 1986년 10월, 4쪽; *성도의 벗*, 1987년 1월 호, 5쪽)

“주님께서는 그리스도의 새로운 증인인 몰몬경에 대한 우리의 태도에 대해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몰몬경은 우리 가정에 필요하며, 우리 가족들은 그것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그 책은 오늘날의 우리를 위해 기록된 것입니다.”(Church News, 1986년 11월 9일, 10쪽)

- 우리의 개인 생활에서, 우리의 가족 가운데서, 그리고 우리의 교회 부름에서 몰몬경에 더욱 많은 관심을 쏟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우리가 몰몬경에 당연히 쏟아야 할 만큼의 관심을 쏟을 때 우리에게 어떤 축복이 오는가? 몰몬경을 공부하면서 여러분은 어떻게 축복을 받았는가? (반원들의 생각을 묻고, 그들에게 다음 인용문과 몰몬경의 소개 중 여섯 번째 단락을 읽게 한다. 또한 추가로 가르칠 개념 3 참조)

에즈라 테프트 벤슨 회장은 이렇게 선언했다.

“그 책 속에는 그 책을 진지하게 연구하는 순간부터 여러분의 생활에 흘러들어오기 시작하는 권능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유혹을 물리치는 더 큰 힘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속임수를 피하는 힘을 찾게 됩니다. 여러분은 ‘협착하고 좁은 길’에 머물러 있을 수 있는 힘을 찾게 됩니다. 경전은 ‘생명의 말씀’(교리와 성약 84:85)이라 불리는데, 몰몬경만큼 그 용어에 더 잘 들어맞는 말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그러한 말씀에 ‘주리고 목마르기’ 시작할 때, 여러분은 ‘더욱 풍요한 삶’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 [여러분의] 가정이 더 큰 사랑으로 넘치게 되고 조화를 이루게 되며, 부모와 자녀 사이에 존경심이 더 커지게 되고, 영성과 의로움이 증가되는 것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벤슨 회장은 이렇게 확인했다. “이러한 약속은 헛된 약속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더욱 가까이 나아가는 데 몰몬경이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선지자 조셉 스미스가 말씀하신 바로 그 의미입니다.”(Conference Report, 1986년 10월, 6쪽; 또는 성도의 벗, 1987년 1월호, 6~7쪽)

- 구주께서는 우리에게 온 세상에 나아가 몰몬경에 대한 증언을 전하라고 명하셨다.(교리와 성약 84:62; 또한 다음 인용문 참조) 우리는 이러한 노력을 더욱더 촉진하기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가?

벤슨 회장은 이렇게 말씀했다. “몰몬경으로 지상이 차고 넘치도록 할 때가 많이 지연된 감이 있습니다. 현재와 같은 전자 매체와 인쇄물의 대량 유통 시대에, 우리가 획기적인 방법으로 몰몬경의 보급을 서두르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책임을 물으실 것입니다. 우리는 몰몬경을 가지고 있으며, 회원들과 선교사들도 있고, 자원도 있습니다. 세상은 그것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때는 지금입니다.”(Conference Report, 1988년 10월, 4쪽; 또는 성도의 벗, 1989년 1월호, 5쪽)

보잘것 없는 환경에 처해 있던 젊은 선지자에 의해 번역된 몰몬경이 이제는 참으로 지상을 덮고 있다고 지적한다. 몰몬경 또는 몰몬경의 발췌본이 90개 이상의 언어로 출판되었으며 1억 부 이상이 인쇄되었다.

## 결론

몰몬경에 대해 감사를 표하고, 그 책의 출현 과정에서 주님의 손길이 있었음을 인정한다. 생활에서 몰몬경에 더욱더 큰 관심을 쏟도록 반원들을 격려한다.

몰몬경이 여러분의 삶에 주었던 영향에 대해 간증한다.



**추가로 가르칠 개념**

여러분은 제언된 공과 개요를 보충하기 위하여 다음 개념 가운데서 한 가지 이상을 활용할 수 있다.

**1. 모로나이가 조셉 스미스에게 인용하였던 성경상의 예언**

조셉 스미스-역사 1장 36~49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모로나이는 조셉 스미스에게 성경 상의 예언을 네 번 인용했다. 반원들과 함께 각 예언을 읽고 또 그 의미와 성취에 대해 토론한다.

ㄱ. 말라기 3장.(모로나이는 이 장의 일부만을 인용한 점에 유의한다.)

ㄴ. 말라기 4장.(조셉 스미스-역사 1:37~39 참조)

ㄷ. 이사야 11장.(교리와 성약 113:1~6 참조)

ㄹ. 사도행전 3:22~23

ㅁ. 요엘 2:28~32

**2. 교리와 성약: 몰몬경에 대한 외적인 증언**

에즈라 태프트 벤슨 회장은 이렇게 가르쳤다. “몰몬경에 대한 증인들을 제외하면 교리와 성약은 단연 몰몬경이 참되다는 것에 대해 주님으로부터 우리가 받은 가장 훌륭한 대외적인 증언이며 증거입니다.” (Conference Report, 1987년 4월, 105쪽; 또는 성도의 빛, 1987년 7월호, 94쪽)

벤슨 회장은 교리와 성약에서 몰몬경을 증거하고 있는 13편의 계시를 지칭했다. 교리와 성약 1, 3, 5, 8, 10~11, 17~18, 20, 27, 42, 84, 135편. 여러분은 공과를 가르칠 준비를 하면서 이 계시들을 공부할 수 있다.

**3. 몰몬경을 통해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나아감**

선지자 조셉 스미스는 이렇게 말하였다. “나는 형제들에게 몰몬경은 지상의 어떠한 책보다도 가장 정확한 책이며, 우리 종교의 종석이고, 다른 어떤 책보다 이 책의 교훈대로 생활한다면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교회 정사, 4:461)

에즈라 태프트 벤슨 회장은 이 말을 인용하고는 이렇게 물었다.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는 하나님에게 더욱 가까이 나아가며, 일상 생활에서 더욱 그와 같이 되고자 하며, 그분이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느끼기를 소망하는 마음이 자리잡고 있습니까? 그럴진대 몰몬경은 다른 어떤 책보다도 우리가 그와 같이 행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Conference Report, 1986년 10월, 6쪽; 또는 성도의 빛, 1987년 1월호, 6쪽)

**4. “하나님의 은사와 권능으로 번역한 몰몬경을”(교리와 성약 135:3)**

조셉 스미스는 약 65일(실제로 번역한 날의 수) 동안 일하여 몰몬경의 번역을 완료했다.(질의 응답, *Ensign*, 1988년 1월호, 46~47쪽) 십이사도 정원회의 닐 에이 맥스웰 장로는 이 작업의 진행 속도에 대해 이렇게 언급했다.

“일본의 한 유능한 후기 성도 번역사가 참고 서적, 언어 사전, 그리고 필요할 때에는 언제든지 도움 준비가 되어 있는 번역사 동료들이 주변에서 대기하고 있는 가운데 하루에 한 페이지 정도를 세심하게 완결했다면 그날은 번역을 많이 한 날로 생각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근대 일본어에서 현대 일본어로 다시 번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50명이 넘는 유능한 영어 학자가 먼저 나온 성경을

활용하여 7년간이나 애쓰고 노력하여 흥정역 성경을 만들었는데, 이것은 하루에 평균 한 페이지의 속도로 일한 것이었습니다. 선지자 조셉 스미스는 때때로 하루에 10페이지나 번역할 때도 있었습니다.”(see the bulletin *Insights: An Ancient Window* [Provo, Utah: Foundation for Ancient Research and Mormon Studies(F.A.R.M.S.), 1986년 2월], 1쪽)

“몰몬경 번역 과정에서 또 다른 놀라운 점은 우리가 알고 있는 자료를 토대로 볼 때, 조셉이 이미 번역했던 것을 다시 거슬러 올라가거나, 살펴보거나, 또는 수정했던 적이 거의 없었다는 것입니다. 번역에는 안정적인 흐름이 있었습니다.…

“에머 스미스는 이 영감받은 작업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식사 후 또는 휴식 후에, [조셉은] 원고를 보거나 또는 그 일부를 자신에게 읽게 하는 법이 없이 그가 멈추었던 곳에서 즉시 다시 시작했습니다.’(“Last Testimony of Sister Emma”, *Saints’ Herald*, 1879년 10월 1일, 290쪽) 다른 사람의 경우에는 구술하다가 멈추게 되면 대체로 ‘자, 이제 우리가 어디 할 차례지요?’ 라고 물으며 다시 작업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러나 선지자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만일 누군가가 책을 쓰고 있다면, 그 사람은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끊임없이 그 내용을 대조하고, 편집하며 수정할 필요가 있게 됩니다. 만일 선지자가 구술을 하고 그 내용을 광범위하게 수정하였다면, 그것에 대한 많은 증거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신성하게 주어진 글을 수정할 필요가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번역 과정의 상세한 사항이 어떠했든 간에, 우리는 참으로 놀라운 과정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하나님의 은사와 권능으로”, *Ensign*, 1997년 1월호, 39~40쪽)

오늘날 몰몬경이 많은 언어로 번역되어짐에 따라, 기적이 계속 일어나고 있다. 가나의 교회 회원인 프리실라 샘슨-데이비스가 전한 다음 이야기를 들려준다.

“제가 침례를 받고 이년쯤 후에, 저에게 시현이 있었습니다. …제가 성찬식에 참석하고 있었는데, 흰 옷을 입은 어떤 사람이 오더니 연단 앞에 서서 저를 부르는 것을 시현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앞으로 나아가서 그 사람 옆에 섰는데, 그가 저에게 돌아서서 사람들의 얼굴을 쳐다보고 그들이 성찬식에 기쁜 마음으로 참석하고 있는지를 보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들을 바라보고는 그들의 얼굴에서 어떤 다른 점도 찾을 수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흰옷을 입은 그가 저에게 자세히 살펴보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회중 가운데서 몇몇 사람이 머리를 숙이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그들이 찬송에 참여하지 않고 있는 이유를 물었습니다. 저는 그에게 그 사람들이 영어를 읽을 수 없으니, 노래를 할 수 없고, 그래서 머리를 숙이고 있다고 말해 주었습니다. 그는 제게 그 형제자매들을 도와서 …그들이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하는 데 참여하도록 할 의향이 있는지를 물었습니다. 저는 판테[사람들이 쓰는 통용어]어를 말할 줄은 알았지만, 그것을 글로 쓸 줄은 잘 몰랐습니다. 그러나 저는 못하겠다고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 보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시현이 거두어졌습니다. 그 즉시 자리에서 일어나 종이와 연필을 집어들고는 찬송가 이스라엘의 구주를 판테어로 번역하기 시작했습니다.”

샘슨-데이비스 자매는 찬송가와 일부 선교사 소책자, 복음 원리 교재를 번역했다. 그 후에 임무 지명을 받아, 그녀는 몰몬경, 교리와 성약, 그리고 값진 진주를 번역하는 데 일조했다. 그녀는 이렇게 말했다. “경전에서는 후기에 사람들이 그들의 언어로 복음을 듣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제가 하기를 원하셨던 일이었으며,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그분의 은혜 덕분이었습니다.” (“An Instrument in His Hands”, “*All Are Alike unto God*”, ed. E. Dale LeBaron [1990년], 40~42쪽)

### 5. “마련된 힘 ... 이상으로 더 빨리 달음질하거나 더 일하지 말라”(교리와 성약 10:4)

- 조셉 스미스가 몰몬경의 번역이라는 엄청난 작업에 직면했을 때, 주님께서는 어떤 권고를 그에게 주셨는가? (교리와 성약 10:4~5 참조) 우리가 어려운 일 또는 책임에 직면했을 때 이 권고가 어떻게 우리에게 도움이 되었는가?

### 6. 비디오 발표

*교리와 성약과 교회사의 가르침*(53933 320) 비디오를 구할 수 있다면, “하나님의 일과 계획”을 보여 주는 것을 고려한다. 13분짜리인 이 비디오 단편은 잃어버린 116쪽의 원고에 관한 이야기이다. 이것을 활용하여 “하나님의 여러 일과 계획과 목적은 좌절될 수 없으며, 허사가 될 수도 없”다는 점을 강조한다.(교리와 성약 3:1) 이 원리를 토론하기 위하여, 본 공과의 두 번째 부분에 있는 질문들을 활용한다.

*교리와 성약 및 교회사 비디오 발표 자료*(53912 320)를 구할 수 있다면, “몰몬경을 발견한 팔리 피 프랫”(11분)을 보여 주는 것을 고려한다. 발표 자료를 보여 준 후에 다음 질문에 대해 토론한다.

- 몰몬경을 처음 발견했을 때의 팔리 피 프랫처럼 여러분도 몰몬경을 읽을 때 것처럼 커다란 기쁨을 찾았는가? 여러분의 생활에서 몰몬경이 지금보다 더 중심적인 역할을 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은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여러분은 반원들에게 이 질문들을 속으로 깊이 생각해 보도록 제안할 수 있다.)
- 여러분은 벤슨 회장의 약속이 어떻게 성취되는 것을 보았는가?

**목적** 반원들이 개인적인 계시를 받기 위해 준비하는 방법을 이해하도록 돕고 그렇게 준비하도록 격려한다.

- 준비 사항**
1. 기도하는 마음으로 교리와 성약 6, 8, 9편, 조셉 스미스-역사 1장 8~17절, 그리고 본 공과에 있는 다른 성구를 공부한다.
  2. *반원 학습 지도서*(35686 320)에서 본 공과에 대한 자료를 살펴본다. 공과 시간에 자료를 참조할 수 있는 방법을 계획한다.
  3. 여러분이 주의 집중 활동을 활용하려면, 모세와 불타는 떨기 나무(62239; 복음 그림 패키지 107); 주님의 부름을 받은 소년 사무엘(62498; 복음 그림 패키지 111);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해몽하는 다니엘(62531; 복음 그림 패키지 115); 주의 손가락을 본 야렛의 형제(62478; 복음 그림 패키지 318); 그리고 첫번째 시현(62470; 복음 그림 패키지 403)과 같이 계시를 받는 선지자들의 그림 몇 장을 보여 주기 위해 준비한다. 몇 명의 반원의 사진을 구할 수도 있다.

### 공과 전개 제언

주의 집중 활동 적절한 경우, 공과를 시작하기 위해 다음 활동이나 여러분이 준비한 활동을 활용한다.

- 선지자의 그림을 보여 준다. (“준비 사항” 3 참조) 각각의 그림은 유사한 어떤 점을 보여 주고 있다. 그 유사한 점은 무엇인가? (각 그림에는 계시를 받는 선지자의 모습이 있다.)

선지자 조셉 스미스의 다음 말씀을 읽어 준다. “하나님이 십이사도에게 알려 주시지 않을 어떤 것을 조셉에게 밝혀 주시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가장 작은 성도들이라도 그것들을 알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되자마자 모든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선지자 조셉 스미스의 가르침*, 144쪽)

주님으로부터 계시를 받기 위해 우리가 선지자가 될 필요는 없다는 점을 강조한다. 비록 우리가 교회를 인도하기 위한 계시를 받지 않지만, 우리가 복음 진리를 배우는 데 도움이 되고 또 우리의 개인 생활에서 우리를 인도해 주고, 우리 가정과 교회에서의 책임을 수행하는 데 우리를 인도해 주는 계시를 받을 수 있다. 여러분이 반원들의 사진을 구했다면, 선지자들의 그림 옆에 사진을 전시한다.

**토론 및 적용** 기도하는 마음으로 반원들의 필요 사항을 가장 잘 충족시켜 줄 수 있는 공과 자료를 선정한다. 성구가 어떻게 일상 생활에 적용되는지에 관해 토론한다. 반원들을 격려하여 성구의 원리와 관련된 경험을 이야기하도록 한다.

제5과와 제6과는 개인적인 계시에 관한 것이라고 설명한다. 교리와 성약에는 이 중요한 주제에 관하여 우리의 이해를 크게 해 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본 공과는 왜 우리에게 개인적인 계시가 필요한지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받기 위해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제6과는 성신으로부터 오는 개인적인 계시를 어떻게 인식하는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두 과에 대한 독서 과제에는 교리와 성약 6, 8, 9편이 포함되어 있는데, 조셉 스미스는 올리버 카우드리가 서기로서의 역할을

하며 물문경을 번역하고 있는 동안에 이 계시를 받았다. 교리와 성약 9편의 내용은 물문경을 번역하려고 시도하였던 올리버 카우드리와 관련이 있지만, 그 원리는 또한 다른 계시에도 적용된다.

## 1. 개인적인 계시는 우리에게 필요하다.

우리가 받은 가장 커다란 축복 가운데 하나는 하늘이 열려 있어 계속되는 계시를 통해 주님께서 그분의 자녀들에게 그분의 뜻을 전하신다는 것이라고 설명한다. “하나님께서 신성한 계시를 주신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가지고 있는 가장 숭고한 개념과 원리 가운데 하나로, 이는 그것이 없다면 사람이 하나님의 것을 알 수 없기 때문이다. … 하나님께서 그의 성도들에게 주시는 끊임없는 계시는 … 참된 진로를 따라가는 매일 매일의 인도를 가능하게 하여 충실한 사람들을 해의 왕국의 완벽하고도 영원한 구원으로 인도한다. … 계시가 없다면, 모든 것이 억측이 되고, 어두움이고 또 혼란일 것이다.” (Bible Dictionary, “Revelation(계시)”, 762쪽)

- 십이사도 정원회의 보이드 케이 팩커 장로는 이렇게 말씀했다. “개인적인 계시 없이 오늘날의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우리들 중에 아무도 없습니다. 하물며 곧 닥쳐올 미래의 세계의 상황에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더더욱 없습니다.”(Conference Report, 1991년 10월, 29쪽; 또는 성도의 빛, 1992년 1월호, 26쪽) 우리 시대에 개인적인 계시가 그토록 중요한 이유는 무엇이라고 여러분은 생각하는가? (답에는 아래에 열거된 내용이 포함될 수 있다.)

- 개인적인 계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 그리고 조셉 스미스의 신성한 부름에 대하여 간증을 받는 방법이다.
- 개인적인 계시는 우리가 신성한 진리를 배우는 방법이다.
- 개인적인 계시는 인생의 질문에 답하고, 난관을 극복하며, 결정을 내릴 때, 우리가 가진 제한된 이해력을 넘어서는 인도를 받는 방법이다.

- 개인적인 계시가 우리에게 도움을 주는 결정이나 상황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가? (반원들에게 개인적인 계시가 어떻게 그들의 가족 안에서의 책임, 교회에서의 책임, 그리고 생활의 다른 영역에서 도움을 주었는지를 말해 주도록 권유한다.)

## 2. 우리는 계시를 받기 위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이해하고 있어야 한다.

우리가 개인적인 계시를 받기 위해서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한다. 반원들에게 다음의 참조 성구를 읽게 한다. 그리고 나서 반원들에게 우리가 개인적인 계시를 받기 위해 어떻게 준비할 수 있는지에 관해 이 성구들이 가르치고 있는 바를 확인하게 한다. (제언된 답은 괄호 안에 있다) 칠판에 대답을 요약한다. 그리고 나서 대답에 대해 토론한다.

가. 교리와 성약 9:8; 조셉 스미스-역사 1:8~10. (그 문제를 마음속으로 깊이 연구한다.)

- 한 가지 문제를 우리 마음속에서 깊이 연구하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조셉 스미스가 어떻게 그의 문제를 마음속으로 깊이 연구하였는지를 보여 주는 표현을 찾기 위해, 여러분은 반원들에게 조셉 스미스-역사 1장 8절을 읽게 할 수 있다. 몇 가지 주요한 표현이 아래에 열거되어 있다.

- “내 마음은 진지한 묵상에 잠기는 한편”
- “나의 감정이 깊고 종종 강렬하기까지 하였고”
- “사정이 허락할 때마다 자주 그들의 집회에 참석하였으나”

어떤 교회가 옳은가 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조셉 스미스는 깊은 생각을 했다는 점을 지적한다. 그는 또한 모임에 참석하고, 경전을 연구하며, 답을 찾기 위해 2년 이상을 탐구하며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자했다. 회원들에게 그들이 계시를 구할 때 어떻게 문제를 마음속으로 깊이 연구해야 하는지에 관한 예로서 조셉 스미스를 생각해 보도록 제안한다.

- 주님께서는 왜 우리가 계시를 받기 전에 문제를 마음속으로 깊이 연구하기를 기대하시는가? (주님께서는 우리가 그분으로부터 계시를 구할 때 수동적이 아니라 능동적이 될 것을 의도하고 계시다는 것이 답에 포함될 수 있다. 그분은 또한 우리가 우리의 선택의지를 활용할 것을 기대하신다. 우리가 마음속으로 문제를 연구할 때 도움이 되도록 주님께서 마련하신 은사와 자원을 우리가 활용할 때, 우리는 성장한다.) 문제를 마음속으로 깊이 연구하는 것이 어떻게 여러분이 영적으로 성장하는 데 도움이 되었는가?

나. 교리와 성약 138:1~11; 조셉 스미스-역사 1:11~12.(경전과 후기의 선지자들의 가르침을 상고하고 명상한다.) 경전을 상고하는 것이 이 구절에 기록된 계시를 받는 데 촉매 역할을 했다고 설명한다.

- 우리가 계시를 구할 때 경전을 연구하고 상고하는 것은 왜 중요한가? 여러분이 주님으로부터 계시를 구하였을 때 경전 공부가 어떻게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었는가?

십이사도 정원회의 델린 에이치 옥스 장로는 이렇게 설명했다.

“경전 읽기를 통하여 경전을 읽는 사람은 그 시간에 주님께서 자신과 교통하시고자 하는 주제에 관한 현재의 계시를 ... 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경전이 우리 각자가 개인적인 계시를 받도록 도움을 주는 일종의 우림과 뉘뉘미 될 수 있다고 말할 때 그 점은 조금도 과장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계시를 받는 데 경전 읽기가 도움을 줄 수 있음을 믿고 있기 때문에, 경전을 계속 반복해서 읽으라는 권고를 받고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방법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오늘날 우리의 개인 생활에서 우리에게 알리고자 하는 바를 알 수 있고 우리가 행하기를 바라시는 것을 알 수 있는 방안을 갖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후기 성도들이 매일 경전 공부를 해야 한다고 믿고 있는 한 가지 이유입니다.”(“경전 읽기와 계시”, *Ensign*, 1995년 1월호, 8쪽)

다. 교리와 성약 6:5, 14; 8:1; 42:61; 88:63~64.(성실한 마음으로, 받게 될 것이라고 믿으며, 주님을 믿는 신앙으로 간구한다.)

보이드 케이 팩커 장로는 이렇게 말했다. “경전에서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라’라는 구절보다 더 많이, 여러 방법으로 나타난 메시지는 없습니다.”(Conference Report, 1991년 10월, 26쪽; 또는 성도의 벗, 1992년 1월호, 24쪽) 신앙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은 계시를 받는 과정의 핵심적인 부분이다. 교리와 성약에 있는 대부분의 계시가 선지자 조셉 스미스가 주님께 드린 질문에 대한 대답이라는 점을 지적한다.

- “신앙으로 구”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교리와 성약 8:1; 니파이전서 15:11; 모로나이서 10:4 또한 참조)

스펜서 더블류 김볼 회장의 다음 질문이 우리가 신앙으로 기도하는 것이 무슨 뜻인가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몇 마디의 틀에 박힌 똑같은 말을 기도하면서 매일 반복합니까, 아니면 주님께 상세하게 말씀드립니다까? 여러분은 정기적으로 자주 계속해서 기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 기도할 때, 말하기만 합니까, 아니면 듣기도 합니까? ... 여

러분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니면 구하기만 합니까?”(“기도”, 성도의 벗, 1980년 5월호, 3~4쪽)

- “정직한 마음을 가지고” 간구하는 것의 의미는 무엇인가?(교리와 성약 8:1. 다음 쪽에 열거된 내용들이 대답에 포함될 수 있다.)

ㄱ. 우리는 주님의 뜻을 알기 위해 성실하게 구해야 하며 또한 주님의 뜻에 일치하는 것만을 구해야 한다.

ㄴ. 구하는 우리의 동기가 순수해야 한다는 것을 확실히 해야 한다.

ㄷ. 우리는 회개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

- 반원들과 함께 조셉 스미스-역사 1장 13~16절을 읽는다. 이 구절에서 우리는 기도에 관하여 무엇을 배울 수 있는가?(대답에는 소리내어 기도하는 것, 기도할 때 무릎을 꿇는 것, 단순히 말을 나열하는 것 대신에 우리 가슴에 있는 소망을 간구드리는 것, 하나님께 호소하기 위해 우리의 온 힘을 다하는 것이 포함될 수 있다.)

- 우리가 정직한 마음을 가지고 신앙으로 구할 때, 주님은 무엇을 약속하셨는가?(교리와 성약 6:14; 42:61 참조) 이러한 약속이 어떻게 여러분의 생활에서 성취되었는가?

라. 교리와 성약 63:23; 76:5~10; 93:1, 28; 101:7~8(순종하고 하나님을 섬긴다.)

-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구할 때 순종은 왜 중요한가?

델린 에이치 옥스 장로는 이렇게 가르쳤다. “계시에 이르는 길은 의로움입니다.”(주님의 방법 [1991년], 34쪽) 그는 또한 이렇게 가르쳤다. “만일 우리가 범법하거나 화를 내거나 하나님이 선택한 역원에 대적한다면 개인적인 계시의 매체인 성신을 동반할 수 없습니다.”(“영으로 가르치고 배움”, 리야호나, 1999년 5월호, 18쪽)

마. 교리와 성약 5:24; 19:23; 112:10; 136:32~33(온유하고 겸손하게 된다.)

-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구할 때 겸손이 왜 중요한가?

데이비드 휘트머는 조셉 스미스가 몰몬경 번역을 계속하려고 준비를 마쳤던 어느 날 아침에 있었던 일을 회상했다. “무엇인가 집안 일이 잘못되어 그는 화를 냈습니다. 그의 아내 어머니가 어떤 일을 저질렀던 것이었습니다. 올리버와 나는 이층으로 올라갔고, 조셉도 곧 뒤따라 올라와 번역을 계속하려 했으나 그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한 단어도 번역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아래층으로 내려가 과수원 쪽으로 가서 주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한 시간쯤 있다가 집으로 돌아와 어머니에게 용서를 구하고,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이층으로 올라와 번역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겸손하고 성실한 마음가짐을 갖지 않고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B. H. Roberts, *A Comprehensive History of the Church*, 1:131)

바. 교리와 성약 25:10; 30:2. (세상의 일보다는 하나님의 일에 초점을 맞춘다.)

- 우리가 계시를 구할 때 “이 세상 일” 보다는 “[하나님의] 일”에 초점을 맞추는 것은 왜 중요한가?(교리와 성약 30:2) 우리가 계시를 구할 때 세상의 관심사와 시끄러운 일에서 어떻게 우리 자신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가?

보이드 케이 팩커 장로는 이렇게 가르쳤다.

“영감은 화평스러운 분위기에서 더욱 잘 옵니다. 고요한, 가만히, 평화로운, 보혜사 등과 같은

말들이 경전에 많이 나옵니다. …

“세상은 갈수록 시끄러워지고 있습니다. 복잡 상태와 행동들이 점점 더 흐트러져 가고, 단정하지 못하며, 난잡해져 가고 있습니다. 현란한 색의 조명이 번쩍거리는 가운데, 확성기를 통하여 터져 나오는 외설스러운 가사를 담고 있는 귀에 거슬리는 음악은 마약 문화의 특징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와 유사한 것들이 우리의 청소년들에게 광범위하게 받아들여지고 있으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

“더욱 요란하고, 더욱 흥분하며, 다툼을 일으키며, 자제력이 없고, 위엄과 예의가 없어지는 이러한 경향이 우연한 것은 아니며, 순수한 것도 아니고, 해악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 …

“군사적 침략을 개시하는 지휘관이 내리는 첫 번째 명령은 바로 정복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통신 수단을 교란하는 것입니다.

“불경건은 정신적으로나 영적으로 모두 민감한 계시의 통로를 막음으로써 악마의 목적을 채워 주고 있습니다.”(Conference Report, 1991년 10월, 27~28쪽; 또는 성도의 벗, 1992년 1월 호, 24~25쪽)

칠십인 정원회 회장단에서 봉사할 때, 닐 에이 맥스웰 장로는 이렇게 가르쳤다.

“하나님의 신성한 인도는 너무도 중요한 것으로 … 그러한 특별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상황에 우리가 놓여지기 위해서는 각별한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데이비드 오 맥케이 회장님은 우리가 하루의 일과로 흐트러지기 전인 아침 시간이 참으로 영감을 불러오는 데 특별히 도움이 되는 시간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혼자서 명상하는 것과 경전을 읽는 것이 영을 불러오는 데 적합한 분위기를 만들어 내고 또 그러한 것을 더욱 발전시킬 수 있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앞에 이미 놓여져 있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읽는 것이 더욱 많은 것을 구하기 전에 해야 하는 훌륭한 일입니다.”(Wherefore, Ye Must Press Forward [1977년], 121쪽)

## 결론

우리 생활에서 개인적인 계시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교회의 모든 회원들이 성신을 통하여 계시를 받을 수 있다고 증거한다. 반원들이 스스로를 준비하여 이러한 신성한 인도를 받을 수 있도록 그들을 격려한다.



# “나는 네게 임하여 네 마음에 거할 성신으로 말미암아 네 생각과 네 마음에 말하리라”

## 제 6 과

**목적**                    반원들이 성신을 통하여 받는 개인적인 계시가 어떤 것인가를 인식하는 것을 돕고 또한 생활 속에서 이러한 축복을 구하도록 격려한다.

**준비 사항**            1. 기도하는 마음으로 교리와 성약 6, 8, 9, 11편과 본 공과의 다른 성구를 공부한다.  
2. 반원 학습 지도서(35686 320)에서 본 공과에 대한 자료를 살펴본다. 공과 시간에 자료를 참조할 수 있는 방법을 계획한다.  
3. 주의 집중 활동을 활용하려면, 라디오를 반으로 가져온다.

### 공과 전개 제언

주의 집중 활동           적절한 경우, 공과를 시작하기 위해 다음 활동이나 여러분 자신이 준비한 활동을 활용한다.

- 라디오를 반원들에게 보여 주지만, 그것을 듣지는 않는다. 방송되는 내용을 왜 우리는 들을 수 없는가?
- 라디오를 듣지만 한 방송국에 맞춰져 있지는 않다. 우리가 방송을 명확히 듣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만 하는가? 성신에 귀기울이는 것이 어떻게 라디오 방송을 찾는 것에 비유될 수 있는가?(성신의 인도를 구하려 노력하는 것은 라디오를 트는 것에 비유될 수 있다. 성신의 속삭임을 받는 데 필요한 일을 행하는 것은 방송에 라디오를 맞추는 것이나 필요한 경우, 라디오를 수리하는 것에 비유될 수 있다.)

본 공과는 반원들이 성신으로부터 오는 개인적인 계시를 인식하는 방법을 배우는 것을 돕도록 계획되었다고 설명한다.

### 토론 및 적용

기도하는 마음으로 반원들의 필요 사항을 가장 잘 충족시켜 줄 수 있는 공과 자료를 선정한다. 선정된 성구가 어떻게 일상 생활에 적용되는지에 관해 토론한다. 반원들을 격려하여 성구의 원리와 관련된 경험을 이야기해 주도록 한다.

본 공과가 개인적인 계시에 관한 두 번째 공과라는 것을 반원들에게 상기시켜 준다. 제5과에서는 개인적인 계시를 받기 위해 준비하는 방법에 관해 토론했다. 본 공과에서는 개인적인 계시를 인식하는 방법에 관해 토론할 것이다.

#### 1. 성신이 우리와 교통하는 방법을 이해함

계시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올 수 있다고 설명한다. 이러한 방법에는 주님 또는 그분의 사자의 나타남, 주님 또는 그분의 사자의 음성, 시현, 그리고 꿈이 포함된다. 하지만 계시는 대체로 성신이 우리 마음의 생각 그리고 우리 가슴의 느낌과 교통을 나눌 때 온다. 성신은 신회의 구성원이다. 성신

은 우리를 가르치고, 위안을 주며, 경고하고, 강화시키며 인도해 주는 계시자이다.

성신은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와 교통한다고 설명한다. 반원들에게 다음의 참조 성구를 읽게 한다. 그리고 나서 성신이 우리와 교통하는 방법에 관하여 그 성구가 가르치고 있는 내용을 확인하게 한다.(제언된 답이 괄호 안에 있다.) 칠판에 대답을 요약한다. 그리고 나서 대답에 대해 토론한다.

가. 교리와 성약 8:2~3; 85:6.(성신은 고요하고 세미한 음성으로 우리 마음과 우리 가슴과 교통한다.) 또한 다음 성구들을 참조한다. 열왕기상 19:12; 니파이전서 17:45; 힐라맨서 5:30.

십이사도 정원회의 델린 에이치 옥스 장로는 이렇게 가르쳤다. “시현은 실제로 일어납니다. 휘장 저편에서 음성도 들립니다. 저는 그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 교회의 지도자와 회원들에게 오는 대부분의 계시는 시현이나 알아들을 수 있는 구체적인 단어로 말하는 음성으로 주어지기보다는 고요하고 작은 음성이나 느낌으로 옵니다. 저는 이러한 종류의 계시가 실재함을 간증합니다. 저는 그와 같은 계시를 주님의 일을 하는 가운데 저를 인도한 친숙하고 일상적인 경험을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영으로 가르치고 배움”, 리아호나, 1999년 5월호, 24쪽)

십이사도 정원회의 보이드 케이 패커 장로는 이렇게 가르쳤다. “이 미묘하고 섬세한 영적인 교통은 우리의 눈에는 보이지도 않으며 우리의 귀에는 들리지도 않습니다. 비록 그것이 음성으로 묘사되지만, 그것은 우리가 듣는 것보다는 우리가 느끼는 음성인 것입니다.”(That All May Be Edified [1982년], 335쪽)

- 성신이 교통하는 방법에 관한 이러한 원리를 이해하는 것이 왜 중요한가? 신성한 교통이 좀 더 적극적으로 또는 장엄한 방법으로 오는 것을 기대하는 것에는 어떤 위험성이 있는가?

델린 에이치 옥스 장로는 이러한 주의를 주었다.

“오로지 경전에 기록된 위대한 현상을 바라고 그들에게 주어지는 고요하고 세미한 소리를 인식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 주님이 큰소리로 말씀하시는 법은 거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분의 메시지는 거의 언제나 속삭임으로 주어집니다. …

“이러한 계시의 원리를 이해하지 못하는 까닭에 어떤 사람들은 자신들이 기적적인 사건을 경험할 때까지는 그들이 받은 간증을 인정하려 들지 않습니다. 그들은 대부분의 사람들 … 이 하나의 사건을 통해서가 아니라 과정을 통해서 간증을 얻는다는 사실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리아호나, 1999년 5월호, 21, 24쪽)

나. 교리와 성약 6:15; 11:13~14.(성신은 우리의 마음을 밝혀 깨닫게 해준다.)

- 어떠한 방법으로 영은 우리의 마음을 밝혀 깨닫게 해주는가?

영이 새로운 아이디어와 통찰, 번뜩이는 영감, 그리고 강한 느낌 또는 인상으로 우리의 마음을 밝혀 깨닫게 해 줄 수 있다는 것이 답에 포함될 수 있다.(예를 들어 교리와 성약 128:1 참조) 선지자 조셉 스미스는 계시가 “순수한 예지”로서 우리들의 마음에 흘러 들어오는 “갑자기 떠오르는 생각”으로 올 수도 있다고 가르쳤다.(선지자 조셉 스미스의 가르침, 조셉 필딩 스미스 편, 141쪽)

성신이 새로운 아이디어와 통찰, 번뜩이는 영감, 또는 강한 느낌이나 인상으로 우리의 마음을 밝혀 깨닫게 해 주었던 경험을 이야기해 주도록 반원들에게 권유한다.

다. 교리와 성약 6:22~23.(성신은 평강을 우리 마음에 가져다준다.)

올리버 카우드리는 선지자를 만나기 전에 잠시 동안 조셉 스미스의 부모의 집에 머물렀다고 설명한다. 그 동안 올리버는 기도를 했으며 조셉의 부름과 그의 일이 신성하다는 화평스런 확신을 받았다. 그리고 나서 올리버는 펜실베이니아 주 하모니로 여행을 하여 몰몬경의 번역 과정에서 조셉을 위해 서기로서 일하기 시작했다. 이후 곧 올리버는 자신이 이전에 받았던 확신에 대해 “증거를 더 원하게 되었다.(교리와 성약 6:22)

- 주님께서는 선지자의 신성한 사명에 관해 “증거를 더” 받고자 하는 그의 소망에 대해 올리버 카우드리에게 무엇을 밝혀 주셨는가? (교리와 성약 6:22~23 참조) 반원들에게 영이 그들의 마음에 평강을 가져다주었을 때의 경험을 이야기해 주도록 권유한다. 우리는 어떻게 영이 우리의 마음에 가져다주는 평강을 더욱더 신뢰하게 될 수가 있는가?

라. 교리와 성약 9:7~8.(성신은 가슴을 뜨겁게 할 것이다.) 또한 누가복음 24장 32절을 참조한다.

교리와 성약 9편의 내용이 비록 몰몬경을 번역하려는 올리버 카우드리의 시도와 관련이 있으나, 그 원리가 또한 개인적인 계시에도 적용이 된다고 설명한다. 가슴을 뜨겁게 하는 것은 성신이 우리와 교통할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에 불과한 것이라고 강조한다. 여러분은 다음의 인용문을 활용하여 영이 이런 방법으로 교통하는 방법을 이해하도록 도울 수 있다.

보이드 케이 팩커 회장은 이렇게 설명했다. “이처럼 가슴이 뜨겁다는 것은 단순히 육체적 느낌만은 아닙니다. 그것은 오히려 여러분 내면에서 빛나는 따뜻한 빛과 같은 것입니다.”(Conference Report, 1994년 10월, 77쪽; 또는 성도의 빛, 1995년 1월호, 60쪽 참조)

델린 에이치 옥스 장로는 이렇게 말했다. “나는 가슴이 ‘뜨거운’ 것을 느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성신으로부터 오는 증거를 받은 적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을 만나곤 합니다. ‘가슴이 뜨겁다’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연소로 인한 발화와 같은 열의 느낌으로 받아들여야 하겠습니까? 만약 그런 의미라면 저는 한 번도 가슴이 뜨겁다는 느낌을 가져 본 적이 없습니다. 이 경전에 나오는 ‘뜨겁다’라는 말은 위안과 평온이라는 의미입니다.”(리아호나, 1999년 5월호, 22쪽)

마. 교리와 성약 98:12.(성신은 모든 것을 한꺼번에 주시기보다는 종종 “말씀에 말씀을, 교훈에 교훈을 더하여” 밝혀 주신다.)

우리가 계시를 받을 준비가 되었을 때에 대체로 계시를 받게 된다고 설명한다. 우리가 준비가 되면 될수록, 더욱더 많은 계시가 우리에게 주어진다. 십이사도 정원회의 리차드 지 스코트 장로는 이렇게 가르쳤다.

“우리가 결정을 내리는 데 도움을 얻기 위해 영감을 구할 때, 주님께서는 낚지시 암시를 주십니다. 이것은 우리가 생각하고 신앙을 행사하고 노력하며 때로는 고투하고 또 실행할 것을 요구합니다. 어떤 매우 중요하거나 복잡한 문제에 대한 응답이 모두 한꺼번에 오는 경우는 좀처럼 없습니다. 오히려 응답은 결과를 완전히 알지 못하는 가운데 한 번에 조금씩 점차 오게 됩니다.”(Conference Report, 1989년 10월, 40쪽; 또는 성도의 빛, 1990년 1월호, 40쪽 참조)

반원들에게 말씀에 말씀을 더하여 또는 단계적으로 신성한 인도를 받았던 방법에 관한 경험을 이야기해 주도록 권유한다.

## 2. 개인적인 계시에 관한 주의

반원들에게 다음의 참조 성구를 읽게 한다. 그리고 나서 그 구절들이 개인적인 계시에 관해 주는 주의를 확인하게 한다.(제언된 답이 괄호 안에 있다.) 칠판에 대답을 요약한다.

가. 교리와 성약 109:44.(우리는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해야 하며 기꺼이 우리의 뜻을 그분의 뜻에 복종해야 한다.) 또한 마태복음 6장 10절을 참조한다.

- 우리가 개인적인 계시를 구할 때 우리의 뜻을 하나님의 뜻에 복종시키는 것은 왜 중요한가?
- 하나님께서 “아니다”라고 대답하실 때 우리는 어떻게 그것을 인식할 수 있는가? (답에는 우리가 부정적인 느낌, 혼란, 불안 또는 불편의 느낌, “무감각” [교리와 성약 9:9]을 갖게 될 것이라는 점이 포함될 수 있다. 반원들에게 그러한 느낌을 받았던 경험을 이야기해 주도록 권유한다.)
- 우리가 무척이나 바라고 있는 것에 대한 진지한 기도가 우리가 원하는 방법으로 응답되지 않았을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가? 그러한 경험이 우리에게 어떻게 도움이 될 수 있는가?

나. 교리와 성약 88:68.(우리는 계시가 주님이 정하시는 시각에 주님의 방법으로 오게 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우리가 기대하는 시각 또는 방법으로 우리가 항상 계시를 받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한다. 우리가 원하는 시각과 방법에 따라 계시가 오도록 강압한다면, 우리는 속임을 받을 수가 있다. 델린 에이치 옥스 장로는 이렇게 가르쳤다.

“주님은 주님이 정하시는 때에 그분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주님의 영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이 원리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준비될 때 자신들의 편의에 맞추어 주님께 기도드릴 수 있고, 그러면 자신들이 정한 방법대로 주님이 곧바로 응답해 주시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계시는 그러한 방법으로 오는 것이 아닙니다. …

“[교리와 성약 88:68]에서 언급된 다음 원리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오는 모든 교통에 적용됩니다. ‘그가 정한 때에 그가 원하는 방법으로 또 그 자신의 뜻에 따라 이루어지리라.’ 우리는 영적인 것을 강압할 수 없습니다.”(리아호나, 1999년 5월호, 20쪽)

다. 교리와 성약 28:2, 6~7; 43:2~4. (우리의 청지기 직분과 책임에 따라 우리는 계시를 받는다.)

선지자 조셉 스미스는 이렇게 가르쳤다. “교회의 어떤 회원이든지 자기보다 높은 직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 지시 사항을 받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에 위배됩니다.”(선지자 조셉 스미스의 가르침, 조셉 필딩 스미스 편, 21쪽)

사도로 부름 받기 직전에, 델린 에이치 옥스 형제는 이렇게 설명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집은 질서의 집이며 … 교회 회장만이 교회 전체를 인도하기 위한 계시를 받습니다. … 와드를 위한 계시를 받는 사람은 감독입니다. … 개인은 각자 자기 생활을 인도하기 위한 계시를 받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이 남자이건 여자이건 자기 자신의 책임 하에 있지 않은 다른 사람을 위하여 계시를 받았다고 주장할 때, 즉 교회 전체를 인도하기 위한 계시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경우나, 교회의 반차상 관리 권세 하에 있지 않은 다른 사람을 위한 계시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그런 계시가 주님으로부터 오지 않았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계시”, 성도의 빛, 1983년 12월호, 39쪽)

- 교회를 다스리는 데 이 원리는 왜 중요한가? 우리가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이해하는 것은 왜 중요한가?(적절한 경우, 이 토론을 전개시키는 방법에 대한 한 가지 제언으로 추가로 가르칠 개념의 두 번째 항목을 활용할 수도 있다.)

라. 교리와 성약 11:12~14; 50:23~24.(우리는 계시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지를 분별해야 한다.)

계시가 정말로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지를 분별하는 것은 중요하다고 설명한다. 때때로 우리가 계

시라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 자신의 소망이 나타난 것에 지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리고 때때로 그릇된 계시가 사탄으로부터 올 수도 있는 것이다.

- 우리는 어떻게 계시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가?(교리와 성약 11:12~14; 50:23~24 참조. 답에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계시는 경건 및 살아 계신 선지자의 권고와 일치한다는 점이 포함될 수 있다. 그 계시는 교화시켜 주는 내용이 될 것이다. 그 계시는 의의 원리에 반대되는 일을 행하도록 우리를 인도하지 않을 것이다.)

제일회장단은 이렇게 말했다. “영감이 교회에서 받아들여진 계시와 조화를 이루지 못하거나 교회의 감리 직원들의 결정에 반대되는 어떤 것을 전할 ... 때, 후기 성도들은 그것이 아주 그럴 듯하게 보일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에게서 나온 것이 아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분을 통하여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과 일치하지 않는 그 어떤 것도 권위를 가진 것, 즉 믿을 만한 것으로 받아들여져서는 안 됩니다.”(James R. Clark, comp. *Messages of the First Presidency of the Church of Jesus Christ of Latter-day Saints*, 6 vols. [1965~1975년], 4:285)

### 3. 계시를 받지 못하거나 인식하지 못할 때

- 우리가 바라는 순간에 개인적인 계시가 오지 않을 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만 하는가?(답에는 아래에 열거된 내용이 포함될 수 있다.)
  - ㄱ. 인내하고 또 주님께 의지하여 계속해서 끈기있게 기다린다.(교리와 성약 98:2) 주님께서는 그분께서 정하시는 시각에 응답하실 것이다. 인내를 행사하는 것이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고 또 하나님이 갖고 계시는 것과 같은 속성을 발전시키는 데 도움이 된다. 선지자도 신성한 인도를 구하면서 인내를 행사하였다고 지적하면서 공식선언-2에 인용되어 있는 편지에서 두 번째 단락을 읽어 줄 수도 있다.(교리와 성약 360쪽)
  - ㄴ. 우리가 영의 속삭임을 인식할 수 있게 영적으로 준비되어 있도록 한층 더 노력을 경주한다.
  - ㄷ. 우리가 당연히 해야 하는 만큼 오랫동안, 충실하게, 또는 성실하게 연구하고 기도해 오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음을 인식하면서 연구하고 기도하려는 노력을 한층 더 경주한다.
  - ㄹ. 계명에 순종하는 일에 더욱더 충실한다.(이사야 59:2)
  - ㅁ. 그 문제를 잠시 동안 미루어 둔다. 우리가 그 문제에 더 이상 크게 마음을 쓰지 않고 있는 동안 가장 기대하지 않고 있을 때, 번뜩이는 영감이 종종 오기도 한다.
  - ㅂ. 우리가 연구와 이성에 근거한 최선의 판단으로 스스로 결정을 내려야 하는 문제에 대해 권고를 구하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점을 인식한다. 이러한 경우 주님께서는 우리가 스스로 결정을 내리도록 내버려두고 계시지도 모른다.(예를 들어 교리와 성약 58:25~28; 60:5; 61:22; 62:5 참조) 주님께서는 종종 우리가 의로운 가운데서 스스로 결정을 내리도록 허락하신다.
  - ㅅ. 우리가 이미 응답을 받았지만 그 응답이 우리가 소망하거나 기대하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였는지를 평가해 본다. 우리가 원하고 있는 것을 계속 고집한다면, 우리와 영과의 교통이 단절될 수도 있다.

보이드 케이 팩커 장로는 이렇게 권고했다.

“때때로 여러분은 어떤 문제에 처하여 해결하려고 노력하지만 응답을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무엇이 잘못되었을까요? 여러분은 지금 그릇된 일을 행하고 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올바른 일을 충분히 오랫동안 행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영적인 것은 강제적으로 할 수 없다는 사실을 명심하

십시오. 가끔 우리는 단지 아니라는 응답을 받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혼란에 빠집니다. ...”

“어려운 문제를 마음속에 간직해 두지 말고 열심히 생활하십시오. 그러한 문제에 대해 깊이 생각하고 조용히 끊임없이 기도하십시오.”

“응답은 번개처럼 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말씀에 말씀을 교훈에 교훈을 더하여’(교리와 성약 98:12) 여기 저기에서 작은 영감으로 올 수 있습니다.”

“경전을 읽는 가운데 오는 응답이 있는가 하면 연사의 말씀을 들음으로써 오는 응답이 있습니다. 때때로 중요한 경우에는 응답이 대단히 직접적이고 강력한 영감으로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속삭임은 뚜렷하고 명백할 것입니다.”(Conference Report, 1979년 10월, 29~30쪽; 또는 성도의 벗, 1980년 3월호, 32~33쪽)

## 결론

우리 각자는 영의 언어에서 유창하게 될 수 있는 특권과 책임을 가지고 있다고 강조한다. 반원들에게 성신의 속삭임을 받고 또 그것을 인식하는 데 필요한 노력을 하도록 격려한다. 우리가 스스로 준비하고 또 주의 깊게 귀 기울인다면, 성신을 통해 “계시 위에 계시를” 받게 될 것이라고 간증한다.

## 추가로 가르칠 개념

### 1. 자녀들에게 개인적인 계시에 관해 가르침

여러분이 성인을 가르치고 있다면, 개인적인 계시의 원리를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방법에 관해 토론할 수 있다.

### 2. 결혼을 위한 계시에 대한 주의

칠십인 정원회의 존 에이치 그로버그 장로의 다음 말씀은 결혼을 할 상대방에 관해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는 중요한 원리를 설명하고 있다.

“영원한 결혼에 관하여 여러분은 하나님으로부터 상대방의 의사와는 관계없는 일방적인 계시를 받을 수 없다는 점을 여러분께 주의 사항으로 말씀드리고 ... 싶습니다. 양당사자가 같은 것을 느낄 때라야만, 그것이 주님으로부터 왔다는 확신을 여러분은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계시라고 생각하고 있는 틀에 다른 사람의 자유 의사를 맞추어 넣으려고 애쓰는 사람들은 그들 자신과 그 친구들에게 해를 입히는 것입니다.”(“여러분은 이곳에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New Era*, 1987년 1월호, 37~38쪽)

### 3. 조셉 에프 스미스 회장이 자신의 간증을 얻었던 과정

조셉 에프 스미스 회장이 자신의 간증을 어떻게 받았는가를 알려 주는 기사를 이야기해 준다.

“제가 소년으로서 성역을 처음 시작했을 때 저는 곧잘 밖으로 나가서 주님께 제가 간증을 얻을 수 있도록 무엇인가 놀라운 것을 보여 달라고 간구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저에게 놀라운 것을 보이지 않고, 말씀에 말씀을, 교훈에 교훈을 더하여, 여기에서 조금 저기에서 조금씩 진리를 주셔서 결국 저는 머리 끝에서부터 발 끝까지 진리로 가득 차, 회의와 두려움이 완전히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주님은 이같이 행하기 위하여 하늘의 천사를 보내지 않아도 되었고, 천사장의 나팔 소리를 울리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살아 계신 하나님의 영의 고요하고 세미한 음성으로 그분은 저에게 지금 제가 갖고 있는 간증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원리와 권세로 주님은 모든 인간 자녀에게 그들과 함께 할 진리에 대한 지식을 주실 것입니다.”(복음 교리, 6~7쪽)

# “복음의 첫째 되는 원리와 의식”

## 제 7 과

---

**목적** 반원들이 복음의 첫째 되는 원리와 의식,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 회개, 침례, 확인에서 오는 축복을 이해하고 또 구하도록 돕는다.

---

- 준비 사항**
1. 기도하는 마음으로 본 공과에 있는 성구를 공부한다.
  2. 반원 학습 지도서(35686 320)에서 본 공과에 대한 자료를 살펴본다. 공과 시간에 자료를 참조할 수 있는 방법을 계획한다.
  3. 다음의 그림을 구할 수 있다면, 공과를 시작하기 전에 그것들을 교실 앞에 놓는다. 주 예수 그리스도 (62572; 복음 그림 패킷 240); 침례 (복음 그림 패킷 601); 성신의 은사 (복음 그림 패킷 602)
  4. 주의 집중 활동을 활용하려면, 눈가리개로 사용할 조그만 천을 가져온다.
- 

### 공과 전개 제언

주의 집중 활동 적절한 경우, 공과를 시작하기 위해 다음 활동이나 여러분 자신이 준비한 활동을 활용한다.

한 반원에게 자원하여 앞으로 나오도록 부탁한다. 그 자원자의 눈을 눈가리개로 가리고 그 반원에게 칠판에 다음의 문장을 써 보라고 한다. 예수는 세상의 빛이다. 눈가리개를 벗기고 그 반원에게 똑같은 문장을 칠판에 다시 써 보라고 한다. 그리고 나서 그 반원에게 앉게 한다.

- 죄를 짓는 것은 눈가리개를 쓰는 것과 어떻게 유사한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을 행사하고 우리 죄를 회개하는 것은 어떻게 눈가리개를 벗는 것과 유사한가? 우리가 회개할 때 우리는 무엇을 좀 더 명확하게 볼 수 있는가?

본 공과에서는 복음의 첫째 되는 원리와 의식에 대해 토론할 것이라고 설명한다. 신앙, 회개, 침례, 그리고 성신의 은사를 통하여, 우리는 이 필멸의 세상에 사는 동안 우리의 영원한 운명과 목적을 더 잘 볼 수 있다.

---

**토론 및 적용** 기도하는 마음으로 반원들의 필요 사항을 가장 잘 충족시켜 줄 수 있는 공과 자료를 선정한다. 여러분은 본 공과를 나누어 두 번에 걸쳐 가르칠 수 있다.

주님께서는 선지자 조셉 스미스를 통하여 “말씀에 말씀을 더하고, 교훈에 교훈을 더하며” 복음을 회복시키셨다고 설명한다.(교리와 성약 128:21) 처음에 회복되어야 할 진리 가운데 몇 가지는 복음의 첫째 되는 원리와 의식이었다. 한 반원에게 신앙개조 제4조를 암송하도록 부탁한다. 칠판에 첫째 되는 원리와 의식을 열거한다.

#### 1.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은 복음의 첫째 되는 원리이다.

복음의 회복이 조셉 스미스의 신앙에 찬 행동으로 시작되었음을 지적한다.(조셉 스미스-역사 1:11~14) 모로나이가 나타난 것도 조셉의 신앙의 행동에 대한 응답으로 이루어졌는데, 그는 자신

이 용서를 구하는 기도를 드릴 때 “신성한 나타내심을 얻을 수 있다는 전적인 확신이 있”었다고 기록했다.(조셉 스미스-역사 1:29)

-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을 갖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우리의 신앙의 중심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맞추는 것은 왜 중요한가?
- 우리는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을 강화시킬 수 있는가? (교리와 성약 19:23; 88:118; 앨마서 32:27 참조. 우리는 한 번의 경험으로가 아니라 점진적으로 신앙을 강화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또한 신앙을 한결같이 키워서 강하게 유지해야 한다는 점을 지적한다.) 적절한 경우, 반원들이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을 강화시키는 데 도움이 되었던 경험을 이야기하도록 권유한다.
- 일상 생활에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을 행사하기를 요구하는 상황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여러분이 실망, 약점, 또는 다른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 신앙이 어떻게 도움이 되었는가?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의 신앙이 어떻게 우리와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강화시키는 데 도움이 되었는가? (배우자, 자녀, 부모, 와드 회원, 또는 이웃과의 관계와 같이 구체적인 예에 대해 토론한다.)
- 우리는 어떻게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의 신앙을 나타내 보일 수 있는가? (교리와 성약 20:69; 야고보서 2:14~17 참조)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이 선한 일을 하고자 하는 우리의 소망에 어떻게 영향을 주었는가?
- 반원들과 함께 교리와 성약 8편 10절을 읽는다. 신앙이 없이 우리는 무엇을 성취할 수 있는가? 신앙을 가지고 우리는 무엇을 성취할 수 있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에 대해서는 교리와 성약 35:9; 42:48~51; 63:9~11; 모로나이서 7:33 참조) 여러분은 신앙의 힘이 나타나는 것을 어떻게 보았는가?
- 교리와 성약에서 자주 반복되는 한 가지 메시지는 신앙으로 기도하는 것의 중요성에 관한 것이다. 예를 들어 교리와 성약 10편 46~52절에서 주님께서는 고대 선지자들이 몰몬경이 보존될 것이라고 “기도 가운데 보인 신앙”을 가졌기 때문에 그 책이 보존되었다고 말씀했다. 우리의 기도 가운데서 신앙의 역할은 무엇인가?

## 2. 성실한 회개를 통해, 우리는 속죄의 축복에 참여할 수 있다.

회개가 교리와 성약에서 주요한 주제라고 설명한다. 주님께서는 회개의 교리를 가르치셨으며 또한 회개의 필요성을 반복해서 강조하셨다. 그분께서는 회개한 이들에게는 커다란 축복을, 그리고 회개하지 않는 이들에게는 형벌을 약속하셨다.

- 회개란 무엇인가? (교리와 성약 58:42~43 참조. 회개는 죄로부터 깨끗하게 되고 또한 구주의 속죄의 힘을 통하여 죄에 대해 용서를 받는 과정이다. 회개하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버리며, 악에서 떠나야만 한다. 우리는 또한 우리의 마음을 돌이켜 하나님께로 향하고, 그분의 계명에 순종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회개의 과정을 토론하기 위해서는 추가로 가르칠 개념 2를 참조한다.)
- 참된 회개와 단순히 나쁜 버릇을 버리거나 행동을 바꾸는 것 사이에는 어떤 차이가 있는가?  
에즈라 태프트 벤슨 회장은 이렇게 설명했다. “회개란 단순히 행동에 변화를 가져 오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갖습니다. ... 참된 회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에 기초를 두고 있으며 그 신앙에서 비롯됩니다.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 참된 회개에는 단순히 행동의 변화뿐 아니라 마음의 변화도 포함됩니다.(앨마서 5:13 참조)” (*The Teachings of Ezra Taft Brnson* [1988년],



71쪽; 또는 성도의 벗, 1990년 3월호, 4, 7쪽 참조)

십이사도 정원회의 날 에이 맥스웰 장로는 “회개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것, 즉 악에서 떠나는 것과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이 필요합니다.”(Conference Report, 1991년 10월, 40쪽; 또는 성도의 벗, 1992년 1월호, 35쪽)

- 반원들과 함께 교리와 성약 18편 11~13절과 19편 16~19절을 읽는다. 이 구절은 우리에게 대한 구주의 사랑에 관해 무엇을 가르치고 있는가? 우리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 우리는 왜 구주의 속죄가 필요한가?(또한 니파이후서 2:6~9 참조) 우리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 왜 회개하는 것이 필요한가?

우리가 죄를 지을 때, 우리는 깨끗하지 않게 되고 또 공의의 율법이 요구하는 형벌을 받게 된다고 설명한다. 불완전하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깨끗하게 되거나 우리의 힘만으로 공의의 요구를 충족시키지 못하게 된다. 구주께서는 우리 죄를 속죄하시기 위해 공의의 율법이 요구하는 형벌을 친히 짊어지심으로써 우리가 깨끗하게 되는 데 필요한 자비와 용서를 베푸실 수가 있었다. 우리가 회개의 조건에 따라 때에만, 속죄의 이러한 축복이 우리에게 유효한 것이다.(앨마서 7:14)

- 우리가 참된 회개를 하는 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은 왜 필요한가?
- 칠판에 회개하지 않는 것의 결과라고 적는다. 우리 죄를 회개하지 않는 것의 결과는 무엇인가? (반원들에게 다음 성구를 읽고 그 결과를 확인하게 한다. 교리와 성약 1:33; 19:17~18; 29:17. 그 결과를 칠판에 적는다. 다른 결과에는 하나님과 다른 사람으로부터의 소외, 죄책감, 자신이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 다른 죄의 합리화, 용서하지 않는 것이 포함될 수 있다.)
- 칠판에 참된 회개의 축복이라고 적는다. 우리 죄를 참되게 회개할 때 주님께서는 무엇을 약속하셨는가? (반원들에게 다음 성구를 읽고 그 약속을 확인하게 한다. 교리와 성약 1:32; 58:42; 109:53. 그 약속을 칠판에 적는다.) 반원들에게 참된 회개가 생활에 어떻게 축복이 되었는지에 관해 말해 주도록 권유한다.(주: 여러분은 반원들에게 과거의 죄를 상세하게 말하지 않도록 주의 를 준다.)
- 우리가 회개할 때 주께서는 우리를 용서하시겠다고 약속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자신과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것이 때때로 어려운 이유는 무엇인가?
- 우리는 어떻게 더욱더 회개를 잘할 수 있는가? 왜 우리는 때때로 죄의 회개를 미루는가? 우리는 어떻게 교만, 실망, 자기 만족, 또는 회개하는 데 방해가 되는 것을 극복할 수 있는가?

닐 에이 맥스웰 장로는 이렇게 가르쳤다. “회개는 구제하기 위해 있는 교리이지 별주기 위한 교리가 아니며, 큰 죄를 진 죄인에게뿐만 아니라 점차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선량한 사람에게도 적용되는 것입니다.”(Conference Report, 1991년 10월, 40쪽; 또는 성도의 벗, 1992년 1월호, 35쪽 참조) 회개가 비록 어려운 과정이지만, 우리가 죄로부터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릴 때 그것은 또한 커다란 기쁨을 가져다줄 수 있다고 강조한다.

### 3. 침례는 필수적인 의식이다.

신앙과 회개는 복음의 첫째 되는 의식인 침례로 이어진다고 설명한다. 교리와 성약에서, 주님께서는 침례의 목적, 자격, 지침을 밝혀 주셨다. 선지자 조셉 스미스를 통하여, 침례 요한은 이 의식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신권 권세를 회복했다.(제8과 참조)

- 침례의 목적은 무엇인가? (교리와 성약 18:22; 49:13~14 참조. 목적에는 구주에 대한 우리의 결심을 보이는 것, 죄 사유함을 받는 것, 교회의 회원이 되는 것, 승영에 이르는 길에 들어서는

것, 성신의 은사를 받기 위해 준비하는 것이 포함된다. 니파이후서 9:23; 31:10~13, 17; 또 한 모사이야서 18:17 참조) 반원들에게 그들의 침례에 관한 느낌을 이야기해 주도록 권유한다.

- 반원들과 함께 교리와 성약 20편 37절을 읽는다. 침례를 받기 위해서는 어떤 자격을 충족시켜야 하는가? 침례를 받을 때 우리는 하나님과 어떤 성약을 맺는가?(모사이야서 18:8~10 참조) 우리는 침례 받을 때 맺은 주님과 약속을 지키려는 우리의 결심을 어떻게 향상시킬 수 있는가?
- 침례는 무엇을 상징하고 있는가?(교리와 성약 76:51; 요한복음 3:3~5; 로마서 6:3~4 참조. 침수로써의 침례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망과 매장과 부활을 상징한다. 그것은 또한 옛날의 나를 매장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태어나는 것을 상징한다. 이와 더불어 침례는 우리 죄로부터 깨끗하게 되는 것을 상징한다.)
- 합당한 권세를 가진 사람으로부터 침례를 받는 것이 왜 필요한가?(교리와 성약 22편 참조) 침례가 왜 침수로써 집행되어야만 하는가?(교리와 성약 20:72~74 참조) 나이가 8세에 이르기 전에 침례를 주는 것은 왜 합당하지 않은가?(교리와 성약 20:71; 29:46~47; 68:25; 모로나이서 8:9~12 참조)

#### 4. 확인 의식을 통해, 우리는 성신의 은사를 받는다.

성신은 신회의 구성원이며 또 “영의 인격체”이다.(교리와 성약 130:22) 물로써 침례를 받은 후에, 교회 회원은 확인 의식을 통해 성신의 은사를 받는다.(교리와 성약 33:15; 35:5~6) 이 의식은 또한 “불과 성신의 침례”라고 불리기도 한다.(교리와 성약 20:41) 선지자 조셉 스미스는 이렇게 말했다. “물의 침례는 사실상 침례의 반 정도에 불과하며 ... 성신의 침례가 없이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선지자 조셉 스미스의 가르침, 조셉 필딩 스미스 편, 309쪽)

- 성신의 나타나심과 성신의 은사 사이에는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

십이사도 정원회의 델린 에이치 옥스 장로는 이렇게 가르쳤다. “성신이 나타나시는 것은 진실된 구도자들을 설득시켜 회개와 침례에 이르도록 그들에게 복음 진리를 알리기 위한 것입니다. 성신의 은사는 더욱더 포괄적입니다. ... [그것은] 계속적으로 동반을 받을 권리라고 하겠습니다. 다시 말해 우리는 ‘그의 영광 함께’(교리와 성약 20:77) 할 수가 있습니다.”(Conference Report, 1996년 10월, 80쪽; 또는 성도의 벗, 1997년 1월호, 60쪽)

십이사도 정원회의 브루스 알 맥콩키 장로는 사람이 침례 전에 받을 수 있는 성신의 나타나심을 “어둡고 폭풍이 부는 밤에 번쩍거리는” 번갯불에 비유했다. 그는 사람이 침례 후에 받는 성신의 은사를 “인생 행로와 그 주위의 모든 것에 그 빛을 비추며 끊임없이 이글거리는 한낮의 태양”에 비유했다.(A New Witness for Articles of Faith [1985], 262)

- 성신의 은사를 받는 것이 성신이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라는 점을 자동적으로 보장하지는 않는다. 성신이 지속적으로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만 하는가?

조셉 필딩 스미스 회장은 이렇게 말했다. “성신은 하나님의 계명에 기꺼이 순종하지 아니하고 또 기꺼이 지키지 아니하는 사람, 또는 그러한 계명을 고의로 범한 사람에게는 거하지 않을 것입니다.”(Church News, 1961년 11월 4일, 14쪽)

- 성신의 역할은 무엇인가? (다음 성구 가운데서 반원들과 함께 읽을 성구를 선정한다. 성신의 역할에 관하여 각 성구가 가르치고 있는 바에 대해 토론한다. 칠판에 그 내용을 요약한다.)

ㄱ. 교리와 성약 18:18; 39:6; 42:14; 75:10; 79:2.(성신은 교사이다. 또한 요한복음 14:26; 16:13; 니파이전서 10:19; 모로나이서 10:5 참조)

- ㄴ. 교리와 성약 39:6.(성신은 보혜사이다. 또한 요한복음 14:16 참조)
- ㄷ. 교리와 성약 42:17; 100:8.(성신은 증거자이다. 또한 요한복음 15:26; 앨마서 5:46 참조)
- ㄹ. 교리와 성약 11:12.(성신은 우리가 선을 행하고, 겸손하게 행동하며, 의롭게 판단하도록 인도한다.)
- ㅁ. 교리와 성약 11:13; 76:10.(성신은 우리의 마음을 밝혀주며 또한 우리의 영혼을 기쁨으로 채워 준다.)
- ㅂ. 교리와 성약 84:33.(성신을 통하여 우리는 성결하게 된다. 또한 제3니파이 27:20 참조)
- ㅅ. 교리와 성약 31:11; 75:27; 84:85.(성신은 우리가 가야 할 곳, 행해야 할 바, 그리고 말해야 할 바에 관하여 우리에게 영감을 준다.)

반원들에게 성신이 위에 열거한 방법이나 또는 다른 방법으로 어떻게 그들에게 축복을 주었는지에 관해 말해 주도록 권유한다. 우리가 생활 가운데서 어떻게 이러한 축복을 더욱더 충만하게 누릴 수 있는지에 관해 토론한다. 우리가 신회의 한 구성원과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이 큰 특권이라는 점을 강조한다. 성신을 동반하는 것의 중요성에 관해 여러분의 간증을 나눈다.

### 5. 우리는 영생을 얻기 위해 신앙 가운데서 끝까지 견뎌야 한다.

침례 받을 때, 우리는 승영에 이르는 길에 들어선다. 하지만, 이 경험 하나로는 승영에 이르는 것을 보장받지 못한다. 주님께서 교리와 성약에서 자주 권고하신 것처럼, 우리는 또한 우리의 생명이 끝날 때까지 충실하게 견디겠다고 침례 때에 맺은 성약을 지켜야만 한다.

- 반원들과 함께 니파이후서 31장 19~20절과 교리와 성약 14편 7절을 읽는다. 끝까지 견디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우리가 끝까지 참는다면 어떠한 축복을 주시겠다고 주님께서 약속하셨는가?
- 여러분은 여러분의 믿음과 성약에 계속 충실히 지내는 것의 가치를 어떤 경험을 통해 배웠는가?
- 반원들과 함께 교리와 성약 24편 8절을 읽는다. 끝까지 견디는 것에는 인생의 시련 동안에도 계속 충실한 것이 포함된다. 어려운 시기에 우리는 어떻게 계속 충실할 수 있는가?(반원들에게 그들이 어려운 경험을 할 때 끝까지 견디는 데 도움을 주었던 것이 무엇이었는지 말해 보도록 권유한다.)

#### 결론

복음의 첫째 되는 원리와 의식의 중요성에 관해 간증한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속죄와 그분의 모범에 대해 여러분의 감사를 표한다. 반원들에게 매일 신앙을 강화시키고, 죄를 회개하며, 침례 성약을 지키며, 성신이 항상 그들의 동반자가 될 수 있도록 생활하도록 격려한다. 우리가 끝까지 충실하게 견딘다면, 승영을 얻게 될 것이라고 간증한다.

#### 추가로 가르칠 개념

##### 1. “신앙의 방패”(교리와 성약 27:17)

반원들과 함께 교리와 성약 27편 15, 17절을 읽는다. 이 성구에 대해 보이드 케이 패커 장로는 이렇게 말씀했다.

“신앙의 방패는 공장에서 대량으로 생산되는 것이 아니라 가정에서 수공업에 의해 만들어집니다.”

“우리가 가르치는 모든 것의 궁극적인 목적은 부모와 자녀를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으로 하

나가 되게 하여 가정에서 행복한 생활을 누리고 영원한 결혼으로 인봉되며 세대와 세대가 결봉되고 하나님 아버지의 면전에서 승영에 이르게 하는 데 있습니다. ...”

“... 그러므로 우리의 지도자들은 회원들이 가정에서 가장 값있는 일을 행해야 한다는 원리를 이해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어떤 사람들은 아무리 그 의도가 좋을지라도 가정 밖에서의 활동이 너무 많으면 가정에서 신앙의 방패를 만들고 강화할 시간이 없어진다는 사실을 아직도 모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Conference Report, 1995년 4월, 8쪽; 또는 성도의 벗, 1995년 7월호, 8~9쪽)

- 어떻게 가족 안에서 신앙의 방패를 만들고 또 그것을 강화시키기 위해 부모와 자녀가 함께 일할 수 있는가?

## 2. 회개의 과정

- 회개하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해야만 하는가? 회개의 과정에 관하여 교리와 성약 58편 43절과 61편 2절은 무엇을 가르치고 있는가? 왜 고백이 회개에서 중요한 부분인가? 회개의 한 부분으로서, 우리 죄를 버리는 것은 왜 중요한가?

십이사도 정원회의 리차드 지 스코트 장로는 회개의 필수적인 요소들을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죄에 대한 애통. [이것으로] 진심으로 변화하려는 마음을 갖게 되고 용서를 받기 위한 모든 필요 조건에 기꺼이 순응하고자 하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

“죄를 버림. 이것은 범법을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단호하고 변치 않는 결심입니다. ...”

“죄의 고백. 우리는 항상 우리 죄를 주님께 고백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이 부도덕과 같은 중대한 범법이라면, 감독이나 스테이크 회장에게 고백해야 합니다. ...”

“죄에 대한 보상. 우리는 흠치거나, 피해를 입히거나, 상처를 준 모든 것을 가능한 한 원상태로 복구시켜 놓아야 합니다. ...”

“모든 계명에 순종함. 완전한 순종은 우리의 생활에 충만한 복음의 권능이 미치게 합니다. 그것은 처음에는 회개해야 할 일의 일부로 생각지 않았던 모임 참석, 십일조 헌금, 다른 사람에 대한 봉사 와 용서 등을 하지 않았던 것들이 포함됩니다. ...”

“구주에 대한 인정. 회개에 이르는 모든 필요한 단계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구속주로 인해 용서가 주어진다는 확신을 갖는 것임을 간증드립니다.”(Conference Report, 1995년 4월, 102쪽; 또는 성도의 벗, 1995년 7월호, 75~76쪽)

여러분이 청소년을 가르치고 있다면, 청소년들에게 청소년의 힘을 위하여 (36550 320), 29~30 쪽에 있는 회개에 관한 권고를 읽고 토론하게 할 수 있다.

## 3. 그룹 발표

복음 그림 패킷(34730 320)을 반으로 가져온다. 반을 두 그룹으로 나누고 각 그룹에게 그림의 반씩을 나누어 준다. 그리고 나서 몇 분의 시간을 주고 받은 그림을 활용하여 복음의 첫째 되는 원리와 의식을 가르치기 위한 하나의 메시지를 만들어 보게 한다. 5에서 10장 정도의 그림을 활용하도록 부탁한다. 각 그룹에게 준비한 것을 발표한 시간을 준다.

---

**목적** 반원들이 신권의 회복에 대해 잘 알고 감사하도록 돕고, 형제들이 신권의 직분과 부름을 영화롭게 하도록 격려하며, 모든 회원들이 신권의 축복을 더욱더 충만하게 누리도록 돕는다.

---

**준비 사항**

1. 기도하는 마음으로 다음의 경전 구절과 다른 자료를 공부한다.
  - ㄱ. 교리와 성약 13편; 20:38~67; 27:12~13; 84:6~30; 107:1~20; 110:11~16; 조셉 스미스-역사 1:66~73.
  - ㄴ. 아론 신권의 회복에 관한 올리버 카우드리의 기사(조셉 스미스-역사 1:71)
  - ㄷ. 우리의 유산, 11~14쪽.
2. 반원 학습 지도서(35686 320)에서 본 공과에 대한 자료를 살펴본다. 공과 시간에 자료를 참조할 수 있는 방법을 계획한다.
3. 멜기세덱 신권의 회복 그림 (62371; 복음 그림 팩킷 408)을 구할 수 있다면, 준비하여 공과 동안에 활용한다.
4. 주의 집중 활동을 활용하려면, 여러 종류의 열쇠를 반으로 가져온다.

---

## 공과 전개 제언

주의 집중 활동 적절한 경우, 공과를 시작하기 위해 다음 활동이나 여러분 자신이 준비한 활동을 활용한다.

여러 개의 열쇠를 치켜든다.

- 이 열쇠들의 목적은 무엇인가?

칠판에 신권이라고 적는다. 교회에서 우리는 신권 열쇠라는 말을 종종 사용한다고 설명한다.

- 신권 열쇠의 목적은 무엇인가?

신권 열쇠는 신권 소유자들이 스테이크, 와드, 또는 정원회와 같이 관할권을 가지고 교회를 감리하고 지시할 수 있도록 권한을 준다고 설명한다. 감리하는 신권 지도자는 그들이 성별될 때 이러한 열쇠를 받는다. 모든 신권 직분 그리고 교회 조직의 직책들은 이러한 감리 역원들의 지시 아래서 그 기능을 한다. 본 공과는 신권과 그 열쇠의 회복에 관한 것이다.

---

**토론 및 적용** 기도하는 마음으로 반원들의 필요 사항을 가장 잘 충족시켜 줄 수 있는 공과 자료를 선정한다. 반원들을 격려하여 성구의 원리와 관련된 경험을 이야기해 주도록 한다.

### 1. 신권의 정의와 목적

교리와 성약에서 신권은 주요한 주제 가운데 하나라고 설명한다. 선지자 조셉 스미스를 통하여, 주님께서 신권의 열쇠, 직분, 조직, 의식, 의무, 축복에 관하여 우리의 이해의 폭을 크게 넓혀 주는

많은 계시들을 주셨다. 이러한 계시들은 지상에서 하나님의 사업을 전진시키기 위하여 신권을 활용하는 데 필요한 지침을 제공하여 주고 있다.

- 신권이란 무엇인가?(신권은 하나님의 영원한 권능이자 권세이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여러 하늘과 땅을 지으시고 다스리시는 권능이다. 그것은 또한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들을 구속하시고 승영하게 하는 권능이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신권의 권능과 권세의 일부를 교회의 합당한 남성들에게 주어, 그들이 복음을 전파하고, 구원의 의식을 집행하며, 지상에서 그분의 왕국을 다스리게 하셨다.)
- 지상에서 신권을 갖는 것이 왜 중요한가?(답에는 신권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대신하여 하나님의 자녀들을 축복하고 또 그들이 승영을 준비하는 것을 돕는 권한을 주는 것이라는 점이 포함될 수 있다.)
- 신권 소유자들이 하나님을 대신하여 하나님의 자녀들을 축복하는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교리와 성약 20:38~55; 107:8~12, 23, 35에서 선정한 구절 참조) 신권 소유자의 봉사를 통하여 여러분은 어떻게 축복을 받았는가?
- 신권은 지금까지 여러분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 신권의 권능이 여러분의 생활에 나타나는 것을 여러분은 어떻게 보았는가?
- 신권이 여러분의 가족을 어떻게 축복하고 또 강화시켜 왔는가? 여러분은 어떻게 여러분의 생활과 여러분의 가족 가운데서 신권의 영향력과 권능이 효과적이 되도록 할 수 있는가?

## 2. 아론 신권의 회복

조셉 스미스-역사 1장 68~72절, 교리와 성약 13편, 84편 26~27절, 107편 20절을 읽고 토론한다. 아론 신권은 “큰신권 곧 멜기세덱 신권에 부속되는” 신권이라고 설명한다.(교리와 성약 107:14)

- 이 후기에 아론 신권이 어떻게 지상에 회복되었는가?(조셉 스미스-역사 1:68~72과 우리의 유산, 11~13쪽 참조; 또한 교리와 성약 13편 참조. 아론 신권의 회복은 이 경륜의 시대에서 신성한 권세가 첫 번째로 부여된 것임을 지적한다.)
- (신권 소유자에게만 해당) 여러분은 아론 신권을 받았을 때 어떠한 느낌이 들었는가?

여러분은 아론 신권을 받는 것에 관한 올리버 카우드리의 느낌을 살펴볼 수 있다.(조셉 스미스-역사 1:71 참조) 여러분은 집사 직분에의 성임이 그에게 미쳤던 영향에 관하여 제임스 이 탈매지 장로 (십이사도 정원회에서 봉사했음)가 남긴 다음 말씀을 읽어 줄 수도 있다.

“성임되는 순간에, 내가 결코 충분히 설명할 수 없을 것 같은 느낌이 왔다. 어린 소년이었던 내가 신권에 부름을 받을 만큼 하나님으로부터 영광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정말로 가능한 일 같지가 않았다. … 내가 하나님께 속해 있으며 또 내게 요구되는 일이면 어떤 일에서라도 그분께서 나에게 도움을 주시리라는 생각이 강하게 느껴졌다.

“성임의 영향이 … 어린 소년의 생활의 모든 면에서 일어났다. … 학교 운동장에서 놀 때, 경기에서 공정하지 못한 방법으로 유리하게 되고 싶은 유혹이 있을 때, 친구와 다투는 와중에서도, 나는 내가 집사이며 또한 집사가 이렇게 행동하는 것은 옳은 것이 아니라는 점을 기억하려 노력했으며, 또 그 생각은 내게 마치 큰 소리로 말하는 것과 같은 효과가 있었다. 시험 보는 날에 내가 다른 사람의 시험지를 슬쩍 보고 베껴 쓰는 것이 가능하게 보일 때에도 … 나는 속으로 집사

이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이 하는 것보다도 더욱 사악한 일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곤 하였다.”(Incidents from the Lives of Our Church Leaders [deacons instruction manual, 1914년], 135~136쪽)

- 소년들과 청년들은 아론 신권을 받기 위해 어떻게 준비할 수 있는가? 소년들과 청년들이 신권을 받을 준비를 하는 데 부모, 조부모,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도움을 줄 수 있는가?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소년들과 청년들에게 신권에 대한 깊은 감사의 마음이 스며들도록 도움을 줄 수 있는가?
- 아론 신권과 함께 어떤 권세와 축복이 회복되었는가?(교리와 성약 13편; 84:26~27; 107:20 참조. 토론을 전개하기 위해 다음의 내용을 활용한다. 그 제목을 칠판에 적는다.)

천사의 성역의 열쇠(교리와 성약 13편; 84:26; 107:20)

- “천사의 성역의 열쇠”를 지니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교리와 성약 13편)

고든 비 힝클리 회장은 이렇게 말씀했다. “내가 해석하건대 그것은 만일 여러분이 신권에 합당하게 생활할진대, 여러분은 하늘의 천사가 여러분을 인도하고 보호하고 축복할 바로 그 권능을 받고 향유할 권리를 지닌다는 뜻입니다.”(Conference Report, 1982년 10월, 64쪽; 또는 성도의 빛, 1983년 1월호, 62쪽)

다음 내용을 설명하도록 한다. 천사의 성역은 직접 나타남을 통해 행해질 수도 있으며, “또한 눈에 보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천사의 메시지는 음성을 통해서나 아니면 단순히 생각이나 느낌으로만 마음에 전해질 수도 있습니다. ... 천사의 교통은 대부분 눈에 보이기보다는 마음에 느낌으로 오거나 음성으로 들립니다.”(델린 에이치 옥스, Conference Report, 1998년 10월, 51쪽; 또는 리아호나, 1999년 1월호, 38~39쪽)

- 아론 신권의 회복을 통하여, 천사의 성역이 비단 신권 소유자들뿐만이 아니라 교회의 모든 회원들에게도 올 수 있게 되었다. 우리는 어떻게 천사의 성역을 받을 수 있는가?(모로나이서 7:35~37과 다음의 인용문 참조)

십이사도 정원회의 델린 에이치 옥스 장로는 성찬을 취하는 것과 천사의 성역을 받는 것 사이의 관계에 대하여 이렇게 말하였다.

“아론 신권의 침례 의식과 성찬을 통하여 우리는 죄에서 깨끗해지며, 성약을 준수한다면 주님의 영이 늘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라는 약속을 부여받았습니다. 저는 그 약속은 성신은 물론 천사의 성역까지도 지칭한다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천사들은 성신의 권능으로 말하나니, 그러므로 그들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말하’ (니파이후서 32:3)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론 신권 소유자는 주님의 영의 동반과 천사의 성역을 누리기 위해 성찬을 합당하게 취하는 모든 교회 회원들을 위해 그 문을 열어 줍니다.”(Conference Report, 1998년 10월, 51쪽; 또는 리아호나, 1999년 1월호, 39쪽)

여러분은 천사의 성역에 관하여 두세 가지 성구를 살펴볼 수 있다. 이러한 성구에는 다음 구절이 포함된다. 제3니파이 7:18; 17:23~24; 모로나이서 7:25, 29~31; 교리와 성약 84:88.

회개와 침례의 열쇠 (교리와 성약 13편; 84:26~27; 107:20)

회개와 침례가 또한 “예비적 복음”이라고 불린다고 설명한다.(교리와 성약 84:26~27) 이것은 우리가 성신의 은사와 성전 의식과 같이 멜기세덱 신권을 통하여 집행되는 좀 더 큰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를 준비시키는 데 회개와 침례가 도움을 주기 때문이다.

- 침례 요한은 회개를 전하고 또 사람들에게 침례를 주면서 구주가 오시는 길을 준비했다.(마태복음 3:1~6, 11) 우리 시대에 아론 신권 소유자들은 어떻게 회개를 전할 수 있는가? (답에는 가정 복음 교육을 통해서, 선교 사업을 통해서, 간증을 전함으로써, 우정 증진을 통해서가 포함될 수 있다.) 아론 신권 소유자는 어떻게 침례 의식에 참여할 수 있는가? (감독의 지시 아래 합당한 제사는 침례를 베풀고 침례 때에 증인의 역할을 할 수도 있다.)

누군가를 침례한 적이 있는 형제들에게 그 의식을 집행할 수 있었던 것에 관한 그들의 느낌을 이야기해 주도록 권유한다.

- 침례 이외에도, 아론 신권 소유자들은 성찬 의식을 집행할 수도 있다. 성찬이 어떻게 회개와 침례와 관계가 있는가?

형제들에게 그들이 처음으로 성찬을 준비하거나, 축복하거나, 또는 전달하였을 때의 느낌을 이야기해 주도록 권유한다. 또는 부모들에게 그들의 아들이 성찬을 준비하거나 축복하거나 전달했을 때의 느낌을 이야기해 주도록 부탁한다.

십이사도 정원회의 제프리 알 홀런드 장로는 이렇게 말씀했다. “우리는 여러 젊은 아론 신권 소유자들에게 이 구주의 희생의 상징물들을 합당하고 경건하게 준비하고 축복하며 전달해 주도록 당부드립니다. 아주 어린 나이에 주어지는 이 특권과 신뢰야말로 얼마나 놀라우며 신성한 것입니까? 저는 하늘이 여러분에게 표할 수 있는 이보다 더 큰 찬사를 생각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여러분을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최선을 다해 사시고 주님의 만찬인 성찬식에 참석했을 때 최고의 것을 추구하십시오.”(Conference Report, 1995년 10월, 89쪽; 또는 성도의 벗, 1996년 1월호, 68쪽)



사스케하나 강. 아론 신권과 멜기세덱 신권이 1829년 이 강의 강둑에서 회복되었다.(교리와 성약 13편; 128:20)



### 3. 멜기세덱 신권의 회복

다음 성구들에 대해 가르치고 토론한다. 교리와 성약 27:12~13; 84:19~22; 107:1~12, 18~19. 멜기세덱 신권은 대신권이라고 설명한다. 하나님의 자녀의 승명에 필요한 모든 권세와 지식, 그리고 성약이 이것과 연관되어 있다.

- 이 후기에 멜기세덱 신권이 어떻게 지상에 회복되었는가?(멜기세덱 신권의 회복 그림을 보여 준다. 침례 요한이 아론 신권을 회복하고 몇 주 후에,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조셉 스미스와 올리버 카우드리에게 나타나서 그들에게 멜기세덱 신권을 부여했다고 설명한다. 이 경험에 관한 기사가 교리와 성약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으나, 이에 대한 언급을 교리와 성약 13편의 머리글과 교리와 성약 27편 12~13절, 교리와 성약 128편 20절, 그리고 *우리의 유산*, 14쪽에서 찾아볼 수 있다.)
- 멜기세덱 신권과 함께 어떤 권세와 축복이 회복되었는가?(교리와 성약 84:19~22; 107:8~12, 18~19; 110:11~16 참조. 이 토론을 전개하기 위해 다음 내용을 활용한다. 칠판에 그 제목을 적는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권세(교리와 성약 84:19)*

- 멜기세덱 신권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권세를 포함하고 있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교리와 성약 84:19 참조. 답에 멜기세덱 신권이 교회를 다스리고, 복음을 전하며, 구원의 의식을 집행할 권세를 포함하고 있다는 점이 포함될 수 있다.)

*“교회의 모든 영적 축복의 열쇠”(교리와 성약 107:18)*

- 멜기세덱 신권을 통하여 우리에게 오는 영적인 축복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가?(교리와 성약 84:19~22; 107:18~19 참조. 답에는 아래에 열거된 내용이 포함될 수 있다. 각 축복의 의미와 반원들의 생활에의 적용에 대해 토론한다.)
  - ㄱ. 왕국의 비밀의 열쇠와 하나님의 지식의 열쇠(교리와 성약 84:19; 107:19 이 지식은 성신의 은사를 통하여 온다.)
  - ㄴ. 경건의 능력은 복음의 의식을 통하여 나타난다.(교리와 성약 84:20~21) 신권 의식이 어떻게 “경건의 능력”이 우리 생활 가운데 나타나도록 하여 주는가? 반원들에게 복음의 의식을 통하여 나타났던 “경건의 능력”을 느꼈던 경험을 이야기해 주도록 권유한다.
  - ㄷ. 하나님 아버지와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대화하고, 그분들의 임재하심을 누리는 기회(교리와 성약 84:22; 107:19)
- 멜기세덱 신권 소유자들이 그들의 가정에서 영적인 지도자가 되는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제일회장단의 권리(교리와 성약 107:8~9)*

제일회장단의 권리는 교회에서 감리하는 권리라고 설명한다. 교회 회장은 전체 교회를 다스리기 위하여 신권 열쇠를 사용할 수 있는 (또는 다른 사람이 그것을 사용하도록 권한을 줄 수 있는) 지상에서 유일한 사람이다. 그는 다음의 신권 지도자들에게 권한을 주어 그들의 부름에서 감리하는 데 필요한 열쇠를 지니도록 했다. 그들은 성전 회장, 선교부 회장, 스테이크 회장, 감독, 지방부 회장, 지부 회장 및 정원회 회장이다.

이스라엘의 집합의 열쇠, 아브라함의 경륜의 시대의 복음의 열쇠, 인봉 권능의 열쇠(교리와 성약 110:11~16)

이러한 열쇠들이 1836년에 커틀랜드 성전에서 모세, 일라이어스, 엘리야에 의해 회복되었다고 설명한다. 이 열쇠들은 제18과에서 토론하게 될 것이다.

#### 4. 모든 사람을 위한 신권의 축복

오직 합당한 남성 교회 회원들만이 신권을 지니지만, 모든 사람들이 그 축복에 참여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 어떻게 여성들이 신권의 축복을 받는가? 어떻게 어린이들이 신권의 축복을 받는가? (여성들과 어린이들이 그들의 생활 가운데서 얻을 수 있는 신권의 축복 가운데서 몇 가지를 살펴본다. 비록 여성들과 어린이들이 신권을 지니지는 않지만, 그들이 지속적으로 신권의 축복을 받고 있음을 강조한다. 이 질문의 답에 도움이 될 만한 자료로서 후기 성도 여성상 제1과장[31113 320], 제 12~13과를 참조할 수 있다.)
- 가정에 충실한 신권 소유자가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신권 축복을 받을 수 있는가? (답에는 가정 복음 교사와 신권 지도자, 그리고 친척들을 통해서가 포함될 수 있다.) 반원들에게 그들의 가정에 살고 있지 않은 신권 소유자로부터 신권의 축복을 받았을 때의 경험에 관해 이야기해 주도록 권유한다.
- 우리는 어떻게 신권의 축복에 대해 감사를 표할 수 있는가?

결론

신권과 그 열쇠가 회복되었다고 간증한다. 신권 소유자는 지상에서 하나님의 사업을 인도하고, 그분의 자녀들을 축복하고 또 승영을 위해 그들을 도와 준비시키는 일을 돕는 데 그분을 대신하여 행할 권세를 지니고 있다. 모든 사람이 신권의 축복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 반원들에게 이러한 축복을 구하도록 격려한다.

#### 추가로 가르칠 개념

여러분은 제언된 공과 개요를 보충하기 위하여 다음 개념 가운데서 한 가지 또는 두 가지 모두를 활용할 수 있다.

#### 1. 신권 직분, 정월회, 의무

주님께서는 신권의 직분, 각 직분의 의무, 그리고 신권 소유자들이 조직되어야 하는 정월회에 관하여 중요한 지침을 조셉 스미스에게 밝혀 주셨다. 여러분은 다음 도표에 나타나 있는 것처럼 이 지침들 가운데서 몇 가지를 살펴볼 수 있다.

#### 아론 신권

| 직분 | 의무                             | 정월회          |
|----|--------------------------------|--------------|
| 집사 | 교성 20:57~59; 84:111            | 교성 107:85    |
| 교사 | 교성 20:53~59; 84:111            | 교성 107:86    |
| 제사 | 교성 20:46~52                    | 교성 107:87~88 |
| 감독 | 교성 107:13~17, 68, 71~72, 87~88 |              |

**멜기세덱 신권**

| <b>직분</b> | <b>의무</b>  | <b>정원회</b>                          |
|-----------|--|-------------------------------------|
| 장로        | 교성 20:38~45; 42:43~44;<br>43:15~16; 107:11~12              | 교성 107:89; 124:137                  |
| 대제사       | 교성 107:10, 12, 17  | 교성 124:133, 136                     |
| 축복사       | 교성 124:91~93, 124  |                                     |
| 칠십인       | 교성 107:25, 34, 38, 97                                      | 교성 107:25~26, 93~96;<br>124:138~139 |
| 사도        | 교성 27:12~13; 107:23, 33, 35,<br>39, 58; 112:30~32; 124:128 | 교성 107:23~24                        |

솔트레이크 성전(62433; 복음 그림 패키지 502)의 사진을 보여 준다. 성전 동편의 침탑이 서편에 있는 것보다도 높다고 지적한다. 또한 동편 침탑에는 다섯 개의 창문이 있고, 서편 침탑에는 네 개의 창문이 있음에 유의한다. 이러한 설계는 멜기세덱 신권과 그 안의 다섯 직분을 동편의 침탑으로 나타내고, 아론 신권과 그 안의 네 개의 직분을 서편의 침탑으로 나타내어 신권을 보여 주기 위해 의도된 것이라고 설명한다.

**2. “신권의 회복” 비디오 발표**

*교리와 성약 및 교회사 비디오 발표 자료(53912 320)*를 구할 수 있다면, 공과의 두 번째 부분에 대한 역사적 배경을 알려 주기 위해 “신권의 회복”(8분)을 보여 주는 것을 고려한다.

**목적**

반원들에게 선지자 조셉 스미스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 교회가 회복되었다는 것에 대해 가르치고, 그들이 교회 회원이 되어 얻는 축복을 인식하도록 돕고, 또 그분의 교회의 회원이 된 것에 감사를 주님께 드리도록 격려한다.

**준비 사항**

1. 기도하는 마음으로 다음의 경전 구절과 다른 자료를 공부한다.
  - ㄱ. 교리와 성약 20:1~36, 68~69, 75~79; 21편; 27편; 115:1~4.
  - ㄴ. 우리의 유산, 14~16쪽.
2. 반원 학습 지도서(35686 320)에서 본 공과에 대한 자료를 살펴본다. 공과 시간에 자료를 참조할 수 있는 방법을 계획한다.
3. 두 번째로 나와 있는 주의 집중 활동을 활용하려면, 각 반원들을 위해 종이와 필기 도구를 가져온다.

**공과 전개 제언**

주의 집중 활동

적절한 경우, 공과를 시작하기 위해 다음 활동을 활용한다. 반에게 가장 적합한 활동을 선정한다.

1. 반이 작은 경우, 각 반원들에게 교회 회원이 된 것에 감사해야 하는 이유를 간단히 이야기하도록 요청한다. 반이 큰 경우, 여러분은 몇몇 반원들에게 이렇게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2. 칠판에 다음의 질문을 적는다. 각 반원들에게 종이와 필기 도구를 준다. 반원들이 할 수 있는 만큼 이 질문에 대한 답을 가능한 한 많이 적게 한다.

이 경륜의 시대에 교회는 언제 조직되었는가? (연월일)  
 조셉 스미스는 교회가 조직되어야 하는 날짜를 어떻게 알았는가?  
 교회는 어디에서 조직되었는가?  
 교회가 처음으로 조직되었을 때 교회 회원 수는 얼마나 되었는가?

본 공과에서는 예수 그리스도 교회를 후기에 조직한 것에 대해서 토론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한다. 반원들에게 공과가 진행됨에 따라 나오게 되는 질문의 답을 귀기울여 듣고, 필요한 경우 답을 적거나 그들이 적은 답을 고치도록 권유한다.

토론 및 적용

기도하는 마음으로 반원들의 필요 사항을 가장 잘 충족시켜 줄 수 있는 성구, 질문, 그리고 다른 공과 자료를 선정한다. 선정한 성구가 어떻게 일상 생활에 적용되는지에 대해 토론한다. 반원들을 격려하여 성구의 원리와 관련된 경험을 이야기해 주도록 한다.

## 1. 교회가 후기에 조직되다.

1830년은 세계 역사상 중요한 시기였다고 설명한다. 고대의 예언이 성취될 때가 온 것이었다.(이사야 11:11~12; 29:13~14; 예레미야 31:31~33; 다니엘 2:44~45) 몰몬경이 출판되고 또 신권이 회복된 후, 복음의 회복에서 이뤄져야 할 다음의 주요 단계는 교회를 공식적으로 조직하는 것이었다. 교리와 성약 20편은 교회를 조직하는 것에 관하여 주님께서 조셉 스미스에게 주신 지침을 담고 있다.

- 이 경륜의 시대에 교회는 몇 년 몇 월 몇 일에 조직되었는가?(교리와 성약 20:1; 21:3 참조) 왜 이 날이 선정되었는가?(교리와 성약 20편 머리말 참조)
- 첫번째 시현과 교회의 조직 사이에는 10년의 세월이 흘렀다. 이 기간 동안, 교회를 조직할 길을 준비하고 또 교회를 인도할 조셉 스미스를 준비시키기 위해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여러분은 답을 칠판에 열거할 수 있다. 필요하다면, 이 질문에 답하는 것을 돕기 위해 다음 인용문을 참조한다.)

십이사도 정원회에서 봉사할 때, 고든 비 힝클리 장로는 이렇게 말씀했다.

“교회가 조직된 이날은 사실상 조셉이 십 년에 걸친 놀라운 교육 과정을 마치고 졸업하는 날이었습니다. 그것은 아버지와 아들이 열네 살 된 소년에게 나타나셨던 1820년의 어느 봄날 숲속에서 있었던 유례없는 시현과 함께 시작되었던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여러 차례에 걸쳐 경고와 가르침을 주면서 모로나이가 행하였던 개인적인 교육으로 계속되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고대 기록의 번역이 있었으며, 그 경험을 통해서 영감, 지식, 그리고 계시가 주어졌습니다. 신성한 권세, 곧 고대의 신권이 그 합법적인 소유자 다시 말해 아론 신권의 경우에는 침례 요한 그리고 멜기세덱 신권의 경우에는 베드로, 야고보, 요한에 의해 인간에게 다시 부여되었습니다. 수많은 계시가 주어졌으며,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다시 들렸고, 인간과 창조주 사이에 교통 통로가 열렸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역사적인 4월 6일을 준비하는 것들이었습니다.”(150-Year Drama: A Personal View of Our History”, *Ensign*, 1980년 4월호, 11~12쪽)

- 몰몬경의 출현이 어떻게 복음의 회복을 위한 길을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되었는가? (교리와 성약 20:6~12 참조) 신권의 회복이 어떻게 그 길을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되었는가? (교회를 인도하고 구원의 의식을 집행하기 위해서는 신권 권세가 필요했다.)

1830년 4월 6일, 조셉 스미스와 50명 이상의 사람들이 교회를 조직하기 위하여 뉴욕 주 페이엠티에 있는 피터 휘트머 일세의 통나무집에 모였다. 뉴욕 주 법은 교회가 정식으로 조직되기 위해서는 최소한 여섯 명의 회원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었다. 그래서 이미 침례를 받았으며 또 금판을 보았던 여섯 사람이 공식적으로 최초의 교회 회원이 되었다. 이 사람들은 조셉 스미스, 올리버 카우드리, 하이럼 스미스, 피터 휘트머 이세, 새뮤얼 에이치 스미스, 데이비드 휘트머였다.(교회 정사, 1:76 참조. 추가적인 역사적 배경에 대해서는 *우리의 유산*, 14~16쪽을 참조한다.)

- 교회가 조직되었을 때, 어떤 이름으로 불리었는가?(교리와 성약 20:1 참조) 초기 시절에는 교회가 다른 이름으로도 불리었으나, 1838년 4월에 주님께서 그분의 교회가 알려져야 하는 이름을 계시해 주셨다고 설명한다. 주님께서 어떤 이름을 그분의 교회에 주셨는가?(교리와 성약 115:4 참조) 주님의 교회가 그분의 이름에 따라 불리는 것은 왜 중요한가?(제3니파이 27:8 참조)

몰몬이라는 이름이 몰몬경 때문에 교회에 붙여진 별명이라는 것을 설명할 수도 있다. 우리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의 신앙을 강조하기 위해 교회를 완전한 이름으로 부르는 것을 선호한다.

여러분이 주의 집중 활동 중 두 번째 사항을 활용하려면, 질문에 대한 답을 간략하게 살펴본다.(모든 답이 앞의 토론에서 주어졌다.)



피터 휘트머 일세의 통나무집. 이 집은 1830년 4월 6일 교회가 조직되었던 뉴욕 주 페이지에 있던 장소에 복원되어 세워졌다.

## 2. 주님께서는 교회 회원들에게 선지자를 따르라고 명하셨다.

교회가 조직되었던 모임에서, 조셉 스미스와 올리버 카우드리는 교회의 감리 역원으로 지지되었다.(교회 정사, 1:77) 주님께서는 또한 교회 회원들에게 조셉 스미스를 선지자로 따르라고 지시하는 계시를 주셨다. 이 계시가 교리와 성약 21편에 기록되어 있다.

- 반원들과 함께 교리와 성약 1편 38절과 21편 4~5절을 읽는다. 우리가 선지자의 말씀을 어떻게 여겨야 하는지에 관하여 이 구절은 무엇을 가르치고 있는가?(교리와 성약 21편에 있는 내용이 조셉 스미스에 관해 말하고 있기는 하지만, 그것들이 또한 그의 뒤를 이은 선지자들에게도 적용이 된다고 지적한다.) 우리는 어디에서 살아 계신 선지자의 말씀을 찾을 수 있는가?(답에는 공식 서한, 연차 대회, 교회 잡지가 포함될 수 있다.) 후기의 선지자들의 어떤 권고나 가르침이 특별히 여러분에게 의미가 있었는가?
- 교리와 성약 21편 5절에서, 주님께서는 우리가 “인내와 신앙으로” 선지자의 말씀에 귀기울여만 한다고 말씀하셨다. 선지자의 권고에 따르는 것에 왜 때때로 인내나 신앙이 필요할 수도 있는가? 반원들에게 선지자의 권고를 따르는 것에 인내나 신앙이 필요하였던 때의 경험을 이야기해 주도록 권유한다.
- 반원들과 함께 교리와 성약 21편 6절을 읽는다. 선지자를 따르는 사람들에게 주님께서는 어떤 축복을 약속하셨는가?(여러분은 칠판에 이 축복들을 열거할 수 있다.) 이러한 축복들이 오늘날 교회 회원들의 생활에서 어떻게 성취되었는가? 여러분이 선지자를 따랐기 때문에 여러분은 어떤 면에서 축복을 받았는가?
- 교리와 성약 21편 9절에서 주님께서는 그분을 위하여 봉사하는 사람들에게 “큰 축복”을 약속하셨다. 여러분은 주님을 위해 봉사하면서 어떤 축복을 받았는가?(여러분은 주님에 대한 봉사가 주는

한 가지 축복은 선지자의 말씀에 대한 우리의 간증이 강화되었다는 점이라고 지적할 수 있다.)

### 3. 주님께서는 교회 회원들에게 자주 함께 모여서 성찬에 참여할 것을 권장하셨다.

- 교회가 조직되었던 모임에서 회원들이 성찬을 취했다고 설명한다.(교회 정사, 1:78) 회복된 교회의 첫 번째 모임에서 성찬 의식을 거행하였다는 것이 왜 중요하다고 여러분은 생각하는가?
- 교리와 성약 20편에서, 주님께서는 성찬이 어떻게 집행되어야 하는지에 관한 계시를 주셨다.(75~79절) 반원들과 함께 교리와 성약 20편 75절을 읽는다. 성찬에 자주 참여하는 것은 왜 중요한가?
- 반원 한 명에게 성찬 기도문을 읽어 줄 것을 부탁한다.(교리와 성약 20:77, 79) 성찬을 취할 때 우리는 어떤 것을 약속하는가? (누가복음 22:19~20; 또한 제3니파이 18:7, 10~11 참조) 여러분은 두 기도문이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음을 지적할 수 있다. 주님을 항상 기억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우리가 주님을 기억하는 데 성찬이 어떻게 도움이 되었는가?
- 성찬 기도문에서 합당하게 성찬을 취하는 사람에게는 어떤 약속이 주어져 있는가?(교리와 성약 20:77, 79 참조) 적절한 경우, 반원들에게 성찬을 취하는 것이 어떻게 그들의 생활에 축복을 가져다주었는지를 말해 주도록 권유한다.
- 교리와 성약 27편에서, 주님께서는 성찬에 관하여 조셉 스미스에게 추가 지침을 주셨다. 이 계시를 받았을 때, 조셉은 무엇을 하고 있었는가?(교리와 성약 27편 머리말 참조) 이 계시를 통해 조셉은 성찬에 관해 무엇을 배웠는가?(교리와 성약 27:2 참조) 우리는 어떻게 그리스도의 “영광만을 전념하여” 성찬에 참여할 수 있는가?

### 4. 주님께서는 교회 회원들의 의무에 관해 설명해 주셨다.

- 반원들과 함께 교리와 성약 20편 68~69절을 읽는다. 이 구절에서 주님께서는 “침례로써 받아들여진 후의 회원의 의무”에 관해 설명해 주셨다. 69절은 교회 회원으로서 우리에게 주님께서 기대하시는 것에 관해 무엇을 밝혀 주었는가? 그분의 교회 회원이 된 것에 대해 우리는 어떻게 주님께 우리의 감사를 보여 줄 수 있는가?

## 결론

1830년에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가 조직된 것은 후기의 위대한 기적 가운데 하나임을 강조한다. 뉴욕 주 페이엠티에서의 작은 모임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주목하지 않았으나, 그 날의 사건은 세상을 변화시켜 왔다. 반원들에게 그 미미한 시작에서부터 전세계적인 교회로 성장한 기적을 깊이 생각해 보도록 권유한다. 여러분은 다음의 경험을 들려줄 수 있다.

윌포드 우드럽 회장은 선지자 조셉 스미스가 교회의 성장에 관하여 예언했던 한 모임에 관해 이야기했다. 그 모임은 서너 평 정도밖에 안 되는 작은 집에서 있었다. “그러나 그들은 당시 커틀랜드에 있던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의 신권 소유자 전부였으며, 또 시온의 진영으로 출발하려고 모였던 사람들이었다.” 몇몇 사람이 이 사업에 대한 자신의 간증을 전한 후에, 선지자는 이렇게 말했다.

“형제 여러분, 저는 오늘 저녁 이곳에서 여러분의 간증을 통해 많이 배우고 교훈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에게 어머니의 무릎에 놓여진 어린 아기가 교회와 왕국의 운명에 대해 모르는 것처럼 여러분도 모른다는 것을 주님 앞에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그것을 이해 못합니다. ... 오늘 저녁에 여러분은 이 자리에서 몇 명의 신권 소유자들만 보시지만, 이 교회는 북미 대륙과 남미 대륙을 채울 것이며 온 세상을 채울 것입니다.”(Conference Report, 1898년 4월, 57쪽; 제임스 이

파우스트, 성도의 벗, 1997년 7월호, 19쪽)

영의 지시에 따라 공과에서 토론된 진리에 대해 간증한다.

---

## 추가로 가르칠 개념

여러분은 제언된 공과 개요를 보충하기 위하여 다음 개념 가운데서 한 가지 이상을 활용할 수 있다.

### 1. 교회의 성장

반원들에게 50쪽에 있는 피트 휘트머 일세의 통나무집 사진에 주목하라고 한다. 이 사진 속의 집은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가 공식적으로 조직된 장소였던 집을 복원한 것이라고 설명한다. 교회가 처음 시작한 당시와 오늘날의 전세계적인 성장을 대비시켜 본다.

### 2.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반원들에게 교리와 성약 20편 8~31절을 읽고 하나님에 관한 진리와 지상에 있는 그분의 아들과 딸들과의 그분의 관계에 관한 진리를 찾아보도록 부탁한다. 반원들에게 그들이 이러한 진리를 알지 못했다면 그들의 생활이 어떻게 달라졌을 것인가를 생각해 보도록 부탁한다. 여러분이 토론하고 싶은 몇 가지 진리가 아래에 열거되어 있다.

- ㄱ. 교리와 성약 20:11.(하나님께서서는 지금도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시며 또한 그들에게 부름을 주어 그분의 사업을 하게 하신다.)
- ㄴ. 교리와 성약 20:12.(그분께서는 언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 ㄷ. 교리와 성약 20:17.(그분께서는 무한하시며, 영원하시며, 변함이 없으시다.)
- ㄹ. 교리와 성약 20:17.(그분께서는 하늘과 땅, 그리고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셨다.)
- ㅁ. 교리와 성약 20:18.(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
- ㅂ. 교리와 성약 20:21~25.(하나님께서서는 우리의 죄를 속죄하시기 위해 그분의 독생자를 주셨다.)
- ㅅ. 교리와 성약 20:29~31.(우리가 믿고, 회개하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며, 끝까지 견디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하여 의롭게 되고 성결하게 되어 하나님의 왕국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다.)

### 3. “내가 지상에서 너희와 ... 포도나무 열매를 마실 시간이 이름이니라”(교리와 성약 27:5)

- 교리와 성약 27편 5절을 읽는다. 이 구절에서 성찬에 관한 어떤 약속을 주님께서서는 하셨는가? (그분께서는 미래의 어느 시점에 지상에서 그분을 따르는 사람들과 함께 성찬을 취하실 것이다.) 이 일이 있을 때에 누가 그분과 함께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는가?(교리와 성약 27:5~14 참조. 14절에서 그분께서는 “내 아버지께서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모든 자”가 참여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다고 지적한다.)

### 4. “교회의 조직” 비디오 발표

교리와 성약 및 교회사 비디오 발표 자료(53912 320)를 구할 수 있다면, “교회의 조직”(8분)을 보여 주는 것을 고려한다.



# “이것은 모두에게 주는 나의 음성이라”

제 10 과

---

**목적** 경전에서 주님께서 다른 사람에게 계시하여 주신 지침들을 반원들이 자신의 생활에 적용하는 방법을 배우도록 돕는다.

---

- 준비 사항**
1. 기도하는 마음으로 교리와 성약 25편과 본 공과에 있는 다른 성구를 공부한다.
  2. 반원 학습 지도서(35686 320)에서 본 공과에 대한 자료를 살펴본다. 공과 시간에 자료를 참조할 수 있는 방법을 계획한다.
  3. 에머 스미스의 그림을 구할 수 있다면, 준비하여 공과 동안에 활용한다.(62509; 복음 그림 패킷 405)
- 

## 공과 전개 제언

**주의 집중 활동** 적절한 경우, 공과를 시작하기 위해 다음 경험을 이야기해 주거나 여러분 자신이 준비한 활동을 활용한다.

칠십인 정원회의 제이 이 젠슨 장로는 선교부 회장으로 봉사하고 있을 때 자신이 직면하고 있던 많은 문제들 때문에 지방부 대회가 끝날 무렵에 좌절과 낙담에 빠져 있었던 일에 대하여 이야기했다. 집으로 돌아오면서, 그는 경전을 펼쳐서 위안과 지침을 찾았고, 교리와 성약 제3편을 읽게 되었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한 구절을 읽을 때 가끔 제 이름을 그 구절에 삽입시켰습니다. 5절도 그렇게 읽었는데 그것은 저의 우울한 기분을 없애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보라, 이것들이 네게 맡겨져 왔도다. 그러니 네게 주어진 명령은 얼마나 엄격하더냐. 그리고 만일 네가 그것을 어기지 아니하였으면, 네게 한 그 약속들도 또한 기억하라.’(교리와 성약 3:5)

“‘약속들도 또한 기억하라’ 라는 말씀은 이례적인 힘을 느끼게 했습니다.… 그 나흘 동안 온통 저는 문제점들만 생각했습니다. 저는 단 한 가지의 약속도 생각해 보려고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Conference Report, 1992년 10월, 112쪽; 성도의 벗, 1993년 1월호, 80쪽)

그리고 나서 젠슨 장로는 자신이 받은 축복사의 축복과 선교부 회장으로 성별될 때 받은 축복, 그리고 경전을 통하여 자신에게 주어진 약속을 마음속으로 되새겨 보았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는 자신이 필요한 만큼 힘과 위안을 찾을 수 있었다.

- 우리가 경전을 읽을 때, 자신의 이름을 경전에 넣어 보는 것이 어떻게 우리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가?
- 반원들과 함께 니파이전서 19장 23절을 읽는다. 경전을 자신의 생활에 적용하는 것의 중요성에 관하여 니파이는 무엇을 가르쳤는가?

본 공과에서는 주님께서 교리와 성약에서 각각의 성도들에게 주신 권고를 우리가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토론할 것이라고 설명한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반원들의 필요 사항을 가장 잘 충족시켜 줄 수 있는 공과 자료를 선정한다. 반원들을 격려하여 성구의 원리와 관련된 경험을 이야기하도록 한다.

교리와 성약에 있는 많은 계시가 개인들에게 주어진 것임을 지적한다. 계시에는 권고가 특정한 개인들에게 주는 것이었으며 또 그 교회 회원들이 오래 전에 살았던 사람들이었지만, 권고의 많은 부분들이 오늘날의 우리에게도 적용된다. 주님께서는 반복해서 “내가 한 사람에게 말하는 것은 모두에게 말하는 것이니라”라고 말씀하셨다.(교리와 성약 61:36 또한 교리와 성약 25:16; 82:5; 93:49 참조)

1830년 7월에 주님께서는 선지자 조셉 스미스의 아내였던 에머 스미스에게 한 편의 계시를 주셨다.(교리와 성약 25편) 에머 스미스의 그림을 보여 준다. 본 공과에서는 주님이 에머에게 주신 계시에는 세 가지 주제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설명한다.

### 1. 남편과 아내는 서로를 지지하고 위안을 주어야 한다.

주님께서 에머에게 주신 계시에는 남편에 대한 그녀의 책임에 관한 권고가 포함되어 있다. 여러분이 청소년을 가르치고 있다면, 청소년들이 미래의 그들의 배우자를 지지하는 것의 중요성을 이해하도록 돕기 위해 이 부분에 있는 자료를 활용한다.

- 반원들과 함께 교리와 성약 25편 5절을 읽는다. 이 구절에서 주님께서는 에머 스미스에게 어떤 것을 권고하셨는가? 어려움을 겪는 시기에 남편과 아내는 어떤 방법으로 서로를 도울 수 있는가?(반원들이 이 질문에 대해 토론할 때, 개인적인 경험 또는 서로에게 위안을 주고 서로를 지지하고 있는 다른 배우자에게서 본 것을 이야기하도록 권유한다.)

선지자 조셉 스미스는 아내들에게 이렇게 가르쳤다. “온유와 사랑으로 남편을 대하십시오. 남편이 근심 걱정과 어려움으로 곤란을 겪을 때, 아내가 투정이나 말다툼이 아닌 미소를 보일 수 있다면, 그리고 남편이 부드러움을 느낄 수 있다면, 그것은 그의 마음을 진정시키고 그의 기분을 달래 줄 것입니다.”(선지자 조셉 스미스의 가르침, 조셉 필딩 스미스 편, 224쪽)

선지자는 남편들에게 이렇게 가르쳤다. “아내를 사랑하고, 소중히 여기며, 강화하며, 아내와 결합하며 다른 아무와도 결합하지 않는 것이 남편의 의무입니다. 남편은 아내를 자기 자신처럼 존중해야 하며, 또한 아내의 기분을 부드러운 마음으로 존중해야 합니다.”(*Elder's Journal*, 1838년 8월, 61쪽)

- 반원들과 함께 교리와 성약 25편 14절을 읽는다. 이 구절에서 주님께서는 에머 스미스에게 무엇을 권고하셨는가? 부부가 서로에 대해 기뻐하고 있다는 것을 어떻게 보여 줄 수 있는가?

조셉과 에머는 그들이 겪었던 그 많은 환란의 시기에 커다란 위안을 서로에게 주었던 지원자였다. 1832년 생명이 위협하게 되어 조셉이 숨어 있을 때, 에머는 그를 방문할 수 있었다. 나중에 조셉은 이 방문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그 날 밤, 내 손으로 젊은 시절에 맞이한 사랑하는 아내, 진심으로 내가 선택한 사람인 에머를 껴안았을 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환희와 기쁨의 감정이 내 가슴을 부풀게 하였다. 우리가 경험하도록 요구되었던 많은 장면들, 곧 우리가 걸었던 길 여기저기에 흩어져 있었던 힘들고 어려웠던 일들, 불행과 고난, 즐거웠던 일들과 위안을 주는 것들을 잠시 생각했을 때 많은 것들이 내 마음을 스쳐 지나갔다. … 용감하고 확고하며 흔들리지 않고 또 변하지 않으며, 사랑스러운 에머가 다시 이곳에서 함께 한다는 일체감이 그 순간 얼마나 내 마음을 가득 차게 하였는지!”(*교회 청사*, 5:107)

또한 조셉과 에머는 그들의 자녀들 가운데 많은 아이들이 죽었을 때에도 서로를 지지하고 위로하며 견디었다. 4년 동안에 그들은 네 명의 어린 자녀를 잃었다. 열 한 명의 자녀들 가운데서(두 명은 입

양된 자녀), 오직 세 아들과 딸 하나만이 만년까지 살았다.

선지자가 오하이오 주 커틀랜드에서 교회가 커짐에 따라 생기는 일로 인하여 무거운 짐을 지고 있을 때, 어머니는 쌍둥이, 아들 딸 하나씩을 낳았는데, 둘다 태어난 지 몇 시간 만에 죽고 말았다. 거의 같은 시기에 인근의 오렌지 시에 사는 새로운 개종자였던 존 머독과 줄리아 머독에게 쌍둥이가 태어났다. 이 쌍둥이가 태어난 지 여섯 시간 만에 머독 자매는 세상을 뜨고 말았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어머니와 조셉은 머독 형제에게, 그들이 이 쌍둥이를 입양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곧 이 두 아기, 조셉 머독과 줄리아 머독은 스미스 부부의 가정에 입양되었다.

조셉 스미스의 어머니, 루시 맥 스미스는 어려운 시기에 어머니가 조셉을 지지할 수 있었던 특성 몇 가지를 이렇게 설명했다.

“저는 제 일생에 그녀처럼 매년, 매월 계속하여 굴하지 않는 용기와 열성과 인내로 온갖 고초와 힘든 일을 잘 참아 온 여성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그녀가 견뎌 내야 했던 것이 어떤 것인지 알았기 때문입니다. … 그녀는 박해의 폭풍을 참았으며, 인간들과 악마의 분노를 버텨 냈었는데 그것은 다른 여성들이었더라면 거의 모두 쓰러뜨렸을 그런 고난들이었습니다.”(*History of Joseph Smith*, ed. Preston Nibley [1958년], 190~191쪽)

- 남편과 아내는 그들이 더욱더 사랑을 나누고 지지할 수 있도록 도움이 되는 어떤 것을 조셉과 어머니의 모범을 통하여 배울 수 있는가?

## 2. 우리는 온유하여야 하며 또 교만을 피해야 한다.

주님께서 에머 스미스에게 “온유한 심령 안에 거하고, 교만을 조심하라”고 명하셨다.(교리와 성약 25:14) 주님께서는 비슷한 지침을 다른 회원들에게도 주셨다. 반원들과 함께 다음 구절을 읽는다.

- ㄱ. 교리와 성약 23:1.(올리버 카우드리에게 줌): “유혹에 들지 아니하도록 교만을 조심하라.”
- ㄴ. 교리와 성약 38:39.(교회의 대회에 참석한 성도들에게 줌): “옛날의 니파이인들이 되지 않도록 교만을 조심하라.”
- ㄷ. 교리와 성약 90:17.(교회 제일회장단에게 줌): “부끄러워하거나 수치스러워하지 말라. 그러나 너희 모든 거만함과 교만함에 대해 훈계를 받으라. 이는 그것이 너희 영혼에 울무가 임하게 함이니라.”
- ㄹ. 교리와 성약 98:19~20.(커틀랜드의 성도들에게 줌): “나 주는 커틀랜드의 교회에 있는 많은 자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이는 그들이 그들의 죄와 그들의 악한 길, 그들 마음의 교만과 그들의 탐욕과 그들의 모든 험오스러운 것들을 버리지 아니하고”

- 교만이란 무엇인가? 교만에 관한 주님의 경고가 그토록 강하고 또 자주 나타나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여러분은 생각하는가?

에즈라 태프트 벤슨 회장은 이렇게 가르쳤다.

“우리는 대체로 교만을 자기 중심적인 것, 자만, 자랑하는 것, 거만함 또는 오만함으로 생각합니다. 이러한 것은 모두 죄의 요소들이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 빠져 있습니다.

“교만의 중심적인 양상은 적대감, 즉 하나님과 인간들에 대한 적대감입니다. 적대감이란 증오의 감정, 적개심 또는 반대하는 상태를 의미합니다.”(Conference Report, 1989년 4월, 3쪽; 성도의 벗, 1989년 7월호, 4쪽)

- 교만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

벤슨 회장은 이렇게 설명했다.

“교만은 본질적으로 경쟁적인 성질을 지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우리 뜻대로 하는 것입니다. … 하나님의 뜻대호가 아니라 내 뜻대로 하려 들게 됩니다. …

“하나님의 뜻보다는 우리의 뜻에 더 치중하면 욕망과 욕구와 걱정을 다스리지 못하게 됩니다.(엘마서 38:12; 제3니파이 12:30 참조) …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적대감은 반항, 강박한 마음, 완고함, 회개하지 않음, 자랑, 쉽게 성내고 표적을 구하는 등의 여러 형태로 나타납니다. 교만한 자는 하나님이 그들의 뜻에 동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 그들의 의견을 바꾸는 데는 흥미가 없습니다.”

(Conference Report, 1989년 4월, 4쪽; 성도의 벗, 1989년 7월호, 4~5쪽)

- 교만이 다른 사람들과 우리와의 관계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

벤슨 회장은 이렇게 말씀했다.

“이처럼 널리 퍼져 있는 교만이라는 죄의 다른 중요한 면은 우리 이웃에 대한 적대감입니다. 우리는 매일같이 우리 자신을 다른 사람보다 높이고 그들을 낮추려는 유혹을 받습니다.(힐라맨서 6:17; 교리와 성약 58:41 참조) …

“교만은 … 결점 찾기, 험담, 비난, 불평, 분수에 넘는 생활, 질투, 탐심, 다른 사람을 높이 올릴 수도 있는 감사 표시와 칭찬을 하지 않기, 용서하지 않고 시기함 등 너무나 많은 면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

“이기심은 좀 더 흔히 보는 교만의 한 모습입니다. ‘모든 것이 어떻게 나에게 영향을 미치는가’ 하는 것이 자기 기만, 자기 연민, 세상적인 자기 성취, 자기 만족 및 자기 본위와 같은 모든 중요한 것의 중심이 됩니다. …

“교만의 다른 모습은 논쟁하는 것입니다. 말다툼, 싸움, 불의한 지배, 세대 차이, 이혼, 배우자 학대, 폭동 및 소요 … 이러한 모든 것은 교만이라는 범주에 포함됩니다.”(Conference Report, 1989년 4월, 4~5쪽; 성도의 벗, 1989년 7월호, 5~6쪽)

- 우리는 어떻게 교만을 극복하고 또 온유의 영을 계발할 수 있는가?

벤슨 회장은 이렇게 권고했다. “교만의 치료제는 겸손, 즉 온유함과 순종입니다.(엘마서 7:23 참조) 그것은 상한 마음과 통회하는 심령입니다. …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의 뜻을 굽히고 주님의 뜻에 따르며, 우리 생활에서 주님을 앞세움으로써 스스로 겸손해질 수 있습니다.”

(Conference Report, 1989년 4월, 6쪽; 성도의 벗, 1989년 7월호, 7~8쪽)

- 반원들과 함께 다음 성구를 읽는다. 교리와 성약 1:28; 19:23; 112:10; 124:97 이 구절에 따르면, 우리가 온유하고 겸손하게 되려는 선택을 하였을 때 우리에게 오는 축복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 여러분이 교만 대신에 겸손을 선택하였을 때 어떤 축복이 여러분의 생활에 있었는가?

### 3. 우리는 고양시키고 기뻐해야 한다.

주님께서서는 에머 스미스에게 “고양시키고 기뻐하”라고 훈계하셨다.(교리와 성약 25:13 참조) 이 경륜의 시대에 초기 성도들이 커다란 환란에 직면하였을 때에도, 주님께서서는 그들에게 이와 유사한 훈계를 반복해서 주셨다. 반원들과 함께 다음의 구절을 읽는다.

ㄱ. 교리와 성약 29:5.(선지자 조셉 스미스와 다른 사람들에게 주셨음): “너희 마음을 들어 올리고 즐거워하라. 이는 내가 너희 가운데 있고 아버지께 대한 너희의 변호자가 됨이니”

ㄴ. 교리와 성약 61:36.(선지자 조셉 스미스와 다른 사람들에게 주셨음): “어린아이들이 기뻐하라.

이는 내가 너희 가운데 있고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였음이니라.”

- ㄷ. 교리와 성약 68:6.(올슨 하이드, 룩 에스 존슨, 라이먼 이 존슨, 윌리엄 이 매클렐른에게 주셨음): 기뻐하며, 두려워 말라. 이는 나 주가 너희와 함께 하며, 너희 곁에 서 있을 것임이니”
- ㄹ. 교리와 성약 78:18.(선지자 조셉 스미스와 다른 사람들에게 주셨음): “지금은 너희가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없도다. 그러할지라도, 담대하라. 이는 내가 너희를 인도하겠음이라.”
- ㅁ. 교리와 성약 136:29.(윈터퀴터스에 있던 이스라엘 진영에게 주셨음): “만일 네가 슬프면, 네 영혼에 기쁨을 얻을 수 있도록 주 네 하나님을 불러 간절히 구하라.”

- 이 구절에서, 주님께서는 어떠한 이유로 기뻐해야 한다고 하셨는가? 더욱더 기뻐하고 이를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우리는 어떻게 다른 사람이 기뻐하는 것을 도울 수가 있는가?
- 우리의 삶에 부정적인 면들이 심각하고 널리 퍼져 있다 할지라도, 그런 것을 자주 생각하는 결과는 무엇이겠는가?

십이사도 정원회의 마빈 제이 애쉬튼 장로는 이렇게 권고했다.

“우리 가운데 어떤 사람도 비극과 고통을 피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아마 서로 다른 반응을 보일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우리가 ‘나 주가 너희와 함께 하며’ 라는 주님의 약속을 기억할 수 있다면 품위와 용기를 가지고 우리의 문제에 직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분개하고 비판적이 되거나 좌절하는 대신에 기운을 낼 힘을 찾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한 비전과 힘과 권능을 가지고 인생에서 일어나는 불유쾌한 일에 맞서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

“다른 사람들이 불쾌한 일이나 사태 악화로 인하여 노여움에 찬 침묵이나 심한 불쾌감을 표현할 때에도 기운차게 인내하고 훌륭한 정신으로 그런 상황에 대처하는 사람들의 원기 왕성한 모습을 보는 것은 얼마나 큰 기쁨인지 모릅니다.”(Conference Report, 1986년 4월, 84~85쪽; 성도의 벗, 1986년 7월호, 69~70쪽)

기뻐하라고 하신 구주의 수많은 권고는 우리가 처한 환경에 관계없이 화평과 기쁨을 찾을 수 있다는 점을 우리에게 상기시켜 주고 있다.

## 결론

오래 전에 개별적으로 어떤 성도에게 주신 주님의 권고가 오늘날에도 우리의 삶에 커다란 축복이 될 수 있음을 다시 한 번 말한다. 회원들이 이러한 메시지를 개개인의 환경에 적용하겠다는 의도를 가지고 경전을 읽도록 격려한다.

## 추가로 가르칠 개념

### 경전을 우리의 생활에 적용함

몇몇 회원들의 사진을 미리 얻는다. 또한 에머 스미스의 그림(62509; 복음 그림 패킷 405)을 준비한다.

에머 스미스의 그림을 보여 주고 교리와 성약 25편에는 주님께서 그녀에게 주는 지침이 담겨 있다고 설명한다. 회원들의 사진을 에머 스미스의 그림 옆에 놓는다. 회원들에게 교리와 성약 25편 16절을 읽게 한다. 이 계시에 있는 권고가 우리에게도 적용될 수 있다고 설명한다. 회원들에게 교리와 성약 61편 36절, 82편 5절, 93편 49절을 읽게 한다. 우리도 경전에 기록된 말씀을 우리 삶에 적용할 때 유익을 얻을 수 있음을 회원들이 알도록 돕는다.(니파이전서 19:23 참조)

- 다른 사람에게 주어진 경전상의 권고가 어떻게 여러분의 삶에 유익을 가져다주었는가? 여러분은 이러한 권고를 여러분 자신의 상황에 어떻게 적용했는가?

# “받은 이미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음이라”

**목적** 반원들이 부지런히 봉사함으로써, 특별히 선교 사업을 통하여 복음을 나눔으로써 하나님의 왕국을 강화시키겠다는 굳은 결심을 하도록 돕는다.

- 준비 사항**
1. 기도하는 마음으로 다음의 성구와 다른 자료를 공부한다.
    - ㄱ. 교리와 성약 4, 11, 12, 14, 15, 16, 18, 31, 33, 75편과 본 공과에 있는 다른 성구.
    - ㄴ. 우리의 유산, 11쪽.
  2. 반원 학습 지도서(35686 320)에서 본 공과에 대한 자료를 살펴본다. 공과 시간에 자료를 참조하기 위한 방법을 계획한다.

## 공과 전개 제언

적절한 경우, 공과를 시작하기 위해 다음 활동이나 여러분 자신이 준비한 활동을 활용한다.

**주의 집중 활동**

칠판에 새뮤얼 스미스 → 피니애스 영 및 존 피 그린 → \_\_\_\_\_ 라고 적는다. 복음이 회복된 후에,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에 전하기 위하여 교회는 선교 사업에 막대한 노력을 기울이기 시작했다고 설명한다. 많은 새로운 개종자들이 선교 사업을 행하라는 부름을 열성적으로 받아들였다. 이러한 개종자들 가운데 한 사람이 조셉 스미스의 동생 새뮤얼이었다.

1830년 4월에 새뮤얼 스미스는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에게 물몬경을 소개하기 위해서 뉴욕 주에 있는 인근 마을로 여행을 시작했다. 그는 피니애스 영이라는 사람에게 물몬경을 팔기는 하였으나 별로 성공을 거두지는 못했다. 1830년 6월에, 새뮤얼은 선지자 조셉에 의해 동부로 선교 여행을 떠나도록 성별되었다. 그는 첫날 40킬로미터를 걸으면서 여러 집에 들렀으나 사람들은 그에게 불친절했으며 그에게 귀기울이려 하지 않았다. 다음 날 그는 감리교 목사인 존 피 그린에게 한 권의 물몬경을 맡겨 두었다. 존 피 그린의 아내 로다는 피니애스 영과는 자매지간이었다.

그가 만났던 대부분의 사람들로부터 거절을 당했던 새뮤얼은 자신의 선교 사업이 그다지 성공적이지 못했다는 느낌을 가졌다. 하지만, 그가 피니애스 영과 존 피 그린에게 맡겨 두었던 물몬경은 그들의 개종과 많은 다른 사람들의 개종에 영향을 미쳤다. 예를 들어, 피니애스 영과 로다 그린에게는 브리검이라는 이름의 형제가 있었는데, 그는 개종하여 훗날 제2대 교회 회장이 되었다. 브리검 영의 친구 히버 시 김볼 또한 교회에 가입했다. 그는 후에 제일회장단에서 봉사했다. 브리검 영과 히버 시 김볼은 미합중국과 영국에서 수 천 명의 사람들을 개종시키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우리가 칠판에 있는 빈칸에 새뮤얼 스미스의 선교 사업으로 영향을 받았던 사람들의 모든 이름을 써 넣는다면, 여러분은 수 백만 명의 이름을 써 넣어야 할 것이다. 직접적인 영향을 받았던 사람들에는 교회의 위대한 지도자 몇몇 사람이 포함되어 있다. 여러분이 가르치고 있는 사람 가운데서, 모두 다는 아니더라도, 많은 사람들이 이 봉사의 영향을 어느 정도는 받았다고 볼 수 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이름과 몇몇 반원들의 이름을 칠판에 적어 넣을 수 있다.

본 공과에서는 주님께서 그분의 왕국에서 봉사하는 것, 특별히 복음을 전하는 것에 관하여 주신 몇몇 핵심적인 계시를 토론할 것이다. 선교 사업에서의 새뮤얼 스미스의 노력이 여러 세대에 걸쳐 교회 회원들에게 축복을 가져다주었던 것처럼, 우리가 복음을 나눌 때, 지금의 많은 사람들과 미래의 수백 아니 수천 명의 사람들에게 축복을 가져다줄 가능성의 씨를 심는 것이다.

## 토론 및 적용

본 공과에는 한 공과 시간 동안에 가르칠 수 있는 것보다도 많은 자료가 포함되어 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회원들의 필요 사항을 가장 잘 충족시켜 줄 수 있는 공과 자료를 선정한다.

1829년에 조셉 스미스의 부모는 펜실베이니아 주 하모니에 있던 조셉과 에머를 방문했다. 방문 동안에, 선지자는 주님께 간구하여 교리와 성약 4편에 기록되어 있는 부친 조셉 스미스 일세에 대한 계시를 받았다.

부친에 대한 계시에 덧붙여, 선지자는 자신들에 대한 주님의 뜻을 알고자 하여 주님께 간구해 줄 것을 그에게 부탁했던 다른 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계시를 받았다. 이러한 계시 가운데 몇 편이 교리와 성약 11, 12, 14, 15 그리고 16편에 기록되어 있다. 이러한 계시들이 특정한 개인들에게 주어졌던 것이기는 하지만, 그 원리는 주님의 왕국에서 봉사하는 모든 사람들과 관련된 것이다.(교리와 성약 11:27)

### 1. “너희 온 마음과 능력과 생각과 힘을 다하여 그를 섬기라”

- 회원들과 함께 교리와 성약 4편 1~2절을 읽는다. 2절에 따르면, 주님께서 그분의 왕국에서 봉사하는 이들에게 무엇을 요구하셨는가? 온 마음과 능력과 생각과 힘을 다하여 섬기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가? (이것은 주님의 사업을 위해 모든 것을 바친다는 것을 말한다.)
- 우리의 온 영육을 주님의 사업을 하는 데 다 바치는 것은 왜 중요한가? 어떤 이유로 우리는 때때로 온 영육을 다해 주님의 사업에 헌신하겠다는 결의에 부족함을 보이는가? 모든 것을 헌신하여 주님의 사업을 위해 바치겠다는 결의를 우리는 어떻게 강화할 수 있는가?

조셉 스미스의 부친은 교리와 성약 4편에서 가르침을 받은 대로 주님을 섬기는 데 온 생애 동안 헌신했다고 설명한다. 복음을 전하겠다고 그의 굳은 결심을 보여 주는 다음의 기사를 이야기해 준다.

“조셉 스미스 일세는 진리에 대한 간증으로 가득 차 있었으며, 또한 항상 그것을 다른 사람과 나누기를 갈망했다. 그가 기나긴 여행을 시작하여 … 그의 부친과 모친, 그의 형제 자매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했던 것은 그가 60세 가까이 되었을 때였다. 집으로 돌아오자마자 14달러라는 얼마 안 되는 빚 때문에 그는 감옥에 갇히게 되었다. 물문경의 신성을 부인하면 빚을 탕감 받고 감옥에 가지 않을 수 있는데도 그는 그렇게 하지 않고 오히려 감옥으로 갔던 것이다. 그는 사형을 선고받은 살인자들이 갇혀 있는 조그만 감방에 4일이나 음식도 없이 갇혀 있었다. 나중에 그는 감옥의 작업장으로 이송되었는데 그는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여 두 사람을 개종시켰으며 나중에 침례까지 주었다. 그는 만 한 달간이나 감옥에 있다가 가족들이 온갖 노력을 한 끝에야 비로소 석방될 수 있었다.”(이 세실 맥가빈, *The Family of Joseph Smith* [1963년], 68쪽; 또한 루시 맥 스미스, *History of Joseph Smith*, ed. Preston Nibley [1958년], 172~173, 179~186쪽 참조)

- 우리는 복음을 나누는 것에 대하여 조셉 스미스 일세가 보여 주었던 것과 같은 굳은 결심을 어떻게 보일 수 있는가? 여러분의 가족 또는 이웃과 복음을 나누면서 여러분은 어떤 경험을 했는가? 학교나 직장에 있는 사람들에게서 어떤 경험을 했는가? 여러분이 여행을 하면서 만났던 사람들에게서는 어떤 경험을 했는가? 다른 상황에서는 어떠했는가?

## 2. 주님을 섬기기 위해 준비한다.

교리와 성약 전체에서, 주님께서는 그분을 섬길 준비를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우리에게 권고를 주셨다. 이러한 준비는 우리 생애 전체 동안에 해야 하는 지속적인 노력이라는 것을 설명한다.

- 주님을 섬기는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바라는 속성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다음 성구 참조. 칠판에 그 속성들을 열거하고 질문을 활용하여 토론을 권장한다.)
  - ㄱ. 교리와 성약 4:3; 11:8. 주님을 섬기는 데 있어 소망이 왜 중요한 속성인가? 우리는 어떻게 주님을 섬기겠다는 우리의 소망을 증가시킬 수 있는가?
  - ㄴ. 교리와 성약 4:5~6; 12:8; 18:19. 이 구절에서 어떤 속성들이 가장 많이 반복되어 있는가? 반원들에게 주님을 섬기는 데 있어 이러한 각각의 속성들이 갖는 중요성을 보여 주는 경험을 이야기해 주도록 격려한다.
  - ㄷ. 교리와 성약 11:6, 20. 주님을 섬기는 데 있어 순종이 왜 중요한가?
  - ㄹ. 교리와 성약 4:7; 31:12. 주님을 섬기는 데 있어 기도가 여러분에게 어떻게 도움이 되었는가?  
반원들에게 이러한 속성들 가운데서 하나를 선정하여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것을 향상시키는 노력을 하도록 격려한다.
- 반원들과 함께 교리와 성약 11편 21절을 읽는다. 주님을 섬길 준비를 하는 것에 관하여 우리는 이 구절에서 무엇을 배울 수 있는가? 여러분의 경험은 이러한 권고가 지혜롭다는 것을 어떻게 보여 주었는가?

## 3. “받은 이미 희어져”

교리와 성약 전체를 통해, 주님께서는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시급하다는 것을 전하고 계시다. 그것은 선교 사업의 목적이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기 때문이다.(교리와 성약 100:4)

- 반원들과 함께 교리와 성약 4편 4절, 11편 3절 그리고 33편 3절을 읽는다. 주님께서는 선교 사업을 추수할 때가 다 된 밭에 비교함으로써 무엇을 말하고자 하셨는가?(답에는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이 포함될 수 있다.)
- 주님께서는 장로들에게 게으르지 말라고 경고하시고 또 “나아가고” “머무르지 말”아야 한다고 말씀하셨다.(교리와 성약 60:13; 75:3) 이러한 경고가 어떻게 우리에게 적용될 수 있는가? 우리들 가운데 일부는 왜 복음을 나누는 것을 미루고 있는가?

십이사도 정원회의 헨리 비 아이어링 장로는 다음과 같은 경험을 들려주었다.

“지금은 때가 아니다”라고 말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뒤로 미룸에는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오래 전에 저는 캘리포니아에서 어떤 분을 위해 일했습니다. 그분은 저를 고용해 주었으며, 제게 친절히 대해 주었습니다. 그분은 저를 높이 평가하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분이 잘 알게 된 유일한 후기 성도였을지도 모릅니다. 저는 그와 함께 복음에 대해 이야기할 좀 더 나은 순간이 올 때를 기다린다는 명목으로 둘러뒀던 온갖 변명들을 기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은퇴한 후 저는 멀리 떨어져 살고 있었는데, 어느 늦은 저녁에 그분은 부인과 함께 캘리포니아 카펠 시에 있는 자신들의 집으로 가는 도중에 교통 사고로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을 접했을 때 느꼈던 비통한 감정이 아직도 기억납니다. 그분은 부인을 사랑했습니다. 자녀들을 사랑했습니다. 부모를 사랑했습니다. 손자들을 사랑했습니다. 손자들의 자녀들도 사랑할 것이고 그들과 영원토록 함께 살기를 원할 것입니다.



“장차 다가올 세상에서 그들이 어떻게 될지는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제가 그분을 그곳에서 만나게 될 것이고, 그는 제 눈을 똑바로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저는 그가 눈으로 할, 너는 알고 있었어. 왜 내게 말해 주지 않았지?” 하고 물어볼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Conference Report, 1998년 10월, 42쪽; 리아호나, 1999년 1월호, 33쪽)

#### 4. “너희 입을 열라. 그리하면 채워질 것이요”

교리와 성약에서 주님께서는 우리가 복음을 나눌 때 무엇을 그리고 어떻게 가르쳐야 하는지에 관한 지침을 주셨다. 그분께서는 우리가 부족하다고 느낄 때에 도움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으며 두려움 없이 복음을 나누라고 우리를 격려하여 주셨다.

- 회원들과 함께 다음의 구절 중 일부를 읽는다. 교리와 성약 11:9, 15:6, 18:6, 31:3~4, 33:10~11, 42:12, 52:8~9. 이 구절들은 주님의 종들이 무엇을 가르쳐야 하는지에 관하여 무엇을 밝혀 주고 있는가? 회개의 메시지가 그토록 중요한 이유는 무엇인가?(교리와 성약 18:10~14 참조)
- 회원들과 함께 다음의 구절 중 일부를 읽는다. 교리와 성약 18:20~21, 38:41, 42:6, 42:14, 75:4, 100:7~8. 이 구절들은 주님의 종들이 어떻게 가르쳐야 하는지에 관하여 무엇을 밝혀 주고 있는가? 복음을 가르치는 데 있어 다툼을 피하는 것이 왜 중요한가? “나팔 소리같이 너희 음성을 높”이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교리와 성약 42:6; 75:4). 복음을 가르치면서 우리는 어떻게 담대한 동시에 온유해질 수 있는가?(앨마서 38:10~12 참조)
- 주님께서는 장로들이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을 두려워 말”고 그분의 복음을 선포하기 위해 입을 열라고 반복해서 가르치셨다.(교리와 성약 30:11 또한 교리와 성약 30:5; 33:8~11 참조) 또한 주님께서는 “사람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입을 열려 하지 아니”하라는 “사람을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신다고 말씀하셨다.(교리와 성약 60:2) 이것이 어떻게 우리에게 적용될 수 있는가? 우리는 어떻게 복음을 나누는 데 있어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가?(교리와 성약 19:38; 33:12~14; 75:9~12 참조)
- 우리 가운데서 몇몇 사람은 말하거나 가르치는 능력에 대한 자신감이 부족하기 때문에 복음을 나누는 데 주저하고 있다고 설명한다. 우리는 어떻게 그러한 염려를 극복할 수 있는가?(교리와 성약 11:21; 14:8; 31:3 참조) 회원들에게 그들이 복음을 가르칠 때 영이 그들이 해야 할 말을 속삭여 주었을 때의 경험을 이야기해 주도록 권유한다.
- 주의 집중 활동에 요약되어 있는 새뮤얼 스미스의 첫 번째 선교 사업의 기사를 들려준다. 첫 번째 선교 사업이 끝난 후 새뮤얼 스미스는 왜 그것이 실패였다고 느꼈을 수도 있었는가? 어떤 면에서 그는 성공을 거두었는가? 그의 경험으로부터 선교 사업에 대한 우리의 노력에 도움이 되는 무엇을 배울 수 있는가?

#### 5. 주님께서는 그를 위해 봉사하는 이들에게 커다란 축복을 약속하셨다.

- 주님께서는 그분을 위해 부지런히 봉사하는 이들에게 무엇을 약속하셨는가?(회원들과 함께 읽을 성구를 다음 중에서 몇 가지를 선정한다. 각 구절에서 주어진 약속에 대해 토론한다. 칠판에 그 내용을 요약하고 적용할 수 있도록 격려하기 위해 토론 제언을 활용한다.)

ㄱ. 교리와 성약 4:4; 11:3; 75:5.

ㄴ. 교리와 성약 18:15~16. 회원들에게 복음을 전해 주었던 교회 회원들에 대한 그들의 느낌을 표현하거나 그들이 복음을 전하였을 때의 느낌을 설명해 주도록 격려한다.

- ㄷ. 교리와 성약 31:5; 84:60~61.
- ㄹ. 교리와 성약 31:7; 109:55~57. 반원들에게 주님께서 복음에 대하여 그들의 마음을 열어 주었던 때의 경험이나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열어 주었을 때의 경험을 이야기해 주도록 권유한다.
- ㅁ. 교리와 성약 31:11; 84:85; 100:5~6. 반원들에게 그들이 복음을 전할 때 영이 그들의 노력을 인도하여 주셨거나 그들에게 영감을 주었던 때의 경험을 이야기해 주도록 권유한다.
- ㅂ. 교리와 성약 31:13; 75:9~13; 84:88. 반원들에게 그들이 복음을 전할 때, 주님께서 그들을 뒷받침하셨으며 또한 그들을 강화시켜 주었던 때의 경험을 이야기해 주도록 권유한다.
- ㅅ. 교리와 성약 71:9~10. 교회가 한 지독한 배도자로부터 공격을 받고 있을 때 주님께서 이러한 약속을 주셨음을 지적한다. 오늘날 이러한 약속이 우리에게 어떻게 도움이 되는가?
- ㅇ. 교리와 성약 84:80. 반원들에게 그들이 복음을 전파할 때 주님께서 그들을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그리고 영적으로 어떻게 뒷받침하셨는지를 말해 주도록 권유한다.
- ㅈ. 교리와 성약 100:7~8. 반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동안 성신이 증거하시는 것을 느꼈을 때의 경험을 이야기해 주도록 권유한다.

**결론**

반원들을 격려하여 주님을 섬기는 데 모든 헌신을 다하게 한다. 그들이 복음을 다른 사람들과 나눌 때 주님이 그들을 축복하실 것이라는 점을 강조한다. 영이 지시하는 대로, 본 공과에서 토론된 진리에 대해 간증한다.

**추가로 가르칠 개념**

여러분은 제안된 공과 개요를 보충하기 위하여 다음 개념 가운데서 한 가지 이상을 활용할 수 있다.

**1. 가르침의 반복**

네 명의 반원들에게 다음의 네 편을 펼쳐 보게 한다. 교리와 성약 6, 11, 12, 14편. 한 사람에게 이 계시들 가운데서 한 편의 처음 여섯 구절을 읽게 하고, 나머지 세 사람에게 읽고 있는 사람과는 다른 편을 한 편씩 읽게 한다. 각 성구에서 주님께서 많은 가르침을 반복하셨으며 종종 글자 하나 틀리지 않은 똑같은 표현을 사용하셨다고 설명한다.

- 이러한 가르침을 주님께서 반복하셨다는 사실에서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 있는가? 이러한 가르침을 이해하는 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왜 중요한가?

**2. “시온의 대업을 일으켜 굳게 세우기를 구하라”(교리와 성약 6:6)**

- 주님께서 그분의 종들에게 “시온의 대업을 일으켜 굳게 세우기를 구하라”라고 여러 번에 걸쳐 훈계하셨다.(교리와 성약 6:6; 11:6; 12:6; 14:6 참조) 우리는 어떻게 시온의 대업을 일으켜 세우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가? (답에는 의롭게 생활하고, 또 선교 사업과 성전 사업을 통하여 우리 가족과 우리 스테이크 및 우리 와드에서 하나님의 왕국을 세움으로써 그렇게 행할 수 있다는 것이 포함될 수 있다.) 우리가 시온의 대업을 일으켜 세우는 것을 방해하는 원인들 가운데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3. 봉사하도록 부름 받음 비디오 발표**

봉사하도록 부름 받음(53072) 비디오를 구할 수 있다면, 공과 동안에 그 일부를 보여 주는 것을 고려한다.(21분)

**목적** 반원들이 교회 초기 시절에 후기의 이스라엘이 어떻게 집합하였으며, 오늘날에는 어떻게 집합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들이 이 집합에 어떻게 참여할 수 있는지를 이해하도록 돕는다.

- 준비 사항**
1. 기도하는 마음으로 다음의 성구와 다른 자료를 공부한다.
    - ㄱ. 교리와 성약 29:1~8; 33:3~7; 37편; 38:24~41; 52:2~5, 42~43; 57:1~3; 110:11; 신앙개조 제10조; 본 공과에 있는 다른 성구들.
    - ㄴ. *우리의 유산*, 16~23, 37~39쪽.
  2. *반원 학습 지도서*(35686 320)에서 본 공과에 대한 자료를 살펴본다. 공과 시간에 자료를 참조할 수 있는 방법을 계획한다.
  3. 반원들에게 *우리의 유산*에 있는 다음 기사를 준비하여 요약하도록 부탁한다.
    - ㄱ. 커틀랜드로 집합할 때의 뉴얼 나이트와 조셉 나이트 일세의 희생(18쪽)
    - ㄴ. 루시 맥 스미스의 인도에 따른 페이엣에서의 성도들의 이동(19쪽)
    - ㄷ. 커틀랜드로 집합하면서 치른 브리검 영의 희생(23쪽)
    - ㄹ. 콜스빌 성도들의 미주리 주로의 여행과 그곳에서의 그들의 정착(37~39쪽)
  4. 여러분이 주의 집중 활동을 활용하려면, 조그만 막대기 여러 개를 반으로 가져온다.

## 공과 전개 제언

**주의 집중 활동** 적절한 경우, 공과를 시작하기 위해 다음 활동이나 여러분 자신이 준비한 활동을 활용한다.

조그만 막대기 여러 개를 교실에 흐트러 놓는다. 하나의 막대기가 얼마나 쉽게 부러질 수 있는가를 보여 준다. 그리고 나서 반원들에게 막대기를 한데 모으게 하고는, 한 사람을 지명하여 그 막대기를 한꺼번에 부러뜨려 보게 한다.

- 주님께서 그분의 백성을 집합시키는 목적에 관하여 이 활동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는가? 본 공과는 이스라엘의 집합과 그 과정에서의 우리의 역할에 관해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설명한다.

## 토론 및 적용

기도하는 마음으로 반원들의 필요 사항을 가장 잘 충족시켜 줄 수 있는 공과 자료를 선정한다. 성구가 매일의 생활에 어떻게 적용되는지에 관해 토론한다. 반원들을 격려하여 성구의 원리와 관련된 경험을 이야기해 주도록 한다.

### 1. 주님께서서는 그분의 백성을 집합시키고 계시다.

이스라엘의 집합이 교리와 성약에서 중요한 주제라고 설명한다. 고대에 이스라엘의 열 두 지파가 배도하였을 때, 그들은 주님께서 경고하셨던 것처럼 적들의 포로가 되어서 지상의 여러 나라에 흩어졌

다. 비록 선지자들이 백성들의 사악함에 슬퍼하였으나, 이스라엘이 다시 집합하게 되는 후기를 미리 보고는 기뻐하였다. 이 위대한 과정은 복음의 회복과 “이 세대에게 큰 기쁨의 즐거운 소식을 선포” (교리와 성약 31:3)할 선교사들을 부름으로써 시작되었다.

선지자 조셉 스미스는 이렇게 말했다. “후기에 있을 이스라엘의 구원에 관하여 이야기할 때 선지자들이 기록한 모든 것은, 의로운 아벨의 시대로부터 시작하여 우리가 숙고하도록 간증을 조금이라도 기록한 마지막 선지자에 이르기까지, 바로 집합의 사업에 구원이 있다는 것을 제시하기 위하여 쓰여진 것입니다.”(선지자 조셉 스미스의 가르침, 조셉 필딩 스미스 편, 82쪽)

- 반원들과 함께 신앙개조 제10조와 교리와 성약 45편 71절을 읽는다. 이스라엘의 집합이란 무엇인가?(이스라엘의 집합은 아래에 있는 것처럼 영적인 의미와 물리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설명한다.)
  - ㄱ. 영적인 집합. 이스라엘의 영적인 집합은 사람들이 복음에 대해 배우고, 그리스도에게로 나아 오며, 침례를 받아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로 들어오며, 그들이 맺은 성약을 지킬 때 일어난다. 이러한 방법으로 그들은 세상으로부터 교회, 즉 지상에 있는 하나님의 왕국으로 집합을 하게 된다.
  - ㄴ. 물리적인 집합. 이스라엘의 물리적인 집합은 교회 회원들이 특정한 장소 또는 세상 곳곳에 있는 시온의 스테이크에 함께 모일 때 일어난다.
- 반원들과 함께 교리와 성약 29편 1~2절, 7~8절을 읽는다. 이 구절에서 집합의 목적에 관하여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 있는가? 주님의 교회로 집합을 하고 있는 것이 어떻게 여러분의 생활에 축복이 되는가?
- 이스라엘의 집합을 인도할 권세가 신권의 특정한 열쇠를 통하여 마련되었다고 설명한다. 이스라엘의 집합의 열쇠는 언제 지상에 회복되었는가?(교리와 성약 110:11과 교리와 성약 110편 머리말 참조)
- 이 경륜의 시대에 집합은 뉴욕 주에 있던 몇몇 사람들로부터 시작되었다. 그것이 이제는 전세계로 퍼져 나가고 있으며, 매년 수십만 명의 사람들이 주님의 교회로 인도되고 있다. 주님의 교회로 사람들을 집합시키는 것을 돕는 과정에는 우리는 어떤 책임을 맡고 있는가?(교리와 성약 33:7; 38:40; 39:11; 88:81 참조)

## 2. 성도들이 오하이오 주에 집합하다.

교회가 조직되고 겨우 8개월 후인 1830년 12월에, 주님께서서는 성도들을 집합시키기 위하여 이 경륜의 시대에서 첫 번째 지시를 주셨다. 그분께서는 성도들이 뉴욕 주를 떠나서 오하이오 주에 집합해야 한다고 조셉 스미스에게 밝혀 주셨다.(교리와 성약 37:3) 여러분은 본 교재의 274쪽과 276쪽, 그리고 반원 학습 지도서 29쪽과 31쪽에 있는 지도 1과 3을 참조할 수 있다.

- 주님께서서는 어떤 목적으로 그의 백성들을 오하이오 주로 가라고 명하셨는가?(교리와 성약 38:31~32; 39:15 참조) 성도들이 오하이오 주에 집합한 이후에 어떤 방법으로 “높은 곳에서 오는 권능을 부여”받았는가?(교리와 성약 95:8; 105:33; 110:9 참조. 부분적으로 성도들은 이러한 권능을 커틀랜드 성전이 완공된 이후에 구주의 나타나심과 신권 열쇠의 회복을 통하여 받았다.)
- 반원들과 함께 교리와 성약 38편 24~27절을 읽는다. 주님의 백성들이 오하이오 주에 집합할 준비를 갖추에 따라 주님께서서는 이 구절에서 어떤 권고를 주셨는가? (답에는 덕을 쌓으며, 서로를 사랑하고, 하나가 되는 것이 포함될 수 있다.) 교회에서 하나가 되는 것이 왜 중요한가? 교회

의 다른 회원들과 하나가 되는 느낌이 여러분의 생활에 어떻게 축복이 되었는가? 우리는 어떻게 더 하나가 될 수 있는가?

- 반원들과 함께 교리와 성약 38편 34~39절을 읽는다. 주님의 백성들이 오하이오 주에 집합할 준비를 갖추는 가운데 주님께서 이 구절에서 어떤 권고를 주셨는가? 이 권고가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되는가? 주님께서 집합하라는 계명에 귀기울이는 이들에게 어떤 것을 약속하셨는가?(교리와 성약 38:39 참조)

1831년 1월과 5월 사이에, 뉴욕 주에 있던 대부분의 교회 회원들이 그들의 농장을 팔거나 임대하거나 그대로 두고 오하이오 주까지 480킬로미터에 이르는 여행을 하였다고 설명한다. 이 가운데 많은 성도들이 집합하라는 주님의 지시에 귀기울여 큰 희생을 하였다. 미리 지명한 반원에게 우리의 유산에 있는 이러한 희생에 관한 기사를 요약하도록 부탁한다.(이 기사들은 “준비 사항” 3의 아래에 열거되어 있는 요약 가운데서 먼저 나오는 세 기사이다.)

- 이 교회 회원들이 오하이오 주에 집합하라는 주님의 지시에 순종하기 위해 왜 기꺼운 마음으로 재정적인 손실과 다른 방법으로 손해를 무릅썼다고 여러분은 생각하는가? 이러한 모범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 있는가? 주님의 왕국을 세우는 일을 돕기 위해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희생을 할 것을 요청하시는가?

### 3. 성도들이 미주리 주에 집합하다.

초기 성도들은 후기에 세워질 시온의 도시, 즉 새 예루살렘에 관한 예언들을 읽었다.(이사야 2:2~3; 제3니파이 20:22; 21:22~28; 이터서 13:2~12; 모세서 7:61~62) 시온의 위치를 찾아서 시온을 세우는 것이 그 당시 교회 회원들이 지녔던 주요한 목적 가운데 하나였다.

성도들이 오하이오 주에 집합하기 시작하고 몇 달 후에, 조셉 스미스는 미주리 주로 여행을 하였으며 미주리 주를 시온의 도시를 세울 장소로 지정하는 계시 한 편을 받았다.(교리와 성약 57:1~3) 이 계시로 인하여, 미주리 주는 이 경륜의 시대에서 교회 회원들의 두 번째 집합지가 되었다.(교리와 성약 63:24, 36~48) 1831년에서 1838년까지 오하이오 주와 미주리 주에 교회 회원들이 집중해서 살고 있었다. 여러분은 본 교재 275, 276쪽과 반원 학습 지도서 30, 31쪽에 있는 지도 2와 3을 참고할 수 있다.

다음 연대표는 시온의 땅에 관한 계시와 미주리 주에서 교회를 세우는 것에 관한 초기 계시들을 요약하여 주고 있다. 필요하다면 칠판을 활용하여 반원들과 함께 연대표를 살펴본다.

- ㄱ. 1830년 9월(뉴욕 주에서): 주님께서 시온 성의 정확한 위치가 후에 알려질 것이나 “레이맨인과 가까운 변경”에 세워질 것이라고 밝혀 주셨다.(교리와 성약 28:9)
- ㄴ. 1830년 9월과 10월(뉴욕 주에서): 주님께서 레이맨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네 명의 선교사를 부르셨다.(교리와 성약 30:5~6; 32:1~3) 이 선교사들이 미주리 주로 간 첫 번째 교회 회원들이었다.
- ㄷ. 1831년 2월(성도들이 커틀랜드에 도착한 직후 커틀랜드에서): 주님께서 그분께 합당한 때에 새 예루살렘의 위치를 밝혀 주시겠다고 말씀하셨다.(교리와 성약 42:62)
- ㄹ. 1831년 6월(커틀랜드에서의 첫 번째 대회 후 커틀랜드에서): 주님께서 조셉 스미스, 시드니 리그돈, 그리고 다른 장로들을 불러서 미주리 주로 선교 사업을 가게 하셨다. 주님께서 또한 미주리 땅을 기업의 땅으로서 그분의 백성들에게 성별하여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다.(교리와 성약 52:2~5, 42~43)

- ㄱ. 1831년 6월(커틀랜드에서): 주님께서는 뉴욕 주의 콜스빌 지부에서 오하이오 주로 여행하였던 성도들이 계속해서 미주리 주로 가야 한다는 것을 밝혀 주셨다.(교리와 성약 54:8)
- ㄴ. 1831년 7월(선지자가 미주리 주로 여행을 떠난 직후): 주님께서는 시온의 도시가 미주리 주에 위치하게 될 것이며, 인디펜던스가 그 중심부가 될 것이라고 밝혀 주셨다. 성전이 인디펜던스에 세워질 것이다.(교리와 성약 57:1~3)

콜스빌 성도들은 미주리 주에 집합한 첫 번째 성도들이었으며, 곧이어 다른 많은 사람들이 따라 들어왔다. 미리 지명한 반원에게 콜스빌 성도들이 미주리 주로 여행을 하고 또 그곳에서 정착하기 시작했을 때의 경험을 요약하여 주도록 부탁한다. (“준비 사항” 3, ㄴ 참조)

- 콜스빌 성도들의 기사에서 어떤 것이 여러분에게 감명을 주었는가? (여러분은 매우 어려운 환경에서 이 성도들이 보여 주었던 좋은 품성 몇 가지를 살펴볼 수 있다.) 그들의 모범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 있는가?

#### 4. 성도들이 이제는 그들의 땅에 있는 시온의 스테이크에 집합하고 있다.

대부분의 교회 회원들이 1831년부터 박해로 인하여 강제로 그곳을 떠나야 하였던 1838년까지 오하이오 주와 미주리 주에는 많은 사람들이 자리를 잡고 있었다.(26~28과 참조) 1839년에 그들은 일리노이 주에 집합하여 나부라는 도시를 세웠다. 그들은 1846년에 나부를 강제로 떠나야만 했으며, 1847년에 브리검 영 회장은 그들을 인도하여 로키 산맥의 그레이트 솔트레이크 인근에 있는 새로운 집합지로 갔다. 여러분은 본 교재 276쪽과 반원 학습 지도서 31쪽에 있는 지도 3을 참조할 수 있다.

성도들이 유타 주에 정착하고 나서 오랫동안 전세계에 있는 교회 회원들에게 그 지역에 집합하라는 요청이 계속해서 있었다. 하지만 집합의 단계가 이제 끝나, 교회 회원들은 그들이 살고 있는 곳에서 시온의 스테이크에 집합하라는 권고를 받고 있다. 1972년에 멕시코시티에서 개최된 한 지역 대회에서 브루스 알 맥콩키 장로는 이렇게 말씀했다.

“계시된 말씀에 의하면 주님이 재림하실 때 주님의 백성들은 모든 국가와 온갖 언어와 온 백성들 가운데서 모이게 될 것입니다.

“멕시코 성도들이 모일 장소는 멕시코이고 과테말라 성도들이 모일 곳은 과테말라이며 브라질 성도들이 모일 장소는 브라질입니다. 온 세상에서 다 그렇게 모일 것입니다. 일본은 일본 성도들을 위한 장소입니다. 한국은 한국 성도들을 위한 장소입니다. 오스트레일리아는 오스트레일리아 성도들을 위한 장소입니다. 각 국가가 바로 그 국가 백성들을 위한 집합 장소인 것입니다.”(1972년 멕시코 및 중앙 아메리카 지역 대회, Conference Report, 45쪽; 성도의 벗, 1993년 1월호, 71쪽)

1973년 4월에 제11대 교회 회장인 해롤드 비 리 회장은 연차 대회에서 위의 말씀을 인용했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는 “사실상 초기의 집합의 첫 단계가 이제 끝났음을 발표했다. 이제 집합은 모든 나라에서 사악하고 타락한 세상으로부터 떨어져 나와 교회로 들어오는 것을 의미한다.”(보이드 케이 팩커, Conference Report, 1992년 10월, 99쪽; 성도의 벗, 1993년 1월호, 71쪽)

- 교회의 어떠한 상황으로 인하여 교회 회원들이 한 중심 장소보다는 그들의 국가에 집합하도록 되었는가?(답에는 교회 회원 수와 자원이 전 세계의 많은 지역에서 스테이크를 세우고 또 성전을 세울 만큼 충분하게 되었다는 것이 포함될 수 있다.)
- 교회에서 개척 시대에 한 중심 장소에 집합했던 한 가지 목적은 회원들이 서로를 강화시키고 또 세상으로부터 피난처와 보호책을 찾도록 하기 위해서였다. 오늘날 시온의 스테이크에 집합함으로써

써 이와 같은 목적이 어떻게 달성되고 있는가?(교리와 성약 115편 6절과 다음 인용문 참조. 반원들에게 시온의 스테이크를 통하여 그들이 어떻게 보호를 받고 강화되었다는 느낌을 받게 되었는지 이야기해 주도록 권유한다.) 우리의 스테이크가 피난처와 악에 대한 방어진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에즈라 테프트 벤슨 회장은 이렇게 말씀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여러 시온의 스테이크로 모여두고 있습니다. … 스테이크는 최소한 다음 네 가지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1. 스테이크는 … 그 경계내에 살고 있는 회원들을 교회 프로그램에 참여시키고 그들에게 의식을 베풀며 복음을 가르침으로써, 그들을 하나로 결속시키고 완전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고 있습니다.

“2. 스테이크의 회원들은 의로움의 모범, 즉 표준이 되어야 합니다.

“3. 스테이크는 방어진이 되어야 합니다. 스테이크 회원들이 그 지역 신권 역원의 지도 하에 단합하고 그들의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자신을 다 바치며 성약을 지켜 나갈 때, 이 일이 가능하게 됩니다.

“4. 스테이크는 ‘땅에 쏟아져 내릴 … 폭풍우를 온 세상에 만연하는 악을’ 피하는 피난처입니다”(“너의 스테이크를 견고하게 하고”, 성도의 벗, 1991년 8월호, 3, 5쪽)

- 성전 건축은 커틀랜드, 미주리, 나부 그리고 유타에 집합할 때 절대 필요한 부분이었다. 이것은 오늘날 성도들이 전세계에서 시온의 스테이크에 집합할 때도 여전히 절대 필요한 부분이다. 성전 건축이 왜 집합 과정에서 절대 필요한 부분인가? 성전 사업이 어떻게 이 지상과 영의 세계에서 집합이라는 위대한 사업에 기여를 했는가?

선지자 조셉 스미스는 이렇게 가르쳤다. “세상의 어떤 시대에서든지 하나님의 백성을 … 집합시키셨던 목적은 무엇입니까? … 주요 목적은 주님께서 그분의 백성에게 그분의 집에서 행해지는 의식과 그분의 왕국의 영광을 드러내시고 또 구원의 길을 가르칠 수 있는 집을 짓기 위해서였습니다. … 의식과 엔다우먼트, 씻음과 기름 부음을 위해 그들을 준비시키기 위한 집을 주님께 지어 드린다는 똑같은 목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이 후기에 그분의 백성을 집합시키고 계십니다.”(교회 정사, 5:423~424)

## 결론

이스라엘을 집합시키겠다는 주님의 약속이 우리 시대에 성취되고 있음을 강조한다. 사람들이 교회에 가입하여 전세계의 160개국 이상에 있는 시온의 스테이크에서 함께 모여 예배를 할 때에 이 위대한 사업이 그 속도를 더하고 있다. 반원들에게 그들이 살고 있는 곳이 어디이든지 부지런히 일하여 교회로 사람들을 집합시키고 교회를 세우고 서로를 강화시키도록 격려한다. 집합을 통하여 오는 약속된 축복에 대해 간증한다.

## 추가로 가르칠 개념

여러분은 제언된 공과 개요를 보충하기 위하여 다음 개념 가운데서 한 두 가지 개념을 활용할 수 있다.

### 1. “시온은 … 이 지상의 온 땅으로 확대될 것임”

비록 시온의 중심부가 미주리 주에 서게 될 것이지만, 시온은 결국 이 지상의 온 땅으로 확대될 것임을 여러분은 설명할 수 있다. 브리검 영 회장은 이렇게 말씀했다.

“성도들이 집합해야 하는 땅을 조셉 [스미스]가 처음 밝혀 주었을 때, 캐나다에 살던 한 여성이 잭슨 군이 모든 사람들을 집합시키기에 충분한 곳이라고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지를 물어 보았습니다. … 제가 그 질문에 대해 드리겠습니다. … 시온은 결국 이 지상의 온 땅으로 확대될 것입니다. 이 지상에는 시온에 편입되지 않을 외딴 곳은 없게 될 것입니다. 외떨어진 곳도 모두 시온이 될 것입니다. …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 많은 이들을 집합시킬 것이며, 그들을 축복하며, 그들에게 엔다우먼트를 주고, 그들에게 진리를 전하며, 영생의 원리를 그들 앞에 놓을 것이며, 또한 그들의 마음에 우리가 행할 수 있는 모든 권능을 알려 주고, 그들을 진리와 의의 길로 인도할 것입니다.”(Journal of Discourses, 9:138)

## 2. “유다의 흩어진 자”(이사야 11:12)의 물질적인 집합을 위한 주님의 준비

구주께서 돌아가시고 몇 십년 후에 유대인들은 “모든 국민 가운데 흩어”졌다.(니파이후서 25:15; 또한 14절 참조) 하지만 경전은 흩어진 유대인들이 후기에 다시 집합할 것이며 또한 예루살렘을 “그들의 기업의 땅으로” 받을 것이라는 예언을 많은 곳에서 기록하고 있다.(제3니파이 20:33; 또한 니파이전서 15:19~20; 니파이후서 9:1~2; 10:8 참조)

1836년 5월 27일에 커틀랜드 성전의 헌납 기도에서 선지자 조셉 스미스는 유대인의 집합과 예루살렘의 구축이 시작될 수 있게 해 달라고 간구했다.(교리와 성약 109:62~67). 주님께서 유대인의 집합을 위해 준비하셨던 한 가지 방법을 보여 주기 위하여 다음 내용을 이야기해 준다.

울슨 하이드는 그가 교회에 들어왔을 때, 조셉 스미스가 이렇게 예언하였던 것을 회상하였다. “적절한 때에 형제님께서는 예루살렘에 가게 될 것입니다. … 형제님의 손을 빌어 지극히 높으신 분께서는 위대한 사업을 하실 것인데, 그 일은 그 백성을 한데로 집합시키는 길을 준비시킬 것이며 또한 그 일을 크게 촉진할 것입니다.”(교회 정사, 4:375) 1840년 4월 연차 대회에서, 당시 십이사도 정원회의 일원이었던 하이드 장로는 팔레스타인으로 가서 그 사명을 수행하라는 부름을 받았다.(교회 정사, 4:106) 약 18개월 후에 그는 목적지에 도착했다.

1841년 10월 24일 일요일 이른 아침, 하이드 장로는 감람산에 올라가 기도를 드렸다. 기도를 통해 그는 그 땅을 “예루살렘의 재건을 위하여, … 그리고 [주님의] 이름을 기리기 위한 성전의 건축을 위하여 거룩한 선지자들의 예언에 따라 유다의 흩어진 잔류민의 집합을 위하여,” 헌납하고 성별했다. 그는 또한 주님께서 아브라함, 이삭, 그리고 야곱의 후손을 영원히 기억하여 주실 것과 “그들에게 이 땅을 영원한 기업으로 주실 것”을 간구했다.(교회 정사, 4:456)

그 증거로서, 하이드 장로는 감람산 꼭대기에 한 무더기의 돌을 쌓았다. 그는 또한 “고대에 성전이 세워져 있었던 시온산이라 불리었던 곳[아마도 모리아산]에도 한 무더기의 돌을 쌓았다.(교회 정사, 4:459)



# “이 세대는 너를 통하여 나의 말을 가지게 되리라”

제 13과

**목적** 반원들이 이 경륜의 시대에 주님의 말씀을 전해 준 조셉 스미스의 역할을 감사하게 여기도록 돕는다.

- 준비 사항**
1. 기도하는 마음으로 본 공과에 있는 성구와 다음의 다른 자료를 공부한다.
    - ㄱ. 우리의 유산, 23~25, 40~41, 58쪽.
    - ㄴ. 경전 안내서, “조셉 스미스 역”, 257쪽.
  2. 반원 학습 지도서(35686 320)에서 본 공과에 대한 자료를 살펴본다. 공과 시간에 자료를 참조할 수 있는 방법을 계획한다.
  3. 반원 한 명에게 계명의 책을 구하였던 메리 엘리자베스 롤린스와 캐롤린 롤린스의 기사를 요약하도록 준비시킨다.(우리의 유산, 40~41쪽)
  4. 계명의 책을 구해내는 메리와 캐롤린의 그림을 구할 수 있다면 (62605; 복음 그림 패킷 409), 그것을 준비하여 공과 동안 활용한다.
  5. 74쪽의 도표에서 선정된 항목들을 복사하여 포스터를 만들어 사용하거나 칠판에 적는다.

## 공과 전개 제언

주의 집중 활동 적절한 경우, 공과를 시작하기 위해 다음 활동이나 여러분 자신이 준비한 활동을 활용한다.  
수업을 시작하기 전에 다음 주제 전부 또는 일부를 칠판에 열거한다.

신회의 신체적인 특성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우리가 창조됨  
사도와 선지자  
멜기세덱 신권  
아론 신권  
침례 방법  
성신의 은사  
전세  
죽은 자를 위한 침례  
부활  
영광의 세 왕국  
영원한 결혼  
하나님 아버지와 같이 될 수 있는 우리의 잠재력

반원 한 명에게 선지자 조셉 스미스를 통하여 계시되지 않은 것이 있다면 그것을 칠판에서 지우게 한다. 반원들이 칠판에 있는 그 어떤 것도 지울 수 없으며, 그 모든 진리가 선지자 조셉을 통하여 회복되었다는 것을 알도록 돕는다. 본 공과에서는 조셉 스미스가 이 경륜의 시대에서 주님의 말씀을

전해 주는 데 어떻게 도구가 되었는지에 관하여 토론하게 될 것이다.

토론 및 적용

기도하는 마음으로 반원들의 필요 사항을 가장 잘 충족시켜 줄 수 있는 공과 자료를 선정한다. 반원들에게 여러분이 가르칠 원리에 관련된 경험을 이야기해 주도록 격려한다.

**1. 주님께서 이 경륜의 시대에 사람들이 조셉 스미스를 통하여 주님의 말씀을 갖게 될 것이라고 선포하셨다.**

반원들과 함께 교리와 성약 5편 10절을 읽는다. 이 구절에서 “이 세대”라는 표현이 이 경륜의 시대, 곧 우리가 살고 있는 시기를 지칭한다고 설명한다. 그리고 나서 브리검 영 회장의 다음 말씀을 읽어 준다.

“제가 주님으로부터 받은 것은 무엇이든 조셉 스미스를 통해 받은 것입니다.”(*Discourses of Brigham Young*, sel. 존 에이 윗소 [1941년], 458쪽)

- 이 말씀이 어떻게 여러분에게도 해당되는가? 이 말씀이 어떻게 모든 후기 성도들에게 해당되는가?

이 경륜의 시대에 엄청나게 많은 진리가 선지자 조셉 스미스를 통하여 주어졌다고 지적한다. 예를 들어, 후기의 경전들, 신권 의식, 신권의 조직, 그리고 성전 건축이 선지자 조셉 스미스를 통하여 주님으로부터 왔다.

**2. 많은 고대 경전 및 후기의 경전이 조셉 스미스를 통하여 왔다.**

- 반원들과 함께 모세서 1장 40~41절을 읽는다. 41절에 있는 예언이 어떻게 성취되고 있는가?(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말씀을 가벼이 여길 때, 주님께서 선지자 조셉 스미스를 일으키셨음을 강조한다. 주님의 말씀이 이제 “사람의 자녀들 ... 가운데 또다시 있게” 되었다.)
- 선지자 조셉 스미스를 통하여 어떤 경전이 우리에게 오게 되었는가?(몰몬경, 교리와 성약, 값진 진주, 그리고 조셉 스미스 역 성경. 조셉 스미스는 고대의 경전을 회복시키는 과정에서 주님의 손에서 쓰인 도구였으며 또한 그는 후기의 경전이 되는 많은 계시를 받았음을 지적한다.)

조셉 스미스에 관하여 십이사도 정원회의 리그랜드 리차즈 장로는 이렇게 말하였다. “우리의 기록에 나타난 바에 의하면 그는 이 지상에 살았던 어떤 선지자보다 더 많은 진리를 회복해 주었습니다.”(*Conference Report*, 1981년 4월, 43쪽; *성도의 벗*, 1981년 10월호, 47~48쪽)

**몰몬경**

반원들과 함께 니파이후서 3장 11~15절을 읽는다. 이 구절에는 조셉 스미스에 관한 예언이 포함되어 있다고 설명한다. 12절에서 언급된 기록은 성경과 몰몬경이다.

- 어떠한 방법으로 몰몬경이 논쟁을 없애 주고 또 평화를 이루는 데 도움이 되는가? 어떤 방법으로 몰몬경은 사람들이 주님의 성약을 알게 하여 주는가?
- 몰몬경은 어떻게 여러분의 생활에 축복을 가져다주었는가?
- 몰몬경에서 여러분이 좋아하는 구절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가?

토론의 일부로 여러분은 몰몬경에서 여러분에게 특별한 의미가 있는 한 두 구절을 나눌 수 있다.

## 교리와 성약

1823년에서 1831년까지 조셉 스미스는 주님으로부터 60개 이상의 계시들을 받았다. 이러한 계시 가운데 손으로 쓴 몇 편의 계시가 선교사들과 다른 사람들에게 주어졌으나, 대부분의 교회 회원들은 그 계시들을 접하지 못했다. 1831년 후반에 오하이오 주에서 열린 한 대회에서, 교회 지도자들은 계시들을 계명의 책으로 불리는 한 권의 책으로 출판하기로 결정했다.(교리와 성약 67편과 69편의 머리말 참조) 올리버 카우드리와 존 휘트머가 계시들을 약 1,600킬로미터 떨어진 인디펜던스로 가져 가서 그곳에서 그 책을 인쇄하고 제본하도록 선임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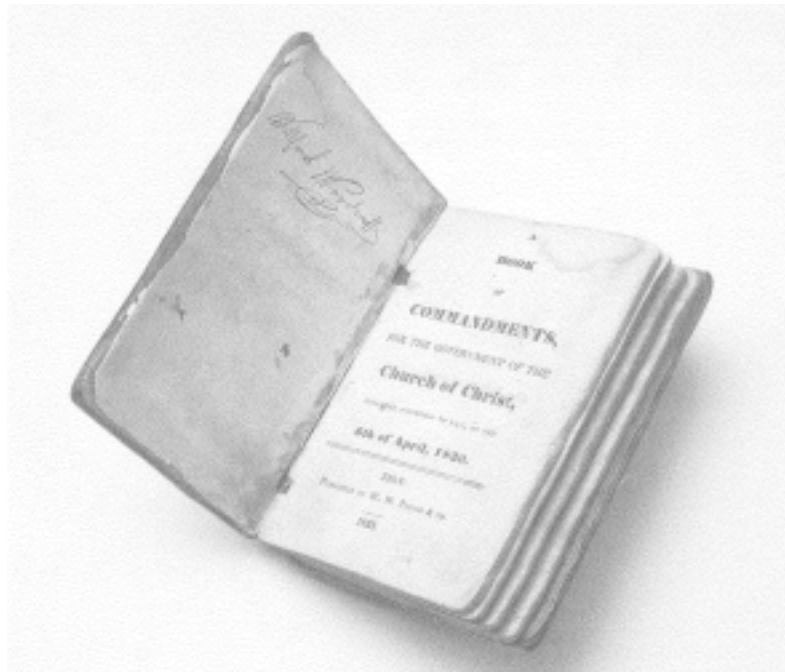
올리버 카우드리와 존 휘트머는 1832년 1월에 인디펜던스에 도착했으며, 1833년 7월경 윌리엄 더블류 펠프스가 계명의 책 앞부분의 160쪽을 인쇄했다. 하지만 1833년 7월 20일에 일단의 폭도들이 펠프스 형제의 인쇄기와 제본되지 않은 계명의 책의 많은 부분을 파괴했다.

미리 지명한 반원에게 메리 엘리자베스 롤린스와 캐롤린 롤린스의 용기어린 이야기를 말해 주도록 부탁한다.(우리의 유산, 40~41쪽)

이렇게 회수된 내용들은 계명의 책 몇 권으로 제본되어졌으나, 여전히 계시들을 용이하게 구해 읽을 수는 없었다. 1835년에 45편의 계시가 추가되어진 후에, 계명의 책은 교리와 성약으로 출판되었다.

- 메리 엘리자베스 롤린스와 캐롤린 롤린스의 이야기는 우리가 교리와 성약에 있는 계시들을 얼마나 값있게 여겨야 하는지에 관하여 무엇을 가르쳐 주고 있는가?
- 여러분은 올해 교리와 성약을 공부하면서 어떤 축복을 받았는가?
- 교리와 성약에서 여러분이 좋아하는 구절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토론의 일부로 여러분은 교리와 성약에서 여러분에게 특별한 의미가 있는 한두 구절을 나눌 수 있다.



**계명의 책.** 이것은 선지자 조셉 스미스를 통하여 주어진 계시들을 처음으로 묶어 출판한 것이다. 이 계시들은 나중에 교리와 성약의 일부가 되었다.

## 값진 진주

값진 진주가 정말로 적절한 이름이라고 지적한다. 진주처럼, 그것은 크기로는 작으나 그 가치는 커다란 것이다. 이 책은 87쪽밖에 되지 않으나 내용 상으로는 천국 회의, 때가 찬 경륜의 시대에 있을 복음의 회복, 구주의 재림, 복천년, 영생에 관한 구절을 포함하여 무궁한 세월에 걸쳐 있는 일들이 들어 있다. 이 책은 창조, 타락, 속죄, 그리고 인류의 선택의지에 관한 귀중한 가르침을 포함하고 있다. 이 경전은 다섯 부분으로 되어 있다.

ㄱ. 모세의 책으로부터 선정한 부분

ㄴ. 아브라함서

ㄷ. 조셉 스미스-마태

ㄹ. 조셉 스미스-역사

ㅁ. 신앙개조

- 값진 진주에 있는 가르침이 어떻게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었는가? 값진 진주에서 여러분에게 특별한 의미가 있는 구절에는 어떠한 것이 있는가?

토론의 일부로 여러분은 값진 진주에서 여러분이 좋아하는 한두 구절을 나눌 수 있다.

### 조셉 스미스 역 성경

- 반원들과 함께 신앙개조 제8조를 읽는다. “정확하게 번역되어 있는 한”이라는 구절의 중요한 의미는 무엇인가?

반원들과 함께 니파이전서 13장 24~28절을 읽는다. (“유대인의 입으로부터 나아” 온 책이 성경이라고 설명한다. “크고 가증한 교회”라는 표현은 어떤 특정한 교회가 아닌 하나님에 대적하여 싸우는 모든 사람들을 지칭하고 있다.) 대배도 때문에 주님께서는 지상에서 충만한 복음을 거두어 가셨음을 반원들에게 상기시킨다. 그 뒤로 수세기 동안, 성경의 많은 부분이 변경되었으며, 많은 간결하고 진귀한 진리를 잃어버리게 되었다.

교회가 회복된 직후에, 주님께서는 선지자 조셉 스미스에게 영감을 받아 흠정역 성경을 올바르게 개정할 것을 명하셨다. 교리와 성약에는 이러한 명에 관련된 많은 참조 성구들이 있다. (예를 들어 교리와 성약 35:20; 37:1; 45:60~61; 73:3~4; 93:53 참조) 오늘날 우리는 선지자 조셉이 번역한 것을 조셉 스미스 역 성경이라고 부르고 있다.

성경에 대한 조셉 스미스의 번역은 우리가 보통으로 번역이라고 부르는 것과는 다르다. 선지자는 성경을 한 언어에서 다른 언어로 번역한 것이 아니었다. 그가 사용한 유일한 원전은 흠정역 성경이었으며, 그는 올바르게 수정을 하고 또 완전히 그 의미를 잃어버린 구절을 회복하기 위하여 영의 인도를 받았다.

조셉 스미스 역 성경에서 발췌한 두 가지 기록이 값진 진주에 있다.(모세서와 조셉 스미스-마태) 이와 더불어, 조셉 스미스 역 성경에서 변경된 간략한 부분들이 흠정역 성경 후기 성도 판(영문판)의 각주난에 포함되어 있다. 좀 더 긴 부분들은 경전 안내서에 포함되어 있다.

반원들이 조셉 스미스 역 성경의 가치를 알고 큰 감사함을 갖도록 돕기 위해, 여러분은 몇몇 구절을 간략하게 흠정역과 비교하여 볼 수 있다. 두 가지 비교를 아래에 예시했다.

ㄱ. 예녹의 기사와 가르침은 조셉 스미스 역 성경에서 긴 구절들로 회복시킨 대표적인 예이다. 성경에서 예녹을 지칭하고 있는 구절은 창세기 5장 18~24절, 누가복음 3장 37절, 히브리서 11장 5절, 유다서 1장 14~15절에 지나지 않는다. 조셉 스미스 역 성경에서 예녹에 대한 언급은 그 범위를 크게 넓혀서 모세서 6장 21~68절, 7장 1~69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그의 가르침, 시현, 그리고 예언을 포함하고 있다. 이 구절 가운데서 몇 구절을 선정하여 반에서 읽고 또 그 가치에 대해 토론한다.

ㄴ. 마태복음 4장의 개정은 성경 상의 특정 구절에 대한 영감 받은 수정의 한 예이다. 이러한 수정이 어떻게 흠정역(영어)에 있는 구절들의 뜻을 명확하게 만들었는가?

성경의 번역 과정은 성경에 있는 교리를 바로잡아 주고 회복시켜 주었을 뿐만 아니라 또한 교리와 성약을 통하여 교리의 회복을 가져오는 데 도움을 주었다. 교리와 성약에 있는 많은 계시들은 선지자가 성경의 번역에 대해 깊이 생각하면서 드렸던 질문들에 대한 응답이었다. 조셉 스미스 역 성경을 여러 해 동안 연구하였던 한 교회 회원은 이렇게 말했다. “조셉 스미스 역 성경은 단순히 좀 더 나은 성경이 아니다. 그것은 이 교회가 유아기에 있을 때 교리의 회복의 통로, 즉 수단이었다.” (로버트 제이 매튜, *The Capstone of Our Religion: Insights into the Doctrine and Covenants* [1989년], 64쪽)

조셉 스미스 역 성경이 어떻게 하여 “교리적 회복”을 가져다주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우리의 유산* 24쪽에 있는 두 번째 단락을 읽는다. 여러분은 교리와 성약 76편의 머리말과 교리와 성약 76편 15~19절을 읽을 수 있다.

### 3. 복음의 간결하고 진귀한 교리들이 조셉 스미스를 통하여 회복되었다.

74쪽에 있는 도표는 선지자 조셉 스미스를 통하여 회복되었거나 명확하게 된 복음의 교리 몇 가지를 강조하고 있다. 왼쪽 세로줄에 열거된 주제가 주의 집중 활동에 있던 것과 같은 내용임에 유의한다.

도표의 중앙 세로줄은 교리와 원리가 불명확하거나 올바르지 않거나 불완전한 성경 구절을 열거하고 있다. 오른쪽 세로줄은 조셉 스미스를 통하여 주어진 경전의 어느 곳에서 이러한 교리와 원리가 설명되거나 명확하게 되었는지를 보여 주고 있다.

도표에 나와 있는 몇 개의 주제를 선정하여 반원들과 함께 주제에 수반된 경전 구절을 검토한다. 선지자를 통하여 받게 된 계시가 어떻게 이러한 주제를 명확하게 해 주는지 토의한다.

| 주제                            | 성경 구절                                    | 조셉 스미스를 통하여<br>주어진 경전 구절                      |
|-------------------------------|--|---|
| 신화의 신체적인 특성                   | 마태복음 3:16~17; 요한복음 4:24;<br>사도행전 7:55    | 조셉 스미스-역사 1:17;<br>교성 130:1, 22               |
| 하나님의 형상대로<br>우리가 창조됨          | 창세기 1:27                                 | 모세서 6:8~9                                     |
| 사도와 선지자                       | 에베소서 2:20; 4:11~16                       | 교성 107:23, 33, 35, 39, 58;<br>112:30~32       |
| 멜기세덱 신권                       | 히브리서 6:20; 7:17                          | 교성 84:19~25; 107:1~8, 18~19                   |
| 아론 신권                         | 히브리서 7:11                                | 교성 13편; 84:18, 26~27, 30;<br>107:1, 13~14, 20 |
| 침례 방법                         | 마태복음 3:16                                | 제3니파이 11:22~26; 모로나이서<br>8:8~12; 교성 20:71~74  |
| 성신의 은사                        | 사도행전 8:17                                | 교성 20:41, 43; 35:6; 121:46                    |
| 전세                            | 예레미야 1:4~5                               | 교성 93:29; 아브라함서 3:22~26                       |
| 죽은 자를 위한 침례                   | 고린도전서 15:29                              | 교성 128:16~18                                  |
| 부활                            | 욥기 19:25~26; 요한복음 5:28~29<br>고린도전서 15:22 | 엘마서 11:42~45                                  |
| 영광의 세 왕국                      | 고린도전서 15:40~42                           | 교성 76:50~112; 131:1                           |
| 영원한 결혼                        | 창세기 2:24; 고린도전서 11:11                    | 교성 131:1~4; 132:19                            |
| 하나님 아버지와 같이<br>될 수 있는 우리의 잠재력 | 로마서 8:17                                 | 교성 88:107; 93:20; 132:20~24                   |

## 결론

주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가져다준 조셉 스미스의 역할에 대해 감사를 표한다. 영이 지시하는 대로, 공과 동안에 토론된 진리에 대해 간증한다.

**목적** 반원들이 헌납의 법과 그 영원한 목적을 이해하도록 돕고 그들의 삶을 더욱더 하나님을 위해 봉사하는 데 헌납하기를 소망하도록 돕는다.

- 준비 사항**
1. 기도하는 마음으로 다음의 성구와 다른 자료를 공부한다.  
ㄱ. 교리와 성약 42:30~42; 51편; 78편; 82편; 104:11~18. 본 공과에 있는 다른 성구  
ㄴ. *우리의 유산*, 26쪽
  2. *반원 학습 지도서*(35686 320)에서 본 공과에 대한 자료를 살펴본다. 공과 시간에 자료를 참조할 수 있는 방법을 계획한다.
  3. 여러분이 주의 집중 활동을 활용하려면, 각 반원들을 위해 종이와 필기구를 가져온다.

## 공과 전개 제언

주의 집중 활동 적절한 경우, 공과를 시작하기 위해 다음 활동이나 여러분 자신이 준비한 활동을 활용한다.

각 반원들에게 종이와 필기구를 준다. 각 반원에게 자신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물건을 다섯 가지씩 열거해 보도록 부탁한다. 그리고 나서 반원들과 함께 교리와 성약 104편 13~14절을 읽는다.

- 우리가 지니고 있는 것의 참된 소유자에 관하여 이 구절에서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 있는가? 지상에 있는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임을 깨달을 때 여러분의 소유를 사용하면서 어떤 느낌이 드는가?

이 구절에서 가르치고 있는 원리는 헌납의 법에 따라 생활하는 데 기본이 되는 것이라고 설명한다. 본 공과에서는 이 율법과 우리가 우리의 삶을 더욱더 주님께 헌납할 수 있는 방법에 관해 초점을 맞출 것이다.

**토론 및 적용** 기도하는 마음으로 반원들의 필요 사항을 가장 잘 충족시켜 줄 수 있는 공과 자료를 선정한다. 반원들을 격려하여 성구의 원리와 관련된 경험을 이야기해 주도록 한다.

### 1. 주님께서 성도들에게 헌납의 법을 계시하여 주셨다.

1831년 2월, 성도들이 오하이오 주 커틀랜드에 집합하기 시작한 직후 주님께서서는 그들이 헌납의 법에 따라 살기 시작해야 한다고 밝혀 주셨다.(교리와 성약 42:30)

- 헌납(*consecrate*)은 무엇을 의미하는가?(이것은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 어떤 것을 따로 떼어 두는 것, 즉 바치는 것을 의미한다.) 헌납의 법이란 무엇인가?(이것은 사람들이 주님의 왕국을 건설하고 그분의 자녀들에게 봉사하기 위해서 그들의 시간, 재능, 그리고 재산을 헌납하는 조직화된 방법이다.)
- 헌납의 법의 목적은 무엇인가? (반원들에게 다음 성구를 읽고 헌납의 법의 목적에 관해 그 구절이 가르치는 바를 확인하게 한다. 칠판에 이 목적들을 요약한다. 토론을 권장하기 위해 다음 질문 가운데 몇 가지를 선정한다.)

- ㄱ. 교리와 성약 42:30.(가난하고 궁핍한 자들을 보살피기 위해) 가난하고 궁핍한 자들을 보살 피는 것이 헌납의 법을 통하여 어떻게 성취되었는가?(교리와 성약 42:31~34 참조)
- ㄴ. 교리와 성약 42:35.(토지를 구입하고, 예배하는 집을 건축하며, 새 예루살렘을 건설하기 위해)
- ㄷ. 교리와 성약 42:40.(주님의 백성들이 교만을 극복하도록 돕기 위해) 헌납의 법에 따라 생활 하는 것이 어떻게 회원들이 개인적인 교만과 탐욕을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가?
- ㄹ. 교리와 성약 42:42.(주님의 백성들이 근면하게 되고 게으르지 않게 하기 위해)
- ㅁ. 교리와 성약 51:9.(주님의 백성이 하나가 되는 것을 돕기 위해) 어떤 방법으로 주님께서는 우리가 하나가 되기를 기대하고 계시는가? 헌납의 법이 어떻게 성도들이 하나가 되도록 도울 수 있는가?
- ㅂ. 교리와 성약 78:3~7.(주님의 백성들이 땅의 것에서 평등하게 되고 또 해의 왕국에서 있을 곳을 받게 되도록 돕기 위해) “땅의 것”에서 평등하게 되는 것이 어떻게 우리가 “하늘의 것”을 얻는 데 도움을 주는가? (교리와 성약 78:5)
- ㅅ. 교리와 성약 78:14.(교회 회원들이 “다른 모든 피조물 위에 자립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 ㅇ. 교리와 성약 82:17~19.(하나님의 백성들이 모든 사람의 유익을 위하여 자신의 재능을 발전시키고, 이웃의 유익을 구하며, 하나님의 영광만을 전념하여 구하면서 모든 일을 하도록 돕기 위해) 헌납의 법에 따라 사는 것이 어떻게 주님의 백성이 더욱 커다란 사랑을 발전시키도록 도움을 주는가?

이러한 목적을 살펴보면 헌납의 법이 단지 세속적이거나 경제적인 프로그램이 아니라는 것을 명백히 알 수 있다. 그것은 또한 영적인 율법으로서, 회원들이 영적으로 성장하고 영생을 위해 준비하는 데 도움을 준다.(교리와 성약 29:34~35)

헌납의 법의 원리들은 선지자 조셉 스미스를 통해 계시된 이래로 변하지 않았으나, 때때로 다르게 적용되었다는 것을 설명한다. 현대 선지자의 도움을 통해 우리 시대에 이 원리들을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 이해할 수 있다.

여러분은 교회 초기 시절에 헌납의 법을 어떻게 실행했는지 설명하기 위해 다음 자료를 사용해도 좋을 것이다. 초기 성도들은 미주리 주와 오하이오 주와 유타 주에서 특정 기간 동안 그 법에 따라 생활하려 했다. 일부 성도들은 그 법을 잘 준수했지만, 교회 전체로는 그 법에 따라 생활하는 데 실패했다.(*우리의 유산*, 26쪽 참조)

### 재산을 헌납함

헌납의 법 하에서 교회 회원들은 합법적인 증서를 통해 자신들의 재산을 자발적으로 교회에 헌납한다. (교리와 성약 42:30)

### 청지기 직분을 받음

교회 회원들이 그들의 재산을 헌납한 이후에는, 감독이 그들에게 청지기 직분, 즉 헌납된 모든 재물에서 분깃을 준다. 청지기 직분의 크기는 그 가족의 사정이나 필요 사항에 따라 다른 것으로, 그것은 그것을 받게 될 회원과 협의하여 감독이 결정한다.(교리와 성약 42:32; 51:3) 청지기 직분은 각 회원이 그것의 관리에 대해 충분한 권한을 갖고 책임을 지도록 하기 위해 소유권 증서와 함께 주어진다.(교리와 성약 51:4; 72:3~4; 104:11~13) 비록 모든 재물이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 속한 것이지만, 청지기 직분은 공동 또는 공공 재산이 아닌 사유 재산으로 취급된다.



## 잉여물

회원들이 청지기 직분을 통해 가족의 필요량을 넘어서는 잉여물을 생산했다면, 그들은 그 해 말에 그것을 감독에게 헌납하여 감독의 창고에 보관하게 된다.(교리와 성약 42:33; 51:13) 감독은 가난한 자들을 보살피고, 예배하는 집을 건축하여, 기타 합당한 목적을 위해 그 잉여물을 사용한다.(교리와 성약 42:34~35)

## 협동교단

1832년 주님께서는 그의 백성들 가운데서 헌납의 법을 실시하고 관리하기 위해서는 조직체가 있어야 한다고 밝혀 주셨다.(교리와 성약 78:3) 그분께서는 이 조직체를 “협동교단”이라고 부르셨다.(교리와 성약 92:1) 이에 이은 계시로 주님께서는 협동교단에 관한 추가 지침을 주셨다.(예를 들어 교리와 성약 104편 참조)

## 2. 헌납의 법은 영원한 율법이다.

헌납의 법은 주님께서 우리 시대에 다시 계시하여 주신 영원한 율법이다. 주님의 백성이 이 율법에 따라 생활했던 기사가 값진 진주, 신약전서, 그리고 물문경에 포함되어 있다. 반원들과 함께 다음의 성구를 읽거나 살펴본다.

ㄱ. 모세서 7:18.(에녹의 백성)

ㄴ. 사도행전 4:32, 34~35.(구주 부활 후의 성도들)

ㄷ. 제4니파이 1:1~3, 12~13, 15.(구주께서 그들을 방문하신 이후의 니파이인들)

- 사람들이 헌납의 법에 따라 생활했던 사회에서는 생활 가운데서 어떤 축복이 있었을 것이라고 여러분은 생각하는가?

## 3. 우리는 지금 우리의 생활을 주님께 헌납할 수 있다.

하나님의 성도로서, 우리는 완전히 헌납의 법에 따라 기꺼운 마음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준비를 갖추어야만 한다. 그러나 우리의 생활을 주님께 헌납하기 위해서 미래를 기다리고만 있을 필요는 없다. 우리가 오늘날 헌납의 법에 따라 생활하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한다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할 것을 요청할 때 완전히 헌납의 법에 따라 생활하기 위한 좀 더 나은 준비를 갖추게 될 것이다.

- 우리는 오늘날 어떠한 방법으로 우리 생활에서 헌납의 법에 따라 생활할 수 있는가? (다음 내용을 토론에 활용하거나 반원들의 대답에 덧붙인다. 토론을 할 때에 제목을 칠판에 적는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주님께 속한 것임을 깨달음

- 여러분이 주의 집중 활동을 활용했다면, 다시 그것으로 돌아간다. 활용하지 않았다면, 반원들과 함께 교리와 성약 104편 13~14절과 시편 24편 1절을 읽는다. 이 구절에서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 있는가? 우리의 재산을 관리하는 청지기가 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러한 지식이 우리 재산에 대한 우리 태도에 어떻게 영향을 미쳐야 하는가? 모든 것이 주님께 속한 것이라는 점을 이해하는 것은 왜 중요한가?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관리하는 충실한 청지기가 될 때 주님께서는 무엇을 약속하셨는가?(교리와 성약 51:19; 78:22 참조)

전에 교회 감리 감독이었던 빅터 엘 브라운 감독은 다음과 같이 말씀했다. “모든 것이 주님께 속한 것이라는 원리와 완벽한 조화를 느낄 때까지는 우리가 헌납의 법을 받아들이는 것이 불가능하

지는 않지만, 어려울 것입니다. 우리가 이 율법에 따라 생활할 준비를 할 때, 우리는 그러한 요청이 오게 될 날을 커다란 기대감으로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이에 반하여 우리가 물질적인 것들을 축적하는 기쁨을 가질 수 있도록 그것이 계속 지연되기를 소망하고 있다면, 우리는 잘못된 길에 있는 것입니다.” (“The Law of Consecration”, 1976 Devotional Speeches of the year [1977년], 439쪽)

- 반원들과 함께 교리와 성약 19편 26절을 읽는다. 이 구절에서 주님께서는 어떤 경고를 마틴 해리스에게 주셨는가? 우리가 우리의 생활을 주님께 헌납하려 한다면, 왜 탐욕을 극복해야만 하는가? 우리는 어떻게 탐욕스런 느낌을 극복할 수 있는가?

브리검 영 회장은 이렇게 말씀했다. “제가 두려워하는 것은 지옥의 무리라기보다 우리 장로님들의 마음속에 있는 탐욕입니다. ... 세상에 있는 ... 우리의 모든 적들과 그들과 함께 하여 우리에게 대적하고 있는 모든 지옥의 무리도, 이 백성의 가슴 속에 있는 탐욕이 우리에게 미칠 수 있는 만큼의 손상을 우리에게 줄 수 없습니다. 이는 그 탐욕이 우상이기 때문입니다.” (*Journal of Discourses*, 5:353)

#### 주님께서 지금 요구하시는 희생을 함

현재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희생을 우리는 기꺼운 마음으로 해야 한다. 이러한 희생에는 시간, 재능 및 재산의 희생이 포함된다. 제일회장단과 십이사도 정원회는 우리 시대에 어떻게 헌납의 법의 원리들을 이행할 수 있는가에 대한 방침을 준다.

- 오늘날 하나님의 왕국 건설을 돕기 위하여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시간과 재능과 재산을 헌납할 수 있는가? (답에는 아래에 열거된 내용이 포함될 수 있다.)
- ㄱ. 십일조와 금식 헌금을 내며, 궁핍한 자들을 다른 방법으로 관대하게 돕는다. 이렇게 행함으로써, 우리는 교회가 가난한 자들을 보살피고 지상에서 하나님의 왕국을 건설하기 위해 필요한 중요한 활동을 계속해서 해 나가도록 도울 수 있다. 매리온 지 롬니 장로는 이렇게 물었다. “우리가 헌납의 법 아래서 내야 하는 만큼의 잉여물을 금식 헌금을 통해 내는 것을 무엇이 막고 있습니까? 우리 자신의 한계 이외에는 없습니다.”(Conference Report, 1966년 4월, 100쪽; *Improvement Era*, 1966년 6월호, 537쪽)
- ㄴ. 교회에서 기꺼운 마음으로 봉사한다. 주님께서는 각 사람이 “자기 의무를 배우고 자신이 임명된 그 직분을 부지런히 행”하라고 훈계하셨다.(교리와 성약 107:99) 우리는 우리가 받은 부름을 최선의 능력을 다하는 가운데 성취해야 한다. 교회의 구체적인 부름에 더하여, 우리는 다른 사람과 복음을 나누며, 성전 사업을 행하고, 새로운 회원 또는 신앙이 약한 사람의 간증을 강화시키기 위해 노력할 수 있다.
- ㄷ. 전임 선교사로 봉사한다. 십이사도 정원회의 로버트 디 헤일즈 장로는 이렇게 가르쳤다. “선교 사업을 나가면 헌납의 법대로 생활하는 법을 배울 것입니다. 일생에서 여러분의 모든 시간과 재능과 자원을 주님께 바칠 수 있는 유일한 시기가 될지 모릅니다. 보답으로, 주님께서 그분의 영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것으로 여러분을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여러분 곁에 계실 것이며 여러분을 굳건하게 해 줄 것입니다.”(Conference Report, 1996년 4월, 50쪽; *성도의 벗*, 1996년 7월호, 36쪽)

#### 다른 사람에 대하여 그리스도와 같은 사랑을 발전시킴

- 반원들과 함께 교리와 성약 82편 19절과 야곱서 2장 17절을 읽는다. 주님은 이 구절에서 다른

사람에 대하여 우리의 사랑을 어떻게 보여야 하는지에 관해 무엇을 가르치고 계시는가? 우리가 헌납의 법에 따라 생활해야 할 때, 다른 사람에 대하여 그리스도와 같은 사랑을 발전시키는 것은 왜 필요한가?

다른 사람에 대하여 그리스도와 같은 사랑을 갖는 능력이 헌납의 법의 토대가 된다고 설명한다. 우리의 사랑이 커질 때, 이 법에 따라 생활하는 우리의 능력 또한 성장할 것이다. 반원들에게 그들이 나 다른 사람이 곤란한 처지에 있는 사람을 돕기 위해 그들의 시간과 자원을 희생했을 때의 경험을 이야기해 주도록 권유한다. 적절하다면, 여러분은 토마스 에스 몬슨 회장이 들려준 다음 이야기를 읽어 줄 수 있다.

“저는 어린 시절에 대한 기억들이 많이 있습니다. 잔뜩 고대하던 일요일 저녁 식사가 그 중 하나입니다. 우리 꼬마들이 … 집안에 가득 퍼진 고기 굽는 냄새를 맡으며 식탁에 앉아 음식 나오기만을 잔뜩 버르고 있을 때, 어머니는 ‘토미야 먹기 전에 이 음식을 길 아래 편에 있는 뽕 할아버지께 빨리 갖다 드리고 오렴’ 하고 말씀하시곤 했습니다.

“도대체 왜 우리가 먼저 먹고, 나중에 그 음식을 갖다 드리면 안 되는 것인지 이유를 알 수가 없었습니다. 직접 그 이유를 여쭙어 본 적은 한 번도 없었지만, 뽕 할아버지 댁으로 뛰어 내려가 할아버지가 나오실 때까지 문 앞에서 마음을 졸이며 기다리곤 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분께 음식을 그릇을 건네 드리면 할아버지는 지난 일요일에 갖다 드렸던 음식 접시를 깨끗이 씻겨진 채로 주시며 수고했다고 10센트짜리 동전 한 개를 같이 주시곤 했습니다. 그때 저의 대답은 언제나 한결 같았습니다. ‘전 그 돈을 받을 수가 없어요. 받으면 어머니께 불기를 맞아요.’ 그러면 할아버지께서는 제 금발 머리를 잔뜩 주름진 손으로 쓰다듬으시며 ‘얘야, 네 어머니는 정말 훌륭한 어머니시구나. 고맙다고 전해 다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 그렇게 심부름을 하고 난 뒤에는 일요일 저녁 식사가 더욱 맛이 있었습니다.”(“외로운 자들의 긴 대열”, 성도의 벗, 1992년 9월호, 4~5쪽)

#### 우리 생활의 모든 면을 주님께 헌납하도록 노력함

십이사도 정원회의 날 에이 맥스웰 장로는 이렇게 말씀했다. “우리는 헌신을 재물과 돈에만 연결시키려고 합니다. 그러나 주님께 더욱 많은 것을 드리는 일을 그만두는 방법에는 참으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Conference Report, 1992년 10월, 90쪽; 성도의 벗, 1993년 1월호, 66쪽)

- 우리가 하나님과 그분의 자녀를 섬기는 과정에서 더 큰 헌납을 할 수 있을 때, “더욱 많은 것을 드리는 일을 그만” 두는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교리와 성약 64편 34절과 우리가 당연히 헌납해야 하는 것에서 어떻게 때때로 부족함을 보이는지에 관한 맥스웰 장로의 다음 예를 참조한다.)

ㄱ. 주님의 뜻에 완전하게 복종하지 않고 마지못해 하는 것. 맥스웰 장로는 이렇게 말씀했다.

“자신의 의지를 굽히는 것은 참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제단에 바쳐야 하는 우리 자신의 것입니다. … 우리가 ‘바치는’ 다른 많은 것들은 사실 그분이 이미 우리에게 주셨거나 빌려주신 것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뜻으로 삼음으로써 우리가 마침내 순종하게 되면, 그렇게 되면 우리는 그분께 정말로 무언가 중요한 것을 바치는 것입니다.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진정으로 바칠 수 있는 유일한 우리의 소유물인 것입니다.”(Conference Report, 1995년 10월, 30쪽; 성도의 벗, 1996년 1월호, 24쪽)

ㄴ. “자신의 직무, 시간, 명성, 재산” 등과 같은 이기적인 것들을 포기하지 않으려는 내키지 않는 마음.(Conference Report, 1995년 10월, 28쪽; 성도의 벗, 1996년 1월호, 23쪽)

ㄷ. 그리 중요하지 않은 취미와 일에 너무 몰두함.

- ㄹ. 사회적으로는 훌륭한 봉사를 하지만 “예수님의 거룩한 성전과 그분의 거룩한 경전에 대하여는 관심이 별로 없이 지내는” 것.(Conference Report, 1995년 10월, 27쪽; 성도의 벗, 1996년 1월호, 23쪽)
- ㅁ. 가족으로서의 책임에 충실하지만 일부 식구에 대해서는 온화하라는 예수님의 모범을 본받지 않음.
- ㅂ. 하나님의 왕국보다는 우리 자신을 우선적으로 세움.
- ㅅ. 공개적으로 재능을 나누면서도 은밀하게 교만한 마음을 지니고 있음.
- ㅇ. 교회 부름을 받아들이나 세상에서의 역할을 유지하는 것에 더욱 큰 마음을 씀.

(Conference Report, 1992년 10월, 88~92쪽; 성도의 벗, 1993년 1월호, 65~67쪽;  
Conference Report, 1995년 10월, 27~30쪽; 또는 성도의 벗, 1996년 1월호, 22~24쪽 참조)

- 우리가 더욱더 온전하게 헌납하려고 노력할 때 어떤 축복을 받는가?

## 결론

반원들에게 그들의 생활을 살펴보고 어떻게 하면 스스로를 더욱더 충만하게 주님께 헌납할 수 있을지를 결심하도록 격려한다. 우리가 소유한 모든 것이 주님께 속한 것임을 인정하고, 기꺼운 마음으로 지금 우리에게 요구되는 희생을 하며, 다른 사람에 대하여 그리스도와 같은 사랑을 발전시킴으로써, 우리가 이러한 일들을 행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 추가로 가르칠 개념

여러분은 제언된 공과 개요를 보충하기 위하여 다음 개념 가운데서 한두 가지 개념을 활용할 수 있다.

### 1. 주님의 창고

주님의 창고가 가난한 자들을 보살피는 것과 연관되어 교리와 성약에 여러 번 언급되어 있다.(교리와 성약 42:34; 78:3; 83:5~6) 반원들이 주님의 창고가 무엇이며 또 오늘날에는 그것이 어떻게 활용되는지를 이해하도록 돕기 위해, 교회 지침서에 있는 다음 내용을 읽어 준다.

“주님의 창고는 성도들이 헌납한 것을 접수하고 보관하고 나누어 주는 곳이다. 주님의 창고는 상황에 따라 단순할 수도 있고 복잡할 수도 있다. 그 내용물은 용역일 수도 있고, 은행에 예금되어 있는 돈일 수도 있으며, 식료품실에 들어 있는 식품일 수도 있고, 건물 안에 있는 일용품일 수도 있다. 주님의 창고는 충실한 회원들이 가난한 자들을 돌보고 지상에 하나님의 왕국을 건설하기 위해 자신의 시간, 재능, 사랑, 재물 또는 기타 재정 수단을 감독에게 헌납할 때 세워진다.”

“따라서 주님의 창고는 와드마다 있다. 감독은 창고의 대리인이다. 주님으로부터 영감을 받아 감독은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성도들의 헌물을 전해 준다. 감독은 신권 정원회와 상호부조회의 도움을 받는다. 감독은 스테이크 지도자와 지역 지도자들로부터 자신의 책임에 관하여 교육과 지원을 받는다.”(교회 지침서, 제2권: 신권 및 보조 조직 지도자, 250~251쪽)

- 우리 각자는 와드에 있는 주님의 창고의 자원을 위해 어떻게 기부를 할 수 있는가?

### 2. “땅의 일에 있어서 평등”(교리와 성약 78:6)

평등이라는 단어가 물질적인 것과 관련되어 교리와 성약에서 자주 사용되고 있다.(교리와 성약 51:3; 70:14; 78:6) 이것이 모든 청지기 직분이 완전히 똑같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설명한다. 그보다는 모든 청지기에게 각 사람과 각 가족의 필요 사항에 따라 주어진다는 의미이다.(교리와 성약 42:32; 51:3) 모든 성도들이 그들의 필요 사항을 충족시키기 위해 “재산에 대한 평등한 권리”를 갖는다는 의미에서 그들은 평등하다.(교리와 성약 82:17)

# “가장 좋은 은사들을 간절히 구하되”

제 15 과

---

**목적** 반원들이 영의 은사를 알고, 그것을 얻기 위해 노력하며, 그것을 활용하여 다른 사람에게 봉사하도록 돕는다.

---

**준비 사항**

1. 기도하는 마음으로 다음의 성구와 다른 자료를 공부한다.
  - ㄱ. 교리와 성약 46편; 신앙개조 제7조.
  - ㄴ. 고린도전서 12~13장; 모로나이서 10:8~18(보충 성구)
  - ㄷ. 우리의 유산, 42~43, 47~48, 63쪽.
2. 반원 학습 지도서(35686 320)에서 본 공과에 대한 자료를 살펴본다. 공과 시간에 자료를 참조할 수 있는 방법을 계획한다.
3. 반원들에게 우리의 유산에서 다음의 기사를 읽어 오도록 부탁한다.
  - ㄱ. 필로 디블을 돕는 뉴얼 나이트(42~43쪽)
  - ㄴ. 부상당한 아들을 치료할 방법에 관한 계시를 받은 아만다 스미스(47~48쪽)
  - ㄷ. 댄 존스의 선교 사업에 관하여 예언을 한 선지자 조셉 스미스(63쪽)

---

## 공과 전개 제언

주의 집중 활동 적절한 경우, 공과를 시작하기 위해 다음 활동이나 여러분 자신이 준비한 활동을 활용한다.

반원들에게 그들이 정원을 가꾸고 있는 모습을 상상해 보라고 한다.

- 여러분은 정원에 어떤 씨를 심을 것인가?

반원들에게 생각할 시간을 주고, 몇몇 사람에게 그들이 정원에 심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를 설명해 보도록 권유한다. 반원들이 선택한 것들의 차이점에 주목하도록 한다. 각자의 정원이 다를 것이지만, 그 모든 정원이 아름다우며 유용할 것이라고 지적한다.

- 씨를 심은 후에, 멋진 정원을 갖기 위해서 여러분은 어떤 일을 할 필요가 있는가?

반원들이 대답을 한 후에, 본 공과는 영의 은사에 관한 것이라고 설명한다. 사람들이 각자의 정원에 서로 다른 식물을 심을 수 있으나, 그 모든 정원이 아름답고 유용한 정원이 될 수 있음을 반원들에게 상기시킨다. 이와 비슷하게 교회 회원들이 각각 다른 여러 가지 영의 은사를 받을 수도 있지만, 모든 은사가 하나님의 왕국을 건설하는 데 유용하다. 그리고 씨와 식물처럼, 영의 은사를 잘 가꾸고 길러서 완전히 발전하고 유용하게 되도록 해야 한다.

---

**토론 및 적용** 기도하는 마음으로 반원들의 필요 사항을 가장 잘 충족시켜 줄 수 있는 공과 자료를 선정한다. 반원들을 격려하여 성구의 원리와 관련된 경험을 이야기해 주도록 한다.

## 1. 모든 충실한 교회 회원들은 영의 은사를 받을 수 있다.

영의 은사는 성신을 통하여 주어진 영적인 축복 또는 능력이라고 설명한다. 이러한 은사는 대배도 동안에 지상에서 거두어졌으나, 하나님께서는 이 경륜의 시대의 초기에 그것들을 회복하여 주셨다. 이러한 은사를 행사하여 우리를 축복하고, 교화시키고, 하나로 만들 수 있다.

미리 지명 받은 반원들에게 *우리의 유산*에 있는 기사를 읽어 주도록 부탁한다. (“준비 사항” 3 참조) 각 기사를 읽은 후에, 어떤 영의 은사가 이야기에 나타나 있는지에 관해 토론한다. 뉴얼 나이트는 병 고치는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교리와 성약 46:20) 필로 디블과 앨마 스미스는 병 고침을 받았다는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교리와 성약 46:19) 아만다 스미스는 계시를 받았다.(신앙개조 제7조) 선지자 조셉 스미스는 예언의 은사를 가지고 있었다.(교리와 성약 46:22) 댄 존스는 가르치는 은사를 받았다.(모로나이서 10:9~10)

- 주님께서 교리와 성약 46편에서 어떤 영의 은사를 확인하여 주셨는가?(반원들에게 다음 성구를 읽고 각 구절에 나타난 영의 은사를 확인하게 한다. 칠판에 이 은사들을 요약한다.)
  - ㄱ. 교리와 성약 46:13.(“성신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과 그가 세상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음을” 아는 지식)
  - ㄴ. 교리와 성약 46:14.(구주에 대한 다른 사람들의 말을 믿음)
  - ㄷ. 교리와 성약 46:15.(“여러 가지 다른 직분이 있음을 아는” 지식) 십이사도 정원회의 브루스 알 맥쿱키 장로는 이 은사가 “교회를 감리하고 또 조정하는 데 활용된다”고 말했다.(*A New Witness for the Articles of Faith* [1985년], 278쪽)
  - ㄹ. 교리와 성약 46:16.(“역사하심의 다양함과 그것이 하나님에게서 온 것인지” 아는 분별력. 이 은사는 어떤 가르침 또는 영향력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지 아니면 어떤 다른 근원에서 온 것인지를 우리가 분별하도록 도움을 준다.)
  - ㅁ. 교리와 성약 46:17~18.(지혜와 지식)
  - ㅂ. 교리와 성약 46:19.(병 고침을 받는 신앙)
  - ㅅ. 교리와 성약 46:20.(병 고치는 신앙)
  - ㅇ. 교리와 성약 46:21.(기적을 행함)
  - ㅈ. 교리와 성약 46:22.(예언)
  - ㅊ. 교리와 성약 46:23.(영을 분별함.)
  - ㅋ. 교리와 성약 46:24.(방언을 말함.)
  - ㅌ. 교리와 성약 46:25.(방언을 통역함)

여러분은 영의 은사가 또한 고린도전서 12장 4~12절, 13장 1~13절, 모로나이서 10장 8~18절에도 나와 있음을 지적할 수 있다.

- 누가 영의 은사를 받을 수가 있는가?(교리와 성약 46:8, 11 참조. 하나님께서는 이 은사들 가운데서 적어도 한 가지 씩을 성신의 은사를 받은 충실한 교회 회원 모두에게 주셨다고 지적한다. 만일 여러분이 청소년을 가르치고 있다면, 그들도 영의 은사를 가지고 있다고 강조한다. 여러분은 또한 성신의 은사를 받지 않은 사람들도 다른 사람들을 격려하고 강화시킬 수 있는 독특한 능력으로 축복을 받을 수 있다고 지적할 수 있다.)

## 2.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자녀들의 유익을 위하여 영의 은사를 주셨다.

- 교리와 성약 46편에서 밝혀진 영의 은사의 목적 가운데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다음 내용을 활용하여 토론을 하거나 반원들의 대답에 덧붙인다. 토론을 할 때 칠판에 제목을 적는다.)

우리를 개별적으로 강화시키고 또 축복함

- 반원들과 함께 교리와 성약 46편 9절을 읽는다. 어떤 방법으로 영의 은사는 우리를 개별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가? 어떤 은사가 여러분에게 특별히 값진 것이었는가?(여러분은 반원들에게 그들의 영의 은사가 자신들을 강화시키고 축복해 주었던 경험을 이야기해 주도록 권유할 수 있다.)

십이사도 정원회의 델린 에이치 옥스 장로는 이렇게 가르쳤다. 영의 은사는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여 줄 수 있다. 그것은 우리를 적의 힘으로부터 보호하여 줄 수도 있다. 그것은 우리의 부족한 면을 보충하여 줄 수 있으며, 우리의 불완전한 면을 고쳐줄 수 있다.”(“영의 은사”, *Ensign*, 1986년 9월호, 72쪽)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봉사하도록 도움

반원들과 함께 교리와 성약 46편 11~12절, 26절을 읽는다. 그리고 나서 다음 말씀을 이야기해 준다.

십이사도 정원회의 올슨 프랫 장로는 이렇게 말했다. “영의 은사는 교회 회원들이 적절하게 가르침을 받고, 확인되고, 완전하게 되며, 구원받을 수 있도록 그들의 충실함, 환경, 타고난 능력, 의무와 부름에 따라 그들에게 주어졌다.”(*Masterful Discourses and Writings of Orson Pratt*, N. B. Lundwall [1953년], 571쪽)

- 특정한 은사가 어떻게 여러분이 다른 사람에게 봉사하는 데 도움이 되었는가? 다른 사람의 영적 은사를 통하여 여러분은 어떻게 축복을 받았는가?

토론의 일부로, 여러분은 다음 이야기를 해줄 수 있다.

“우리가 분주하게 성탄절 저녁 식사를 준비하고 있을 때, 10대의 여동생 하나가 마음이 들뜬 상태에서 가장자리에 은색 칠을 한 접시를 꺼내기 위해 찬장에 손을 넣었다. 그 접시들은 ... 할머니께서 부모님의 결혼을 기념하여 선물로 준 것으로 특별한 행사에만 사용되었다. 그러나 동생이 찬장에서 접시 몇 장을 꺼내려 할 때, 무엇인가에 부딪혀 접시가 손에서 미끄러졌다. 접시를 다시 붙잡으려는 동생의 필사적인 노력도 헛되이 접시는 마루 위에 떨어져 산산조각이 났다. 깨진 접시 조각들로 인하여 동생은 너무나 마음이 아픈 나머지 얼굴에는 두려움의 빛마저 있었다.

“식사를 준비하던 어머니의 손이 허공에서 멈추고, 명절 분위기에 들떠 부산하게 움직이던 식구들의 재잘거림이 갑자기 조용해지며 우리 모두는 얼어붙은 듯이 그 자리에 서서 정적에 휩싸였다. 그 부서진 광경을 돌아다보지도 않고, 어머니께서는 조용히 방밖으로 나가셨다. 그리고 ... 우리들은 명절에 우리 각자가 맡은 일들을 다시 시작하려고 애를 썼다.

“접시를 깬 동생은 예외였다. 그 아이는 가만히 서서 커다란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 동생은 눈물을 흘리며 아무 감정 없이 빗자루와 쓰레받기를 찾아서는 산산조각이 난 접시 조각들을 쓸기 시작했다. 그리고는 무릎을 꿇고 큰 조각들을 천천히 집어들어 조심스럽게 쓰레받기에 담았다.

“얼마 지나지 않아 어머니께서 주방으로 돌아오셔서 슬픔에 잠긴 어린 딸을 팔로 안으셨다. 동생은 소리내어 영영 울기 시작했다. ... 어머니께서는 조용조용하게 딸을 위로하며 께잡다, 애야. 그 무엇보다도 사람이 더욱 중요하단다” 라고 말씀하셨다.

“어머니께서는 다른 방으로 가서서 기도를 하였으며 동생을 위로할 방법에 대해 평화스러운 느낌과 영감을 받으셨다고 나중에 말씀하여 주셨다. 그 성탄절에 어머니에게 주어진 영적인 통찰의 은사가 우리 가족이 받은 가장 귀중한 선물이 되었다.”(로라 리셀 벵커, “통찰의 아름다움”, *Ensign*, 1998년 12월호, 54~55쪽)

여러분은 다음 상황에서 어떠한 영의 은사가 도움이 될 것인지에 대해 토론할 수 있다. 반원들에게 다시 교리와 성약 46편 13~25절을 읽게 한다.

- ㄱ. 한 가정 복음 교사가 요청을 받아 그가 맡은 한 가족에게 가서 신권 축복을 주게 되었다.
- ㄴ. 한 선교사가 한 조그만 지부의 교회 회원들을 관리하게 되었다.
- ㄷ. 한 청년이 지명을 받아서 그녀가 속한 반에서 공과를 가르치게 되었다.
- ㄹ. 한 아론 신권 고문이 일단의 집사들을 인솔하여 야영을 떠났다가 어려움을 만났다.
- ㅁ. 한 상호부조회 회장이 자기의 와드 또는 지부에서 방문 교사들을 자매들에게 지명하고 있다.

우리가 속임을 받지 않도록 도움

- 반원들과 함께 교리와 성약 46편 8절을 읽는다. 영의 은사는 어떻게 우리가 악한 영향력 또는 속임을 당하지 않도록 도움을 줄 수 있는가?

### 3. 우리는 영의 은사를 구하고 발전시켜야 한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가장 좋은 은사들을 간절히 구하되, 무엇을 위하여 그러한 것이 주어지는지를 항상 기억하라.”(교리와 성약 46:8)

-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의 은사를 구하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는가?(답에는 우리가 상고하고, 기도하며, 금식하고, 축복사의 축복을 숙고하며, 계명에 순종하고, 다른 사람에게 봉사할 수 있다는 것이 포함될 수 있다. 또한 다음의 인용문을 참조한다.) 우리에게 주어진 영의 은사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선지자 조셉 스미스는 지혜 또는 병 고치는 은사와 같은 많은 영의 은사가 그것들이 필요할 때까지는 명확히 나타나지 않는다고 가르쳤다. 그는 “그 같은 은사를 행사하게 될 때까지는 시간과 상황이 요구되는 것이다.”라고 말씀했다.(*선지자 조셉 스미스의 가르침*, 조셉 필딩 스미스 편, 240쪽)

- 영의 은사를 구하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는가?(반원들에게 다음 성구를 읽고 또 그것이 영의 은사를 구하는 것에 관하여 가르치고 있는 바를 확인하게 한다. 칠판에 다음 내용을 요약한다.)
  - ㄱ. 교리와 성약 46:7, 30.(하나님께 간구하고 또 영의 인도를 따른다. 또한 조지 큐 캐넌 회장의 다음 말씀 참조)
  - ㄴ. 교리와 성약 46:9.(이기적인 이유 때문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하여 은사를 구한다.)
  - ㄷ. 교리와 성약 46:31.(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든 일을 행한다.)
  - ㄹ. 교리와 성약 46:32.(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에 대해 그분께 감사드린다.)
  - ㅁ. 교리와 성약 46:33.(끊임없이 덕을 쌓으며 거룩함을 실천한다.)

조지 큐 캐넌 회장은 이렇게 가르쳤다. “우리 가운데 누구라도 불완전하다면, 우리를 완전하게 해줄 은사를 위해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의무입니다. 제게 불완전한 면이 있습니까? 제게는 그러한 것들이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저의 의무는 무엇이겠습니까? 이러한 불완전한 면을 올바르게 잡아줄 은사를 제게 주실 것을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입니다. 제가 화를 잘내는 사람이라면, 오래 참고 온유하



게 하여 주는 사랑을 간구하는 것이 저의 의무입니다. 제가 시기하는 사람이라면 어떻게겠습니까? 시기하지 않게 하여 주는 사랑을 구하는 것이 저의 의무입니다. 복음의 모든 은사가 다 그렇습니다. 그 은사들은 다 이러한 목적으로 의도된 것입니다. 어떠한 사람도 '나는 이러한 것을 극복할 수 없어. 그것이 나의 천성이야' 라고 말해서는 안 됩니다. 이런 사람은 그런 면에서 정당화될 수 없는데, 이는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것들을 바로잡을 힘을 주시겠다고, 그리고 그것들을 근절할 은사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Millennial Star*, 1894년 4월 23일, 260쪽)

델린 에이치 옥스 장로는 그의 모친께서 영의 은사를 구하는 원리를 어떻게 적용하셨는지를 설명했다. “남편을 잃고서 미망인이 되신 어머니께서는 불완전하셨습니다. 자신의 어린 세 자녀를 양육해야 하는 본연의 책임을 다해야 했던 어머니께서는 필요한 것들을 열심히 간구하셨습니다. 어머니께서는 항상 간구하셨고 합당하셨으며 축복을 받으셨습니다. 어머니의 기도는 영의 은사를 받은 것을 포함하여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응답을 받았습니다. 어머니께서는 많은 은사를 가지고 계셨으나, 제가 특별하게 기억하고 있는 것은 신앙, 간증, 그리고 지혜의 은사입니다. 어머니는 시온에서 아주 강한 여성이셨습니다.” (*Ensign*, 1986년 9월호, 72쪽)

## 결론

반원들에게 영의 은사를 구하고 또 다른 사람에게 봉사하기 위하여 그들에게 주어진 은사를 활용하도록 격려한다. 영이 지시하는 대로, 공과 동안에 토론한 진리에 대해 간증한다.

## 추가로 가르칠 개념

여러분은 제언된 공과 개요를 보충하기 위하여 다음 개념 가운데서 한 가지 이상을 활용할 수 있다.

### 1. 다른 사람에게 봉사하기 위해 영의 은사를 활용함

다음 그림들을 구할 수 있다면, 그것들 전부 또는 일부를 반으로 가져온다. 교회에서 말씀하는 어린 소녀(복음 그림 패킷 607); 감독(복음 그림 패킷 611); 선교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르침(복음 그림 패킷 612); 병자 축복(복음 그림 패킷 613); 가정 복음 교육(복음 그림 패킷 614); 다른 사람을 섬김(복음 그림 패킷 615). 그 그림들을 한 번에 하나씩 보여 주고, 반원들에게 각 그림의 상황이 어떻게 영의 은사의 필요성을 보여 주고 있는지를 설명해 보라고 부탁한다.

반원들에게 그들의 책임에 대해 생각해 보라고 권유한다. 예를 들어 그들은 부모로서, 형제 및 자매로서, 신권 또는 보조 조직 지도자로서, 또는 가정 복음 교사나 방문 교사로서 그들의 책임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다. 그리고 나서 그들에게 다음 질문을 속으로 상고하게 한다. 여러분이 다른 사람에게 더 잘 봉사할 수 있도록 어떤 영의 은사를 구하는 것이 좋은가?

### 2. 추가적인 영의 은사

- 브루스 알 맥콩키 장로는 이렇게 가르쳤다. “영의 은사는 그 수에 있어 끝이 없으며 그 종류에 있어서 무한합니다. 계시된 말씀에 열거된 것들은 단지 보기에 불과할 뿐입니다.”(*A New Witness for the Articles of Faith*, 371쪽) 교리와 성약 46편에 열거된 것 이외에도 어떤 영의 은사가 있을 수 있는가?

십이사도 정원회의 마빈 제이 애쉬튼 장로는 “눈에 잘 띄지 않는 은사”에는 “질문하는 은사, 귀 기울이는 은사, 고요하고 조그마한 음성을 듣고 활용하는 은사, 다툼을 피하는 은사, 상냥하게 행동하는 은사, 의로운 것을 구하는 은사, 심판하지 않는 은사, 하나님께 인도를 구하는 은사, 제자가 되는 은사, 다른 사람을 돌보는 은사, 깊이 생각할 수 있는 은사, 기도드리는 은사, 강한 간증을 하는 은사, 성신을 받는 은사 등이” 포함된다고 말했다.(*Conference Report*, 1987년 10월, 23쪽; *성도의 벗*, 1988년 1월호, 22쪽)

### 3. 영의 참된 은사를 분별함

사탄이 거짓된 영의 은사를 가지고 사람들을 속이려 노력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교회 회원들 가운데서 이러한 은사가 그릇되게 나타나는 것을 우려하여, 선지자 조셉 스미스는 주님께 여쭙어 보았고, 현재 교리와 성약 50편에 기록된 계시를 받았다.

반원들이 참된 영의 은사와 거짓된 영의 은사를 분별하도록 돕기 위하여, 교리와 성약 50편 17~24절을 살펴볼 수 있다. 만일 어떤 은사가 하나님에게서 온 것이라면, 그것은 우리를 교화시키고 또한 우리를 기쁘게 할 것이라고 강조한다. 그것은 우리가 선을 행하도록 할 것이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도록 할 것이며, 그리스도를 믿게 할 것이다. 만일 영이 나타남이 교화시키는 것이 아니거나, 그것이 우리를 죄로 인도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다. 속임과 악한 영향력을 피하는 것에 관한 주제는 제24과에서 더 자세하게 토론할 것이다.

### 4. 영으로 가르침

- 복음을 가르치는 것은 영의 은사라고 설명한다.(모로나이서 10:9~10) 그리고 나서 반원들과 함께 교리와 성약 42편 12~14절과 50편 17~18절을 읽는다. 영으로 가르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영으로 가르치는 것은 왜 중요한가? (니파이후서 33:1; 교리와 성약 50:21~22. 다음 인용문 참조)

*교회 지침서*에는 이렇게 언급되어 있다. “교사가 심오한 진리를 가르칠 수도 있고, 반원들은 고무적인 토론에 참여할 수도 있지만, 영이 함께 하지 않는 한 이러한 것들은 사람의 영혼에 크게 감명을 주지 못할 것이다.”(*교회 지침서, 제2권: 신권 및 보조 조직 지도자*, 294쪽)

- 교사들이 가르칠 때 영을 불러들이기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는가?(본 교재의 viii 참조) 가르침을 받는 사람은 영을 불러들이기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는가?
- 반원들과 함께 교리와 성약 43편 8절과 88편 122절을 읽는다. 이 구절들이 우리 주일학교 공과 반에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가?(서로를 가르치고 교화시키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영으로 가르치고 배우는 것이 우리가 서로를 교화시키고 함께 기쁨을 누리는 데 도움이 되는 것을 여러분은 어떻게 보았는가?

### 5. “웅변술이 없는 사람” 비디오 발표

*교리와 성약 및 교회사의 가르침*(53933 320) 비디오를 구할 수 있다면, “웅변술이 없는 사람”(6분)을 보여 주는 것을 고려한다. 이 비디오를 보여 주기로 했다면, 토론 및 적용의 1 또는 2에서 보여 준다.

발표 자료는 어떻게 한 겸손한 교사가 브리검 영이 회복된 복음을 받아들일도록 개심하는 데 도움을 주었는지를 보여 주고 있다. 그것은 브리검 영이 행한 한 연차 대회 말씀으로 시작된다. 그 말씀에서 그는 이렇게 물었다. “사람을 믿게 하였던 것은 무엇이었습니까?”(*Journal of Discourses*, 1:90) 반원들에게 발표 자료를 보면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보도록 격려한다. 시청이 끝나면, 다음 질문을 한다.

- 무엇이 사람들에게 복음의 참됨을 확신시켜 주는가?
- 우리가 복음을 가르치면서 엘리저 밀리의 모범을 따르기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가?

# “나의 거룩한 날에 ... 네 성찬을 바칠지어다”

제 16 과

---

|       |  |
|-------|--|
| 목적    | 반원들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려는 소망을 강화하도록 돕는다.   |
| 준비 사항 | 1. 기도하는 마음으로 다음 성구와 공과 자료를 공부한다.<br>ㄱ. 교리와 성약 59편 및 본 공과에 나와 있는 성구<br>ㄴ. 경전 안내서, “안식일”, 177~178쪽<br>2. 반원 학습 지도서(35686 320)에서 본 공과에 대한 자료를 살펴본다. 공과 시간에 자료를 참조할 수 있는 방법을 계획한다.<br>3. 셋째마네에서 기도하시는 예수님 그림을 구할 수 있다면 공과 시간에 사용하도록 한다.(62175; 복음 그림 패킷 227) |

---

## 공과 전개 제언

|          |   |
|----------|---|
| 주의 집중 활동 | 적절한 경우, 공과를 시작하기 위해 다음 활동이나 여러분 자신이 준비한 활동을 활용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여러분은 성전에 들어갈 때 어떤 느낌이 드는가?(반원들이 성전에 가 본 적이 없을 경우, 어떤 느낌이 들겠는가를 묻는다. 토론 중에 성전에 있을 때의 분위기와 세상에 있을 때의 분위기를 대조시킨다.)</li><li>• 반원들과 함께 교리와 성약 109편 13절을 읽는다. 성전과 다른 장소를 비교할 때 성전의 특이한 점은 무엇인가?(주님께서 성전을 거룩하게 하셨다. 성전은 주님의 집이다.)</li><li>• 반원들과 함께 창세기 2장 1~3절을 읽는다. 이것은 주님께서 안식일을 제정하신 것에 관한 기사라고 설명한다. 이 기사에 따르면 안식일은 다른 날들과 어떻게 다른가?(주님께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셨다. 안식일은 주님의 날이다.)</li></ul> 본 공과는 안식일에 관한 것이라고 설명한다. 우리는 여러 면에서 성전에 들어갈 때 느끼는 경건한 마음을 안식일에도 느낄 수 있음을 지적한다. 주님께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셨으며, 주님의 날에 그분을 섬기며 예배드리는 것이 우리의 특권임을 상기할 수 있다. |
|----------|---|

---

|        |   |
|--------|---|
| 토론과 적용 | 본 공과에는 공과 시간에 가르칠 수 있는 것보다 많은 자료들이 실려 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반원들의 필요 사항에 가장 잘 맞는 공과 자료들을 선정한다. |
|--------|---|

### 1. 주님께서 안식일을 제정하셨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안식일의 모형을 세우셨다고 설명한다. 열세 동안 일하신 후에 그분은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고 이 날을 거룩한 날로 복되게 하셨다.(창세기 2:2~3) 초기 시대부터 그분은 자녀들에게 안식일을 거룩한 날로 지키라고 명하셨다.

- 반원들과 함께 출애굽기 20장 8~11절 및 31장 13~17절을 읽는다. 이 계명은 경전 상에서 여러 시대에 걸쳐 반복되고 있음을 지적한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계명은 왜 여러 시대에 걸쳐 그토록 중요하다고 생각하는가?

우리의 이 경륜의 시대에서도 주님께서는 안식일의 중요성을 다시 강조하셨다. 선지자 조셉 스미스를 통하여 주님께서는 이 날에 우리가 교회에 참석하여 성찬을 들고 일을 하지 말고 쉬면서 그분께 예배드려야 한다고 계시하셨다.(교리와 성약 59:9~13)

## 2. 일요일 교회 집회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그분을 위해 헌신하게 된다.

- 주님께서는 “나의 거룩한 날에 기도의 집에 가서 ... 바칠지어다”(교리와 성약 59:9)라고 말씀하셨다. 안식일에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 함께 모이는 것은 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가? 주일날에 교회 집회에 참석하는 것은 어떻게 여러분에게 축복이 되는가?
- 고든 비 힝클리 회장은 “모든 성찬식은 영적인 잔치가 되어야 하고 영적으로 새롭게 되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라고 말씀하셨다.(*Teachings of Gordon B. Hinckley* [1997년], 563, 564쪽) 우리는 어떻게 이를 성취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겠는가? 우리는 어떻게 그 외 일요일 모임을 더욱 영적으로 강화시킬 수 있는가? (예배드리는 마음으로 참석하고 시간을 엄수하고 공과를 연습해 오며, 활동적으로 참여하고 주의 깊게 귀기울이며, 다른 사람들을 강화시키는 데 힘쓰며 연사나 교사를 비평하지 않음 등과 같은 답을 들 수 있다.)

제12대 교회 회장인 스펜서 더블류 킴볼 회장은 다음과 같이 말씀했다. “우리는 재미있게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나 교훈만을 얻기 위해서 안식일 모임에 참석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을 예배하기 위해 교회에 나갑니다. 이것은 개인의 책임입니다. 어떤 사람이 온 마음을 다해 진정으로 주님을 예배하기를 원한다면, 설교단에서 무슨 말씀을 하든지 관계없이 그는 모임에 참석하고 성찬을 취하고 복음의 아름다움을 명상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만일 예배가 여러분에게 잘못된 것이라면 여러분은 실패한 것입니다. 아무도 여러분을 대신하여 예배드릴 수 없습니다.”(안식일—기쁨의 날”, *성도의 벗*, 1978년 7월호, 5쪽)

- 일요일 모임에 우리 자신을 준비하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 부모는 자녀들이 일요일 모임에서 더욱 충만한 혜택을 누리도록 어떻게 도울 수 있겠는가?(반원들에게 이 질문과 관련된 경험을 나누게 한다.)
- 음악은 어떻게 일요일 집회의 영성을 강화할 수 있는가?(찬송가, 제일회장단 머리글, 교회 집회에서의 음악 참조) 우리 각자가 찬송가를 부르는 것은 왜 중요한가?(교리와 성약 25:12 참조) 찬송가를 부름으로써 여러분은 어떻게 축복 받았는가?

십이사도 정원회의 보이드 케이 패커 장로는 “회중 찬송을 부르지 않는 지도자와 회원들이 많아지고” 있음에 대해 우려한 후 “우리는 시온의 노래를 불러야 합니다. 그것들은 예배에서 중요한 부분입니다.”라고 결론지었다.(*성도의 벗*, 1992년 1월호, 26쪽)

- 어떻게 하면 우리는 일요일 집회에서 회중 기도에 의미 깊게 참여할 수 있는가?
- 경건은 왜 교회 집회에서 중요한가?

보이드 케이 패커 장로는 “미세한 영적인 교통을 느끼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사람들을” 방해하지 않도록 예배당에서 경건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경건이 “절대적인 침묵과 같은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어린아이들 특히 화평을 깨지 않기 위해 아기를 데리고 나가는 과정에서 생기는 아기의 울음소리 정도에는 관대해져야 합니다.”라고 주의를 주었다.(*성도의 벗*, 1992년 1월호, 26쪽)

고든 비 힝클리 회장은 선교사로 봉사할 때 경험한 한 당혹스런 사건에 대해 말씀했다.

“우리는 … 세내어 쓰고 있던 읍내 회관에서 모임을 가졌습니다. 바닥은 딱딱했으며 의자가 움직일 때마다 소리가 났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가장 큰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더 나쁜 것은 지부 회원들이 모임 중에 소근거리는 소리였습니다.

“한번은 우리가 길에서 전도하다 만난 가족을 초대할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선교사로서 큰 기대를 갖고 문가에 서서 그들을 환영했습니다. 예배당으로 사용하는 홀에는 회원들이 서로 이야기를 주고받는 들뜬 분위기가 가득 했습니다. 이 가족은 예배당에 들어와 조용히 한 쪽으로 가 잠시 무릎을 꿇고 눈을 감고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은 경건한 태도로 소란한 회원들 가운데 앉았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저는 난처했습니다. 그들은 예배를 보러 왔으며 그렇게 행동했습니다.

“모임이 끝나자 그들은 조용히 떠났으며, 다음에 그들을 만났을 때 그들은 그 모임에서 경험한 일로 실망했다고 말을 했습니다. 나는 그 일을 결코 잊을 수가 없습니다.”(성도의 빛, 1987년 7월호, 46쪽)

- 우리는 어떻게 교회 집회에서 경건성을 높일 수 있는가?

### 3. 성찬을 취함으로써 하나님에 대한 헌신을 나타낸다.

겻세마네에서 기도하시는 예수님 그림을 보여 준다.

-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안식일에 성찬을 취하라고 명하셨다 (교리와 성약 59:9, 12) 매주 성찬을 취하는 것은 왜 중요한가?(교리와 성약 59:9; 제3니파이 18:6~7. 아래 인용문 참조)

십이사도 정원회의 조셉 비 위스린 장로는 다음과 같이 말씀했다. “먼지와 흙을 없애기 위해 우리는 창문을 정기적으로 닦아 내야 합니다. … 세상의 창문들을 지속적으로 깨끗하게 청소할 필요가 있듯이 우리의 영적인 창도 그렇습니다. … 침례 성약을 새롭게 하기 위해 합당하게 성찬을 취함으로써 우리는 인생의 영원한 목적과 가장 중요한 사항을 분명하게 볼 수 있습니다. 성찬 기도는 우리가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겠다고 서약할 때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고 다시 헌납을 하게 해줍니다.(성도의 빛, 1996년 1월호, 78쪽)

- 성찬을 취하는 것은 여러분의 삶에 어떤 축복이 되었는가?
- 성찬을 취하기 위해 우리는 자신을 어떻게 준비할 수 있는가? 부모는 자녀가 이 의식을 준비하도록 어떻게 도울 수 있는가?(각 연령층의 자녀들을 돕는 방법을 토론할 수 있다.) 성찬 찬송은 어떻게 여러분을 준비시키는가? 성찬 기도는 어떻게 여러분을 준비시키는가?(교리와 성약 20:77, 79 참조)
- 성찬을 취할 때 우리는 왜 합당해야 하는가?(고린도전서 11:28~29; 제3니파이 18:29; 몰몬서 9:29 참조)
- 성찬을 취할 때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뜻과 마음을 예수님께 집중시킬 수 있는가?
- 우리는 어떻게 성찬 의식이 우리의 삶에 더욱 의미있는 것이 되게 할 수 있는가? (이 의식이 단순히 습관적이거나 일상적인 것이 되어서는 안됨을 강조한다.) 성찬을 취하는 것은 어떻게 평일에도 구주에 대한 우리의 서약을 강화시킬 수 있는가?

- 안식일에 우리는 성찬을 취할 뿐만 아니라 주님께 우리 자신의 성찬과 헌물을 바쳐야만 한다.(교리와 성약 59:9, 12) 이것은 우리가 헌물이나 희생 제물을 드림으로써 주님께 대한 헌신을 나타내 보이는 것을 뜻한다. 우리는 어떤 희생 제물을 드려야 하는가?(교리와 성약 59:8; 교리와 성약 64:34; 97:8 및 아래 인용문 참조)

십이사도 정원회의 엠 러셀 벨라드 장로는 다음과 같이 말씀했다.

“지상에서의 성역 후에 예수님께서서는 니파이인 사도들에게 더 이상 번제를 받지 않을 것이며, 제자들은 상한 마음과 통회하는 심령을 바쳐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제3니파이 9:19~20; 교리와 성약 59:8, 12 참조) 주님께서서는 동물이나 곡식을 요구하는 대신 이제는 모든 사악한 일에서 우리가 손을 떼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희생의 높은 율법의 실천은 그 사람 내부의 영혼을 움직입니다. ...

“... 우리가 우리 자신의 이기적인 욕망을 극복하고 하나님을 우리 삶의 우선 순위에서 두며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그분을 섬기겠다고 서약할 때 우리는 희생의 율법을 실천하고 있는 것입니다. (“희생의 율법”, *Ensign*, 1998년 10월호, 10~11쪽)

#### 4. 일을 쉬으로써 하나님에 대한 헌신을 나타낸다.

- 교리와 성약 59편 10절에서 주님께서서는 안식일에 “[우리의] 일을 쉬”어야 한다고 계시하셨다.(13절도 참조) 우리의 일을 하지 않고 쉬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우리의 일을 하지 않고 쉬으로써 어떻게 하나님에 대한 헌신을 나타내는가?
- 우리가 일을 하지 않고 쉬는 것의 일부로 안식일에 물건을 사거나 파는 일, 오락 및 유희 장소에 가는 것을 피해야 한다. (“네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네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라고 언급하고 있는 이사야 58:13 참조) 어떤 활동들이 안식일의 영을 여러분으로부터 멀어지게 할 것 같은가? 안식일을 방해할 수 있는 세상적인 염려는 무엇인가? 우리는 어떻게 이러한 염려에서 벗어날 수 있는가?

감리 감독단의 에이치 데이비드 버튼 감독은 이렇게 말씀했다. “저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특히 청소년들의 경우, 그들이 정기적으로 참여하기를 너무도 바라는 운동 팀들이 일요일에 경기 일정을 잡기 때문에 더욱 힘들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안식일에 몇 가지 물건만 사면 되는 많은 사람들에게는 일요일에 편의점에 잠시 들러 물건 몇 개 사는 것쯤이야 사소하게 보일 거라는 것도 압니다. 그러나, 저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는 것은 영의 속삭임을 들을 준비를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지킬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계명 가운데 하나라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리아호나*, 1999년 1월호, 9쪽)

- 우리의 일을 쉬다는 것은 게으름을 피워야 한다는 뜻은 아니다. 오히려 우리는 구주의 모범을 따르고 “안식일에 선을 행”해야 한다.(마태복음 12:12; 누가복음 13:10~17; 요한복음 5:1~19 참조) 안식일에 행해도 좋다고 생각되는 활동은 무엇인가?(칠판에 대답을 적는다.) 우리는 안식일에 개인의 예배 시간을 어떻게 향상시킬 수 있는가?

스펜서 더블류 김볼 회장은 다음과 같이 말씀했다. “안식일은 가치 있고 성스러운 일들을 행하는 날입니다. 일과 오락을 하지 않는 것은 중요한 일이라는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충분하지 못합니다. 안식일에는 건설적인 생각과 행동을 해야 합니다. 안식일에 아무것도 하지 않고 빈둥거리기만 한다면 안식일을 잘 지키지 않는 것입니다. 안식일을 잘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무릎 꿇고 기도하고, 공과를 준비하며, 복음을 공부하며, 명상하고, 병자와 곤경에 처한 자를 방문하며, 선교

사에게 편지를 쓰며, 낮잠을 자고, 건전한 서적을 읽으며, 참석해야 할 모든 모임에 빠짐없이 참석해야 합니다.”(성도의 벗, 1978년 7월호, 5쪽)

- 안식일에 우리가 행하기에 적절한 것이 무엇인지 어떻게 판단할 수 있는가?(우리의 활동이 하나님을 영광되게 하는지, 영적으로 고양시키는 것인지, 신앙을 증진시키는 것인지, 가족을 강화하는 것인지, 다른 사람들을 돕거나 축복하는 것인지, 세상적인 일상의 활동과 구분되는 것인지 등을 확인해 보는 것이 포함된다.)
- 안식일에 우리 가족을 강화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부모는 자녀들이 안식일을 즐기고 거룩하게 지키도록 어떻게 도울 수 있는가?(아래 인용문 참조. 회원들에게 이 질문과 관련된 개인적인 경험을 나누게 한다. 회원들에게 안식일이 가족에게 더욱 의미 있는 것이 되게 할 특별한 방법을 택하도록 권유한다.)

고든 비 힝클리 회장은 다음과 같이 말씀했다. “후기 성도들은 가정에서 가족을 가르치고 경전을 읽으며 건전하고 아름다운 일들을 행하고 주님께 기도하며 안식일을 보내도록 합시다.”(고든 비 힝클리 회장의 최근의 연설문에서 인용, *Ensign*, 1996년 7월호, 73쪽)

힝클리 회장은 또한 이렇게 권고했다. “제가 원하는 것은 지나치게 압전을 빼라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여러분이 자녀들을 집안에 가두어 오후 내내 그들에게 성경을 읽어 주기를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 지혜롭게 하십시오. 신중하십시오. 그러나 그 날을 가족과 함께 앉아서 거룩한 것과 좋은 것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날로 만드십시오.”(*Teachings of Gordon B. Hinckley*, 559~560쪽)

제일회장단은 1980년 일요일 모임을 현재와 같이 통합하여 예배를 보는 계획을 발표하면서 다음 권고를 주었다.

“각 가정이나 개인에게는 안식일을 합당하게 지킬 수 있도록 더 큰 책임이 부여될 것입니다. 개인 경전 공부와 가족 중심의 복음 공부에 더 많은 시간을 활용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모임과 활동을 위한 이 새로운 계획이 성도들을 영적으로 더 크게 성장하게 할 것입니다.”(성도의 벗, 1992년 1월호, 39쪽)

- 안식일은 기도의 날이 되어야 한다.(교리와 성약 59:14) 이날에 우리는 어떤 식으로 더 잘 기도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는가? 어떻게 우리의 기도가 더욱 의미 있도록 할 수 있는가?
- 여러분이 원하는 만큼 안식일을 의미 깊은 날로 만드는 데 문제가 되는 일은 무엇인가?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여러분은 어떻게 하고 있는가? 어떻게 신중한 계획을 하는 것이 이러한 문제를 잘 처리하고 없애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겠는가?

##### 5. 주님께서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자들을 축복하신다.

- 회원들과 함께 교리와 성약 59편 9, 13, 15~17절을 읽는다. 주님께서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자들에게 어떤 축복을 약속하시는가?(칠판에 대답을 적는다.)
-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어떻게 우리가 “세상에 물들지 아니하”게 되는 데 도움이 되는가?(교리와 성약 59:9; 대답에는 회개하게 해 주고, 우리의 침례 성약을 새롭게 해 주며, 세상의 일들보다 하나님과 영원한 의미가 있는 것들에 우리 생각을 집중하게 해 준다가 포함될 수 있다.)
-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어떻게 우리가 주님께서 교리와 성약 59편 13절에서 약속하신 충만한 기쁨을 받게 되도록 돕는가? 안식일을 합당하게 지키므로써 우리는 어떻게 육체적으로나 영적으로

강화됨을 느끼게 되는가? 이것은 그 주의 나머지 날들을 더욱 생산적으로 지내도록 어떻게 도움을 주었는가?

- 주님께서는 안식일을 지키는 자들이 “땅의 충만한 것”과 “땅에서 나는 좋은 것”을 받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셨다.(교리와 성약 59:16~17; 이사야 58:14 참조) 여러분은 이 약속의 성취를 보았는가?
-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킬 때 여러분과 가족은 그밖의 어떤 방법으로 축복을 받았는가?
- 주님께서는 안식일이 “기쁨”의 날이 되어야 한다고 계시하셨다.(교리와 성약 59:14) 이사야는 우리가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고 불러야 한다고 말했다.(이사야 58:13) 여러분에게 안식일이 즐거움보다는 금지하는 날처럼 보인 적이 있는가? 우리는 어떻게 안식일을 생활 속의 기쁨과 “즐거움”의 날로 만들 수 있겠는가?(그 한가지 방법은 해서는 안 되는 것보다 해야 될 것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다.)

결론

반원들에게 안식일을 더 잘 준수하는 방법을 찾아보도록 권유한다. 이 날을 거룩하게 지킬 때 주님께서 더 큰 영적인 힘과 기쁨으로 축복하실 것이라고 간증한다.

추가로 가르칠 개념

여러분은 제언된 공과 개요를 보충하기 위하여 다음 개념 가운데서 한 두 가지 개념을 활용할 수 있다.

### 1. 일요일에 일을 해야 하는 사람들을 돕는 제언

교회 회원들은 일요일에 일을 하지 않아도 되는 직업을 선택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만 한다고 설명한다. 그러나 고용주가 일요일에 일을 하도록 요구할 때가 있을 수도 있다. 반원들에게 자신들이나 다른 가족이 그런 상황에 처한 적이 있었는지 질문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가능한 한 안식일의 영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토론한다. 반원들에게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고자 하는 소망을 고용주에게 말하라고 권유한다.(여러분이 청소년을 가르치고 있다면, 소책자, *청소년의 힘을 위하여*[36550 320], 32~33쪽을 참조한다.)

### 2. 주님께서는 우리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킬 때 집단적으로도 축복하심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킬 때 주님께서는 우리를 개별적으로는 물론 집단적으로도 축복하신다. 그 예로 그분께서는 교회나 지역 사회를 축복하실 수 있다. 이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일에서 우리가 단합할 필요가 있음을 말해주는 것이다.

- 안식일 준수를 소홀히 함으로써 뒤따르는 것은 무엇인가? 여러분의 지역 사회는 안식일 준수에 근거한 축복으로 혜택을 받았는가? 아니면 받지 못했는가?



**목적** 반원들이 완전한 십일조를 내고 금식의 법을 실천하려는 소망을 증가시키도록 돕는다.

- 준비 사항**
1. 기도하는 마음으로 다음 성구를 공부한다.
    - ㄱ. 교리와 성약 59:13~14, 21; 119편; 120편
    - ㄴ. 이사야 58:6~12; 말라기 3:8~12 또는 제3니파이 24:8~12; 마태복음 6:16~18 또는 제3니파이 13:16~18(보충 성구)
  2. *반원 학습 지도서*(35686 320)에서 본 공과에 대한 자료를 살펴본다. 공과 시간에 자료를 참조할 수 있는 방법을 계획한다.
  3. 주의 집중 활동을 할 경우, 반원들에게 보일 지폐를 준비한다.

## 공과 전개 제언

주의 집중 활동 적절한 경우, 공과를 시작하기 위해 다음 활동이나 여러분 자신이 준비한 활동을 활용한다.  
지폐를 보여 준다.

- 이 돈이 무엇을 나타내는가?

반원들에게 짧게 답하게 한다. 그런 다음 돈은 어떻게 사용되는가에 따라 여러 가지 것과 개념을 나타낼 수 있음을 지적한다. 예를 들면, 돈은 물질적 소유나, 힘, 탐욕, 또는 간단한 생활 필수품을 등을 나타낼 수 있다.

이 토론을 결론짓기 위해 돈이란 사용하는 방법에 따라서는 그것이 비록 적은 금액이라도 하나님의 왕국을 건설하려는 우리의 소망을 나타낼 수 있다고 강조한다. 그것은 다른 사람들에 대한 우리의 관심을 나타낼 수 있으며 신앙과 순종과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나타낼 수도 있다. 이 공과에서는 십일조와 금식 헌금을 냄으로써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왕국을 건설하고 다른 사람에게 봉사할 수 있는지를 토론하게 된다고 설명한다.

## 토론과 적용

본 공과에는 공과 시간에 가르칠 수 있는 것보다 많은 자료들이 실려 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반원들의 필요 사항에 가장 잘 맞는 성구, 질문 및 공과 자료들을 선정한다.

- 1. 주님께서 우리에게 십일조를 낼 것을 명하시고 이 계명을 지키는 자들에게 큰 축복을 약속하셨다.**

*십일조에 대한 주님의 정의*

- 선지자 조셉 스미스는 1838년 7월 8일에 미주리 주 파웨스트에서 십일조에 대한 계시 하나를 받았다. 반원들과 함께 교리와 성약 119편 3~4절을 읽는다. 이 구절에서 계시된 십일조에 대한 주님의 정의는 무엇인가?

반원들이 완전한 십일조를 내는 것이 어떻게 하는 것인지 이해하도록 돕기 위해 다음 말씀을 전한다.

제일회장단은 십일조를 다음과 같이 정의했다. “이에 대해 우리가 아는 가장 간단한 표현은 주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것은 교회 회원이 매년 수입, 즉 저들이 얻은 모든 이익 중 십 분의 일을 바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이 이외의 어떤 다른 말로 정당화할 수 없습니다.” (1970년 3월 19일, 제일회장단 서한)

십이사도 정원회의 조셉 필딩 스미스 회장은 이렇게 설명했다. “십일조가 무엇인가에 관해 그토록 많은 해명과 해석이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이 놀랍습니다. … 그러나 우리가 십일조를 계산하는 방식대로 해아림을 받게 될 것이라고 경전에 적혀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주님께 인색하다면 그분께서도 우리에게 인색하실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축복을 주시지 않을 것입니다.”(*Church History and Modern Revelation*, 2 vols. [1953년], 2:92)

#### 십일조를 내는 자들에 대한 주님의 약속

- 반원들과 함께 말라기 3장 8~9절 또는 제3니파이 24장 8~9절을 읽는다. 십일조와 헌물을 내지 않는다면, 우리는 어떤 점에서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는 것인가?(이 질문을 토론할 때 반원들에게 교리와 성약 59편 21절과 104편 14절을 읽게 할 수도 있다.)
- 반원들과 함께 말라기 3장 10~12절이나 제3니파이 24장 10~12절을 읽는다. 주님께서 십일조를 내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것은 무엇인가?(칠판에 반원들의 대답을 적는다.)

십이사도 정원회의 존 에이 윗소 장로는 십일조를 낼 때 오는 영적인 축복에 관해 다음과 같이 말씀했다.

“십일조를 내는 사람들은 주님과 가까운 관계를 맺는 자들입니다. 이는 가장 행복한 보상입니다. 다른 율법과 마찬가지로 십일조의 법을 준수함으로써 우리는 기타 다른 방법으로 얻을 수 없는 마음속의 깊은 기쁨과 만족과 이해를 얻습니다. 인간의 구원을 위해 제정된 대단히 중요한 영원한 계획에서 인간은 비록 하찮은 참여자이지만 진정한 의미에서 주님과 동반자가 됩니다. 진리의 원리들이 더욱 명확히 이해되며 그 원리에 따라 사는 것이 좀 더 쉬워집니다. 인간과 조물주 간에 가까움이 형성됩니다. 기도하는 것이 더욱 쉬워지고 의심이 사라지며, 신앙이 증진되고 확신과 용기가 영혼을 고양시킵니다. 영적인 감각이 예민해지며 영원의 목소리가 더욱 명확하게 들립니다. 인간은 점점 더 하늘에 계신 아버지처럼 되어 갑니다.”(*Desert News*, 1936년 3월 16일, 교회 편, 5쪽)

십이사도 정원회의 델린 에이치 옥스 장로의 다음 이야기는 우리가 십일조를 낼 때 어떻게 세상적인 축복을 받을 수 있는가를 설명하고 있다.

“아버님과 사별하신 저의 어머님께서는 이차 대전 동안에 변변치 않았던 교사의 봉급으로 세 자녀를 부양하셨습니다. 우리가 재정적으로 여의치 않아 가지고 싶은 물건도 제대로 갖지 못하고 살고 있다는 것을 자각하게 되었을 때, 저는 어머니에게 봉급에서 왜 그렇게 많은 금액을 십일조로 내는지 그 이유를 여쭙어 보았습니다. 저는 당시 어머니의 설명을 생생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델린, 십일조를 바치지 않고도 지낼 수 있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지만, 우리는 그럴 수 없단다. 주님께서는 너의 아버지를 데려가시기로 하셨고 내가 아이들을 키우도록 하셨단다. 이 엄마는 주님의 축복이 없이는 그 일을 할 수 없단다. 그래서 정직한 십일조를 바침으로써 그러한 축복들을 얻고 있단다. 내가 십일조를 낼 때 우리를 축복하시겠다는 주님의 약속을 얻을 수 있지. 우리가 함께 살려면 그러한 축복을 받아야 하지 않겠니?’”(성도의 빛, 1994년 7월호, 33쪽)

- 십일조의 법을 실천했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축복 받았는가?(반원들에게 영적으로, 또는 세상적으로 어떻게 축복 받았는지 말하게 한다.)

### 십일조를 내야 하는 이유

우리는 축복이 필요하기 때문만이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고 그분에 대한 신앙이 있기 때문에 십일조를 내야 한다고 강조한다.

- 십일조를 내는 것이 어떻게 주님에 대한 우리의 사랑을 보이는 것인가? 그것은 우리와 그분과의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 십이사도 정원회의 조셉 비 워스린 장로는 “십일조를 내는 문제는 돈보다는 신앙과 관련이 있습니다.”라고 말씀했다.(성도의 벗, 1994년 7월호, 38쪽) 왜 십일조는 돈보다는 신앙의 문제인가?
- 때때로 십일조를 내는 데 어려움이 따르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 어려움을 이겨 내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반원들에게 자신이나 알고 있는 어떤 사람이 그러한 어려움을 이겨내고 십일조를 낸 경우를 이야기해 보게 한다.)

### 십일조 기금의 사용

- 누가 십일조 기금의 사용을 결정하는가?(교리와 성약 120편 참조. 이 계시에서 “감독과 그의 평의회”란 구절은 감리 감독단을 말함을 주목한다. “고등 평의회”란 말은 십이사도 정원회를 나타낸다. 제일회장단, 십이사도 정원회 및 감리 감독단은 십일조 지출 위원회를 구성한다.)

고든 비 힝클리 회장은 십일조 지출 위원회가 십일조 기금 사용에 관해 갖고 있는 주의 깊은 배려를 다음과 같이 말씀했다.

“제 책상 뒤의 책장에는 오래 전 예루살렘에서 얻은 과부의 동전이 놓여 있습니다. 우리가 다루는 기금의 신성함을 늘 잊지 않으려고 둔 것입니다. 그 기금은 과부가 낸 것입니다. 그 기금에는 부자의 십일조뿐만 아니라 그 과부의 헌금도 있는 것입니다. 그 기금은 주님의 사업을 위한 목적을 위해 주의 깊고 분별 있게 사용해야 합니다. 우리는 기금을 주의 깊게 다루고 보호하고 있으며, 주님께서 그분의 사업의 번성과 백성들의 복리를 위해 사용하실 것이라고 생각되는 대로 사용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성도의 벗, 1997년 1월호, 50쪽)

- 십일조 기금은 어디에 사용되는가?

델린 에이치 옥스 장로는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십일조]는 성전 및 예배당을 짓고 유지하며, 전세계적인 선교 사업을 추진하며, 경전을 번역 출판하고, 죽은 자를 구속하기 위한 자원을 마련하고, 종교 교육을 후원하며,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주님의 종들에 의해 선정된 기타 교회의 다른 목적을 지원하기 위해 사용됩니다.”(성도의 벗, 1994년 7월호, 35쪽)

반원들에게 옥스 장로의 말씀을 숙고하게 하고 그들이 성전, 집회소, 선교 사업, 경전, 죽은 자를 위한 구속 사업 및 세미나리나 종교 교육원이 있음으로 해서 어떻게 축복 받았는가를 생각해 보게 한다.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은 십일조의 법에 순종하는 것과 직결되어 있음을 강조한다. 이러한 축복을 깊이 생각할 때 우리는 주님께서 진실로 “하늘 문을 열고 …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붓”는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말라기 3:10; 제3니파이 24:10 참조)

## 2.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금식하고 금식 헌금을 후하게 낼 것을 명하셨다.

주님께서 후기에 회복하신 또 하나의 율법은 금식의 법이라고 설명한다. 이 율법에 순종하여 우리는

교회 전체가 매달 한 번, 일반적으로 그 달의 첫 일요일에 금식을 하게 된다. 우리는 합당하게 금식일을 지키는 것은 두 끼의 식사와 음료를 계속해서 금하고 금식 간중 모임에 참석하는 것이라고 가르침을 받고 있다. 금식일의 금식에 덧붙여 특별히 필요가 있을 시에는 언제라도 적당량을 금식할 수 있음을 반원들에게 지적해줄 수 있다.

금식은 단순히 음식을 먹지 않는 것 이상의 것임을 강조한다. 목적을 가지고 금식하고, 금식을 위해 준비하고, 기도하며 금식할 때 금식은 기쁨에 찬 경험이 될 수 있다. 칠판에 목적, 준비, 기도라고 적는다.

- 금식의 목적이 될 수 있는 것에는 어떤 것이 있는가?(우리는 주님께 더 가까이 다가가며, 인도를 받고, 영적인 힘을 키우고, 자신을 낮추고, 우리의 영이 육신의 욕구를 다스리게 하며, 유혹이나 나약함을 극복하고, 간증을 강화시키고 주님께 다른 사람의 축복을 간구하기 위해 금식할 수 있다.) 어떤 면에서 목적이 있는 금식은 여러분이 금식하는 데 더 큰 의미를 부여하는가?
- 우리가 금식을 준비하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 금식을 준비할 때 그것은 어떤 식으로 더욱 의미 깊은 것이 되는가?
- 우리는 금식을 시작할 때와 중간에 그리고 금식을 끝낼 때에 기도해야 한다. 금식할 때 기도하는 것은 왜 중요한가?
- 반원들과 함께 교리와 성약 59편 13~14절 및 마태복음 6장 16~18절 또는 제3니파이 13장 16~18절을 읽는다. 이들 성구에 따르면 금식할 때에 우리는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가? 왜 금식이 기쁨이나 즐거움 같은 것이라고 생각하는가? 금식이 기쁘고 즐거운 경험이 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은 어떻게 했는가?

금식 주일의 합당한 금식은 궁핍한 자들을 돌보기 위해 금식 헌금을 후하게 내는 것이 포함된다고 설명한다. 금식 헌금은 우선적으로 회원들이 거주하는 지역의 와드와 스테이크에 있는 자들을 돕기 위해 사용된다. 감독은 궁핍한 자들의 음식과 거처, 의복 및 기타 생계 유지를 돕기 위해 이 기금을 사용할 수 있다.

- 금식 헌금을 내는 것은 왜 금식의 법을 실천하는 중요한 부분이 되는가?(금식 헌금을 냄으로써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봉사하고 궁핍한 자들에게 사랑을 보인다.)
- 우리는 얼마나 금식 헌금을 후하게 내야 하는가?

스펜서 더블류 김볼 회장은 다음과 같이 말씀했다. “때때로 우리는 좀 인색해져서 아침 식사로 계란 한 개를 먹었으니 그것을 기준으로 금식 헌금을 계산해서 그 돈을 주님께 바칩니다. 우리가 풍족한 때에는, 우리들 가운데 많은 사람이 그렇습니다만, 후하게, 매우 후하게 바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금식을 해서 절약한 두 끼에 해당하는 금액 대신에 훨씬 더 많이, 할 수만 있다면 열 배나 더 많이 바쳐야 합니다.”(아론 신권 교재 3, 74쪽)

- 금식 헌금을 후하게 냈을 때의 결과는 무엇인가?(이사야 58:6~7 및 아래 인용문 참조)

고든 비 힝클리 회장은 다음과 같이 말씀했다. “전세계적으로 금식일의 원리에 따라 생활하고 금식 헌금을 바친다면 어떤 결과가 생길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린 사람을 먹이고, 헐벗은 사람을 입히며, 집 없는 사람에게 안식처를 마련해 줄 수 있습니다. 세금을 내는 부담도 경감될 것입니다. 주는 사람도 힘들어 하지 않고 절제를 통해 축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온 세상 사람들이 마음속에 더 많은 관심과 이타심을 품게 될 것입니다.”(성도의 벗, 1991년 7월호, 54쪽)

- 반원들과 함께 이사야 58장 8~12절을 읽는다. 주님께서는 금식의 법을 준수하는 자들에게 무엇을 약속하셨는가? 금식은 어떤 면에서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었는가? 더욱 부지런히 금식의 법을 실천하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는가?

## 결론

십일조를 충실히 낼 때, 우리는 하나님 왕국 건설에 헌신하는 것이라고 강조한다. 금식 헌금을 후하게 내는 것은 우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마태복음 25:40)라고 말씀하신 구주의 제자됨을 나타내 보일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이 된다.

반원들에게 정직한 십일조를 내고 금식의 법을 실천하도록 격려한다. 영의 속삭임에 따라 간증을 한다.

## 추가로 가르칠 개념

여러분은 제안된 공과 개요를 보충하기 위해 다음의 개념들 중에서 한 가지 이상을 사용할 수 있다.

### 1. 그룹 토론 및 발표

반원들을 소규모의 네 그룹으로 나눈다. 각 그룹에게 성구에 근거한 발표와 공과의 각 항에 나와 있는 질문을 준비하도록 지명한다.

### 2. 십일조를 내고 헌물을 바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첫 번째 재정 의무가 되게 함

십이사도 정원회의 마빈 제이 애쉬튼 장로의 다음 권고를 들려준다.

“모든 후기 성도의 성공적인 재정 관리는 정직한 십일조를 냄으로써 시작됩니다. 봉급을 받을 때마다 맨 먼저 내는 돈이 우리의 십일조와 금식 헌금이 될 때 이 중요한 복음 원리에 대한 우리의 서약도 강화될 것이며, 재정을 잘못 관리할 가능성도 줄어들 것입니다. 매달 받으러 오시지 않는 그분께 신속하게 십일조를 바침으로써 우리는 우리 자신과 자녀들이 우리가 접촉하는 사람들에게 더욱 정직하게 되도록 가르치게 됩니다.”(금전 관리: 가족 재정 지침[소책자, 1992년], 3쪽)

### 3. 받기보다 베풀기

반원 각자에게 종이와 연필을 나누어 준다. 반원들이 평상시에 돈을 사용하는 방법을 적어 보게 한다. 다음 달 동안 그들의 소비 습관을 기록해 보게 한 다음, 궁핍한 자들에게 자신들이 얼마나 더 관대할 수 있었을지를 평가해 보게 한다.

- 교회 청소년들은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들을 어떻게 도울 수 있는가?(여러분이 청소년을 가르칠 경우, 그들에게 궁핍한 자들에게 봉사하고 금식 헌금을 내도록 격려한다. 아론 신권 소유자들은 종종 금식 헌금을 거두는 일 등의 실질적인 일에서 감독을 돕는다고 지적할 수 있다.) 부모는 자녀들이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돕도록 어떻게 격려할 수 있는가?

### 4. “하나님은 즐겨 내는 자를 사랑하시니라”(고린도후서 9:7)

- 반원들과 함께 고린도후서 9장 6~8절을 읽는다. 십일조와 헌금을 낼 때 우리는 어떻게 이 권고에 따를 수 있는가? 십일조와 헌금을 낼 때 우리의 태도와 동기는 왜 중요한가?

### 5. 금식할 때 구주의 모범을 따름

우리는 광야에서 금식하신 구주의 모범에서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다고 설명한다.

- ㄱ. 예수님께서서는 금식하실 때 “하나님과 함께 하셨다”(조셉 스미스 역 성경, 마태복음 4:2) 우리에게도 금식은 하나님과 교통하는 시간이 되어야 한다.
- ㄴ. 금식을 다한 후에 구주께서는 사탄의 유혹을 물리치고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셨다. (누가복음 4:2~14; 마태복음 4:3~11 참조) 금식을 통해 우리는 영적인 힘을 얻을 수 있다.

## 6. 감사를 표하기 위해 금식함

고든 비 힝클리 회장은 연차 대회 말씀에서 주님께 감사를 표한 한 여인의 편지를 읽었다. 그 편지에서 그녀는 이렇게 적었다 “저의 대부분의 금식은 감사의 금식입니다.”(성도의 벗, 1995년 1월 호, 54쪽) “감사”의 금식에 대한 아래의 사례를 말해준다.

1842년 12월 26일, 일리노이 주 나부에서 선지자 조셉 스미스는 부당하게 체포되어 일리노이 주 스프링필드로 소환되었다. 그에 대한 고소는 1843년 1월 6일에 기각되어 선지자는 나부로 돌아오게 되었다. 십이사도 정원회는 이 날을 겸손, 금식, 찬양, 기도 및 감사의 날로 정해 축하했다.”(교회 정사, 5:209, 244, 248)

한 어머니는 전임 선교사로 봉사하고 있는 아들이 어려운 시기를 헤쳐 나갈 수 있는 강한 간증이 없는 것이 염려되었다. 그 어머니는 얼마 후 아들이 선교 사업을 성공적으로 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다. 마음 깊이 감사하며 그녀는 아들이 모범적인 선교사가 되겠다는 소망을 품게 된 것에 주님께 감사하겠다는 한 가지 목적으로 금식했다. 어머니의 감사 기도를 알게 된 그 아들은 어머니의 기대에 부응하는 선교사가 되기 위해 더욱 열심히 선교 사업을 하겠다고 결심했다.

반원들에게 오로지 주님께 감사를 표할 목적으로 금식한다면 어떤 느낌이 들 것인지 생각해 보게 한다. 돌아오는 금식일에 주님께 감사를 표하도록 권유한다. 일지에 자신들의 경험을 적어 보라고 권한다.

## 7. 비디오 발표

교리와 성약 및 교회사 비디오 발표 자료(53912 320)를 구할 수 있다면, 십일조를 토론하는 동안 “하늘의 문”(상영 시간: 11분)을 보여 줄 수 있다.

가정의 밤 비디오 보충 자료(53276 320)를 구할 수 있다면, “금식의 법”(상영 시간: 4분)을 보여 줄 수 있다.

**목적** 반원들이 성전의 중요성을 이해하도록 도우며, 일상 생활에서 성전의 축복을 구하도록 격려한다.

- 준비 사항**
1. 기도하는 마음으로 다음 성구와 공과 자료들을 공부한다.
    - ㄱ. 교리와 성약 95, 109, 110편
    - ㄴ. 우리의 유산, 33~36쪽
  2. 반원 학습 지도서(35686 320)에서 본 공과에 대한 자료를 살펴본다. 공과 시간에 자료를 참조할 수 있는 방법을 계획한다.
  3. 다음 공과 자료들을 구할 수 있다면 공과 시간에 사용하도록 한다. 커틀랜드 성전 사진(62431; 복음 그림 패킷 500) 및 다른 성전 사진
  4. 공과 중에 찬송가를 부를 계획이라면 반원들에게 “타는 듯한 하나님의 영”(찬송가, 31장)을 부를 준비를 한다. 아니면 반원 한 명이나 몇 명에게 부탁한다.

## 공과 전개 제언

주의 집중 활동 적절한 경우, 공과를 시작하기 위해 다음 활동이나 여러분 자신이 준비한 활동을 활용한다.

반원들이 교실에 들어올 때 볼 수 있도록 칠판에 다음 질문을 적는다.

*이 경륜의 시대가 시작되기 전에 주님의 성약의 백성들이 지은 성전은 얼마나 되는가?*

*선지자 조셉 스미스 시대에 건립하거나 계획한 성전은 얼마나 되는가?*

이 질문에 대한 토론을 하지 말고 이 경륜의 시대 이전에 주님의 성약의 백성들이 지은 성전은 우리가 알기로 단지 네 개뿐이라고 설명한다. 그 첫째가 솔로몬 시대에 세워진 성전인데, 그것은 두 번에 걸쳐 재 건축되어 그 뒤 스룹바벨 성전과 헤롯 성전으로 알려져 있다. 다른 세 개는 몰몬경에서 언급되는 것들로 니파이가 세운 성전(니파이후서 5:16)과 베냐민 왕이 마지막 연설을 했던 제이라 헤틀라 땅의 성전(모사이야서 1:10; 2:1) 및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실 때 백성들이 모였던 풍요 땅의 성전이다.(제3니파이 11:1)

선지자 조셉 스미스의 생애 동안에는 다섯 개의 성전, 즉 커틀랜드, 인디펜던스, 파워스트, 아담 온다이 아만 및 나부 성전이 건축되었거나 계획되었다고 설명한다.

- 현재 완공되었거나 신축 중에 있는 성전은 얼마나 되는가?

선지자 조셉 스미스가 성전 건립자였음을 강조한다. 그를 통해 엘리야가 돌아올 것이라고 한 말라기의 예언이 성취된 것이다.(말라기 4:5~6; 교리와 성약 110:13~16)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는 계속해서 성전을 건축하는 교회이다.

이 공과는 이 경륜의 시대에 세워진 첫 번째 성전인 커틀랜드 성전을 토론하게 된다.

토론과 적용

이 공과에는 공과 시간에 가르칠 수 있는 것보다 많은 자료들이 실려 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반원들의 필요 사항에 가장 잘 맞는 공과 자료들을 선정한다.

## 1. 주님께서는 성도들에게 커틀랜드 성전을 지으라고 명하셨다.

교리와 성약 95편을 가르치고 토론한다.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 복음에서 꼭 필요한 부분이다.

1832년 12월에 주님은 성도들에게 오하이오 주 커틀랜드에 성전을 지으라고 명하셨다.(교리와 성약 88:119; 109:2. 커틀랜드 성전 사진을 보여 준다.) 다섯 달이 지난 후에도, 성도들이 이 명령을 수행하는 데 별로 한 일이 없었으므로 주님께서는 그들이 회개하고 일을 서두르도록 요구하셨다.(교리와 성약 95편) 4일 후, 사람들은 성전 건립을 위한 준비 작업으로 돌을 운반하고 땅을 파기 시작했다.

- 반원들과 함께 교리와 성약 95편 3~4, 8~9, 16~17절과 109편 5, 8절을 읽는다. 이 구절들은 커틀랜드 성전 건축의 목적에 대해 무엇을 가르쳐 주는가?(칠판에 반원들의 대답을 요약한다. 커틀랜드 성전은 산 자와 죽은 자를 위한 구원의 의식을 집행하는 오늘날의 성전과는 같지 않았다고 설명한다. 주님께서는 몇 년 뒤 성도들이 나부에 있을 때 성전 의식을 회복해 주셨다.)
- 주님께서는 조셉 스미스에게 커틀랜드 성전을 어떻게 지으라고 계시하셨는가?(교리와 성약 95:13~17 및 아래 인용문 참조)

일부 사람들은 성전을 통나무나 판자로 짓자고 제안했다. 그러나 조셉 스미스는 이렇게 대답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집을 통나무로 짓겠습니까? 아닙니다. … 제게 주님께서 친히 주신 주님의 집에 대한 계획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우리의 계산과 그분께서 생각하시는 일의 차이를 곧 알게 될 것입니다.”(루시 맥 스미스, *History of Joseph Smith*, ed. Preston Nibley [1958년], 230쪽)

주님께서는 제일회장단(조셉 스미스, 시드니 리그돈, 프레드릭 지 윌리엄스)에게 커틀랜드 성전에 대한 계획을 시현으로 계시하셨다. 프레드릭 지 윌리엄스 회장은 그들이 함께 무릎꿇고 기도하자 한 건물의 모형이 “멀리 시야에 나타났습니다. … 우리가 그 바깥 모양을 잘 보고 있는데 이번에는 그 건물이 바로 우리 위로 다가오는 것처럼 보였습니다.”라고 말했다. 성전이 완공되자 프레드릭 지 윌리엄스는 성전 건물이 바로 시현에서 본 것과 똑같은 모양이라고 말했다.(*The Revelation of the Prophet Joseph Smith*, comp. 린던 더블류 쿡 [1981년], 198쪽)

여러분은 오늘날 제일회장단이 계시를 통하여 성전을 언제, 어디에 세울 것인지 결정한다고 말해 줄 수 있다.

## 2. 성도들은 성전 건축에 바친 큰 희생에 대해 축복을 받았다.

- 커틀랜드 성전은 이 경륜의 시대에 세워진 첫 번째 성전이라고 설명한다. 성전 건축에 따른 어려움과 희생은 어떤 것들이었는가?(교리와 성약 109:5 및 *우리의 유산*, 33~34쪽 참조)
- 성도들은 커틀랜드 성전을 건축하면서 치른 희생에 대해 어떻게 축복 받았는가?(*우리의 유산*, 34~35쪽 참조)
- 성전 축복을 받거나 성전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 교회 회원들이 치른 어떤 희생을 본 일이 있는가? 성전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 우리가 치를 수 있는 희생은 무엇인가?





**커틀랜드 성전.** 1836년에 헌납된 성전으로 이 경륜의 시대에 세워진 첫 번째 성전이었다.

### 3. 조셉 스미스가 커틀랜드 성전을 헌납했다.

1836년 3월 27일에 조셉 스미스는 커틀랜드 성전을 헌납했다. 주님께서 계시하신 헌납 기도가 교리와 성약 109편에 기록되어 있다. 헌납식은 7시간이나 계속되었으며 영이 가득 넘치는 가운데 진행되었다. 그 헌납식에서는 헌납 기도, 찬송가를 부르는 순서, 간증, 성찬 전달, 설교 및 회원들이 조셉 스미스와 교회 지도자들을 지지하는 성회가 있었다. 헌납식은 성도들이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과 어린 양께 호산나, 호산나, 호산나, 아멘, 아멘, 아멘” 하며 호산나를 세 번 외치는 것으로 끝이 났다.(교회 정사, 2:427~428)

여러분은 반원들에게 커틀랜드 성전 헌납식에서 불렀던 “타는 듯한 하나님의 영”(찬송가, 31장)을 부르게 해도 좋다. 또는 지명한 반원이나 그룹에게 부탁할 수도 있다.

- 우리는 왜 성전을 헌납하는가? 헌납된 후, 성전은 어떻게 달라지는가? 성전 헌납식에 참석했던 반원들이 있으면 그들의 생각과 그 경험에서 받은 감명을 이야기해 보게 한다.
- 커틀랜드 성전 헌납식 동안 어떤 영적인 나타나심이 있었는가?(우리의 유산, 34~35쪽)
- 헌납 기도에서 선지자 조셉 스미스는 성전에 관한 교회 회원들의 몇 가지 임무를 강조했다. 그가 강조한 임무는 무엇이었는가?(그 중 몇 가지는 다음 성구에 약속되어 있다. 반원들이 읽고 토론할 성구 몇 개를 선정한다. 칠판에 답을 요약한다.)
  - ㄱ. 교리와 성약 109:7, 14.(우리는 연구와 신앙으로 부지런히 배워야 한다.) 왜 이것이 성전에 관한 중요한 임무가 되는가?
  - ㄴ. 교리와 성약 109:9, 17~19.(들어오도 나감도, 인사도 주님의 이름으로 해야 한다.) 우리는 어떻게 이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가?

- ㄷ. 교리와 성약 109:20~21.(우리는 성전에 들어가기 위해 정결해야 한다.) 왜 우리는 합당하게 성전에 들어갈 필요가 있는가?(교리와 성약 97:15~17 참조) 주님의 집에 들어가기 위해 우리가 합당함을 어떻게 입증하는가?(성전 추천서 접견을 통하여)
- ㄹ. 교리와 성약 109:23.(우리는 위대한 복음을 땅 끝까지 전파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성전을 떠나야 한다.) 성전 참석은 어떻게 이를 행하도록 우리를 고취시키는가?
- 헌납 기도에서 선지자는 위대한 축복을 많이 간구했다고 설명한다. 그가 간구한 축복들은 무엇인가?(이 중 몇 가지 축복들이 아래의 성구에 약속되어 있다. 반원들이 읽고 토론할 몇 가지를 선정한다. 질판에 답을 요약한다.)
  - ㄱ. 교리와 성약 109:15.(주님의 백성은 성신의 충만함을 받게 된다.) 반원들에게 성전에 감으로써 생활 속에서 영의 영향력이 어떻게 커져 왔는지를 말하게 한다.
  - ㄴ. 교리와 성약 109:22.(주님의 백성은 권능으로 무장하여 성전에서 나아가며 천사의 수호를 받게 된다.) 반원들에게 성전에 갔다온 후 권능으로 무장됨을 느꼈던 경험을 이야기해 보게 한다.
  - ㄷ. 교리와 성약 109:25~26.(무기나 사악함이 주님의 백성을 대적하여 번성하지 못할 것이다.) 성전에 감으로써 우리는 어떻게 악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가?
  - ㄹ. 교리와 성약 109:32~33.(주님은 그의 백성들이 고난의 명에서 벗어나도록 해 주실 것이다.) 성전에 감으로써 여러분은 어떻게 고난을 극복하거나 견딜 수 있게 되는가?
  - ㅁ. 교리와 성약 109:36~37.(오순절 날에 있었던 것처럼 영이 가득 넘치게 될 것이다. 사도행전 2:1~4 참조) 기도 중의 이 부분은 헌납식 날 저녁에 있었던 신권회 중에 성취되었다. 성전은 세찬 바람 소리로 가득 찼으며, 많은 형제들이 방언을 말하고 예언했으며 시현을 보았다.(교회 정사, 2:428)
  - ㅂ. 교리와 성약 109:54~58.(주님은 땅의 모든 나라에 자비를 베푸사 복음의 메시지를 들을 준비를 하도록 그들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실 것이다.)
  - ㅅ. 교리와 성약 109:61~64, 67.(흠어진 이스라엘의 자녀들이 집합하며 구속받기 시작할 것이다.) 성전 사업이 어떻게 이 축복을 이루게 하는가?
  - ㅇ. 교리와 성약 109:72~74.(주님의 교회가 온 세상을 가득 채울 것이다.) 성전 사업은 어떻게 이 축복을 이루게 하는가?

제14대 교회 회장인 하워드 더블류 헌터 회장은 커틀랜드 성전의 헌납 기도에 있는 이 약속을 “감동적이고 훌륭한” 언약이라고 묘사했다.(성도의 빛, 1994년 11월호, 5쪽) 그는 이렇게 말씀했다. “이 기도는 거룩한 주님의 성전에서 우리가 사용하도록 주님께서 주신 신권의 권능 때문에 우리들에게 개인적으로, 가족으로서, 한 백성으로서 끊임없이 응답됩니다.”(성도의 빛, 1994년 11월호, 5쪽)

#### 4. 주님께서 커틀랜드 성전을 받아들이시고 고대 선지자들이 신권 열쇠를 회복해 주었다.

교리와 성약 110편을 가르치고 토론한다. 커틀랜드 성전이 완공되었을 때 주님께서서는 그분의 종들에게 높은 곳에서 오는 권능을 부여하겠다고 하신 약속을 성취시켰다고 설명한다.(교리와 성약 95:8) 이 권능의 부여는 구주께서 성전에 나타나시고, 영과 많은 계시가 부여지며, 모세와 일라이

어스와 엘리야가 신권 열쇠를 회복하는 가운데 부여되었다. 이 신성한 경험과 열쇠를 가진 주님의 종들은 더욱 큰 권능과 권세로 그분의 사업을 진척시켜 나갈 수 있었다.

- 선지자 조셉 스미스는 구주께서 커틀랜드 성전에 나타나신 것을 어떻게 묘사했는가?(교리와 성약 110:1~3 참조) 구주께서는 자신을 어떻게 표현하셨는가?(교리와 성약 110:4 참조) 주님께서서는 성전에 대해 조셉 스미스와 올리버 카우드리에게 무엇이냐 말씀하셨는가?(교리와 성약 110:6~10 참조)
- 모세와 일라이어스와 엘리야가 회복한 신권 열쇠는 무엇이었는가?(교리와 성약 110:11~16 참조) 모세가 이스라엘의 집합의 열쇠를 회복해 주었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에게 주어지는 축복과 책임은 무엇인가? 일라이어스가 아브라함의 복음의 경륜의 시대의 열쇠를 회복해 주었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에게 주어지는 축복과 책임은 무엇인가? 엘리야가 인봉 권능의 열쇠를 회복해 주었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에게 주어지는 축복과 책임은 무엇인가?(아래의 표는 여러분의 토론에 도움이 될 수 있다. 여러분은 칠판에 내용을 요약할 수 있다.)

| 사람    | 회복된 열쇠              | 오늘날 받게 된 축복과 책임   |
|-------|---------------------|---|
| 모세    | 이스라엘의 집합            | 이스라엘을 모으기 위해 복음을 전파할 권세(선교 사업)  |
| 일라이어스 | 아브라함 성약의 축복의 경륜의 시대 | 아브라함의 복음과 그 성약에 따른 책임(이 축복과 책임을 검토하기 위해 아브라함서 2장 9~11절을 참조한다.)                              |
| 엘리야   | 인봉의 권능              | 신권 의식이 하늘에서도 유효하게 하는 권세. 인봉의 권능은 성전 결혼, 선조와 자손들과의 인봉, 영원한 가족 및 죽은 자를 위한 성전 의식 사업을 가능하게 만든다. |

## 5. 우리 시대에 가속화되고 있는 성전 건축 및 성전 사업

- 성전 사진을 보여 준다. 오늘날 성전 건축은 얼마나 빠르게 진척되고 있는가?(1980년에는 19개의 성전이 있었으며 1997년 말까지 51개의 성전이 있었다. 1997년 10월 연차 대회에서 고든 비 힝클리 회장은 작은 규모의 성전들을 건축할 계획을 발표했다. 1998년 4월 연차 대회에서 그는 2,000년 말까지 100개의 성전을 가질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이는 교회가 조직된 뒤 167년 동안에 지어졌던 것과 맞먹는 수의 성전이 3년 안에 건축됨을 의미하는 것이다.)
- 성전 건축의 가속화와 더불어 교회 지도자들은 성전 사업에 참여하도록 계속 강조해 왔다. 회원들과 함께 교리와 성약 138편 53~56절을 읽는다. 오늘날 합당한 교회 회원은 “... 후일의 위대한 사업의 기초를 놓는 일에 참여하기 위하여 때가 찬 시대에 나아오도록 간직해 두셨던 다른 훌륭한 영들” 가운데 속한 사람들이다. 우리는 어떻게 성전 사업이 촉진되도록 도울 수 있는가?  
하워드 더블류 헌터 회장은 다음과 같이 말씀했다. “우리 모두 성전에 참석하고 성전을 사랑하는 백성이 됩시다. 우리 모두 시간과 재정과 개인적인 사정이 허락하는 한 자주 성전에 갑시다. 우리의 돌아가신 친족들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성전 예배를 통한 개인적인 축복을 받기 위해서, 즉 거룩하고 성결한 성전 안에서 얻을 수 있는 신성함과 안전을 누리기 위해서도 성전에 갑시다. 성전은 아름다운 장소요, 계시의 장소이며, 평화의 장소입니다. 성전은 주님의 집입니다. 성전은 주님께 거룩한 곳입니다. 성전은 우리에게도 거룩한 곳이어야 합니다.”(성도의 빛, 1994년 11월호, 6쪽)

결론

---

반원들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어떻게 성전 사업에 참여할 것인지 생각해 보도록 권유한다. 커틀랜드 성전을 짓기 위해 희생한 성도들과 마찬가지로 우리도 성전 사업을 돕기 위해 희생하도록 제안한다. 성전이 가까이에 있다면 반원들에게 성전에 가도록 권유한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이 위대한 사업에 참여할 때 우리를 축복하시리라는 것을 간증한다.

---

**추가로 가르칠 개념**

여러분은 제언된 공과 개요를 보충하기 위해 다음 개념을 사용할 수 있다.

### **성전 사진**

반원들에게 가정에 성전 사진을 걸어 둘 것을 제안한다. 하워드 더블류 헌터 회장은 이렇게 말씀했다. “성전 사진을 여러분의 어린 자녀들이 볼 수 있는 곳에 걸어 두십시오. 그들에게 주님의 집의 목적을 가르치십시오. 그들로 하여금 성전에 들어갈 준비를 어릴 때부터 하도록 하며 그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계속하여 보유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성도의 벗, 1995년 1월호, 8쪽)

**목적** 반원들이 구원의 계획의 영원한 본질을 이해하도록 도우며, 이 계획에 대한 지식에 따라 살도록 격려한다.

- 준비 사항**
1.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공과에 나와 있는 성구를 공부한다.
  2. *반원 학습 지도서(35686 320)*에서 본 공과에 대한 자료를 살펴본다. 공과 시간에 자료를 참조할 수 있는 방법을 계획한다.
  3. 주의 집중 활동을 할 경우, 잡지에 있는 사진과 같은 사진 한 장을 구한다. 사진을 조그맣게 몇 조각 잘라내서, 반원들이 조그만 사진 조각을 보고서는 무슨 사진인지 알아볼 수 없게 한다.

## 공과 전개 제언

**주의 집중 활동** 적절한 경우, 공과를 시작하기 위해 다음 활동이나 여러분 자신이 준비한 활동을 활용한다.

여러분이 준비한 작게 자른 사진 조각을 보여 주되 하나의 완성된 사진을 보여 주지는 않는다. (“준비 사항” 3 참조) 반원들에게 이 조그만 조각들은 큰 사진의 일부분이라고 말한다. 사진에 있는 것이 무엇인지 잠시 알아맞혀 보게 한다. 그런 다음 조각들을 제 자리에 맞추어 하나의 완성된 사진을 보여 준다.

비록 작은 조각이 중요하기는 하지만, 그것이 큰 사진의 일부분이 아닐 때는 별 의미가 없을 것임을 지적한다. 우리가 겪는 경험과 우리가 내리는 결정과 우리가 배우는 진리는 큰 사진의 작은 부분과 같은 것이라고 설명한다. 그런 것들을 큰 사진, 즉 구원의 계획에 맞추어 보지 않으면 의미가 적어진다. 구원의 계획에 대한 지식은 우리로 하여금 의로운 결정을 내리게 하고, 이생에서 기쁨을 발견하게 하며, 영생을 위한 준비를 하도록 도울 수 있다. 이 공과에서는 구원의 계획을 토론하게 된다.

**토론과 적용** 기도하는 마음으로 반원들의 필요 사항에 가장 잘 맞는 공과 자료들을 선정한다. 반원들이 성구의 원리와 관련된 경험을 나누도록 격려한다.

### 1. 구원의 계획은 “사람에게 주신 하늘의 가장 큰 은사의 하나”이다.

칠판에 *하나님 아버지의 \_\_\_\_\_* 의 계획이라고 적는다.

반원들에게 빈칸을 채우게 한다. 가능한 한 반원들이 성구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답을 생각해 보게 한다. 칠판에 반원들의 대답을 적는다. 일 이분 뒤에 아래에 나와 있는 것 중 반원들이 언급하지 않은 답을 이야기한다.

구원 (앨마서 24:14; 42:5; 모세서 6:62)      회복 (앨마서 41:2)

행복 (앨마서 42:8, 16)      자비 (앨마서 42:15, 31)

구속 (야곱서 6:8; 앨마서 12:25~33)

- 이 말들은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에 대해 무엇을 가르쳐 주는가?
- 선지자 엘마는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을 “위대한 행복의 계획”이라고 말했다.(엘마서 42:8) 구원의 계획은 우리를 어떻게 행복으로 이끌 수 있는가?
- 선지자 조셉 스미스는 다음과 같이 가르쳤다.”위대한 구원의 계획은 우리의 절대적인 관심을 요하는 주제이며, 사람에게 주신 하늘의 가장 큰 은사의 하나로 간주해야 합니다.”(선지자 조셉 스미스의 가르침, 65쪽) 우리는 어떻게 구원의 계획에 절대적인 관심을 기울일 수 있는가?

이 공과는 구원의 계획에 대한 개관이라고 설명한다. 이것은 복음의 원리가 위대한 계획의 일부로서 서로 어떻게 연관이 되는지를 보여 준다.

## 2. 전세

구원의 계획을 전세, 현세 및 내세로 구분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칠판에 전세라고 적는다. 회복의 중요한 축복의 하나는 전세에 대한 우리의 지식이 증가된 것임을 지적한다. 이 지식은 인생의 목적과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에서 우리의 역할을 이해하게 해준다. 반원들이 아래 인용문을 토론할 때 제언된 성구를 읽게 한다.

-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이며, 전세에서 그분의 영의 자녀로서 살았다.(교리와 성약 76:24; 93:29)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임을 앎으로써 여러분은 어떤 영향을 받는가?
-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천국 회의를 소집하시고 모든 영의 자녀들에게 구원의 계획을 발표하셨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전세에 발표하신 계획의 요소들에는 어떤 것이 있는가?(니파이후서 2:24~26; 엘마서 34:8~9; 아브라함서 3:24~25 참조. 답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세상의 창조, 타락, 육체를 받고 시험받게 되는 지상의 시간, 선악을 분별할 권능, 즉 선택의지가 포함될 수 있다.)
- 하나님 아버지의 장자인 여호와와 구원의 계획에 어떻게 반응하셨는가?(모세서 4:2 참조. 구주께서 아버지의 뜻에 어떻게 순종했는지를 보여 주기 위해 여러분은 교리와 성약 19편 16~19절 및 76편 40~42절을 읽어도 좋다.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가 구원의 계획을 가능하게 했음을 강조한다. 구주는 우리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의 중심 인물이 되신다.)
- 루시퍼는 구원의 계획에 모반하여 우리의 선택의지를 멀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권능을 구하려 하였다.(모세서 4:1, 3; 교리와 성약 29:36) 그는 사탄이 되어 그를 따르는 무리와 함께 아버지의 면전에서 내던져졌으며, 육신을 갖는 것이 거부되었다.(교리와 성약 29:36~38; 76:25~27; 모세서 4:4; 아브라함서 3:26) 우리가 사탄과 그의 추종자들의 존재를 아는 것은 왜 중요한가?
- 우리는 구원의 계획에 대해 어떻게 반응했는가?(욥기 38:4~7 참조. 후기의 선지자들은 이 성구의 7절이 우리 모두가 전세에서 구원의 계획을 받아들일 때 느꼈던 기쁨과 관련 있다고 가르쳤음을 설명한다.)

전세에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지상에서 그분의 사업을 진척시킬 고귀한 영들을 택하시어 예임하셨다고 설명한다.(교리와 성약 138:55~56; 아브라함서 3:22~23. 선지자 조셉 스미스의 가르침, 349쪽 참조)

- 전세에 대한 우리의 지식은 어떤 방법으로 우리의 일상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가? 전세에 대한 지식은 우리가 시련을 당할 때 어떻게 우리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가?

### 3. 현세

전세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을 받아들일 때 우리는 “첫째 지체”를 지켰음을 지적한다. 우리의 충실함 덕분에 우리에게는 지상으로 와서 우리의 “둘째 지체”를 받는 기회가 주어졌다.(아브라함서 3:26)

칠판에 현세라고 적는다. 아담과 이브의 타락으로 인해 우리는 지상 생활에서 타락의 상태에 있다고 설명한다.(교리와 성약 29:40) 우리는 육체적인 죽음을 당하며 또 영적인 죽음, 즉 하나님의 면전에서 쫓겨나게 되었다.(교리와 성약 29:41~42; 앨마서 42:9, 14. 육체적 사망과 영적 사망은 나중에 토론할 것이다.) 후기의 계시로부터 우리는 타락이 우리의 영원한 진보에서 필수적인 과정임을 배우게 된다. 이브는 타락의 축복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우리의 범법이 아니었다면 우리가 결코 후손을 갖지 못하였을 것이요, 선과 악, 그리고 우리의 구속의 기쁨, 그리고 하나님께서 순종하는 자 모두에게 주시는 영생을 결코 알지 못하였을 것이니라 하나라.”(모세서 5:11)

반원들이 다음 질문을 토론할 때 제언된 성구를 읽게 한다.

- 현세의 목적은 무엇인가? (칠판에 반원들의 대답을 적는다. 아래에 열거된 것들이 답에 포함될 수 있다.)
  - ㄱ. 육체를 얻기 위함. 선지자 조셉 스미스는 이렇게 말씀했다. “우리는 육체를 받고 그 육체를 해의 왕국에서 하나님 앞에 흠 없이 보이기 위하여 이 지상에 왔습니다.”(*선지자 조셉 스미스의 가르침*, 170쪽)
  - ㄴ.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함으로써 우리의 충실함을 증명하기 위함.(아브라함서 3:25~26) 여기에는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구원의 의식을 받는 것이 포함된다.(앨마서 12:24; 교리와 성약 29:42~43; 신앙개조 제3조)
  - ㄷ. 가족과 함께 생활하고, 성전 의식을 통해 부모와 자녀들을 인봉하기 위함.(모세서 2:28; 교리와 성약 93:40; 131:1~4; 138:48)
 

제일회장단 및 십이사도 정원회는 이렇게 선언했다. “남녀간의 결혼은 하나님이 제정하여 주신 것이며 가족은 창조주께서 그의 자녀들의 영원한 운명을 위하여 마련하신 계획의 중심이라는 것을 엄숙하게 선언한다. … 하나님의 행복의 계획은 가족 관계를 무덤 너머에까지 계속되게 한다. 거룩한 성전에서 행해지는 신성한 의식과 성약은 개개인을 하나님의 면전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하며 가족을 영원히 하나로 결속시켜 준다.”(가족: 세상에 전하는 선언문, *성도의 벗*, 1996년 6월호, 10~11쪽)
- 지상 생활의 목적을 이해할 때 여러분의 삶은 어떻게 달라지는가? 이 목적을 이해할 때 그것은 여러분이 내리는 결정에 어떤 영향을 주는가?
- 현세의 한 부분으로서 사탄은 우리를 유혹하도록 허락 받았다.(교리와 성약 29:39) 왜 그러한가?(교리와 성약 29:39; 니파이후서 2:11~13 참조) 선택의지는 왜 구원의 계획에서 중요한 부분이 되는가?(교리와 성약 58:27~28; 101:78; 니파이후서 2:25~27 참조)

### 4. 내세

우리의 생은 육체적 사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님을 강조한다. 칠판에 내세라고 적는다. 반원들이 아래의 질문을 토론할 때 제언된 성구를 읽도록 한다.

- 죽을 때 우리의 영은 영의 세계로 들어간다.(선지자 조셉 스미스의 가르침, 292쪽 낙원 참조) 지상 생활 동안 우리가 한 일들은 사후 영의 세계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앨마서 34:34; 40:11~14 참조)
- 지상에서 복음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영의 세계에서 기회를 받게 된다.(교리와 성약 137:7~9; 138:30~34) 우리는 그들이 구원의 계획의 모든 축복을 받도록 어떻게 도울 수 있는가?(교리와 성약 128:6~8, 15 참조. 우리는 가족 역사 사업을 행하고 성전에서 그들을 위한 신권 의식을 집행할 수 있다.)
- 타락이 세상에 육체적 및 영적 사망을 가져왔음을 반원들에게 상기시킨다. 우리는 어떻게 육체적 사망으로부터 구원받을 수 있는가?(앨마서 11:42; 교리와 성약 88:14~16; 93:33 참조.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를 통하여 모든 사람들은 부활될 것이다, 즉 “육체적 죽음에서 일어서”게 될 것이다. 우리의 영과 육신은 다시 결합될 것이며 우리는 “충만한 기쁨을 누리”게 될 것이다.) 우리는 어떻게 영적인 사망으로부터 구원받을 수 있는가?(앨마서 42:11~13, 15; 신앙개조 제3조 참조)

부활한 후에 우리는 우리의 행위에 따라 심판 받기 위해 하나님 면전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설명한다.(앨마서 11:43~45; 교리와 성약 76:111) 우리는 “예수에 대한 증거를 받아들인 방식대로 해의 왕국, 달의 왕국, 별의 왕국을 상속받게 될 것이다.(교리와 성약 76:51; 또한 50, 79~82절 참조) 다음 공과에는 세 왕국의 영광에 대해 토론하게 될 것이다.

- 내세에 대한 지식은 어떤 면에서 지상 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가?

## 결론

반원 한 명에게 십이사도 정원회의 보이드 케이 패커 회장의 다음 말씀을 읽게 한다.

“계획에는 세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는 두 번째, 즉 중간 부분에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유희으로, 시련으로, 어찌면 비극으로 시험받게 될 것입니다. ...

“이 점을 기억하십시오! ‘그들은 그 다음부터 내내 행복하게 살았다’라는 구절은 제2막에는 결코 없습니다. 그 구절은 수수께끼가 풀리고 모든 것이 바르게 잡히는 제3막에 속해 있습니다.

“[그 계획]의 영원성에 대한 넓은 안목이 생길 때까지는 삶의 불공평함에 대한 이치를 잘 모를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너무 없이 태어나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너무 많이 가지고 태어나기도 합니다. 가난하거나 장애를 가지고 아픔과 고통을 지닌 채 태어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너무 일찍 사망을 경험합니다. 심지어 죄 없는 어린이도 죽을 수 있습니다. 거기에는 잔인하고 가차없는 자연의 힘이 있으며, 인간에 대한 인간의 잔인함이 있습니다. 우리는 최근에 그런 것들을 많이 보아 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목적을 위해 고의로 그러한 일들을 야기시키는 것을 허락하셨다고 생각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그 모든 것의 계획과 목적을 알 때 이러한 일들조차도 하늘에 사랑하는 아버지가 계시다는 것을 드러내는 일이 될 것입니다.”(*The Play and the Plan* [위성 방송, 1995년 5월 7일], 1~2쪽)

구원의 계획에 대한 지식은 우리가 의로운 결정을 내리고, 지상 생활에서 기쁨을 찾고, 영생을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음을 강조한다. 구원의 계획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역할에 대해 여러분의 느낌을 표현한다. 영의 속삭임에 따라 공과 중에 토론되었던 진리에 대해 간증한다.



**추가로 가르칠 개념**

여러분은 제언된 공과 개요를 보충하기 위하여 다음 개념 가운데서 한 두 가지 개념을 활용할 수 있다.

**1. “구원의 계획” 비디오 발표**

비디오, 교리와 성약 및 교회사의 가르침(53933 320)을 구할 수 있다면, “구원의 계획”(상영 시간: 4분)을 보는 것을 고려해 본다. 발표 후 다음 질문 중 일부나 전체를 사용할 수도 있다.

- 우리의 지상 생활은 어떤 점에서 제2막의 무대에서 공연하게 된 청년과 같은가?
- 제1막(전세)에 대해 계시된 지식은 제2막(현세)에 있는 우리에게 어떤 도움을 주는가? 제3막(내세)에 대한 지식은 제2막에 있는 우리에게 어떤 도움이 되는가?
- 무대에서 공연 중인 그 청년은 누가 악한이고 누가 영웅인지 알지 못했다. 우리 생에서 누가 악한이며 누가 영웅인지 모를 때 어떤 문제가 일어날 수 있는가?
- 연극에 대한 지식을 얻기 위해 그 청년은 무엇을 했는가? 우리 인생의 “각본”이 되는 것은 무엇인가?

**2. 부모를 위한 조언**

반원들과 함께 앨마서 12장 32절을 읽는다. 읽기 전에 이 구절에 있는 그들은 아담과 이브를 나타낸다고 설명한다.

아담과 이브는 계명을 받았을 때 이미 구속의 계획에 대한 지식을 갖고 있었음을 강조한다. 그런 후 다음 질문을 한다.

- 우리가 계명을 받을 때 구속의 계획에 대한 지식을 갖는 것은 왜 도움이 되는가? 부모들이 자녀들을 가르칠 때 어떻게 이런 방법을 따를 수 있는가?

**목적** 반원들이 세 영광의 왕국에서 받게 되는 영원한 상속에 대해 깊이 생각하도록 도우며, 그들이 해의 영광을 상속받아 하나님 아버지의 면전에서 가족과 함께 거할 수 있는 방법으로 살도록 격려한다.

**준비 사항**

1. 기도하는 마음으로 교리와 성약 76편, 131편, 132편 19~24절 및 137편을 공부한다.
2. **반원 학습 지도서(35686 320)**에서 본 공과에 대한 자료를 살펴본다. 공과 시간에 자료를 참조할 수 있는 방법을 계획한다.

**공과 전개 제언**

**주의 집중 활동** 적절한 경우, 공과를 시작하기 위해 다음 활동이나 여러분 자신이 준비한 활동을 활용한다.

반원들에게 지난주의 공과를 간략하게 상기시킨다. 반원들이 우리의 영원한 존재의 세 부분, 즉 천세, 현세, 내세를 기억하고 있는지 확인한다.

이 복습 후에, 만일 교리와 성약 76편, 131편 및 137편에 있는 계시가 없었다면 부활한 후에 우리가 처해 있을 상황에 대해 우리는 거의 알지 못했을 것이라고 설명한다. 그런 다음, 교리와 성약 76편에 기록된 시현에 대한 윌포드 우드럽 회장의 다음 말씀을 전한다.

“이 시현은 우리가 읽은 어떠한 책에 있는 어떤 계시보다 더 많은 진리와 빛과 원리를 주는 계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시현은 우리의 현재의 상태, 즉 우리가 어디서 왔으며, 왜 이곳에 있으며, 어디로 갈 것인가에 대한 명확한 해답을 주고 있습니다. 누구라도 그 계시를 통하여 그가 하게 될 역할이 무엇이며 그가 거하게 될 곳과 상태를 알게 될 것입니다.”(*The Discourses of Wilford Woodruff*, sel. 지 호머 더햄 [1946년], 47~48쪽)

**토론과 적용** 기도하는 마음으로 반원들의 필요 사항에 가장 잘 맞는 공과 자료를 선정한다. 공과 끝 부분에 있는 해의 왕국에 대한 중요한 토론에 쓸 충분한 시간을 남겨 두도록 한다.

**1. 영광의 왕국과 “예수에 대한 증거”**

교리와 성약 76편 11~24, 40~43절, 119편을 가르치고 토론한다.

- 교리와 성약 76편에 기록된 시현을 받게 된 배경은 무엇인가?(교리와 성약 76:11~19 참조; 교리와 성약 76편 서문 참조. 114쪽의 그림은 선지자 조셉 스미스와 시드니 리그돈이 이 시현을 받은 방을 보여 주고 있음을 주목한다.)

시현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한량없는 속죄에 대해 증거하고 있음을 강조한다. 이 시현에 대한 조셉 스미스의 기록은 구주에 대한 간증으로 시작하고 끝이 난다. 반원 한 명에게 교리와 성약 76편 20~24절을, 다른 한 명에게는 교리와 성약 76편 119절을 소리내어 읽게 한다. 반원들에게 교리와 성약 76편 40~43절을 읽게 할 수도 있다.

교리와 성약 76편은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부활한 후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살게 될 세 영광의 왕국, 즉 별의 왕국, 달의 왕국 및 해의 왕국을 마련하셨음을 보여 준다. 우리는 각기 “예수에 대한 증거를 받아들이는” 정도에 따라 영광의 왕국을 상속받을 것이다.(교리와 성약 76:51) 이 계시를 토론할 때 반원들에게 이 점을 유념하라고 권유한다.

## 2. 멸망

교리와 성약 76편 25~39, 44~49절을 가르치고 토론한다. 칠판에 멸망이라고 적으면서 시작한다. 멸망이란 단어는 영광의 왕국이 아닌 파멸과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상태를 말한다고 설명한다. 이를 경험하는 자들은 멸망이라 불리는 사탄을 따랐기 때문에 “멸망의 자식”이라 불린다.(교리와 성약 76:25~26, 31~32) 이 부분은 억지 추측을 피하면서 간략하게 토론하도록 하고 나중에 해의 왕국을 토론할 시간을 충분히 남겨 둔다. 기타 주제를 다룰 때는 경전과 후기의 선지자가 가르친 것에 초점을 맞추도록 한다.

- 천국 회의에서 모반을 했던 루시퍼는 지상으로 쫓겨났다.(요한계시록 12:7~9; 교리와 성약 29:36~37; 76:25~28; 모세서 4:1~3) 추방당한 루시퍼는 무슨 일을 시작했는가?(교리와 성약 76:29; 모세서 4:4 참조) 우리는 살아가는 가운데 사탄과의 전쟁에 이기기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가?(이 질문에 대한 답을 얻기 위해서는 니파이전서 14장 14절, 교리와 성약 10편 5절, 27편 15~18절을 참조한다.)
- 멸망의 자식들의 고통에 대해 주님이 계시하신 것은 무엇인가?(교리와 성약 76: 32~34, 36~38, 44~49 참조) 멸망의 자식들은 왜 그러한 고통을 받도록 저주받았는가?(교리와 성약 76:30~31, 35 참조. 성신을 거스르는 것의 뜻을 설명하기 위해 아래 인용문을 참조한다.)

선지자 조셉 스미스는 다음과 같이 말씀했다. “용서받지 못할 죄를 범한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겠습니까? 이는 성령을 받고 하늘의 문이 열림을 받고 하나님을 안 다음 그분에 대해 죄를 지은 것을 말합니다. 성신을 거스른 죄를 지은 다음에는 회개할 수 없습니다. 그는 태양을 보면서도 이것이 비치지 않는다고 말해야 하며, 하늘의 문이 열렸으나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해야 하며, 눈을 떠 진리를 볼 수 있으나 구원의 계획을 거부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그는 적이 되는 것입니다.”(선지자 조셉 스미스의 가르침, 341쪽)

## 3. 별의 왕국

교리와 성약 76편 81~90, 98~106, 109~112절을 가르치고 토론한다. 칠판에 별의 왕국이라 적고 그 옆에 별을 하나 그리면서 시작한다. 별의 왕국은 가장 낮은 영광의 왕국이라고 설명한다. 주님께서 그 영광을 별의 광채에 비교하셨다.(교리와 성약 76:81, 98; 고린도전서 15:40~41 참조)

- 어떤 사람들이 별의 왕국을 상속받게 되는가?(교리와 성약 76:81~83, 98~101, 103 참조)
- 별의 왕국에 거하는 자들은 어떠한 상황, 즉 한계에 처하게 될 것인가?(교리와 성약 76:84~86, 102, 104~106, 112 참조)

여러분은 84절과 106절에 나와 있는 “지옥”은 영옥, 즉 죽음과 부활 사이의 일시적 상태임을 설명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은, 영옥에 거하는 자들은 궁극적으로는 부활하여 별의 왕국을 상속받게 될 것이다. 반원들에게 85절과 106절을 읽게 한다.

## 4. 달의 왕국

교리와 성약 76편 71~80, 91, 97절을 가르치고 토론한다. 칠판에 달의 왕국이라 적고 그 옆에

달을 그리면서 시작한다. 주님께서는 달의 왕국의 영광을 달의 광채에 비교하셨다고 설명한다.(교리와 성약 76:78, 97; 고린도전서 15:40~41 참조)

- 어떤 사람들이 달의 왕국을 상속받게 되는가?(교리와 성약 76:71~75, 79. 이 구절에 대한 반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다음 인용문을 전한다.)

십이사도 정원회의 브루스 알 맥콩키 장로는 이렇게 설명했다. “달의 왕국을 상속받기로 정해진 사람들은 (1) 율법 없이 죽은 자들, 즉 이 생에서 복음을 듣지 못했던 사람이거나, 들었더라도 마음을 다하여 받아들이지 않았을 이방인들과 이교도들, (2) 이생에서 복음을 듣고 거부한 후 영의 세계에서 받아들인 사람들; (3) 세상에서 존경을 받았으나 인간의 간사한 재주로 눈이 먼 자들, (4) 참된 교회의 미온적인 성도들 및 간증은 가졌으며 모든 일에 진실하거나 충실하지 못한 사람들이다.”(*A New Witness for the Articles of Faith* [1985년], 146쪽)

- 달의 왕국에 거할 사람들이 처할 상황, 즉 한계는 무엇인가?(교리와 성약 76:76~78 참조)
- 우리는 어떻게 사람의 간사한 재주가 눈을 멀게 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가?(이 질문에 대한 답을 얻기 위해 다음 성구들을 참조한다. 에베소서 4:11~15 ; 니파이전서 15:24 ; 힐라맨서 5:12 ; 교리와 성약 3:78 ; 교리와 성약 21:4~6 ; 교리와 성약 52:14~20)

## 5. 해의 왕국

교리와 성약 76편 50~70, 92~96절, 131편 1~4절, 132편 19~24절 및 137편을 가르치고 토론한다. 칠판에 해의 왕국이라 적고 그 옆에 해를 그리면서 시작한다. 해의 왕국은 가장 높은 영광의 왕국이라고 설명한다. 주님께서는 그 영광을 해의 광채에 비교하셨다.(교리와 성약 76:70, 78, 96; 고린도전서 15:40~41 참조)

- 어떤 사람들이 해의 왕국을 상속받게 되는가?(교리와 성약 76:50~53, 68~69 참조. 53절에 대한 반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약속의 성령은 우리가 받은 신권 의식 및 우리가 맺은 성약이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수 있음을 확인하는 성신이라고 설명할 수 있다. 우리의 충실함에 따라 이를 승인 받을 수 있다.)
- 교리와 성약 76편이 계시된 지 약 4년이 지난 후에 조셉 스미스는 한 시현을 보았는데 그 시현에서 해의 왕국에 있는 형, 앨빈을 보았다.(교리와 성약 137:1~5) 앨빈은 교회가 회복되기 전인 1823년에 죽었다. 조셉은 해의 왕국에 있는 앨빈을 보고 어떤 사실을 알게 되었는가?(교리와 성약 137:7~9 참조) 그 외에도 선지자는 해의 왕국의 영광을 상속받는 자들에 대해 무엇을 알게 되었는가?(교리와 성약 137:10 참조) 이 사실들은 우리에게 어떻게 위안을 줄 수 있는가?
- 해의 왕국을 상속받을 때 받게 될 축복은 무엇인가?(교리와 성약 76:54~67, 94~95 참조)
-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의 간증은 죽은 후 상속받을 왕국을 어떻게 결정해 주는가?(교리와 성약 76:31, 35 [멸망]; 교리와 성약 76:82, 101[별]; 교리와 성약 76:79[달]; 교리와 성약 76:51~53, 69; 121:29[해] 참조) “예수에 대한 간증에 용감하”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교리와 성약 76:79)

반원들의 대답을 토론하면서 덧붙여 브루스 알 맥콩키 장로의 다음 말씀을 전할 수 있다.

“그렇다면 예수에 대한 간증에 용감하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그 말은 대답하고 용기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세상과의 싸움에서 우리의 모든 힘과 정력과 능력을 다 발휘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것을 의미합니다. ... 의의 대

업에서 용기의 초석이 되는 것은 모든 복음의 율법을 준수하는 것입니다.

“예수에 대한 간증에 용감하다는 것은 그리스도에게로 나아와, 그의 안에서 온전하게 되고, 모든 경건하지 아니한 것을 거부하고 능력과 생각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입니다.(모로 나이서 10:32)

“예수에 대한 간증에 용감하다는 것은 흔들리지 않는 확신으로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을 믿는 것이며, 지상에서 행해지는 주님의 사업의 참됨과 신성함을 아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믿고 아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듣고 그치는 게 아니라 그것을 실천에 옮겨야 합니다. 말로만 하는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간증이란 구주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입으로만 말하는 게 아닙니다. 순종과 순응과 개인적인 의로움이 뒤따라야 합니다.

“예수에 대한 간증에 용감하다는 것은 ‘소망의 완전한 밝은 빛과 하나님과 만인에 대한 사랑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믿는 굳건함을 지니고 힘써 앞으로 나아가야만’ 한다는 것이며, ‘끝까지 견디는 것입니다.(니파이후서 31:20) 그것은 종교의 가르침을 실천하고 우리가 가르치는 바를 실천에 옮기며,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생활에 정결한 경건을 나타내 보이며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며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것입니다.(야고보서 1:27)

“예수에 대한 간증에 용감하다는 것은 우리의 걱정과 욕구를 억제하고 세속적이며 사악한 것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 중에서 가장 용감하였고 우리가 따라야 할 모범이신 그분이 하신 것처럼 세상적인 것들을 극복하는 것입니다. 도덕적으로 순결해야 하는 것이며, 십일조와 헌금을 바치는 것이며,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고, 마음을 다하여 기도하며, 요구를 받았을 때 모든 것을 다 바쳐 희생하는 것입니다.

“예수에 대한 간증에 용감하다는 것은 매사에 주님의 편에 선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주님이 결정하실 방향으로 결정을 내린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주님이 그러한 상황에서 생각하실 방식으로 생각하며, 그분이 믿으시는 바를 믿으며, 그분이 말하실 방식으로 말하며, 그러한 상황에서 그분이 행하실 방법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지니고, 그분이 아버지과 하나였던 것처럼 그분과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성도의 벗, 1975년 4월호, 38~39쪽)

- 교리와 성약 76편이 계시된 11년 후에 선지자 조셉 스미스는 해의 왕국에는 세 등급이 있다고 가르쳤다.(교리와 성약 131:1) 누가 해의 왕국의 가장 높은 등급에 승영할 것인가?(교리와 성약 131:1~3; 132:19 참조)
- 해의 왕국의 가장 높은 등급에 승영하는 자들만이 얻을 수 있는 축복은 무엇인가?(교리와 성약 131:4; 132:19~20 참조. “증식”이란 말과 “영원무궁하도록 자손이 충만하고 계속되는 것”이라는 구절은 성약 내에 거하며, 해의 왕국의 가장 높은 등급에 승영하는 자들은 영원한 내세에서 영의 자녀를 가진다라는 뜻을 설명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 십이사도 정원회의 회원이었을 때 조셉 필딩 스미스 회장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교리와 성약 76편은 ... 모든 교회 회원들이 귀중한 유산으로서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그것은 회원들의 신앙을 강화시키며 올바르게 참된 모든 자에게 약속된 승영을 추구할 동기가 되어야 합니다.” (Church History and Modern Revelation, 2 vols.[1953년], 1:279) 이 계시는 어떻게 우리가 신앙을 강화하며 승영을 추구하도록 우리를 고무시킬 수 있는가? 해의 영광을 위해 노력할 때 우리가 느낄 수 있는 좌절감을 우리는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가?

결론

해의 왕국에서의 승영에 이르는 위대한 축복은 누구나 다 얻을 수 있음을 강조한다. 우리 각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온전히 될 수 있으며, 우리의 가족과 더불어 해의 왕국의 가장 높은 등급에 승영할 수 있다. 교리와 성약 76편의 계시는 우리로 하여금 이 위대한 축복을 받을 수 있게 계명을 지키고 구원의 의식을 받도록 동기를 주는 것이 되어야 한다.

영의 속삭임에 따라 공과 시간에 토론된 진리에 대해 간증한다.

추가로 가르칠 개념

반원들을 네 그룹으로 나눈다. 각 그룹에게 다음 성구 중 하나를 지명한다. 각 그룹에게 성구를 읽고 토론할 시간을 준다. 공과 중 적절한 시간에 각 그룹이 지명 받은 성구에서 알게 된 것을 이야기하게 한다.

교성 76:25~49(멸망)

교성 76:71~80, 87, 91, 97(달의 영광)

교성 76:81~86, 88~90, 98~112(별의 영광)

교성 76:50~70, 92~96(해의 영광)



존 존슨의 집. 이 집에서 성경 번역 일을 하는 동안 선지자 조셉 스미스와 시드니 리그돈은 현재 교리와 성약 76편에 기록된 계시와 다른 계시를 받았다.

# “주의 큰 날이 임하기를 ... 바라며 기다리리라”

제 21 과

**목적** 반원들이 재림의 징조를 이해하고 인식하도록 도우며 “주의 큰 날”(교리와 성약 45:39)을 준비하도록 돕는다.

**준비 사항**

1. 기도하는 마음으로 교리와 성약 29편 9~29절, 34편 5~12절, 45편 16~75절, 88편 86~99절, 101편 22~34절, 133편 및 그 밖의 공과에 나와 있는 성구를 공부한다.
2. *반원 학습 지도서*(35686 320)에서 본 공과에 대한 자료를 살펴본다. 공과 시간에 자료를 참조할 수 있는 방법을 계획한다.
3. 재림 그림을 구할 수 있다면 공과 시간에 사용하도록 준비한다.(62562; 복음 그림 패킷 238)
4. 주의 집중 활동을 할 경우, 아래 준비 사항을 마련한다.
  - ㄱ. 위에 적힌 그림과 함께 다음 그림들을 준비한다. 예수님의 탄생(62116, 복음 그림 패킷 200);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시는 예수님(62175, 복음 그림 패킷 227) 및 십자가에 못박히심(62505, 복음 그림 패킷 230)
  - ㄴ. 반원들에게 “구유에서 나신 예수”(찬송가, 121장)를 부르게 하거나 반원 한 명이나 그룹에게 부탁하여 준비시킨다.

*교사 유의 사항:* 공과를 가르치면서 교리와 성약에서 주님이 계시하신 말씀에 초점을 둔다. 재림의 시기 등과 같이 추측을 하는 문제들은 토론하지 않도록 한다.

## 공과 전개 제언

**주의 집중 활동** 적절한 경우, 공과를 시작하기 위해 다음 활동이나 여러분 자신이 준비한 활동을 활용한다.

예수님의 탄생, 속죄, 재림에 관한 그림을 보여 준다.(“준비 사항” 3, 4의 ㄱ 참조)

반원들에게 찬송가 “구유에서 나신 예수”를 부르게 하거나 지명된 반원이나 그룹에게 부탁한다. 반원들이 찬송가의 가사와 게시된 그림과의 연관성을 찾아보게 한다.

찬송가가 끝난 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재림은 세계 역사상 가장 영광스러운 사건들이라고 설명한다. 구주께서 지상에 처음 오셨을 때는 초라한 환경에 오셨으므로 대부분이 메시아로 인식하지 못했다. 그러나 재림시에 그분은 권능과 큰 영광으로 오실 것이다. 이 공과는 구주의 재림과 지상에서의 복천년 통치에 관한 것이다.

**토론과 적용** 본 공과에는 한 공과 시간 동안에 가르칠 수 있는 것보다도 많은 자료가 포함되어 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반원들의 필요 사항을 가장 잘 충족시켜 줄 수 있는 공과 자료를 선정한다.

## 1. 구주께서는 권능과 큰 영광으로 지상에 돌아오실 것이다.

우리는 후기의 계시가 우리에게 재림과, 그에 앞서 일어날 사건들과, 구주가 다시 오실 때 시작될 평화스러운 천년간에 관한 위대한 진리를 가르쳐 주는, 때가 찬 경륜의 시대에 사는 특권을 받았다고 설명한다. 교리와 성약은 이 중요한 주제들에 관한 풍부한 자료를 제공해 주고 있다.

구주의 탄생에 관련된 모든 예언이 성취된 것과 마찬가지로 재림에 관한 모든 예언도 성취될 것이다. 다음 예언들 중 반원들과 함께 읽을 몇 가지를 선정한다. 각 성구가 구주의 재림에 대해 가르치고 있는 바를 토론한다. 칠판에 그 내용을 요약한다. 여러분은 반을 소규모 그룹으로 나누어 각 그룹에게 지명한 성구를 공부하여 발표하게 해도 좋다. 또는 반원 각각에게 성구를 공부하여 발표하게 할 수도 있다.

- ㄱ. 교리와 성약 29:9~11; 45:44.(그리스도는 권능과 큰 영광으로 지상에 오실 것이다.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불에 탈 것이며 지상에는 간악함이 없어질 것이다.)
- ㄴ. 교리와 성약 34:7, 12; 43:17; 110:16.(재림이 가까이 왔다.)
- ㄷ. 교리와 성약 34:8, 11; 63:34.(구주가 오실 때 만국이 떨 것이다. 우리가 충실하다면 그분이 오실 때까지 그분의 권능과 영향력은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다.)
- ㄹ. 교리와 성약 45:45~54; 88:96~99.(죽은 성도들은 부활하여 구주를 맞으러 나아올 것이다. 지상에 살아 있는 성도들은 그분을 만나러 모일 것이다. 그분은 감람 산으로 오실 것이며 그 산은 돌로 갈라질 것이다. 유대인들은 구주를 알아보고 자신들이 그분을 핍박한 까닭으로 울 것이다. 그런 다음 영육에서 복음을 받아들인 자들이 부활할 것이다.)
- ㅁ. 교리와 성약 49:6.(구주께서는 모든 원수를 발 아래 두실 것이다.)
- ㅂ. 교리와 성약 49:7.(구주가 오실 날과 그 시를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으며 천사도 알지 못할 것이다.)
- ㅅ. 교리와 성약 133:46~53.(구주께서는 붉은 옷차림으로 오실 것이다. 그분의 오심은 사악한 자에게 원수 갚는 시기이며 의로운 자에게는 구속의 시기가 될 것이다.)

## 2. 복천년은 기쁨과 평화의 시기이다.

구주의 재림은 복천년이라 불리는 천년의 도래를 알리는 것이 될 것이다. 신앙개조 제10조는 이 시기 동안 “그리스도께서 친히 지상에서 다스리실 것과 땅이 새로워지고 낙원의 영광을 받게 될” 것이라고 선포하고 있다. 교리와 성약 101편은 복천년 동안 우리가 고대하는 아름다움과 기쁨을 묘사하고 있다.

- 지상의 생명은 복천년 동안 어떻게 되겠는가?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 반원들과 함께 다음 성구들 중 몇 가지를 고른다. 각 성구가 복천년에 대해 가르치는 바를 토론한다. 칠판에 그 내용을 요약한다. 여러분은 반을 소규모 그룹으로 나누어 각 그룹에게 지명한 성구를 공부하여 보고하게 할 수 있다. 또 개인에게 성구를 공부하여 발표하게 할 수도 있다.

- ㄱ. 교리와 성약 101:23.(모든 사람들이 구주를 볼 수 있을 것이다.)
- ㄴ. 교리와 성약 101:24.(모든 사악한 자는 소멸될 것이다.)
- ㄷ. 교리와 성약 101:25.(땅은 새로워질 것이다.)
- ㄹ. 교리와 성약 101:26.(사람과 동물이 평화롭게 살 것이다.)



- ㄹ. 교리와 성약 101:27.(사람들은 의로운 소망을 이루게 될 것이다.)
- ㅁ. 교리와 성약 101:28; 교리와 성약 45:55; 88:110.(사탄은 묶여지고 능력이 없어져서 아무도 유혹할 힘을 가지지 못하게 될 것이다.)
- ㅂ. 교리와 성약 101:29.(슬픔도 죽음도 없을 것이다.)
- ㅇ. 교리와 성약 101:30~31.(사람은 늙게 되면 눈 깜박할 사이에 필멸의 몸에서 불멸의 몸으로 변화될 것이다.)
- ㅅ. 교리와 성약 101:32~34.(주님께서는 지상이 어떻게 창조되었으며,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며, 그리고 지구와 하늘에 관한 모든 일을 드러내실 것이다.)
- ㅇ. 교리와 성약 45:58.(자녀들은 죄 없이 성장할 것이다.)
- ㅋ. 교리와 성약 45:59; 133:25.(주님은 온 지상의 왕과 입법자가 되실 것이다.)
- 복천년에 관한 이와 같은 지식은 현재 우리의 삶에서 어떻게 축복이 될 수 있는가? 결국 의가 악을 이긴다는 사실을 아는 것은 어떻게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는가?

### 3. 우리는 재림을 예비해야 한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그분의 재림을 예비해야 함을 반복해서 강조하셨다.(교리와 성약 133:4, 10~11) 어떤 사람들은 만족할 만큼의 충분한 예비는 할 수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그러한 예비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교리와 성약에서 주님은 우리가 일상 생활의 한 부분으로서 이 중요한 일을 준비할 수 있음을 가르치는 권고를 주셨다.

- 우리가 재림을 준비하기 위해 지금 우리 생활 가운데서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토론이나 반원들의 대답 외에 다음 내용을 활용한다.)

#### 구주의 오심에 대한 표적을 살펴봄

교리와 성약에서 주님은 재림에 앞서 있을 여러 표적들을 보이시며 “기다리라!”(교리와 성약 61:38)고 권고하신다고 설명한다.

- 구주의 재림에 앞서 있을 그 표적들을 아는 것은 왜 중요한가? 반원들과 함께 교리와 성약 45편 36~39절을 읽는다. 이 표적들이 주어진 이유에 대한 이 비유에서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 있는가?
- 구주의 재림에 앞서 있을 예언된 표적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 다음 성구들 중에서 반원들과 함께 읽을 몇 가지를 고른다. 각 성구에 언급된 표적들을 알아본다. 칠판에 긍정적 표적 및 부정적 표적이란 제목 밑에 표적들을 요약한다. 반을 소규모 그룹으로 나누어 각 그룹에게 지명한 성구를 공부하여 발표하게 할 수 있으며 개인에게 성구를 공부하여 발표하도록 지명할 수도 있다.

#### 긍정적 표적

- ㄱ. 교리와 성약 45:9; 133:57~58.(충만한 복음이 회복될 것이다.)
- ㄴ. 교리와 성약 45:66~71.(새 예루살렘이 세워질 것이며, 그곳은 후기의 의로운 자들을 위한 평화롭고 안전한 장소가 될 것이다.)
- ㄷ. 교리와 성약 65:2~6.(하나님의 왕국이 지상에 세워질 것이다.)
- ㄹ. 교리와 성약 110:11~16.(신권 열쇠가 회복될 것이다.)

ㄱ. 교리와 성약 133:8~9, 36~39.(복음이 모든 나라에 전파될 것이다.)

#### 부정적 표적

ㄱ. 교리와 성약 29:15; 88:91.(슬피 울고 절망하며 두려움이 가득할 것이다. 사람들이 낙담할 것이다.)

ㄴ. 교리와 성약 29:16; 45:31; 112:24.(기근과 재앙과 질병과 황폐가 있을 것이다.)

ㄷ. 교리와 성약 34:9; 45:40~42; 88:87.(하늘과 땅에서 징조와 기이한 일이 있을 것이다.)

ㄹ. 교리와 성약 45:26; 63:33.(전쟁과 전쟁의 소문이 들리고 온 땅이 동요할 것이다.)

ㅁ. 교리와 성약 45:27.(사람의 사랑은 차차 식어질 것이요, 죄악이 성하게 될 것이다.)

ㅂ. 교리와 성약 45:33; 88:89~90.(지진과 폭풍우, 바다의 파도가 있을 것이다. 사람들은 마음을 완악하게 하여 하나님께 대적하며 서로 죽이게 될 것이다.)

이 예언들 중에는 이미 성취된 것들도 있으며, 일부는 성취되고 있으며, 일부는 성취를 기다리고 있음을 지적한다.

- 주님께서는 후기의 혼란 가운데에서도 “근심하지 말라”는 권고를 주셨다.(교리와 성약 45:35) 우리는 어떻게 희망을 유지할 수 있으며, 후기의 사악함과 혼란에 둘러싸일 때 어떻게 그 고통을 피할 수 있겠는가?(교리와 성약 38:30 참조)

#### 거룩한 곳에 서라

재림의 표적을 기다리라는 권고와 함께 주님은 우리가 의롭게 됨으로써 예비하라는 권고도 주셨다. 다음 성구들 중 반원들과 함께 읽을 몇 가지를 고른다. 각 성구에서 구주의 재림을 위한 예비에 대해 가르치는 것을 토론한다. 그 내용을 요약하여 칠판에 적는다.

ㄱ. 교리와 성약 27:15; 33:17.(확고 부동하게 의를 지킨다.)

ㄴ. 교리와 성약 34:6; 39:19~20; 43:20~23.(회개하며, 회개를 외친다.) 재림 예비에 회개는 왜 중요한가?

ㄷ. 교리와 성약 45:32; 87:8; 101:22~23.(거룩한 곳에 선다.) “거룩한 곳에 선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 이 거룩한 곳은 어디인가?(성전, 예배당, 가정, 시온의 스테이크 등이 답에 포함된다.) 우리가 세속적인 환경에 처해 있을지라도 우리 자신을 합당하고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

ㄹ. 교리와 성약 45:56~57.(성령이 우리의 인도자가 되게 한다.)

고든 비 힝클리 회장은 다음과 같이 가르쳤다. “여러분은 재림을 어떻게 예비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그에 대해 그렇게 걱정하지는 마십시오. 여러분은 내일 재림이 임할지라도 준비되어 있는 그런 삶을 사십시오. 재림이 언제 임할지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 우리가 할 일은 우리 스스로를 준비하고 구주와 연합하여 합당하게 살며, 그분이 우리 가운데 오실 지라도 당황하지 않을 방식으로 행동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날 이 세대의 과제입니다.”(Church News, 1999년 1월 2일, 2쪽)

십이사도 정원회의 보이드 케이 팩커 장로는 다음과 같이 권고했다.

“또한 심대들은 종종 ‘무슨 소용이냐? 세상이 곧 산산 조각이 나 종말이 올텐데.’ 하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느낌은 신앙에서 오는 것이 아니고 두려움에서 오는 것입니다. 아무도 그 시와 그 날을 모릅니다.(교리와 성약 49:7) 그러나 주님의 모든 목적이 성취되기까지는 종말은 이르지 않을 것입니다.”

다. 제가 계시와 체험으로부터 배운 모든 것들은 여러분이 조심스럽게 긴 생애를 준비할 충분한 시간이 있음을 확신시켜 줍니다.

“언젠가는 여러분도 십대의 자녀를 갖고 씨름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은 겪게 될 것입니다. 나중에 여러분이 손자의 응석을 너무 받아 주어 그들을 버릇없게 만들면 후에는 그들이 그들의 손자를 버릇없게 만들게 될 것입니다. 혹시 어떤 사람에게 죽음이 일찍 닥쳐온다고 하면, 그것만으로도 만사를 바르게 해야 할 더 큰 이유가 됩니다.”(성도의 벗, 1989년 7월호, 71쪽)

## 결론

주님께서 재림과 복천년에 대해 세계 역사상 어떤 집단의 사람들보다도 우리에게 더 많은 내용을 계시해 주셨음을 지적한다. 그분의 예언이 성취되는 가운데 우리는 이 지식을 가지고 준비를 갖추 수 있으며, 의로움 속에서 확고 부동하게 서 있을 수 있다. 우리는 구주께서 돌아오시고 평화와 의로움 속의 복천년 통치가 도래할 그 때를 고대해야 한다.

영의 속삭임에 따라, 공과 시간에 토론된 진리에 대해 간증한다.

## 추가로 가르칠 개념

다음 자료는 제언된 공과 개요를 보충하는 것이다. 여러분은 이 개념들 중 하나, 또는 두 가지 다를 공과의 일부로 활용할 수 있다.

### 1. 밀과 가라지의 비유

교리와 성약 86편은 재림에 대한 더 큰 통찰력을 제공해 준다. 이 86편은 조셉 스미스가 밀과 가라지의 비유에 대한 의미를 명확히 하기 위해 받은 계시의 기록이다. 구주께서는 일찍이 이 지상에서 성역을 베푸실 때에 이 비유를 주셨다.(마태복음 13:24~30)

- 반원들과 함께 교리와 성약 86편의 비유를 검토한다. 이 비유의 요소들이 나타내는 것은 무엇인가?  
주님의 종들은 좋은 씨앗을 뿌리는 사람들이며 사탄과 그의 추종자들은 가라지를 뿌리는 사람들이다. 좋은 씨앗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나타내고 가라지는 악에 굴복하는 자들이다. 밀과 가라지는 세상이 끝날 때까지 함께 자라도록 허락되었다. 그 때에 의로운 자들은 악인들 가운데서 모아지고 악인은 불태워질 것이다.
- 이 비유는 재림과 관련된 사건에 대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주는가?

### 2. 비디오 발표

교리와 성약 및 교회사의 가르침(53933 320) 비디오를 구할 수 있다면 다음 부분 중 한 가지 또는 두 가지를 다 보여 주도록 한다.

“근심하지 말라”(5분). 이 비디오는 반원들에게 후기에 있을 재난으로 두려워하거나 근심할 필요가 없음을 이해하게 해 준다. 이 비디오를 보여 주기로 결정했다면 토론과 적용 3에서 보여 주도록 한다.

“지혜로운 자들”(6분) 이 비디오는 구주의 열 처녀의 비유를 묘사하고 있다.(마태복음 25:1~13; 교리와 성약 45:56~59 참조) 이 비디오를 보여 주기로 결정했다면 토론과 적용 3에서 보여 주도록 한다.

“지혜로운 자들”을 보여 주기 전에 열 처녀의 비유는 고대 유대인의 결혼 관습에 바탕을 두고 있다고 설명한다. 예수님 시대에 신랑과 친구들은 신부를 신부집에서 신랑집으로 호위하곤 했다. 신부의 친구들은 그 길목에서 그들과 함께 하기 위해 기다렸다. 신랑집에 도착하면 그들은 모두 결혼식을

위해 안으로 들어갔다. 이 결혼식은 보통 저녁에 거행되므로 신부를 기다리는 자들은 작은 기름 등잔을 들고 다녔다. 비유에서 신랑은 구주를 나타낸다. 처녀들은 교회 회원을 나타내며, 결혼은 구주의 재림을 나타내고 등잔의 기름은 재림에 대한 예비를 나타낸다.

비디오를 보여 준 후, 반원들에게 교리와 성약 45편 56~59절을 읽게 한다. 그런 뒤에 아래의 질문을 한다.

- 이 구절은 구주의 재림을 예비하는 것에 대해 무엇을 가르치는가?

여러분은 스펜서 더블류 킴볼 회장의 통찰력이 담긴 다음 말씀을 전할 수 있다.

“비유에서 보면 기름을 시장에서 살 수 있었습니다. 우리의 생활에서는 의로운 삶을 통하여 그 기름을 한 방울씩 저장해 둘 수 있습니다. 성찬식에 출석하면 우리는 등에 기름을 준비해 두게 됩니다. 세월이 지남에 따라 이 기름이 모이는 것입니다. 금식, 가족 기도, 가정 복음 교육, 육체적 욕구의 절제, 복음 전파, 경전 공부, 즉 헌신과 순종을 통해 행하는 모든 일은 우리의 저장 창고에 보태어 지는 기름 방울입니다. 친절함, 헌금과 십일조를 바치는 일, 순결한 생각과 행동, 영원한 성약을 맺는 결혼 등은 밤중에 등을 켜려 할 때 필요한 기름을 비축해 두는 것입니다.”(*Faith Precedes the Miracle* [1972년], 256쪽)

# 지혜의 말씀: “약속이 따르는 원리”

제 22 과

**목적** 반원들이 육체의 건강에 대한 주님의 다른 권고와 아울러 지혜의 말씀의 권고에 순종하도록 격려한다.

- 준비 사항**
1. 기도하는 마음으로 다음 성구와 그 밖의 자료들을 공부한다.
    - ㄱ. 교리와 성약 89(지혜의 말씀)
    - ㄴ. 교리와 성약 49:19~21; 59:15~21; 88:124(보충 성구)
    - ㄷ. 우리의 유산, 25쪽.
  2. 반원 학습 지도서(35686 320)에서 본 공과에 대한 자료를 살펴본다. 공과 시간에 자료를 참조할 수 있는 방법을 계획한다.
  3. 반원 한 명에게 지혜의 말씀의 역사적 배경을 요약하도록 준비시킨다.(우리의 유산, 25~26쪽)
  4. 건강에 좋은 식품의 사진을 준비해 와서 공과의 셋째 편에서 사용할 수도 있다.

## 공과 전개 제언

**주의 집중 활동** 적절한 경우, 공과를 시작하기 위해 다음 활동이나 여러분 자신이 준비한 활동을 활용한다. 고든 비힝클리 회장의 다음 이야기를 들려준다.

“어떤 감독이 성전 추천서를 받기 위해 찾아온 한 자매에 대해 이야기한 것이 생각납니다. 지혜의 말씀을 지키는지 묻자 그녀는 때때로 커피를 한 잔씩 마신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감독님, 설마 그것 때문에 저를 성전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진 않으시겠죠?”라고 물었습니다. 감독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주님의 집과 자매님 사이에 커피가 있는 한 결코 들어가지 못할 것입니다.”(성도의 벗, 1990년 7월호, 60쪽)

지혜의 말씀은 간단하고 단순한 율법이다. 많은 사람들이 이 율법에 불순종했을 때 따르는 육체의 위험을 알고 있으며, 이러한 결과를 기억하는 것은 중요한 일이다. 그러나 우리가 지혜의 말씀에 순종할 때 받게 될 현세적 및 영적 축복을 기억하는 것도 중요하다. 이 공과에서는 이 위대한 약속을 토론하게 된다.

## 토론과 적용

기도하는 마음으로 반원들의 필요 사항에 가장 잘 맞는 공과 자료를 선정한다. 반원들에게 성구의 원리와 관련된 경험을 나누도록 권유한다.

### 1. 왜 지혜의 말씀이 계시되었는가?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거룩한 목적을 위해 우리의 육체를 마련하셨다고 설명한다. 육체는 우리의 영원한 진보를 위한 하나님의 계획에서 필요한 부분이다. 그런 중요성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에게 육체를 잘 돌보라는 청지기 직분을 주셨다. 고대에서처럼 우리의 이 경륜의 시대에서도 그분

계서는 우리가 육체를 깨끗하고 정결하게 지키도록 건강의 원리를 계시해 주셨다. 이 원리에 순종함은 그분에 대한 우리의 사랑과 감사를 표시하는 지표가 된다.

지명받은 반원에게 *우리의 유산*, 25쪽에 나와 있는 지혜의 말씀의 역사적 배경을 요약하게 한다. 여러분은 본 공과 교재 128쪽에 나와 있는 뉴얼 케이 휘트니 상점의 사진을 보여 줄 수 있다. 선지자 조셉 스미스는 이 상점에서 지혜의 말씀을 받았다.

- 반원들과 함께 고린도전서 3장 16~17절 및 6장 19~20절을 읽는다. 이 구절에 따르면 우리가 육체를 돌보는 것은 왜 중요한가?(우리의 육체는 성전이며 주님께 거룩한 곳이라고 설명한다. 우리의 육체는 우리의 영이 거하는 곳이며, 우리의 영은 하나님의 소산이므로 정결하게 지켜야 한다. 우리의 육체를 하나님의 성전처럼 존중함으로써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를 나타내 보이며, 또한 성신이 거하는 곳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육체를 정결하게 지킬 수 있다. 우리가 육신을 돌보는 방법에 따라 우리는 영적으로도 영향을 받는다고 강조한다.)
- 반원들과 함께 교리와 성약 89편 4절을 읽는다. 이 구절은 주님께서 지혜의 말씀을 주신 이유에 대해 무엇을 가르쳐 주는가? 지혜의 말씀에 언급된 해로운 물질과 관련해서 “마지막 날에 음모를 꾸미는 자들의 마음속에 ... 존재할 악과 의도”의 예에는 어떤 것이 있는가?(이러한 물질들을 사용하면 행복과 성공에 이르게 될 것이라는 광고와 연예물로 인한 허위 진술 등이 포함된다.)
- 지혜의 말씀은 어떻게 우리에게 대한 하나님의 사랑의 표시가 되는가? 그것은 어떻게 조셉 스미스가 선지자요 선견자임을 나타내 주는가?(주님께서 지혜의 말씀을, 그 원리의 정확성이 과학적 연구로 완전히 입증되기 오래 전에 선지자 조셉 스미스에게 계시하셨다고 설명한다. 이 계시는 현재 널리 남용되고 있는 물질들을 예견했다. 이 계시는 오늘날 특별한 문제에 대비하여 우리에게 경고하고, 우리를 보호해 준다.)

## 2. 몸에 해로운 것에 대한 주님의 권고

*교사 유의 사항:* 이 공과의 제 2편 및 3편을 가르칠 때 여러분은 주님이 계시하신 건강의 기본 원리에 초점을 맞춘다. 유행하고 있는 건강법이라든지 특별한 다이어트라든지 기타 종류의 음식 및 음료 등의 토론을 피한다. 주님께서 우리가 취해야 할 것과 취해서는 안 될 모든 것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았음을 강조한다. 조셉 필딩 스미스 회장은 “그런 계시는 필요하지 않습니다.”라고 말했다. “지혜의 말씀은 기본적인 율법입니다. 이것은 길을 가리켜 주고 식품과 음료 모두에 관하여 ... 충분한 가르침을 줍니다. 우리가 주님의 영의 도움을 받아 기록된 것을 정성껏 따른다면 ... 우리는 어떤 것이 인체에 좋고 나쁜 것인지 알게 될 것입니다.”(“Your Question: The Word of Wisdom”, *Improvement Era*, 1956년 2월호, 78~79쪽)

철판에 몸에 해로운 것이라 적고 다음 성구를 적는다. 반원들과 함께 각 성구를 읽는다. 그런 다음, 인체를 위한 것이 아닌 것을 나타내는 물질을 나열한다.

- ㄱ. 교리와 성약 89:5~7.(포도주나 독한 음료)
  - ㄴ. 교리와 성약 89:8.(담배)
  - ㄷ. 교리와 성약 89:9.(차와 커피를 뜻하는 뜨거운 음료)
- 이 물질 외에도 우리가 해서는 안 되는 것을 설명한다.
- ㄱ. 불법적인 마약이 함유된 물질 사용
  - ㄴ. 전문의의 처방을 받지 않은 습관성 물질의 사용
  - ㄷ. 처방약 및 그밖의 약품의 오용

- 이러한 해로운 물질을 사용한 결과는 무엇인가?(육체적, 영적 결과에 대해 토론한다. 술과 담배에 관한 아래의 말씀이 그 예가 된다. 여러분이 청소년을 가르치고 있다면, 소책자, *청소년의 힘을 위하여*[36550 320], 36~37쪽을 참조할 수 있다.)

제일회장단은 다음과 같이 선포했다. “독한 음료에 취한 채 인간은 이성을 잃었습니다. 그들의 권고는 파기되었고 그들의 판단과 이상은 사라졌습니다. ... 술은 세상이 겪었던 모든 전쟁보다 더 큰 비애와 불행을 불러왔으며, 더 큰 비탄에 잠기게 했으며, 가정을 더 많이 파괴시켰고, 더 많은 범죄를 행하게 했으며, 더 많은 죽음의 원인이 되었습니다.”(Conference Report, 1942년 10월, 8쪽)

담배는 해마다 전세계적으로 250만 건에 달하는 조기 사망의 원인이 되고 있다. 흡연은 또한 수백만의 무죄한 희생자들에게 해를 끼치고 있다. 예를 들면, 임신한 어머니의 흡연으로 태아에게 전달된 유독 화학 물질은 태아의 발육을 해치며, 매년 약 300만 명의 갓난아이들을 위협하고 있다. 이 아기들은 저체중과 신경 계통 및 지능 발달의 지연 그리고 조기 사망의 위험성이 높다. 정기적인 간접 흡연자도 무고한 희생자에 포함된다. 이들은 호흡기 질환에 걸릴 확률이 훨씬 높으며, 간접 흡연을 하지 않는 사람보다 폐암 사망의 가능성이 세 배나 높다. 흡입하거나 씹는 담배도 쉼만큼 중독성이 있으며, 흡연자는 비흡연자보다 50배나 높은 암 발생율을 가지고 있다. (제임스 오 메이슨, “I Have a Question”, *Ensign*, 1986년 9월호, 59~61쪽 참조)

- 지혜의 말씀에서 금지되어 있는 물질의 사용이 세상 도처에, 특히 청소년 가운데서 급증하고 있다. 광고는 어떻게 이러한 물질의 사용을 부추기는가?(그런 광고의 거짓 메시지를 토론한다.) 동료들이나 그 밖의 사람들은 이 물질을 사용하도록 어떻게 부추기는가?(“조금인데 해가 될 리 없지”, “단 한 번인데 해 될 건 없어”, “다들 이렇게 하고 있어”, “아무도 모를거야” 등의 권유를 거절할 방법을 토론할 수 있다.) 이런 물질을 사용하도록 유혹하는 그 밖의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 지혜의 말씀을 조금 어기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 어떻게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가?
- 해로운 물질 사용에 대한 유혹에 대항하여 우리 자신을 어떻게 강화할 수 있는가?(반원들에게 지혜의 말씀을 어기라는 유혹에 저항한 경험을 이야기해 보게 한다.) 청소년들은 지혜의 말씀에 순종하도록 서로에게 어떻게 도움을 줄 수 있는가?
- 부모는 어떻게 효과적으로 지혜의 말씀을 자녀들에게 가르치며, 이를 순종하도록 도울 수 있는가?
- 지혜의 말씀에서 금지된 해로운 물질이 중독성을 유발한다. 이러한 물질에 중독되는 것은 왜 위험한가? 어떻게 마약 및 해로운 물질의 중독을 극복할 수 있는가?

중독과 싸우는 사람들에게는 희망이 있음을 강조한다. 중독을 극복하는 데에는 회개와 주님의 도움과 함께 일반적으로 극복하겠다는 개인의 강한 소망과 자제가 크게 요구된다. 가족, 친구 및 교회 지도자들 또한 도움을 줄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전문적인 도움이 필요할 수도 있다. 반원들에게 해로운 물질에 중독된 사람이 이를 극복한 사례를 이야기하게 한다.

### 3. 몸에 유익한 것에 대한 주님의 권고

칠판에 몸에 유익한 것이라 적고 아래 성구들을 적는다. 반원들과 함께 각 성구를 읽는다. 그런 다음, 참조 성구 옆에 그 성구를 요약한다. 몸에 좋은 식품의 사진을 준비했으면 지금 보여 준다.(“준비 사항” 4 참조)

- ㄱ. 교리와 성약 89:10.(몸에 유익한 야채류—건강에 좋은 모든 채소와 식물)
- ㄴ. 교리와 성약 89:11.(과일)
- ㄷ. 교리와 성약 89:12. 또한 교리와 성약 49:19 참조.(짐승과 공중의 새의 고기)
- ㄹ. 교리와 성약 89:14~17.(곡물류)
- ㅁ. 교리와 성약 88:124.(일찍 잠자리에 들어가 피로를 풀고 일찍 일어남—적당하게 수면을 취함)
- “신중하게” 음식을 사용하라는 것은 무슨 뜻인가?(교리와 성약 89:11. 또한 교리와 성약 59:18~20 참조. 우리의 신체에 영양을 공급해 주는 음식을 먹으며, 먹는 음식의 종류와 양에 대해 중용을 취해야 한다.) “감사하면서” 음식을 사용하라는 뜻은 무엇인가?(교리와 성약 89:11) 우리는 주님이 주신 음식에 대해 어떻게 감사를 표할 수 있는가?
- 주님께서는 고기 사용에 대해 어떤 지침을 주셨는가?(교리와 성약 89:12; 교리와 성약 49:19, 21 참조) 곡물류 사용에 대해 주님께서 주신 지침은 무엇인가?(교리와 성약 89:14, 16 참조)
- 잠자는 것에 대해 주님께서는 어떤 권고를 주셨는가?(교리와 성약 88:124 참조) 적당한 수면은 어떻게 육체적으로나 영적으로 우리에게 영향을 주는가?

브리검 영 회장은 다음과 같이 말씀했다. “성도들이 장수를 누리고 건강하기를 바란다면 이를 치의 일을 하루만에 하기보다는 열심히 일한 다음에는, 육체가 완전히 지치기 전에 육체에 휴식을 주어야 합니다. 이것이 지혜입니다. 육체가 지칠 때, 일부 사람들은 더 많은 힘을 내기 ... 위해 자극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종류의 자극제를 사용하는 대신에 그들은 휴식으로 다시 새로운 활력을 얻을 수 있습니다.”(교회 회장들의 가르침, 브리검 영, 212쪽)

#### 4. 지혜의 말씀의 순종에 대한 약속된 축복

주님께서는 지혜의 말씀을 “약속이 따르는 원리”로 계시하셨다.(교리와 성약 89:3) 칠판에 약속된 축복이라 적고 아래의 성구를 적는다. 반원들과 함께 각 성구를 읽는다. 그런 다음 참조 성구 옆에 각 약속을 적는다.

- ㄱ. 교리와 성약 89:18.(육체의 건강)
- ㄴ. 교리와 성약 89:19.(지혜와 지식의 큰 보화)
- ㄷ. 교리와 성약 89:20.(달려도 피곤하지 아니하며 걸어도 지치지 않는 능력)
- ㄹ. 교리와 성약 89:21.(떨하는 천사로부터 보호받음)

- 지혜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축복 받았는가?(반원들에게 자신들이 받은 현세적 및 영적 축복을 이야기해 보게 한다.)

일반적으로 지혜의 말씀에 순종한 자들이 그렇지 않은 자들보다 더 오래, 더 훌륭한 삶을 살게 된다고 지적할 수 있다. 그러나 일부 사람들은 지혜의 말씀에 순종함에도 불구하고 심한 병에 걸리거나 장애를 갖게 되기도 한다. 그런 사람들은 비록 육체적 고난이 계속된다 하더라도 지혜의 말씀에 순종한데 대한 영적인 축복을 받을 수 있다. 게다가 주님의 약속은 영원을 위한 것이며, 이 세상에서 모든 약속된 축복을 받지 못한 자들은 내세에서 그 축복을 받게 될 것이다.

- 지혜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지혜와 지식의 큰 보화, 참으로 감추인 보화도 찾”(교리와 성약 89:19)게 함을 보여 주는 몇 가지 사례는 무엇인가?(지혜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어떻게 사람의 정신적 능력에 도움을 주는가를 토론한다. 또한 그것이 어떻게 간증이나 거룩한 진리에 대한



지식, 개인 계시, 축복사의 축복 및 성전 의식과 성약 등과 같은 지식의 영적인 보화를 받게 해 주는가를 토론한다.)

십이사도 정원회의 보이드 케이 패커 장로는 다음과 같이 말씀했다. “나는 지혜의 말씀의 기본 목적이 계시와 관계가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 [해로운 물질]의 영향을 받는 사람들이 쉬운 말도 거의 알아듣지 못하는데 가장 예민한 느낌에 영향을 미치는 영의 속삭임을 어떻게 들을 수 있겠습니까? 지혜의 말씀이 건강의 율법으로서 소중한 것이기는 하지만 그 법은 여러분의 신체적인 면에서보다는 오히려 영적인 면에서 훨씬 더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성도의 벗, 1980년 3월호, 31쪽)

- 교리와 성약 89편 20절에 나와 있는 주님의 약속은 육체적으로 어떻게 우리에게 적용되었는가? 정신적으로, 정서적으로는 어떻게 적용이 되었는가?(정신적, 정서적 힘과 극기심과 자급 자족하는 능력을 키워 나가게 된다.) 주님의 약속은 영적으로 어떻게 우리에게 적용되었는가?(히브리서 12:1~3 참조. 유혹에 저항하며, 영생을 향해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는 힘을 키워 나가게 된다.)

- 교리와 성약 89편 21절에 나와 있는 주님의 약속은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이 되었는가?

고대 이스라엘 자녀들이 애굽을 탈출하기 바로 전에 백성들은 선지자 모세의 말에 순종하여 어린양의 피를 집 문설주에 발라 표시했으므로 멸하는 천사가 이스라엘 집안의 장자를 지나쳐 갔다고 설명한다.(출애굽기 12장 참조)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도 지혜의 말씀을 비롯한 계명에 순종하여 생활할 때, 멸하는 천사가 우리 곁을 지나쳐 갈 것이다. 이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피를 통해 영적 사망에서 구원받으며, 영생의 축복을 받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성도의 벗, 1996년 7월호, 19쪽 참조)

## 결론

주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현세적, 영적 복지를 염려하시기 때문에 지혜의 말씀을 주셨음을 강조한다. 지혜의 말씀은 육체적 건강의 규칙 이상의 것이다. 이는 또한 위대한 영적인 축복의 열쇠가 된다. 반원들에게 자신들의 신체를 건강에 대한 주님의 권고에 따라 최대한 잘 다루고 있는지를 평가해 보라고 권유한다. 이 권고를 따를 때 주님께서는 우리를 현세적으로, 영적으로 축복하시겠다는 약속을 이루어주실 것이라고 간증한다.

## 추가로 가르칠 개념

여러분은 제언된 공과 개요를 보충하기 위해 다음의 개념들 중 한 가지 이상을 활용할 수 있다.

### 1. 지혜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세상의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함

- 제7대 교회 회장인 히버 제이 그랜트 회장은 다음과 같이 말씀했다. “지혜의 말씀은 세상 사람들이 순종만 한다면 모든 나라의 경제적 문제를 해결해 줄 것입니다.”(Conference Report, 1936년 4월, 48쪽) 여러분은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하는가?

해로운 물질을 생산하고, 그것을 광고하고, 그 사용의 결과를 처리하는 데 사용되는 땅이나 돈이나 기타 자원의 양을 생각해 본다. 예를 들면, 1985년 미국에서 흡연과 관련된 건강 관리와 생산력 손실 비용은 거의 650억 달러에 달했다.(*Ensign*, 1986년 9월호, 61쪽) 술을 만들고 먹는 데 드는 비용 또한 매우 높다. 이 자원들을 파괴적 목적이 아닌 유익한 목적을 위해 사용할 때 경제에 미치는 잠재적인 영향을 생각해 본다.

## 2. 지혜의 말씀을 준수함으로써 더해지는 혜택

사회 과학자들은 지혜의 말씀을 포함하여 복음을 생활화하는 교회 회원들이 다른 사람들보다 결혼 생활의 행복도나 가정 생활에서의 만족도가 더 높을 가능성이 있음을 발견했다. 그들은 혼전 성 관계나 혼외 정사, 우울증, 직무 태만, 이상 성격이나 반사회적인 행동의 가능성도 훨씬 적다. (로버트 엘 밀레와 노엘 비 레이놀즈, eds. *Latter-day Christianity: 10 Basic Issues* [소책자, 1998년], 46~47쪽 참조)

## 3. 지혜의 말씀을 준수함으로써 선교사들은 권능으로 가르칠 수 있음

지혜의 말씀을 준수한 어느 선교사는 기대 밖의 축복을 받았다. 한 남자에게 지혜의 말씀을 가르치고 있을 때, 그 남자는 그 선교사의 눈을 들여다보며 이렇게 물었다. “당신은 마약을 시도한 일이나 담배를 피우거나 어떤 형태로든 술을 맛본 일이 전혀 없다고 제게 말하는 겁니까?” 그 선교사는 그 남자를 똑바로 쳐다보며 강한 어조로 말했다. “예, 전혀 없습니다.”

훗날 그 선교사는 그때의 경험을 이렇게 말했다. “그 순간 한 권능이 저를 꿰뚫고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지혜의 말씀을 항상 지켜 온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제 생애에 그러한 순간이 왔을 때, 제가 언제나 순종해 왔기 때문에 지혜의 말씀의 중요성에 대한 강한 간증을 할 수 있었던 것을 감사해 하고 있습니다.”

## 4. “힘과 수단 이상으로 더 빨리 달음질하거나 더 일하지 말라”(교리와 성약 10:4)

- 교리와 성약 10편 4절에서 주님은 조셉 스미스에게 어떤 권고를 주셨는가?(모사이야서 4:27 참조) 이 권고는 우리의 건강에 어떻게 적용되는가? 이 권고를 무시하는 것에 따르는 위험은 무엇인가?

## 5. 문신 및 비정상적인 신체 무늬

사도 바울은 우리의 육신이 주님께 거룩한 것이며 성령이 거하는 주님의 성전이라고 가르쳤다.(고린도 전서 3:16; 6:19~20) 해로운 물질을 취함으로써 우리 몸을 더럽히지 않아야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는 문신을 하거나 비정상적으로 뚫어 신체의 외부를 더럽히지 않아야 한다. 그렇게 변형시킬 때 그에 따르는 육체적, 사회적, 영적인 면의 부정적인 결과가 있을 수 있다.(데이비드 에이버튼, “I Have a Question?”, *Ensign*, 1999년 2월호, 52~53쪽)

# “연구와 또한 신앙으로 학문을 구하라”

제 23 과

**목적** 반원들이 평생에 걸쳐 “연구와 또한 신앙으로” 배우도록 격려한다.(교리와 성약 88:118)

**준비 사항**

1.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공과에 나와 있는 성구를 공부한다.
2. 반원 학습 지도서(35686 320)에서 본 공과에 대한 자료를 살펴본다. 공과 시간에 자료를 참조할 수 있는 방법을 계획한다.
3. 주의 집중 활동을 할 경우, 반원 한 명에게 부탁하여 학문(배움)의 축복을 보여 주는 경험 한 두 가지를 이야기하도록 준비시킨다.

## 공과 전개 제언

**주의 집중 활동** 적절한 경우, 공과를 시작하기 위해 다음 활동이나 여러분 자신이 준비한 활동을 활용한다.  
반원 한 명에게 학문(배움)의 축복에 대해 간단히 이야기하게 한다.(“준비 사항” 3 참조)  
반원의 이야기가 끝난 뒤, 이 공과는 우리의 삶에서 학문이 차지하는 중요성을 토론한다고 설명한다.

**토론과 적용** 기도하는 마음으로 반원들의 필요 사항에 가장 잘 맞는 공과 자료를 선정한다. 반원들이 학문에 관련된 경험을 나누도록 격려한다.

### 1. 선지자의 학교는 학문(배움)에서 우리가 따를 본보기를 보여 준다.

이 경륜의 시대에 주님께서 영적 및 세상적 학문의 필요성을 크게 강조하신 사실을 지적한다.

주님께서 오하이오 주 커틀랜드에서 선지자 조셉 스미스에게 선지자의 학교를 시작하라고 지시하셨다. 선지자 학교는 1833년 1월에 커틀랜드에 있는 뉴얼 케이 휘트니 상점 위층의 작은 방에서 시작됐다.(128쪽 그림 참조) 여기서 교회 지도자들은 복음 교리 및 교회의 제반 문제들과 기타 문제들에 관한 교육을 받았다. 이들은 교회 지도자와 선교사로 봉사할 준비를 해야 했다.(교리와 성약 88:77~80)

이 모임들을 갖는 동안 영적인 경험의 분위기가 마련되고, 복음 원리에 대한 깊은 토론이 이루어졌다. 몇 차례 계시를 받았다. 교회사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계시된 일들과 하나님의 지식에 대한 발전 때문에 선지자 학교에 참석한 분들과 성도들의 얼굴에 큰 기쁨과 만족의 빛이 계속 넘쳤다.”(교회 정사, 1:334)

- 교회에서 우리는 어떤 배움의 기회를 갖게 되는가? 교회 모임에서 배움 준비를 더 잘 하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는가?
- 반원들과 함께 교리와 성약 88편 122~125절을 읽는다. 주님께서 선지자 학교의 형제들에게 무엇을 명하셨는가? 그들에게 무엇을 하지 말도록 명하셨는가?(반원들의 대답을 칠판에 적는다.)

우리는 이 구절에서 서로 가르치는 방법에 대해 무엇을 배울 수 있는가? 이 구절은 우리가 서로에게서 배워야 하는 것에 관해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뉴얼 케이 휘트니의 상점.** 선지자 학교는 오하이오 주 커틀랜드의 이 상점 위층의 작은 방에서 열렸다. 지혜의 말씀으로 알려지게 된 계시는 다른 계시들과 함께 여기서 받은 것이다.

## 2. 우리는 “연구와 또한 신앙으로” 배워야 한다.

- 반원들과 함께 교리와 성약 88편 118절을 읽는다. 배우려는 우리의 노력에서 왜 연구와 신앙, 두 가지가 다 필요한가?(아래 인용문 참조) 신앙은 어떻게 우리의 학습 능력을 증진시키는가? 하나님을 믿는 신앙 없이 또 계명에 순종하지 않고 배우는 것의 위험은 무엇인가?(디모데후서 3:7; 니파이후서 9:28~29 참조)

매리온 지 롬니 회장은 이렇게 말씀했다. “저는 학문을 구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저는 인간이 학문을 통하여 많이 배운다고 생각합니다. … 그러나 저는 학문의 습득은 신앙에 의해 크게 향상된다는 사실도 알고 있습니다.”(*Learning for the Eternities*, comp. 조지 제이 롬니[1977년], 72쪽)

- 복음 공부에 더하여 우리는 역사나 과학, 양질의 문학 등 다른 분야의 학습도 추구해야 한다. 이러한 공부는 어떻게 여러분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가?
- 어떤 종류의 지식이 가장 가치가 있는가? 복음 학습과 다른 가치 있는 학문 사이의 관계는 어떤 것이어야 하는가?

제3대 교회 회장인 존 테일러 회장은 다음과 같이 말씀했다. “우리는 모든 종류의 교육과 예지를 길러야만 합니다. 문학적 취향을 기르고, 문학과 과학에 재능이 있는 사람은 그 재능을 향상시키며, 모든 사람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은사를 모두 키워야 합니다. … 도덕이나 종교나 과학에 칭찬 받을 만한 좋은 것이 있거나 인간을 높여 주고 고상하게 해 줄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추구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얻는 것과 아울러 우리는 이해, 즉 하나님으

로부터 오는 이해력을 얻기를 원합니다.”(*The Gospel Kingdom*, sel. 지 호머 더햄 [1943년], 277쪽)

십이사도 정원회에서 봉사하고 있을 때 고든 비 힝클리 회장은 “내게 배우라”(마태복음 11:29)란 주님의 권고를 인용하는 말씀을 했다.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에게서 받은 권고에 따라 권유드립니다. 여러분은 많이 배웠겠지만 그분에 대하여 공부하십시오. 여러분이 공부를 많이 했겠지만 주님으로부터 지식을 구하십시오. 그 지식이 여러분이 받고 있는 세속의 교육을 늘려주는 방법으로 보완해 줄 것이며, 다른 어떤 방법으로도 올 수 없는 만족을 인품과 인생에 가져다줄 것입니다.”(Conference Report, 1964년 10월, 118쪽)

- 여러분은 하나님의 일에 관한 지식이 가장 중요한 지식임을 경험한 적이 있는가?

### 3. 우리는 전 생애 동안 배움을 계속해야 한다.

주님과 그분의 선지자들은 항상 배움의 중요성을 강조해 왔다고 지적한다. 우리는 전 생애 동안 계속해서 배워야 한다.

십이사도 정원회의 러셀 엠 넬슨 장로는 이렇게 말씀했다. “우리는 모든 사람의 예지를 성스럽게 생각하기 때문에 교육을 받는 것을 종교적인 책임으로까지 생각합니다. ... 우리의 창조주께서는 어디에 있는 자녀들이건 교육받기를 기대하십니다.”(*성도의 빛*, 1993년 1월호, 6쪽)

칠판에 다음 질문을 적는다.

우리는 왜 배워야 하는가?      우리는 무엇을 배워야 하는가?      우리는 어떻게 배울 수 있는가?

반원들과 함께 아래의 성구를 읽는다. 반원들에게 칠판에 있는 질문의 답을 찾아보게 한다. 그들의 답을 해당 질문 밑에 적는다.

|                 |                      |                  |
|-----------------|----------------------|------------------|
| 교리와 성약 6:7      | 교리와 성약 88:76~80, 118 | 교리와 성약 130:18~19 |
| 교리와 성약 11:21~22 | 교리와 성약 90:15         | 교리와 성약 131:6     |
| 교리와 성약 19:23    | 교리와 성약 93:36~37, 53  | 교리와 성약 136:32~33 |

- 우리는 왜 그렇게 다양한 것들을 배우도록 명령받았다고 생각하는가?

고든 비 힝클리 회장은 교육의 가치에 대해 젊은이들에게 이렇게 가르쳤다. “청남 청녀 여러분이 받을 수 있는 모든 교육을 받는 것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주님은 그의 백성들이 교육 과정을 통해 연구와 신앙으로 여러 나라와 왕국과 세상의 일들에 관한 지식을 습득해야 한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교육은 여러분에게 기회의 문을 열어 주는 열쇠입니다. 교육은 희생하고 노력할 만한 가치가 있는 일입니다. 만일 지식을 넓히고 기술을 익히면 자신이 속한 사회에 크게 기여할 수 있으며 여러분이 회원으로 있는 교회에 영예로운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최대한으로 여러분이 이용할 수 있는 모든 교육 기회를 잘 활용하십시오. 또한 어머니 아버지 여러분은 아들 딸에게 그들의 삶에 축복이 될 교육을 받으라고 권유하십시오.”(*리야호나*, 1999년 6월호, 6쪽)

- 우리에게서 정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어떤 기회가 있는가?(중등학교, 직업학교, 전문대 및 대학교 등이 포함될 수 있다.) 정규 교육은 우리의 삶에 어떤 유익을 주는가? 정규 교육의 기회를 잘 활용하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는가?
- 브리검 영 회장은 “우리 교육은 우리 마음을 향상시키고 우리가 더욱 유용한 사람이 되도록 해주는 것이어야 하며, 우리가 인간 가족에게 더욱 잘 봉사할 수 있게 하는 것이어야 합니다.”라고

가르쳤다. (*Discourses of Brigham Young*, sel. 존 에이 윗소 [1941년], 255쪽) 교육은 어떻게 가족에게 봉사하게 할 수 있는가? 교육은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봉사할 수 있게 하는가? 교육은 하나님의 왕국을 건설하기 위해 노력할 때 어떻게 우리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가? 반원들에게 교육이 그들의 봉사 노력에 힘이 되었던 경험을 나누게 한다.

- 반원들과 함께 교리와 성약 90편 15절을 읽게 한다. 좋은 책에서 공부함으로써 여러분의 삶은 어떻게 풍요로워졌는가?
- 자녀 교육에 관한 부모의 책임은 무엇인가?(교리와 성약 68:25~28 참조. 부모는 자녀에게 복음을 가르칠 엄중한 책임이 있음을 강조한다. 부모는 자녀들에게 건강을 유지하고, 부지런히 일하며, 다른 사람들과 잘 지내며, 금전을 관리하고 훌륭한 교육을 받는 등의 실용적인 기술을 가르쳐야 한다.)
- 부모는 자녀가 전생애 동안 학문을 사랑하는 마음을 발전시키도록 어떻게 격려할 수 있는가?

십이사도 정원회에서 봉사하던 시절, 고든 비 힝클리 장로는 자녀에게 독서를 권유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여러분은 자녀들이 독서를 하려고 하는 것을 압니다. 책도 읽고, 잡지나 신문도 읽을 것입니다. 그들이 가장 좋은 책을 읽는 취미를 갖게 하십시오. 자녀가 아주 어렸을 때에 위대한 이야기를 읽어 주십시오. 그 이야기는 덕을 가르쳐 주기 때문에 오래 기억될 것입니다. 그들 앞에 좋은 책을 보이십시오. 아무리 집이 작더라도 집안 한 구석에 자리를 마련하여 자녀들에게 위대한 마음을 키워 주는 양서를 몇 권 놓아 두십시오.”(성도의 벗, 1976년 2월호, 34쪽)

토마스 에스 몬슨 회장은 어린 아이들이 경전의 가르침을 이해할 수 있음을 우리에게 상기시켰다. “행복한 가정의 ... 표시는 가정이 배움의 장소가 될 때 발견될 수 있습니다. ... 주님께서 이렇게 권고하셨습니다. ‘가장 좋은 책에서 지혜의 말씀을 구하라. 참으로 연구와 또한 신앙으로 학문을 구하라’ (교리와 성약 88:118) 표준 경전은 제가 말씀드리는 도서관의 역할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이해하는 자녀들의 능력을 과소 평가해서는 안 됩니다.”(성도의 벗, 1989년 1월호, 77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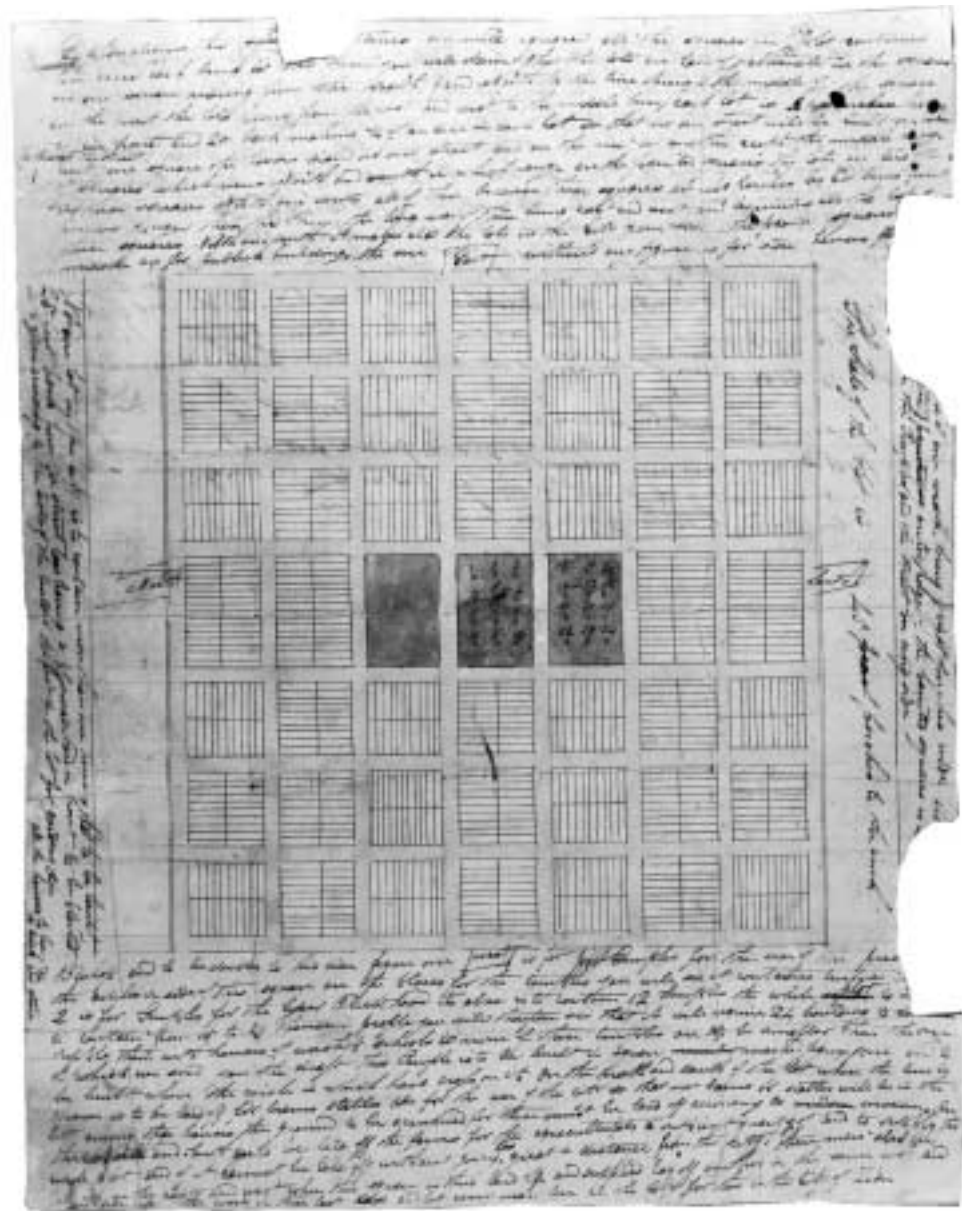
여러분이 자녀 교육에 대해 더 구체적으로 토론하기를 원하는 경우, 1999년 판 *교사, 가장 중요한 부름*(36123 320)의 127~143쪽을 참조할 수 있다. 이 교재의 제45과에서도 자녀를 가르치는 부모의 책임에 대해 나와 있다.

- 우리는 어떤 종류의 독서를 피해야 하는가?  
십이사도 정원회에서 봉사할 때 에즈라 태프트 벤슨 회장은 다음과 같이 가르쳤다. “오늘날 우리 주변의 많은 책들 가운데 읽지 말아야 할 책을 아는 것은 참된 교육을 받은 사람의 징표가 됩니다. ... 가장 좋은 책만을 읽으십시오. 존 웨슬리의 어머니는 아들에게 ‘무엇이든지 네 이성을 약화시키고, 부드러운 양심에 손상을 입히며, 하나님에 대한 감각을 모호하게 하고, 영적인 것에 대한 너의 열의를 빼앗으며 ... 육체의 권능이 마음을 정복하는 것은 피하라’고 권고했습니다.”(주님의 발자취, 1979년 올해의 영적인 말씀, 61쪽)
- 정규 교육을 받고 좋은 책을 읽는 것에 더하여 우리는 전생애 동안 학문을 계속 추구하기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가?

#### 4. 성전에서 우리는 영원을 위한 교육을 받는다.

1833년, 6월말에 선지자 조셉 스미스는 미주리 주 인디펜던스의 성도들에게 시온 도시 건축의 설계도를 보냈다.

아래에 있는 시온 도시의 설계도를 보여 준다. 성도들은 도시의 중앙에 성전을 세우게 되어 있었다. 비록 시온 도시를 세울 수는 없었지만 성도들은 솔트레이크시티 건설에 이 개념을 도입했다.



시온 도시의 설계도. 성전 부지가 가운데 있다.

- 시온 도시 중앙에 성전을 세우는 설계도에서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 있는가?(성전은 교회 회원에게 배움의 중심이다. 우리는 성전을 삶의 중심에 세워야 한다.)
- 회원들과 함께 교리와 성약 88편 119절을 읽는다. 성전이 “학문의 집”임을 강조한다. 성전에 참석할 때 주님은 어떤 방법으로 우리를 가르치시는가? 성전에서 얻을 수 있는 지식을 배우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십이사도 정원회에서 봉사했던 존 에이 윌소 장로는 다음과 같이 가르쳤다. “성전은 가르침의 장소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복음의 원리를 복습하며, 이곳에서 하나님 왕국의 심오한 진리가 펼쳐집니다. 올바른 영으로 성전에 들어가서 주의를 기울인다면 우리는 복음의 지식과 지혜가 충만

한 가운데 성전을 나올 수 있습니다.”(“성전을 바라봄”, *Ensign*, 1972년 1월호, 56~57쪽)

십이사도 정원회의 보이드 케이 패커 장로는 다음과 같이 말씀했다.

“성전은 위대한 학교이며, 배움의 집입니다. 성전에서는 심오한 영적인 일에 관한 것을 가르치기 위한 이상적인 장소가 되도록 분위기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성전 의식은 한 번 성전에 가는 것으로는 충분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부분적으로만 이해할 수 있을 뿐입니다. 다시 가고 또다시 가서 배워야 합니다. 그러기를 거듭할 때 여러분의 마음을 어지럽게 했던 것이나 풀지 못했던 일들과 신비스러웠던 것들을 차츰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일은 대체로 다른 사람에게 설명할 수 없는 은밀하고 개인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에게 알려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전을 바라보십시오. 자녀에게 성전을 바라보도록 하십시오. 자녀들이 어렸을 때부터 성전에 관심을 갖게 하십시오. 그리고 그들이 자라 거룩한 성전에 들어갈 날을 위한 준비를 시작 하십시오

“한편으로는 자신이 가르침을 받아들이기 준비를 하고 경건하십시오. 성전에서만 받을 수 있는 상징적이며 심오한 영적인 가르침을 잘 배우십시오.”(거룩한 성전 [소책자], 5~8쪽)

반원들에게 성전 의식은 거룩한 것임을 상기시킨다. 이 의식들의 구체적인 부분들을 성전 밖에서 이야기하지는 않아야 한다. 반원들에게 이 원리를 마음속에 간직한 채 다음 질문에 답하게 한다.

- 성전 참석을 통하여 배운 진리들은 무엇인가?

반원들에게 가능한 한 자주 성전에 갈 것을 권유한다. 에즈라 태프트 벤슨 회장은 이렇게 물었다.

“우리는 정기적인 성전 예배로부터 오는 개인적인 축복을 받기 위해 자주 성전에 갑니까? 기도가 응답되고, 계시가 주어지고, 영의 가르침을 받는 일은 주님의 거룩한 성전에서 일어납니다.”(성도의 벗, 1988년 7월호, 92쪽)

## 결론

반원들에게 삶을 풍요롭게 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더 잘 봉사할 수 있도록 전생애에 걸쳐 계속 배우라고 격려한다. “연구와 또한 신앙으로 학문을 구하라”(교리와 성약 88:118)는 주님의 명령을 그들에게 상기시킨다.

영의 속삭임이 있을 때 공과에서 토론된 진리에 대해 간증한다. 여러분에게 주신 배움의 기회에 대한 감사를 포함 수 있다.

---

## 추가로 가르칠 개념

여러분은 제언된 공과 개요를 보충하기 위해서 다음의 개념 중 한 가지 이상을 활용할 수 있다.

### 1. 교리와 성약 88편 121~126절의 권고를 적용함

- 반원들과 함께 교리와 성약 88편 121~126절을 읽는다. 이 성구의 원리가 우리 생활 전반에 걸쳐 도움을 줄 수 있음을 지적한다. 여러분은 이 원리들의 중요성을 보여 주는 어떤 경험을 했는가?

### 2. 알아야 할 모든 것 때문에 압도당하지 않고 배움

- 알아야 할 모든 것 때문에 압도당하지 않고 강박감이 없이 우리는 어떻게 배움을 계속할 수 있는가?



윌포드 우드럽 회장은 이렇게 권고했다. “단번에 모든 것을 배울 수 없다고 실망하지 마십시오. 한 번에 하나씩, 잘 배워서 귀중하게 간직하십시오. 그런 다음 또 다른 진리를 배우고 소중히 간직하십시오. 그렇게 몇 년이 지나면,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과 여러분의 자녀는 물론이고 여러분의 동료들에게도 큰 축복이 될 유용한 지식의 큰 창고를 가지게 될 것입니다.”(*The Discourses of Wiford Woodruff*, sel. 지 호머 더햄 [1946년], 269쪽)

이 토론의 일부로서 교리와 성약 78편 17~18절을 반원들과 함께 읽을 수 있다.

### 3. 세미나리 및 종교 교육원에서 복음을 배움

고든 비 헝클리 회장의 다음 말씀을 전한다. “우리의 위대한 교회 교육 프로그램은 계속 전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세미나리와 종교 교육원을 통한 학생 훈련 사업은 계속 확대되고 있습니다. ... 우리는 이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 모든 분들에게 그 혜택을 받기를 권합니다. 우리는 여러분이 이 프로그램에 참여할 때, 여러분의 복음 지식이 증가되고, 많은 훌륭한 친구들을 사귀어 우정을 맺게 되리라는 것을 확실히 약속드립니다.”(*성도의 빛*, 1994년 7월호, 82쪽)

여러분의 지역에서 세미나리 및 종교 교육원을 이용할 수 있다면 이 토론 동안 시간을 할애해서 청소년 및 청년에게 등록을 권유할 수 있다. 다음 질문을 고려해 본다.

- 세미나리나 종교 교육원에서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었던 경험은 무엇인가?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세미나리나 종교 교육원에 참석하도록 어떻게 격려할 수 있는가?

### 4. 교육을 통해 우리의 재능을 발전시킴

달란트의 비유를 복습한다.(마태복음 25:14~30; 또한 교리와 성약 82:18 참조) 종이에 반원들의 재능과 관심사를 적게 한다. 세상의 교육과 종교 교육이 어떻게 재능과 취미를 발전시키게 해 주는가를 반원들과 함께 토론한다.

**목적** 반원들이 속임수와 배도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을 이해하도록 도와준다.

- 준비 사항**
1. 기도하는 마음으로 교리와 성약 26편, 28편, 43편 1~7절, 50절, 52편 14~19절 및 이 공과에 있는 그 밖의 성구를 공부한다.
  2. **반원 학습 지도서(35686 320)**에서 본 공과에 대한 자료를 살펴본다. 공과 시간에 자료를 참조할 수 있는 방법을 계획한다.
  3. 교회 잡지의 최근호 **리아호나**에 실린 현 총관리 역원의 사진이 실린 도표를 준비한다.
  4. 반원들을 지명하여 공과의 첫 번째 편에 있는 이야기를 발표하게 할 수 있다. 미리 이야기를 복사하여 주도록 한다.

## 공과 전개 제언

**주의 집중 활동** 적절한 경우, 공과를 시작하기 위해 다음 활동이나 여러분 자신이 준비한 활동을 활용한다.

칠판에 다음 구절을 적는다.

*크림 0.5리터(1 파인트)*  
*철자가 틀린 이름*  
*커틀랜드 성전 헌납식에 앉을 자리가 없음*

반원들에게 이 문구들에는 공통점이 있다고 말해준다. 이 문구들에는 초기 교회 회원들이 배도하면서 제시한 이유들이 나와 있다.

오늘의 공과는 개인의 배도를 피하는 방법을 토론하는 것이라고 설명한다. 이 문구들과 여기에 관련된 된 이야기들에 대한 설명은 공과의 뒷부분에 나올 것이다.

**토론과 적용** 기도하는 마음으로 반원들의 필요 사항에 가장 잘 맞는 공과 자료를 선정한다. 선정된 자료가 일상 생활에 적용되는 방법을 토론한다.

### 1. 우리를 배도로 이끌 수 있는 사탄의 속임수를 인식해야 한다.

교회 초기에 일부 성도들은 사탄의 속임수를 받아 배도나 하나님에 대한 반역에 빠지게 되었다고 설명한다. 배도한 몇몇 회원들은 교회의 적이 되어 오하이오와 미주리 주에서의 성도들에 대한 박해의 한 원인이 되었다. 오늘날 교회 회원으로서 우리는 속임을 당하지 않도록 조심하며 충실해야 한다.

- 반원들과 함께 교리와 성약 50편 2~3절 및 니파이후서 2장 18절, 27절을 읽는다. 사탄은 왜 우리를 속이기를 원하는가? 사탄이 우리를 속이고 배도로 이끄는 방법은 무엇인가?(토론하고 반원들의 대답을 보충하기 위해 다음 내용을 활용한다. 칠판에 제목을 적는다.)

### 선지자를 교회에 대한 계시를 받는 원천으로 인식하지 못함

일부 회원들은 거짓 선지자들에 의해 속임을 당한다. 다음의 기사는 일부 초기 성도들이 일시적으로 어떻게 거짓 계시에 의해 속임을 받았는가를 보여 준다.

1830년, 몰몬경의 여덟 증인 중 한 명인 하이럼 페이지가 어떤 돌 하나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는 그 돌로 시온의 건설과 교회의 질서를 위한 계시를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올리버 카우드리와 휘트머 가족 및 여러 사람들이 그 주장을 믿었다. 그러나 선지자 조셉 스미스는 그 주장이 “우리의 최근의 계시는 물론이고 신약에서 수립된 하나님의 집의 질서와는 전혀 반대되는 것”이라고 말했다.(교회 정사, 1:110)

선지자는 그 문제에 대해 기도하였고, 교회의 회장이 교회를 위한 계시를 받을 권리가 있다는 내용의 계시를 받았다.(교회와 성약 28편) 주님께서 올리버 카우드리에게 돌을 통해 왔다는 그 계시는 사탄에게서 온 것임을 하이럼 페이지에게 말하라고 지시하셨다.(교회와 성약 28:11) 주님의 지시를 들은 후에 “참석한 모든 회원들뿐만 아니라 페이지 형제도 전술한 그 돌과 그와 관련된 모든 것을 부정했다.”(교회 정사, 1:115)

### 교만

일부 회원들은 교만 때문에 속임을 당한다. 다음 이야기는 교만이 십이사도 정원회의 회장인 토머스 비 마쉬와 아내인 엘리자베스를 어떻게 배도로 이끌었는지를 보여 준다.

미주리 주 파웨스트에 살고 있을 때 마쉬 자매와 해리스 자매는 각자 치즈를 좀 더 크게 만들기 위해 우유를 교환하기로 했다. 그들은 서로 자기네 젖소에서 짜낸 우유와 크림을 보내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마쉬 자매는 각 젖소에서 크림 1 파인트(약 0.5리터)를 빼낸 다음 크림이 없는 우유를 해리스 자매에게 보냈다.

이 일로 다툼이 생겼고, 이 문제를 감독에게 회부했다. 감독이 마쉬 자매가 합의 사항을 어겼다고 판결하자 마쉬 자매와 그 남편은 화를 내며 이 문제를 고등 평의회에, 그 다음에는 제일회장단에 항소했다. 각 평의회는 마쉬 자매가 잘못했다는 원래의 결정을 승인했다.

토머스 비 마쉬는 아내의 인격을 믿는다고 선언했다. 그로부터 얼마 안 있어 그는 교회를 등졌으며 정부 관리 앞에 가서 후기 성도들이 미주리 주에 대해 적의를 품고 있다고 공언했다.(조지 에이 스미스, *Journal of Discourses*, 3:283~284 참조)

고든 비 힝클리 회장은 이 사건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다. “작은 양의 크림을 놓고 두 여인이 서로 다툰 이 사건은 얼마나 사소하고 하찮은 일입니까? 그러나 이것이 실마리가 되어 보그스 지사는 미주리 주에서 성도들을 추방하도록 근절령을 내렸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비참한 죽음과 고통이 따르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사소한 분쟁을 해결해야 할 사람이 오히려 그것을 부채질해서 ... 교회에서 지위를 잃었고 복음에 대한 자신의 간증을 잃었습니다.”(성도의 벗, 1984년 7월호, 123쪽)

19년이란 암흑과 고통의 세월이 지난 후에, 토머스 비 마쉬는 아픈 마음으로 솔트레이크 계곡으로 가서 브리검 영에게 용서를 빌며 다시 침례를 받을 수 있도록 허락을 구했다. 그는 제일회장단의 제1보좌인 히버 시 킴볼에게 다음과 같이 편지를 썼다. “이제 나는 내 상황을 깨닫기 시작했네 ... 나는 하나님 보시기에 죄를 지었으며 자네의 신뢰도 거스르는 죄를 지었네.” 그런 다음 그는 자신이 배운 교훈을 말했다. “주님은 나 없이도 매우 잘 지내실 수 있었고, 나의 배도로 아무것도 잃으신 것이 없으셨지만 내가 잃은 것은 뭘지 아는가? 이 세상, 혹은 이와 같은 모든 세상에 줄 수 있는 것보다 더 큰 부라네.”(제임스 이 파우스트 회장이 인용함, 성도의 벗, 1996년 7월호, 7쪽)

- 우리는 이 이야기에서 무엇을 배울 수 있는가? 여러분은 교만이 어떻게 사람들을 속임수와 배도로 이끄는지를 본 적이 있는가? 주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는 자들에게 주님은 무슨 약속을 하셨는가?(교리와 성약 112:2~3, 10; 이더서 12:27. 교리와 성약 112편은 선지자 조셉 스미스를 통하여 토머스 비 마쉬에게 주어진 계시임을 유의한다.)

#### 지도자의 불완전함을 비판함

일부 회원들은 교회 지도자들의 불완전함을 비판하는 것으로 속임을 당한다. 다음 이야기는 시몬즈 라이더가 어떻게 속임을 당했는가를 설명해 주고 있다.

시몬즈 라이더는 1831년에 교회에 개종했다. 그 후 그는 조셉 스미스와 시드니 리그돈이 서명한 편지 한 통을 받았는데 그것은 그가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영을 통해 주신 주님의 뜻을 알리는 내용이었다. 그가 받은 편지나 공식적인 복음 전도 임명장에는 그의 이름인 라이더의 y자가 i자로 바뀌어 적혀 있었다. 시몬즈 라이더는 “영을 통하여 복음을 전파하도록 자기를 불렀는데, 그 영이 자기 이름의 철자를 틀리게 적는 잘못을 범할 수 있다면, 자기를 선교 사업을 하도록 부른 것에도 잘못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했다. 다시 말하면, 자신의 이름 철자의 실수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불렀다는 사실 자체를 의심하기에 이르렀던 것이다.”(교회 정사, 1:261) 시몬즈 라이더는 그 뒤, 교회를 떠났다.

- 이 이야기에서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 있는가? 교회 지도자를 비판함으로써 어떻게 더 큰 의심과 속임수에 빠지는가?

#### 성을 냄

일부 교회 회원은 다른 회원들의 행동 때문에 화를 내게 되어 결국 배도에 이르게 되는 부정적인 면을 키우게 된다. 다음 사건에서 그러한 예를 찾아볼 수 있다.

커틀랜드 성전이 완공되자 많은 성도들이 헌납식을 보러 모여들었다. 성전의 좌석은 금방 차 버렸고 많은 사람들이 서 있었지만 건물 안에 모두 수용할 자리가 없었다. 성전 건축에 7백 불을 내었던 프레지어 이튼 장로는 자리가 다 찬 뒤에 도착해서 헌납식장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었다. 헌납식은 첫날에 들어갈 수 없었던 사람들을 위해 다음날도 반복되었지만 그것이 프레지어 이튼을 만족시키지 못했고 그래서 그는 배도했다.(조지 에이 스미스, *Journal of Discourses*, 11:9 참조)

- 이 이야기에서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 있는가? 오늘날 우리는 어떻게 다른 사람 때문에 기분을 상하게 되는가? 성내는 것이 어떻게 배도로 이끌 수 있는가? 우리는 화를 내는 감정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가?
- 반원들과 함께 교리와 성약 64편 8~11절 및 82편 1절을 읽는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누구를 용서하라고 요구하시는가? 용서는 때때로 왜 어려운가? 용서하지 않는 것의 결과는 무엇인가? 우리가 아직 용서하지 않은 사람을 용서하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는가?

#### 불순종을 합리화함

합리화란 용납할 수 없는 행동을 변명하거나 옹호하는 것이다. 그것은 우리가 잘못된 것이라고 알고 있는 것에 대해 우리의 양심을 편하게 만들 방법을 찾고 있는 것이다.

- 합리화는 어떻게 속임수의 한 형태인가? 때때로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행위를 합리화하는가? 이것은 왜 위험한가? 우리는 어떻게 합리화를 인식하고 극복할 수 있는가?

### 세상의 거짓 가르침을 받아들임

- 회원들을 속이고 배도로 이끌 수 있는 세상의 거짓 가르침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하나님의 계명은 너무 제한적이며, 부도덕은 용납할 만하며, 물질의 소유는 영적인 것보다 더 중요하다는 잘못된 개념 등이 포함된다.)

감리 감독단의 데이비드 에이치 버튼 감독은 이렇게 말씀했다. “[사탄의 교활한 작전 중 하나는 무엇이 옳고 그른가에 대해 우리의 감각을 서서히 무디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그는 우리에게 거짓말과 속임수는 일반적인 것이라고 믿게 하려 합니다. 그는 실제 사회 생활을 준비해야 한다는 명목으로 우리에게 외설물을 보도록 부추깁니다. 또한 그는 우리에게 부도덕이 매력적인 생활 양식이며 하나님 아버지의 계명에 순종하는 것은 구식이라고 믿게 하려 합니다. 사탄은 매력적으로 포장되고 주의 깊게 위장된 거짓 선전으로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합니다.”(성도의 벗, 1993년 7월호, 46쪽)

### 2. 우리는 용감하게 간증을 지키며 속임수를 피할 수 있다.

용감하게 간증을 지키고 속임을 당하지 않게 하기 위해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많은 축복과 계명을 주셨다고 설명한다.

- 우리는 속임을 당하여 배도로 이끌리지 않도록 자신을 지키기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이 토론을 발전시키기 위해 아래의 내용을 활용한다.)

우리는 주님께서 교회를 이끌도록 부름을 주신 사람을 분명히 알 수 있음

- 교회 초기에, 자신이 교회를 인도할 계시를 받았다고 주장하거나 선지자 조셉 스미스의 잘못을 지적하는 사람들이 많았다. 주님은 이런 주장들에 대한 응답으로 무엇을 계시하셨는가?(교리와 성약 28:2, 6~7; 43:1~3 참조. 교리와 성약 28편은 하이럼 페이지가 교회 전체를 위한 계시를 받았다고 주장할 때 주신 계시이며, 교리와 성약 43편은 다른 사람들이 이와 유사한 주장을 했을 때 주신 계시이다.)

- 오늘날 교회 전체를 위한 계시와 계명은 누가 받는가?

조셉 에프 스미스 회장과 그의 두 보좌들은 이렇게 가르쳤다. “주님께서는 한 시대에 한 명을 지명하시어 교회의 조직과 권세, 의식 및 교리와 관련하여 교회 전체를 위한 계시의 열쇠를 지니게 하셨습니다. 계시의 영은 그 영감을 받는 각 개인의 유익과 이해력을 위하여 모든 회원들에게 주어지며 또 그 사람이 일하도록 부름을 받은 영역에 따라 주어집니다. 그러나 교회 전체를 위해서는 머리에 계신 사람만이 계명으로써 계시를 받고 또 논쟁을 종료시키도록 지명되었습니다.”(교회 회장들의 가르침: 조셉 에프 스미스, 226쪽)

- 우리는 교회를 위해 계시를 받았다고 거짓 주장하는 사람들의 속임수를 어떻게 피할 수 있는가?(교리와 성약 43:4~7 참조)
- 반원들과 함께 교리와 성약 26편 2절 및 28편 13절을 읽는다. 만장 일치의 원칙은 무엇인가?(교리와 성약 20:65; 42:11 참조. 일반적으로 오른손을 들어 교회에서 봉사하도록 부름 받는 자를 기꺼이 지지하겠다는 것을 보여 주는 관행이다.) 만장 일치의 원칙은 어떻게 우리가 속임을 당하지 않도록 보호할 수 있는가?(교회를 감리하고 운영하도록 부름 받은 자를 알게 되어 정당하게 부름 받지 않은 자들의 주장에 속지 않게 된다.)

현 총관리 역원의 사진이 실려 있는 도표를 보여 준다. (“준비 사항” 3 참조) 이 지도자들을 지지하고 그들의 권고에 따르는 데서 오는 축복을 강조한다.

#### 우리는 경전 및 교회 교리를 공부해야 함

- 반원들과 함께 교리와 성약 1편 37절 및 33편 16절을 읽는다. 주님께서는 교리와 성약 전체에 걸쳐 경전 공부의 중요성을 가르치고 계신다고 설명한다. 경전과 후기의 선지자들의 말씀을 공부함으로써 우리는 어떻게 속임을 피할 수 있는가?(아래에 열거된 답들을 들 수 있다.)

ㄱ. 우리가 경전 및 현재의 지도자들로부터 배운 진리들과 비교해 봄으로써 그 진실성을 더 잘 판별할 수 있다.

해롤드 비 리 회장은 다음과 같이 가르쳤다. “만일 어떤 사람이 교회 표준 경전에 있는 것 이외에 어떤 것을 기록하거나 말한다면 그 사람이 선지자요 선견자요 계시자가 아닌 이상 — 그 한 가지 예외를 주목하십시오. — 여러분은 즉시 그것이 그 사람 개인의 생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 만약 그가 교회 표준 경전에 있는 것에 모순되는 이야기를 한다면 마찬가지로 방법으로 여러분은 그것이 거짓임을 알 수 있습니다.”(*The Teachings of Harold B. Lee*, ed. 클라이드 제이 윌리엄스 [1996년], 540~541쪽)

ㄴ. 경전 공부는 우리의 간증을 강화시켜 자기만 의롭다고 생각하거나 거짓 교리의 영향을 받을 가능성을 적게 한다.

리 회장은 이렇게 가르쳤다. “매일 경전을 읽지 않는다면 우리의 간증은 희박해질 것이며, 우리의 영성은 깊이를 잃을 것입니다.”(*The Teachings of Harold B. Lee*, 152쪽)

- 경전 공부는 여러분이 속지 않도록 어떻게 보호해 주었는가?

#### 하나님의 일들은 언제나 우리를 교화시킨다는 점을 인식해야 함

선지자 조셉 스미스는 성도들이 커틀랜드에 정착한 직후의 상황을 이렇게 설명했다. “많은 거짓 영들이 들어왔고, 많은 이상한 시현들이 보여졌으며, 난폭하고 광적인 생각을 품게 되었습니다. 이 같은 영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문밖으로 뛰어나가는 일이 있었으며, 어떤 이들은 나무 기둥 위로 올라가 외치고 온갖 이상한 행동들을 했습니다. …여러 기괴한 일들이 나타나 하나님의 교회를 욕되게 하려 하였으며 하나님의 영을 물러가게 하려 했습니다.”(*교회 정사*, 4:580) 이 같은 과도한 영적 현상을 걱정한 선지자가 주님께 여쭙었다. 교리와 성약 50편의 계시는 그 간구에 대한 주님의 응답이다.

- 반원들과 함께 교리와 성약 50편 17~24절을 읽는다. 이 구절들은 하나님의 일과 사탄의 일을 구별하는 방법에 대해 무엇을 가르쳐 주는가?(하나님의 일은 우리 마음을 밝게 하고 영적으로 발전하게 함으로써 우리를 교화시킨다. 하나님의 일은 우리가 구주를 따르기를 원하게 하며 우리의 삶을 향상시켜 준다. 사탄은 이와 반대되는 일을 한다.)

조셉 필딩 스미스 회장은 다음과 같이 가르쳤다. “사람을 덕으로 인도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라는 말보다 더 큰 진리는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것이 아닌 것은 어두움이며, 그것이 종교, 윤리, 철학, 또는 계시의 형태로 오더라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계시는 언제나 품성을 높여 줍니다.”(*Church History and Modern Revelation*, 2 vols.[1953년], 1:201~202)

우리는 미혹당하지 않기 위해 주님의 규범을 적용해야 함

주님은 커틀랜드에서의 대회가 끝난 다음 날에 교리와 성약 52편을 계시하셨다. 이 계시에서 주님은 속임을 피할 수 있는 규범을 주셨다.

- 반원들과 함께 교리와 성약 52편 14~19절을 읽는다. 이 구절에 따르면 “하나님께 속한” 교사의 특성은 무엇인가? 이 성구에서 주신 규범은 미혹당하지 않도록 어떻게 우리를 도울 수 있는가?

결론

배도로 이끌 수 있는 사탄의 속임수를 검토한다. 미혹에서 우리를 보호하시기 위해 주님이 주신 권고를 검토한다. 이 권고를 따를 때 주님의 영이 우리를 진리의 길에 머물게 할 것이라고 강조한다. 영의 속삭임이 있을 때 공과 중에 토론된 진리에 대해 간증한다.

추가로 가르칠 개념

여러분은 제언된 공과 개요를 보충하기 위하여 다음 개념 가운데서 한두 가지 개념을 활용할 수 있다.

### 1. 토론과 적용 1을 소개하기 위한 활동

각 반원에게 줄 메모지를 준비한다. 각 메모지에는 짧은 감사 메시지를 적어 두거나 성구 읽기 또는 다른 방법으로 참여하도록 하는 임무 지명을 적어 둘 수도 있다. 그렇지만 각자의 이름을 조금씩 틀리게 적어서 토론과 적용 1을 시작할 때에 시몬즈 라이더와 그 편에 있는 다른 이야기를 소개하기 위해 나누어 준다.

### 2. 배도에 대비해 자신을 강화하는 방법에 대한 조언

칠십인 정원회에서 봉사했던 칼로스 이 에이시 장로는 우리가 배도에 대비해 자신을 강화할 수 있는 다음의 일들을 구체적으로 말해 주었다.

- “1. 우리의 신앙을 잃게 하려는 사람을 피하십시오. ...
- “2. 계명을 지키십시오. ...
- “3. 살아 계신 선지자를 따르십시오. ...
- “4. 교리에 관한 문제에 대하여 다투거나 분쟁을 일으키지 마십시오. ...
- “5. 경전을 상고하십시오. ...
- “6. 교회의 임무로부터 벗어나거나 벗어나지 마십시오. ...
- “7. 우리 원수를 위해 기도하십시오. ...
- “8. 정결한 신앙 생활을 하십시오. ... [야고보서 1:27; 엘마서 1:30 참조]
- “9. 우리가 답을 알 수 없는 질문도 많이 있으며, 오직 신앙으로 받아들여야만 하는 것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성도의 벗, 1982년 4월호, 97~98쪽)

**목적**                                 반원들이 신권을 더욱 잘 이해하고 이를 의롭게 사용할 때 오는 축복을 구하도록 돕는다.

**준비 사항**                                 1. 기도하는 마음으로 다음 성구와 그 밖의 자료들을 공부한다.

ㄱ. 교리와 성약 84:33~44; 121:34~46

ㄴ. 교리와 성약 107편(보충 성구)

ㄷ. *우리의 유산*, 26쪽.

2. **반원 학습 지도서(35686 320)**에 나와 있는 이 공과를 위한 자료들을 검토한다. 공과 시간에 자료를 참조하기 위한 방법을 계획한다.

**공과 전개 제언**

주의 집중 활동                                 적절한 경우, 공과를 시작하기 위해 다음 활동이나 여러분이 준비한 활동을 활용한다.

반원들에게 교회 회원이 된 것에 감사하는 이유를 이야기하게 한다. 칠판에 반원들의 응답을 적는다.

- 이러한 것들 중 신권 없이 가능한 것으로는 무엇이 있겠는가?

아마도, 반원들이 열거한 것 중 어느 것도 신권 없이는 가능하지 않을 것이다. 예를 들어 반원들이 영원한 결혼에 대한 감사를 이야기한다면 그것은 신권의 인봉의 권능이 없이는 불가능함을 지적한다. 교회에서 하나가 되는 것과 같은 아주 간단한 것이라 할지라도 우리를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게 돕는 선지자, 사도, 그 밖의 신권 지도자들 없이는 불가능할 것이다.(에베소서 4:13; 또한 10~12 참조)

이 공과는 신권 및 그에 동반하는 성약과 축복을 토문한다고 설명한다.

토론과 적용                                 기도하는 마음으로 반원들의 필요 사항에 가장 잘 맞는 공과 자료를 선정한다. 반원들이 성구에 나와 있는 원리와 관련된 경험을 이야기하도록 격려한다.

**1. 신권 및 신권 직분의 회복 순서**

아론 신권과 멜기세덱 신권은 1829년에 지상에 회복되었다.(제8과 참조) 1830년 교회 조직에 뒤 이어 주님께서는 교회 발전을 위한 지도력을 마련하기 위해 필요한 신권 직분, 정원회, 평의회를 단계적으로 계시하셨다. 아래의 연대표는 이 회복 단계를 요약한 것이다. 칠판에 이를 적고 반원들과 함께 검토한다. 참조 성구는 칠판에 적지 않아도 좋다.



아론 신권: 1829년 5월 15일(교리와 성약 13편)  
 멜기세덱 신권: 1829년 5월이나 6월(교리와 성약 128:20)  
 사도, 장로, 제사, 교사 및 집사: 1830년 4월(교리와 성약 20:38~60)  
 감독: 1831년 2월 4일(교리와 성약 41:9~10)  
 대제사: 1831년 6월(교리와 성약 52편 서문)  
 제일회장단: 1832~1833년(교리와 성약 81, 90편)  
 축복사: 1833년 12월 18일(선지자 조셉 스미스의 가르침 [1976년], 37~38쪽)  
 고등 평의회: 1834년 2월 17일(교리와 성약 102편)  
 십이사도 정원회: 1835년(교리와 성약 107:23~24)  
 칠십인: 1835년(교리와 성약 107:25)  
 칠십인 제일 정원회: 1835년(교리와 성약 107:26, 93~97)

우리 시대에도 주님은 교회 발전을 인도하기 위해 신권 조직 및 직분에 대한 계시를 계속해서 주고 계신다고 설명한다. 이것에 관한 한 가지 예는 지역 칠십인의 부름 및 1997년에 주신 제3, 제4, 제5 칠십인 정원회의 조직이다.(제42과, 247~248쪽 참조)

## 2. 신권의 맹세와 성약

칠판에 신권의 맹세와 성약이라 적는다. 신권 직책과 관리에 대한 계시에 덧붙여 주님께서 신권을 받고 행사하는 것에 대한 원리를 계시하셨다. 그 예가 주님께서 계시하신 교리와 성약 84편 33~44절에 있는 신권의 맹세와 성약이다. 이 구절들은 (1) 사람이 멜기세덱 신권을 받을 때 주님과 맺는 성약과 (2) 주님이 충실한 멜기세덱 소유자와 맺는 성약을 요약하고 있다.

칠십인 정원회에서 봉사했던 칼로스 이 에이시 장로는 이렇게 말씀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속하는 일체의 거룩한 계약 가운데서도 신권의 맹세와 성약을 능가하는 것은 별로 없을 것입니다. 그것은 가장 신성한 계약임에 틀림없는데, 왜냐하면 그것은 하늘의 권능과 인간이 영원한 목표를 향해 위로 오르려는 품성을 공유하는 것과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성도의 벗, 1986년 1월호, 49쪽)

신권의 맹세와 성약을 토론할 때 다음 사항을 강조한다. “신권의 축복은 남자에게만 국한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축복은 교회의 모든 충실한 여성들에게도 주어집니다. ... 주님께서는 그분의 딸들에게도 모든 영적인 은사와 그분의 아들들에 의해 받을 수 있는 축복을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주 안에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하’기 때문입니다.”(조셉 필딩 스미스, Conference Report, 1970년 4월, 59쪽; *Improvement Era*, 1970년 6월호, 66쪽; 엘마서 32:23 참조)

- 칠판에 신권 소유자가 ... 할 것을 성약함이라고 적는다. 신권 소유자는 신권의 맹세와 축복의 일부로서 무엇을 약속하는가?(교리와 성약 84:33, 36, 39~44 참조. 칠판에 반원들의 대답을 요약한다.)

신권 소유자는 다음 사항을 성약한다.

1. 아론 신권과 멜기세덱 신권을 얻기 위해 충실할 것(33절)

ㄴ. 부름을 영화롭게 할 것(33절)

ㄷ. 주님의 종을 받아들일 것(36절)

ㄹ. 영생의 말씀에 부지런히 주의를 기울이도록 조심할 것(43~44절)

- 부름을 영화롭게 한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가?(교리와 성약 107:99; 야곱서 1:17~19 참조)

고든 비 힝클리 회장은 다음과 같이 말씀했다. “우리가 합당한 권세를 가진 사람을 통해 부름 받은 책임에 대하여 부지런히 열의를 다해 봉사할 때 우리의 신권을 영화롭게 하고 부름을 크게 하게 됩니다. … 우리가 실의에 빠진 사람에게 손을 내밀고 비틀거리는 사람에게 힘이 되어 줄 때 우리의 부름을 영화롭게 하고 신권의 능력을 크게 하는 것입니다.”(성도의 벗, 1989년 7월호, 61쪽)

- 부름을 영화롭게 하는 사람이 여러분을 어떻게 축복해 주었는가?

우리의 부름을 영화롭게 하면서 가족에게도 태만하지 않도록 올바른 균형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한다. 십이사도 정원회의 닐 에이 맥스웰 장로는 다음과 같이 말씀했다.

“고의가 아니지만 때때로 무분별하게 갖는 특별 교회 활동이 자칫하면 가족 생활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니파이인들을 가르치신 후에 그들이 교혼을 얻도록 하기 위해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 집으로 가서, 내가 말한 것을 깊이 생각하며, 너희가 깨달을 수 있도록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간구하고, 내일을 위하여 너희 마음을 예비하라. 내가 다시 너희에게로 오리라.’(제3 니파이 17:3)고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은 클럽이나 동네 모임이나 심지어 스테이크 센터로 가라고도 하지 않으셨습니다.”(성도의 벗, 1994년 7월호, 89쪽)

- 주님의 종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가?(교리와 성약 84:36) 우리가 주님의 종으로부터 메시지와 복음의 의식을 받아들일 때 우리는 또한 주님을 받아들이는 것이라고 설명한다.

- 칠판에 주님이 … 을 성약하심이라고 적는다. 신권의 맹세와 성약의 일부로서 주님이 약속하신 축복은 무엇인가?(교리와 성약 84:33~34, 38, 42 참조. 칠판에 반원들의 대답을 요약한다.)

주님께서서는 다음 사항을 성약하신다.

ㄱ. 영으로 우리를 성결하게 하심(33절)

ㄴ. 우리의 몸을 새롭게 해 주심(33절)

ㄷ. 우리에게 아브라함과 그 후손에게 약속하신 축복을 주심(34절)

ㄹ. 우리를 하나님의 택하신 자가 되게 해 주심(34절)

ㅁ. 아버지께서 가지신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심(38절)

ㅂ. 그분의 천군과 천사들에게 우리를 맡기심(42절)

- 주님께서서는 우리가 충실하면 우리가 “아브라함의 씨와 …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가 되리라”(교리와 성약 84:33~34)고 약속하셨다.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는 축복과 책임은 무엇인가?(아브라함서 2:9~11 참조) 아브라함서 2장 11절은 신권을 통하여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음의 축복으로 복을 받”을 것이라고 말한다. 이것은 어떻게 성취될 수 있는가?

- 신권의 맹세와 성약 안의 가장 최상의 약속은 우리가 “아버지께서 가지신 모든 것”(교리와 성약 84:38)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 약속을 아는 것은 역경에 처해 있을 때 우리에게 어떻게 도움이 될 수 있는가? 우리가 풍족할 때는 어떻게 도움이 될 수 있는가?

### 3. 신권 사용의 원리

교리와 성약 121편 34~46절을 가르치고 토론한다. 이 구절에서 주님은 신권 사용에 대한 원리를 밝혀 주셨다고 설명한다. 또한 이를 의롭게 사용하는 자들에 대한 약속을 계시하고 계신다. 신권을 사용하는 신권 소유자 외에도 이 원리는 모든 인간 관계에 보편적으로 적용된다. 그러므로 그 원리들은 신권을 소유하지 않은 사람들에게도 중요하다.

- 교리와 성약 121편 34~40절에서 주님은 왜 일부 신권 소유자들이 신권 권능을 행사할 수 없는지를 계시하고 계신다. 이 구절에 따르면 무엇이 이를 행할 수 없게 하는가?(그들의 마음이 세상 일에 얽매어 있고, 사람의 명예를 갈망하며, 죄를 은폐하려 하거나, 교만이나 헛된 야망을 만족시키려 할 때, 불의하게 지배력을 행사할 때)
- 지나치게 “이 세상 일”에 마음을 쏟는 예는 무엇인가?(교리와 성약 121:35) 어떻게 세상이 주는 것을 추구하는 것이 우리가 주님이 주시려는 것을 받지 못하게 막을 수 있는가? 인간은 이 문제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가?
- 사람들에게 “불의한 지배력을 행사”하는 방법은 무엇인가?(교리와 성약 121:39; 또한 37절도 참조) 이 일의 결과는 무엇인가? 불의한 지배력을 행사하려는 경향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가?

신권은 다른 사람들에게 봉사하며 축복하는 수단으로서 사랑의 영으로 의롭게 행사되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십이사도 정원회의 엠 러셀 벨라드 장로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신권 소유자들은 가정이나 교회 부름에서 마치 다른 사람의 머리 위에 곤봉을 휘두르듯 신권의 권세를 휘두를 권리가 없음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 교회나 가정에서 조금이라도 불의하게 신권을 사용하려 드는 사람은 누구나 자기가 지니고 있는 권세의 본질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권은 봉사하기 위한 것이지 예측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며, 동정을 위한 것이지 강제하려는 것이 아니며, 돌보는 것이지 통제하는 것이 아닙니다.”(성도의 벗, 1994년 1월호, 78쪽)

- 교리와 성약 121편 41~42절에서 주님은 신권 소유자가 신권 권능을 행사하는 데 도움이 될 원리들을 계시하고 계신다. 이 원리들은 무엇인가? 우리가 가족, 이웃, 직장 동료 및 그 밖의 사람들과 접촉할 때 이 원리를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가?

여러분은 이 원리들을 구체적인 상황, 즉 자녀가 어떤 결정을 내리거나 과제를 완성하는 것을 도와줄 때, 교회 평의회에서 결정을 내릴 때, 어떤 사람이 임무 지명을 완수하지 못했을 때, 심각한 견해 차이가 벌어졌을 때 등에 적용하는 방법을 토론할 수 있다.

- 교리와 성약 121편 43~44절에는 잘못을 바로잡거나 훈육하는 어떤 원리가 계시되어 있는가?(*제때*이라는 말은 “신속하게” 또는 “곧”을 뜻한다고 설명한다. 이 구절에서 *날카롭게*란 말은 “심하게”나 “난폭하게”가 아니라 “분명하게” 또는 “정확하게”를 의미한다.) 여러분은 생활 가운데서 이 원리의 중요성을 확인한 경험을 한 적이 있는가? 사랑으로 훈육한 결과는 성내며 훈육한 결과와 어떻게 다른가?
- “쉬지 말고 덕으로 네 생각을 장식하라”란 말은 무엇을 의미하는가?(교리와 성약 121:45) 우리는 어떻게 악이나 불의한 생각을 우리 마음에서 몰아낼 수 있는가?(교리와 성약 27:15~18 참조) 우리는 어떻게 우리 마음을 더 적극적으로 덕스러운 생각으로 채울 수 있는가?
- 우리가 “사랑이 [우리] 가슴에 가득하게” 하고 “쉬지 말고 덕으로 [우리] 생각을 장식”한다면 주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약속하시는가?(교리와 성약 121:45~46 참조) 하나님의 면전에서 신임 받

는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아래 인용문 참조) 성신이 우리의 변하지 않는 동반자가 될 때 우리가 받는 축복은 무엇인가?

십이사도 정원에서 봉사할 때 고든 비 힝클리 회장은 다음과 같이 말씀했다. “저는 미국 대통령 및 다른 나라 정부의 요인들과 대화를 나눌 수 있는 특권을 많이 가졌습니다. 그런 대화가 끝나갈 무렵에는 언제나 저는 존경받는 지도자 앞에서 자신 있게 서 있는 보람찬 경험에 대하여 생각했습니다. 그러고는 하나님 면전에서 아무런 두려움이나 수치심이나 당황함이 없이 자신 있게 설 수 있다는 것은 얼마나 훌륭하고 놀라운 일이 될 것인가 하고 생각했습니다. 이것은 덕망 있는 모든 남녀에게 주는 약속입니다.”(Conference Report, 1970년 10월, 66쪽; *Improvement Era*, 1970년 12월호, 73쪽)

결론

신권의 중요성에 대한 간증을 전한다. 신권의 맹세와 성약에 대해 그리고 우리가 충실할 때 주님이 약속하신 축복에 대해 감사를 표한다. 반원들이 신권의 축복을 더욱 깊이 추구하도록 격려한다.

## 추가로 가르칠 개념

여러분은 제안된 공과 개요를 보충하기 위하여 다음 개념 가운데서 한두 가지 개념을 활용할 수 있다.

### 1. 교회 감리 정원회

신권 권세의 회복의 중요한 한 가지 부분은 교회의 감리 정원회 조직이다. 보좌들은 일찍이 1832년 3월에 선지자 조셉을 돕도록 부름을 받았으며(교리와 성약 81:1) 제일회장단은 일년 뒤에 정식으로 조직되었다. 1835년 2월에는 열두 명이 사도로 부름 받고 성임되어 십이사도 정원회가 구성되었다. 그 뒤 얼마 안 있어 선지자는 칠십인 제일 정원회를 조직했다.

- 제일회장단의 임무는 무엇인가?(교리와 성약 107:9, 22, 65~66, 78~81, 91~92; 112:30~32 참조)
- 십이사도 정원회의 임무는 무엇인가?(교리와 성약 107:23, 33, 35, 39, 58; 112:30~32 참조)
- 칠십인 정원회의 임무는 무엇인가?(교리와 성약 107:25~26, 34, 38, 97 참조)
- 교회의 관리 역원들의 봉사로 우리의 삶은 어떻게 축복 받는가?

### 2. 신권 봉사의 중요성

와드에 있는 신권 소유자 한 명을 초대하여, 병으로 교회에 올 수 없는 환자의 집에서 성찬을 집행하거나 신권 축복을 돕거나, 선교사로 봉사했던 것 등의 신권 경험을 반원들에게 이야기하게 한다. 이 신권 소유자에게 이러한 봉사를 할 때의 느낌을 토론하게 한다. 그에게 신권 및 다른 사람에게 봉사하기 위해 신권을 사용하는 것의 중요성에 대한 간증을 전하게 한다.

# “온 세상에 다니며 나의 복음을 ... 전파하라”

제 26 과

**목적** 반원들이 복음을 나누기 위해 큰 희생을 하며 역경의 시기에 굳건히 신앙을 지켰던 커틀랜드 성도들의 모범을 따르도록 고취시킨다.

**준비 사항**

1.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공과에 나와 있는 성구와 우리의 유산, 29~33, 36쪽을 공부한다.
2. 반원 학습 지도서(35686 320)에서 본 공과에 대한 자료를 살펴본다. 공과 시간에 자료를 참조할 수 있는 방법을 계획한다.
3. 반원들에게 우리의 유산 중 다음의 항목을 요약하여 준비해 오도록 한다.
  - ㄱ. “초기 오하이오 개종자들의 사명”과 “십이사도 정원회의 사명”(30~32쪽)
  - ㄴ. “영국으로 선교 사업을 나감”(32쪽)
  - ㄷ. “커틀랜드로부터의 탈출”(36쪽)여러분은 반원들에게 공과에 있는 그 밖의 이야기들을 이야기해 주도록 지명할 수 있다.
4. 주의 집중 활동을 할 경우, 작은 가방이나 주머니에 다음 물건들을 넣는다. 경전 한 세트, 양말 한 켤레, 동전 다섯 개, 다음 메시지를 적은 종이 한 장(마지막에 있는 출처는 생략한다.)

이 가방은 에라스투스 스노우 장로의 것이다. 나는 펜실베이니아 주 서부 지역에서 선교사로 봉사하도록 선지자 조셉 스미스의 부름을 받았다. 1836년 봄에 떠나도록 지시받았다. 커틀랜드를 떠나 홀로 걸어서 갈 것이며, 내 전 재산을 가지고 갈 것이다.(우리의 유산, 31쪽; “Autobiography of Erastus Snow”, *Utah Genealogical Magazine*, 1923년 7월, 106)

## 공과 전개 제언

**주의 집중 활동** 적절한 경우, 공과를 시작하기 위해 다음 활동이나 여러분 자신이 준비한 활동을 활용한다.

준비한 가방을 보여 준다.(“준비 사항” 4 참조) 반원 한 명에게 가방을 열어 종이에 적힌 것을 읽게 한 뒤, 이 선교사가 가지고 갔던 것, 즉 경전, 양말, 작은 동전 다섯 개를 보여 준다. 칠판에 세 낱말을 적는다. 희생, 용기, 신앙. 반원들에게 스노우 장로가 주님이 지시한 선교 여행의 임무를 위하여 지냈던 희생, 용기 및 신앙을 깊이 생각해 보게 한다.

이 공과에는 오하이오 주 커틀랜드에 살고 있던 성도들이 큰 희생을 치르면서 수행했던 선교 사업에 대한 토론이 들어 있다고 설명한다. 이 선교사들은 많은 사람들을 복음으로 개종하게 하여 초기의 교회를 강화시켰다.

**토론과 적용** 기도하는 마음으로 반원들의 필요 사항에 가장 잘 맞는 공과 자료를 선정한다. 반원들에게 여러분이 토론한 원리와 관련된 경험을 나누도록 격려한다.

## 1. 커틀랜드에 있을 동안 주님께서는 위대한 축복들을 부어 주셨다.

지난번 13개 공과의 대부분은 성도들이 커틀랜드에 있을 동안 계시된 교리들과 사건들에 집중되어 있다고 설명한다. 이 시기 동안 주님은 그분의 백성들을 크게 축복하셨다. 커틀랜드에 있을 동안 주요 사건을 간략하게 검토하기 위해 다음 질문을 한다. 먼저 번 공과와 함께 필요하다면 *우리의 유산*을 참조한다.

- 주님이 커틀랜드에 있을 동안 계시하신 중요한 교리들은 무엇인가?(헌납의 법, 십일조의 법, 영광의 왕국, 지혜의 말씀, 재림, 신권에 관한 계시가 답에 포함될 수 있다.)
- 커틀랜드에 있을 동안 중요한 사건 및 업적들은 무엇인가?

## 2. 커틀랜드의 성도들은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 큰 희생을 치렀다.

커틀랜드에 있을 동안 일어난 또 한 가지 중요한 내용은 미국, 캐나다, 영국에 복음을 전파할 선교사의 부름이었다. 그들 대부분은 개인적인 큰 희생을 치르면서 봉사했다.

- 반원들과 함께 교리와 성약 42편 6절과 88편 81절을 읽는다. 이 구절에서 주님이 주신 메시지는 무엇인가? 커틀랜드에서 주신 많은 계시에는 복음을 전파하라는 계명이 들어 있었다고 설명한다.

지명받은 반원에게 *우리의 유산*, 30~32쪽에서 “초기 오하이오 개종자들의 사명” 및 “십이사도 정원회의 사명” 편을 요약하게 한다.

- 이 성도들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 치른 희생은 무엇이었는가?

여러분은 다음의 경험을 이야기할 수 있다.

1836년, 십이사도 정원회 일원이었던 팔리 피 프랫 장로는 캐나다에서 선교사로 봉사하도록 부름 받았다. 캐나다 토론토로 가는 도중, “한 낫선 사람이 토론토에 거주하는 감리교 평신도 설교사인 존 테일러에게 보내는 소개장을 팔리에게 주었다. 테일러는 기존의 교회들이 신약 시대의 교회와는 다르다는 것을 믿고 있는 어떤 집단에 속해 있었다. 2년간 이 집단은 어떤 종파의 조직과 관계없이 진리를 추구하기 위해 일주일에 여러 차례 모였다. 토론토에서 프랫 장로는 테일러 가족으로부터 정중한 영접을 받았으나 처음에는 그의 가족은 팔리가 전하는 메시지에 열의를 보이지 않았다.

“팔리는 복음을 전도할 수 있는 장소를 확보하지 못해 실망한 나머지 토론토를 떠나려 했다. 떠나기에 앞서 테일러의 집에 잠깐 들려 맡겨 놓은 짐을 찾고 작별을 고하려 하였다. 팔리가 그 집에서 잠시 머무르는 동안 테일러의 부인인 레오노라 테일러는 친구인 이사벨라 월턴에게 팔리의 문제에 관해 이야기하면서 그가 떠나는 것이 몹시 섭섭하다고 말했다. ‘그분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일지도 몰라요’ 라고 그녀가 말하자, 월턴 부인은 자기는 성령의 감동을 받아 그날 아침 테일러 가족을 방문하게 되었는데 팔리 장로를 자기의 집에 머무르게 하여 복음을 전도할 수 있게 하고 싶다고 대답했다. 팔리 장로는 월턴 부인의 희망대로 부인의 집에 머무르게 되었는데 나중에는 존 테일러의 집단이 주선한 집회에 초대를 받았다. 존은 그 모임에서 빌립보가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전도하는 내용을 신약에서 낭독하면서 이렇게 말했다. ‘자, 우리의 빌립보는 어디에 있습니까? 과연 우리가 어디에서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들이고 우리가 믿을 때 누구에게서 침례를 받을 수 있을까요? 우리를 위한 베드로와 요한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사도는 어디에 있습니까? 안수를 하여 우리가 성신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줄 수 있는 분은 어디에 있을까요? ...’ 팔리가 말씀을 하도록 청을 받자 자신은 존 테일러가 제기한 질문에 대한 답변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였다.

“3주 동안 존 테일러는 프렛 장로의 집회에 참석하여 팔리의 설교를 자세히 메모하고는 이를 경전과 세밀하게 비교했다. 차츰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진실된 복음이 회복되었다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다. 존과 그의 부인 레오노라는 1836년 5월 9일에 침례를 받았다.”(때가 찬 시대의 교회사 [교회종교 교육원 교재, 1993년], 157~158쪽; 팔리 피 프렛, *Autobiography of Parley P. Pratt* [1975년], 134~140, 151쪽 참조)

존 테일러는 장로로 성임 받고 선교사로 충실하게 봉사했다. 나중에 그는 제3대 교회 회장이 되었다.

- 주님은 프렛 장로가 복음을 전파하려고 했을 때 어떻게 축복하셨는가?

리바이 헨코크는 1830년 11월에 침례 받고 얼마 후 커틀랜드를 떠나 미주리 주로 선교사 부름을 받았다. 수백 마일의 도보 여행을 해야 했던 이 선교 여행에서 그는 동반자인 지베디 콜트린과 함께 성공적으로 복음을 전파했다. “그러나 그들의 여행에는 고난이 따랐다. 리바이는 발이 감염되어 병에 걸렸고, 지베디가 혼자서 선교 사업을 하는 동안 어느 가족의 도움으로 치료를 했다. 그 뒤 미주리 주에서도 병마와 계속 싸우며 리바이는 자신이 원했던 일을 다하지 못하는 무능함에 고민했다. 그러나 그는 봉사할 수 있는 것에 감사하며 이렇게 적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정직해야 하며, 그분의 왕국을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야 한다. 그렇게 하지 못하니 슬플 뿐이다. 나는 세상 사람들이나 그들이 하는 말에 신경을 쓰지 않는다. 그들은 심판을 받을 때 나의 간증을 들었던 것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내 말의 뜻은, 주님께서 나를 도와주시니 내 품행이 모범적이어서 내 말을 남이 믿도록 내가 행동을 잘 해야 할 것이라는 것이다.’”

나중에 리바이는 시온 진영의 일원으로 훌륭하게 봉사했으며, 1835년 2월에 칠십인 회장단에 선택되었다.(돈 엘 설, “It Is the Truth, I Can Feel It”, *Ensign*, 1999년 7월호, 48~50쪽 참조)

- 이 이야기에서 우리는 선교 사업에 대해 무엇을 배울 수 있는가? 선교 사업 중 역경을 극복하는 것에 대해 무엇을 배울 수 있는가?
- 전임 선교사로 봉사하는 데 어떤 희생이 필요할 것인가? 우리의 친구나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어떤 희생이 필요할 것인가?

### 3. 십이사도 정원회의 회원들이 영국에서 수 천 명을 가르쳤다.

교회가 성장함에 따라 이에 대항하는 세력들이 더욱 강경해졌다고 설명한다. 일부 성도들의 신앙은 크게 흔들렸다. 이 고난의 시기에 주님은 선지자 조셉 스미스에게 “그분의 교회를 구하기 위해 뭔가 새로운 것이 행해져야만 한다”고 계시하셨다.(교회 정사, 2:489)

지명 받은 반원에게 *우리의 유산*, 32~33쪽에 있는 “영국으로 선교 사업을 나감” 편을 요약하여 어떤 조치가 취해졌는지 설명하게 한다.

- 이 박해와 고난의 시기에 주님께서 어떻게 교회를 축복하셨는가? 우리는 히버 시 킴볼 장로의 모범으로부터 무엇을 배울 수 있는가?

그러한 고난의 시기에 이 형제들에게 커틀랜드를 떠나라는 주님의 명은 이해하기 어렵게 보일 수 있다. 그러나 이들 충실한 형제들의 희생은 교회를 크게 강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선교사들이 처음으로 영국에 복음을 전파한 날인 1837년 7월 23일에 선지자 조셉 스미스는 십이사도 정원회의 회장인 토머스 비 마쉬에게 지시하는 한 계시를 받았다. 이 계시가 현재 교리와 성약 112편이다. 12절에서 34절까지는 토머스 비 마쉬가 열두 명에게 전해야 했던 지시가 들어 있다.

- 반원들과 함께 교리와 성약 112편 19~22절을 읽는다. 이 구절에서 주님이 십이사도에게 하신 약속은 무엇인가?

교리와 성약 112편 19절에 주어진 약속은 빨리 성취되었다고 설명한다. 이 선교사들의 노력으로 8개월도 안 되어 이천 명의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 왔으며 26개의 지부가 조직되었다.

주님은 십이사도에게 그들이 “[그분] 앞에서 자신을 낮추며 [그분의] 말에 거하며, [그분의] 영의 음성을 듣는 만큼”(교리와 성약 112:21~22) 여러 나라에 복음 전파의 문을 여는 권능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다. 주님께서 이 약속을 계속 수행하고 계심을 보여 주기 위해 여러분은 토마스 에스 몬슨 회장의 다음 이야기를 전할 수 있다.

“1968년 처음으로 제가 독일 민주 공화국[동독]에 갔을 때에는 긴장이 최고조에 달해 있었습니다. 신뢰와 이해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외교 관계가 수립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구름이 끼고 비가 내리는 어느 날 저는 독일 민주 공화국 깊숙이 위치한 쾰리쯔 시로 여행을 했습니다. 성도들과의 첫번 모임에 참석했습니다. 우리는 조그맣고 오래된 건물에 모였습니다. 성도들이 시온의 찬송가를 불렀을 때 문자 그대로 그들의 신앙과 헌신으로 홀을 가득 채웠습니다.

“회원들에게는 축복사도 없었고 와드나 스테이크도 없고 단지 지부만이 있다는 것을 알았을 때 제 마음은 슬픔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들은 엔다우먼트나 인봉과 같은 성전 축복도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오랫동안 교회 본부로부터 공식적인 방문자가 없었습니다. 회원들은 자신의 나라를 떠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온 마음을 다해 주님을 신뢰했습니다.

“저는 눈물을 머금고 북받치는 감정을 누르며 연단에 서서 그 백성들에게 이런 약속을 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하나님의 계명에 참되고 충실하다면 다른 나라의 교회 회원들이 누리는 모든 축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 후에 저는 제가 얼마나 엄청난 말을 했는지 깨달았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아버지께 간청했습니다. ‘아버지, 저는 아버지의 심부름을 하러 왔습니다. 이 교회는 아버지의 교회입니다. 저는 제 말씀이 아니라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말씀을 했습니다. 이 거룩한 백성들의 생애에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저의 첫 번째 독일 민주 공화국 방문을 마쳤습니다.

8년이 지난 후 몬슨 장로는 그 땅에서 헌납 기도를 드렸다.

“1975년 4월 27일 일요일 아침에 저는 드레스덴과 엘베강 위 마이슨 시 사이에 있는 우뚝 솟은 돌 위에 올라 그 땅과 그 백성들에 대한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 기도에서는 회원들의 신앙이 언급되었습니다. 성전 축복을 얻기 위한 벽찬 소망으로 가득 차 있는 많은 사람들의 느낌을 강조했습니다. 평화를 위한 간구가 표현되었고 거룩한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저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여 이것이 이 땅에 있는 당신 교회의 회원들에게 새 날의 시작이 되게 하소서.’

“갑자기 멀리 계곡 아래 교회 탑에 있는 종이 울리기 시작했고 날카로운 수탉의 울음 소리가 아침의 정적을 깼습니다. 모두 새로운 날의 시작을 알리는 것이었습니다. 눈을 감고 있었지만 태양 광선의 따스함이 제 얼굴과 손과 팔에 비치는 것을 느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겠습니까? 비가 아침 내내 내렸습니다.

“기도를 마치면서 저는 하늘을 쳐다보았습니다. 저는 큰 구름 사이로 뻗어 내려오는 태양 광선을 보았는데 그것은 우리 소수의 사람들이 서 있는 곳을 비쳐 주었습니다. 그 순간부터 저는 하나님의 도움이 가까이 있음을 알았습니다.”



이 영감의 기도에 뒤이어 교회는 그 땅에서 급속도로 발전했다. 지방부 평의회가 조직되었고 스테이크가 만들어졌다. 뒤이어 신권 지도자들과 축복사가 부름을 받았다. 1985년에 독일 프라이베르그 성전이 헌납되었다. 1989년에 정부는 교회에 대하여 그 나라에 전임 선교사를 보내도록 허락했다. (성도의 벗, 1989년 7월호, 65~66쪽)

#### 4. 커틀랜드의 많은 성도들은 박해에도 불구하고 훌륭한 신앙을 간직한 채 남았다.

1838년 경, 커틀랜드에 있던 성도들의 시간은 마지막을 향해 다가가고 있었다. 박해가 강렬해져서 그곳에 남아 있는 것이 불안정하게 되었다. 지명 받은 반원에게 *우리의 유산*, 36쪽의 “커틀랜드로 부터의 탈출” 편을 요약하게 한다.

커틀랜드에서 일부 교회 회원들은 배도했지만 대부분은 충실하게 남아 교회의 큰 힘이 되었다. 브리검 영의 생애에 있었던 다음 경험을 이야기한다.

브리검 영이 커틀랜드에서 거주하고 있을 때 한 모임에 참석하고 있었는데 그 모임에서 몇몇 저명한 교회 지도자들을 포함한 일단의 배도자들이 선지자 조셉 스미스를 선지자의 지위에서 면직시키고 다른 사람을 그 자리에 앉히려는 음모를 획책하고 있었다.

“저는 일어서서 강한 어조로 조셉이 선지자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것을 알고 있으며, 그들이 제멋대로 조셉을 거칠게 비난하며 중상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그가 하나님의 선지자로 임명받은 것을 무효로 할 수는 없을 것이며, 그들은 그들 자신의 권위를 없애 버리고 그들을 선지자와 하나님께 묶어둔 끈을 끊어 스스로 나락으로 떨어지게 할 수 있을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들의 조치에 반대하는 제 결정에 격분했습니다. ... 이 모임은 반대 조치에 대한 합의점을 찾지 못한 채 해산되었습니다.” (“History of Brigham Young”, *Deseret News*, 1858년 2월 10일, 386면)

- 이러한 상황에서 브리검 영은 어떤 특성을 보여 주었는가? 교회 지도자들을 지지함으로써 우리는 어떻게 강화되는가? 이것은 교회 전체를 어떻게 강화시키는가?

#### 결론

성도들이 커틀랜드에서 거주할 때 큰 축복이 있었음을 강조한다. 많은 성도들이 선교사의 부름을 받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 기꺼이 희생했으며, 그들 대부분은 큰 고난의 시기에 충실하게 남았다. *우리의 유산*은 “그들은 주님의 기름 부음 받은 지도자들에 대한 충실한 순종과 주님의 사업을 위해 기꺼이 바친 희생이라는 영원 불변의 유산을 남겼다.”고 전하고 있다.

반원들에게 주님의 사업을 위해 큰 희생을 치르고 역경의 시기에 충실하게 남았던 커틀랜드 성도들의 모범을 따르도록 격려한다. 영의 속삭임이 있을 때 공과 시간에 토론된 진리에 대해 간증한다.

# “아브라함같이, 그들은 반드시 징계를 받고 시험을 받아야 할 필요가 있느니라”

**목적**

초기 성도들이 미주리 주에서 시온 도시를 건설하기 위해 바친 노력에 대해 배우며, 반원들이 오늘날의 시온 건설을 돕도록 격려한다.

**준비 사항**

1. 기도하는 마음으로 다음 성구 및 기타 자료들을 공부한다.
  - ㄱ. 교리와 성약 101편, 103편, 105편
  - ㄴ. 우리의 유산, 27~29, 37~45쪽
2. 반원 학습 지도서(35686 320)에서 본 공과에 대한 자료를 살펴본다. 공과 시간에 자료를 참조할 수 있는 방법을 계획한다.
3. 반원들에게 우리의 유산 중 다음의 항목을 요약하여 준비해 오도록 한다.
  - ㄱ. “잭슨 군에서의 박해”와 “파트리지 감독이 타르칠을 당하고 깃털이 꽃핌”(39~40, 41~42쪽)
  - ㄴ. “클레이 군으로 피함”(43~44쪽)
  - ㄷ. “시온 진영에서의 지도자들의 훈련”과 “시온 진영에 대한 박해”(27~29, 44~45쪽)

**공과 전개 제언**

주의 집중 활동

적절한 경우, 공과를 시작하기 위해 다음 활동이나 여러분 자신이 준비한 활동을 활용한다.

- 만일 여러분이 가족을 떠나, 기진 맥진한 상태로 1,600킬로미터에 해당하는 거리를 걸어서, 적의 지역에 있는 교회 회원들을 도우라는 요청을 받으면 어떤 기분이 들겠는가?(여러분은 1,600킬로미터 떨어진 잘 알려져 있는 위치를 택해 그 여행이 얼마나 먼 여행인지 지도를 가지고 와서 보여 줄 수 있다.) 이러한 요구에는 어떤 희생이 따르겠는가? 목적지에 도착해서 어떤 도움도 주지 못한 채 집으로 돌아가라는 말을 들었다면 기분이 어떻겠는가?

미주리 주 잭슨 군의 성도들이 자기들의 집에서 쫓겨나자, 조셉 스미스는 207명으로 구성된 시온 진영을 조직하여 오하이오 주로부터 그들을 돕기 위해 무려 1,600킬로미터를 행군했다. 앞의 질문은 우리가 시온 진영에 참여하여 직면한 도전들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토론과 적용

기도하는 마음으로 반원들의 필요 사항에 가장 잘 맞는 공과 자료를 선정한다. 여러분은 이 공과를 두 번으로 나누어 가르칠 수도 있다.

**1. 성도들이 미주리 주 잭슨 군에 정착한 후에 추방당하다.**

다음의 역사적인 내용을 간단히 검토한다. 반원들에게 1831년부터 1838년까지 교회는 오하이오

주 커틀랜드와 미주리 주 서부, 두 곳에 회원들이 집중되어 있었다고 설명한다. 이 두 곳에서 중요한 사건들이 발생했다. 제27과와 28과는 미주리 주에 있었던 교회와 교리에 관련된 사건에 초점을 두고 있다.

1831년 7월에 조셉 스미스는 미주리 주로 가는 첫 여행길에 올랐다. 거기에서 그는 미주리 주를 시온의 도시로, 인디펜던스를 그 도시의 중심부로 지정하는 계시를 받았다.(교리와 성약 57:1~3) 8월 2일에 시드니 리그돈은 그곳을 성도들의 집합을 위한 땅으로 헌납했다. 그 다음날 선지자 조셉 스미스는 인디펜던스에서 성전 부지를 헌납했다.

미주리 주에 정착한 첫 번째 성도들은 뉴욕 주의 콜스빌 지부에서 온 형제들이었으며, 잇따라 모인 다른 사람들도 시온 도시 건설을 열심히 도왔다.(교리와 성약 63:24, 36) 1832년까지 인디펜던스와 잭슨 군 주변의 다섯 개 지부에 모인 성도는 8백 명이 넘었다.

잭슨 군의 성도들은 평화롭고 낙관적인 한때를 보내었다. 그러나 1832년이 되자 문제들이 발생했다. 일부 회원들은 지역 교회 지도자들의 권위를 잘 받아들이지 않곤 했다. 어떤 사람들은 커틀랜드로 돌아간 선지자 조셉을 비판했다. 몇몇 회원들은 논쟁적이며 탐욕적이고 이기적이며 회의적이었다.

거기에도 그 지역의 다른 거주자들과의 긴장감이 가중되고 있었다. 1833년 7월 20일, 이 긴장감은 폭력으로 확대되었다. 지명 받은 반원에게 “잭슨 군에서의 박해”와 “파트리지 감독이 타르칠을 당하고 깃털이 꽃핌”(우리의 유산, 39~40, 41~42쪽) 편을 요약하게 한다.

1833년 7월과 11월 사이에 성도들에 대한 박해가 강렬해졌다. 폭도들은 성도들의 농작물을 불태우고 집을 파괴했으며, 남자들을 매질하고 여자와 아이들을 위협했다.



**미주리에서의 박해.** 성도들은 미주리 주 잭슨 군의 자기 집에서 쫓겨났다.

11월 4일, 빅블루 강 근처에서 폭도들은 작은 집단의 후기 성도 남자와 소년들을 상대로 전투를 시작했다.(우리의 유산, 42~43쪽) 그 뒤 이틀 동안 천 명 이상의 성도들이 혹독한 추위 속에서 잿슨 군에서 추방당했으며, 궁핍한 그들 대부분은 미주리 강을 건너 클레이 군에서 임시 피난처를 찾았다. 지명 받은 반원에게 우리의 유산, 43~44쪽에 있는 “클레이 군으로 피함” 편을 요약하게 한다.

## 2. 주님이 잿슨 군에서 쫓겨난 성도들에게 지시하시다.

미주리 주에서 곤경에 처해 있다는 이야기를 전해 들은 커틀랜드의 조셉 스미스는 심히 낙심했다. 그는 시온의 구원에 관해 기도했고 현재 교리와 성약 101편에 있는 계시를 받았다.

- 주님께서 어떤 이유로 미주리 주의 성도들이 고통을 당하도록 허락하셨는가?(반원들과 함께 다음 구절을 읽는다. 칠판에 그 내용을 요약한다. 토론을 이끌기 위해 질문 몇 가지를 선정한다.)

ㄱ. 교리와 성약 101:2, 6. 또한 교리와 성약 103:4 참조(그들의 범법으로 인해)

ㄴ. 교리와 성약 101:4.(아브라함같이 “징계를 받고 시험을 받아야 할” 필요가 있었으므로) 어떤 목적으로 주님은 그의 백성들을 징계하시는가?(교리와 성약 95:1; 105:6; 힐라맨서 12:3; 히브리서 12:11 참조) 주님의 징계는 어떻게 우리에게 대한 주님의 사랑을 보여주는가? 주님의 징계는 어떻게 우리가 순종을 배우며 그분을 기억하도록 해 주는가?

ㄷ. 교리와 성약 101:7~8.(일부 성도들이 주님께 음성 듣기를 더디하였으므로) 왜 백성들은 때때로 하나님을 잊으며, “평화의 날에는” 그분의 권고를 등한시하는가? 하나님의 권고에 열심히 따르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는가?

- 주님은 성도들을 징계하신 후에 어떻게 연민의 정을 보이셨는가?(반원들과 함께 다음 구절을 읽는다. 칠판에 그 내용을 요약한다.)

ㄱ. 교리와 성약 101:9.(그들을 온전히 던져버리지 아니하시고 “진노의 날에” 자비를 베푸시겠다는 약속)

ㄴ. 교리와 성약 101:10.(분노의 검을 그들의 적들에게 내려치시겠다는 약속.)

ㄷ. 교리와 성약 101:11~15.(성도들을 구원하고 모으고 위로하시겠다는 약속)

ㄹ. 교리와 성약 101:16~19.(미래에 시온이 구축될 것이라는 약속)

반원들에게 특별한 도움이 필요한 때에 주님의 사랑과 자비를 느꼈던 경험을 나누게 한다.

- 반원들과 함께 교리와 성약 101편 35~38절을 읽는다. 우리의 지상 생활 동안 계속 균형을 잘 잡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이 구절에서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 있는가? 주님의 영원한 약속에 대한 지식은 시련의 시기에 어떻게 우리에게 도움이 되었는가?

## 3. 시온 진영이 조직되어 미주리 주로 행군하다.

잿슨 군에서 쫓겨난 후, 성도들은 미주리 주의 다니엘 던클린 지사에게 집을 되찾고 보호를 요청하는 청원을 했다. 지사는 성도들이 자위대를 조직하면 기꺼이 도울 것을 표명했다.

1834년 2월, 조셉 스미스는 오하이오 주 커틀랜드에서 이 제의에 대한 소식을 들었다. 그는 이에 대한 조치로 미주리 주의 성도들이 자기네 땅으로 돌아가는 것을 돕고 그 후에도 그들을 보호하기 위해 약 1,600킬로미터의 거리를 행군할 부대를 조직했다. 시온 진영이라 알려진 이 원정을 위해 지시하신 계시가 교리와 성약 103편에 기록되어 있다.

지명 받은 반원에게 *우리의 유산*, 27~29, 44~45쪽에 있는 시온 진영의 이야기를 살펴보게 한다. 커틀랜드와 미주리 사이의 거리를 보여 주기 위해 본 교재 276쪽의 지도 3과 *반원 학습 지도서*, 31쪽을 참조할 수 있다.

- 교리와 성약 103편에 있는 주님의 지시에 따라 조셉 스미스는 잭슨 군의 성도들이 집과 땅을 찾도록 돕기 위해 시온 진영을 조직했다. 이 목적에 관한 시온 진영의 결과는 무엇이었는가?(시온 진영이 잭슨 군 근처의 피싱 강으로 약 1,600킬로미터를 여행한 후 주님은 성도들이 시온의 구축을 위해 기다려야 할 것이라고 계시하셨다. 그러자 선지자는 즉시 시온 진영을 해산했다.)
- 시온 진영 후 커틀랜드로 돌아온 브리검 영은 이런 질문을 받았다. “이 여행에서 얻은 것은 무엇입니까?” 그는 대답했다. “우리가 목적했던 것입니다. … [우리] 군 전체의 모든 물질적 부를 준다 해도 이 기간에 제가 받았던 지식과 바꾸지는 않을 것입니다.”(*Journal of Discourses*, 2:10) 시온 진영은 어떤 중요한 목적을 달성했는가?(답에는 아래에 열거된 것들이 포함될 수 있다.)

- ㄱ. 참여자들은 주님의 권능의 몇 가지 기적적인 현상을 보고 강화되었다.(예를 들어 *우리의 유산*, 44~45쪽 참조)
- ㄴ. 참여자들이 주님께 순종하며, 모든 것, 필요하다면 자신의 생명까지도 주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 희생할 것을 증명해 보이는 신앙을 시험받을 기회가 되었다.
- ㄷ. 누가 교회의 지도자 직책을 맡아 충실하게 봉사할 사람인가를 판단하는 근거가 되었다.
- ㄹ. 참여자들에게는 선지자와 가까이 하고 미래의 지도자 준비를 위해 그에게서 배울 기회가 되었다.

일부에서는 시온 진영이 실패했다고 생각했지만 위에 열거한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 교회에서는 매우 중요한 일이었다. 시온 진영은 당시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하나님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 주는 한 예가 된다.

- 시온 진영의 경험은 어떻게 미래의 교회 지도자를 준비시켰는가?

1835년 2월, 시온 진영이 해산된 지 5개월 후에 십이사도 정원회 및 칠십인 제일 정원회가 조직되었다. 십이사도 중 9명과 칠십인 정원회의 70명이 시온 진영에서 봉사했던 사람들이다. 시온 진영이 이 지도자들을 어떻게 준비시켰는가를 이야기하면서 조셉 스미스는 이렇게 말씀했다.

“형제 여러분, 여러분 중 어떤 사람들은 미주리에서 싸우지 않았기 때문에 제게 화를 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주님께서 여러분이 싸우기를 바라지 않으셨음을 말씀드립니다. 자신의 생명을 바치겠다고 할 뿐만 아니라, 또한 아브라함처럼 큰 희생을 바친 사람들 가운데서 십이사도와 칠십인을 취하지 않고서는, 지상의 국가들에 복음을 전파할 문을 열도록, 십이사도를 택하고 그들의 감리 아래 그들을 따르는 칠십인을 택하여 그의 왕국을 조직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교회 정사*, 2:182)

조지 에이 스미스의 경험은 시온 진영이 어떻게 미래의 교회 지도자를 준비시켰는가를 보여 준다. 열 여섯 살이었던 그는 경험도 없고 확신도 부족했던, 시온 진영에서 가장 어린 사람이었다. 그가 겪고 있던 개인적인 불편과 여러 사람들이 좋지 않은 여건에 대해 불평을 함에도 불구하고 조지는 기꺼이 조셉 스미스의 모든 지시에 따랐다. 선지자의 천막에서 잤던 조지는 그의 많은 권고와 지시를 들을 수 있었다. 선지자와 가까이 함께 하면서 조지는 지도력을 배웠으며, 여생을 지도자로서 자신을 준비할 수 있었던 힘을 길렀다. 시온 진영 이후 5년이 채 못 되어 조지 에이 스미스는 사도로 성임되었다. 그는 후에 브리검 영과 함께 제일회장단의 일원으로 봉사했다.

- 시온 진영의 경험으로부터 우리는 생활에 적용할 수 있는 어떤 것을 배울 수 있는가?(토론을 이끌기 위한 질문과 함께 가능한 답들이 아래에 열거되어 있다.)
  - ㄱ. 시련의 목적에 대한 이해. 시온 진영과 어떤 시련이 관련 있는가? 시온 진영의 경험은 우리 삶에서의 시련의 목적에 대해 무엇을 가르칠 수 있는가?(교리와 성약 103:12 참조)
  - ㄴ. 순종의 중요성. 시온 진영으로부터 순종에 대해 무엇을 배울 수 있는가?(교리와 성약 103:7~10, 36.)
  - ㄷ. 주님을 위해 기꺼이 모든 것을 희생할 필요성. 시온 진영으로부터 희생에 대해 무엇을 배울 수 있는가?(교리와 성약 103:27~28) 왜 주님은 주님 자신을 위해 모든 것을 기꺼이 희생하도록 요구하시는가? 어떻게 이같이 기꺼이 희생하는 마음을 발전시킬 수 있는가? 지금 우리는 이같이 기꺼이 희생하는 마음을 어떻게 보일 수 있는가?
  - ㄹ. 주님의 사업에서 하나가 됨의 중요성. 불과 몇 사람만 불평을 하고 모반을 할지라도 전체가 약화된다고 지적한다.
  - ㅁ. 선지자의 권고에 따르는 것이 비록 어렵거나 그 이유를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라도 그를 지지하고 따르는 것의 중요성.

#### 4. 주님께서 그의 백성들은 “시온의 구속을 잠시 동안 기다”려야 한다고 계시하시다.

주님은 시온을 구속하고 그의 백성들을 미주리 주 잭슨 군의 자기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을 약속하셨다고 설명한다. 그러나 이 약속은 성도들의 순종을 조건으로 했다.(교리와 성약 103:5~8, 11~14) 고대 이스라엘이 불순종 때문에 40년 동안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없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주님은 현대의 이스라엘이 일부 성도들의 불순종과 분쟁 때문에 시온의 구속을 “잠시 동안 기다”려야 할 것이라고 계시하셨다.(교리와 성약 105:9, 13)

- 반원들과 함께 교리와 성약 105편 1~13절을 읽는다. 주님은 궁극적인 시온 건설을 위해 무엇을 요구하셨는가?(아래 열거된 것들이 답에 포함된다. 이러한 요구 사항을 우리 생활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에 대해 토론한다.)
  - ㄱ. 성도들은 순종을 배워야만 한다.(교리와 성약 105:3, 6; 또한 37절 참조)
  - ㄴ. 그들은 가난한 자와 고난당하는 자에게 나누어 주어야 한다.(교리와 성약 105:3)
  - ㄷ. 그들은 “해의 왕국의 율법이 요구하는 일치단결의 정신에 따라 단합”해야 한다.(교리와 성약 105:4, 5 참조)
  - ㄹ. 그들은 더욱 온전하게 배우고, 경험을 쌓으며, 그들의 의무를 더욱 온전히 알아야 한다.(교리와 성약 105:10)
  - ㅁ. 그들은 높은 곳에서 오는 권능을 부여받아야 한다.(교리와 성약 105:11~12, 33 참조)
- 교리와 성약 105편 38~40절에서 주님은 성도들에게 자기들에게 박해를 한 자들과도 평화를 구하라고 권고하셨다. 그분은 그렇게 할 경우 보답으로 “모든 것이 협력하여 너희의 선을 이루리라”고 약속하셨다.(교리와 성약 105:40) 평화를 구하라는 권고를 적용했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축복받았는가?

## 결론

주님은 시온이 구속될 것이라고 약속하셨으며 우리가 그날을 준비하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말씀해 주셨다. 오늘날 우리는 우리 가족과 스테이크 안에 시온이 건설되도록 온 마음을 다해 도와야 함을 반원들에게 상기시킨다. 영의 속삭임이 있을 때 공과 중에 토론된 진리에 대해 간증한다.

## 추가로 가르칠 개념

제언된 공과 개요를 보충하기 위해 다음 개념 중 한 가지 이상을 활용할 수 있다.

## 1. 미주리 연대표

미주리에서 있었던 다음의 사건 연대표는 이 공과를 가르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중요한 지명을 확인해 보기 위해서는 본 교재 275쪽에 있는 지도 2 및 **반원 학습 지도서**의 30쪽을 참조할 수 있다.

1831년 1월: 미주리 주에 첫 선교사들이 도착함

1831년 7월: 주님께서 미주리 주를 시온의 도시 자리로 지정하심

1831년 8월: 조셉 스미스가 미주리 주 인디펜던스에서 성전 부지를 헌납함

1833년 7월: 한 폭도가 미주리 주, 인디펜던스의 성도들을 공격함

1833년 11월: 빅블루 전투가 발발함. 성도들은 미주리 주 잭슨 군에서 클레이 군으로 쫓겨남

1834년 5~7월: 시온 진영이 오하이오 주 커틀랜드로부터 미주리 주 클레이 군으로 행군함

1836년 6월: 클레이 군의 시민들이 성도들에게 군에서 떠나 줄 것을 요청함

1836년 9월: 성도들이 파웨스트와 미주리 주 폴드웰 및 데이비스 군이 되었던 기타 지역들로 이주하기 시작함

1838년 3월: 조셉 스미스와 그의 가족이 오하이오 주 커틀랜드의 폭도들로부터 벗어난 후, 미주리 주 파웨스트에 도착함

1838년 10월: 크룩크 강의 전투가 발발함. 미주리 주의 보그스 지사가 물론 근절령을 발표함

1838년 10월~1839년 4월: 조셉 스미스와 교회의 다른 지도자들이 미주리 주에서 감금됨.

1839년 4월: 성도들이 미주리 주에서 일리노이 주로 피신함.

## 2. 추방당한 성도들에게 주신 주님의 지시

성도들이 잭슨 군에서 쫓겨난 후, 주님은 그들이 행해야 할 것에 대하여 자세한 지시를 주셨다. 다음 지시를 검토해 볼 수 있다.

- ㄱ. 시온의 구속을 도모한다.(교리와 성약 101:43~62) 이 구절에 있는 비유로 주님은 성도들에게 불순종이 자신들의 입장을 약화시켜 적들을 당해 내지 못하게 되었음을 상기시키셨다. 그러나 주님은 그들에게 시온이 그분이 정한 때에 구속되리라고 확신시키셨다.
- ㄴ. 집합의 사업을 계속한다.(교리와 성약 101:63~75) 주님께서서는 비록 시온의 중심지가 적의 수중에 떨어졌다 해도 주님이 지정하신 장소에 성도들이 계속 모여야 함을 분명히 하셨다.(67절) 오늘날 전세계의 시온의 스테이크가 바로 그 장소이다. 우리는 우리 스테이크를 “거룩한 곳”로 만들어야 한다.(교리와 성약 101:21~22)

ㄷ. 보상을 청원한다.(교리와 성약 101:76~95) 성도들은 보상과 공의를 위해 정식으로 청원할 것을 명령받았다. 미국 헌법 아래 그들은 종교와 재산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보장받게 되어 있었다. 미주리 주에서 그런 권리들을 침해받았던 것이다. 성도들은 주님의 권고에 따라 지역과 주 및 국가 수준에서 배상을 요구했다. 그들의 요청은 거절되었고, 그래서 성도들은 주님의 손에 심판을 맡긴 채 떠나 이동했다.

ㄹ. 잭슨 군에 있는 그들의 재산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한다.(교리와 성약 101:96~101)

### 3. “시온 진영” 비디오 발표

비디오 *교리와 성약 및 교회사의 가르침*(53933 320)을 구할 수 있다면 이 공과의 세 번째 토론 내용에서 “시온 진영”(19분)을 보여 주는 것을 고려한다.



# “오 하나님이시여, 당신은 어디 계시나이까?”

제 28 과

---

## 목적

반원들이 구주께 향함으로써 역경을 더 잘 견디어 낼 수 있도록 돕는다.

---

## 준비 사항

1. 기도하는 마음으로 다음 성구들과 자료들을 공부한다.
    - ㄱ. 교리와 성약 121:1~33; 122편. 이 공과에 나오는 다른 성구
    - ㄴ. 우리의 유산, 45~53쪽
  2. 반원 학습 지도서(35686 320)에서 본 공과에 대한 자료를 살펴본다. 공과 시간에 자료를 참조할 수 있는 방법을 계획한다.
  3. 미리 반원 한두 명에게 그들이 역경을 통해서 배운 것과 그것을 통해 어떻게 성장했는가를 간단히 이야기하도록 부탁한다. 그들이 이 과제에 대해 부담감을 갖지 않고 편안한 느낌을 갖도록 해준다.
  4. 주의 집중 활동을 할 경우, 각 반원에게 줄 종지와 펜 또는 연필을 준비한다.
- 

## 공과 전개 제언

### 주의 집중 활동

적절한 경우, 공과를 시작하기 위해 다음 활동이나 여러분 자신이 준비한 활동을 활용한다.

각 반원들에게 종지와 펜 또는 연필을 준다. 각자가 경험한 어려움이나 역경을 적어 보게 한다. 다 적고 나면 그 역경으로부터 무엇을 배웠으며, 그 역경 때문에 어떻게 발전했는가를 적게 한다.

이 공과는 구주께로 향함으로써 역경을 잘 견디어 내는 것에 관한 것이라고 설명한다. 반원들에게 나중에 그들이 적은 것을 이야기할 기회를 가질 것이라고 말한다.

---

### 토론과 적용

기도하는 마음으로 반원들의 필요 사항에 가장 잘 맞는 공과 자료를 선정한다. 반원들이 성구의 원리와 관련된 경험을 나누도록 격려한다.

미주리 주에 있었던 다음 사건들을 간략히 요약한다. 여러분은 본 공과의 155쪽에 있는 연대표와 275쪽의 지도 2 및 반원 학습 지도서, 30쪽을 참조할 수 있다.

성도들은 1833년 말, 잭슨 군에서 쫓겨 난 후, 근처에 있는 클레이 군에서 피난처를 찾고 1836년에 떠나라는 요청을 받을 때까지 거기 있었다. 그들은 클레이 군으로부터 북쪽으로 약 97킬로미터 떨어진 곳으로 옮겨가 파웨스트 공동체와 기타 정착촌들을 세웠다.

교회는 미주리 주 북부에서 한때 번창했다. 인구가 급속도로 늘어났으며 파웨스트와 아담 온다이 아만에는 성전 부지가 헌납되었다. 그러나 일부 성도들 간에는 대립이 계속되었다. 올리버 카우드리와 데이비드 휘트머를 포함한 몇몇 지도자들이 파문되었다.

교회 회원들 간의 불화에 더하여 미주리 주 북부 주민들과의 충돌도 계속되었다. 1838년에는 폭도들과 시민군들의 공격이 드세어지기 시작했다. 10월 25일, 사도인 데이비드 더블류 패튼을 포함한 세 명의 교회 회원들이 크룩크 강 전투에서 전사했다. 이를 후에 린번 더블류 보그스 미주리 주지사가 “몰몬을 적으로 간주하여 미주리 주에서 근절시키거나 쫓아내야 한다.”(성도의 벗, 1997년 7월호, 72쪽)는 법령을 내놓았다.

10월 30일, 약 이백 명의 폭도들이 혼즈밀에서 17명의 남자와 소년들을 살해했다. 다음날 조셉 스미스와 50명 정도의 교회 지도자들이 허항된 혐의로 체포되었다. 이 지도자들 대부분은 3주 내에 풀려났지만 조셉과 하이럼 스미스를 포함한 여섯 명은 무죄에도 불구하고 억류되어 있었다. 11월에 그들은 처음에는 인디펜던스로, 그 다음에는 리치몬드, 그 후에는 리버티로 옮겨져 1839년 4월까지 리버티 감옥에 감금되어 있었다.

리버티 감옥에서의 상황은 비참했다. 죄수들은 어둠과 추위와 불결한 환경의 토굴 감옥 같은 지하에 잡혀 있었다. 음식은 형편 없었으며 더러웠다. 선지자와 동료들은 약간의 벼짚이 깔린 돌 바닥에서 덮을 담요도 불충분한 채 잠을 자야 했다. 천장은 낮아서 조셉과 하이럼 등 몇몇 형제들은 바로 설 수도 없었다. 그들은 끊임없이 죽이겠다는 위협을 받으며 있어야 했다.

선지자가 감옥에 있는 동안 미주리 주의 약 8천 명의 성도들은 주지사의 근절령에 따라 강제로 그들의 집을 떠나야 했다. 일리노이 주로 피신하는 동안 폭도들에게 많은 사람들이 강탈당하고 매맞았으며, 살해당하기도 했다. 선지자는 성도들이 고통을 받고 있다는 보고를 듣고 주님께 도움을 간청했다. 그 응답으로 주님은 그에게 몇 가지 강력한 계시를 주셨다. 선지자는 성도들의 미주리 탈출을 지휘했던 쿤시에 있는 교회 지도자들에게 이 내용을 담아 편지로 보냈다. 이 계시의 일부가 현재 교리와 성약 121편, 122편, 123편이다.



**리버티 감옥.** 선지자 조셉 스미스는 1838~1839년에 이곳에서 부당하게 감금되어 있는 동안 현재의 교리와 성약 121편, 122편, 123편에 기록된 계시를 받았다.

## 1. 리버티 감옥에서의 조셉 스미스의 기도와 주님의 응답

- 반원들과 함께 교리와 성약 121편 1~6절을 읽는다. 이 구절들은 이 당시 조셉 스미스의 생각과 느낌에 대해 무엇을 말해 주고 있는가? 조셉은 주님께 무엇을 요구했는가? 이 구절에서 조셉의 간청을 읽을 때 여러분의 생각과 느낌은 어떠한가?
- 조셉 스미스의 기도에 대한 주님의 응답이 교리와 성약 121편 7~33절과 122편에 나와 있다. 반원들과 함께 교리와 성약 121편 7~10절을 읽는다. 이 구절에서 주님은 조셉에게 무엇을 가르치셨는가? 여러분에게 이 말을 했다면 어떤 느낌이 들었겠는가? 주님의 응답에서 우리는 주님에 대해 무엇을 배울 수 있는가?

다음 내용을 지적한다. 이 계시들은 “리버티 감옥을 잠시 동안 교훈을 주는 중심지로 만들었다. 성도들은 그곳을 주님이 주시는 격려와 권고의 말씀이 보내지는 곳으로 여겨 그곳으로 눈을 돌렸다. 그곳은 선지자가 있는 한, 감옥이 아니라 성전이였다. 그곳은 기도와 명상의 장소였다. … 조셉 스미스는 이 거친 감옥에서 하나님을 찾았고 그분을 발견했다.”(비 에이치 로버츠, *A Comprehensive History of the Church*, 1:526)

- 리버티 감옥에서 주어진 계시(교리와 성약 121편 및 122편)는 어떻게 여러분의 삶을 축복했는가?

## 2. 우리의 고통과 역경에 대한 구주의 완전한 이해

- 반원들에게 교리와 성약 122편 5~8절을 읽어 줄 동안 자신들의 시련에 대해 생각해 보게 한다. 구주는 어떤 식으로 모든 것 아래로 “내려갔”는가?(앨마서 7:11~12; 교리와 성약 19:16~19 참조)

구주께서 모든 자보다 몸을 낮추셨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시련을 다 이해하신다고 설명한다. 구주의 무한한 고통에 관해 이야기하면서 십이사도 정원회의 닐 에이 맥스웰 장로는 다음과 같이 말씀했다.

“예수님은 그의 무한한 속죄의 일부로 … 모든 남자와 여자 그리고 어린이들의 죄와 슬픔과 고통을 짊어지셨다고 야곱은 말했습니다.(니파이후서 9:21 참조) 예수님은 인간의 고통을 이해하는 데 완전해지셨기 때문에 우리를 어떻게 도우실지를 알고 계십니다. … 그분의 구속하는 손길이나 그분의 감싸주시는 이해심이 미치지 못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고통스러운 가시관을 쓰신 분이 누구인가를 기억한다면, 우리는 자신의 인생에서 겪는 고난에 대해 불평을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성도의 벗, 1987년 7월호, 80~81쪽)

- 여러분은 구주께서 위로하실 수 없는 어떤 시련을 겪고 있는가?(히브리서 4:15 참조) 구주께서 받으신 고통을 아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시련 속에서도 충실하도록 도울 수 있는가?
- 예수님이 속죄를 통해 주신 위안과 힘에 더욱 충실히 참여하기 위하여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히브리서 4:16; 베드로전서 5:6~11 참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과 기도와 겸손은 역경의 시기에 어떻게 힘을 얻게 해 줄 수 있는가?

## 3. 역경의 목적

역경은 이 지상 생활 동안 우리를 시험하고 발전시키려는 주님의 계획의 일부라고 설명한다. 우리는 고통과 시련과 고난을 경험할 것을 알고 지상에 왔다.

수많은 고난을 겪었던 선지자 조셉 스미스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고난이 “내게 또 하나의 천성이 되었고 또 바울과 같이 환난을 자랑으로 여겼다.”(교리와 성약 127:2) 주님이 리버티 감옥의 선지자에게 주신 위안과 권고에 더하여 주님께서서는 역경에 대해서도 수시로 가르치셨다. 이 공과의 나머지 부분에서는 교리와 성약에 있는 이 가르침을 검토하게 된다.

- 교리와 성약에서 역경의 목적에 대해 주님이 계시한 것은 무엇인가?(반원들과 함께 다음 구절을 읽는다. 칠판에 그 내용을 요약한다.)
  - ㄱ. 교리와 성약 98:12, 14~15; 101:4; 136:31(주님은 우리가 그분의 성약 안에서 생활하는지를 보고 우리를 시험하고 검증하기 위해 우리 인생에 역경을 허락하신다.) 주님께서 왜 그의 백성이 “모든 일에 시험을 받”기를 원하시는가?
  - ㄴ. 교리와 성약 101:1~2.(어떤 역경은 우리의 범법의 결과이다.)
  - ㄷ. 교리와 성약 122:7.(주님은 우리에게 경험을 주시고 발전하도록 돕기 위해 역경을 허락하신다.)

- 이 역경의 목적을 이해함으로써 우리는 어떻게 “잘 견디어”낼 수 있는가?(교리와 성약 121:8)
- 어떤 사람들은 모든 역경이 하나님의 벌이라고 생각하는 잘못된 믿음을 갖고 있다. 그런 믿음의 위험은 무엇인가? 역경은 왜 의로운 자들에게도 올 수 있는가?

범법이 역경의 한 근원이 되기는 하지만 그것이 유일한 근원은 아니라는 사실을 강조한다. 어떤 역경은 “모든 것에 반대되는 것이 있”(니파이후서 2:11)어야 하기 때문에 의로운 자에게라도 찾아온다. 어떤 역경은 필멸의 인간이 갖는 육체의 약함과 부패하기 쉬운 자연적인 결과로 오기도 한다. 또 어떤 것은 사고 때문에, 필연적인 범법이 아닌 우리 자신의 선택으로 인해서, 또는 하나님이 보호하실 수 있지만 때로는 “복음의 기본 율법이 선택의지와 영원한 발전”이기 때문에 보호하지 않는 것들, 즉 다른 사람들의 선택에 기인하기도 한다.”(스펜서 더블류 김블, *Faith Precedes the Miracle* [1973년], 96쪽) 역경은 “우리가 시련 후에 오는 성장의 혜택을 받도록 우리의 인생에서 주님의 목적을 달성하”기(성도의 벗, 1996년 1월호, 16쪽) 위해 올 수도 있다.

십이사도 정위원회에서 봉사하던 때에 해롤드 비 리 장로는 이렇게 말씀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대로 사는 삶이 우리의 생활에서 역경이 없으리라는 것을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복음대로 살 때 그 삶은 우리에게 역경을 이겨 내게 하고 현재의 고난 너머 더 밝은 날을 보게 하는 힘과 신앙과 권능을 줍니다.”(에이 디어도르 터틀 인용, Conference Report 1967년 10월 15일; *Improvement Era*, 1967년 12월호, 47쪽)

역경의 목적에 대한 경전의 가르침은 니파이후서 2장 11절, 앨마서 32장 5~6절, 앨마서 62장 41절, 힐라맨서 12장 1~3절을 참조할 수 있다.

#### 4. 역경을 당하고 있는 자들에 대한 주님의 권고

- 주님은 교리와 성약에서 우리가 역경에 처했을 때 도움이 되는 어떤 권고를 주셨는가?(반원들과 함께 다음 구절을 읽는다. 칠판에 그 내용을 요약한다. 토론을 이끌기 위해 몇 가지 질문을 선정한다.)
  - ㄱ. 교리와 성약 24:8; 31:9; 54:10; 121:7.(고난 중에 인내하라. 고난은 “잠시 뿐이리니.” 앨마서 17:11 참조) 시련을 견디기 위해 우리는 어떻게 인내를 키울 수 있는가? 어떤 점에서 조셉 스미스의 고난은 “잠시 동안”만 계속되었는가? 우리는 어떻게 주님의 영원한 시각에서 역경을 볼 수 있는가?

- ㄴ. 교리와 성약 98:1.(기뻐하고 감사하라) 왜 우리는 시련을 겪을 때조차도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는가? 가장 혹독한 역경 속에서도 우리가 계속해서 갖게 되는 축복은 무엇인가?
- ㄷ. 교리와 성약 98:11.(우리는 계속 순종하며 “모든 선을 붙들”어야 한다.) 역경에 처했을 때, 때때로 우리는 왜 순종하기가 어려운가?
- ㄹ. 교리와 성약 101:36~38.(몸을 염려하지 말고 영혼을 염려하며 주님을 찾으라) 우리는 어떻게 이 권고를 적용할 수 있는가?
- ㅁ. 교리와 성약 122:9.(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을 두려워 말라, 하나님이 영원무궁토록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다. 교리와 성약 98:13 참조)
- 어떤 사람들은 시련으로 발전하고 강화되지만 이와 반대로 어떤 사람들은 왜 더 격분하게 되는가? 시련과 역경에 더 잘 맞서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는가?(앨마서 62:49~51 참조) 역경의 시기에 여러분을 돕거나 고무시킨 경전 이야기는 무엇인가?
- 역경 동안 여러분을 돕기 위해 다른 사람들이 한 일은 무엇인가? 우리는 역경에 처한 사람들을 어떻게 도울 수 있는가? 다른 사람을 도울 때 우리 자신의 시련으로 배운 것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가? 우리가 시련을 당하고 있을 때 타인에 대한 봉사는 어떤 유익이 될 수 있는가?(누가복음 9:24; 갈라디아서 6:2 참조)
- 역경 때문에 좌절하고 실망할 때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는가?(앨마서 36:3 참조) 미래에 더 큰 역경이 올 때 강하게 되기 위해 우리는 어떻게 준비할 수 있는가?

### 5. 역경 속에서도 충실한 자들에 대한 주님의 약속

- 역경 속에서도 충실한 자들에게 주님은 교리와 성약에서 어떤 약속을 주셨는가?(반원들과 함께 다음 구절들을 읽는다. 칠판에 그 내용을 요약한다. 토론을 이끌기 위해 몇 가지 질문을 선정한다.)
  - ㄱ. 교리와 성약 3:8; 24:8; 112:13; 122:4(주님은 고난 중에 우리와 함께 해 주시고, 우리 곁에서 계실 것이며, 우리를 고쳐 주실 것이다. 야곱서 3:1; 모사이야서 24:13~14; 앨마서 36:27 참조) 주님께서 고난을 당하고 있는 우리와 함께 계실 것을 아는 것은 왜 중요한가? 어떤 경험이 시련의 때에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보여 주었는가?
  - ㄴ. 교리와 성약 58:2~4; 101:35~36; 103:12; 121:29; 127:4; 136:31.(환난 중에 충실한 자들은 영광과 기쁨과 그 밖의 축복을 받게 될 것이다.)
  - ㄷ. 교리와 성약 98:3; 122:7.(모든 일은 우리에게 유익이 되고 주께 영광이 될 것이다. 교리와 성약 90:24; 100:15; 니파이후서 2:2; 로마서 8:28 참조) 어떻게 역경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가?

지명 받은 반원들에게 역경으로부터 무엇을 배웠고 어떻게 성장했는지를 간략히 이야기하게 한다. (“준비 사항” 3 참조) 주의 집중 활동을 했다면 다른 반원들에게 적은 것을 말하게 한다. 주의 집중 활동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다른 반원들에게 역경에서 배운 것과 그 때문에 성장한 것에 대해 이야기하게 한다.

십이사도 정원회에서 봉사하던 때 제임스 이 파우스트 장로는 다음과 같이 말씀했다. “생애 동안 고통과 고뇌를 겪고 용기를 갖고 온갖 노력을 다하는 가운데 우리는 연단하는 자의 불을 통과하면서, 우리의 생애에서 시시한 것과 사소한 것은 불순물처럼 녹아 버려 우리의 신앙을 훌륭하고 완전하며 굳건하게 만듭니다. ... 그것은 어떤 사람에게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갖기 위해 필요한 조치입니다. 삶의 시련을 받고 있을 때, 우리는 성스러운 목자인 주님의 미세한 속삭임을 더 잘 듣게 되는 것 같습니다.”(성도의 벗, 1979년 10월호, 83쪽)

십이사도 정원회에서 봉사했던 매리온 지 롬니 장로는 이렇게 말씀했다.

“나는 시련의 시기에 하나님께 불경한 말을 하며 영적으로 죽은 사람들의 삶에서 죄책감을 갖고 절망하는 것을 보아 왔습니다. 나는 또한 견딜 수 없을 것처럼 보이는 무거운 짐으로부터 우뚝 일어서는 사람들도 보았습니다.”

“결국 나는 고난 속에서 주님을 찾았으며, 고난과 역경으로 인해 내가 무릎을 꿇게 되었을 때 나의 영이 크게 발전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Conference Report, 1969년 10월, 60 쪽: *Improvement Era*, 1969년 12월호, 69쪽)

르. 교리와 성약 121:8; 127:2.(고난 중에 충실한 자는 높이 들어 올려질 것이다.)

- 주님께서 교리와 성약 121편 7절에서 말씀하신 평강을 더욱 충분히 느끼기 위하여 우리는 시련의 시기에 무엇을 할 수 있는가?(교리와 성약 19:23 참조)

## 결론

선지자와 그의 동료들은 거의 5개월 동안 리버티 감옥에 수감된 후, 1839년 4월에 재판을 받기 위해 데이비스 군으로 이송되었다가 다시 분 군으로 보내졌다. 분 군으로 이송되는 동안 기소가 성공될 수 없다고 몇몇 관리들이 결론을 내렸기 때문에 간수들은 그들을 도망가게 두었다. 조셉 스미스와 함께 감금되었던 동료들은 일리노이 주로 방향을 잡았다. 그곳에서 그들은 가족과 나머지 성도들을 만났다.

반원들에게 역경의 시기에 리버티 감옥에서 주어진 계시를 읽도록 권유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속죄를 통해 우리의 슬픔을 짊어지셨음을 간증한다. 우리가 그분께로 향할 때 그분은 우리가 가장 어려운 지경에 처해 있을지라도 우리를 위로하시고 들어 올려 주실 것이다. 역경에 대처한 조셉 스미스의 모범과 우리가 역경을 견디고 그로부터 배우도록 기꺼이 도와주시는 그리스도에 대한 감사를 표한다.

## 추가로 가르칠 개념

여러분은 제언된 공과 개요를 보충하기 위하여 다음 개념 가운데서 한 두 가지 개념을 활용할 수 있다.

### 1. 우리의 신앙을 옹호하는 용기

리버티 감옥에 감금되기에 앞서 조셉 스미스와 동료들은 2주일이 넘게 미주리 주 리치몬드에서 낡은 빈 집에서 감시를 받으며 함께 사슬에 묶여 있었다. *우리의 유산*, 49~50쪽에 기록되어 있는, 육하는 간수들에 응답하는 조셉 스미스의 기사를 검토한다.

- 우리는 어떻게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는 데 필요한 용기를 개발할 수 있는가? 일상에서 용기가 필요한 상황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반원들에게 자신이나 알고 있는 사람이 복음의 원리를 지지함에 용기를 보인 경험을 말하게 한다.)

### 2. 아만다 스미스가 아들인 엘마를 돕기 위한 영감을 받음

*우리의 유산*에는 아만다 스미스가 혼즈밀 머스켓에서 부상당한 아들, 엘마를 돕는 데 필요한 영감을 받은 기사가 실려 있다.(47~48쪽) 만일 15과에서 이 기사를 다루지 않았다면 이 과에서 할 수 있다.

# 일리노이 주 나부에서 하나님의 왕국을 건설함

제 29 과

---

**목적** 초기 성도들이 나부에서 하나님의 왕국을 건설하기 위해 어떻게 일했는가에 대해 가르치고 반원들에게 그들의 모범을 따르도록 격려한다.

---

- 준비 사항**
1. 기도하는 마음으로 다음 성구와 자료를 공부한다.
    - ㄱ. 교리와 성약 124:1~21, 87~90, 97~110; 126편
    - ㄴ. *우리의 유산*, 51~52, 55~58, 61~62쪽
  2. *반원 학습 지도서*(35686 320)에서 본 공과에 대한 자료를 살펴본다. 공과 시간에 자료를 참조할 수 있는 방법을 계획한다.
  3. 반원들에게 *우리의 유산*에 있는 다음 이야기를 요약하여 준비해 오게 한다.
    - ㄱ. “일리노이로 탈출함” 편에 있는, 존 햄머와 그 가족이 일리노이에서 피난처를 찾으면서 겪은 시련.(51~52쪽)
    - ㄴ. “나부 선교사들의 희생”(55~58쪽)
    - ㄷ. “상호부조회”(61~62쪽)
  4. 상호부조회 회장이나 보좌가 상호부조회의 목적에 대해 이야기해 주기를 원한다면 미리 초청을 한다. 상호부조회 회장에게 1999년 상호부조회 대회에서 발표되었던 상호부조회 선언문을 읽을 준비를 해달라고 부탁한다. 이 선언문은 본 교재의 166쪽과 *리아호나*, 2000년 1월호에 실려 있다.
- 

## 공과 전개 제언

주의 집중 활동 적절한 경우, 공과를 시작하기 위해 다음 활동이나 여러분 자신이 준비한 활동을 활용한다.

칠판에 다음 문장을 적는다.

죽은 자를 위한 침례 교리가 제시됨

성전 엔다우먼트가 처음으로 집행됨

상호부조회가 조직됨

- 이러한 일은 어디에서 일어났는가?

이러한 일을 포함한 많은 중요한 사건들이 일리노이 주 나부에서 일어났다고 설명한다. 이 공과에서는 초기 나부 성도들이 하나님의 왕국을 건설하기 위해 어떻게 일했으며, 오늘날 하나님의 왕국을 건설하는 우리가 그들의 모범으로부터 어떤 것을 배울 수 있는지를 토론하게 된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반원들의 필요 사항에 가장 잘 맞는 공과 자료를 선정한다. 반원들이 성구의 원리와 관련된 경험을 나누도록 격려한다.

**1. 성도들은 일리노이 주에서 피난처를 찾으려고 노력했다.**

조셉 스미스가 미주리 주 리버티 감옥에 있는 동안, 성도들의 미주리 탈출을 지시하는 주요 임무가 십이사도 정원회 회장인 브리검 영에게 맡겨졌다. 1838년말, 성도들은 박해자들을 피하여 일리노이 주로 가기 위해 미시시피 강을 건너기 시작했다. 본 교재 276쪽의 지도 3 및 **반원 학습 지도서**, 31쪽은 성도들이 미주리 주에서 추방당할 때 갔던 길을 보여 준다.

지명 받은 반원에게 존 햄머와 그의 가족이 일리노이 주에서 피난처를 찾으려고 노력하면서 겪었던 시련에 대해 이야기하게 한다. *(우리의 유산, 51~52쪽)*

성도들은 처음에 일리노이 주 퀸시에 집합했다. 조셉 스미스가 리버티 감옥에서 돌아오자 성도들은 미시시피 강 북쪽으로 약 56킬로미터 정도 상류에 있는 커머스라는 작은 마을로 갔다. 성도들은 급히 그곳의 커다란 늪지대의 물을 빼내고, 작물을 심고, 집을 짓기 시작했다. 1839년 여름 동안 선지자는 그곳을 나부라 명명했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이 도시의 명칭(나부)은 히브리어에서 유래한 것으로 아름다운 곳이라는 의미와 안식처라는 의미를 아울러 내포하고 있습니다.” *(선지자 조셉 스미스의 가르침, 170쪽)*

1840년 12월에 일리노이 주는 나부에 지역 방위군과 지방 법원 및 대학을 설립하도록 인가하는 현장을 내주었다. 나부는 교회가 급속도로 성장하고 새 개종자들이 모이면서, 일리노이 주에서 두 번째로 큰 도시가 되었다.

1841년 1월 19일에 선지자 조셉 스미스는 주님께서 성도들에게 나부에서의 임무에 대해 명하시는 한 계시를 받았다. 이 계시는 교리와 성약 124편에 기록되어 있다. 교리와 성약 124편과 초기 나부 성도들의 모범을 공부함으로써 우리는 하나님 왕국 건설에서의 우리의 중요한 역할을 더욱 분명히 이해할 수 있게 된다.

**2. 나부에서 보낸 선교사들이 수천 명의 사람들을 개종시켰다.**

십이사도 정원회를 비롯한 나부의 많은 교회 회원들이 선교사로 봉사하도록 부름 받았다. 지명 받은 반원에게 나부 성도들의 선교 사업에 대해 보고하게 한다. *(우리의 유산, 55~58쪽)*

영국에 도착한 지 몇 개월 만에 윌포드 우드립 장로는 많은 사람들에게 침례를 주고 확인 안수를 했다. 그런 후에 그는 다음과 같은 경험을 했다.

“저는 많은 성도와 비회원들과 함께 대규모 집회를 열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 찬송가를 부르고 있을 때였습니다. 주님의 영이 제게 임하면서 하나님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이 모임은 네가 이 사람들과 갖는 마지막 모임이 될 것이다.’ 그 지역에서 할 일이 많았던 저는 너무도 놀랐습니다. 저는 설교를 위해 일어섰고 사람들에게 이 모임이 저와 갖는 마지막 모임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들도 저만큼이나 놀랐습니다. 모임이 끝나갈 무렵, 네 명의 사람들이 침례를 받기 위해 앞으로 나왔고 우리는 물가로 가서 그들을 침례했습니다.”

“야침에 저는 은밀히 주님 앞에 나아가 저에 대한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여쭙었습니다. 제가 받은 응답은 제가 남부로 가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거기에는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말씀을 기다리고 있으며, 제가 수행하도록 주님께서 마련하신 위대한 사업이 있었습니다.”



그 뒤 이틀 동안 남부로 여행한 그는 헤리포드셔의 존 벤보우 농장으로 갔다. 벤보우 씨와 그의 아내 제인은 그를 반갑게 맞이했고, 거기에 유나이티드 브레드른이라 불리는 6백 명이 넘는 남녀들이 모여 만든 집단이 있다고 말해 주었다. 우드럽 장로는 이렇게 말했다.

“유나이티드 브레드른이란 집단은 빛과 진리를 찾고 있었지만 그 길과는 멀리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들은 주님께 구원받기 위한 참된 길을 알도록 길을 열어 주시고 지식과 빛을 보내 주시기를 계속해서 간구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내막을 듣고 저는 왜 주님께서 제게 헨리 마을을 떠나 남부로 가라고 명하셨는지를 분명히 알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헤리포드셔가 하나님의 왕국으로 들어올 많은 성도들을 모을 큰 수확의 들판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드럽 장로가 영국의 이 지역에서 기울인 노력은 “하나님의 축복을 통하여 8개월 동안, 한 사람을 제외한 유나이티드 브레드른의 600명 전원이 포함된 1,800명이 넘는 사람을 교회로 들어오게 할 수 있었다.”(*Wilford Woodruff: History of His Life and Labors*, ed. 마티아스 에프 코올리 [1909년], 116~119쪽)

- 우드럽 장로의 경험에서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 있는가?

영국에서 봉사한 선교사들의 희생과 노력으로 교회가 강화된 점을 지적한다. 해롤드 비 리 장로는 이 놀라운 시기에 일어났던 일을 이렇게 요약했다.

“1840년에서 1841년 사이, 정확히 일년하고 14일 동안 십이사도 중 아홉 명이 영국 선교부에서 일하도록 부름 받았다. [나부] 역사상 그 기간은 이 경륜의 시대에 교회가 겪은 가장 혹독한 박해 기간 중 하나였다. 그 일년 14일 동안 십이사도 중 아홉 명은 동료들과 함께 대영제국의 모든 유명한 마을과 도시에 교회를 세웠다. 그들은 7,000내지 8,000명에 달하는 개종자들을 침례했다. 그들은 물문경 5,000부, 찬송가 3,000부, 소책자 50,000여 부를 찍어 내었으며 1,000명에 달하는 사람들을 미국으로 이주시켰다.”(Conference Report, 1960년 4월, 108쪽)

### 3. 나부 성도들의 모범은 의로움 속에서 끝까지 견디는 것의 중요성을 보여 준다.

교리와 성약 124편에는 나부 시절에 살았던 개인들에 대한 많은 가르침과 약속들이 들어 있다고 설명한다. 반원들과 함께 다음 구절들을 읽고 그 가르침과 약속들을 알아본다.

- ㄱ. 교리와 성약 124:12~14.(로버트 비 톰슨에게)
- ㄴ. 교리와 성약 124:16~17.(존 시 베넷에게)
- ㄷ. 교리와 성약 124:18~19.(라이먼 와이트에게)
- ㄹ. 교리와 성약 124:87~90, 97~102.(윌리엄 로에게)
- ㅁ. 교리와 성약 124:103~110.(시드니 리그돈에게)

나부 시절 동안, 대부분의 성도들은 충실히 남았으며 크게 축복을 받았다. 그러나 존 시 베넷, 라이먼 와이트, 윌리엄 로, 시드니 리그돈 등은 배도로 빠져 그들이 받은 많은 축복을 박탈당했다.

- 의로움 속에서 끝까지 견디기 위해 노력할 때 여러분에게 가장 도움이 된 것은 무엇인가?
- 반원들과 함께 교리와 성약 124편 15절을 읽는다. 하이럼 스미스에게 있는 어떤 특성을 주님이 칭찬하셨는가?(다음 인용문을 참조한다.) 우리는 어떻게 고결한 성품을 개발시킬 수 있는가? 우리는 어떻게 올바른 것을 사랑하는 마음을 개발시킬 수 있는가?

선지자 조셉 스미스는 형인 하이럼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말했다. “저는 모든 형제들이 양같이 온순하고 읊같이 고결한, 요컨대 그리스도의 온유함과 겸손을 지닌 사랑하는 저의 형 하이럼과 같이 되기를 온 마음을 다해 기도드릴 수 있습니다. 저는 죽음보다 더 강한 사랑으로 형을 사랑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형을 책망한 적이 없었으며, 형도 저를 책망한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성도의 벗, 1992년 1월호, 7쪽)

#### 4. 나부에서 상호부조회가 조직되었다.

나부에 사는 동안 성도들은 새로운 교회 조직을 갖게 되는 축복을 받았다고 설명한다. 선지자 조셉 스미스는 신권의 권세로 상호부조회를 조직했다. 지명 받은 반원에게 *우리의 유산*, 61~62쪽의 “상호부조회” 편을 요약하게 한다.

상호부조회의 목적을 강조하기 위해 1999년 상호부조회 대회에서 발표된 다음 선언문을 읽는다. 상호부조회 회장 또는 보좌 한 명에게 부탁했다면 지금 발표하게 한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영의 딸들이다. 우리의 삶은 의미와 목적과 방향을 지니고 있다. 우리는 자매애로 이루어진 전세계적인 조직의 일원으로서 단합하여 우리의 구주요 모범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헌신하고 있다. 우리는 신앙과 미덕과 비전과 사랑을 지닌 여성이며 다음과 같이 행한다.”

“기도와 경전 공부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자신의 간증을 키운다.”

“성신의 속삭임에 따름으로써 영적인 힘을 구한다.”

“결혼과 가족과 가정을 강화하기 위해 자신을 바친다.”

“모성애에서 고귀함을 찾고 여성의 역할에서 기쁨을 찾는다.”

“봉사와 선행에서 즐거움을 느낀다.”

“생애를 사랑하고 배움을 좋아한다.”

“진리와 의를 위해 나아간다.”

“신권을 지상에 있는 하나님의 권세로 지지한다.”

“성전의 축복을 누리며 기뻐하고, 자신의 신성한 운명을 이해하고, 승영에 이르기 위해 노력한다.” (매리 엘런 스무트, “시온의 딸아 기뻐하라”, *리아호나*, 2000년 1월호, 111~112쪽)

- 상호부조회는 어떻게 신앙을 키우고 간증을 강화시키는가? 상호부조회는 어떻게 결혼과 가족을 강화시키는가? 상호부조회는 어떻게 궁핍한 사람들을 돕는가?
- 여러분의 삶은 상호부조회로 인해 어떤 축복을 받았는가?

#### 결론

나부의 초기 성도들은 선교 사업과 기타 여러 방법의 봉사를 통해 하나님의 왕국을 건설하는 데에 자신들의 삶을 바쳤다. 그들의 모범을 따름으로써 우리는 오늘날 하나님의 왕국을 건설하는 데에 더욱 충실히 도움을 줄 수 있다.

영의 속삭임이 있을 때 공과에서 토론된 진리들에 대해 간증한다.

**추가로 가르칠 개념**

여러분은 제언된 공과 개요를 보충하기 위해 다음 개념들 중 한 가지 이상을 활용할 수 있다.

**1. 초기 성도들은 미주리 주에서의 성전 건립을 면제받았음**

- 성도들은 주님께서 인디펜던스와 파웨스트에 각각 한 개씩 성전을 짓도록 명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미주리 주에서 한 개의 성전도 건축하지 못했다.(교리와 성약 57:1~3; 97:10~12; 115:7~12) 교리와 성약 124편 49~53절에서 주님이 가르치신 원리는 무엇인가? 오늘날 이 원리는 어떻게 우리에게 적용될 수 있는가?

**2. 주님의 말씀을 성취하려는 사도들의 노력**

교리와 성약 118편에는 십이사도들에게 “큰 물”을 건너 복음을 전파하라는 주님의 지시가 들어 있다고 설명한다. 형제들은 1839년 4월 26일에 미주리 주 파웨스트의 성전 부지에서 떠나기로 되어 있었다. 그러나 대부분의 성도들은 1839년 3월까지 미주리 주를 벗어나 일리노이 주로 피신해 왔다. 폭도들은 파웨스트로 돌아오는 지도자들은 누구든지 위협했다.

이런 위협에도 불구하고 브리검 영을 위시해서 네 명의 사도들과 몇몇 사람들은 1839년 4월 26일, 자정이 조금 지난 아침에 파웨스트 성전으로 돌아왔다. 그곳에서 그들은 윌포드 우드럽과 조지 에이 스미스를 새로이 사도로 성임했다. 그들은 찬송하고 기도했으며 계획된 성전 부지 한 모퉁이에 큰 돌을 굴러 갖다 놓았다. 조금 있다가 그들은 선교 사업을 위해 영국으로 떠났다.

**3. 세상에 전하는 선언문**

- 반원들과 함께 교리와 성약 124편 1~7절을 읽는다. 주님은 선지자 조셉 스미스에게 무엇을 쓰도록 명하셨는가?

선지자 조셉 스미스와 그 밖의 사람들은 1844년 선지자가 순교할 때까지 이 선언문에 대한 작업을 했다고 설명한다. 십이사도 정원회는 그 후 그 문서의 작성을 끝내고 이를 1845년 4월 6일에 발표했다.

그 선언문은 세상의 왕들과 미국 대통령 및 모든 나라의 통치자들과 백성들에게 전하는 것이었다. 교회 지도자들은 하늘로부터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하신 것과 구주의 재림을 위한 길을 준비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왕국과 성신권이 회복된 점을 선포했다. 그들은 또한 이렇게 선언했다.

“우리는 높은 곳으로부터 온 권세를 가지고 여러분 모두가 거룩하신 분 앞에 회개하고 어린아이같이 자신을 낮추며, 상한 마음과 통회하는 심령으로 예수께로 나아와 죄 사유함을 위해 그의 이름으로 침례 받기를 명합니다. 그렇게 할 때 여러분은 사도와 장로의 안수로 이 마지막 경륜의 시대에 인간에게 주는 위대한 자비인 성신의 은사를 받을 것입니다.”

“이 영은 우리의 간증이 진실함을 간증해 주며, 여러분의 마음을 밝혀 주며, 예언과 계시의 영으로 여러분 안에 임할 것입니다. 그 영은 이 과거의 것을 이해하고 기억하게 해 줄 것이며, 앞으로 있을 일을 알게 할 것입니다.”

“그 영은 또한 여러분에게 많은 위대하고 영광스러운 은사, 즉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행하는 안수에 의한 병고침의 은사, 치유됨의 은사, 사탄을 쫓아내는 은사, 시현을 보는 은사, 보이지 않는 세상으로부터 온 천사들 및 영들과 회합하는 은사를 줄 것입니다.”

“의식을 행함으로써 얻어지는 성령의 빛으로, 즉 신성한 사도의 직분과 신권의 능력과 권세로 여러분은 이해의 눈이 밝게 되고, 빛의 자녀가 되어, 지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피해 인자 앞에 설 준비를 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진술한 교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교리, 즉 복음임을 간증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진실하고 영원하며 불변의 복음으로, 인간이 구원받을 수 있는 지상에 계시된 유일한 계획임을 간증합니다.”(제임스 알 클라크, comp. *Messages of the First Presidency of the Church of Jesus Christ of Latter-day Saints*, 6 vols. [1965~1975년], 1:252~254)

1975년, 십이사도 정원회의 에즈라 테프트 벤슨 회장은 연차 대회에서 이 문서의 일부를 인용하며 교회가 세상에 보내는 이 진리들을 다시 한번 선포한다고 선언했다.

“주님의 겸손한 종으로서 우리는 여러 국가의 지도자에게 말하거니와 하나님 앞에 스스로를 낮추고 그분의 영감과 인도를 구할 것을 촉구합니다. 우리는 통치자와 국민이 다 함께 그들의 악한 습관을 회개할 것을 촉구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서서, 그의 용서를 구하고, 그의 왕국과 겸손한 마음으로 연합하십시오.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이렇게 하면 여러분의 죄가 씻기고, 마음의 화평을 얻게 되며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비하면서 하나님 나라에 속하게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회개를 거부하고 영감 받은 하나님의 사자의 간증을 받아들이기를 거부하고 하나님 나라에 속하기를 거절한다면 악인에게 언약된 무서운 심판과 재난이 여러분에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성도의 벗, 1976년 2월호, 28쪽)

#### 4. “기꺼이 하고자 하는 마음” 비디오 발표

교리와 성약 및 교회사의 가르침(53933 320) 비디오를 구할 수 있으면, “진심과 기꺼이 하고자 하는 마음”(8분 짜리)을 보여 준다. 이 비디오는 복음을 전파하며 주님께 기꺼이 봉사한 히버 시 킴볼 장로에 대한 기록이다. 또한 주님께 봉사하기 위해 커틀랜드를 떠나 영국으로 갈 때 그를 지지해 주었던 아내와 자녀들의 헌신을 보여 준다.

여러분은 토론과 적용 2에서 이 비디오를 보여 줄 수 있다. 반원들과 함께 비디오 발표를 토론하기 위해 다음 질문을 한다.

- 반원들과 함께 교리와 성약 64편 33~34절을 읽는다. 킴볼 장로는 주님의 사업에 대하여 정성을 다한다는 것을 어떻게 보여 주었는가? 그는 어떻게 “기꺼이 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졌다는 것을 보여 주었는가? 단순히 순종하는 것과 기꺼이 순종하는 것과는 어떤 차이가 있는가?
- 킴볼 장로와 그의 가족은 시온의 대업을 진척시키기 위해 기꺼이 희생을 하겠다는 것을 보여 주었다. 주님의 사업에 봉사하기 위해 오늘날 우리가 해야 할 희생은 무엇인가? 어떤 점에서 우리의 희생은 그들의 희생과 다른가? 어떤 점에서 우리의 희생은 그들의 희생과 유사한가?

#### 5. 선지자 조셉 스미스의 붉은 벽돌집 상점

선지자 조셉 스미스의 붉은 벽돌집 상점은 나부 시절 내내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건물 중 하나라고 설명한다.(169쪽 사진 참조) 그것은 일반 상점이었을 뿐만 아니라 종교적, 사회적 및 시민 활동의 중심지였다. 성도들은 그곳에 공립 학교를 세웠으며 그 건물을 교회와 시민의 모임을 위해, 또

청소년의 집합 장소로 사용했다. 1842년 17일에는 이 상점에서 상호부조회가 조직되었다. 성전이 완공되기 전 2층은 의식실로 사용되었으며 이 경륜의 시대의 첫 번째 엔다우먼트가 그곳에서 있었다.



선지자 조셉 스미스의 붉은 벽돌집 상점. 이것은 나부 시절 내내 교회의 가장 중요한 건물이었다.

**목적**

반원들이 죽은 자를 위한 의식을 행하는 기회를 기쁘게 받아들이도록 돕는다.

**준비 사항**

1. 기도하는 마음으로 다음 성구와 자료들을 공부한다.
  - ㄱ. 교리와 성약 2편; 124:25~55; 127편; 128편; 조셉 스미스-역사 1:36~39.
  - ㄴ. 우리의 유산, 58~61쪽, “나부 성전”
2. 반원 학습 지도서(35686 320)에서 본 공과에 대한 자료를 살펴본다. 공과 시간에 자료를 참조할 수 있는 방법을 계획한다.
3. 미리 다음과 같이 준비해 오도록 지명한다.
  - ㄱ. 반원 한 명에게 나부 성전 건축에 대한 이야기를 준비해 오게 한다. 지명 받은 반원에게 우리의 유산, 58쪽에 있는 소제목 “나부 성전”의 처음 네 단락까지의 내용을 바탕으로 발표하게 한다.
  - ㄴ. 두 명의 반원에게 죽은 자를 위한 침례를 행했을 때의 경험을 간단히 이야기하도록 준비시킨다. 죽은 자를 위한 침례를 통해 그들이 다른 사람의 구원에 도움을 줄 수 있음을 알았을 때 어떤 느낌이 들었는지 이야기하게 한다. 만약 그들이 자신들의 죽은 조상을 위해 침례를 행했다면 이 경험이 어떻게 그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했는지에 대해 이야기하게 한다.
  - ㄷ. 한 명 이상의 개종자에게 그들이 자신들의 죽은 가족을 위해 침례를 받을 수 있음을 처음 알게 되었을 때 어떤 마음이었는지를 설명해 주도록 준비시킨다.
4. 다음 그림을 구할 수 있다면 공과 동안 사용하도록 준비한다. 나부 성전(62432; 복음 그림 팩킷 501) 및 성전 침례탕(62031; 복음 그림 팩킷 504)
 

*교사 유의 사항:* 반원들이 복음을 받기 전에 죽은 조상들을 어떻게 찾는지 질문할 수도 있다. 그들에게 와드 가족 역사 상담자와 이야기하거나 성전 및 가족 역사 사업에 대한 회원 지도서(34697 320)를 구하도록 제안한다. 또 교회 가족 역사 센터에 알아볼 수도 있다. 여러분은 제40과에서 교회 회원들이 성전과 가족 역사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 할 수 있는 특별한 일을 다루게 됨을 알려 주어도 된다.

**공과 전개 제언**

**주의 집중 활동**

적절한 경우, 공과를 시작하기 위해 다음 활동이나 여러분이 준비한 활동을 활용한다.  
 선지자 조셉 스미스가 그의 만형인 앨빈에 대해 말한 다음 기사를 읽는다.

“그는 … 제 아버지의 가족 중에서도 가장 고귀했습니다. 그는 인간 중에 가장 고귀한 사람들 중 한 명이었습니다. 마음속에 어떤 교활함도 없었던 그는 가장 진지한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임종시에는 주님의 천사의 방문이 있었습니다.”(교회 정사, 5:126~127)

앨빈은 신권이 회복되기 5년 전, 첫번째 시험에 대한 조셉의 간증을 받아들인 4년 후인 1824년에 사망했다고 설명한다.

- 여러분의 가족 중 충만한 복음을 받기 전에 돌아가신 분은 누구인가? 여러분은 이 가족들에 대해 무엇을 알고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 회원으로서 우리에게서 충만한 복음과 신권의 구원의 의식이 있음을 지적한다. 죽은 자를 위한 성전 사업 덕분에 우리는 지상 생활 동안 결코 구원의 의식을 받지 못했던 수십 억의 남녀들에게 이 의식을 베풀 수 있다.

이 공과는 죽은 자를 구속하는 사업에 대한 것이라고 설명한다. 여기서는 주로 죽은 자를 위한 침례에 대해 토론하게 된다.

## 토론과 적용

기도하는 마음으로 회원들의 필요 사항에 가장 잘 맞는 성구, 질문 및 공과 자료를 선정한다. 회원들이 성구의 원리와 관련된 경험을 나누도록 격려한다.

### 1. 선지자 조셉 스미스를 통해 주님께서 죽은 자를 위한 신권 의식의 교리를 계시하셨다.

- 왜 우리는 죽은 자를 위한 의식을 행하는가?(모든 사람이 복음을 듣고 신권의 구원의 의식을 받을 기회를 가져야 한다고 설명한다. 지상 생활 동안 이러한 축복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영의 세계에서 그 기회를 갖게 된다. 영의 세계에서 그들은 육체가 없기 때문에 스스로 의식을 받을 수 없다. 그러나 우리는 그들을 대신해서 의식을 받을 수 있다. 그런 연후에 영의 세계에 있는 각 개인들은 그들을 위해 집행된 의식을 받아들이거나 거절하거나 선택하게 된다.)

주님께서 일찍이 선지자의 성역 초기에 조셉 스미스에게 죽은 자를 위한 사업에 대해 가르치기 시작하셨음을 지적한다.(조셉 스미스-역사 1:36~39; 교리와 성약 2편 서문 및 교리와 성약 2:1~3) 고든 비 힝클리 회장은 이 가르침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씀했다.

“언덕에서 금판을 받기 4년 전, 소년 조셉에게, 죽은 자를 위한 사업에 관한 말라기의 놀라운 말씀이 이와 같이 반복되었다는 사실은 저에게는 엄청난 의미로 다가옵니다. 그것은 그가 침례도 받기 전이며, 아론 신권도 멜기세덱 신권도 받기 전이었고, 교회가 조직되기 훨씬 전이었습니다. 그것은 주님의 계획에서 이 일의 우선 순위가 매우 높다는 것에 관해 많은 것을 말해 주고 있습니다.”(“A Century of Family History Service”, *Ensign*, 1995년 3월호, 61쪽)

1840년 8월 15일에 선지자 조셉은 세이머 브런슨이라는 회원의 장례식에서 설교하던 중에 죽은 자를 위한 침례(29절)를 언급하고 있는 고린도전서 15장의 많은 절을 읽었다. 그런 뒤에 그는 성도들이 복음을 받지 못한 채 죽은 친구나 친지들을 위해서 침례를 받을 수 있다고 발표했다. 그는 구원의 계획의 목적이 하나님의 율법이 요구하는 것을 기꺼이 순종하려는 자 모두를 구원하는 것이라고 선언했다. 이 설교 후에 교회 회원들은 미시시피 강 근처에서 죽은 자를 위한 침례를 집행하기 시작했다.(Journal History of the Church of Jesus Christ of Latter-day Saints, 1840년 8월 15일 참조)

## 2. 주님은 성도들에게 나부에 성전을 세우라고 명하셨다.

- 성도들이 죽은 자를 위한 침례를 베풀기 시작한 지 몇 달 후인 1841년 1월 19일에 주님은 나부에 성전을 세우라고 명하셨다.(교리와 성약 124:25~27) 주님은 어떤 이유로 이 계명을 주셨는가?(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 다음 성구를 반원들과 함께 읽는다. 아래에 열거된 것들이 답으로 나올 수 있다.)

ㄱ. 교리와 성약 124:28, 40~41.(신권 의식을 추가로 드러내 보이기 위해)

ㄴ. 교리와 성약 124:29~30, 33.(죽은 자를 위한 침례를 집행할 장소를 마련하기 위해)

ㄷ. 교리와 성약 124:55.(성도들이 주님의 계명을 충실히 지킴을 입증하고 이로써 그분의 축복을 받아 존귀와 불멸과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

나부 성전은 이 경륜의 시대에 세워진 두 번째 성전임을 지적한다. 이 성전의 주된 목적 중 하나는 성도들이 죽은 자를 위한 침례와 확인, 엔다우먼트 및 성전 결혼과 같은 의식들을 집행하는 장소를 마련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의식은 커틀랜드 성전에서는 집행되지 않았다.

나부 성전 그림을 보여 준다. 성도들은 이 성전을 세우라는 명에 순종하기 위해 큰 희생을 치렀다고 설명한다. 지명 받은 반원에게 *우리의 유산*(58~60쪽, “나부 성전” 제목 밑의 첫 네 단락)에 나와 있는 나부 성전 건축에 대해 보고하게 한다.



**나부 성전.** 이 모형은 1848년 불타기 전의 아름다웠던 원래의 모습을 보여 준다.



- 나부 성전을 건축하면서 초기 성도들이 바친 희생에 대해 여러분은 어떤 감명을 받았는가?

주님은 성도들에게 잠시 동안 미시시피 강에서 죽은 자를 위한 침례를 계속하도록 허락하셨다고 설명한다.(교리와 성약 124:31~32) 그러나 1841년 10월 3일, 선지자 조셉은 “주님의 집에서 의식이 집행될 때까지 더 이상의 죽은 자를 위한 침례는 없을 것입니다.”라고 발표했다.(교회 정사, 4:426) 1841년 11월 8일에 브리검 영은 미완성의 성전 지하실에 임시지만 나무로 된 정교한 침례탕을 헌납했다.(교회 정사, 4:446~447) 오늘날에는 죽은 자를 위한 모든 의식은 성전에서 집행되어야 한다.

- 성전이 완공되기 전에 침례탕을 만들겠다는 성도들의 결심에서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 있는가?(이 질문을 토론할 때 죽은 자의 구속에 대한 반원들의 느낌을 말해 보게 한다. 초기 성도들처럼 그렇게 열심히 그 일을 하고 있는지 스스로 자문해 보도록 권유한다.)

### 3. 우리는 기쁜 마음으로 열의를 다하여 죽은 자를 위한 침례를 집행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죽은 자를 위한 침례 일부가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후 신약 시대에 행해졌다.(고린도전서 15:29) 그러나 죽은 자를 위한 구원의 의식이라는 이 위대한 사업은 지금 이 경륜의 시대에 사는 교회 회원들의 책임이다. 성전의 침례반 사진을 보여 준다.

새로운 개종자를 포함한 12세 이상의 교회 회원은 죽은 자를 위한 침례를 행할 수 있다. 죽은 자를 위한 침례를 베풀기 위해서 회원은 현재 유효한 성전 추천서를 소지해야 한다. 남자 회원은 신권을 소지해야 한다.

- 반원들과 함께 교리와 성약 128편 15절을 읽는다. 어떤 점에서 죽은 자는 자신들의 구원을 얻기 위해 우리에게 의존하는가? 어떤 점에서 우리의 구원은 죽은 자의 구원에 의존하는가?(교리와 성약 128:17~18 및 아래 인용문)

고든 비 힝클리 회장은 다음과 같이 말씀했다. “주님의 집에서 진행되고 있는 것은 내가 알고 있는 그 어떤 활동보다도 주님의 희생의 정신에 가깝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다른 사람들이 스스로 할 수 없는 것을 해 주기 위해 아무런 감사나 보상을 기대하지 않고 시간과 물질을 아낌 없이 제공하는 자들에 의해 행해지기 때문입니다.”(*Ensign*, 1995년 3월호, 62~63쪽)

십이사도 정원회에서 봉사했던 존 에이 윌소 장로는 다음과 같이 말씀했다. “전세에서 천국 회의가 열렸던 날에 우리는 전능하신 분과 어떤 계약을 맺었습니다. 주님은 자신이 세운 계획을 제안 하셨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받아들였습니다. 그 계획은 모든 사람을 위해 마련된 것이므로, 우리는 그 계획 하에서 모든 사람의 구원에 대한 계약 당사자가 되었습니다. 바로 그때 그 자리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위한 구원자가 될 뿐만 아니라, 전체 인간 가족을 위한 구원자가 되기로 동의했습니다. 우리는 주님과 함께 일하는 협력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계획을 성취하는 것은 아버지와 구주의 일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일도 되었습니다. 우리 중에서 가장 작은 자, 가장 보잘것없는 자도 영원한 구원의 계획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있어서 전능하신 분과 함께 일하는 협력자가 되었습니다.”(“The Worth of Souls”, *Utah Genealogical and Historical Magazine*, 1934년 10월, 189쪽)

- 반원들과 함께 교리와 성약 2편을 읽는다. 죽은 자를 위한 침례를 행함으로써 우리는 어떻게 우리 마음을 우리의 조상에게로 돌릴 수 있는가?

지명 받은 반원들에게 죽은 자를 위한 침례를 통해 자신이 다른 사람의 구원에 도움이 됨을 알 때, 어떤 느낌이 드는지를 간단히 이야기하게 한다. (“준비 사항” 3, ㄴ 참조)

여러분이 청소년을 가르치고 있는 경우,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죽은 사람들의 이름을 찾아낸 한 청년 그룹에 관한 다음 이야기를 전할 수 있다.

“남녀 4백 명 이상의 이름을 찾아낸 후에 [아이다호] 메리디언 제15와드 청년들은 [아이다호] 보이스 성전에서 침례를 행하기 위해 함께 갈 청년들을 초대했다. 성전에서는 그들 와드를 위해 그 이름들을 파일에 넣어 준비해 놓았다. 15세의 헤더 베넷은 이렇게 말했다. “그들에게는 침례를 받는 일이 가장 좋은 일인 것 같았어요. 그 이름들은 제게 친숙하게 들렸어요. 그 일은 전체 계획에서 가장 멋진 일이었어요. 우리는 우리가 하지 않았으면 달리 행해지지 않았을 일을 그 사람들을 위해 했지요. 그들은 잊혀졌을지도 몰라요.”

같이 온 또 한 명의 청년인 코리 크리스틴슨이 말했다. “성전의 침례실에 앉아 있는 동안 우리는 내내 좋은 느낌을 받았어요. 그것은 승리의 느낌이었어요. 우리가 그들에게 기회를 준 것이죠.”

(“Names and Faces”, *New Era*, 1994년 2월호, 32쪽)

- 반원들과 함께 교리와 성약 128편 19, 22~24절을 읽는다. 이 구절에 따르면 복음과 죽은 자를 위한 침례를 행하는 것에 대한 우리의 태도는 어떠해야 하는가? 죽은 자를 위한 침례라는 주제는 왜 산 자와 죽은 자 모두에게 기쁨을 가져다주는가?

지명 받은 반원에게 사망한 그들의 가족을 침례 줄 수 있음을 처음 알았을 때 어떤 느낌이 들었는지를 설명하게 한다. (“준비 사항” 3 참조)

## 결론

반원들과 함께 교리와 성약 128편 17절을 읽는다. 선지자 조셉 스미스는 죽은 자의 구속 사업을 “영원한 복음에 속하는 모든 주제 중 이 가장 영광스러운 것”이라 불렀다. 반원들이 죽은 자를 위한 침례를 행하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하도록 격려한다. 영의 속삭임에 따라 공과 동안 언급된 진리에 대해 간증한다.

## 추가로 가르칠 개념

여러분은 제언된 공과 개요를 보충하기 위하여 다음 개념 가운데서 한 두 가지 개념을 활용할 수 있다.

### 1. 교리와 성약 127편 및 128편의 역사적 배경

교리와 성약 127편 및 128편의 역사적 배경을 전하기 위해 다음 내용을 활용한다.

1842년 여름에 한 무리의 남자들이 부당하게 선지자 조셉 스미스를 감옥에 넣으려 하고 있었다. 이러한 박해 때문에 선지자는 나부를 떠났다. 선지자는 이렇게 말했다. “나 자신의 안전과 이 백성의 안전을 위하여 잠시 이 곳을 떠나는 것이 내게 필요하고도 지혜로운 일인 줄로 생각하였노라.” (교리와 성약 127:1) 그런 힘든 상황에도 불구하고 선지자는 기쁨의 말로 성도들에게 편지를 썼다.

- 박해의 시기 동안 선지자의 마음에서 떠나지 않으며 그의 마음을 강하게 사로잡은 주제는 무엇이었는가?(교리와 성약 128:1)

## 2. 기록 작성의 중요성

선지자 조셉 스미스를 통하여 주님은 성도들에게 죽은 자를 위한 침례를 잘 기록해 두라고 명하셨습니다.(교리와 성약 127:5~9; 128:1~9) 오늘날에는 이 기록이 컴퓨터에 보관되어 있다.

- 왜 죽은 자를 위한 침례에 대하여 기록을 작성해야 하는가?(교리와 성약 128:6~8, 24 참조. 지상에서 기록한 이 기록은 또한 하늘에서 기록될 것이며 죽은 자들은 그 책에 쓰여진 대로 심판 받게 될 것이다. 재림 때 우리는 주님께 바칠 기록을 내놓을 것이다.)

**목적**

영원한 결혼은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에서 반드시 필요한 요소라는 것을 반원들이 이해하도록 돕고 젊은이들이 영원한 결혼을 위하여 준비하도록 도우며 또한 결혼한 부부가 결혼 성약에 따라 살도록 격려한다.

**준비 사항**

1. 기도하는 마음으로 교리와 성약 131편 1~4절 및 132편 4~33절과 이 공과에 나오는 다른 성구들을 공부한다.
2. 반원 학습 지도서(35686 320)에서 본 공과에 대한 자료를 살펴본다. 공과 시간에 자료를 참조할 수 있는 방법을 계획한다.
3. 청소년들을 가르칠 때에는 청소년의 힘을 위하여(36550 320)를 한 부 이상 반에 준비한다. 여러분은 각 반원 당 한 부씩 돌아가게 하거나 반원들에게 각자가 가지고 있는 책을 가져오도록 부탁한다.
4. 주의 집중 활동을 하려면, 성전에서 결혼한 와드 회원에게 연락하여 만난다. 그 회원(형제이건 자매이건 관계없음)에게 수업을 시작할 때 성전에서 결혼했던 그 날에 대해서 4~5분간 말씀하도록 준비할 것을 부탁한다. 그에게 결혼했을 때 찍었던 사진이나 기념품을 가져오도록 부탁할 수도 있다. 이 준비하는 과정에서 그에게 다음 질문들을 생각해 보도록 부탁한다.
  - 성전 결혼을 준비하기 위하여 무엇을 했는가?
  - 성전에서 결혼함으로써 어떤 차이가 생겼는가?
  - 아직 성전에서 결혼하지 않은 반원들에게 성전 결혼을 준비하도록 하기 위하여 어떤 권고를 줄 수 있는가?

*교사 유의 사항:* 이 공과를 가르치면서 홀로 된 부모와 전통적인 가족 상황과는 다른 여건에 있는 사람들의 감정을 상하지 않도록 유의한다.(추가로 가르칠 개념 중 첫 번째 항목 참조) 반원들이 이혼이나 기타 민감한 문제에 대하여 질문을 하면 그들에게 반에서 그 문제를 거론하지 말고 감독과 별도로 이야기해 보도록 권한다.

**공과 전개 제언**

주의 집중 활동

적절한 경우, 공과를 시작하기 위해 다음 활동이나 여러분 자신이 준비한 활동을 활용한다. 미리 지명해 둔 와드 회원에게 자기가 성전에서 결혼했던 날에 대하여 이야기하도록 부탁한다.(준비 사항 4 참조) 그 회원이 발표한 후 그 사람이 말한 것에 대하여 간단하게 의견을 말한다. 이 공과는 영원한 결혼에 대한 것이라고 설명한다.

토론과 적용

기도하는 마음으로 반원들의 필요 사항을 가장 잘 충족시켜 줄 수 있는 공과 자료를 선정한다. 반원들을 격려하여 성구의 원리와 관련된 경험을 이야기해 주도록 한다.

## 1. 영원한 결혼은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에서 반드시 필요한 요소이다.

교리와 성약 131편 1~4절과 132편 4~33절을 가르치고 토론한다. 이 성구들은 영원한 결혼에 관하여 주님께서 선지자 조셉 스미스에게 주신 계시에도 포함되어 있다고 설명한다. 이 경륜의 시대에 최초로 조직된 십이사도 정원회의 회원 중 한 분이었던 팔리 피 프랫 장로는 선지자 조셉 스미스가 이 교리를 가르칠 때 그가 처음 듣고 느꼈던 느낌을 이렇게 말했다.

“저는 그전에도 사랑했었습니다. 그러나 왜 그랬는지는 몰랐습니다. 그러나 이제 저는 사랑합니다. ... 순수하게 ... 제 영혼을 고양시킬 수 있는 숭고하고, 고귀한 강한 느낌으로 ... 저는 하나님이 참으로 하늘에 계신 저의 아버지라고 느낍니다. 또한 사랑하는 제 아내를 불멸의, 영원한 동반자라고 느낍니다. ... 요컨대, 이제는 영으로 또한 이해력을 가지고 사랑할 수 있습니다.”(*Autobiography of Parley P. Pratt* [1975년], 298쪽)

- 제일회장단과 십이사도 정원회는 “남녀간의 결혼은 그분의 영원한 계획에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라고 선언했다. (“가족: 세상에 전하는 선언문”, *성도의 빛*, 1996년 6월호, 10쪽) 어쩌서 결혼이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에서 꼭 필요한 부분일까? (교리와 성약 131:1~4; 고린도전서 11:11 참조)

다음의 말씀 가운데 한 가지 이상을 서로 나눈다. 한 말씀을 나눈 후 반원들이 그 의미와 적용에 대하여 토론하게 한다.

십이사도 정원회의 조셉 비 워스린 장로는 이렇게 말씀했다. “영원한 결혼 생활을 통해 달콤한 동반자 관계를 가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그분의 자녀들에게 주신 가장 큰 축복 가운데 하나입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제 아름다운 동반자와 함께 나눈 많은 세월을 통해 저는 제 삶에서 가장 큰 기쁨을 누렸습니다. 태초로부터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위대한 계획에서 결혼을 통한 동반자 관계의 확립은 근본적인 것이었습니다. 우리의 삶은 선한 영향을 받으며, 우리는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관계를 맺을 수 있는 훌륭한 축복을 향유함으로써 교화되고 고결해집니다.”(*성도의 빛*, 1998년 1월호, 32쪽)

십이사도 정원회의 보이드 케이 패커 회장은 이렇게 가르쳤다. “우리가 가르치는 모든 것의 궁극적인 목적은 부모와 자녀를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으로 하나가 되게 하며 그들이 가정에서 행복한 생활을 누리며 영원한 결혼으로 인봉되며 세대와 세대가 결봉되고 하나님 아버지의 면전에서 승영에 이르게 하는 데 있습니다.” (“신앙의 방패”, *성도의 빛*, 1995년 7월호, 8쪽)

조셉 필딩 스미스 회장은 이렇게 말씀했다. “후기 성도들이 이해하는 바와 같이 결혼은 영원히 지속되도록 제정된 성약입니다. 결혼은 영원한 승영의 기초가 됩니다. 왜냐하면 결혼을 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왕국에서 영원히 진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구원의 교리*, 브루스 알 맥콩키 편, 3권 중 제2권, 52쪽)

- 남편과 아내가 현세와 영원을 위해 성전에서 결혼하지 않으면 남편이나 아내가 죽었을 때 그들의 결혼 상태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 (교리와 성약 132:7, 15~18 참조. 그들이 영원토록 같이 살겠다고 맹세를 했더라도 결혼은 “아무런 효과나 효능이나 효력이 없다.”)
- 남자와 여자가 현세와 영원을 위해 성전에서 결혼을 하면 그들은 주님과 성약을 맺는 것이다. 그들이 맺은 성약에 충실하면 그들은 어떤 축복을 받게 될 것인가? (교리와 성약 131:1~4; 132:19~24, 30~31; 그 답에는 다음에 열거된 것들이 포함될 수 있다.)

- ㄱ. 그들은 “현세에서나 모든 영원을 통하여”(교리와 성약 132:19) 함께 있게 될 것이다. 그들의 자녀도 또한 그들의 영원한 가족의 일원이 될 수 있다.(여러분은 약속의 성령인데, 그들은 우리가 받은 신권 의식과 우리가 맺은 성약이 하나님께 기쁘게 받아들여질 수 있음을 확인해 주는 분이라고 설명할 수도 있다. 이와 같은 승인은 우리의 충실성에 달려 있다.)
- ㄴ. 그들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해의 영광의 왕국의 가장 높은 등급에서 승영하게 될 것이다.(교리와 성약 131:1~3; 132:23~24)
- ㄷ. 그들은 “왕위와 왕국과 통치권과 권세와 주권과 모든 높음과 깊음을 상속” 받게 될 것이다.(교리와 성약 132:19)
- ㄹ. 그들은 영원 무궁하도록 계속하여 자손, 즉 영의 자녀를 갖게 될 것이다.(교리와 성약 132:19, 30~31; 또한 교리와 성약 131:4 참조)
- ㅁ. “그들은 신이 되리니 이는 그들이 모든 권능을 가졌고”(교리와 성약 132:20~21)
- 성전 결혼은 지상 생활에 어떤 축복을 가져다주는가? (반원들이 성전에서 결혼하는 것에 대한 그들의 생각을 말해 보도록 부탁한다. 앞에서 177페이지에 있는 조셉 비 워스린 장로의 말씀을 읽지 않았으면 지금 읽어 보게 한다.)

## 2. 청소년들은 지금 영원한 결혼을 준비해야 한다.

청소년들을 가르치고 있다면 이 부분을 활용하여 그들이 성전 결혼을 준비하도록 격려한다. 성인들을 가르치고 있다면 이 부분을 생략하거나 일부만 활용한다.

- 교회의 청소년들에게 왜 그렇게 성전 결혼에 대하여 강조한다고 생각하는가?(성전에서 결혼하겠다는 결정이 사람이 내릴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결정 중 하나라는 것을 반원들이 이해하도록 돕는다. 교회 회원들은 젊을 때 영원한 결혼을 준비하기 시작해야 한다.)

스펜서 더블류 김볼 회장은 이렇게 말씀했다. “아마도 결혼은 모든 결정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결정이며 가장 오래도록 영향을 미치는 결정입니다. 왜냐하면 결혼은 당장의 행복과 관련이 있을 뿐 아니라 영원한 기쁨과도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결혼은 당사자 두 사람에게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그들의 가족 특히 자녀들과 수많은 세대에 걸친 그 자손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결혼으로 하나가 됨”, 성도의 벗, 1978년 6월호, 1쪽)

- 성전 결혼 준비를 위하여 청남 청년이 할 수 있는 것에는 어떤 것이 있는가?
- 10대 시절에 하는 데이트는 후에 있을 결혼 생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가?(청소년의 힘을 위하여를 준비해 왔을 경우, 24~25쪽에 있는 “데이트”의 내용을 반원들이 읽게 한다.)
- 장차 어떤 사람과 결혼하고 싶은가?(반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한 가지 자질을 말해 보라고 하고 그것이 왜 중요한지 설명하도록 부탁한다. 칠판에 그들의 대답을 적는다. 다른 아이디어를 내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 인용문들을 읽어 본다.) 그러한 사람과 결혼하기 위하여 당신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이 문제에 대한 대답은 하지 말고 조용히 생각해 보라고 말한다.)

고든 비 힝클리 회장은 이렇게 충고했다. “여러분과 같은 신앙을 가진 반려자를 선택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행복하게 될 가능성이 훨씬 더 큼니다. 여러분이 항상 존중할 수 있고, 항상 존경할 수 있는 반려자, 여러분의 인생에서 부족한 것을 채워 줄 사람, 온 마음과 사랑과 충성과 충절을 바칠 수 있는 사람을 택하십시오.”(“인생의 책임”, 리아호나, 1999년 5월호, 4쪽)

십이사도 정원회의 리차드 지 스코트 장로는 이렇게 말씀했다.

“영원한 결혼의 기초에는 아름다운 얼굴이나 매력적인 자태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인기나 카리스마적 자질 그 이상의 것입니다. 영원한 반려자를 구할 때에는 행복을 가져오는 데 필수적인 속성, 즉 주님과 그분의 계명에 대한 깊은 사랑을 가지고 계명대로 살겠다는 결심을 하고, 남을 이해하고 용서하며, 기꺼이 자신을 내주고, 아름다운 자녀들로 축복 받는 가족을 갖기를 소망하고, 가정 안에서 진리의 원리들을 자녀들에게 가르치겠다는 언약을 하는 그런 속성을 개발시키고 있는 사람을 찾으십시오.”

“장차 아내가 될 사람이 갖추어야 할 필수적인 사항은 아내와 어머니가 되겠다는 소망입니다. 그녀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딸들에게 훌륭한 아내와 어머니가 될 수 있도록 주신 신성한 자질들을 발전시켜야 합니다. 그 자질들은 전문적인 직업 추구가 아니라 인내, 친절, 자녀들에 대한 사랑, 자녀들을 돌보겠다는 소망입니다. 어머니로서 필요한 준비를 하기 위하여 그녀는 훌륭한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장차 남편이 될 사람 역시 자기가 가진 신권을 존중하고 그 신권을 다른 사람에게 봉사하기 위하여 사용해야 합니다. 생활 필수품을 공급하는 자로서의 역할을 받아들이고 그렇게 할 능력이 있으며 그러한 책임을 완수하기 위하여 자기 자신을 준비시키려고 진지하게 노력하는 그런 남자를 찾아야 합니다.”(리아호나, 1999년 7월호, 29쪽)

- 부모와 다른 성인들은 청소년들이 영원한 결혼을 준비하도록 어떻게 도울 수 있는가? 그들은 자녀들이 영원한 결혼을 준비하도록 어떻게 도울 수 있는가?

### 3. 남편과 아내는 성전에서 인봉된 후 약속된 축복을 받기 위하여 성약을 지켜야 한다.

반원 중 자매 한 명에게 다음에 나오는 글을 읽어 보도록 부탁한다. 그 후 이 말씀을 한 분이 누구인지 알아맞히게 한다.

“저는 첫 10년 동안은 더 없이 행복한 기간이 될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결혼해서 첫 1년 동안 우리는 서로간에 조정해야 할 것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물론, 그런 문제들은 친절으로 뛰어가 엄마와 의논해야 할 그런 종류의 것들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번번이 베개를 적시며 울게 했습니다. 문제는 거의 대부분 다른 사람의 스케줄에 맞추어 사는 것과 다른 사람의 방식대로 일들을 해야 하는 것을 배워야 하는 것과 관련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서로 사랑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에 대하여는 의문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서로에 대하여 익숙해져야 했습니다. 저는 모든 부부가 서로 익숙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위의 말씀은 고든 비 힝클리 회장의 아내인 마조리 피 힝클리 자매가 말씀한 것이라고 반원들에게 이야기해 준다.(세릴 엘 듀, *Go Forward with Faith: The Biography of Gordon B. Hinkley* [1996년], 118쪽) 성공적인 결혼 생활을 하기 위하여 사랑과 노력과 헌신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성전에서 인봉된 후 그들이 “성약에 거[할]”(교리와 성약 132:19) 경우에만 약속된 축복을 받을 것이다. 남편과 아내가 “성약에 거[하]기 위해 해야 할 구체적인 사항들을 반원들이 이해하도록 돕기 위해 이 부분에 나오는 질문과 성구와 인용문을 활용한다.

- 반원들과 함께 교리와 성약 42편 22절을 읽는다. 이 계명은 남자나 여자에게 똑같이 적용된다고 설명한다. 온 마음을 다하여 남편이나 아내를 사랑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남편이나 아내와 결합하며 다른 아무와도 결합하지 말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스펜서 더블류 김볼 회장은 이렇게 설명했다.

“주님께서 ‘온 마음을 다하여’ 라고 말씀하실 때에는 그 말씀은 나누는 것, 분할하는 것, 빼앗는 것 ... 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른 아무와도란 말은 모든 사람과 모든 것을 배제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배우자는 남편이나 아내의 생활에서 다른 무엇보다도 중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회 생활이나 직장 생활이나 정치 생활이나 다른 어떤 관심거리나, 사람이나, 사물이 반려자인 배우자에 우선해서는 안 됩니다.”

“결혼은 절대적인 충성과 절대적인 정절을 전제로 합니다. 각 배우자는 상대방이 배우자에게 온 마음과 힘과 충성과 존경과 애정을 온갖 위엄을 갖추어 바치겠다는 조건으로 그를 받아들입니다. 이 조건을 지키지 못하는 모든 행위는 죄악입니다. 마음을 다른 곳에도 나누어 주는 것은 범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만을 전념하여’ 야 하듯이 우리는 눈과 귀와 마음을 결혼과 배우자와 가족에게 전념하여야 합니다.”(Faith Precedes the Miracle [1972년], 142~143쪽)

고든 비 힝클리 회장은 결혼한 부부에게 다음과 같은 단순한 권고를 주었다. “서로에게 철저히 충실하시기 바랍니다.”(리아호나, 1999년 5월호, 4쪽)

- 한 남자와 여자가 성전에서 결혼하면 그들은 서로에게 충실하며 주님께도 충실할 것을 성약하게 된다. 결혼한 부부가 서로에 대한 사랑과 주님에 대한 사랑을 강화시키기 위해 할 수 있는 것들에는 어떤 것이 있는가?(반원들의 대답을 칠판에 적는다. 답에는 함께 기도하기, 경전 읽기, 함께 영의 인도를 구하기, 가정의 밤을 갖기, 집안에서 서로 돕기, 함께 성전에 참석하기가 포함될 수 있다. 이 토론의 일부로서 추가로 가르칠 개념 중 두 번째 사항을 활용할 수도 있다.)

## 결론

아직 성전에서 결혼하지 않은 젊은이나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는 경우, 영원한 결혼을 준비하도록 그들을 격려한다. 성전에서 결혼한 반원들에게는 성전에서 맺은 성약을 지키도록 권고한다.

영의 지시에 따라 공과 중에 토의한 진리에 대해 간증한다.

## 추가로 가르칠 개념

여러분은 제언된 공과 개요를 보충하기 위하여 다음 개념 가운데서 한 가지 이상을 활용할 수 있다.

### 1. 충실한 성도들은 영원한 축복을 거부당하지 않을 것임

독신들에 관한 다음 말씀을 읽어 준다.

십이사도 정원회의 델린 에이치 옥스 장로는 이렇게 권고했다.

“많은 합당하고 훌륭한 후기 성도들이 지금은 자신의 진로를 위한 이상적인 기회들과 꼭 필요한 조건들을 갖고 있지 못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독신, 무자녀, 사망, 이혼 등이 이상을 좌절시키고 약속된 축복의 성취를 지연시키고 있습니다. 게다가 어머니와 가정 주부의 역할만을 하기를 소망하는 일부 여성들이 문자 그대로 할 수 없이 직업 전선으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좌절은 일시적인 것일 뿐입니다. 계명을 지키고 성약에 충실하며 옳은 일을 하기를 소망하는 주님의 아들과 딸들에게 어떠한 축복도 영원히 거부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주님은 약속하셨습니다.”

“육신을 입고 있는 동안에 받을 기회를 상실했던 아주 중요한 것 중 많은 것들이 복천년 기간 동안에 받을 수 있도록 기회가 주어질 것입니다. 복천년은 하나님 아버지의 합당한 모든 자녀들이 위대한 행복의 계획을 성취하는 데 불충분했던 모든 조건들을 보완하는 기간입니다. 우리는 성전 의식에



서 그러한 것이 적용될 것을 압니다. 저는 또한 가족 관계와 가족 경험에도 적용될 것이라고 믿습니다.”(성도의 벗, 1994년 1월호, 75쪽)

십이사도 정원회의 리차드 지 스코트 장로는 이렇게 권고했다. “만일 여러분이 독신이고 해외 왕국의 결혼을 할 확실한 전망이 보이지 않으면 그것을 위한 합당한 생활을 하십시오. 그것을 위해 기도 하십시오. 주님의 예정표에 따라 그것이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십시오. 휘장의 이편이나 저편에서 그 축복을 받을 수 없게 할 방식으로 자신의 표준을 위태롭게 낮추지 마십시오. 주님은 여러분의 마음 속의 의도를 아십니다. 그분의 선지자들은 여러분이 그것을 받을 자격을 갖추기 위해 지속적으로 합당한 생활을 한다면 그 축복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되는 것이 휘장의 이편에서일지 저편에서일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을 받기에 합당한 생활을 하십시오, 그것을 위해 기도하십시오.”(리아호나, 1999년 7월호, 31쪽)

## 2. 행복하고 지속적인 성전 결혼의 실례들

기도하는 마음으로 생각해 본 후 성전 결혼을 하고 성공적으로 살며 좋은 모범을 보이고 있는 와드 내의 형제 한 명과 자매 한 명에게 각각 2~3분 동안 행복하고 지속되는 성전 결혼을 위한 제언들을 이야기하도록 부탁한다.

그들의 발표가 있는 후 반원들이 그밖의 제언을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를 줄 수도 있다.

## 3. 청소년들과 청년 독신 성인을 위한 과제

청소년들이나 젊은 독신 성인반을 가르치는 경우, 반원 각자에게 집에 가서 자기의 미래의 배우자에 대한 사랑을 표현하는 편지를 써 보라고 권한다. 그 편지를 간직하고 있다가 결혼한 후 그 편지를 배우자와 함께 읽어 볼 수도 있다고 가르친다.

## 4. 세속적인 경향을 피함

- 결혼에 관한 하나님의 표준을 경시하는 사람들이 보이는 경향에는 어떤 것이 있는가? 주님의 표준에 충실히 따르기 위하여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에는 어떤 것이 있는가?

## 5. “성전과 가족” 비디오 발표

교리와 성약 및 교회사 비디오 발표 자료(53912 320)를 구할 수 있다면, “성전과 가족”(상영 시간 9분)을 보여 주는 것을 고려한다.

## 6. 복수 결혼

반원들이 복수 결혼 관습에 대하여 의문이 있는 경우에 대비하여 여러분을 돕기 위하여 다음 사항을 제공한다. 이것이 공과의 초점이 되어서는 안 된다.

주님께서 그분의 백성들에게 복수 결혼을 실시하도록 명하신 목적

몰몬경의 선지자 야곱은 다음과 같이 가르쳤다. “너희 중 아무라도 오직 한 아내를 둘 것이요, … [그러나] 내가 나를 위하여 자손을 일으키려 할진대, 만군의 주의 말이니라, 내가 내 백성에게 명할 것임이니라.”(야곱서 2:27, 30) 성경의 역사에 따르면 주님은 여러 시대의 백성들에게 복수 결혼을 실시하도록 명하셨다. 예를 들면, 주님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 모세, 다윗, 솔로몬에게 이 계명을 주셨다.(교리와 성약 132:1)

### *이 경륜의 시대에도 복수 결혼을 실시하라는 계시*

이 경륜의 시대에 주님은 초기 성도들의 일부에게 복수 결혼을 실시하도록 명하셨다. 선지자 조셉 스미스와 브리검 영과 히버 시 킴볼을 포함한 조셉 스미스와 가장 가까웠던 사람들은 이 계명으로 어려움에 부딪혔으나, 이 계명에 순종했다. 교회 지도자들은 복수 결혼의 시행을 규제했다. 복수 결혼을 하려는 사람들은 허가를 받아야 했다. 그리고 그 결혼은 신권의 인봉 권세를 통해서 집행되어야 했다.

### *오늘날 복수 결혼에 대한 교회의 입장*

1890년에 윌포드 우드럽 회장은 교회의 지도자들이 복수 결혼의 시행을 가르치는 것은 중지해야 한다는 계시를 받았다.(교리와 성약에 있는 공식선언-1, 357~358쪽 참조)

1998년에 고든 비 힝클리 회장은 복수 결혼에 대한 교회 입장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선언문을 발표했다. “이 교회는 일부 다처를 실행하고 있는 사람들과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그들은 이 교회의 회원이 아닙니다. ... 만일 우리 교회 회원 중 일부다처제를 시행하고 있는 사람들이 발견되면 그들은 교회가 부과할 수 있는 가장 무거운 징계인 파문을 당할 것입니다. 그런 일을 행하는 사람들은 직접 민법을 어긴 것은 물론 이 교회의 법도 어긴 것입니다.”(리아호나, 1999년 1월호, 71쪽)

**목적** 반원들에게 선지자 조셉 스미스의 순교에 대하여 가르치고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그의 부름에 대한 반원들의 간증을 강화시킨다.

- 준비 사항**
1. 기도하는 마음으로 다음의 성구와 다른 자료들을 공부한다.
    - ㄱ. 교리와 성약 135편
    - ㄴ. 우리의 유산, 62~66쪽
  2. 반원 학습 지도서(35686 320)에서 본 공과에 대한 자료를 살펴본다. 공과 시간에 자료를 참조할 수 있는 방법을 계획한다.
  3. 반원에게 우리의 유산에 나오는 “순교”의 앞부분 5문단(62~63쪽)을 요약하도록 부탁한다.
  4. 다음 그림을 구할 수 있으면 공과 시간에 활용할 준비를 한다. 선지자 조셉 스미스(62002; 복음 그림 패킷 401)와 조셉 형제(62161)
  5. 주의 집중 활동을 하려면, 위에 열거한 그림 외에도 다음 그림들을 사용하기 위해 준비한다. 광야에서 전도하는 요한(62132; 복음 그림 패킷 207)과 노아 왕 앞에 선 아빈아다이(62042; 복음 그림 패킷 308)

## 공과 전개 제언

**주의 집중 활동** 적절한 경우, 공과를 시작하기 위해 다음 활동이나 여러분 자신이 준비한 활동을 활용한다.

“준비 사항” 4, 5에 열거된 그림들을 보여 준다. 반원들에게 그림에 있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무엇인가에 대하여 생각해 보도록 부탁한다. 잠시 후 그들이 가진 공통점 중의 한 가지는 진리에 대한 굳은 신념 때문에 모두 순교를 당했다는 것이다.

반원들에게 경전과 교회 역사에 나오는 다른 순교자들을 말해 보게 한다. 답에는 사가랴(마태복음 23:35), 스테반(사도행전 7:56~60), 하이럼 스미스(교리와 성약 135:1)가 포함될 수 있다.

이 공과에서는 선지자 조셉 스미스와 그의 형 하이럼의 순교에 대하여 토의할 것이라고 설명한다. 이 공과에서는 또한 선지자 조셉 스미스의 공헌에 대하여도 토론하게 될 것이다.

**토론과 적용** 기도하는 마음으로 반원들의 필요 사항을 가장 잘 충족시켜 줄 수 있는 공과 자료를 선정한다. 반원들을 격려하여 성구의 원리와 관련된 자신의 생각을 이야기해 보도록 한다.

### 1. 선지자 조셉 스미스는 자기의 간증을 피로 인봉했다.

성도들은 몇 년 동안 나부에서 번영하고 있었다고 설명한다. 교회와 도시가 급속히 성장했고 성전 건축 공사도 순조롭게 진척되고 있었다. 또한 선지자 조셉 스미스는 많은 계시를 받았다. 그러나 1843년과 1844년 중에 교회에 대한 적대감이 증가했다. 교회 내부와 외부 양측에 있던 적들이

교회를 파괴하려는 시도를 시작했다. 이와 같은 반대는 1844년 6월 27일에 절정에 이르렀다.

우리의 유산, 62~63쪽에 있는 “순교”란에서 앞부분에 나오는 처음 5문단에 대하여 지명 받은 회원이 이야기하게 한다. 또한 회원들과 함께 교리와 성약 135편 4~5절을 읽는다. 교리와 성약 135편은 선지자 조셉이 습격을 받았을 때 부상당했던 존 테일러 장로가 쓴 것이라고 설명한다.

- 여러분은 왜 선지자 조셉 스미스가 카테지에서 순교를 당할 것을 알면서도 “어름 아침처럼 고요” 할 수 있었다고 생각하는가? 이터서 12장 36~38절에 있는 말씀으로 조셉과 하이럼은 어떤 위안을 받았을 것이라고 생각하는가?



선지자 조셉 스미스

반원들과 함께 교리와 성약 135편 1~2절을 읽는다. 윌라드 리차즈 장로가 기록한 순교에 관한 다음 이야기를 여러분이 읽거나 반원에게 읽게 한다. 리차즈 장로는 선지자의 친구였으며 십이사도 정원회의 회원이기도 하였다고 설명한다. 선지자가 순교 당했을 때 그는 카테지 감옥에 있었다. 그의 이야기는 1844년 6월 27일 오후 5시 조금 지났을 때 폭도들이 도착했던 때부터 시작된다.

“2층에 있는 감옥 문으로 올라가는 계단 위로 총탄이 소나기처럼 퍼부어졌고 그 다음 급하게 걷는 여러 명의 발자국 소리가 들렸다.”

“... 총알이 문을 관통하여 우리 사이를 지나갔다. 그것으로 우리의 적들은 겁 없고 난폭한 무법 자들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

“... 조셉 스미스와 테일러와 나는 방의 앞쪽을 향하여 뛰었고 ... 하이럼 스미스는 문을 바라보고 문 바로 정면에서 방의 3분의 2 가량 후퇴해 있었다.”

“한 방의 총탄이 문을 관통하여 하이럼의 코 쪽을 명중시켰고, 그래서 그는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도 못하고 그대로 뒤로 넘어졌다.”

“그의 [의복]에 난 구멍으로 보아, 한 발의 총탄이 건물 밖에서 발사되어 창문을 통해 그의 오른쪽 등을 명중시킨 후 관통하여 그의 [조끼 주머니에 있던] 회중시계에 박혔다. 그와 동시에 문을 통해서 날아 온 총탄이 그의 코에 박혔다.”

“그가 바닥에 넘어지면서 ‘나는 죽노라’ 하고 힘차게 소리쳤다. 조셉이 그를 쳐다보면서 응답했다. ‘오, 사랑하는 하이럼 형’ 그러면서 왼쪽 손으로 문을 7~8 센티쯤 열고서 입구에다 겨냥도 하지 않고 6연발 총을 난사했다. ... [폭도 중 한 사람의 총에서 나온] 총탄 한 발이 하이럼의 가슴을 스쳐 지나 그의 목구멍을 통과한 후 머리에 박혔고 그를 겨누었던 다른 총들에서 나온 몇 발의 총탄이 그를 명중시켰다.”

“조셉은 계속해서 조금 전처럼 문틀 주변의 허공에 계속 권총을 쏘았다. ... 한편 테일러는 그의 옆에 서서 지팡이로 출입구를 통해서 계속 총탄을 발사하는 총들을 후려쳤다.”

“총탄이 다 떨어지자 우리는 더 이상 사용할 총기가 없었다. 우리는 폭도들이 즉시 달려들고 문틀은 반쯤 방안으로 내민 총으로 가득 차리라 예상했다. 방안에는 죽음 이외에 아무런 희망이 없었다.”

“테일러는 창문 쪽으로 달려갔다. 창문은 땅에서 5~7미터 정도의 높이에 있었다. 그의 몸이 창문을 넘기 위해 거의 수평으로 균형을 잡았을 때 방문으로 날아 온 총탄이 그의 다리를 명중시켰다. 또한 밖에서 날아 온 총탄이 왼쪽 가슴 근처의 조끼 주머니에 들어 있던 그의 시계를 맞혔다. 그 총탄의 힘이 그를 마루 쪽으로 넘어지게 했고, 그의 옆에 놓여 있던 침대 아래로 구르게 했다.”

“조셉은 마지막 수단으로 테일러가 뛰어 넘으려다 넘어졌던 바로 그 창문에서 뛰어 내리려 했다. 그때 문 쪽에서 날아 온 총알 두 발이 그를 관통했다. 그리고 밖에서 날아 온 한 방이 그의 가슴에 박혔다. 그는 밖으로 넘어지면서 ‘오 주님, 나의 하나님’ 하고 소리쳤다. 그는 왼쪽 옆으로 넘어져 죽었다.”(교회 정사, 6:619~620)

존 테일러 장로는 네 번의 총상을 당했지만 상처가 나았다. 그 일이 있기 일년 전 선지자가 예언한 말이 성취되어 윌라드 리차즈 장로는 아무런 부상도 입지 않았다. 리차즈 장로는 이 예언에서 선지자가 “총알이 우박처럼 그의 주위에서 날아다닐 때 그는 그의 친구들이 오른쪽과 왼쪽에서 넘어지는 것을 볼 것이지만 그의 옷에는 구멍이 하나도 없을 것”이라고 예언한 것을 기억해 내었다.(교회 정사, 6:619)



**카테지 감옥.** 선지자 조셉 스미스와 그의 형 하이럼이 1844년 6월 27일에 이곳에서 순교했다.

- 교리와 성약 135편 6절을 반원들과 함께 읽는다. 선지자와 그의 형 하이럼이 복음에 대한 그들의 간증을 위해 바친 희생에 대하여 생각할 때 여러분은 어떤 느낌을 갖게 되는가?

조셉 스미스 일세가 사망하기 전 선지자에게 축복을 주면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고 설명한다. “그대의 사명을 완수할 때까지 그대는 살리라. ... 그대는 그때까지 살아서 하나님께서 그대에게 하라고 주신 모든 일의 계획을 다 세우리라.”(루시 맥 스미스, *History of Joseph Smith*, ed. Preston Nibley [1958년], 309~310쪽에서 인용) 조셉 스미스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라고 명하신 모든 것을 행함으로써 그의 사명을 뛰어나게 완수했다.

- 선지자 조셉 스미스의 생애에 대하여 아는 것 중 여러분이 가장 깊은 감명을 받은 것은 어떤 것인가?

## 2. 선지자 조셉 스미스는 인간의 구원을 위하여 예수를 제외하고 이 세상에 살았던 그 어느 사람보다도 더 많은 일을 수행했다.

- 교리와 성약 135편 3절을 반원들과 함께 읽는다. 이 절에 의하면 선지자 조셉 스미스의 주요한 업적의 일부에는 어떤 것이 있는가? 어떤 점에서 그는 “사람의 구원을 위하여 다만 예수를 제외하고 세상에 살았던 어떠한 사람보다 더 많은 일을 수행”했는가?

위의 질문에 대한 대답에는 그의 사업이 이 경륜의 시대에 사는 성도들뿐 아니라 복음의 축복, 즉 구원을 가져다주는 신권 의식을 받지 못했던 다른 모든 시대에 살았던 수십 억 명의 사람들에게도 축복을 가져다준다는 대답이 포함될 수 있다. 다음에 나오는 자료를 활용하여 그러한 공헌에 대하여 자세히 토론해 본다. 칠판에 제목을 쓴다. 우리가 그가 이룬 많은 공헌이 어떻게 우리의 일상 생활을 축복해 주며 우리를 영원히 축복해 주게 될 것인지 검토해 보면 선지자의 생애와 사명을 좀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된다고 설명한다.

### 신화에 대한 진리

- 선지자 조셉 스미스를 통하여 신화에 대한 어떤 진리가 회복되었는가? (교리와 성약 130:22~23; 조셉 스미스-역사 1:17. 다음 인용문 참조)

1844년 4월 7일 킹 폴렛트 장로의 장례식에서 한 설교에서 선지자 조셉 스미스는 다음과 같이 가르쳤다.

“하나님 자신도 한때는 지금의 우리와 같은 분이셨습니다. 이제는 승영하신 분으로 저 먼 하늘에 있는 보좌에 앉아 계십니다. 그것은 위대한 비밀입니다. 만일 오늘 휘장이 걷힌다면 그래서 그의 권능으로 이 세계가 그 궤도에 따라 돌도록 하시며 모든 세계와 만물이 [제 역할을 하도록] 유지하시는 위대한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이 보이도록 하신다면 ... 잘 들으십시오, 만일 여러분이 오늘 그분을 뵈게 된다면 여러분은 그분이 사람의 형체를 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사람처럼, 전반적인 모습, 외형, 그리고 바로 형상에 있어서 여러분과 같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담은 바로 하나님의 구조, 외형, 외관으로 창조되었으며, 마치 한 사람이 다른 사람과 이야기하고 교제하듯이 그분으로부터 가르침을 받았고, 그분과 함께 걷고 이야기하고 교제하였기 때문입니다.”(선지자 조셉 스미스의 가르침, 조셉 필딩 스미스 편 [1976년], 328쪽)

- 왜 조셉 스미스를 통하여 회복된 신화에 대한 진리가 우리에게 중요한가?

십이사도 정원회에서 봉사했던 브루스 알 맥콩키 장로는 다음과 같이 말씀했다. “하나님에 관한 지식은 영원 무궁토록 가장 위대한 진리입니다. 조셉 스미스는 거의 완전히 영적인 암흑 시대에, 사람들은 그들이 경배해야 할 분의 속성과 그분이 어떤 존재인지 더 이상 알지 못하던 시대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밝히게 되었습니다.”(“This Generation Shall Have My Word through You”, *Ensign*, 1980년 6월호, 55쪽)

### 신권의 권세

조셉 스미스를 통하여 하늘의 천사가 아론 신권과 멜기세덱 신권과 신권의 열쇠를 회복했다(교리와 성약 13편; 110:11~16)는 것을 지적한다. 복음의 회복이 진행되면서 주님께서는 신권의 직분과

조직과 성약과 의식과 임무와 축복에 대하여 계시해 주셨다. 이러한 계시가 없었다면 신권이나 신권이 어떻게 운용되는가에 대하여 이해하지 못했을 것이다.

- 신권 때문에 여러분이 삶에서 받게 된 축복에는 어떤 것이 있는가? 우리가 신권의 축복에 대하여 감사하고 있다는 것은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는가?

신권에 대한 더 많은 내용을 알려면 제8과와 제25과를 참조한다.

#### *우리의 기원과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진리*

- 선지자 조셉 스미스를 통하여 우리의 기원과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어떤 진리가 회복되었는가? (해답에는 우리는 문자 그대로 하나님의 영의 자녀이며 지상에 태어나기 전에 그분과 함께 살았다는 것이 포함될 수 있다. 교리와 성약 76:23~24; 아브라함서 3:22~28 참조)
- 여러분이 문자 그대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아는 지식이 어떻게 여러분의 삶에서 축복이 되는가?

#### *경전*

브루스 알 맥콩키 장로는 선지자 조셉 스미스가 “지금까지 지상에 살았던 어떤 선지자보다 더 많은 성스러운 경전을 현 세상에 주었다.”고 말했다.(성도의 빛, 1976년 8월호, 89쪽) 이들 경전에는 몰몬경, 교리와 성약, 값진 진주 및 조셉 스미스 역 성경이 포함된다.

십이사도 정원회에서 봉사하는 동안 고든 비 힝클리 장로는 이렇게 말했다. “[조셉 스미스는 522쪽에 달하는 몰몬경을 번역하여 출판하였고, 몰몬경은 다시 많은 다른 언어로 재번역되었으며, 몰몬경은 전세계의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가 받은 계시들과 그가 쓴 다른 글들이 이들 수백만 명에게는 마찬가지로 경전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의 총 페이지 수는 성경의 구약의 총 페이지 수와 거의 같으며 불과 수년간의 기간 동안에 한 사람을 통해서 그 모든 분량의 경전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선견자 조셉”, 성도의 빛, 1977년 10월호, 66쪽)

- 선지자 조셉 스미스를 통하여 나오게 된 경전들이 여러분의 삶에 어떻게 축복이 되는가?

경전에 대한 좀 더 자세한 것을 알기 위해서는 제1과, 제4과, 제13과를 참조한다.

#### *구원의 계획에 대한 진리*

- 선지자 조셉 스미스를 통하여 구원의 계획에 대한 어떤 진리가 회복되었는가?(제19과 및 제20과에 나오는 자료의 일부를 강조할 수 있다.)
- 이러한 진리를 아는 것이 어떻게 여러분의 삶에 축복이 되었는가?

#### *죽은 자의 구원에 대한 진리*

- 선지자 조셉 스미스를 통하여 죽은 자의 구원에 대한 어떠한 진리가 회복되었는가?(대답에는 침례를 받지 않고 죽은 자들을 위한 성전에서의 대리 침례를 행하는 것이 포함될 수 있다. 교리와 성약 128:18 참조) 왜 이들 진리가 중요한가?

죽은 자의 구원은 선지자 조셉 스미스를 통하여 회복된 가장 중요하고 영감에 찬 교리 중 하나라고 설명한다. 더 자세한 것을 알기 원한다면 제29과와 제39과를 참조한다.

## 성전 건축과 성전 의식의 집행

- 성전과 성전 의식 덕택에 여러분의 삶에 임하게 된 축복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성전에서 받은 인봉 의식 덕택에 가능하게 된 영원한 가족의 축복에 관해 토론할 수도 있다.)

## 그밖에 공헌한 것들

선지자 조셉 스미스가 그 밖에 공헌한 것들 중 일부를 살펴보고 그것들이 우리의 삶에 가져 올 축복을 검토해 볼 수도 있다.

- ㄱ. 그를 통해 교회가 회복되었다.(제9과 참조)
  - ㄴ. 그는 이 경륜의 시대에 모든 나라에 복음을 전하는 일과 이스라엘 사람들을 집합시키는 일을 시작했다.(제12과 참조)
  - ㄷ. 그를 통해서 헌납의 법이 계시되었다.(제14과 참조)
  - ㄹ. 그를 통해서 지혜의 말씀이 계시되었다.(제22과 참조)
  - ㅁ. 그를 통해서 후기의 시온 건설에 대한 지식이 계시되었다.(제27과, 제46과 참조)
  - ㅂ. 그는 신앙개조를 썼다.(첫 번째 추가로 가르칠 개념 참조)
- 조셉 스미스가 하나님의 선지자였다는 것에 대한 간증을 우리 모두가 갖는 것이 왜 중요한가? 조셉 스미스의 부름에 대한 여러분의 간증이 어떻게 발전하였는가? 금년의 교리와 성약에 대한 공부 여러분의 간증을 어떻게 강화시켰는가?
  - 선지자 조셉 스미스의 삶과 사명에 대한 감사의 뜻을 우리는 어떻게 보여 줄 수 있는가?

## 결론

선지자 조셉 스미스가 우리의 삶에 기여한 공헌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하나님의 선지자로서의 그의 부름에 대한 여러분이 갖고 있는 간증을 전한다.

## 추가로 가르칠 개념

여러분은 제언된 공과 개요를 보충하기 위하여 다음 개념 가운데서 한 가지 이상을 활용할 수 있다.

### 1. 신앙개조

신앙개조는 교회의 기본적인 교리 중 많은 것들을 밝혀 주고 있다고 설명한다. 신앙개조는 교회의 역사와 신앙에 관하여 설명해 줄 것을 요구했던 시카고의 한 신문사 편집인이었던 존 웬트워스에게 보낸 편지의 일부로서 선지자 조셉 스미스가 작성한 것이라고 설명한다. 신앙개조는 후에 값진 진주의 일부 경전으로서 공식적으로 승인되었다.

스펜서 더블류 킴볼 회장은 이렇게 말씀했다. “여러분 중 몇 분이나 신앙개조를 알고 있습니까? ... 여러분은 그것을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그것을 반복하여 암송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신앙개조를 암기하고 있으면 항상 말씀을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개조는 기본적인 것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저는 우리가 신앙개조를 완전히 암기할 수 있다면 정말 훌륭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말의 뜻은 여러분이 신앙개조를 빠트리거나 잊어버리지 않고 암기한다는 뜻입니다.”(“신권 소유자의 특권”, 성도의 벗, 1976년 2월호, 80쪽)

- 우리가 신앙개조를 아는 것은 왜 중요한가? 반원들에게 신앙개조가 도움이 되었던 경험을 이야기 하도록 부탁한다.



## 2. “찬양해 여호와와 대화한 사람”

반원들이 “찬양해 여호와와 대화한 사람”(찬송가, 18장)을 부르도록 준비시킨다. 또는 반원 한 명이나 몇 사람에게 그 찬송가를 부르도록 부탁한다. 윌리엄 더블류 펠프스가 선지자 조셉 스미스에게 경의를 표하기 위하여 이 찬송가의 가사를 썼다고 설명한다.

## 3. 비디오 발표 자료

비디오 *교리와 성약 및 교회사의 가르침*(53933 320)을 구할 수 있다면, “회복의 선지자 조셉 스미스”(상영 시간 13분)를 보여 주는 것을 고려한다.

*교리와 성약 및 교회사 비디오 발표 자료*(53912 320)를 구할 수 있다면, “조셉 스미스의 순교”(상영 시간 2분)를 보여 주는 것을 고려한다.

**목적**

반원들이 교회 지도력의 승계 과정을 이해하도록 도우며 브리검 영이 서부로 여행하기 위하여 성도들을 어떻게 준비시키기 시작했는지 설명한다.

**준비 사항**

1. 기도하는 마음으로 다음 성구와 다른 자료들을 공부한다.
  - ㄱ. 교리와 성약 107:22~24
  - ㄴ. 우리의 유산, 66~71쪽
2. 반원 학습 지도서(35686 320)에서 본 공과에 대한 자료를 살펴본다. 공과 시간에 자료를 참조할 수 있는 방법을 계획한다.
3. 우리의 유산에 있는 다음 사항들을 요약하도록 반원들에게 부탁한다.
  - ㄱ. “교회 회장의 계승”(66~67쪽)
  - ㄴ. “나부를 떠날 준비를 함”과 “겨울 여행의 시련”(69~70쪽)
4. 다음에 열거한 그림을 구할 수 있으면 공과 시간에 그 일부를 활용하기 위해 준비한다. 나부 성전(62432: 복음 그림 패킷 501); 나부로부터의 탈출, 1846년 2~5월(62493: 복음 그림 패킷 410); 나부를 떠남(복음 그림 패킷 411)

**공과 전개 제언**

주의 집중 활동

적절한 경우, 공과를 시작하기 위해 다음 활동이나 여러분 자신이 준비한 활동을 활용한다.

선지자 조셉 스미스가 순교하자 많은 사람들은 교회가 없어질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설명한다.

- 그러한 사람들이 교회의 지도력에 대하여 알지 못했던 것이 무엇이었는가?

조셉 필딩 스미스 회장의 다음 말씀을 읽어 본다.

“아무도 스스로 이 교회를 인도할 수는 없습니다. 이 교회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입니다. 그 분이 머리가 되십니다. ...”

“그분은 목적을 이루시기 위하여 그분의 손으로 쓰시는 도구로 사람들을 선택하여 부르시고 그들이 하는 일에 있어서 그들을 인도하시고 지도하십니다. 그러나 사람은 주님의 손의 도구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그분의 종이 이룬 모든 업적에 대한 명예와 영광은 영원히 그분에게 돌려야 합니다.”

“만일에 이 일이 사람의 일이라면 이 일은 실패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일은 주님의 사업이며 그 분은 실패하지 않을 것입니다.”(성도의 벗, 1970년 10월호, 1쪽)

선지자 조셉 스미스가 순교를 당한 후 오늘날에도 계속되고 있는 영감 받은 계승 과정을 통해 브리검 영이 교회의 지도자가 되었다. 이 공과에서는 교회 회장 직분의 계승 과정을 토론하고 브리검 영이 어떻게 성도들이 솔트레이크 계곡으로 가기 위한 서부로 갈 준비를 시작하도록 했는지 설명한다.

## 토론과 적용

기도하는 마음으로 반원들의 필요 사항을 가장 잘 충족시켜 줄 수 있는 공과 자료를 선정한다. 반원들을 격려하여 성구의 원리와 관련된 경험을 이야기해 주도록 한다.

### 1. 선지자 조셉 스미스는 십이 사도들에게 왕국의 열쇠를 주었고 교회 회장의 계승 원리를 가르쳤다.

1843~1844년의 겨울에 선지자 조셉 스미스는 십이사도 정원회 회원들에게 성전 엔다우먼트를 베풀고 그들의 책임에 대하여 가르치느라고 며칠을 보냈다. 그는 자기가 다른 사람들에게 왕국의 열쇠를 부여하지 않고 곧 죽게 될 것을 걱정했었다. 그 당시 십이사도 정원회의 일원이었던 윌포드 우드럽은 선지자 조셉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말을 들었던 것을 회상했다.

“자, 형제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엔다우먼트를 베풀 수 있는 날을 보게 된 것을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제 저는 여러분의 머리 위에 아론 신권과 멜기세덱 신권과 사도 직분의 모든 권능과 그에 따른 모든 열쇠와 권능을 여러분의 머리 위에 인봉했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저에게 인봉해 주셨던 것입니다. 이제 저는 이 교회와 하나님의 왕국의 모든 일과 책임과 걱정을 여러분의 어깨에 넘겨 드립니다. 이제 저는 하늘과 땅과 하나님과 천사와 사람들 앞에서 이 교회와 하나님의 왕국을 여러분이 이끌어 나갈 것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여러분에게 명합니다.”(제임스 알 클라크, comp., *Messages of the First Presidency of the Church of Jesus Christ of Latter-day Saints*, 6 vols. [1965~1975년], 3:134)

- 교회 회장 계승과 관련된 중요한 원리가 교리와 성약 107편 22~24절에 기록되어 있다. 위의 구절을 반원들과 함께 읽어 본다. 이 구절은 제일회장단과 십이사도 정원회의 관계에 대하여 무엇이라고 가르치는가?(제일회장단과 십이사도 정원회는 각각 정원회를 구성한다고 설명한다. 두 정원회는 권세와 권능에 있어 동등하지만 제일회장단이 교회를 통할하도록 부름을 받았다.)
- 교회의 이들 두 감리 정원회 간의 이와 같은 관계를 이해하는 것이 왜 중요한가?

해롤드 비 리 회장은 이렇게 말씀했다. “선지자 조셉 스미스는 ‘회장이 없으면 제일회장단 또한 없는 것입니다’ 라고 선언했습니다. 회장이 돌아가시면 즉시 그 다음 서열 기구인 십이사도 정원회가 감리 조직이 되며 따라서 교회 회장이 공식적으로 회장의 직분에 성임되어 지지 받을 때까지 자동적으로 십이사도 정원회의 회장이 교회 회장 서리가 됩니다.”(성도의 벗, 1970년 10월호, 3쪽)

계승 과정에 관해 더 자세히 알기를 원한다면 추가로 가르칠 개념 1을 참조한다.

## 2. 조셉 스미스의 순교 후 브리검 영이 회장으로 지지될 때까지 십이사도 정원회가 교회를 감리했다.



브리검 영 회장

조셉 스미스가 순교한 후 제일회장단은 해체되었으며 십이사도 정원회가 교회의 감리 역원이 되었다. 지명 받은 회원에게 *우리의 유산*, 66~67 쪽에 있는 “제일회장단의 계승”을 요약하도록 부탁한다.

- 교회 지도자에 관하여 시드니 리그돈이 이해하지 못했던 것은 무엇이었는가? 누가 교회를 인도해야 하는가 하는 문제에 대하여 브리검 영이 처음에 보인 반응은 어떤 것이었는가?(*우리의 유산*, 66쪽 참조. 그는 그 문제에 관한 주님의 뜻을 알고 싶어했다.) 브리검 영의 모범으로부터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 있는가?

- 교회 지도자의 지위에 관하여 논의하기 위한 회의의 오후 모임에서 브리검 영은 십이사도를 따르지 않는 자들은 성공하지 못할 것이며 사도들만이 하나님의 왕국을 건설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언했다.(*우리의 유산*, 67쪽) 교회 역사상 또 오늘날 우리의 시대에 이 예언은 어떻게 증명되었는가?

회의의 마지막 부분에서 성도들은 십이사도 정원회를 교회의 지도자로 지지하게 되었다고 설명했다.(*우리의 유산*, 67쪽) 브리검 영을 정원회의 회장으로 한 십이사도 정원회가 3년 반 동안 교회를 감리했다. 1847년 12월 27일에 브리검 영을 회장으로 한 제일회장단이 공식적으로 재조직되었다.

## 3. 나부를 떠나기 전 성도들은 성전 의식을 받았다.

나부 성전 그림을 보여 준다. 성도들이 나부를 떠날 준비를 하면서 동시에 성전 공사를 완공하기 위해 열심히 일했다. 성전이 준비되자마자 그들은 성전 의식을 받기 위하여 대규모로 모여들었다. 브리검 영의 일기에 기록된 다음 사항들은 성도들이 그들의 의식을 받기를 얼마나 열망했는가를 보여 준다.

“오늘 아침 입장을 기다리는 엄청난 수의 사람들이 대기실에 있었다. ... 121명이 의식을 받았다.”(*교회 정사*, 7:565)

“[성전] 의식을 받겠다는 성도들이 보여 준 열원이 너무나 강하고 그들에게 의식을 베풀겠다는 우리의 열망도 강하여 저는 하루에 4시간 이상을 자지도 않고 일주일에 한 번밖에 집에 가지 않으면서 밤낮으로 성전에서 주님의 사업에 몰두했습니다.”

“히버 시 킴볼 장로와 다른 십이사도들이 계속 참석했으나 너무 과로한 나머지 그들 중 일부는 쉬면서 체력을 보강하기 위하여 성전을 떠나야만 했습니다.”(*교회 정사*, 7:567)

1846년 1월에 성도들에 대한 박해가 증가되었다. 1846년 2월초에 영 회장은 성도들이 나부를 떠날 수 있도록 성전에서의 의식을 중단한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아직 의식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떠나고 싶어하지 않았다. 영 회장은 1846년 2월 3일에 다음과 같이 기록했다.

“우리가 의식 집행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발표했는데도 불구하고 주님의 집은 하루종일 붐볐다. 의식을 받겠다는 열망이 너무나 강하여 마치 형제들은 우리의 갈 길이 봉쇄되어 적이 우리를 못 가게 할 때까지 우리가 여기에 머물러 엔다우먼트를 계속하기를 바라는 것 같았다. 그래서 나는 이렇게 하는 것은 현명하지 않은 것이며, 우리는 앞으로 더 많은 성전을 짓게 될 것이고, 성도들은 준비가 되는 대로 주님의 축복을 받을 기회를 얻게 될 것이라고 말해 주었다. 우리는 비록 [이 성전에서] 더 이상 의식을 받지 못한다 하더라도 이미 충분히 많은 보상을 받았다. 나는 또한 형제들에게 마차를 준비하여 떠날 것이라고 알려 주었다. 군중이 흩어지겠거니 하고 생각하면서 성전에서 멀리 떨어진 곳으로 걸어갔으나 돌아와 보니 성전에는 사람들로 넘쳐 있는 것을 알게 되었다.”

“모여 있는 많은 사람들과 그들의 열의를 보면서, 그들이 말씀에 목말라 하고 굶주려 있음을 알고, 우리는 주님의 집에서 열심히 일했다. 그래서 295명이 의식을 받았다.”(교회 정사, 7:579)

- 성전 의식을 받겠다는 성도들의 열의로부터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 있는가? 성도들이 나부를 떠나 여행을 하기 전에 성전 의식을 받는 것은 왜 그렇게 중요했을까?(위 질문에 대한 답에는 증가된 지식과 힘은 그들이 겪게 될 어려움을 견디는 데 도움이 되었을 것이란 사실이 포함될 수 있다.) 어떤 면에서 성전은 여러분에게 힘과 인도의 원천이 되는가?

성전 사업을 그 주일 마지막까지 행한 후 성전이 닫혀졌다고 설명한다. 서부로 향한 여행을 시작하기 전에 모두 합하여 6,000명의 성도들이 엔다우먼트를 받았다.

#### 4. 서부로 여행을 시작하면서 성도들은 시련과 기적을 경험했다.

나부로부터의 탈출 그림을 보여 준다. 성도들의 일부는 1846년 2월 4일부터 떠나기 시작했다고 설명한다. 지명 받은 회원에게 *우리의 유산*, 69~70쪽에 있는 “나부를 떠날 준비를 함”과 “겨울 여행의 시련”을 요약하여 발표하게 한다.

성도들은 겨울에 나부로 떠나기 시작하는데다 급하게 준비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대단히 어려운 여행을 했다. 미시시피 강의 아이오와 주 쪽에 나부로부터 약 7마일 떨어진 슈거 크리크에서 2월초에 주목할 만한 일이 발생했다. 슈거 크리크에서 캠프를 치고 야영하던 첫날밤에 아홉 명의 아기가 태어났다. 날씨는 극도로 추웠다. 그런데도 성도들은 적절한 거처가 없었다. 엘리자 알 스노우는 이렇게 기록했다.

“산모들은 전에 결코 겪지 못했던 다양한 어려운 여건 하에서 아이들을 낳았다. 어떤 사람은 천막 속에서 낳았고, 다른 사람들은 마차 속에서, 폭풍우 속에서, 또는 눈보라 가운데에서 아기를 낳았다. 막대기들을 땅에 꽂아 담요를 둘러 벽을 만들고 천장에는 나무껍질로 지붕을 만들었는데 비가 줄줄 새고 있는 그런 오두막에서 아기를 낳은 일이 있다는 이야기도 들었다. 인정 많은 자매들이 그릇을 들고 떨어지는 빗방울들을 받아내어 새로 태어난 아기와 엄마가 빗물에 흠뻑 젖는 것을 막았다.”

“황야에서 태어난 이들 아기들의 어머니들은, 숲 속을 헤매며 폭풍우와 사나운 비바람을 맞서 나가는 데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이었다는 것을 기억하자. 그들은 대부분 동부 여러 주에서 태어나 교육 받은 사람들로서, 그곳에서 예수와 그의 사도들이 가르친 복음을 받아들였으며, 그들의 종교 때문에 성도들과 함께 모여 ‘아름다운 곳’이란 뜻을 가진 나부를 만드는 데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신앙과 인내와 노력을 기울여 도왔던 것이다. 그곳에 그들은 꽃과 좋은 과일나무를 심어 막 풍성한 열매를 맺기 시작하는 풍요롭게 장식된 아름다운 집을 갖고 있었다.”

“이런 집들에게 마지막 작별을 하고 얼마 되지 않은 물건을 한 대나 두 대 어떤 경우에는 세대의 마차에 꾸러 신고 사막으로 출발했던 것이다.”(에드워드 더블류 툴리지, *The Women of Mormondom* [1877년], 307~308쪽)

- 성도들에 관한 위 이야기에서 여러분이 감명을 받은 것은 무엇인가?

1846년 9월경 성도들의 대부분은 나부를 떠났고 다가오는 겨울을 나기 위하여 준비한 아이오와의 여러 정착지에 흩어져 있었다고 설명한다. 남아 있는 성도들을 나부에서 쫓아내기로 결심하고 폭도들은 그들의 집을 약탈하고 강으로 그들을 몰아 넣었다. 일부는 강을 건너 피해 왔지만 식량이나 옷을 가져 올 수가 없었다. 폭도들은 피할 수 없었던 사람들을 때리고 강에 던져 넣었다.

집을 잃은 남녀들과 아이들 5~6백 명을 수용할 피난민 캠프가 강 둑을 따라 2마일에 흩어져 세워졌다. 대부분의 사람들의 거처용으로는 담요나 나무나 풀뿐이었고 먹을 것도 별로 없었다. 그들 중 많은 사람들은 너무도 병이 심해 여행할 수 없었고 일부는 사망했다. 뉴얼 케이 휘트니 감독은 밀가루를 사서 최선을 다해 나누어 주었지만 그 사람들을 먹이기에는 충분하지 않았다. 그러자 주님께서 기적적인 방법으로 그들을 위해 먹을 것을 마련해 주셨다.

10월 9일에 특히 식량이 부족하던 때에 메추라기 떼들이 몇 개의 큰 무리를 지어 캠프로 날아와서 땅에 앉기도 하고 테이블 위에도 앉았다. 배고프던 성도들은 메추라기들을 잡아 요리해서 먹었다. 신앙심이 깊은 성도들은 고대 이스라엘인들에게 있었던 유사한 사건에서처럼 하나님께서 현대 이스라엘인들에게 자비를 베푸신 것으로 받아들였다.

- 고대 이스라엘인들에게 행하신 유사한 주님의 기적은 어떤 것이 있는가?(출애굽기 16:12~15 참조) 여러분이 어려운 때에 주님께서는 여러분을 어떻게 도와주셨는가?

결론

영의 지시에 따라 공과 중에 토의한 진리에 대해 간증한다.

## 추가로 가르칠 개념

다음 자료는 제언된 공과 개요를 보충해 주는 것이다. 여러분은 이러한 개념 가운데서 한 가지 이상을 공과의 일부로 활용할 수 있다.

### 1. 교회 회장 계승에 관한 추가 자료

교회 회장의 계승은 여러 번 발생했기 때문에 이제는 191쪽에 설명된 방법을 따르고 있다. 이 과정에 대한 더 자세한 설명이 유익할 것으로 생각되면 반원들과 함께 다음에 설명된 단계를 검토한다.

1. 장차 교회를 감리하도록 예임된 형제는 계시에 의하여 십이사도 정원회의 일원으로 부름을 받는다.
2. 그는 십이사도 정원회의 회원들과 제일회장단의 교제를 통해, 그리고 자기가 맡은 임무를 통해서 미래를 위해 훈련을 받는다. 그가 십이사도 정원회의 다른 회원들보다 오래 살면 서열이 높아져서 십이사도 정원회의 회장이 되며 선임 순위가 높아가며, 마침내 교회 회장만이 그보다 선임 순위가 높은 사도가 된다.
3. 교회 회장이 사망하면 제일회장단은 해체된다. 제일회장단의 보좌들은 십이사도 정원회의 자리로 돌아간다.(그 보좌들이 정원회 회원인 경우) 그러면 십이사도 정원이 교회의 감리 정원이 된다. 십이사도 정원회의 회장이 교회의 감리 역원이 된다.

4. 십이사도 정원회의 회원들은 금식과 기도의 영으로 성전에 모인다. 그들은 계시의 인도를 받아 제일회장단의 재조직에 관한 만장 일치의 결정을 하게 된다. 이 결정에 따라 그들은 십이사도 중 선임 순위가 높은 서열의 사도를 교회 회장으로 지지한다. 그후 그들은 그의 머리에 손을 얹고 교회의 회장으로 성임하고 성별한다.
5. 새로운 회장은 그의 보좌 두 명(보통 십이사도 정원회의 회원)을 선택한다.
6. 제일회장단의 재조직으로 발생한 십이사도 정원회의 결원을 보충한다.

## 2. 성전 사업에 대한 사탄의 반대

나부의 성도들은 성전을 완공하기 위하여 공사하는 동안에 엄청난 반대에 부딪히게 되었다. 성도들이 성전을 건축할 때마다 가해진 박해에 대해서 십이사도 정원회의 보이드 케이 패커 장로는 이렇게 말씀했다.

“사탄이 성전을 두려워하였기 때문에 성도들에 대하여 반대가 가해졌다. 사탄은 성전 공사를 막기 위하여 어떤 일이라도 하려 했다.”(거룩한 성전 [1980년], 175쪽)

- 왜 사탄은 성전과 성전 사업을 두려워하는가? 직면하게 되는 장애에도 불구하고 성전에 참석하려는 결의를 강화시키기 위하여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

## 3. “성도들이 두려울 것 없다”

반원들이 “성도들이 두려울 것 없다”(찬송가, 16장)를 부를 수 있도록 준비한다. 또는 반원 한 명이나 몇 사람이 함께 그것을 부르도록 부탁한다. 찬송가를 부른 후 윌리엄 클레이튼이 이 가사를 쓰도록 영감을 준 사건을 요약해 준다.(우리의 유산, 71쪽)

**목적** 반원들이 솔트레이크 계곡으로 가는 개척자들의 여행과 우리가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돌아가는 여행이 얼마나 유사한가를 이해하고 개척자들의 희생에 대해 감사하도록 돕는다.

- 준비 사항**
1. 기도하는 마음으로 다음 성구와 다른 자료들을 공부한다.
    - ㄱ. 교리와 성약 136편
    - ㄴ. 우리의 유산, 71~77쪽
  2. 반원 학습 지도서(35686 320)에서 본 공과에 대한 자료를 살펴본다. 공과 시간에 자료를 참조할 수 있는 방법을 계획한다.
  3. 우리의 유산에 나오는 다음 내용을 요약하도록 반원들에게 부탁한다.
    - ㄱ. “윈터쿼터스”(71~72쪽)
    - ㄴ. “부룩클린 호의 성도들”(74~75쪽)
    - ㄷ. “계속되는 집합”(75~76쪽)
    - ㄹ. “여기가 바로 그곳이다.”(76~77쪽)
  4. 다음 그림을 구할 수 있으면 이 공과 진행 중에 그것들을 활용하도록 준비한다. 평원을 횡단하는 매리 필딩과 조셉 에프 스미스 (62608; 복음 그림 패킷 412) 개척자들이 배로 샌프란시스코만에 도착함 (복음 그림 패킷 421)

**공과 전개 제언**

주의 집중 활동

적절한 경우, 공과를 시작하기 위해 다음 활동이나 여러분 자신이 준비한 활동을 활용한다.

약속의 땅이라고 칠판에 적는다. 경전을 보면, 주님께서는 여러 번 여러 집단의 사람들을 그들이 살던 땅에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내셨다고 설명한다. 경전은 흔히 그와 같은 땅을 예비해 둔 땅, 평화의 땅, 기업의 땅이라고 일컫는다.(니파이전서 2:20; 교리와 성약 45:66; 103:11)

- 여러분은 경전 상에서 약속의 땅으로 여행하도록 인도된 집단의 이름을 말할 수 있는가?(칠판에 다 반원들의 대답을 적는다. 답에는 야렛인들, 리하이 가족들, 구약에 나오는 이스라엘의 자녀들, 그리고 브리검 영과 개척자들이 포함될 수 있다.)

우리의 인생은 해의 왕국이란 ‘약속의 땅’으로 가는 여행과 같다고 설명한다. 이 경륜의 시대의 기초를 놓은 개척자들에 대하여 십이사도 정원회의 엠 러셀 벨라드 장로는 다음과 같이 말씀했다.

“그들의 여행은 우리의 여행과 비슷합니다. 그들이 걸었던 모든 발자취에는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그 교훈은 사랑, 용기, 결심, 헌신, 인내, 그리고 무엇보다도 신앙입니다.”(성도의 벗, 1997년 7월호, 55쪽)



이 공과는 역사상 가장 위대한 여행 중의 하나인 솔트레이크 계곡으로의 개척자들의 이주를 다루고 있다. 공과를 진행하는 중 반원들에게 개척자들의 여행과 반원 각자의 영생을 향한 여행을 비교해 보라고 한다.

## 토론과 적용

기도하는 마음으로 반원들의 필요 사항을 가장 잘 충족시켜 줄 수 있는 공과 자료를 선정한다. 반원들을 격려하여 성구의 원리와 관련된 경험을 이야기해 주도록 한다.

### 1. 주님은 성도들의 여행을 위한 물질적인 준비에 관하여 성도들에게 지시하셨다.

지명 받은 반원이 *우리의 유산*, 71~72쪽에 있는 윈터쿼터스에서 성도들에 관한 내용을 요약하여 이야기해 주도록 부탁한다.

- 윈터쿼터스에 있는 성도들은 질병과 견딜 수 없을 정도로 심한 고생, 고난, 빈궁 등을 겪었지만 그들의 여행을 위하여 계속 노력하고 준비했다. 계속된 그들의 결의 때문에 그들과 다른 사람들은 어떤 방법으로 축복을 받게 되었는가? (답에는 그들의 준비가 여행을 좀 더 쉽게 만들었고 그들 뒤에 올 사람들을 도와주었다는 것이 포함될 수 있다.) 어려운 시대에 굴하지 않고 꾸준히 노력함으로써 여러분은 어떻게 축복을 받게 되었는가?

1847년 1월에 윈터쿼터스에서 브리검 영 회장이 서부로 향해 가는 성도들의 여행에 관한 계시를 받았다고 설명한다. 이 계시는 교리와 성약 136편에 기록되어 있다.

- 성도들의 여행을 위한 준비에 관하여 주님은 어떤 지시를 하셨는가?(반원들과 함께 다음에 나오는 성구를 읽고 각 절에서 지시 사항을 확인한다. 이들 지시 중 일부를 선택하여 반원들이 토론하고 적용하도록 돕는다.)
  - ㄱ. 교리와 성약 136:2. (“주 우리 하나님의 모든 계명과 규례를 지키기로 성약하며 약속하고”) 왜 이 지시가 성도들에게 그렇게 중요했는가? 우리는 이 지시를 우리의 여행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가?
  - ㄴ. 교리와 성약 136:3. (여러 부대는 백부장, 오십부장, 그리고 십부장을 두고 십이사도의 지시 아래 한 사람의 회장과 그의 두 보좌를 그들의 머리로 하여 조직한다.) 이 조직이 와드와 스테이크가 조직되는 방식과 어떻게 유사한가?
  - ㄷ. 교리와 성약 136:5. (“각 부대는 모든 … 필요한 것들을 할 수 있는 대로 마련”하라) 우리가 자립하려고 노력하는 것은 왜 중요한가?
  - ㄹ. 교리와 성약 136:6. (“머물러 있을 자들을 위하여 … 준비”하라) 남아 있게 될 사람들을 위하여 성도들은 어떤 준비를 하였는가? (교리와 성약 136:7, 9 참조) 이와 같은 지시가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가?
  - ㅁ. 교리와 성약 136:8. (“가난한 자와 과부와 고아”를 돌봄) 오늘날 우리는 이와 같은 책임을 어떻게 성취할 수 있는가?
  - ㅂ. 교리와 성약 136:10. (“모든 사람은 주께서 시온의 스테이크로 지정하실 곳으로 이 백성을 옮기기 위하여 자기의 모든 영향력과 재산을 사용할지이다.”) 이 지시가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가?

## 2. 주님은 성도들의 품행에 대하여 지시하셨다.

교리와 성약 136편 17~33절을 가르치고 토론한다. 물질적인 준비에 관한 지시를 주시는 것 외에 주님은 성도들에게 영적인 문제와 서로에 대한 그들의 행위에 대하여서도 지시하셨다.

- 주님이 성도들에게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에 대하여 어떤 지시를 주셨는가? (반원들과 함께 다음 구절을 읽고 각 구절에 있는 지시 사항을 확인한다. 이들 지시 사항들 중 반원들이 토론하고 적용하도록 돕기 위하여 다음의 질문 중 몇 개를 선택한다.)

ㄱ. 교리와 성약 136:19. (“그리고 어느 사람이 자신을 세우려 하고 나의 권고를 구하지 아니하면, 그는 권능을 가지지 못할 것이요, 그의 어리석음이 나타나리라.”) 왜 성도들의 여행 중에 겸손이 그들에게 중요할 것인가? 어떻게 사람들은 때때로 자기 자신을 쌓아 올리려고 하는가? 우리는 어떻게 우리 자신의 영광보다는 주님의 영광을 더 구할 수 있는가?

ㄴ. 교리와 성약 136:21. (“너희 스스로를 지켜 주의 이름을 망명되어 일컫는 악을 멀리하라.” 또한 출애굽기 20:7 참조) 우리가 주의 이름을 경건히 다루는 것은 왜 중요한가?

ㄷ. 교리와 성약 136:23~24. (“서로 다투기를 그치라. 서로 험담하기를 그치라. ... 너희 말은 서로 교화하는 데 이바지하는 것이 되게 하라.”) 어떻게 다툼과 험담이 우리가 한 백성이 되는 것을 훼방하는가? 서로간의 다툼을 우리는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가? 서로를 복돋아 주기 위하여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ㄹ. 교리와 성약 136:25~26. (빌린 물건과 잃어버린 물건을 돌려준다.)

ㅁ. 교리와 성약 136:27. (“네가 가진 것을 보전하기에 부지런하여”)

“지혜로운 청지기”란 무슨 뜻이라고 생각하는가? 물질적인 소유물에 대한 우리의 관리인 직분이 우리의 영적인 복지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가?

교리와 성약 136편 28절에서 주님은 적절한 오락에 대하여 지시하셨다. 이 문제에 대하여 이야기 하면서 데이비드 오 맥케이 장로는 이렇게 가르쳤다.

“그들은 평원에서 하루의 행진을 마치고 마차들을 빙 둘러 원형으로 세운 후, 야영의 모닥불 옆에 바이올린을 가진 사람이 자리를 잡고, 강인한 개척자들이 손을 잡고 춤추기 위하여 그곳 대평원에서 기도로 개회를 한 후, 복음의 정신을 증진시킬 오락에 참여했습니다. ... 브리검 영 회장은 ... 한 번은 이런 뜻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춤출 때의 분위기는 어떤 장로가 병자 축복을 하기 위해 파티 도중에 불리어 나간다면 그가 속한 장로 정원회에서 모임을 하다가 불리어 갈 때와 똑같은 영적인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여야 합니다.’”(Conference Report, 1920년 4월, 117쪽)

- 우리는 이 조언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가?
- 주님은 성도들이 지혜를 배우기 위하여 무엇을 하라고 지시하셨는가? (교리와 성약 136:32~33 참조) 이러한 지시가 어떤 방식으로 여러분의 생애에서 참되다는 것을 알게 되었는가?

## 3. 브리검 영 회장의 지시 하에 성도들은 솔트레이크 계곡으로 여행했다.

이 교재의 276쪽과 반원 학습 지도서 31쪽에 있는 지도 3을 참조한다. 선지자 조셉 스미스가 순교하기 2년 전 “성도들은 계속하여 많은 고난을 당할 것이며 로키 산맥으로 쫓겨날 것이다.” 그리고 그들 중 일부는 “살아서 로키 산맥 가운데 가서 정착지를 만들고 도시를 세우는 것을 도우며 성도들이 위대한 백성이 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라고 예언했다는 것을 설명한다. (선지자 조셉 스미스의 가르침, 조셉 필딩 스미스 편 [1976년], 255쪽) 이 예언을 성취하기 위하여 세계 전역에서 온 약 70,000명의 교회 회원들이 1847년~1869년 사이에 유타로 갔다.



**서부로의 탈출.** 1846년 2월 4일에 역사적인 서부 여행을 시작하기 위하여 첫 번째 마차들이 미시시피강을 건넜다.

메리 필딩과 조셉 에프 스미스의 그림과 샌프란시스코에 도착한 성도들의 그림을 보여 준다. 성도들이 유타로 여행한 것과 관련하여 신앙과 용기에 대한 수많은 이야기가 있다고 설명한다.

지명 받은 반원이 *우리의 유산*에 나오는 다음 장들을 요약하도록 부탁한다. “부룩클린 호의 성도들”(74~75쪽), “계속되는 집합”(75~76쪽) 그리고 “여기가 바로 그곳이다.”(76~77쪽) 시간이 허락하면, 여러분은 그밖에 영감에 찬 개척자 이야기들도 해줄 수 있다. (그런 예로서 추가로 가르칠 개념 1 참조) 또한 반원들에게 그들에게 감동을 주었던 개척자 이야기를 말해 주도록 부탁할 수도 있다. 이들 개척자 이야기는 교회의 역사 중 다른 시기의 것일 수도 있고 교회가 설립된 다른 나라의 이야기일 수도 있다.

- 여러분은 개척자들과 다른 성도들이 우리에게 준 신앙과 희생의 유산을 생각할 때 어떻게 느끼는가? 여러분의 지역에서는 누가 교회의 개척자들인가? 우리는 어떻게 이와 똑같은 종류의 유산을 우리 뒤에 올 사람들에게 전해 줄 수 있는가?
-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의 면전으로 돌아가는 여행을 하는 데 우리를 도울 수 있는 어떤 교훈을 개척자들의 여행에서 배울 수 있는가?(반원들이 대답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준 후 엠 러셀 벨라드 장로의 다음 말씀을 읽는다.)

“인생이 항상 쉽지만은 않습니다. 우리의 여정 중 어떤 때에는 개척자들이 아이오아를 지날 때 진창이 무릎까지 올라오고 꿈의 일부를 길에다 묻어야 할 수밖에 없었던 때에 느껴야 했던 그런 느낌을 우리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바람을 얼굴에 맞으며 겨울이 너무 일찍 찾아온 때에 바위투성이인 산등성이를 마주치게 됩니다. 때때로 우리의 눈을 찌르며 시야를 흐리게 하는 먼지가 끝없이 이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습니다. 우리의 갈 길을 더디게 하는 험한 지형에서 절

망이란 날카로운 모서리와 낙담이란 돌출부를 만납니다. 때때로 우리는 인생의 한 정상에 도달하지만, 개척자들이 경험했던 것처럼, 그 앞에 우리가 막 넘어 온 산보다 더 높고 더 험한 많은 산들이 있음을 보게 될 뿐입니다. 신앙과 인내라는 보이지 않는 자원에 의존하여 우리의 선조들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는 신앙으로 견딘 모든 개척자들의 목소리와 함께 우리의 목소리가 ‘모든 것 잘되리! 모든 것 잘 되리!’ 라는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그 날을 향해 조금씩 앞으로 나아갑니다.”  
 (“여러분이 여행에서 두려워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리아호나*, 1999년 7월호, 57쪽)

**결론**

여러 면에서 영생을 향한 우리의 여정은 개척자들이 미대륙을 횡단했던 여정과 유사하다고 강조한다. 개척자들은 많은 개인적인 희생과 흔히 심한 고난을 당하면서 평원을 횡단했다. 큰 신앙과 용기와 인내를 보여 주면서 그들은 우리가 가야 할 모범을 보여 주었다.

지상의 하나님의 왕국의 역사상 지금은 우리의 날이라고 설명한다. 개척자들이 기초를 놓았지만 그 사업을 완수하는 것은 우리에게 달려 있다. 제임스 이 파우스트 회장이 증언한 바와 같이 “미래의 모든 발자취에 남길 신앙이 이 교회의 영광스러운 운명과 관련된 예언적인 비전을 성취시키게 될 것”이다. (“미래의 개척자: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십시오’”, *성도의 벗*, 1998년 1월호, 42쪽)

엠 러셀 벨라드 장로는 이렇게 말씀했다. “우리는 막대한 유산의 상속자입니다. 이제 복음의 회복이라는 계속되는 드라마의 일부가 되는 것은 우리의 특권이고 책임입니다. 또한 우리 시대에 쓰여질 위대하고 영웅적인 신앙의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우리 앞에 놓여질 장애를 극복하기 위하여 우리의 모든 힘과 지혜와 에너지를 필요로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의 개척자 조상들처럼 인생을 통하여 우리가 가게 될 위험한 길을 걸을 때 안전과 확신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오로지 참된 신앙, 완전하고, 확실하고, 시험을 통과한 신앙뿐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여행에서 두려워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성도의 벗*, 1997년 7월호, 57쪽)

교리와 성약 136편에서 개척자들의 여행을 위한 준비를 위해 조언한 방법 중 많은 것이 우리의 여행에도 또한 적용된다고 간증한다. 반원들에게 그들의 신앙의 유산을 계속 이어나감으로써 개척자들에게 감사를 표하도록 권고한다.

**추가로 가르칠 개념**

여러분은 제언된 공과 개요를 보충하기 위하여 다음 개념 가운데서 한두 가지 개념을 활용할 수 있다.

**1. 개척자들이 한 희생**

많은 성도들이 로키 산맥에서 위대한 백성이 될 때까지 살 것이라고 예언한 것 외에 조셉 스미스는 그들이 받을 고난에 대하여도 예언했다. 그는 일부 성도들은 “우리를 핍박하는 자들의 손에 의하여 죽임을 당하거나 병들어 죽을 것”이라고 말했다. (*선지자 조셉 스미스의 가르침*, 조셉 필딩 스미스 편, 240쪽)

토마스 에스 몬슨 장로가 십이사도 정원회에서 봉사할 때 한 다음 이야기를 들려준다.

“몰몬 개척자들이 수백 명씩 질병, 혹독한 추위, 굶주림으로 죽어갔습니다. 마차와 그것을 끌 소나 말이 없어 대평원을 지나고 산길을 넘어 손수레를 밀고 끌면서 1,300마일(약 2,100Km) 이나 되는 먼길을 문자 그대로 걸어갔습니다. 이 부대에 속했던 사람들은 6명 중 한 명 꼴로 죽었습니다.”

“이들 중 많은 사람들은 미국의 나부나 커틀랜드나 파웨스트나 뉴욕에서 여행을 시작한 것이 아니고 영국과 스코틀랜드와 스칸디나비아와 독일같이 먼 곳에서 여행을 시작했던 것입니다. ... 안전한 고

향집과 시온이란 약속의 땅 사이에는 성난 파도가 넘실거리는 거대한 대서양이 가로놓여 있었습니다. 그 위험한 항해 중에 사람들의 마음에 엄습한 공포를 누가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영의 고요한 속삭임에 고무되고 단순하지만 변함없는 신앙에 의지하여 그들은 그들의 하나님을 믿고 여행을 시작했던 것입니다. ...”

“사람들로 복잡하게 붐비며 빠져덕거리는 그 옛날의 배들 가운데 한 배에 저의 증조부모와 그들의 어린아이들과 얼마 안 되는 보잘것없는 소지품들이 실려 있었습니다. 파도는 너무 높고 항해는 너무나 지루했고 숙소는 너무나 비좁고 답답하였습니다. 꼬마 마리[그들의 딸]는 늘 약하긴 했지만 매일 항해가 계속되면서 근심에 싸인 어머니는 그 어린 딸이 눈에 띄게 약해 가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녀가 중병에 걸렸던 것입니다. 매일 걱정스러운 부모는 육지가 보이냐 하고 찾아보았지만 보이지 않았습다. 마지막이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어린 마리는 이 눈물의 휘장을 평화스럽게 지나가 버렸습니다.

“가족들과 친지들이 갑판에 모였을 때 선장이 장례식을 집행하였습니다. 그렇게 귀중하고 조그만 몸이 눈물 젖은 캔버스에 부드럽게 싸여 성난 바다에 맡겨졌습니다. 슬픔에 목이 메어, 강인한 아버지도 계속하여 ‘주님께서 주셨다가 주님께서 데려가셨으니 주님의 이름에 축복이 있을지어다.’ 하고 슬퍼하는 어머니를 위로하였습니다. 우리는 다시 마리를 볼 것입니다!”(Conference Report, 1967년 4월, 55~56쪽)

## 2. “모든 발자취엔 신앙이” 비디오 발표

비디오 *교리와 성약 및 교회사의 가르침*(53933 320)을 구할 수 있다면, “모든 발자취엔 신앙이” (상영 시간: 16분)를 보여 주는 것을 고려한다.

# “다른 사람을 구해 주어야 할 우리의 사명”

**목적** 마틴 손수레 부대와 윌리 손수레 부대의 구조에 대하여 가르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구조의 메시지라는 것을 가르치며 또한 반원들이 곤경에 처한 사람들을 구조하기 위하여 돕도록 격려한다.

- 준비 사항**
1. 기도하는 마음으로 다음 성구와 다른 자료들을 공부한다.
    - ㄱ. 교리와 성약 4:3~7; 18:10~16; 52:40; 81:5~6; 138:58
    - ㄴ. 제3니파이 18:31~32; 모로나이 7:45~48 (보충 성구들)
    - ㄷ. 이 과에 나오는 인용문들
    - ㄹ. 우리의 유산, 77~80쪽
  2. 반원 학습 지도서(35686 320)에서 본 공과에 대한 자료를 살펴본다. 공과 시간에 자료를 참조할 수 있는 방법을 계획한다.
  3. 다음 그림을 구할 수 있으면 이 공과 중 그것들을 활용할 준비를 한다. 1856년, 와이오밍 주 비터 크리크에서의 마틴 손수레 대대(62554; 복음 그림 패킷 414) 및 세 청년이 마틴 손수레 대대를 구함(복음 그림 패킷 415)
  4. 주의 집중 활동을 활용하려면 위에 열거한 그림들 외에 다음 그림을 준비하여 사용한다. 나부를 떠남 (62493; 복음 그림 패킷 411); 손수레 부대 (62528); 평원을 횡단하는 매리 필딩과 조셉 에프 스미스(62608)

## 공과 전개 제언

주의 집중 활동 적절한 경우, 공과를 시작하기 위해 다음 활동이나 여러분 자신이 준비한 활동을 활용한다.  
준비 사항 3과 4에 열거한 그림을 보여 준다.

- 초기 후기 성도 개척자들의 경험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반복해서 말하는 것이 왜 중요한가?  
고든 비 힝클리 회장은 이렇게 말씀했다. “괴로움을 당했던 성도들의 이야기와 그들의 고통과 죽음의 이야기는 앞으로도 반복해서 이야기될 것입니다. 그들을 구조했던 이야기도 계속 반복해서 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 이야기들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정수를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구조의 손길을 뻗으십시오”, 성도의 벗, 1997년 1월호, 86쪽)
- 개척에 대하여 말씀하면서 힝클리 회장은 또한 이렇게 말씀했다. “저는 그들에 대한 감사를 결코 잊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들에 대한 감사를 결코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저는 우리가 그들을 항상 기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 그렇게 많은 고통을 당했던 분들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도 읽고 또 읽으며 우리의 자녀들과 그 자녀들의 자녀들에게 읽어 줍시다.”(Church News, 1999년 7월 31일, 5면)

이 공과에서는 고통과 죽음과 구조에 대한 이야기: 마틴 및 윌리 손수레 부대들의 이야기를 공부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한다.

토론과 적용

기도하는 마음으로 반원들의 필요 사항을 가장 잘 충족시켜 줄 수 있는 공과 자료를 선정한다. 반원들을 격려하여 여러분이 가르치는 원리와 관련된 경험을 이야기해 주도록 한다.

### 1. 브리검 영 회장이 마틴 손수레 부대와 윌리 손수레 부대의 구조를 지휘했다.

마틴 손수레 부대의 그림을 보여 준다. *우리의 유산*, 77쪽에 있는 “손수레 부대”의 첫 번째 문단을 요약한다. 그렇게 한 후 고든 비 헝클리 회장이 한 다음 이야기를 들려준다.

“여러분을 1856년 10월 연차 대회로 모시고 가 보겠습니다. 그 연차 대회의 토요일에 프랭클린 디 리차즈와 그의 일행 몇 명이 이 계곡에 도착했습니다. 그들은 윈터쿼터스로부터 튼튼한 소들이 이끄는 가벼운 마차로 여행하여 늦지 않게 올 수 있었습니다. 리차즈 형제는 즉시 영 회장을 찾아갔습니다. 그는 수백 명의 남녀와 어린이들이 흩어져 긴 행렬을 이루며 오고 있다고 보고 했습니다. 그들은 절망적인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겨울이 일찍 찾아와 눈을 실은 바람이 ... 고지를 가로질러 세차게 불어 왔습니다. 우리의 성도들은 허기에 시달렸고, 손수레와 마차는 망가졌으며, 황소들도 죽어갔습니다. 사람들도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구조를 받지 못하면 다 전멸할 처지였습니다.”

“저는 영 회장님이 그날 밤 한잠도 못 주무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그의 머릿속에는 굶주리고 동상에 걸려 죽어 가는 그들의 모습으로 가득했을 것입니다. 그 다음날 아침 그분은 이 광장에 있던 태버내클로 와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말씀을 해야 할 장로들과 사람들에게 주제와 제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이 말씀의 제목입니다. 많은 형제 자매들이 손수레를 끌면서 평원을 걸어오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약 1,120Km나 떨어진 곳에 있을 것입니다. 그들을 이곳에 데려와야 합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구조대를 보내야 합니다. 주제는 “그들을 여기에 데려 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제 종교요, 제가 받은 성신의 지시이기도 합니다. 사람을 구하자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감독님들에게 부탁드립니다. 내일이나 그 다음날까지 기다리지 않겠습니다. 육십 마리의 좋은 노새와 12~15대의 마차를 준비해 주십시오. 황소를 보내고 싶지 않습니다. 좋은 말과 노새를 원합니다. 그것들은 이곳에 있으며 그것들을 활용해야 합니다. 또 마차를 몰 마부 외에도 밀가루 12톤과 마차를 몰수 있는 사람 40명도 필요합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말씀드립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가르치고 있는 그 원리들을 실행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이 가진 신앙이나 종교나 신앙 고백이 여러분을 하나님의 해의 왕국으로 결코 구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가서 지금 평원에 있는 사람들을 데려오십시오.’(리로이 알 하펜과 앤 더블류 하펜, *Handcarts to Zion* [1960년], 120~121쪽)

“그날 오후 여성들은 많은 양의 음식과 침구와 의복을 모았습니다. 다음날 아침에는 말에 편자를 박고 마차를 수리해 짐을 실었습니다. 그 이튿날 아침 16마리의 노새는 출발하여 동쪽으로 향하였습니다. 10월말경에는 구조하러 떠난 팀이 250개조나 되었습니다.”(성도의 벗, 1997년 1월호, 85~86쪽)

마틴 손수레 부대와 윌리 손수레 부대는 솔트레이크 계곡에 도착하기 위한 그들이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했지만 더 이상 갈 수가 없었다. 그들은 구조가 필요했다. 구조대가 없었더라면 그들은 모두 죽었을 것이다.

- 여러분은 구조를 받았던 경험이 있는가? 도움이 절실히 필요했을 때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했는가? 누군가 도와주러 왔을 때 기분이 어떠했는가?
- 구조대가 그들을 발견했을 때 손수레 부대에 있었던 성도들은 어떤 기분이었을까?

힝클리 회장은 구조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말씀을 했다.

“구조대들이 [손수레 부대]를 발견했을 때 그들은 굶주리고, 기진 맥진하고 옷은 얇고 누더기처럼 되어 절망적이고 끔찍한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구조대가 눈보라를 헤치며 길을 뚫어 서쪽 지평선에 나타났을 때 그들에게 구조대는 자비의 천사처럼 보였습니다. 참으로 그들은 자비의 천사들이었습니다. 말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있었던 이들 중 일부는 구조대를 보고 기쁨의 환성을 질렀습니다. 소리칠 기운도 없었던 사람들은 울고 또 울고 또 울었습니다.”

“이제는 먹을 음식도 있고 따뜻한 옷도 좀 있었습니다. 그러나 고통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살아 생전에는 그 고통이 끝나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사지가 얼었고 얼어서 피 순환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살은 썩어 뼈에서 떨어져 나갔습니다.”

“살아 남은 사람들은 손수레를 버리고 구조대의 마차에 올라탔습니다. 그들이 구조 받은 곳에서 이 계곡까지는 483Km, 644Km, 심지어 805Km까지 떨어져 있고 폭풍 때문에 그 길고 험한 여행은 특별히 느리고 지루하였습니다. 11월 30일에 고통받고 있는 인간 화물을 실은 104대의 마차는 솔트레이크 계곡에 들어왔습니다. 그들이 도착할 것이라는 소식이 먼저 전해져 있었습니다. 그날은 일요일이어서 성도들이 다시 태버내클에 모였습니다. 브리검 영이 회중 앞에 서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모임이 끝나면 형제 자매 여러분 곧바로 집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

“오늘 오후 모임은 생략합니다. 자매님들은 이제 막 도착하신 분들에게 먹을 음식을 주시고 씻어 주시고 간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그들 중에는 발목까지 얼어 있거나 무릎까지 얼은 분도 있고 손에 동상을 입은 분도 있다는 것을 여러분은 알게 될 것입니다. ... 우리는 여러분이 그분들을 자기 친자식처럼 받아들여 보살펴 주시기 바랍니다.”(하펜, *Handcrats to Zion*, 139쪽에서 인용) (성도의 벗, 1992년 1월호, 62쪽)

- 손수레 개척자들을 구조하려는 노력 중에서 어떤 것이 여러분에게 감명을 주었는가?

## 2. 구주의 속죄를 통해서 그분은 우리를 구조하신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구조의 메시지라는 것을 지적한다. 한 연차 대회 말씀에서 손수레 부대의 구조 이야기를 말씀하신 후 고든 비 힝클리 회장은 구주의 구조 사명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했다.

“이 세상을 위한 구주의 희생적인 구속 때문에 영원한 복음인 위대한 계획이 우리에게 효용이 있게 되었습니다. 이 위대한 계획 아래 주님 안에서 죽은 자는 죽음을 맞보지 않고 해의 왕국의 영원한 영광으로 나아갈 기회를 갖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어찌할 도리가 없었을 때 그분은 우리의 구조자가 되셔서 우리를 영원한 괴로움으로부터 구하시며 영생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절망의 시기에, 고독과 두려움을 느끼는 시기에, 그분은 구조와 위안과 확신과 신앙을 가져다주시기 위해 바로 지평선 위에 서 계십니다.”(“다른 사람을 구해 주어야 할 우리의 사명”, *성도의 벗*, 1992년 1월호, 63쪽)



- 우리는 어떤 방법으로 구주에 의하여 구조되어야 할 필요가 있는가? 어떻게 하여 구주는 우리를 구조하실 수 있는가?(엘마 7:11~13; 교리와 성약 18:11~12 참조) 그분이 구조해 주시겠다는 제언을 완전히 받아들이기 위하여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 3. 후기 성도로서 우리는 곤경에 처한 사람들을 구조해야 한다.

손수레 개척자들을 구조하는 세 명의 젊은이 그림을 보여 준다. 그런 후에 토마스 에스 몬슨 회장의 다음 말씀을 읽어 준다.

“잠시 에드워드 마틴 손수레 부대의 대장과 그가 이끄는 부대의 대열에 참가해 봅시다. 비록 우리는 그들이 느꼈던 굶주림의 고통이나 지친 몸을 파고드는 살을 에이는 듯한 추위를 느끼지는 못하겠지만 그들이 참아낸 고통과 그들이 보여 준 용기와 그들의 순종적인 신앙을 더욱 잘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이니까?’ 라는 질문에 대한 극적인 대답을 눈에 눈물을 머금고 보게 될 것입니다.”

“11월 3일에 계속 행군하여 그 손수레들은 [스윗 워터] 강에 도착하였는데 그 강에는 얼음 덩어리가 가득 떠다니고 있었습니다. 강을 건너기 위하여서는 보통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엄두도 낼 수 없는 용기와 인내가 필요할 것 같았습니다. 여자들은 움츠러들었고 남자들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헤치고 나아갔으나 다른 사람들은 그 시련을 감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구조대에 속한 18세 된 세 명의 소년들이 구조하러 왔습니다. 보는 사람들이 모두 놀라는 가운데 그들은 그 불운한 손수레 부대의 거의 모든 사람을 안거나 업고 얼음이 차 있는 강을 건네주었습니다. 그들은 긴장과 과로와 노출이 너무나 심하여 그 후유증으로 몇 년 후에 모두 죽었습니다. 브리검 영 회장님은 그와 같은 영웅적인 행위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서 어린아이와 같이 울었습니다. 나중에 그는 ‘그 행동만으로도 시 앨런 헨턴과 조지 더블류 그렌트와 데이비드 피 김볼은 해의 영광의 왕국 곧 끝이 없는 세상에서 영원히 구원을 보장받을 것입니다.’ 라고 선언했습니다.”(리روی 알 하펜과 앤 더블류 하펜, *Handcarts to Zion* [Glendale, California: The Arthur H. Clark Company, 1960년], 132~133쪽)

“다른 사람에 대하여 우리가 할 수 있는 봉사가 그와 같은 극적인 것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사람의 영혼을 격려해 줄 수 있으며, 추위에 떠는 자에게 옷을 입혀 주고, 굶주린 자에게 음식을 먹이며, 비탄에 빠진 이에게 위안해 주고, 큰 가치가 있는 생명들을 새로운 정점으로 들어 올려 줄 수 있습니다.”(“형제를 지키자”, *성도의 벗*, 1990년 7월호, 55쪽)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회원으로서 우리는 구조할 사명을 가지고 있다고 강조한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사람들로서 살아가는 중에 우리의 사명에는 다른 사람들을 구해 주어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다른 사람들을 구해 주어야 할 사명”, *성도의 벗*, 1992년 1월호, 64쪽)라고 고든 비헝클리 회장이 말씀했다.

몬슨 회장이 말씀했듯이 우리가 봉사할 수 있는 일은 그 이야기에 나오는 세 젊은이가 한 희생만큼 극적이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나 우리는 가족과 친구와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고 봉사하며 가르치는 매일의 단순한 노력을 통하여 그들을 구할 수 있다.

- 곤경에 처한 사람들을 구출하기 위하여 우리가 할 수 있는 구체적인 일들에는 어떤 것이 있는가? (칠판에 회원들의 대답을 적는다. 토론의 일부로서 다음 인용문을 들려준다.)

마틴 손수레 부대와 윌리 손수레 부대의 고통을 언급하면서 헝클리 회장은 이렇게 말씀했다.

“그러한 고통스러웠던 개척자 시대가 역사의 뒤편길로 지나간 것을 감사드립니다. 산 속에 있는 이 시온까지 오려고 애쓰면서 열거나 죽어 가면서 눈 속에서 헤매는 형제자매들이 없다는 사실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사정이 너무나 극도로 어려워 도움과 구조의 손길을 호소하면서 울부짖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 여러 곳에는 도움을 필요로 하는 굶주리고 궁핍한 사람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 그들을 돕고, 들어올리고, 굶주린 사람에게는 먹이며, 진리와 의에 목마른 자들을 위해 그들의 영을 양육해야 할 크고 엄숙한 임무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미약과 불량배와 부도덕한 행실과 이러한 일에 동반되는 모든 악행들로 가득 찬 비극적인 삶의 길을 정치도 없이 헤매는 엄청나게 많은 젊은이들이 있습니다. 친절이 담긴 말을 해 주는 사람과 사랑을 나타내며 진지한 관심을 보여 주는 사람을 갈망하는 미망인들도 있습니다. 한때는 따뜻한 신앙 가운데 있었던 사람이 이제는 그 신앙이 식어 버린 사람도 있습니다. 그들 중 많은 사람들이 돌아오고 싶어하지만 그 방법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에게 내밀어 주는 따뜻한 우정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조금만 노력하면, 그들 중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식탁에서 다시 먹을 수 있게 돌아오도록 할 수 있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저는 우리 모두가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과 극도로 어려운 사정에 처한 사람을 찾아 그들을 사랑의 정신으로 교회의 품안으로 들어올릴 것을 결심하기를 바라고 기도합니다. 교회는 강한 손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따뜻하게 해 주며 위안해 주고 지지해 주며 행복하고 생산적인 삶의 길로 나아가도록 할 것입니다.”(“구조의 손길을 뻗으십시오”, 성도의 벗, 1997년 1월호, 86쪽)

반원들이 다음 성구를 읽으면서 곤경에 처한 사람들을 구조하기 위하여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에 대한 가르침을 찾아보게 한다. 토론과 적용을 장려하기 위해 질문을 활용한다.

- ㄱ. 교리와 성약 4:3~7; 모로나이 7:45~48. 이 성구들에 열거된 자질들이 우리가 곤경에 처한 사람들을 구조하는 데 어떻게 도움이 되는가?
- ㄴ. 교리와 성약 18:10~16.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가르치고 회개의 길로 이끌 수 있는 어떤 기회를 가지고 있는가?
- ㄷ. 교리와 성약 52:40.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 병든 자와 고난당하는 자”를 돕기 위하여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어떤 것이 있는가? 곤경에 처한 자들을 돕지 않는다면 왜 우리는 구주의 제자가 아닌가?
- ㄹ. 교리와 성약 81:5~6. “약한 자를 [돕고] 처진 손을 일으켜 세[운]”다는 말은 무엇을 뜻하는가? 이 계명이 물질적인 궁핍은 물론 영적인 궁핍에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가?
- ㅁ. 교리와 성약 138:58. 성전 사업을 통하여 우리는 어떻게 사람들을 구할 수 있는가?
- ㅂ. 제3니파이 18:31~32. 길 잃은 사람들에게 “성역을 베풀”기 위하여 무엇을 할 수 있는가?
- 마틴 및 윌리 손수레 부대들의 구조에 대하여 생각해 보라고 반원들에게 말한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구하려고 노력하는 가운데 브리검 영 회장과 헤매고 있는 손수레 부대들을 구조한 성도들의 모범에서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 있는가?(대답 가운데는 우리의 노력을 지연시켜서는 안 된다는 것과 다른 사람의 문제를 보살피기 위하여서는 종종 우리 자신의 문제를 제쳐 놓아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과 신앙을 행사해야 한다는 것이 포함될 수 있다.)

## 결론

반원들이 이 과에서 토의한 원리들을 적용하기 위한 방법을 찾도록 격려한다. 구조할 필요가 있는 사람들을 돕기 위하여 노력할 때 희망을 잃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한다. 우리는 이기심을 버리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손길을 내밀어야 한다. 영의 지시에 따라 공과 중에 토의한 진리에 대해 간증한다.

## 추가로 가르칠 개념

여러분은 제언된 공과 개요를 보충하기 위하여 다음 개념 가운데서 한두 가지 개념을 활용할 수 있다.

### 1. “우리는 가장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

반원 한 명에게 *우리의 유산*, 77~78쪽에 있는 넬리 푸셀의 이야기를 해 주도록 준비하라고 부탁한다. 또 다른 반원에게 자기와 다른 손수레 개척자들이 “가장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에 대해 잘 알게 되었”(우리의 유산, 78쪽)다고 간증한 사람의 이야기를 해 주도록 준비하라고 부탁한다.

- 이 두 가지 이야기에서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 있는가? 시련을 겪으면서 하나님을 더 잘 알게 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이 공과의 일부로서 반원들에게 교리와 성약 122편 5~8절을 읽게 할 수 있다.

### 2. “세상 사람들이 구원을 받게 하려면 우리가 그 일을 해야 합니다.”

공경에 처한 사람들을 구할 책임을 강조하기 위하여 고든 비 힝클리 회장의 다음 말씀을 읽어 준다.

“구원, 즉 온 세상 사람들이 영원한 구원을 얻도록 하는 것이 이 교회의 어깨 위에 지워졌다는 것을 곰곰이 생각할 때 우리가 전하는 메시지는 대단히 감동적인 것입니다. 결국 온 세상 사람들이 구원을 받게 하려면 우리가 그 일을 해야 합니다. 그러한 임무를 피할 수 없습니다. 세계 역사상 어떠한 백성도 우리가 받은 그런 종류의 명령을 받은 일이 없습니다. 우리는 지상에 살았던 모든 사람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그 일은 가족 역사 사업과 성전 사업에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는 현재 지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 대하여서도 책임이 있습니다. 그 일은 우리의 선교 사업과 관련이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장차 이 지상에 살 모든 사람에 대하여서도 책임을 맡게 될 것입니다.”

(Church News, 1999년 7월 3일)

### 3. “모든 일에 시련을 겪어야 하나니” 비디오 발표

비디오 *교리와 성약 및 교회사의 가르침*(53933 320)을 구할 수 있다면, 상영 시간 4분인 “모든 일에 시련을 겪어야 하나니”를 반원들에게 보여 주는 것을 고려한다.

**목적**

솔트레이크 계곡에 있던 초기 성도들의 희생 덕분에 반원들이 어떻게 축복을 받게 되었는지 이해하도록 돕고 반원들이 이들 충실한 성도들의 모범을 따르도록 권고한다.

**준비 사항**

1.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유산*, 81~96쪽을 공부한다.
2. *반원 학습 지도서*(35686 320)에서 본 공과에 대한 자료를 살펴본다. 공과 시간에 자료를 참조할 수 있는 방법을 계획한다.
3. *우리의 유산*에 있는 다음 장들을 요약할 준비를 하도록 몇 명의 반원들에게 부탁한다.
  - ㄱ. “계곡에서의 첫 번째 해” 와 “탐험”(82~84쪽)
  - ㄴ. “개척지로의 부름”(86~89쪽)
  - ㄷ. “선교사들이 부름에 응함” (84~86쪽)
  - ㄹ. “선교 사업” (93~96쪽)
4. 다음 그림을 구할 수 있으면 공과 시간에 그것들을 보여 줄 준비를 한다. 솔트레이크 성전 (62433; 복음 그림 패킷 502; 이 교재의 210쪽); 브리검 영(복음 그림 패킷 507); 및 존 테일러(복음 그림 패킷 508)

**공과 전개 제언**

**주의 집중 활동**

적절한 경우, 공과를 시작하기 위해 다음 활동이나 여러분 자신이 준비한 활동을 활용한다.

솔트레이크 성전 사진을 보여 준다. 성전 아래 깊은 땅속에는 큰 돌덩어리로 된 단단한 반석이 있다고 설명한다. 이 반석이 이 거대한 성전을 150년 이상 동안 받쳐 왔다고 설명한다.

- 건물의 기초가 깊고 단단하게 놓여 있는 것은 왜 그렇게 중요한가?

건물이 단단한 기초를 필요로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도 그렇다고 설명한다. 이 공과에서는 솔트레이크 성전 건물과, 개척자들이 그들의 새로운 집을 짓고 복음을 전파했던 노력을 다루게 된다. 또한 이 공과에서 초기 성도들이 그들의 삶을 건설한 기초 원리의 일부와, 우리가 그들의 모범에서 무엇을 배울 수 있는가를 토의하게 된다.

**토론과 적용**

기도하는 마음으로 반원들의 필요 사항을 가장 잘 충족시켜 줄 공과 자료를 선정한다. 반원들을 격려하여 여러분이 토의하는 원리와 관련된 경험을 이야기해 주도록 한다.

**1. “바로 여기에 우리 하나님을 위한 성전이 세워질 것이다.”**

솔트레이크 계곡에 도착한 후 4일째인 1847년 7월 28일에 브리검 영 회장은 현재 솔트레이크 성전이 서 있는 바로 그곳에 섰다. 그는 지팡이를 땅에 꽂고 이렇게 말했다. “바로 여기에 우리 하나

님을 위한 성전이 세워질 것입니다.” (윌포드 우드럽 회장, *Deseret Evening News*, 1888년 7월 25일, 2쪽) 이렇게 하여 희생과 축복이 될 또 다른 성전의 건설이 시작되었다.

십이사도 정원회의 존 에이 윌소 장로는 이렇게 말씀했다. “개척자들은 굶주리고 지쳐서 음식과 휴식이 필요했습니다. 그들의 주변은 농사를 짓고 집을 지어 살기에는 열악한 환경의 사막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환경 속에서도 그들은 우선 성전의 건축 공사를 착수했고 성전이 제공하게 될 영적인 양식과 힘에 관심을 돌렸습니다.”(Conference Report, 1943년 4월, 38쪽)

영 회장이 성전을 건축할 땅에 표시를 한 후 일주일 이내에 성도들은 새로운 도시의 측량을 시작했다. 측량의 중심점은 성전이였다. 도시는 사람들이 성전에 집중하도록 설계되었다.

- 왜 성전은 오늘날 우리 생활의 중심이 되어야 하는가? (다음 인용문을 참조한다.) 어떻게 우리는 성전을 우리 생활의 더 중요한 부분으로 만들 수 있는가?

하워드 더블류 헌터 회장은 이렇게 가르쳤다.

“우리는 성전 예배와 그 성스러운 건물 안에서 제공되는 거룩함과 안전이라는 개인이 받는 축복을 강조합니다. 성전은 주님의 집이며 계시를 받는 곳이고 평화의 장소입니다. 성전에 참석하면서 우리는 인생의 목적과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를 위한 희생의 중요성을 더 깊이, 더 풍성히 배우니다. 성전 예배와 성전 성약과 성전 결혼을 할 수 있는 성전을 우리의 지상의 궁극적인 목표와 육신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최상의 경험으로 만듭시다. ...”

“성전의 의미와 아름다움과 평화가 좀 더 직접적으로 여러분의 일상 생활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합시다.”(“하나님의 아들을 따르십시오”, *성도의 벗*, 1995년 1월호, 87쪽)

솔트레이크 성전의 사진을 보여 준다. 대규모 기초 공사로 암반을 놓기 위한 굴착 공사를 기계를 쓰지 않고 손으로 실시했다고 설명한다. 그 일을 하는 데 수천 시간의 노동이 필요했다. 이 모퉁잇돌들은 모두 1853년 4월 6일에 놓여졌다. 기초 공사를 하기 위하여 여러 해 동안 공사를 한 후에 미국 정부와의 문제 때문에 공사를 중단했다. 미합중국 대통령은 성도들이 정부에 모반을 일으켰다는 헛소문을 듣고 군대를 솔트레이크 계곡으로 파견했다. 이에 대응하여 영 회장은 성도들이 기초 공사를 한 곳을 흙으로 덮어 보통의 땅처럼 보이게 했다.

나중에 성도들이 사암으로 된 기초에서 흙을 파내었을 때 그들은 바위(사암)에 금이 간 것을 발견하게 되었다. 그들은 사암을 들어내고 단단한 화강암 덩어리로 대체해 넣었다. 영 회장은 성전 공사를 위해서는 가장 좋은 자재와 가장 훌륭한 솜씨를 가진 일꾼만을 사용하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저는 성전이 복천년 끝까지 견디어 낼 수 있는 방식으로 건설되기를 바랍니다. 이 성전은 우리가 건설할 유일한 성전이 아닙니다. 지어서 주님께 헌납할 수백 개의 성전이 있을 것입니다. ... 복천년이 끝나면 ... 저는 그 성전이 19세기의 하나님의 성도들의 신앙과 인내와 근면의 자랑스러운 기념비로서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Discourses of Brigham Young*, sel. 존 에이 윌소 [1941]년, 395쪽)

성전 공사를 위한 화강암 덩어리들을 캐내어 운송하고 다듬기 위하여 여러 해가 걸렸다. 이 기간 중 그들은 씨앗도 건질 수 없는 흉작과 먼 외국에서 선교사로 봉사하라는 부름과 그들의 집을 떠나 먼 지역으로 이사가 새로운 지역 사회를 건설하라는 부름을 받아들였으므로 다만 살아남기 위하여 온갖 노력을 다해야 했다. 이러한 많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은 인내했고 주님의 도움으로 이겨냈다. 솔트레이크 성전은 그 모퉁잇돌들이 놓여진 지 40년 후인 1893년에 헌납되었다.

- 성도들이 솔트레이크 성전을 건설하면서 보여 주었던 인내로부터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 있는가? 성도들의 인내의 모범이 어떻게 우리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가?

제프리 알 홀런드 장로가 브리검 영 대학교의 총장이었을 때 그는 솔트레이크 성전의 건설을 우리가 인생을 훌륭하게 쌓아 가는 것에 비유했다.

“유명한 잡지인 *Scientific American*(미국의 과학 잡지명)은 [솔트레이크 성전을 ‘물몬의 인내를 보여 주는 기념비’의 하나라고 언급했습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피와 노력과 눈물과 땀의 기념비였던 것입니다. 가장 좋은 것은 항상 완성할 가치가 있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 ... 을 알지 못하느냐?”(고린도전서 3:16) 참으로 그 말이 옳습니다. [인생이란] 성전을 짓는 일이 매우 오래 걸리고 힘들 것같이 보이긴 하지만 우리가 지은 성전이 ‘장엄하고 인상적인 장관’이 되도록 우리는 돌들을 다듬고 설치해야 합니다. 우리는 배우고 성장할 모든 기회를 활용해야 하며, 꿈을 꾸고 시현을 보며 성전이 완성되도록 노력하며 달리 방법이 없을 때에는 끈기 있게 기다리며 갈에 기대어 잠시 쉬지만 다시 일어나 싸워야 합니다. ... 우리는 위대한 사업의 기초, 즉 더없이 귀중한 우리의 미래를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However Long and Hard the Road* [1985년], 127쪽)



**솔트레이크 성전.** 1893년에 헌납되었다. 이 성전을 완공하는 데 40년이 걸렸다.

## 2. 성도들이 솔트레이크 계곡과 그 주변 지역에 정착하고 이주하여 살면서 순종하였다.

솔트레이크 계곡과 그 주변 지역에 정착하는 일이 시작되자 성도들은 큰 도전에 직면하게 되었다고 설명한다. 지명 받은 반원에게 *우리의 유산*, 82~84쪽에 있는 “계곡에서의 첫 번째 해”와 “탐험”을 요약하도록 부탁한다.

- 성도들이 솔트레이크 계곡에서 초기 몇 년 동안에 봉착했던 큰 문제를 극복하는 데 그들의 어떠한 특성들이 그들을 도왔는가? 오늘날 우리의 삶에서 어떠한 상황이 이와 똑같은 특성들을 요구하게 되는가?

- 성도들은 역경에 처해 있는 동안 어떻게 축복을 받게 되었는가?

지명 받은 반원에게 *우리의 유산*, 86~89쪽에 있는 “개척지로의 부름”을 요약하도록 부탁한다.

- 찰스 로월 워커와 찰스 시 리치의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어떤 감명을 주었는가?

이들 두 명의 형제와 그들의 가족은 위대한 순종의 모범이라고 설명한다. 교회 역사의 위대한 가르침 중 하나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분의 선지자를 따르면서 우리가 축복을 받게 된다는 것이다. 교리와 성약에도 순종으로 인한 축복에 대하여 많은 가르침이 포함되어 있다. 반원들과 함께 다음 성구를 읽는다. 아래에 제시한 각 구절이 순종에 대해서 무엇을 가르치는지 토의한다.

- ㄱ. 교리와 성약 58:2~4.(계명을 지키고 “환난 중에 충실[하]”면 우리는 “영광으로 면류관”을 쓰게 될 것이다.)
- ㄴ. 교리와 성약 64:33~34.(기꺼이 하고자 하는 자와 순종하는 자는 이 후기에 시온의 땅에서 축복을 받을 것이다.)
- ㄷ. 교리와 성약 82:10.(주님은 그분이 하신 말씀을 우리가 행할 때에는 우리의 말을 들어주신다. 우리가 그분의 계명을 지킬 때 그분은 우리를 축복하신다.)
- ㄹ. 교리와 성약 93:1.(회개하고 구주께로 와서 그분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은 그분의 얼굴을 볼 것이다.)
- ㅁ. 교리와 성약 130:19~21.(이 세상에서 근면하고 순종심이 강하여 다른 사람보다 한층 많은 지식과 예지를 얻은 사람은 장차 오는 세상에서 유익을 얻는다. 우리는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함으로써 축복을 얻게 된다.)

- 여러분에게 순종의 중요성을 가르쳐 주었던 경험을 이야기해 줄 수 있는가? 비록 우리는 새로운 곳을 개척하도록 부름을 받지는 않았지만 오늘날 어떤 면에서 선지자의 말씀에 순종하도록 권고를 받는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 여러분은 어떤 느낌을 받게 되는가?

### 3. 전 세계에서 복음을 가르치기 위한 선교사들의 희생

성도들이 솔트레이크 계곡에 정착하던 때에 브리검 영 회장은 전세계에서 봉사하도록 많은 선교사들을 불렀다. 지명 받은 반원에게 *우리의 유산*, 84쪽에 있는 “선교사들이 부름에 응함”을 요약하도록 부탁한다.

- 브리검 영 회장이 교회를 이끄는 동안 세계의 어느 지역에서 성도들이 복음을 전했다는가? 전세계의 백성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이들 초기 성도들이 한 희생은 어떤 것인가?
- 로렌조 스노우 장로의 신앙과 기도가 복음의 메시지에 대하여 이탈리아인들이 마음을 열도록 어떻게 도움을 주었는가?
- 에드워드 스티븐슨 장로의 모범으로부터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 있는가? 엘리자베스와 찰스우드 의 모범에서는 어떠한가? 조셉 에프 스미스 장로의 모범에서는 어떠한가?

브리검 영 회장은 교회를 33년 동안 인도했다. 1877년에 영 회장이 서거한 후 십이사도 정원회의 회장이로서 존 테일러 회장이 3년 동안 교회를 인도한 후 1880년 10월 10일에 교회 회장으로 지 지되었다.(*우리의 유산*, 93쪽)

테일러 회장의 지도하에 성도들은 계속하여 전세계에 복음을 전파했다. 지명 받은 회원에게 *우리의 유산*, 93~96쪽에 있는 “선교 사업”을 요약하도록 부탁한다.

- 존 테일러 회장이 교회를 인도하는 동안에 성도들은 세계의 어느 곳에서 복음을 가르쳤는가?
- 밀튼 트레조는 하나님의 왕국 건설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의 전생애를 통하여 어떻게 인도되었는가? 우리는 하나님의 왕국을 건설하기 위해 우리 자신을 어떻게 더 잘 준비할 수 있는가?
- 우리는 토머스 비 싱거 장로의 이야기에서 무엇을 배울 수 있는가? 키모 펠리오 장로와 사무엘 마노아 장로의 이야기에서는 어떠한가? 조나단과 키티나 펠라의 이야기에서는 어떠한가?

## 결론

---

솔트레이크 계곡에서는 성도들이 주님의 성전과 그들의 삶의 굳건한 기초를 건설했음을 지적한다. 초기 성도들의 신앙과 인내와 순종과 복음을 전하려는 소망의 모범을 따르도록 반원들을 격려한다. 영의 지시에 따라 공과 중에 토의한 진리에 대해 간증한다.



---

**목적**                    반원들이 살아 계신 선지자의 필요성을 인식하게 하고 그분의 역할을 이해하며 그분의 권고에 더욱 충실히 따르도록 돕는다.

---

- 준비 사항**
1.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공과에 나오는 성구와 우리의 유산, 131쪽을 공부한다.
  2. 반원 학습 지도서(35686 320)에서 본 공과에 대한 자료를 살펴본다. 공과 시간에 자료를 참조할 수 있는 방법을 계획한다.
  3. 스펜서 더블류 김볼 장로가 어떤 공향에서 한 어머니와 그녀의 아이를 도운 이야기를 해줄 수 있게 한 반원에게 준비하도록 부탁한다.(우리의 유산, 131쪽)
  4. 공과를 끝마칠 때 결론에서 “말일에 예언자 주신 하나님”(찬송가, 6장)을 부를 계획이라면 반원들이 이 찬송가를 부를 준비를 하게 한다.
- 

## 공과 전개 제언

주의 집중 활동                   적절한 경우, 공과를 시작하기 위해 다음 활동이나 여러분 자신이 준비한 활동을 활용한다.

제일회장단에서 봉사했던 휴 비 브라운 회장이 말씀한 다음 이야기를 들려준다.

브라운 회장이 총관리 역원으로 부름 받기 전에 그는 영국에서 변호사로서 얼마 동안 근무한 적이 있었다. 그는 영국 하원 의원이며 대영 제국의 전 대법원 판사였던 저명한 영국인과 친했다. 두 사람은 종교 문제를 포함한 여러 가지 주제에 대하여 종종 이야기했다.

제2차 세계 대전이 일어나기 직전인 1939년에 그 영국 신사는 브라운 형제의 사무실로 찾아왔다. 그는 브라운 형제에게 법적인 문제를 논의하는 방식으로 그의 종교적인 신앙을 옹호해 달라고 요청했다. 한 연차 대회에서 브라운 회장은 그들의 대화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소개했다.

“저는 이렇게 질문하면서 시작했습니다. ‘귀하가 기독교인이라는 가정 하에 시작해도 좋겠습니까?’”

“저는 기독교인입니다.”

“성경, 즉 구약과 신약을 믿으실 것으로 생각합니다만”

“믿습니다.”

그 영국 사람은 주님이 선지자들에게 말씀하신 성경의 기록을 믿는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후 오래지 않아 그와 같은 주님과 교통은 중단되었다고 주장했다. 대화는 브라운 형제의 다른 질문으로 계속되었다. “그와 같은 교통이 왜 정지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모르겠어요.”

“귀하의 생각으로는 그 이후부터는 그분이 말씀을 하시지 않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그분이 말씀을 하시지 않은 이유를 제시해 보겠습니다. 아마도 그분이 그렇게 하실 수 없었기 때문이지요. 그분은 그렇게 하는 능력을 상실해 버린 것입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대답하면 신성 모독이 됩니다.’”

“그렇다면, 귀하가 그런 대답을 받아들일 수 없으시다면, 이런 대답은 어떻습니까? 그분이 더 이상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인간에게 말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그분은 더 이상 인간들의 일에 관심이 없으신 것입니다.”

“아닙니다.’ 하고 그는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그분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는 분입니다.’”

“그렇다면 … 제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다른 유일한 가능한 대답은 우리가 그분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육과 과학에서 굉장히 빠른 발전을 했기 때문에 더 이상 하나님이 필요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말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곧 닥칠 전쟁을 생각하면서 떨렸습니다. ‘브라운씨, 세계 역사상 하나님의 목소리가 지금보다 더 필요한 시기는 없었습니다. 어쩌면 귀하가 왜 그분이 말씀하시지 않는지 저에게 이야기해 주실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제 대답은 ‘그분은 [지금도] 말씀하고 계시며 지금까지 계속해서 말씀해 오셨습니다. 그러나 그분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는 사람이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이었습니다.”(Conference Report, 1967년 10월, 117~118쪽; 또는 *Improvement Era*, 1967년 12월호, 36~37쪽 참조)

주님께서는 오늘날도 살아 계신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을 반원들에게 강조한다. 이 공과에서는 살아 계신 선지자에 의하여 인도되는 축복과 그분의 권고의 말씀에 따라야 할 우리의 의무를 토의한다.

## 토론과 적용

기도하는 마음으로 반원들의 필요 사항을 가장 잘 충족시켜 줄 수 있는 공과 자료를 선정한다. 반원들을 격려하여 여러분이 토의하는 원리와 관련된 경험을 이야기해 주도록 한다.

### 1. 우리는 살아 계신 선지자가 필요함

- 오늘날 우리는 왜 살아 계신 선지자가 필요한가? (살아 계신 선지자의 권고는 우리 시대에 우리가 모든 중요한 문제를 해결하고 필요 사항을 충족시키는 데 도움이 된다고 지적한다.)

십이사도 정원회의 회장으로 봉사할 때 에즈라 태프트 벤슨 회장은 이렇게 말씀했다. “우리와 관계되는 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선지자는 우리가 사는 시대에 살아 계신 선지자입니다. 이 선지자는 오늘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지시를 갖고 계신 분입니다. 아담에게 주신 하나님의 계시에는 노아가 어떻게 방주를 지을 것인가에 대한 지시는 없었습니다. 모든 세대는 고대 경전에 더하여 살아 있는 선지자로부터 나오는 현대의 경전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독서의 대상과 깊이 생각해야 할 바는 주님의 대변자로부터 나오는 영감에 찬 최근의 말씀입니다.”(Conference Report, 한국 대회, 1975년, 52쪽)

- 여러분은 오늘날 살아 계신 선지자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축복 받아 왔는가?

### 2. 살아 계신 선지자의 역할

제일회장단과 십이사도 정원회의 모든 구성원들은 모두 선지자, 선견자, 계시자라는 것을 설명한다. 그러나 교회 회장만이 교회 전체를 위한 계시를 받고 교회를 관리하는 데 필요한 모든 신권의 열쇠

를 행사하도록 허락되었다.

교리와 성약은 우리의 살아 계신 선지자의 역할에 대하여 중요한 사실을 알려 준다. 반원들에게 다음에 나오는 사체로 된 성구를 읽게 한다. 그런 후에 반원들에게 우리의 살아 계신 선지자에 대하여 이 성구들이 가르치는 것을 파악하게 한다.(제언된 답이 괄호 안에 있음) 칠판에 대답들을 요약한다. 그후에 대답들에 대하여 토의한다.

가. 교리와 성약 1:38; 21:4~5; 43:2; 68:3~4.(선지자는 주님을 대신하여 주님의 뜻을 밝힘)

- 최근의 선지자들로부터 우리가 가르침을 받았던 주제에는 어떤 것이 있는가?(대답에는 강한 가족을 만드는 것, 성전 사업을 하는 것, 교회의 새로운 회원을 돕는 것, 부채를 지지 않는 것, 물론경을 읽는 것)

나. 교리와 성약 20:21~26; 모사이야서 13:33.(선지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복음을 가르침)

- 살아 계신 선지자의 말씀으로 구주에 대한 여러분의 간증이 어떻게 강화되었는가?

다. 교리와 성약 21:1; 모사이야서 8:13~18.(선지자는 선견자임)

- 선견자란 무엇인가? (선견자는 하나님으로부터 과거와 미래를 알 수 있는 큰 능력을 부여받은 선지자이다. 그는 알려지지 않은 것이나 감추어진 것을 알 수 있다. 그는 또한 고대 기록을 번역할 권능을 가질 수도 있다.)
- 교리와 성약 101편 43~54절을 반원들과 함께 읽는다. 이 비유에서 종들이 순종하지 않았던 계명은 어떤 것인가?(교리와 성약 101:46~50 참조) 종들이 망대를 세웠다면 어떤 일을 피할 수 있었을까?(교리와 성약 101:51~54 참조) 우리가 교회 회장의 말씀을 경청하는 것에 위 말씀이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가?
- 교회 회장은 “원수가 아직 멀리 있을 동안에”(교리와 성약 101:54) 그들을 볼 수 있다. 후기의 선지자들이 보고 우리에게 경고했던 위협에는 어떤 것이 있는가?

라. 교리와 성약 107:91~92.(선지자는 교회를 감리함)

-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인도하시는 선지자가 참된 교회를 항상 이끄시기 때문에 우리들은 어떤 축복을 받게 되는가?
- 우리는 선지자가 교회 회장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때 어떻게 그를 지지할 수 있는가?(교리와 성약 107:22 참조)

### 3. 우리의 살아 계신 선지자의 말씀에 귀 기울임

- 반원들과 함께 교리와 성약 21편 4~6절을 읽는다. 이 성구는 선지자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우리의 책임에 관하여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있는가? 우리가 선지자의 권고에 순종할 때 주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약속하시는가?

해롤드 비 리 회장은 이렇게 가르쳤다. “이 교회의 회원으로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유일하게 안전한 방법은 교회가 조직되던 날 주님께서 교회에 하신 말씀에 따라 정확히 그대로 생활하는 것입니다. (교리와 성약 21:4~5 참조) ... 어떤 것들은 받아들이는 데 인내와 신앙이 필요합니다. 교회의 지도자가 하신 말씀을 여러분이 좋아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의 정치적인 견해와 상반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사회적인 견해도 상반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여

러분의 사회 생활에 간섭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이러한 말씀을 주님 자신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인 것처럼 인내와 신앙을 가지고 받아들인다면 그에 대한 약속은 “지옥문이 너희를 이기지 못할 것임이니” [교리와 성약 21:6]입니다.”(Conference Report, 1970년 10월, 54쪽; *Improvement Era*, 1970년 12월호, 126쪽)

- 우리는 선지자의 영감 받은 권고를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연차 대회 말씀과 제일회장단 메시지와 교회 잡지에 실리는 그 밖의 기사들을 잘 읽어 봄으로써 알 수 있다. 또한 교회 모임에서 읽는 제일회장단의 서한에 귀를 기울임으로써 알 수 있다.)

연차 대회를 끝나치면서 에즈라 태프트 밴슨 회장은 이렇게 말씀했다. “앞으로 6개월 동안 성도의 벗 대회 특별호가 여러분의 표준 경전 바로 옆에 있어야 하며 자주 참조해야 합니다.”(성도의 벗, 1988년 7월호, 91쪽)

십이사도 정원회에서 봉사하는 동안 해롤드 비 리 장로는 연차 대회에서 비슷한 말씀을 했다. 그는 대회 보고는 “앞으로 6개월 동안 우리가 행동하고 말하는 데 지침이 되게 해야 합니다.”라고 말씀했다.(성도의 벗, 1993년 1월호, 79쪽)

- 우리는 어떻게 개인적으로 또한 가정에서 선지자의 연차 대회 말씀들을 좀 더 잘 공부하고 활용할 수 있는가?
- 선지자의 권고에 따르면서 여러분은 어떻게 축복을 받게 되었는가?

칠십인 정원회의 회원인 브루스 디 포터 장로의 다음 말씀을 이야기해 준다.

“제 아내와 제가 신혼 부부였을 때 우리 부부는 제가 다니던 학교에 있는 보스턴 지역에 살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사온 후 얼마 되지 않아 또 다른 부부가 우리 와드로 이사왔습니다. 그들은 개종한 지 약 2년밖에 안 된 분들이었습니다. 저는 그들이 어떻게 잘 적응할지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들의 가정 복음 교사가 되라는 부름을 기꺼이 받아들였습니다. 저는 그분들의 복음에 대한 간증을 강화시키는 것을 돕게 되기를 고대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제 동반자와 저는 그들에게 가정 복음 교육을 하기 위하여 그들이 살고 있는 조그만 아파트에 갔습니다. 그때는 그들이 갓난아기와 막 가정의 밤을 끝냈을 때였습니다. 제 처와 저도 가정의 밤을 가지면 좋겠구나, 그래서 우리가 아이를 낳았을 때는 이미 가정의 밤을 갖는 습관을 갖고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고 머릿속에 메모해 두었습니다. 그 다음에 그들은 우리에게 양가 선조들의 많은 이름을 수집해 놓은 기억의 책을 열심히 우리에게 보여 주었습니다. 저는 제 기억의 책을 본 지 오래되었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공과가 끝난 후 그들은 우리를 밀과 설탕과 밀가루와 다른 식품들로 채워진 아이스크림 통이 쌓여져 있는 일년 치 식량 비축이 완전히 되어 있는 뒤쪽 베란다로 우리를 안내했습니다. 어찌된 일인지 모르지만 저는 학생이니까 식량을 비축하라는 권고는 우리에게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제 마음대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제 마음은 매우 겸손해졌습니다. 그들을 가르치러 왔는데 그들이 오히려 모든 점에서 저를 가르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그들의 조그만 아파트를 떠나갈 때 그들의 문 근처에 성전 그림이 걸려 있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스펜서 더블류 김볼 회장님이 모든 후기 성도 가정들은 그들의 집에 잘 보이는 곳에 성전 그림을 걸어 두라는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우리 집에는 성전 그림을 걸어 두지 않았다는 것도 생각났습니다.”

“회개하는 마음으로 가득 차서 집에 돌아와서 선교사 소책자에서 스위스 성전의 조그만 그림을 찾아내 오려서 벽에 붙였습니다. 그 이래로 우리는 항상 성전 그림을 걸어 두게 되었습니다. 그 그림을

볼 때마다 '선지자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던 그 젊은 개종자가 생각납니다."(바운티풀 물러 파크 스테이크 대회에서 하신 말씀, 1999년 1월 17일)

#### 4. 그리스도와 같은 사랑의 모범을 보여준 후기의 선지자

교회 회장들은 자기를 돌보지 않고 큰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위하여 봉사해 왔다고 지적한다. 우리는 그들의 모범에서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다.

선지자 조셉 스미스의 생애에서 있었던 이야기에서 뽑은 다음 이야기를 들려준다.

존 라이먼 스미스와 그의 가족은 성도들이 처음으로 나무에 정착하기 시작할 때 그곳으로 왔다. 처음에는 그들 가족이 살 수 있는 유일한 곳은 통나무로 지어진 마구간이었다. 높이 많은 지역에 살았기 때문에 어머니를 제외한 모든 가족이 열병에 걸려 눕게 되었다. 존 라이먼 스미스는 그때의 경험을 이렇게 말했다.

“선지자 조셉 스미스와 그의 형 하이럼은 우리를 방문하여 우리 모두에게 병자 축복을 베풀어 주었다. 아버지는 열로 인하여 정신이 혼미한 상태였다. 주의 이름으로 ‘여러분 모두 다시 건강하게 될 것입니다.’ 하고 말했을 때 그 말은 우리에게 큰 위안을 주었다. 그 오두막을 떠나면서 조셉은 나의 아버지의 발에다 그의 슬리퍼를 신기고 문간에서 그의 말 위에 올라타고 맨발로 집으로 갔다. 그 다음날 조셉은 우리 아버지를 자기 집에 데려가서 완쾌될 때까지 그를 간호했다.”(*Stories about Joseph Smith the prophet: A collection of Incidents Related by Friends who Knew Him*, comp. 에드윈 에프 파리 [1934년], 33~34쪽)

지명 받은 회원에게 스펜서 더블류 김볼 장로가 공항에서 한 어머니와 그녀의 아이를 도와주었던 이야기(*우리의 유산*, 131쪽)를 요약해 주도록 부탁한다.

반원의 발표가 끝난 후 고든 비 힝클리 회장에 관한 다음 이야기를 들려준다.

1998년에 굉장한 파괴력을 가진 허리케인이 중앙 아메리카를 강타했다. 교회에서는 많은 양의 구호 식품과 물자를 보내었다. 그러나 고든 비 힝클리 회장은 온두라스와 니카라과에 있는 백성들을 만나서 격려해 주기 위해 직접 그곳에 가 봐야겠다는 느낌을 받았다. 후에 성탄절 영적 모임에서 힝클리 회장은 여행을 하다가 허리케인으로 인한 참사로 고아가 된 두 살 된 소녀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녀의 어머니는 허리케인이 오기 몇 개월 전에 이미 사망했고 그녀의 아버지는 집안으로 올라오는 물을 피하기 위하여 그의 집에 가구를 쌓고 있었다.

힝클리 회장은 이렇게 이야기했다. 그녀의 아버지는 “조그만 매트리스를 가져다가 제일 위에 올려놓고 [그의 딸을] 그 위에 눕혔습니다. 그는 필사적인 노력을 하다가 뇌졸중으로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 그래서 아무도 그 아이가 어떻게 되었는지 몰랐습니다. 그러다가 이틀 후에 한 젊은이가 그 버려진 집안에서 우연히 위를 쳐다보았다가 아직 살아 있는 아이를 발견했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그녀를 안고 내려와 감독과 그의 아내에게 데려다 주었습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아이를 보게 되었습니다.”

“이 크리스마스 계절에, 재난을 당해 극도로 어려운 상황에 처하여 사람들이 선물을 서로 주고받을 수도 없는 이 때에, 이 작은 고아 여자아이가 조그마한 사탕이나 달콤하고 맛있는 무엇이랄도 받게 되면 좋겠다는 소망을 갖고 있습니다. 저는 반드시 그런 일이 있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세계 여러 곳에 있는 사람들을 축복하시어 ... 그들의 마음이 열리고 그들의 손이 궁핍한 자를 돕기 위하여 뻗어지기를 바랍니다.”(*Church News*, 1998년 12월 12일, 4쪽)

- 이들 선지자들이 하신 일과 관련하여 여러분에게 감동을 준 것은 무엇인가? 그들의 모범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 결론

우리는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되고 있다고 강조한다. 우리가 선지자의 권고에 귀를 기울이고 그의 지시에 따라 행동하면 우리 시대에 봉착하게 되는 어려움을 해결하는데 필요한 지시와 힘을 얻게 될 것이다. 영의 지시에 따라 공과 중에 토의한 진리에 대해 간증한다. 반원들에게 “말일에 예언자 주신 하나님”(찬송가, 6장)을 함께 부르게 하거나 미리 지명 받은 한 사람이나 여러 명이 부르게 할 수 있다.

## 추가로 가르칠 개념

### 1. 선지자는 결코 우리를 잘못 인도하지 않을 것임

우리는 하나님이 임명한 선지자는 항상 우리를 바르게 인도 할 것이라는 완전한 신뢰를 가져야 한다고 강조한다.

십이사도 정원회에서 봉사하는 동안 에즈라 테프트 벤슨 장로는 다음과 같이 가르쳤다. “선지자의 말씀에 항상 주의하십시오. 왜냐하면 주님은 결코 그분의 선지자가 이 교회를 잘못 인도하도록 버려 두지 않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Conference Report, 1966년 10월, 123쪽; *Improvement Era*, 1966년 12월호, 1145쪽)

제일회장단의 보좌로 봉사하는 동안 조셉 에프 스미스 회장은 이렇게 가르쳤다. “그럴리는 없지만 만약 [교회 회장] 충실하지 못하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를 그의 직책에서 제거하실 것입니다. 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증거하거나 하나님께서는 교회의 머리로 선택하신 자가 그분의 율법을 어기고 배도하면 용서하지 않으실 것이며 시간이 되면 배도의 길로 이끌어 갈 길을 그가 선택하는 순간 하나님은 그를 제거하실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사악한 사람이 그 직분을 차지하도록 버려 둔다면 그것은 마치 기초가 썩도록 허용하는 것과 마찬가지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을 허용하지 않으실 분이십니다.”(복음 교리, [1939년], 41쪽)

### 2. 전쟁에 관한 예언과 계시

선지자의 역할을 토의하면서 반원들과 함께 교리와 성약 87편을 읽을 수도 있다. 이 계시는 1832년에 조셉 스미스를 통해서 주신 것이다. 이것은 1861년에 시작된 미국의 남북 전쟁을 예언했다.

### 3. “망대 위의 파수꾼” 비디오 발표

교리와 성약 및 교회사의 가르침(53933 320) 비디오를 구할 수 있다면, 4분 짜리인 “망대 위의 파수꾼”을 보여 주는 것을 고려한다.

### 4. 후기의 선지자들의 공헌

교회의 후기의 선지자들의 그림(62575; 복음 그림 패킷 401, 507~520; 또한 219쪽 참조)을 보여준다. 집회소 도서실이나 복음 그림 패킷의 그림을 활용한다면 219쪽에 표시한 바와 같이 선지자의 이름과 교회 회장으로서 각자가 봉사한 기간을 보여 준다.

반원들에게 “교회 역사 연대기”(본 교재 272~273쪽과 반원 학습 지도서 27~28쪽)을 펴 보도록 한다. 이것은 교회 각 회장들이 이루어 놓은 중요한 업적의 일부를 아는 데 도움이 되는 자료라고 설명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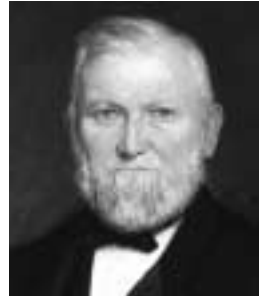
조셉 스미스  
1830~1844



브리검 영  
1847~1877



존 테일러  
1880~188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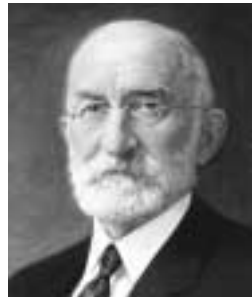
윌포드 우드럽  
1889~1898



로렌조 스노우  
1898~1901



조셉 에프 스미스  
1901~1918



히버 제이 그랜트  
1918~1945



조지 앨버트 스미스  
1945~1951



데이비트 오 맥케이  
1951~1970



조셉 필딩 스미스  
1970~1972



해롤드 비 리  
1972~1973



스펜서 더블류 김볼  
1973~1985



에즈라 태프트 벤슨  
1985~1994



하워드 더블류 헌터  
1994~1995



고든 비 힝클리  
1995~

**목적**

반원들이 영적인 복지와 현세적인 복지를 이해하는 것을 돕고 자립심을 더욱 강하게 하며,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봉사하겠다는 생각을 갖도록 돕는다.

**준비 사항**

1. 기도하는 마음으로 다음 성구와 다른 자료들을 공부한다.
  - ㄱ. 교리와 성약 38:30; 42:30~31, 42; 58:26~28; 104:13~18; 그리고 본 공과에 나오는 다른 성구들.
  - ㄴ. *우리의 유산*, 108~109, 111~114쪽
2. *반원 학습 지도서*(35686 320)에서 본 공과에 대한 자료를 살펴본다. 공과 시간에 자료를 참조할 수 있는 방법을 계획한다.
3. *우리의 유산*에 나오는 다음 자료를 요약하도록 반원들에게 부탁한다.
  - ㄱ. 복지 프로그램 제정(108~109쪽)
  - ㄴ. 제2차 세계 대전 후 유럽에 사는 사람들에게 준 복지 도움.(112쪽 처음부터 114쪽 중간까지)
4. 주의 집중 활동을 하려면 등에 짊어지는 가방이나 보통 가방을 반으로 가져온다. 다음과 같은 표지를 붙여서 큰돌 몇 개를 가져온다. 신앙의 부족, 게으름, 교육의 부족, 부채, 미래에 대한 준비 부족.

**공과 전개 제언**

주의 집중 활동

적절한 경우, 공과를 시작하기 위해 다음 활동이나 여러분 자신이 준비한 활동을 활용한다.

여러분이 준비하여 갖고 온 가방을 한 반원에게 짊어지거나 들도록 부탁한다.(‘준비 사항’ 4 참조) 우리들 중 많은 사람들은 평생 동안 불필요하게 무거운 짐을 지고 다닌다고 설명한다. 짊어지거나 들고 있는 가방에 한번에 하나씩 돌덩어리를 집어 넣으면서 왜 그 돌이 큰짐이 될 수 있는가를 토의한다. 마지막 돌덩어리를 집어 넣을 때쯤에는 가방이 얼마나 무거워졌는지 반원들이 살펴보게 한다.

이제는 가방에서 돌덩어리를 하나씩 꺼낸다. 우리가 이들 짐들을 제거할 책임을 맡음으로써 우리의 인생은 더 나아질 것이라고 설명한다.

후기의 선지자들은 자립의 중요성과 곤경에 처한 자들을 돕는 것의 중요성을 항상 가르쳐 왔다. 이 과에서는 이들 원리와 교회의 복지 프로그램을 토의한다. 교회 복지 프로그램은 회원들에게 이들 원리를 적용하도록 격려한다.

토론과 적용

기도하는 마음으로 반원들의 필요 사항을 가장 잘 충족시켜 줄 수 있는 공과 자료를 선정한다. 반원들을 격려하여 여러분이 토의하고 있는 원리와 관련된 경험을 이야기해 주도록 한다.



## 1. 영적인 자립을 개발함

- 반원들과 교리와 성약 38편 30절을 읽는다. 이 구절에서는 자립의 중요성에 대하여 무엇을 가르치는가? 여러분의 생활에서 이 가르침이 옳다는 것을 어떻게 알았는가?
- 영적인 일에서 자립이란 말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우리의 생활에서 어려운 문제들을 우리가 해결할 수 있도록 해 주는 영적인 힘을 개발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또한 다른 사람들이 영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그들을 강화시키도록 노력해야 한다.) 영적으로 자립하는 것은 왜 중요한가?

십이사도 정원회의 보이드 케이 팩커 장로는 이렇게 말씀했다.

“우리는 일년 동안 먹을 식량과 의복과 가능하다면 연료까지도 가정에 비축하라는 가르침을 받아 왔습니다. ... 이와 동일한 원리가 문제 해결과 조언과 인도와 같은 영감과 계시를 받는 데에도 적용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모든 가정에 영감과 계시를 받을 수 있는 영성을 저장할 필요가 있습니다. ...”

“우리가 정서적인 독립성과 영적인 독립, 즉 자립을 상실하게 되면 물질적으로 자립하지 못할 때 보다 훨씬 더 약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주님의 방법대로 정서적인 문제를 해결함”, 성도의 벗, 1978년 10월호, 142~143쪽)

- 영적인 것에서 우리는 어떻게 더 자립할 수 있는가?
- 어떻게 부모들이 그들의 자녀가 영적인 자립을 배울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는가?

## 2. 현세적인 자립을 개발함

- 현세적인 것들에 대하여 자립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우리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을 우리 자신과 가족을 돌보는 데 활용해야 한다. 우리가 신체적으로 또는 정서적으로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우리 자신이나 가족을 돌보아야 하는 짐을 다른 사람에게 떠 넘겨서는 안 된다.) 현세적으로 자립하는 것이 왜 중요한가?
- 우리는 현세적인 것에서 어떻게 더 자립할 수 있는가? (그 대답으로는 좀 더 효율적으로 일하는 방법을 배우고, 어려운 때를 대비하여 식량과 그 밖의 필수품들을 저장하고, 금전 관리를 잘하고, 훌륭한 교육을 받는 것이 포함될 수 있다. 토의하기 위하여 다음 자료를 활용하거나 반원들의 대답을 추가할 수 있다. 훌륭한 교육을 받는 것에 관해 더 알기 위하여서는 23과를 참조한다.)

### 일

솔트레이크 계곡에 도착한 직후에 브리검 영 회장은 그 지역을 데저렛이라고 이름 붙였다. 데저렛 [테세레트]이란 단어는 “꿀벌”(이더서 2:3)이란 뜻을 가진 것으로 몰몬경에서 따온 것이다. 영 회장은 성도들이 그들의 새로운 고향에서 꿀벌처럼 부지런하고 공동의 유익을 위하여 함께 일하기를 바랐다.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일에 대해 이와 똑같은 태도를 가져야 한다.

- 반원들과 함께 교리와 성약 42편 42절 및 56편 17절을 읽는다. 게으른 생활을 하려고 하는 자들에게 주님은 어떤 경고를 하셨는가? 우리의 생활에서 일은 어떤 가치가 있는가?(다음 인용문을 참조할 것) 어떻게 일이 우리의 생에서 축복이 되는가? 여러분은 일의 가치를 어떻게 배웠는가? 어른들은 아이들에게 어떻게 일의 가치를 가르쳐 줄 수 있는가?

“자립하기 위해 사람은 일을 해야 한다. 일은 육체적, 정신적 혹은 영적인 노력이다. 일은 행복과 자기 가치 및 번영의 근원이다. 일을 통해서 사람은 자기 생애에 많은 선한 일을 성취한다.”  
(교회 지침서, 제2권:신권 및 보조 조직 지도자 [1999년], 251쪽)

- 십이사도 정원회의 닐 에이 맥스웰 장로는 다음과 같이 말씀했다. “일이란 비록 어떤 사람에게서는 경제적인 면으로 볼 때 필요하지 않은 경우도 있지만, 영적인 면으로 볼 때에는 누구에게나 항상 필요한 것입니다.”(“어깨로 수레바퀴를 밀듯이 부지런히 일함”, 성도의 벗, 1998년 7월호, 38쪽) 왜 일은 현세적인 면에서는 물론 영적인 면에서도 우리에게 중요한가?

#### 식량과 다른 필수품의 비축

여러 해 동안 후기의 선지자들은 가능하면 식량과 다른 필수품 1년 분을 비축하도록 말해 왔다고 설명한다. 우리가 이 권고에 따르면 비축은 어려운 시기에 우리 자신을 돌볼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 자립하게 된다.

교회 지침서에는 이렇게 설명되어 있다.

“교회 지도자들은 비축해야 할 정확한 품목을 제시하지는 않았다. 다만 회원들이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을 경우 살아 남기 위해 필요한 것들을 먼저 비축하라고 권했을 뿐이다. ...”

“대부분의 교회 회원들은 신중하게 계획을 세워서 1년 동안 생명을 유지시키는 데 필요한 양의 필수품을 비축할 수 있다. 그러나 회원들 가운데는 그와 같이 비축할 돈이나 그런 공간을 갖고 있지 않은 사람도 있고 법률이 1년치 식량 비축을 금하는 경우도 있다. 이런 회원들은 자신의 환경에 따라 자기가 비축할 수 있는 만큼 비축하여야 한다. 모든 회원들은 기본 식품을 생산하고 준비하는 방법을 배우으로써 더욱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다.”(교회 지침서, 제2권, 252쪽)

- 여러분의 지역에서 비축할 수 있는 기본적인 식품에는 어떤 것이 있는가? 식량을 비축하기 위해 여러분이나 다른 사람들은 어떤 일을 했는가? 어떻게 적절한 식량 비축을 해 두는 것이 현세적인 축복일 뿐 아니라 영적인 축복이 될 수 있는가?

#### 재정적인 안전

자립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돈을 관리하는 방법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 돈 관리를 잘못하면 개인이나 가족 생활에 많은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 우리는 재정적인 면에서 더 잘 자립하기 위하여 무엇을 할 수 있는가? 부모들은 자녀들이 재정적으로 자립하는 것을 어떻게 가르칠 수 있는가?

교회 지침서에는 이렇게 설명되어 있다. “자원 관리면에서 자립할 수 있게 되기 위해서는 교회 회원들은 십일조와 헌금을 바쳐야 하고, 불필요한 부채를 피해야 하며, 미래를 위해 저축하고, 자기에게 약속된 모든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회원들은 또한 시간을 포함한 자신의 자원을 검소하게 사용하고 쓸데없이 낭비하는 것을 피해야 한다.”(교회 지침서, 제2권, 252쪽)

- 어떻게 십일조를 내는 것이 우리가 자원을 좀 더 잘 관리하도록 도울 수 있는가?
- 불필요한 채무를 지는 것을 피하는 것은 왜 중요한가? 어떠한 습관이 여러분이 채무를 피하도록 도와 왔는가? 또 채무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돕는가?

고든 비 힝클리 회장은 채무의 위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경고했다.

“여러분이 돈을 쓸 때에는 신중하시기를 권합니다. 최대한 빚을 피하기 위하여 물건을 살 때 자제하십시오. 최대한 빨리 채무를 모두 갚으시고 속박에서 벗어나십시오.”

“빚을 다 갚고 남은 돈이 있으면, 그것이 아무리 적은 액수일지라도 저축한다면 비록 여러분이 금전적으로 어렵다 하더라도 여러분은 아내와 자녀들을 위한 은신처를 갖게 될 것이며 마음의 평화를 얻게 될 것입니다.”(“청남과 성인 형제들에게”, *리아호나*, 1999년 1월호, 54쪽)

### 3. 궁핍한 자를 돌봄

교리와 성약에서 주님은 거듭해서 궁핍한 자를 돌보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하셨다. 다음 성구들을 반원들과 함께 읽는다. 궁핍한 자들을 돕기 위한 우리의 책임에 대하여 각 성구는 무엇을 가르치고 있는가를 확인한다.

- ㄱ. 교리와 성약 42:30~31.(우리가 가난한 자들에게 우리의 재물을 나누어 줄 때, 우리는 그 일을 주님을 위해 행하는 것이 된다.)
- ㄴ. 교리와 성약 44:6.(우리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찾아보고, 그들에게 필요한 도움을 베풀어야 한다.)
- ㄷ. 교리와 성약 52:40.(우리가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 병든 자와 고난당하는 자를 기억하지 않으면 우리는 구주의 제자가 아니다.)
- ㄹ. 교리와 성약 56:16.(우리가 부자이면서도 가난한 자에게 재물을 나누어 주려 하지 않으면 우리의 재물이 우리의 영혼을 썩게 할 것이다.)
- ㅁ. 교리와 성약 88:123.(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한다. 복음이 요구하는 대로 서로 나누어 주어야 한다.)
- ㅂ. 교리와 성약 104:18.(우리가 풍성하게 갖고 있으면서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지 아니하면 우리는 악한 자들과 더불어 고통을 받게 될 것이다.)
- 교리와 성약 104편 13~18절에서 주님은 그분의 자녀들에게 현세적인 필요 사항을 마련해 주실 그분의 방법을 설명해 주셨다. 가난한 자들을 부양하기 위한 “자신의 방법”은 무엇인가? 우리가 주님의 풍성하신 것을 받을 때 우리의 책임은 무엇인가?(야곱서 2:17~19 참조)

가난한 자들과 궁핍한 자들을 주님이 “정한 방식”대로 부양한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에 따라 궁핍한 자들에게 나누어 줌으로써 돕는다는 것을 뜻한다.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가 모든 축복의 근원이라는 것과 우리는 그 축복들을 다른 사람을 돕는 데 활용할 책임이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아낌없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는 것을 뜻한다. 이러한 도움을 받는 사람들은 그것을 감사하게 받아야 한다. 그들은 그것을 그들의 궁핍의 한계로부터 벗어나는 데 활용해야 하며 그들이 가진 잠재력을 최대한으로 발휘할 수 있는 데까지 발전하는 데 활용해야 한다. 그 후에 그들은 다른 사람을 돕기 위하여 손을 뻗어야 한다.

- 궁핍한 자들에게 우리가 도움을 줄 때 우리는 어떤 축복을 받는가? 어려운 때에 다른 사람이 여러분을 도와주었기 때문에 여러분은 어떤 축복을 받게 되었는가?

공경에 처해 있는 자들을 돕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고 설명한다. 교회는 우리가 도움을 줄 수 있는 정해진 방법을 제공한다. 또한 우리는 조용하고 개별적인 방법으로 우리 주위에 있는 자들을 도울 수도 있다.

- 궁핍한 자들을 부양하기 위해 우리가 도울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은 금식 헌금을 바치는 것이다. 금식 헌금은 가난한 자들을 돕기 위해 어떻게 사용되는가?(감독은 궁핍한 자들에게 음식과 거처와 의복과 다른 구호품을 제공하기 위하여 금식 헌금을 사용한다.)
- 금식 헌금으로 우리는 얼마나 헌금해야 하는가?(다음 인용문을 참조한다.) 우리가 금식 헌금을 바치는 것은 왜 중요한가?

“교회는 매월 일요일 하루를 금식일로 정하고 있다. 이날에 교회 회원들은 연속 두 끼 동안 아무 것도 먹거나 마시지 않고 지낸다. 회원들은 ... 적어도 두 끼 식사 대금에 상당하는 금식 헌금을 교회에 바친다. 가능하면 회원들은 금식 헌금에 매우 관대하여야 하며 두 끼 식사 대금보다 훨씬 많은 금액을 바쳐야 한다.”(교회 지침서, 제2권, 250쪽)

금식과 금식 헌금에 대하여 더 많은 자료를 얻기 위하여서는 제17과를 참조한다.

우리가 궁핍한 자들에게 도움을 제공하도록 교회가 돕는 또 다른 방법은 정해진 인도주의적 지원을 통하는 것이다. 여러 해 동안 교회는 전세계 도처에서 인도주의적인 지원과 자립 노력을 지원해 왔다. 이와 같은 지원은 회원이나 비회원 모두에게 가난과 전쟁과 자연 재해로 인한 심각한 고통을 완화시키는 데 도울 수 있는 길을 열었다.

- 교회의 인도주의적 지원 기금을 위해 회원이 개별적으로 어떻게 헌금할 수 있는가?(십일조 헌금 명세서에 있는 해당란에 내역을 기록하여 제출함으로써 그렇게 할 수 있다. 회원들에게 십일조 헌금 명세서를 보여 줄 수도 있다.) 교회의 인도주의적 지원이 곤경에 처한 자들을 축복해 주는 데에는 어떤 방법들이 있는가?

토마스 에스 몬슨 회장은 교회가 인도주의적 지원을 베푸는 것의 일부에 대해 이렇게 말씀했다.

“1992년에 엄청난 재난을 몰고 온 허리케인이 ... 플로리다 동쪽 해안을 강타하여 허리케인이 지나간 길을 따라 집들은 파괴되고 지붕은 날아가고 사람들은 굶주리게 되었습니다. 우리 회원들은 그들을 돕기 위하여 그곳에 갔습니다. 집들을 무상으로 하나하나 청소해 주고 수리해 주었습니다. 그 집에 누가 살고 있는지, 종교가 무엇인지, 피부의 색과는 관계없이 도움을 주었던 것입니다. ...”

“저 멀리 거대한 리프트 밸리의 가장자리에 있는 마운트 케냐의 서쪽 능선 언덕 기슭에 사는 목마른 사람들에게 이제는 깨끗한 물이 공급되고 있습니다. 음료수 공급 사업이 1,100명 이상이나 되는 가족들의 생활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우리가 처음 깨끗한 물의 필요성을 알게 되었을 때 개인 원조 기관인 테크노 서브와 협력하여 그 사업에 자금을 제공할 수 있었습니다. 그곳 주민이 노동을 제공하여, 이제 15개의 마을이 있는 지역에 사는 물을 기다리는 가정들에게 길이 40킬로미터가 되는 파이프를 통해 마실 수 있는 물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안전한 음료수의 소박한 축복은 주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합니다. ‘내가 ...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마태복음 25:35]’ (“Our Brothers’ Keeper”, *Ensign*, 1998년 6월호, 37쪽)

- 교회가 제공하는 기회 외에도 우리의 주위에 있는 궁핍한 사람들을 축복해 주기 위한 다른 길들을 찾아 보아야 한다. 교리와 성약 58편 26~28절을 반원들과 함께 읽는다. 우리는 이 성구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가난하고 빈곤한 사람들을 위해 봉사하려는 노력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가?
- 가난하고 궁핍한 자들을 돌볼 때 우리가 겪게 되는 어려움에는 어떤 것이 있는가? 우리는 그러한 어려움들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가?

#### 4. 교회 복지 프로그램

주님으로부터 받은 영감의 결과로 1936년에 제일회장단은 조직적으로 자립을 장려하고 궁핍한 자들을 돕기 위해 교회 복지 프로그램을 제정했다고 설명한다. 지명 받은 반원에게 *우리의 유산*, 108~109쪽에 있는 복지 프로그램 제정에 관하여 이야기해 주도록 부탁한다.

교회 복지 프로그램의 목적을 강조하는 제일회장단의 다음 메시지를 읽어 준다.

“우리의 일차적인 목적은, 가능한 한 계으름으로 인해 오는 불행을 없애고, 실업 수당에 의존해서 생기는 악을 퇴치하며, 독립심과 근면과 검약과 자기 존중의 정신을 성도들 가운데 다시 심어 줄 체제를 확립하는 데 있습니다. 교회의 목적은 사람들이 자립하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교회 회원은 일을 그들의 생활 원칙으로 재인식해야 합니다.”(Conference Report, 1936년 10월, 3쪽)

- 이들 목표를 성취하는 데 교회 복지 프로그램이 어떻게 도움이 되었는가?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유럽에 있는 사람들을 돕기 위해 교회가 베푼 지원은 교회 복지 프로그램이 어떻게 많은 사람들을 축복해 줄 수 있는가에 대한 영감에 찬 실제적인 예라고 설명해 준다. 지명된 반원에게 *우리의 유산* 112쪽에서 114쪽에 있는 복지 프로그램이 유럽에 있는 궁핍한 자들을 어떻게 축복해 주게 되었는가에 관한 기사를 이야기해 주도록 부탁한다.

- 이러한 사업들에 관여한 분들의 노력 중에서 어떤 것이 여러분에게 감명을 주었는가? 우리는 어떤 방법으로 그들의 모범을 따를 수 있는가?

결론

자립하는 것과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돌보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이들 원리에 따름으로써 여러분의 삶이 어떻게 축복을 받게 되었는가에 대하여 간증할 수도 있다.

#### 추가로 가르칠 개념

여러분은 제언된 공과 개요를 보충하기 위하여 다음 개념 가운데서 한 가지 개념이나 두 가지 개념을 모두 활용할 수 있다.

##### 1. 교육은 자립에 대단히 중요함

교회 회원들은 항상 자기 자신이 최대한 훌륭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라는 권고를 받아 왔다. 초기 성도들은 그들의 교육을 촉진하는 데 관심을 가져 왔다. 솔트레이크 계곡에 도착한 첫해에 천막에서 어린아이들을 위한 수업이 실시되었다. 후에 교회 지도자들은 모든 와드에 학교를 세우도록 지시했다. 데저렛 대학교가 1850년에 개교되었다. 자립하는 데 도움이 될 교육의 가치에 대해 자세히 알기 위해서는 제23과를 참조한다.

##### 2. “궁핍한 자를 돌봄” 비디오 발표

*교리와 성약 및 교회사 비디오 발표 자료*(53912 320)를 구할 수 있다면, “궁핍한 자를 돌봄”(7분)을 보여 주는 것을 고려한다.

# “자녀들의 마음은 그들의 아버지들에게로 돌이키리라”

**목적**

반원들이 그들의 조상을 찾아내어 그들을 대신하여 신권 의식을 받아 줄 필요성을 이해하도록 돕는다.

**준비 사항**

1. 기도하는 마음으로 다음의 성구와 다른 자료들을 공부한다.
  - ㄱ. 교리와 성약 2편; 110:13~16; 138편; 조셉 스미스-역사 1:37~39
  - ㄴ. *우리의 유산*, 98~99, 101~102, 105~107쪽
2. *반원 학습 지도서*(35686 320)에서 본 공과에 대한 자료를 살펴본다. 공과 시간에 자료를 참조할 수 있는 방법을 계획한다.
3. 다음 과제를 반원에게 미리 지명한다.
  - ㄱ. *우리의 유산*, 99쪽에 나오는 헨리 벨라드 감독과 그의 딸에 관한 이야기를 요약하도록 반원 한 명에게 부탁한다.
  - ㄴ. 다른 반원에게 윌포드 우드럽 회장이 우리의 가족 역사를 탐구하고 자녀를 그들의 부모에게 인봉하는 것에 관하여 받은 계시에 대하여 간단하게 이야기하도록 부탁한다.(*우리의 유산*, 101쪽에 있는 ‘계보 협회’의 첫 번째 문단 전체 참조)
  - ㄷ. 반원 한두 명에게 죽은 자를 위한 신권 의식을 대신해 주었던 경험에 대하여 간략하게 이야기하도록 부탁한다. 그들이 대신 의식을 받아 주었던 죽은 사람들에 대해 어떤 느낌을 받았는지 이야기해 보도록 부탁한다.
  - ㄹ. 이 세상에 “많은 성전이 들어서게 될” 날이 올 것이라는 조셉 에프 스미스 회장의 예언에 대하여 간략하게 이야기해 주도록 한 반원에게 부탁한다.(*우리의 유산*, 106쪽의 마지막 단락 전체 참조)
4. 다음 그림을 구할 수 있으면 공과 중에 그것들을 활용할 준비를 한다. 엘리야가 가족을 영원히 인봉하는 권능을 회복함(복음그림 패킷 417); 윌포드 우드럽(복음그림 패킷 509); 조셉 에프 스미스(복음그림 패킷 511); 고든 비 힝클리(63001; 복음 그림 패킷 520) 우드럽 회장과 스미스 회장과 힝클리 회장의 그림을 개별적으로 활용하는 대신에 후기의 선지자들(62575; 복음 그림 패킷 506)을 활용할 수도 있다.

**공과 전개 제언**

**주의 집중 활동**

적절한 경우, 공과를 시작하기 위해 다음 활동이나 여러분 자신이 준비한 활동을 활용한다.

프레데릭 윌리엄 허스트는 호주에서 금광의 광부로 일하고 있을 때 처음으로 후기 성도 선교사들이 회복된 복음을 가르치는 것을 들었다. 그와 그의 형 찰스는 1854년 1월에 침례를 받았다. 그는 그의 가족 중 아직 침례를 받지 않은 사람들이 개종하도록 도우려고 애를 썼지만 그들은 그와 그가 가르치는 진리를 거부하였다.

프레드릭은 교회에 들어온 지 4년 후에 솔트레이크시티에 정착하였으며 여러 나라에서 선교사로서 충실히 봉사했다. 그는 또한 솔트레이크 성전에서 페인트 공으로 일하기도 했다. 그는 자신의 마지막 일기 중 한 곳에 이렇게 기록했다.

“1893년 3월 1일경 모두 잠든 사이에 나는 혼자 식당에 앉아 있었다. 식탁에 앉아 있을 때 놀랍게도 내 형 알프레드가 걸어 들어와 나의 맞은편 식탁에 앉으면서 미소를 지었다. 나는 그에게 이렇게 말했다.(그는 너무나 자연스러운 모습이었다.) ‘유타에는 언제 왔어요?’

“그는 이렇게 대답했다. ‘나는 막 영의 세계에서 왔어, 네가 보고 있는 것은 내 육신이 아니야. 내 육신은 무덤 속에 누워 있어. 네가 선교 사업을 하고 있었을 때 너는 나에게 복음과 내세와 영의 세계가 지상과 마찬가지로 실재하며 실체가 있다는 것에 대하여 많은 것을 이야기해 주었지. 나는 그 말을 믿을 수가 없었어. 그러나 내가 죽어 그곳에 가서 직접 보니까 네가 진실을 이야기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 나는 물론 모임에도 참석했었지.’ 그는 손을 들어올리면서 훨씬 더 다정하게 이렇게 말했다. ‘나는 온 마음을 다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나는 신앙, 회개, 죄 사유함을 받기 위한 침수로써의 침례를 믿어. 그렇지만 그것이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이고 그 이상은 할 수 없어. 나는 네가 나를 위해 성전에서 대리 의식을 받아 주기를 원하고 있어. … 너를 바라보고들 있어. … 이 위대한 사업에서 우리 식구의 책임자로서 너를 바라보고 있지. 나는 너에게 이 말을 해 주고 싶구나. 여기 교회 안에 친척이 있지만, 그들을 위해서 아무것도 해주지 않기 때문에 울고 슬퍼하는 영들이 많이 있다.’” (*Diary of Frederick William Hurst, Comp.* 새뮤얼 에이치 및 이다 허스트 [1961년], 204쪽)

이 과에서는 엘리야, 윌포드 우드럽 회장, 조셉 에프 스미스 회장, 고든 비 힝클리 회장 등 네 명의 선지자들의 업적에 대해 간단히 공부함으로써 죽은 자의 구원을 토의한다고 설명한다. 이 과의 목적은 죽은 자를 구원해야 할 필요성을 좀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다음 과에서는 성전과 가족 기록 연구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을 논의하게 된다.

## 토론과 적용

기도하는 마음으로 반원들의 필요 사항을 가장 잘 충족시켜 줄 수 있는 공과 자료를 선정한다. 반원들을 격려하여 성구의 원리와 관련된 경험을 이야기해 주도록 한다.

### 1. 엘리야: “이 경륜의 시대의 열쇠들이 너희 손에 맡겨지나니”

다음 성구에 대해 가르치고 토론한다. 교리와 성약 2편; 110:13~16; 138:47~48; 조셉 스미스-역사 1:37~39. 신권 인봉의 권능을 회복한 엘리야의 그림을 보여 준다.

- 천사 모로나이가 조셉 스미스에게 왔을 때 그는 엘리야가 “아버지들에게 한 약속들을 자녀들의 마음에 심을 것”(교리와 성약 2:2; 조셉 스미스-역사 1:39)이라고 말했다. 이 예언에서 아버지란 단어는 우리의 선조를 일컫는 말이다. 우리의 선조들에게 어떤 약속이 주어졌는가?

조셉 필딩 스미스 회장은 이렇게 가르쳤다. “자녀의 마음을 아버지에게로 돌림으로써 후기에 성취되도록 계획된 조상에게 주어진 약속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주님이 에녹과 이사와와 그 밖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이 세상의 모든 나라에 사는 사람들에게 주신 약속으로 죽은 자들이 구속을 받는 때가 이르러는 것이었습니다.”(*구원의 교리*, 브루스 알 맥콩키 편, 137쪽)

십이사도 정원회의 제프리 알 홀랜드 장로는 이렇게 말씀했다. “하나님께서서는 그러한 약속들을 고대의 축복사들 — 아담, 노아, 아브라함, 이삭, 야곱, 등 — 에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의심할 여지없이 우리들은 우리의 직계 조상들, 즉 복음이 회복되기 전에 이 지상에 왔으나 우리가 구원

에 필요한 의식을 대신 받아주기로 한 사람들에게 그러한 약속을 했던 것입니다.(*Christ and the New Covenant* [1997년], 297쪽)

- 1836년 4월 3일에 커틀랜드 성전에서 선지자 엘리야는 선지자 조셉 스미스와 올리버 카우드리에게 나타났다. 조셉과 올리버를 방문한 엘리야의 목적은 무엇이었는가?(교리와 성약 110:13~16 참조; 교리와 성약 2편; 조셉 스미스-역사 1:38~39. 그는 조셉 스미스에게 신권의 인봉 권능을 부여하였다. 이 권능은 영원한 결혼, 부모에게로 인봉, 죽은 자를 위한 성전 의식 사업을 가능하게 하였다.)
- 다음 성구를 반원들과 함께 읽는다. 조셉 스미스-역사 1:37~39; 교리와 성약 138:47~48. 우리가 인봉 권능이 없으면 왜 온 땅이 [주님이] 오실 때 “황폐하게” 되는가?(이 지상에서 생활하는 주요 목적 중 하나는 영원한 가족 관계를 수립하는 것이다. 인봉 권능이 없으면 그렇게 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제프리 알 홀런드 장로는 인봉 권능이 없으면 다음과 같이 될 것이라고 가르쳤다. “영원한 세계에서는 가족 관계가 존재하지 않게 되며 참으로 인간 가족은 ‘뿌리(조상)도 없고 가지(후손)도 없이’ 영원토록 남겨질 것이라고 가르쳤습니다. 인봉되고 결합되어 해의 영광으로 구원받는 하나님의 가족을 이루는 것이 이 세상에 사는 궁극적인 목적이기 때문에 지상에서의 실패는 참으로 저주가 되며 구원의 계획 전체를 ‘완전히 황폐하게’ 되게 할 것입니다.”(*Christ and the New Covenant*, 297~298년)

## 2. 윌포드 우드럽 회장: “누구인가 그들을 구원해 주어야 합니다.”

윌포드 우드럽 회장의 그림을 보여 준다. 우드럽 회장은 죽은 자의 구속 사업과 가족을 영원히 인봉하는 사업에 헌신했다. 그분이 회장으로 봉사하던 기간 중 많은 교회 회원들이 계보 선교사로 봉사했으며 1894년에 제일회장단은 계보 협회의 조직을 지시했다.(*우리의 유산*, 101쪽) 십이사도 정원회의 러셀 엠 넬슨 장로의 말씀에 따르면 “그 역사적인 사건은 가족 역사 탐구와 성전 봉사를 교회의 한 가지 중요한 사업으로 만들었습니다.”(*성도의 빛*, 1995년 1월호, 85쪽)

죽은 자를 위한 성전 사업의 긴박성과 우리가 우리의 부모와 조상들에게 인봉 될 필요성에 대하여 가르쳐 주는 다음 이야기들을 활용한다.

### 죽은 자를 위한 성전 사업의 긴박성

*우리의 유산* 98~99쪽에서 헨리 벨라드 감독과 그의 딸에 대한 이야기를 요약하도록 미리 부탁한 반원에게 말해 주도록 요청한다.

한동안 우드럽 회장이 유타의 세인트 조지의 성전 회장으로 봉사했다고 설명한다. 이 경륜의 시대에 처음으로 죽은 자를 위한 엔다우먼트를 시행한 곳은 바로 그 성전이었다.(*구원의 교리*, 152쪽) 그 곳에서 봉사하는 동안 우드럽 성전 회장은 이미 죽은 많은 ‘저명한 사람들’의 영의 방문을 받았다. 우드럽 성전 회장의 다음 이야기를 읽어 주도록 반원 한 명에게 부탁한다.

“죽은 자들의 영들이 제 주위에 모였습니다. 그러면서 왜 우리가 그들을 구원해 주지 않는지 그 이유를 알고 싶어했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엔다우먼트 하우스를 여러 해 동안 사용해 왔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를 위해서는 아무것도 해주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는 여러분들이 현재 누리고 있는 정부의 기초를 놓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 그 기초에 충실하였으며 하나님께 성실하였습니다.’ 이 사람들은 [미국] 독립 선언문의 서명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틀 낮, 이틀 밤 동안 저와 같이 있었습니다. 저는 곧장 침례반으로 가서 맥 알리스터 형제를 불러 독립 선



언문에 서명한 분들과 50명의 다른 저명한 사람들, 합하여 모두 100명을 위하여 (그 중에는 요한 웨슬레와 콜럼버스와 다른 사람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저에게 대신 침례를 베풀도록 부탁했습니다.”(*The Discourses of Wilford Woodruff*, 지 호머 더햄 [1946년], 160~161쪽)

- 이 두 가지 이야기에서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 있는가?(대답에는 죽은 자들이 우리가 그들을 위하여 의식을 받아 주기를 열심히 바라고 있으므로, 우리는 죽은 자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부지런히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 포함될 수 있다.)

십이사도 정원회에서 봉사하는 동안 윌포드 우드럽 장로는 이렇게 가르쳤다. “지난 1,800년 동안 살다가 죽었던 사람들은 그들이 영의 세계에 들어갈 때까지 영감 받은 사람[선지자]의 목소리를 들어 본 일이 없고 복음에 대한 설교를 들어 본 일이 없었습니다. 누구든지 그들을 구원해 주어야 합니다. 그들이 영으로서 스스로 받을 수 없는 것을 우리는 그들을 위해 육신을 가지고 그러한 의식을 받아 주어야 합니다.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그것을 행할 수 있는 성전을 가져야 합니다.”

(*Journal of Discourses*, 19:228~229)

*우리가 우리의 부모와 조상들에게 인봉되어야 할 필요성*

지명 받은 반원에게 우리의 가족 역사를 탐구하는 것과 자녀들을 그들의 조상들에게 인봉하는 것에 대하여 우드럽 회장이 받은 계시에 관하여 이야기하게 한다.(*우리의 유산*, 101쪽)

- 이 계시가 가족에 대하여 무엇을 가르치고 있는가? 이 계시가 자녀의 마음을 조상에게 돌이키게 한다는 예언을 성취시키는 데 어떻게 도움이 되는가?

### 3. 조셉 에프 스미스 회장: “내 이해의 눈이 열리고”

우드럽 회장의 다음 이야기를 읽거나 자연스러운 말로 이야기해 준다.

“조셉 스미스 회장을 계승한 [브리검] 영 회장은 이스라엘의 산들의 다른 성전들뿐만 아니라 [솔트레이크 성전의] 기초를 놓으셨습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우리가 이들 죽은 자를 위한 구원의 원리를 시행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분은 하나님께서 그의 손으로 하도록 요구하신 모든 것을 완수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이일에 속하는 모든 계시를 다 받지 않는 것입니다. 또한 [존] 테일러 회장님이나 윌포드 우드럽인 저도 모두를 다 받지 않았습니다.”(*The Discourses of Wilford Woodruff*, 153~154쪽)

조셉 에프 스미스 회장의 사진을 보여 준다. 교회의 제6대 회장인 스미스 회장은 죽은 자들을 위한 구원의 사업이 계속 앞으로 전진하도록 돕는 계시를 받았다. 그가 사망하기 불과 일주일 전인 1918년 10월 4일에 그는 연차 대회에서 이렇게 말씀했다.

“지난 5개월 동안 저는 대단히 심한 병에 걸려 앓아 누웠습니다. ... 그러나 저는 지난 5개월 동안 홀로 지내지는 않았습니다. 저는 기도와 간구와 신앙과 결의의 영 가운데 살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주님의 영과 끊임없이 교통해 왔습니다.”(Conference Report, 1918년 10월, 2쪽)

스미스 회장은 이 말씀을 하기 바로 전날 죽은 자들의 구속에 대한 성도들의 이해를 넓혀 줄 계시를 받았던 것이다. 이 계시는 이제 교리와 성약 138편이 되었다. 이 계시는 구주께서 그분의 육신이 무덤에 있는 동안에 영의 세계를 방문했던 기록이다.

- 죽은 자들을 위한 구속에 대한 시현을 받게 되었을 때 스미스 회장은 무엇을 하고 있었는가?(교리와 성약 138:1~11 참조. 그는 경전과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에 대하여 생각하고 있었다. 그가 생각에 잠겨 있을 때 그는 베드로전서 3장과 4장을 읽도록 인도 받았는데, 그곳에는 육신을

떠난 후 영의 세계에서 예수께서 성역을 베푸신 것에 대한 기록이 포함되어 있다.)

- 반원들과 함께 교리와 성약 138편 12~19절을 읽는다. 구주께서는 영의 세계에 있는 누구를 방문하셨는가?(답에는 아래에 열거한 사항이 포함될 수 있다. 여러분은 그것을 칠판에 요약해도 좋다.)

구주는 다음과 같은 영들에게 가셨다.

ㄱ. “필멸의 상태로 사는 동안 예수에 대한 간증에 충실하였고”(교리와 성약 138:12)

ㄴ. “하나님 아들의 크신 희생의 본을 따라 희생을 드린”(교리와 성약 138:13)

ㄷ. “구속주의 이름으로 환난을 겪은”(교리와 성약 138:13)

ㄹ. “아버지 하나님과 그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하여 영화로운 부활의 소망을 굳게 품고 필멸의 생을 떠난”(교리와 성약 138:14)

ㅁ. “그들의 구원의 날이 가까웠으므로 기쁨과 즐거움이 충만하여 함께 기뻐하고”(교리와 성약 138:15)

- 구주께서는 누구에게 가지지 않았는가? (교리와 성약 138:20~21 참조) 구주께서는 복음이 “진리를 알지 못하고 자기들의 죄 가운데서 죽은 자”에게 전파되도록 무엇을 하셨는가?(교리와 성약 138:27~37 참조. 그분은 의로운 영들을 조직하시어 복음을 아직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들에게 가르치도록 권한을 주셨다.) 오늘날 영의 세계에서 누가 복음을 가르치는가?(교리와 성약 138:57 참조)

- 반원들과 함께 교리와 성약 138편 22~24, 57~59절을 읽는다. 예수에 대한 간증에 충신했던 영의 세계에 있는 사람들과 그렇지 않았던 사람들간의 차이를 찾아보라고 반원들에게 요청한다. 이들 성구에서 영의 세계에서 복음을 가르치는 것의 중요성에 대하여 무엇을 가르치고 있는가? 이러한 성구가 죽은 자들에 대한 신권 의식을 대신 받아 주어야 할 여러분의 책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게 하는가?

지명 받은 반원이 죽은 자들을 위한 의식을 대신해 주면서 겪었던 경험과 느낌에 대하여 간단히 이야기해 주도록 부탁한다.(“준비 사항” 3, c 참조)

#### 4. 고든 비 힝클리 회장: “우리는 성도들 가까이에 성전을 많이 지을 결심을 했습니다.”

미리 지명 받은 반원에게 이 세상에 “많은 성전이 들어서게 될”(우리의 유산, 106쪽) 날이 올 것이란 조셉 에프 스미스 회장의 예언에 대하여 이야기해 주도록 부탁한다.

고든 비 힝클리 회장의 사진을 보여 준다. 힝클리 회장은 성전 사업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넓혀 준 또 다른 선지자라는 것을 설명한다. 그가 1995년에 교회의 회장이 되었을 때 운영 중인 성전은 47개였다. 약 2년 반 후에 그는 다음과 같은 발표를 했다.

“교회에는 외진데다 회원 수도 적고 가까운 시일 내에 별로 많아지지도 않을 것 같은 지역들이 많습니다. 그렇다고 이러한 곳에 사는 분들이 영원히 성전 의식의 축복을 받지 못해야 하겠습니까? 몇 개월 전 그런 지역을 방문하는 동안 우리는 이 문제에 관하여 기도하는 마음으로 깊이 생각했습니다. 밝고 명쾌한 대답을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일부 지역에 소규모 성전을 건축할 것입니다. 하지만 의식 집행에 필요한 시설은 모두 갖추게 될 것입니다. 집회소 표준보다 훨씬 높은 성전 표준에 따라 건축할 것입니다. 죽은 자를 위한 침례, 엔다우먼트, 인봉 및 산 자와 죽은 자를 위해 주님의 집에서 행해야 하는 다른 모든 의

식들을 이 성전 안에서 집행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성도들 가까이에 성전을 많이 지어서 그분들이 성전 예배를 통해 얻을 수 있는 바로 그 값진 축복들을 받을 수 있는 모든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성전에 관한 생각, 개종자의 지속적인 활동, 선교 사업”, *성도의 벗*, 1998년 1월호, 49~50쪽)

1998년 4월에 힝클리 회장은 금세기가 끝날 무렵에는 교회가 운영하고 있는 성전이 100개가 되도록 하겠다는 목표를 발표했다.(“복음의 “최고의 축복”을 가져다줄 새로운 성전들”, *성도의 벗*, 1998년 7월호, 88쪽)

- 성전 수의 증가가 여러분에게 어떻게 영향을 주었는가?(힝클리 회장이 성전 건축을 촉진하기 위한 계시를 받지 않았다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성전 축복을 누리지 못하게 될 것인가를 지적할 수 있다.) 가속된 성전 건축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죽은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 결론

역사상 오늘날 우리가 하는 것만큼 것처럼 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많은 일을 할 수 있었던 기회를 갖게 된 자들은 없었다고 강조한다. 다음 과에서는 성전 사업과 가족 역사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에 대하여 토론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한다. 영의 인도를 받으면 성전 사업과 가족 역사 사업의 중요성에 대하여 간증한다.

## 추가로 가르칠 개념

여러분은 제언된 공과 개요를 보충하기 위하여 다음 개념을 활용할 수 있다.

### 성전 사업에 청소년의 참여

여러분이 청소년들을 가르치고 있다면 죽은 자들을 위한 침례를 대신 받아 줌으로써 그들이 성전 사업에 참여하도록 권고한다. 성인 반을 가르치고 있다면 부모들에게 그들의 자녀들이 성전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을 권한다. 칠십인 정원회에서 봉사했던 제이 벨라드 워시번 장로의 다음 말씀을 이야기해 줄 것을 고려해 본다.

“스레이크 대회를 마친 후 저는 십대 아이들을 둔 어떤 가족과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 아이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장차 너희들의 부모와 함께 성전에 갈 수 있도록 너희들은 의롭게 살아야 한다.’ 그랬더니 16세 난 그 맥의 딸이 대답했습니다. ‘저희들은 거의 매주 부모님들과 함께 성전에 다니고 있어요. 저희들은 저희 가족 철에 있는 분들을 위하여 가서 침례를 받고 있지요.’ 저는 가족들이 함께 성전에 간다는 것은 얼마나 멋진 일인가 하고 생각했습니다.”(*성도의 벗*, 1995년 7월호, 11쪽)

- 그밖에 어떤 방법으로 성전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을 촉진시키는 데 청소년들이 도울 수 있는가?(대답에는 그들이 가족 역사 탐구를 할 수 있고 부모들이 성전에 참여하려는 노력을 지원할 수 있다는 것이 포함될 수 있다.)

**목적**

반원들이 성전 사업과 가족 역사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을 알도록 도와주며 그들이 지금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 기도하는 마음으로 결정하도록 격려한다.

**준비 사항**

1. 반원 학습 지도서(35686 320)에 나오는 본 공과에 대한 자료를 살펴본다. 공과 시간에 자료를 참조하기 위한 방법을 계획한다.
2. 일주일 전에 두 명의 반원에게 다가오는 한 주일 동안에 어떠한 방법으로든 성전 사업과 가족 역사 사업에 참여하도록 부탁한다. 이 일을 하기 위한 많은 방법이 있음을 그들이 알도록 도와준다. 예를 들면, 가족 기록서를 완성하거나, 조상의 이름을 성전 사업을 위하여 제출하며, 성전에 참석하고, 일지 및 개인 역사를 기록하며, 자녀들에게 선조에 대하여 가르칠 수도 있다. 공과의 일부로서 그들의 경험에 대하여 이야기해 주도록 준비하라고 부탁할 수도 있다.
3. 성전 사업과 가족 역사 사업을 위하여 교회에서 제공하는 자료 몇 부를 구하여 이 공과의 제3부에서 그것들을 보여 줄 수 있다.(235~236쪽 참조) 여러분의 와드나 지부에 가족 역사 담당자가 있으면 그분에게 이들 자료를 간단히 설명해 주도록 부탁할 수도 있다.

**공과 전개 제언**

**주의 집중 활동**

적절한 경우, 공과를 시작하기 위해 다음 활동이나 여러분 자신이 준비한 활동을 활용한다.

칠판의 중앙에 여러분의 이름을 쓴다. 칠판의 다른 부분에 여러분의 부모와 조상의 이름을 일부 기록한다. 여러분이 부모라면 자녀의 이름을 쓸 수 있다. 여러분은 반원들에게 여러분이 기록한 이름들이 서로 어떤 관계가 있는지 대략 이야기해 준다.

이들 중 일부가 일시적으로 서로 떨어지게 된 이유를 설명해 준다.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은 사망으로 인하여 떨어져 있게 되었고 어떤 사람은 다른 곳에 살기 때문에 떨어져 있게 되었다.

가족들이 일시적으로 떨어져 있다 해도 영원히 결합될 수 있다는 것을 설명한다. 그들의 마음을 서로에게 돌릴 수 있다.(교리와 성약 110:14~15)

이 공과에서는 우리가 성전 사업과 가족 역사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 다루고 있다고 설명한다. 우리가 이들 사업에 참여하면, 우리는 영원한 가족의 일원이 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좀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된다고 설명한다.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조상에게 돌리고, 그들의 마음을 우리에게 돌리면 선조들의 마음과 자녀들의 마음이 서로를 향하게 된다.

**토론과 적용**

기도하는 마음으로 반원들의 필요 사항을 가장 잘 충족시켜 줄 수 있는 공과 자료를 선정한다.

이 공과가 성전 사업과 가족 역사 사업에 대한 두 공과 중 두 번째 공과라는 것을 반원들에게 상기 시킨다. 제39과는 신권 의식을 받지 않고 돌아가신 분들을 대신하여 성전에 참석하여 신권 의식을

받아줄 필요성을 다루고 있으며. 이 공과는 우리가 성전 사업과 가족 역사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몇 가지 방법을 다루고 있다.

## 1. 엘리야의 영이 사람들에게 그들의 마음을 선조들에게 돌리게 한다.

후기 성도들은 엘리야의 영에 대하여 자주 이야기한다고 설명한다. 이 구절은 사람들이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의 마음을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려는]”(교리와 성약 110:15) 소망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우리는 그것을 엘리야의 영이라고 부른다. 왜냐하면 엘리야가 신권의 인봉하는 열쇠를 조셉 스미스에게 회복해 주었기 때문이다.(교리와 성약 110:13~16 참조) 이 권능을 통해서 가족을 영원히 묶어 주는 인봉 의식을 집행할 수 있는 것이다.

- 엘리야의 영이 교회 회원들에게 무엇을 하도록 영향을 미치는가?(대답에는, 그 영이 우리 자신을 위한 성전 의식을 받도록 우리를 자극한다는 것이 포함될 수 있다. 또한 다음 인용문을 참조한다.) 여러분이 엘리야의 영의 영향을 느꼈을 때 어떤 경험을 했는가?

고든 비 힝클리 회장은 이렇게 강조했다. “우리의 방대한 가족 역사 사업은 전부 성전 사업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다른 목적이 있을 수 없습니다. 성전 의식은 교회가 제공하는 최고의 축복입니다.” (“복음의 “최고의 축복”을 가져다줄 새로운 성전들”, *리아호나*, 1999년 7월호, 88쪽)

- 엘리야의 영이 전세계에 사는 사람들에게 어떤 일을 하도록 인도하는가?(대답에는 계보 사업이 전세계적으로 인기 있는 취미가 되었고, 기술적인 발전으로 계보 사업을 더 쉽고 더 용이하게 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 포함될 수 있다.)

## 2. 교회 회원 각자는 성전 사업과 가족 역사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미리 지명 받은 반원에게 지난 주에 성전 사업과 가족 역사 사업에 관련하여 그들이 경험한 것에 대하여 간략하게 이야기해 주도록 부탁한다.(“준비 사항” 2 참조)

이들 반원들이 각자의 경험을 발표한 후 십이사도 정원회의 보이드 케이 패커 회장의 다음 말씀을 읽는다.

“성전 사업과 그 사업을 지원하는 계보 연구보다 더 강력하게 이 교회를 보호해 주는 사업은 없습니다. 이보다 더 영적으로 순화시켜 주는 사업도 없습니다. 어떠한 사업도 이 사업보다 더 큰 권능을 우리에게 주지 못합니다.”(“The Holy Temple”, *Ensign*, 1995년 2월호, 36쪽)

- 어떻게 성전 사업과 가족 역사 사업이 여러분에게 더 크게 영적으로 순화된 느낌과 힘을 느끼도록 도와주었는가?

우리 모두는 일생 동안 살아가면서 어떤 방식으로든지 성전 사업과 가족 역사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십이사도 정원회의 델린 에이치 옥스 장로는 다음과 같이 말씀했다. “죽은 자들을 구원하는 사업에서 해야 할 일이 많이 있습니다. ... 그래서 모든 회원들은 특정한 시간에 그 사람들의 사정에 맞는 방법을 기도하는 마음으로 선택하여 참여해야 합니다. ... 우리의 일은 모든 사람이 모든 것을 다 하도록 강요하는 것이 아니고 모든 사람이 무엇인가를 하도록 격려하는 것입니다.”(“Family History: ‘In Wisdom and Order’”, *Ensign*, 1989년 6월호, 6쪽)

- 성전 사업과 가족 역사 사업에 참여하기 위하여 여러분이 한 일의 일부는 무엇인가?(반원들의 반응을 칠판에 적는다. 이들 답에 대하여 토론하거나 추가하기 위하여 다음 자료를 활용한다. 성인 반을 가르치고 있다면 인생의 여러 단계에서 그들이 어떻게 성전 사업과 가족 역사 사업에 참여했는지 질문해 볼 수도 있다.)

유효한 성전 추천서를 갖고 성전에도 정기적으로 참석한다.

성전 사업과 가족 역사 사업에 참여하기 위하여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가지 일은 현재 유효한 성전 추천서를 갖고 사정이 허락하는 한 자주 성전에 참석하는 것이다. 고든 비 힝클리 회장은 이렇게 말씀했다.

“저는 제가 가진 모든 설득력을 동원하여, 세계 방방 곡곡에 사는 우리 백성들에게 성전 추천서를 받기에 합당하게 생활하고, 추천서를 받으며, 그것을 귀중한 재산으로 여기고, 주님의 집에 가기 위해 더욱 노력을 하며, 그 안에서 받을 수 있는 영과 축복을 받으실 것을 강력하게 권고합니다. 저는 진지한 마음과 신앙을 가지고 성전에 오는 모든 사람들이 주님의 집을 떠날 때에는 더 나은 사람이 되어 나가는 것에 대하여 만족을 느낍니다. 우리의 모든 생활은 지속적으로 향상될 필요가 있습니다. 때때로 세상의 소음과 요란스러움을 떠나서 하나님의 거룩한 집에 들어가 성스럽고 평화로운 환경 속에서 주님의 영을 느낄 필요가 있습니다.”(“선교 사업과 성전과 청지기 직분에 관하여”, 성도의 벗, 1996년 1월호, 57쪽)

비록 여건이 우리로 하여금 정기적인 성전 참석을 허락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유효한 성전 추천서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점을 지적한다. 하워드 더블류 헌터 회장은 이렇게 말씀했다. “모든 성인 회원들이 추천서를 받기에 합당하게 되고 또 소지하고 있다면 ... 주님께서 기뻐하실 것입니다. 성전 추천서를 받기에 합당하게 되기 위하여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이 바로 우리가 개인이나 가족으로서 행복하도록 보장해 주는 것들입니다.”(“보배로운 지극히 큰 약속”, 성도의 벗, 1995년 1월호, 8쪽)

- 성전 추천서를 가지고 있는 것과 성전에 참석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축복을 받을 수 있는가?
- 성전의 중요성에 대하여 부모들은 어떻게 가르칠 수 있는가?(대답에는 부모들이 정기적으로 성전에 참석하는 것이나 또는 참석하기 위하여 열심히 노력하는 것, 성전에 대하여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것과 성전을 통해서 우리가 받는 축복을 간증하는 것, 또한 죽은 자를 위한 대리 침례를 받기 위하여 12세 이상 되는 자녀들을 성전으로 데려가는 것이 포함될 수 있다.)

죽은 친척들을 위하여 의식을 받아 주기 위한 준비를 한다.

우리가 성전 사업과 가족 역사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은 죽은 친척들을 위하여 의식을 받아 주기 위한 준비를 하는 것이다. 우리 가족 중 다른 사람들이 가족 역사에 대하여 조사를 했을 지라도 우리는 종종 아직도 대리 성전 의식을 받지 않은 죽은 친척들을 찾을 수 있다.

우리는 우리의 죽은 친척들을 파악함으로써 이 과정을 시작한다. 우리는 우리가 기억하는 친척들의 명단을 작성하고 가족 기록을 검토하고, 부모와 조부모와 다른 가족들에게 다른 조상들에 대하여 이야기해 주도록 요청할 수 있다. 우리 가정에서 그리고 가족 역사 센터에서 이러한 일을 하는 데 우리를 도울 수 있도록 교회에서 만든 컴퓨터 프로그램을 활용할 수 있다. 조상들을 찾으려 노력할 때 함께 임하는 주님의 영의 강력한 영향을 강조한다. 우리가 신앙을 행사할 때 우리는 예기치 않은 방법과 장소에서 이름들과 자료를 얻을 수 있다.

우리가 조상들에 대하여 알게 되면 우리가 얻게 된 자료를 가계도와 가족 기록서와 같은 가족 역사 기록 양식에 기록해야 한다. 만일 조상이 죽기 전에 어떤 신권 의식이라도 받은 것이 있으면 그 의식을 언제 받았는지 기록해 두면 도움이 된다. 그렇게 하면 어떤 의식을 아직도 더 받아야 하는지 알 수 있다.

와드나 지부나 스테이크의 가족 역사 상담자는 우리의 선조를 위하여 의식이 집행되기 전에 우리가 성전에서 필요로 하게 될 정보들을 준비하는 것을 도울 수 있다. 교회 가족 역사 출판물과 지역 신 권 지도자와 성전에서도 그 지침들을 얻을 수 있다.

십이사도 정원회의 리차드 지 스코트 장로는 다음과 같이 권고했다. “죽은 조상들을 위해 ... 인봉과 그 밖의 의식들을 받도록 하십시오. 저는 사람을 위하여 대리 의식을 받을 때 그 사람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해 보려고 노력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 사람을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그가 그 의식을 받아들여서 그것으로부터 유익을 얻도록 기도합니다. 성령이 여러분의 이해를 높여 주고 여러분의 생활을 풍성하게 해 주실 것을 마음속으로 기도하면서 그렇게 해 보십시오. 그와 같은 합당한 기도는 응답될 것입니다.”(“성전 축복을 받음”, *리아호나*, 1999년 7월호, 30쪽)

#### 조상들의 생애에 대하여 공부한다

- 여러분의 조상의 생애에 대하여 여러분은 어떻게 알게 되었는가? 여러분이 조상의 생애에 대하여 아는 것이 여러분에게 어떻게 도움이 되었는가?
- 부모들은 그들의 자녀들에게 조상에 대하여 무엇을 가르칠 수 있는가?

칠십인 정원회의 테니스 비 노인슈안더 장로는 그들의 가족 역사에 관하여 그의 자녀와 손자녀들을 가르치는 자신의 책임에 대하여 이렇게 이야기했다.

“제 자녀들 중 조부모에 대한 기억을 가지고 있는 아이는 아무도 없습니다. 제 자녀들이나 손자들이 아직도 제 기억 속에 남아 있는 그분들을 알게 하기 위하여서는 제가 그들 사이에 다리를 놓아야 합니다. 저만이 제 앞뒤에 있는 세대를 연결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비록 개인적으로 서로 알지는 못했지만, 그들의 마음이 사랑과 존경심으로 하나가 되도록 연결시켜 주는 것이 저의 책임입니다. 제가 가족 역사를 보존하는 데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제 손자들은 그것을 알 길이 전혀 없을 것입니다. 무슨 이유든지 제가 기록하지 않은 것은 제가 죽으면 없어지고 맙니다. 제가 제 후손들에게 전해 주지 않은 것들을 그들은 결코 가질 수 없을 것입니다. 가족이 영원히 간직하고 싶은 추억들을 모으고 이야기해 주는 일은 개인의 책임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전가할 수 없는 일입니다.”(“다리와 영원한 유품”, *리아호나*, 1999년 7월호, 98~99쪽)

#### 일지를 기록하거나 개인 역사나 가족 역사를 작성한다.

- 일지를 기록하거나 개인 역사를 작성하는 것이 어떻게 우리를 가족 역사 기록에 참여하게 하는가? 일지를 쓰거나 역사를 작성하는 것으로부터 오는 축복은 어떤 것이 있는가?(반원들이 어떻게 그들이 개인적으로 축복을 받게 되었는지 또한 그들의 자손이 어떻게 축복을 받게 될 것인지 토의하도록 제언한다.)
- 가족 역사를 작성하는 것이 어떻게 우리의 마음을 가족들에게 돌리게 할 수 있는가?

### 3. 교회는 우리가 성전 사업과 가족 역사 사업에 참여하도록 돕기 위해 많은 자원을 제공하고 있다.

교회는 성전 사업과 가족 역사 사업에 우리가 참여할 수 있도록 많은 자원을 제공한다고 설명한다.

ㄱ. 성전 및 가족 역사 사업에 관한 회원 지도서(34697 320)

ㄴ. 가족 역사 양식(가계도와 가족 기록서 등)

ㄷ. 컴퓨터 프로그램

ㄹ. 인터넷에 관한 자료

ㅁ. 가족 역사 센터(가장 가까운 가족 역사 센터가 어디에 있는지 알아볼 수도 있다.)

성전 및 가족 역사 사업에 관한 회원 지도서(34697 320) 한 권과 가족 역사 양식을 보여 주고 회원들이 그것을 어떻게 구할 수 있는지 설명해 준다. 여러분이 이들 자원에 대하여 반원들에게 설명해 주도록 와드나 지부의 가족 역사 상담자에게 미리 요청해 두었으면 지금 그렇게 해 주도록 부탁한다. (“준비 사항” 3 참조) 반원들이 이들 자원을 이용 할 수 없는 경우라도 성전 사업과 가족 역사 사업에 참여할 수 있음을 반원들이 잘 알 수 있도록 돕는다.

---

결론

성전 사업과 가족 역사 사업에 참여하는 것의 중요성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을 이야기한다. 이제 반원들이 이 사업에 참여할 방법을 기도하는 마음으로 결정하도록 격려한다. 영의 지시에 따라 공과 중에 토의한 진리에 대해 간증한다.

---

**추가로 가르칠 개념**

여러분은 제언된 공과 개요를 보충하기 위하여 다음 개념을 활용할 수 있다.

### **반원들을 위한 활동**

현재 사용하고 있는 가족 역사 양식, 즉 가계도나 가족 기록서를 반원 각자에게 하나씩 돌아가도록 충분히 확보한다. 이런 양식들은 신권 지도자나 가족 역사 상담자를 통해 구할 수 있다.

공과의 일부로서 반원들에게 양식 한 장씩을 나누어 준다. 시간이 있으면 공과 중 반원들에게 필기 도구를 나누어 주고 양식을 작성해 보게 한다. 시간이 없으면 각자 집에서 양식을 작성해 보도록 격려한다.



**목적** 반원들이 복음을 온 세상에 전하는 일에 참여하며 새로운 개종자들을 강화시키도록 격려한다.

- 준비 사항**
1. 기도하는 마음으로 다음의 성구와 다른 자료들을 공부한다.
    - ㄱ. 교리와 성약 1:4~5, 30; 65편; 88:81; 109:72~74
    - ㄴ. 우리의 유산, 116~117, 124~125 쪽
  2. 반원 학습 지도서(35686 320)에서 본 공과에 대한 자료를 살펴본다. 공과 시간에 자료를 참조할 수 있는 방법을 계획한다.
  3. 반원들에게 우리의 유산에 나오는 다음 자료들을 요약할 준비를 하도록 부탁한다.
    - ㄱ. 데이비드 오 맥케이 회장의 관리 하에서의 선교 사업 (116~117쪽)
    - ㄴ. 스펜서 더블류 김볼 회장이 교회의 지역 대표들에게 한 말씀(125쪽의 첫 번째 두 단락)
  4. 개종자인 한두 명의 반원에게 교회의 새로운 회원으로서 그들이 느꼈던 점을 간단히 발표해 주도록 부탁할 수 있다. 그들에게 다른 회원들이 어떻게 그들을 도와주었던가를 이야기하도록 부탁하고 다른 회원들이 어떻게 했으면 좀 더 도움이 되었을 것인가에 대해서도 이야기한다.

## 공과 전개 제언

주의 집중 활동 적절한 경우, 공과를 시작하기 위하여 다음 활동이나 여러분이 준비한 활동을 한다.

공과 시작 전에 칠판에 다음과 같이 적는다.

|         |         |      |
|---------|---------|------|
| 영국      | 독일      | 중국   |
| 타히티     | 통가      | 사모아  |
| 오스트레일리아 | 터키      | 뉴질랜드 |
| 아이슬란드   | 멕시코     | 남미   |
| 이탈리아    | 일본      | 프랑스  |
| 스위스     | 체코슬로바키아 | 하와이  |

- 교회가 조직된 후 20 년 내에 선교사들이 방문했던 곳은 위 지역 중 어떤 곳이라고 생각되는가?

스펜서 더블류 김볼 회장은 이렇게 말씀했다. “교회 역사를 읽을 때면 저는 교회의 초기 형제들이 세계로 나갈 때 보여 준 용기에 대하여 놀랍니다. 그들은 나아갈 길을 찾았던 것같이 보입니다. ... 교회가 설립된 지 얼마 안 된 1837년에 십이사도들은 사탄과 싸우면서 영국에서 활동했습니다. 1851년에는 오스트레일리아에 갔고 1853년에는 아이슬란드에, 1850년에는 이탈리아와 스위스,

독일, 통가, 터키, 멕시코, 일본, 체코슬로바키아, 중국, 사모아, 뉴질랜드, 남미, 프랑스와 하와이로 갔습니다. 교회 지도자들이 로키 산맥을 여행하면서 땅을 갈며 집을 짓기 시작하던 초기에 이와 같은 선교 사업이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그런 일을 하게 한 것은 신앙이었습니다. 굉장한 신앙이었습니다.” (“온 세상이 개종될 때”, 성도의 벗, 1984년 9월호, 2~3쪽)

복음 회복의 초기부터 교회 지도자들은 복음을 온 세상에 전하려는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강조한다. 김볼 회장은 우리는 계속해서 그렇게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이렇게 표현했다. “아무튼 … 저는 우리가 가진 능력에 따라 노력한다면 주님께서 문을 열 길을 찾아 주실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이 제 신앙입니다.” (“온 세상이 개종될 때”, 성도의 벗, 1984년 9월호, 2~3쪽)

이 공과에서는 복음이 전 세상에 전파되는 몇 가지 방법을 토의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한다.

## 토론과 적용

기도하는 마음으로 회원들의 필요 사항을 가장 잘 충족시켜 줄 수 있는 공과 자료를 선정한다. 회원들을 격려하여 성구의 원리와 관련된 경험을 이야기해 주도록 한다.

### 1. 교회가 희미한 데서 나오다.

금년도에 공부할 과정은 어떻게 교회가 별로 알려지지 않았던 소수의 사람들이 모인 집단으로 시작하였던가를 보여 준다. 이제 교회는 전세계의 거의 모든 나라에 회원이 있을 만큼 성장했다. 고난과 박해를 받고 가난했던 교회 초기의 기간 동안에는 그 회원 수와 존재성이 이처럼 극적으로 증가해 지금처럼 되리라는 것을 이해하기란 어려웠을 것이다. 그러나 주님은 선지자 조셉 스미스를 통하여 교회의 놀라운 운명을 밝히셨다.

회원들에게 다음 구절을 읽고 각 구절에서 교회의 운명에 대해 무엇을 배울 수 있는지 토론하게 한다.

- ㄱ. 교리와 성약 1:30.(하나님이 그분의 교회를 인도하도록 부르신 분들은 교회를 희미한 데서 이끌어 낼 권능을 갖게 될 것이다.)
- ㄴ. 교리와 성약 65:1~6.(복음은 온 지상을 다 채울 때까지 퍼져 나갈 것이다.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는 구주의 재림을 맞이할 준비가 될 것이다.)
- ㄷ. 교리와 성약 109:72~74.(교회는 온 땅을 채울 것이다. 교회는 광야로부터 나와서 ‘해와 같이 맑게 비출’ 것이다.)

선지자 조셉 스미스는 이렇게 선언했다. “어떠한 신성하지 못한 손도 이 사업의 전진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박해가 더해 가고, 폭도들이 규합하며, 군대가 소집되고, 중상 모략이 심해도 하나님의 진리는 모든 대륙을 꿰뚫고, 모든 지방을 찾아가서, 모든 나라를 휩쓸고 모든 귀에 전해지고, 하나님의 목적이 성취될 때까지 대담하고 고결하게 독자적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그러면 위대하신 여호와께서 그 일이 다 이루어졌다고 말씀하실 것입니다.”(교회 정사, 4:540)

- 희미한 데서 이끌어 내어진 교회는 어떤 방식으로 전세계 구석구석까지 알려지게 될 것인가?

### 2. 후기의 선지자들이 우리에게 복음을 온 세상에 전하라고 목표를 주었다.

각 회원이 선교 사업을 위하여 노력하는 것이 교회가 온 세상에서 전진할 수 있는 주요한 방법 중의 하나라고 설명한다. 후기의 선지자들은 우리에게 회원 선교사와 전임 선교사로서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더 큰 노력을 하라는 목표를 주었다.

데이비드 오 맥케이 회장은 “모든 회원은 선교사입니다.”라는 말로 잘 알려져 있다. 미리 지명 받은 회원에게 맥케이 회장의 관리 하에 실시되었던 선교 사업에 관하여 이야기해 주도록 부탁한다.(*우리의 유산*, 116~117 쪽)

후에 스펜서 더블류 김볼 회장은 교회 회원들에게 선교 사업을 위한 봉사를 할 때 걸음의 폭을 넓히라고 권유했다. 그분은 복음을 가르칠 수 있도록 각국의 문이 열리기를 기도하며 준비된 선교사의 수를 증가시켜 각국의 열린 문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기도해 달라고 교회 회원들에게 권유했다. 미리 지명한 반원에게 김볼 회장이 지역 대표들에게 한 말씀(*우리의 유산*, 125쪽의 첫 번째 두 단락)을 이야기해 주도록 부탁한다. 선교 사업이 온 세상에 퍼져 들어갈 방법에 대한 김볼 회장의 꿈이 이제 실현되었다고 설명한다.

고든 비 힝클리 회장은 복음이 전세계를 채울 것이란 이 꿈을 실현시킬 책임을 우리 각자가 맡고 있다고 가르쳤다.

“이제 미래는 어떨까요? 앞에 놓인 그 미래는 어떨까요? 실제로 전도 유망합니다. 사람들은 우리의 인품과 우리가 믿는 가치관을 알기 시작했습니다. ...”

“우리가 목표를 잃지 않고, 남을 비방하지 않으며, 우리가 참되다고 알고 있는 위대한 원리들에 따라 생활하면서 앞으로 나아간다면, 이 대업은 세상을 채우기 위하여 위엄 있게 또 힘 있게 앞으로 계속 전진할 것입니다. 현재 복음을 전파할 수 없도록 닫혀 있는 문들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 전능하신 분께서는, 필요하시다면, 만국을 흔들어 겸손하게 만들어 살아 계신 하나님의 종들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하실 것입니다. 필요한 것은 무엇이든지 이루어질 것입니다.”

“자신을 후기 성도라고 하는 모든 사람들의 신앙이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큰 과제와 이 사업에 대한 성공의 열쇠가 될 것입니다.”(*미래를 바라보십시오*, 성도의 벗, 1998년 1월호, 68쪽)

- 복음이 온 세상을 채울 것이라는 이 예언은 어떻게 성취되고 있는가?

### 3. “모든 회원은 선교사입니다.”

- 교리와 성약 1편 4~5절과 88편 81절을 반원들과 함께 읽는다. 이들 성구는 복음을 전해야 하는 우리의 책임에 대해 무엇을 가르치고 있는가?
- 선교 사업을 위해 우리 각자는 무엇을 할 수 있는가?(반원들의 대답을 토의하거나 보충할 때 다음 사항을 활용할 수 있다. 여러분이 토의하면서 칠판에 제목을 기록한다.)

#### 전임 선교사로 봉사하기 위해 준비함

- 전임 선교사로 봉사하기 위해 우리는 어떻게 준비할 수 있는가? 우리가 부름을 받기 전에 우리 자신을 준비하는 것은 왜 중요한가?

스펜서 더블류 김볼 회장은 이렇게 말씀했다. “제가 더 많은 선교사를 요구할 때에는 간증이 없거나 합당하지 않은 선교사를 요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요구하는 것은 전세계에 있는 모든 지부와 모든 와드에서 좀 더 일찍 선교사 훈련을 시작해 달라는 것입니다. ... 젊은 사람들은 선교사로 나가는 것이 큰 특권이라는 것을 알아야 하며,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건강하고, 또한 나 주는 죄를 털끝만큼도 묵과할 수 없다[교리와 성약 1:31]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너희는 온천하에 다니며*, 성도의 벗, 1974년 11월호, 2쪽)

- 부모들과 다른 성인들은 어떻게 젊은이들이 전임 선교사가 되기 위한 준비를 하도록 도울 수 있는가? (대답에는 그들이 적절한 시기에 선교사 부름을 받기에 합당하게 되도록 가르치며, 그들에게 선교 사업의 경험을 들려주며, 선교 사업의 기쁨과 축복을 가르치며, 자신이나 선조들의 개종 이야기를 해주며, 그들을 위한 선교사 기금의 저축을 시작하며, 열심히 일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것 등이 포함될 수 있다.)
- 그들이 전임 선교사로 봉사하기 위한 준비를 할 때 젊은이들이 봉착하게 되는 문제는 무엇인가? 그들이 그 문제들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가? 나이 많은 회원들이 전임 선교사로 봉사하기 위하여 준비할 때 봉착하게 되는 문제들은 무엇인가? 그들은 그 문제들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가?

#### 전임 선교사로 봉사함

- 전임 선교사로 봉사해야 할 사람은 누구인가?

모든 합당하고 강건한 19세에서 25세 사이의 모든 형제들은 전임 선교사로 봉사해야 한다. 전임 선교사로 봉사하는 것은 이들 젊은이들의 의무이다. 21세 이상 되는 여성들도 그들이 원한다면 전임 선교사로서 봉사할 것을 추천한다. 나이가 든 부부도 역시 선교 사업을 할 수 있을 때 선교사로 봉사하라고 권고하고 있다.

십이사도 정원회의 데이비드 비 헤이트 장로는 이렇게 권고했다. “교회에 있는 육체적으로 강건한 모든 부부의 목표는 교회의 19세 된 청년들의 목표가 선교사인 것처럼 선교 사업을 하는 것 이어야 합니다. 원숙한 나이에 선교사로 봉사하는 것을 통해서 자녀들이나 손자녀들에게 보이는 모범보다 더 훌륭한 모범은 없고, 선교사로 봉사하는 것을 통해서 주는 간증보다 더 훌륭한 간증은 없습니다.” (“이웃 내 형제”, 성도의 벗, 1987년 7월호, 60쪽)

#### 전임 선교사들을 지원함

- 현재 봉사하고 있는 선교사들을 우리는 어떻게 지원할 수 있는가?(대답에는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 격려의 편지를 보내는 것, 와드나 지부의 선교 기금이나 일반 선교사 기금에 현금하는 것이 포함될 수 있다. 우리는 현재 우리 지역에서 봉사하고 있는 선교사들이 구도자를 찾거나 가르치는 것을 도와주거나 또 그밖의 도움을 줌으로써 그들을 도울 수 있다.)

고든 비 힝클리 회장은 이렇게 말씀했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선교사들이 우리의 도움 없이 선교 사업을 하도록 내버려 둘 수도 있고 도와줄 수도 있습니다. 선교사들만이 그 일을 해야 한다면, 그들은 매일 집집마다 문을 두드리게 될 것이며, 추수할 것은 미미할 것입니다. 또는 회원으로서 우리는 그들이 구도자를 찾고 가르치는 일을 도울 수도 있습니다.” (“양을 찾고 먹이라”, 리아호나, 1999년 7월호, 120~121쪽)

#### 일생을 통해 복음을 나눔

- 왜 일생을 통해 복음을 전하는 것은 중요한가? 복음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기 위해 여러분은 어떤 경험을 했는가?
- 왜 우리는 때때로 복음을 전하는 것을 두려워하는가? 우리는 이러한 공포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가?
- 여러분 중 교회 회원의 모범과 우정 때문에 교회에 들어오는 데 영향을 받은 사람이 있는가? 이 교회 회원의 행동이 여러분에게 어떻게 영향을 미쳤는가?

- 우리의 일상 생활의 일부로서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방법에는 어떤 것이 있는가?(대답에는 다음이 포함될 수 있다.)
  - ㄱ. 가족과 이웃과 친구에게 좋은 모범을 보인다.
  - ㄴ. 물몬경을 전한다.
  - ㄷ. 관심이 있는 사람들의 이름을 선교사들에게 말해 준다.
  - ㄹ. 복음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을 사람들에게 전한다.
  - ㅁ. 사람들을 교회 활동, 모임, 노변의 모임에 초대한다.
  - ㅂ. 가정의 밤과 이웃을 위한 활동에 사람들을 초대한다.
  - ㅅ. 계보에 관심을 가진 사람들을 가족 역사 센터에 초대한다.
  - ㅇ. 침례식에 사람들을 초대한다.

스펜서 더블류 김볼 회장은 이렇게 말씀했다. “저는 주님께서 [복음이] ‘모든 나라’, ‘온 세계’, ‘세상의 모든 구석까지’, ‘모든 방언’, ‘모든 백성’, ‘모든 사람’, ‘온 세상’, ‘많은 나라’에 [전해져야 한다고 말씀하셨을 때, 그분은 그 낱말들을 선택하셔서 말씀하셨다고 생각합니다. 확실히 이 말들에는 중요한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 저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우리가 온 세상 사람들을 가르치려는 우리의 자세에 만족하고 있습니까? … 우리는 걸음의 폭을 넓힐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우리의 시야를 확대시킬 준비는 되어 있습니까?”(“온 세상이 개종될 때”, *성도의 벗*, 1984년 9월호, 2~3쪽)

- 우리는 일상 생활에서 복음을 전하려 할 때 어떤 방식으로 걸음의 폭을 넓힐 수 있는가?

김볼 회장은 또 이렇게 말씀했다. “우리의 가장 큰 의무이며 동시에 우리의 가장 큰 부름은 이 세상 사람들에게 이해의 촛불을 갖고 가 어둠과 암흑으로부터 그들이 나올 길을 밝혀 복음의 기쁨과 평화와 진리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선을 행함에 치치지 말아야 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이제는 복음을 다른 사람들과 이 세상에 사는 주민들에게 전하는 데 돕기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를 우리 자신에게 또다시 자문해 보아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하고 있습니까?”, *성도의 벗*, 1983년 6월호, 5쪽)

힝클리 회장은 모든 신권 지도자들이 구도자를 찾고 우정 증진을 하는 책임을 받아들이고 모범을 보일 때라고 요구했다. 그분은 이 주제로 성찬식 때 가끔 이야기하라고 요청했다. 그분은 또한 구도자를 찾고 우정 증진을 하는 방법에 대해 계획을 세우기 위해 신권회, 상호부조회, 청년, 초등회, 와드 평의회, 스테이크 평의회를 활용하도록 요청했다.(“양을 찾고 먹이라”, *리아호나*, 1999년 7월호, 107쪽)

#### 4. 새로운 개종자를 양육하는 것은 우리의 계속되는 책임이다.

다음 말씀을 칠판에 적는다. “침례를 받기에 합당한 모든 구도자는 우리가 지켜야 할 합당한 개종자입니다.”(고든 비 힝클리 회장, “양을 찾고 먹이라”, *리아호나*, 1999년 7월호, 123쪽) 매년 수십만 명의 개종자들이 교회로 들어오고 있다고 설명한다. 이들 새로운 회원들을 우리 모두가 양육하고 강화시킬 필요가 있다.

- 왜 때때로 새로운 개종자가 교회에서 활동적으로 남아 있기가 힘든가?

고든 비 힝클리 회장은 이렇게 말씀했다. “이 교회의 회원이 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대부분의 경우, 그것은 오래된 습관을 버리고, 오랜 친구와 교제하던 분들을 떠나 색다르고 다소 요구하는 것이 많은 새로운 사회에 발을 들여 놓는 것과 관련되어 있습니다.”(“개종자와 청남”, 성도의 벗, 1997년 7월호, 47쪽)

- 새로운 개종자들은 자기 자신을 강화시키기 위하여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새로운 개종자들을 강화시키기 위하여 다른 회원들은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여러분들은 회원들이 이 일을 효율적으로 하는 것을 어떻게 보게 되었는가?

힝클리 회장은 이렇게 가르쳤다. “모든 개종자는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 “1. 자신이 늘 의존할 수 있고 자기를 지원해 주며 자신의 질문에 대답해 주고, 자신의 문제를 이해해 주는 친구.
- “2. 부름. 활동은 이 교회의 정수라 할 수 있습니다. 활동은 우리를 성장하게 하는 과정입니다. 주님에 대한 신앙과 사랑은 제 팔의 근육과 같습니다. 사용하면 그것은 더 강해집니다. 그것을 사용하지 않으면 약해집니다. 모든 개종자는 부름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 “3. 모든 개종자는 ‘하나님의 선하신 말씀으로 양육하여[야 합니다]’ (모로나이 6:4) 그가 신권 정원회나 상호부조회, 청년, 주일학교, 또는 초등학교에 가입하는 것은 꼭 필요합니다. 개종자에게 성찬식에 참석하도록 격려해 주어야 합니다.”(“양을 찾고 먹이라”, 리아호나, 1999년 7월호, 122~123쪽)

교회의 새로운 회원으로서 그들이 갖고 있는 느낌을 말해 주도록 여러분이 반원들에게 부탁했다면 지금 그렇게 하도록 한다. (“준비 사항” 4 참조)

## 결론

주님이 그분의 교회를 인도하고 계시며 복음을 온 세상에 전할 길을 열어 주신다고 강조한다. 반원들에게 전임 선교사로 나갈 준비를 하면서 걸음의 폭을 넓히고 자기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격려한다. 또한 새로운 회원을 양육하고 강화하도록 반원들을 격려한다. 영의 지시에 따라 공과 중에 토의한 진리에 대해 간증한다.

## 추가로 가르칠 개념

여러분은 제언된 공과 개요를 보충하기 위하여 다음 개념을 활용할 수 있다.

### 온 나라에 기를 세우고 비디오 발표

온 나라에 기를 세우고(53980 320)란 비디오를 구할 수 있다면, 공과의 일부로서 이 부분을 보여 주는 것을 고려한다. 이 비디오에는 유럽과 태평양 제도와 라틴 아메리카와 아시아와 아프리카에서의 교회 성장에 관한 영감에 찬 이야기가 들어 있다. 이 비디오는 성전과 온 세상으로부터 온 사람들이 “모든 발자취엔 신앙이”란 노래를 부르는 영상이 나오면서 끝난다.

이 비디오는 60분짜리이므로 반에서 모든 부분을 다 보여 줄 수는 없다. 그러나 미리 이 비디오를 시청하여 여러분이 가르치는 반원들에게 특히 영감을 줄 것으로 생각되는 부분을 선택할 수 있을 것이다.

# 후기의 선지자들에게 계속되는 계시

제 42 과

**목적** 주님께서는 후기의 선지자, 선견자, 계시자들에게 계시를 주심으로써 교회를 계속 인도하고 계시다는 것을 반원들에게 가르친다.

- 준비 사항**
1. 기도하는 마음으로 다음 성구와 다른 자료들을 공부한다.
    - ㄱ. 교리와 성약 1:38; 68:1~4; 84:109~110; 107:25, 34, 93~98; 132:8
    - ㄴ. 공식선언-2 (교리와 성약 360~361쪽)
    - ㄷ. 우리의 유산, 118~119, 125~127쪽.
  2. 반원 학습 지도서(35686 320)에서 본 공과에 대한 자료를 살펴본다. 공과 시간에 자료를 참조할 수 있는 방법을 계획한다.
  3. 우리의 유산에 나오는 다음 사항들을 요약하여 이야기할 준비를 하도록 반원에게 부탁한다.
    - ㄱ. 교회의 협의 프로그램에 관한 자료 (118쪽 셋째 줄에서부터 119쪽 둘째 줄까지)
    - ㄴ. 교회의 모든 합당한 남성 회원이 신권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축복에 관련된 계시에 대한 기사 (124쪽 마지막 줄~127쪽 밑에서 넷째 줄까지)

## 공과 전개 제언

주의 집중 활동 적절한 경우, 공과를 시작하기 위해 다음 활동이나 여러분 자신이 준비한 활동을 활용한다.

해롤드 비 리 회장이 하신 다음 이야기들을 반원들에게 들려준다.

“십이사도 정원회의 존 에이 윗소 장로님이 이런 이야기를 해 주셨습니다. 한번은 그분이 스테이크 역원들 여러 명과 함께 토의를 하게 되었는데 어떤 사람이 그에게 이런 질문을 하였습니다. ‘윗소 형제님, 교회가 [마지막으로] 계시를 받고 난 후 얼마가 지났습니까? 윗소 형제는 생각에 잠겨 턱을 문지르다가 대답했습니다. ‘아, 아마 지난 목요일 이후일거요.’”(Stand Ye in Holy Places [1974년], 132~133쪽)

스펜서 더블류 김볼 회장은 교회는 계속해서 계시에 의해 인도된다고 선언했다.

“우리는 계속 계시를 받고 있습니다. 또한 교회 서류 보관소와 서류철에는 매일, 매월 받게 되는 계시들이 보관되어 있다는 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간증드립니다. 우리는 현재,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가 조직되었던 1830년 이래로, 또한 시간이 지속되는 한 미래에도 계속해서 하나님과 그의 백성들이 인정하는 선지자가 있게 될 것이며 그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해석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간증드립니다. ...”

“극적인 계시를 기대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계속되고 있는 계시의 교통을 잘 알아차리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가장 겸허한 마음으로, 그러나 또한 제 영혼 속에 타는 듯한 간증의 권능과 힘으로 [복음] 회복한 선지자로부터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에 이르기까지, 빛과 찬란함과 꿩뿔음

이 계속해서 빛나고 있습니다. 주님의 음성은 계속되는 멜로디요 천둥 같은 힘입니다. 거의 1세기 반 동안 [계시는] 중단이 없었습니다.”(성도의 벗, 1977년 10월호, 82쪽)

김볼 회장의 선언은 오늘날에도 계속해서 참되다는 것을 강조한다. 하늘은 열려 있으며 주님은 그분의 뜻을 후기의 선지자들에게 계속해서 계시하고 계신다.

## 토론과 적용

기도하는 마음으로 반원들의 필요 사항을 가장 잘 충족시켜 줄 수 있는 공과 자료를 선정한다. 반원들을 격려하여 여러분이 토의하고 있는 원리와 관련된 경험을 이야기해 주도록 한다.

반원들과 함께 교리와 성약 1편 38절과 68편 1~4절을 읽는다. 제일회장단과 십이사도 정원회 회원들은 후기의 선지자, 선견자, 계시자라는 것을 강조한다. 그들은 교회를 인도하기 위하여 계속해서 계시를 받는다. 그들의 지시는 “주의 뜻이 되며, ... 주의 말씀이 되며, 주의 음성이 되며,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리라.”(교리와 성약 68:4) 이 공과에서는 교회를 인도하기 위한 계속되는 계시의 몇 가지 예를 토의한다고 설명한다.

### 1. 교회의 협의 프로그램

우리의 유산, 118쪽 세 번째 줄에서 119쪽 두 번째 줄까지에 있는 교회의 협의 프로그램에 관한 내용을 요약해 주도록 미리 지명 받은 회원에게 부탁한다. 주님께서 그분의 선지자에게 주시는 계시를 통해 교회의 협의 프로그램은 이미 시작되었고 오늘날에도 계속해서 시행되고 있다고 강조한다.

교회의 협의 프로그램의 목적은 “하나님의 바른 길”(야곱서 7:7)을 보존하기 위한 것이다. 궁극적으로 그것은 교회의 사명을 달성하도록 돕기 위한 것이다. 교회의 사명은 모든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에게로 나아와, 그의 안에서 온전하게 [되도록]”(모로나이 10:32; 또한 교리와 성약 20:39 참조) 권유하는 것이다.

제일회장단과 십이사도 정원회는 교회 내의 협의 프로그램을 감독한다. 협의 프로그램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된다.

- ㄱ. 교리의 순수성 유지
- ㄴ. 가족과 가정의 중요성 강조
- ㄷ. 교회의 모든 사업을 신권의 지도 하에 행함
- ㄹ. 교회의 조직 사이에 적절한 관계의 수립
- ㅁ. 교회 안에서의 단합 유지, 질서 세움
- ㅂ. 교회 프로그램과 자료의 단순화

십이사도 정원회의 브루스 알 맥콩키 장로는 협의란 한 과정으로서 “교회의 모든 프로그램을 한 가지 초점에 맞추고 한 꾸러미로 싸서, 그것을 한 프로그램으로 운용하며 교회의 모든 회원을 그 운용에 참여시키고 그 모든 것을 신권의 지시 하에 실시하는 것”이라고 말했다.(*Let Every Man Learn His Duty* [소책자, 1976년], 2쪽)

어떻게 교회의 협의 노력이 우리의 삶을 축복해 주는지 토의하는 데 다음 자료를 활용한다. 토의하면서 칠판에 제목을 쓴다.



### 가족의 중요성

협의를 노력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가정의 중요성을 강조해 오고 있다. 한 가지는 가정의 밤 프로그램의 제정이다. 부모들은 그들의 가족을 가르치고 강화하기 위하여 매주 가정의 밤을 갖게 되어 있다. 교회는 어느 지역에서나 월요일 저녁은 가정의 밤을 하도록 지정했으며, 그래서 월요일 저녁은 교회의 모임이나 활동이 없도록 비워 두어야 한다.

- 가정의 밤이 여러분의 생활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 가정의 밤을 성공적으로 하기 위하여 여러분은 어떤 일을 했는가?

협의를 노력은 가족과의 관계에서 교회의 조직과 프로그램과 활동의 역할을 분명히 함으로써 가족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교회 지침서에는 이렇게 써어 있다.

“복음 교육과 지도력 육성에 가장 중요한 장소는 가족 및 가정이다.(모사이야서 4:14~15; 교리와 성약 68:25~28 참조) … 정원회, 보조 조직, 프로그램 및 교회 내의 모든 활동은 가족을 강화시키고 지원해야 한다. 그러한 것들은 복음 중심의 가족 활동과 맞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강화시키는 것이어야 한다.“(교회 지침서 제2권, 신권 및 보조 조직 지도자 [1998년], 293쪽)

- 교회의 보조 조직과 프로그램과 활동이 가족을 지원하기 위하여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은 왜 중요한가? 어떻게 조직들과 활동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을 강화시켰는가?

협의를 노력은 또한 교회 프로그램과 활동이 교회 회원들의 노력과 시간과 자원을 불필요하게 요구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 교회 보조 조직의 운영

협의를 중요한 역할 중의 하나는 교회의 보조 조직 — 상호부조회, 청남, 청년, 초등회, 주일학교를 일체화하고 조정하는 것이다. 교회 전체적인 수준에서 어떤 조직들은 자체 잡지도 소유하고 있었고 기금을 적립하기도 했으며 대회도 있었다. 그것들은 발전하면서 점점 더 복잡하게 되었으며 종종 그들의 프로그램과 자료가 불필요하게 서로 겹치기도 했다.

협의를 과정을 거쳐서 그러한 복잡성과 중복성이 감소되었다. 협의를 통해서 신권 지도자들의 지도 하에 보조 조직들이 기능을 발휘해야 한다는 점이 강조되어 왔다. 예를 들면, 와드에서는 이들 모든 조직들이 감독단의 지시 하에 기능을 하고 있다.

- 와드에서 보조 조직들의 노력을 통합하고 조정하는 것은 왜 중요한가? 이들 보조 조직들의 노력을 조정함으로써 이들이 더 효율적으로 작용하는 것을 여러분은 본 적이 있는가?

### 교회 출판물의 준비

공과 교재와 교회 잡지와 같은 교회 출판물은 회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배우고 생활하는 것을 돕기 위하여 제작된다고 설명한다. 협의의 과정은 이들 자료가 경전에 근거를 두고, 교리적으로 정확하며, 독자에게 적절하게 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모든 교회 출판물들은 제일회장단과 십이사도 정원회의 지시 하에 계획되고 준비되며 검토되고 출판된다.

교회 출판물의 협의로 인한 한 가지 결과는 성인과 청소년 복음 교리반과 대부분의 초등회 반들이 같은 해에 같은 경전을 공부하게 된 것이다. 이렇게 하여 가정에서 경전에 대한 토의를 장려하고 촉진할 수 있게 했다.

- 교회에서 가르친 공과가 부모들이 가정에서 그들의 자녀들을 가르치는 데 어떻게 도움이 될 수 있는가?

#### 가정 복음 교육

반원들과 함께 교리와 성약 20편 53~55절을 읽는다. 신권 소유자들이 가정 방문을 하는 것은 선지자 조셉 스미스 시대 이래로 교회 프로그램의 일부가 되어 왔다. 교회의 협의 노력의 일부로서 이들 방문이 1960년대에 재강조되었으며 가정 복음 교육이라고 불리게 되었다. 가정 복음 교육은 계속해서 교사, 제사 및 벨기세택 신권 소유자들의 중요한 책임이 되어 왔다.

- 가정 복음 교육의 목적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어떤 경험이 가정 복음 교육의 중요성을 여러분에게 보여 주었는가?

교회의 협의에 관한 토의를 마치기 위하여 반원들과 함께 교리와 성약 84편 109~110절과 132편 8절을 읽는다.

- 어떤 면에서 교회의 협의가 교리와 성약에 나와 있는 말씀을 성취하는 데 도움이 되었는가?
- 개인적으로 또한 우리의 교회 부름에서 교회의 협의 원리를 적용하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 2. 교회의 모든 합당한 남성 회원들에게 신권의 축복을 부여하라는 계시

1978년 6월에 스펜서 더블류 김볼 회장은 교회의 모든 합당한 남성 회원들에게 신권의 축복을 부여하라는 계시를 발표했다고 설명한다. 미리 지명 받은 반원에게 *우리의 유산*, 125~127쪽에 나오는 이 계시에 관한 것을 요약해주도록 부탁한다.

- 반원들과 함께 공식선언-2를 읽는다. 이 계시가 어떻게 교회에 축복이 되어 왔는가?
- 이 계시를 받기 전에 김볼 회장이 겪었던 과정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의 유산*, 126쪽 참조)

### 3. 경전을 새로운 후기 성도 판으로 출판함

제일회장단과 십이사도 정원회의 지시 하에 여러 해 동안 신중한 노력 끝에 1979년에 교회는 영어 성경의 후기 성도 판을 출판했다. 이 판은 영어 성경의 흥정역 판과 내용은 똑같은 것이지만 주제별 색인(Topical Guide), 성서 사전(Bible Dictionary), 그리고 다른 경전의 성구를 참조할 수 있는 각주와 영어 성경의 조셉 스미스 역 성경 중 발췌된 부분의 각주 등 성경 연구를 위한 특별 학습 보조 자료가 포함되어 있다.

1981년에 교회는(몰몬경, 교리와 성약, 값진 진주를 한 권으로 묶은) 합본으로 된 새로운 영어판을 출판했다. 이 판에도 더 보강된 각주와 색인이 실려 있다.

- 반원들과 함께 에스겔 37장 15~19절을 읽는다. “유다의 막대기”는 성경이고 “에브라임의 막대기”는 몰몬경이라고 설명한다. 경전들의 새로운 판이 어떻게 성경과 몰몬경이 “[여러분의] 손에서 하나가” 되도록 돕는가?

영어 성경에 있는 많은 각주들이 몰몬경에 있는 구절을 참조하라고 되어 있고 몰몬경에 있는 각주들은 성경의 구절들을 참조하라고 되어 있다고 설명한다. 십이사도 정원회의 보이드 케이 패커 장로는 이렇게 말씀했다. “이제는 유다의 막대기—신구약전서—와 에브라임의 막대기—예수 그리스도의 또 하나의 성약인 몰몬경—는 여러분이 그 두 경전 중 한 경전을 공부하면 나머지 한 경

전을 찾아보게 되고 또한 한 경전을 공부하는 동안 다른 경전에서 깨달음을 얻을 수 있도록 되는 방식으로 엮어져 있습니다. 그 경전들은 참으로 우리의 손 안에서 하나가 되었습니다.”(성도의 벗, 1983년 1월호, 82쪽)

후기 성도 경전판에 나와 있는 학습 보조 자료를 반원들에게 보여 주기 위해 몇 분을 할애한다. (여러분은 추가로 가르칠 개념 2를 활용할 수도 있다.) 그런 다음 질문을 한다.

- 경전에 있는 학습 보조 자료를 여러분은 어떤 방법으로 활용해 왔는가? 여러분이 경전 연구를 할 때 이들 자료들이 어떻게 도움이 되었는가? 이들 경전의 후기 성도 판 덕택에 교회는 어떤 면에서 축복을 받게 되었다고 생각하는가?

이들 경전이 출판된 후 곧 보이드 케이 팩커 장로는 이렇게 예언했다. “세월이 지나면, 이 경전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의 뜻을 따르려고 하는 충실한 기독교도들인 후세대들을 계속 배출하게 될 것입니다. … 세계 역사상 다른 어떤 세대에게 계시가 주어졌던 것보다도 더 많은 계시가 그들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이제 그들의 손에 조셉의 막대기와 유다의 막대기가 놓여 있습니다. 그들은 그들 조상들이 성취할 수 있었던 것보다 더 많이 복음에 대한 학식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간증을 갖게 될 것이며 그리스도를 널리 공포하고 옹호하게 될 것입니다.”(성도의 벗, 1983년 1월호, 82쪽)

1995년 4월 연차 대회에서 고든 비 힝클리 회장은 팩커 장로의 말씀이 성취되어 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 주는 이와 같은 말씀을 했다. “저는 제 젊은 시절을 돌이켜 봅니다. 그 당시에는 청년이나 청년들은 경전 읽기를 그다지 부지런히 하지 않았습니니다. 그런데 참으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잘 아는 새로운 세대가 자라나고 있습니다.”(“우리에게는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성도의 벗, 1995년 7월호, 86쪽)

#### 4. 증가된 칠십인 정원회

교회가 성장하면서 전세계 회원들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주님은 교회 본부의 행정을 어떻게 변경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계시를 주셨다고 설명한다. 이들 변경은 특히 칠십인 정원회 조직에서 두드러진다.

- 교리와 성약 107편 25, 34절을 반원들과 함께 읽는다. 칠십인들의 책임은 무엇인가?

여러 해 동안 칠십인으로 봉사했던 분은 일곱 명의 총관리 역원뿐이었다고 설명한다. 그분들은 칠십인 제일 평의회로 구성되어 있었다. 1975년에 다른 분들이 부름을 받았다. 그들은 칠십인 제일 평의회에서 봉사했다. 1989년에 칠십인 제이 정원회가 추가로 조직되었을 때 더욱 확장되었다.

1995년 4월에 고든 비 힝클리 회장은 약 6년간 봉사하게 될 지역 관리 역원이라고 불리는 새로운 지역 역원을 부른다는 발표를 했다. (“이 사업은 개인에게 관심을 보이는 사업입니다”, 성도의 벗, 1995년 7월호, 51쪽 참조)

1997년에 힝클리 회장은 지역 관리 역원들을 칠십인으로 성임하여 칠십인 제삼, 제사, 제오 정원회를 구성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총관리 역원으로 봉사하는 칠십인들과는 달리 지역 관리 역원들은 그들이 살고 있는 지역에 살면서 현재 갖고 있는 직업에 그대로 종사하면서 봉사하게 될 것이다.(성도의 벗, 1997년 7월호, 5~6쪽 참조)

- 반원들과 함께 교리와 성약 107편 93~97절을 읽는다. 칠십인 정원회를 추가로 조직하는 것이 이 계시에 나오는 지시와 어떻게 부합되는가?

- 지역 관리 역원의 부름은 교회가 성장해 가는 과정에서 교회에 어떻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 하는가?

칠십인 정원회를 추가적으로 조직하는 것과 관련하여 헝클리 회장은 이렇게 말씀했다. “이 각 정 원회가 발족됨으로써, 우리는 지역 회장단과, 필요에 따라 세계 각지에서 택함을 받고 봉사하는 칠십인 지역 관리 역원의 조직을 갖추고 크게 성장할 수 있는 토대를 갖추었습니다.”(성도의 벗, 1997년 7월호, 6쪽)

**결론**

주의 집중 활동을 활용하지 않았다면 243~244쪽에 있는 김볼 회장의 말씀을 읽는다. 특히 김볼 회장의 간증인 “주님의 음성은 계속되는 멜로디요 찬송 같은 힘입니다. 거의 1세기 반 동안 [계시 는] 중단이 없었습니다.”에 유의한다, 후기의 선지자들을 통한 주님의 인도에 대하여 감사를 표한 다.

영의 지시에 따라 공과 중에 토의한 진리에 대해 간증한다.

**추가로 가르칠 개념**

여러분은 제언된 공과 개요를 보충하기 위하여 다음 개념 가운데서 한 가지 개념이나 두 가지 개념을 모 두 활용할 수 있다.

**1. “신권에 관한 계시” 비디오 발표**

교리와 성약 및 교회사 비디오(53912 320)를 구할 수 있다면, 상영 시간 7분인 “신권에 관한 계 시”를 토론과 적용 2에서 보여 주는 것을 고려한다.

**2. 경전 안내서의 주제 목록을 반원들이 활용하도록 장려하는 활동**

반원들이 경전 안내서의 주제 목록 부분을 활용하도록 도와주기 위한 다음 활동을 한다.

반원들에게 그들의 경전을 덮으라고 말한다. 주제 목록 부분에서 참조 성구가 많이 열거된 두세 개 의 주제에 대하여 반원들이 기억하고 있는 성구들을 말해 보게 한다. 예를 들면 여러분은 반원들에 게 겸손, 순종, 성신의 은사 등에 대한 참조 성구를 말해 보게 할 수 있다. 반원들이 더 이상 참조 성구를 이야기할 수 없게 되었을 때 주제 목록에서 위에 말한 주제를 찾아보게 한다. 그들 주제에 나와 있는 성구를 몇 개 읽어 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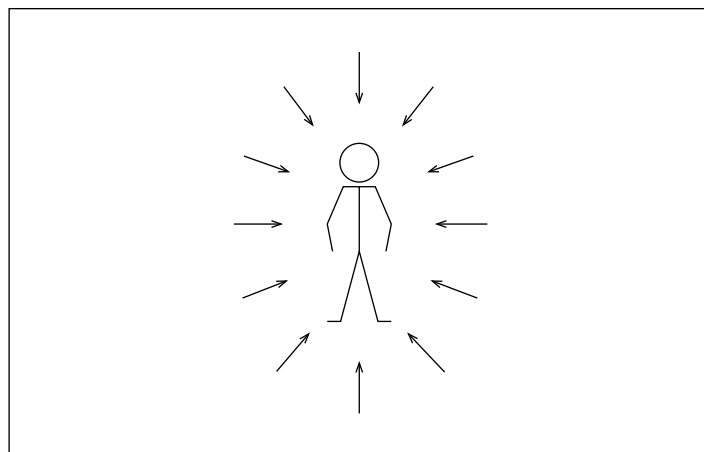
이 활동을 마친 후 반원들에게 그리스도에 대하여 여러 가지 성구가 나와 있는 주제 목록을 찾아보 게 한다. 그들이 이들 참조 성구를 검토해 보는 동안 여러분은 십이사도 정원회의 보이드 케이 패커 회장이 하신 말씀을 이야기 해 줄 수 도 있다. 그분은 이들 페이지들을 ‘세계 역사상 지금까지 모아 놓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의 경전 구절 중 가장 포괄적으로 편집한 것’이라고 언급했다.(“화평한 중에 그리스도를 좇는 자”, 성도의 벗, 1998년 12월호, 20쪽)

**목적** 반원들이 악과 싸우는 전투에서 자신들을 보호하기 위해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도록 한다.

- 준비 사항**
1.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공과에 나오는 성구를 공부한다.
  2. 반원 학습 지도서(35686 320)에 나오는 본 공과에 대한 자료를 살펴본다. 공과 시간에 자료를 참조하기 위한 방법을 계획한다.
  3. 여러분이 청소년을 가르치고 있다면 **청소년의 힘을 위하여**(36550 320)에 나오는 다음 제목들 중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한 내용을 요약할 준비를 하도록 반원에게 부탁한다.
    - ㄱ. “성적인 순결” (26~28쪽)
    - ㄴ. “복장과 외모” (14~16쪽)
    - ㄷ. “오락과 대중 매체” (17~19쪽)
    - ㄹ. “음악과 춤” (20~21쪽)
    - ㅁ. “정직” (31쪽)
    - ㅂ. “언어” (22~23쪽)

## 공과 전개 제언

**주의 집중 활동** 적절한 경우, 공과를 시작하기 위하여 다음 활동이나 여러분이 준비한 활동을 한다.  
칠판에다 아래 그림과 같이 사람을 표현하기 위하여 선으로 사람 모양을 그린다. 그 후 여러 방면에서 그 사람을 향해 날아오는 창이나 화살 그림을 그린다.



경전에서는 가끔 유혹을 “대적의 ... 불화살”(교리와 성약 3:8; 또한 에베소서 6:16; 니파이전서 15:24; 교리와 성약 27:17 참조)이라고 일컫고 있다고 설명한다. 이 공과는 이들 유혹의 일부와 그 유혹으로부터 우리 자신을 보호하기 위하여 우리가 입을 수 있는 갑옷에 대한 내용이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반원들의 필요 사항을 가장 잘 충족시켜 줄 수 있는 공과 자료를 선정한다. 반원들이 이러한 원리들을 그들의 생활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토의하도록 격려한다.

### 1.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음

- 반원들과 함께 교리와 성약 76편 25절과 모세서 4장 3절을 읽는다. 하늘에 전쟁이 있을 때 관여한 두 군대의 지도자들은 누구였으며 그들의 목적은 무엇이었는가? 오늘날 우리는 지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그와 유사한 싸움에 어떻게 관여하고 있는가? (교리와 성약 76:29; 모세서 4:4 참조)
- 악과 싸우는 전쟁에서 주님은 우리를 무방비 상태로 두시지는 않으셨다는 것을 강조한다. 반원들과 함께 교리와 성약 27편 15~18절을 읽는다. 이들 성구에 묘사된 주님의 갑옷은 무엇인가? (칠판에 다음과 같은 사항을 기록한다. 주의 집중 활동을 활용했다면 여러분이 그렸던 사람 주위에 그것들을 적는다.)

*진리로 동여맨 허리*  
*의의 가슴 판*  
*평화의 복음의 준비로 신을 신은 발*  
*신앙의 방패*  
*구원의 투구*  
*영의 검과 계시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

-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기 위하여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여러분이 기도를 했을 때 유혹에 대하여 좀 더 강한 방어를 받고 있음을 어떻게 느낄 수 있었는가? 경전을 연구했을 때에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켰을 때에는? 성전에 갔을 때에는? 신권을 영화롭게 했을 때에는?
- 주님의 갑옷 중 일부만을 입거나 또는 잠시 동안만이라도 그것을 입기를 소홀히 한 결과는 어떤 것이 될 것인가?

십이사도 정원회의 조셉 비 위스린 장로는 이렇게 경고했다. 사탄은 “각 사람의 갑옷에서 틈새를 찾아내고자 애씁니다. 그는 우리의 약점을 알고 있으며, 우리가 그에게 그렇게 하도록 허용한다면 우리의 약점을 악용하는 방법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계명을 이해함으로써 또 기도하고, 경전을 연구하며, 주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권고를 따라 매일 우리 자신을 강화함으로써만이 사탄의 공격과 속임수에 대하여 우리 자신을 지킬 수 있습니다.”(“하나님의 신권”, 성도의 벗, 1989년 1월호, 38쪽)

본 공과의 나머지 부분은 오늘날 사탄이 우리의 갑옷에 있는 약점을 악용하려는 세 분야, 즉 순결과 정직과 언어에 대하여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설명한다.

### 2. 순결의 법을 지킴

- 주님의 순결의 법은 어떤 것인가?(교리와 성약 42:22~24; 59:6; 63:16; 또한 다음 인용문 참조)

제일회장단은 이렇게 말씀했다. “윤리적인 품행에 관한 주님의 법은 합법적인 결혼 관계 이외에는 성 관계를 가져서는 안 되는 것이고 결혼한 부부는 서로 충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 관계는 결혼의 유대 안에서 적절히 표현된 남편과 아내 사이에서만 합당합니다. 간음, 사통, 동성애, 여자의 동성애를 포함하여 그밖에 다른 모든 성적인 행위는 죄악입니다.”(제일회장단 서한, 1991년 11월 14일)

십이사도 정원회의 리차드 지 스코트 장로는 이렇게 가르쳤다. “결혼 관계 이외의 모든 성적인 행위, … 옷을 입었건 안 입었건 다른 사람의 육체의 신성하고 은밀한 부분에 어떤 의도를 가지고 접촉하는 것 … 은 죄이며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 자신의 육체 내에 그러한 감정들을 의도적으로 자극하는 것도 범법입니다.”(“빠른 선택을 함”, 성도의 빛, 1995년 1월호, 38쪽)

청소년의 힘을 위하여에 나오는 성적인 순결 부분을 요약하도록 미리 지명한 반원이 있으면 지금 이야기하도록 요청한다.

- 순결의 법을 어긴 결과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정신적인 결과와 육체적인 결과, 즉각적인 결과와 장기간에 미칠 결과를 토의한다.) 순결의 법을 어긴 사람은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는가?

조셉 비 워스린 장로는 이렇게 가르쳤다. “오늘날 가장 널리 퍼져 있는 그릇된 생각 중 하나는 성적인 문란이 정상적이고 용납될 수 있는 것으로서 아무런 나쁜 결과를 가져 오지 않는다는 견해입니다. 사실상 문란은 오늘날 흔히 볼 수 있는 질병의 만연, 낙태, 결혼 가정, 아빠 없는 가정, 미혼모 등 수많은 고통과 문제들의 근본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깊은 뿌리”, 성도의 빛, 1995년 1월호, 76쪽)

- 순결의 법을 지킴으로써 우리는 어떻게 축복을 받는가? (교리와 성약 121:45~46 참조. 대답에는 우리는 더 많은 화평과 기쁨을 느낄 수 있고 배우자와 가족들에게 사랑을 느끼게 되고, 자중심을 갖게 되며 다른 사람을 존중하게 된다는 것이 포함될 수 있다. 순결의 법을 지키는 것은 또한 성신의 동반에 필요하며, 신권 의식을 받는 데 필요하고, 합당하게 성찬을 드는 것에 필요한 것이다. 우리가 순결의 법을 따르는 것이 다른 사람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 사탄은 순결의 법을 어기도록 사람들을 어떻게 유혹하는가? 사람들은 이 법을 어기는 것을 어떻게 합리화하려고 애쓰는가?

반원들에게 청소년의 힘을 위하여에 나오는 몇 가지 항목을 요약해 오도록 지명했다면 지금 다음 항목들에 대한 요약을 하도록 요청한다. “복장과 외모”, “오락과 대중 매체” 및 “음악과 춤”

고든 비 톱클리 회장은 이렇게 경고했다. “인터넷에서 외설물을 찾고자 여기저기 기웃대지 마십시오. 추하고 외설스런 이야기를 듣고자 장거리 전화 번호로 전화하지 마십시오. 외설을 담은 어떤 비디오도 빌려 보아서는 안 됩니다. 이러한 성적 충동을 유발하는 것들은 한 마디로 여러분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중병에 걸리지 않도록 조심하듯이 외설물을 멀리하십시오. 그것은 파멸을 부릅니다. 그것은 습관이 될 수 있으며, 그것을 탐닉하는 사람은 깊이 빠져서 결코 혼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중독성을 가진 약입니다.”(“장차 결혼하게 될 여성에게 어울리는 합당한 생활을 함”, 성도의 빛, 1998년 7월호, 49쪽)

- 순결의 법을 어기게 하는 유혹으로부터 우리는 어떻게 자신을 지킬 수 있는가? 음란한 영향을 피하기 위하여 우리는 가정에서 무엇을 할 수 있는가?
- 순결의 법에는 실제 행동은 물론 생각의 순결도 포함되어 있다. 우리의 생각이 깨끗하지 못할 때 우리는 영적으로 어떻게 영향을 받을 수 있는가? (교리와 성약 63:16 참조)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마음에서 깨끗하지 못한 생각을 추방할 수 있는가?

십이사도 정원회의 보이드 케이 팩커 장로는 “덕성을 기르는 생각을 그 대신에”(“길르앗의 유향”, 성도의 빛, 1978년 2월호, 91쪽) 놓음으로써 우리의 마음속으로부터 합당하지 못한 생각들을 쫓아 내라고 권고했다. 이 권고에 어떻게 따를 수 있는지 토의한다. 대답으로는 힘을 얻기 위한

기도, 좋아하는 찬송가 부르기, 마음속으로 좋아하는 성구 암송, 가족들에 대한 우리들의 사랑에 관하여 생각하기 등이 포함될 수 있다.

### 3. 정직함

- 정직하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제임스 이 파우스트 회장은 이렇게 가르쳤다. “정직이란 거짓말을 하지 않는 것 이상입니다. 그것은 진실을 알리고, 진실을 말하고, 진실을 실천하고, 진실을 사랑하는 것입니다.”(“정직—도덕 나침반”, *성도의 벗*, 1997년 1월호, 41쪽)

여러분이 어떤 반원에게 청소년의 힘을 위하여에 나오는 “정직” 부분에 대하여 요약해 주도록 부탁했다면 지금 그렇게 해 달라고 요청한다.

- 반원들과 함께 교리와 성약 42편 21절, 51편 9절, 97편 8절을 읽는다. 우리 생활의 모든 면에서 정직한 것이 왜 중요한가? 부정직한 결과는 무엇인가? 우리가 정직하면 어떻게 축복을 받는가?
- 우리가 부정직하도록 유혹을 받는 방법에는 어떤 것이 있는가? 부정직하게 만드는 사소한 유혹에 굴복하는 것이 어떻게 우리가 다른 유혹에 좀 더 쉽게 굴복하도록 하는가? 우리는 어떻게 부정직하도록 만드는 유혹을 극복할 수 있는가?
- 주님께 정직하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대답에는 주님께 우리가 맺은 성약과 그 밖에 다른 약속을 지키는 것, 교회에서 부여받은 임무를 이행하는 것, 합당하게 성찬을 취하는 것, 십일조와 헌금을 바치는 것이 포함될 수 있다.)
- 우리 자신에게 정직하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한 가지 의미는 우리가 죄를 합리화하거나 변명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 우리는 어떻게 가정에서 정직을 효율적으로 가르칠 수 있는가?(반원들의 대답을 들은 후 각자의 가정에서 정직을 가르치는 데 *가정의 밤 자료집*[31106 320]의 194~196쪽에 있는 것을 활용하도록 제안할 수 있다.

정직하게 되기 어려웠지만 정직하기로 했을 때의 경험을 이야기해 주도록 반원들에게 부탁한다. 또는 그들이 직장이나 학교나 지역 사회나 가정에서 본 정직의 모범을 이야기해 주도록 부탁한다.

### 4. 하나님을 경외하고 품위 있는 말을 사용함.

- 반원들과 함께 교리와 성약 63편 60~62절과 교리와 성약 136편 21절을 읽는다. 우리가 그분의 이름을 어떻게 사용하는가에 관한 주님의 계명은 무엇인가? 사람들이 주님의 이름을 헛되이 사용하는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대답에는 그분의 이름을 불경하게 사용하는 것, 함부로 사용하는 것, 추잡한 생각이나 악한 생각과 연관시켜 사용하는 것이 포함될 수 있다.)
- 주님의 이름을 헛되이 사용하는 것 외에 우리가 피해야 할 말에는 어떤 것이 있는가? (대답에는 저속한 말, 음란한 말, 버릇없는 말, 비열한 말이 포함될 수 있다.)

헝클리 회장은 이렇게 말씀했다. “욕하지 마십시오, 신성 모독적인 말을 하지 마십시오, 추잡한 농담을 피하십시오, 저속하고 음란한 말들이 섞인 대화를 멀리하십시오, 여러분이 권고 받은 대로 하시면 더욱 행복해질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모범은 다른 사람에게도 힘을 주게 될 것입니다.”(“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성도의 벗*, 1988년 1월호, 51쪽)



청소년의 힘을 위하여에 나오는 “언어”라는 항목을 요약하도록 미리 부탁한 반원에게 지금 이야기하도록 요청한다.

- 나쁜 말을 사용하는 결과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대답에는 하나님께 불쾌감을 드리고, 다른 사람에게 불쾌감을 주며, 자기 자신의 품위를 떨어뜨리며 성신의 동반을 상실하게 된다는 것이 포함될 수 있다.)

십이사도 정원회의 델린 에이치 옥스 장로는 이렇게 말씀했다. “불경스런 언행과 상스러운 말은 …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를 분리시키는 죄이며 우리에게서 성신을 물러가게 하여 우리의 영적인 방어력을 손상시킵니다.”(“경건하고 깨끗한”, *성도의 벗*, 1986년 7월호, 57쪽)

- 사탄은 어떻게 사람들이 욕하거나 모독적인 말을 하거나 음란한 말을 하게 하는가? 우리는 어떻게 나쁜 말을 사용하려는 유혹을 극복할 수 있는가?(여러분은 나쁜 언어를 사용하는 습관을 없애는 방법에 대하여 토의할 수도 있다.)
- 왜 우리의 말을 통제하는 것을 배우는 것이 우리의 영적인 성장에 꼭 필요한가? 말을 통제하는 것이 우리가 다른 유혹에서 떨어져 있도록 어떻게 도움을 줄 수 있는가?
- 나쁜 말을 사용하는 사람들과 같이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가? 또한 영화나 텔레비전이나 책에서 나쁜 말을 사용할 때 어떻게 해야 하는가?(가능하다면 나쁜 말을 사용하고 있는 장소에서 떠나야 한다. 우리는 또한 그런 언어에 대하여 항의할 수도 있다.)
- 나쁜 말을 사용하지 않도록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어떻게 가르칠 수 있는가?(반원들의 대답을 들은 후 아이들이 나쁜 말을 사용하지 않도록 가르치기 위하여 가정의 밤 자료집, 215~216쪽을 활용하도록 반원들에게 제안할 수 있다.)
- 주님은 우리가 어떤 종류의 말을 사용하기를 바라시는가?(교리와 성약 52:16; 136:24; 에베소서 4:29 참조) 우리의 말이 어떤 방법으로 다른 사람을 선도할 수 있는가? 하나님을 공경하는 말과 다른 사람을 선도하는 말을 사용하도록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격려할 수 있는가?

## 결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가 그분의 “진신 갑주”를 입어 유혹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기를 바라신다. 반원들에게 순결의 법에 따라 살며 정직하고 남을 선도하는 말을 사용하도록 격려한다. 영의 지시에 따라 공과 중에 토의한 진리에 대해 간증한다.

## 추가로 가르칠 개념

여러분은 제언된 공과 개요를 보충하기 위하여 다음 개념 가운데서 한 가지 이상을 활용할 수 있다.

### 1. 하나님의 갑옷은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무기들도 포함하고 있음

십이사도 정원회에서 봉사하는 동안 해롤드 비 리 장로는 하나님의 갑옷은 방어 장비일 뿐 아니라 우리가 힘차게 사용할 수 있는 무기도 포함한다고 설명했다.

“갑옷을 입은 사람은 한 손에 방패를, 다른 한 손에 칼을 잡고 있습니다. … 그 방패는 신앙의 방패이며 그 칼은 하나님의 말씀인 영의 검입니다. 저는 신앙과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 있는 경전의 지식보다 더 강한 무기는 생각해 낼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갑옷을 입고 그러한 무기로 무장한 사람은 적에 대항하여 싸우러 나갈 준비가 된 것입니다.”(*Feet Shod With the Preparation of the Gospel of Peace*, Brigham Young University of the Year [1954년 11월 9일], 7쪽)

## 2. 청소년의 힘을 위하여를 가지고 하는 활동

청소년의 힘을 위하여에 제시된 표준에 따라 삶으로써 강하고 확실한 갑옷을 제공받는 데 도움이 된다고 설명한다. 반원들을 여러 그룹으로 나누어 청소년의 힘을 위하여에 나오는 주제를 하나씩 준다.

각 그룹은 받은 주제로 5분씩 토론하여 그 내용을 반에서 발표할 준비를 하도록 한다. 그런 다음 각 그룹이 간단히 발표하게 한다. 발표를 하는 데 다음에 나오는 방법 중 하나 이상을 활용할 수도 있다고 제안한다.

- ㄱ. 청소년의 힘을 위하여에 제시된 표준과 관련된 실제 상황을 찾아본다.
- ㄴ. 관련이 있는 사람의 경험이나 친구의 경험을 서로 나눈다.
- ㄷ. 관련된 실생활의 상황을 어떻게 다룰지 설명하기 위하여 역할 담당극을 활용한다.
- ㄹ. 이 표준을 지키는 데 그들에게 개인적으로 도움이 되었던 것에 대해 이야기한다.
- ㅁ. 다른 사람이 이 표준을 지키는 것을 어떻게 도울 수 있는가에 대한 의견을 서로 나눈다.
- ㅂ. 이 표준에 따라 생활할 때 동년배 그룹이나 어떤 한 개인과 마찰을 일으키면 어떻게 할 것인가를 자세히 이야기한다.

## 3. 청소년을 지지함

여러분이 성인들을 가르친다면 청소년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와 그 문제를 극복하는 데 성공한 사례 몇 가지를 간략하게 이야기해 주도록 아버지나 어머니 또는 청남 지도자나 청녀 지도자에게 부탁한다.

반원들에게 지금 들은 것을 잘 생각해 보라고 한다. 그들이 청소년들을 더 잘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 보도록 요청한다. 대답을 칠판에 요약해서 적는다.

대답이 될 수 있는 것들을 아래에 나열한다.

- ㄱ. 청소년들의 이름을 알고 기억한다.
- ㄴ. 그들에 대하여 정말로 관심을 갖는다. 또한 여러분이 관심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그들이 알게 한다.
- ㄷ. 그들의 필요 사항을 확인하고 그 필요 사항을 해결하기 위한 자발적인 노력을 한다.
- ㄹ. 재능과 개인적인 이야기와 성장기의 경험, 그리고 간증을 키워주었던 경험을 이야기해 줄 기회를 찾는다.
- ㅁ. 청소년들을 가르치거나 함께 일하는 부름에서 해임된 후에도 청소년들과의 관계를 계속 유지한다.
- ㅂ. 그리스도와 같은 생활로 좋은 모범을 보인다.
- ㅅ. 과거의 잘못을 용서하고 개인에게 부정적인 낙인을 찍지 않는다.

## 4. “하나님의 전신 갑주” 비디오 발표

신약전서 비디오 발표 자료(53141 320)를 구할 수 있다면, 상영 시간 13분인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보여 주는 것을 고려한다.

**목적** 교회 회원들이 정부에 참여하고, 국법을 지키고 또한 지역 사회를 강화함으로써 훌륭한 시민이 되도록 격려한다.

**준비 사항**

1. 기도하는 마음으로 다음의 성구와 다른 자료들을 공부한다.
  - ㄱ. 교리와 성약 58:21~22, 26~28; 98:4~10; 134편; 신앙개조 제12조
  - ㄴ. 에즈라 태프트 벤슨 장로가 미합중국 농림부 장관으로 재직했던 것에 초점을 맞춘 *우리의 유산*, 133~134쪽
2. *반원 학습 지도서*(35686 320)에서 본 공과에 대한 자료를 살펴본다. 공과 시간에 자료를 참조할 수 있는 방법을 계획한다.

*교사 유의 사항:* 여러 국가와 문화들 간에는 정부와 법이 서로 다르다. 교사가 이 공과에서 무엇을 토의할 것인가를 결정할 때에는 그 나라가 처한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 어떤 지역에서는 이 공과의 3번 항목을 토의하는 데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는 것이 최선일지도 모른다. 논쟁이나 비판을 불러일으킬 토론은 피한다. 교회 지도자들은 항상 법의 테두리 내에서 필요한 변화를 가져 오기 위하여 노력하도록 우리에게 지시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한다.

## 공과 전개 제언

주의 집중 활동 적절한 경우, 공과를 시작하기 위해 다음 활동이나 여러분 자신이 준비한 활동을 활용한다.

1952년에 미합중국의 대통령 드와이트 디 아이젠하워는 십이사도 정원회에서 봉사하던 에즈라 태프트 벤슨 장로에게 농림부 장관으로 재임해 줄 것을 요청했다. 데이비드 오 맥케이 회장의 격려를 받고 벤슨 장로는 그 직책을 받아들여 훌륭하게 봉사했다. 농림부 장관이 된 후 첫 번째 연차 대회에서 그는 이렇게 말씀했다.

“저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위대한 나라와 정부에서 적어도 조그만 방법으로라도, 봉사할 수 있는 특권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제가 미국 대통령의 부름에 응할 때 제일회장단과 [십이사도 정원회의] 형제님들은 기꺼이 승인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축복까지 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Conference Report, 1953년 4월, 40쪽)

- 여러분은 왜 벤슨 장로가 그런 책임을 받아들이도록 격려를 받았다고 생각하는가?

교회 지도자들은 우리가 훌륭한 시민이 되며 우리의 지역 사회와 국가를 강화하도록 격려해 왔다고 설명한다. 훌륭한 시민이 되는 길은 여러 가지가 있다. 여기에는 정부에 참여하거나 정치에 참여하는 것, 국법을 지키는 것, 우리의 지역 사회에서 봉사하는 것이 포함된다. 이 공과에서는 정부와 훌륭한 시민이 되는 것에 관한 주님의 가르침을 토의하게 된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반원들의 필요 사항을 가장 잘 충족시켜 줄 수 있는 공과 자료를 선정한다. 반원들을 격려하여 성구의 원리와 관련된 경험을 이야기해 주도록 한다.

### 1. 정부에 참여함

1835년 8월에 오하이오 주 커틀랜드에서 있었던 교회의 일반 총회에서 정부에 관한 신조의 선언문을 만장 일치로 채택했다. 이 선언문은 교리와 성약 134편에 기록되어 있다.

- 민간 정부의 목적은 무엇인가?(교리와 성약 134:1, 6~8, 11 참조, 대답에는 다음에 기록한 사항이 포함될 수 있다.)

- ㄱ. “사회의 유익과 안전을 위하여”(교리와 성약 134:1)
- ㄴ. “무죄한 자를 보호하며 범죄자를 처벌하기 위하여”(교리와 성약 134:6)
- ㄷ. “모든 시민이 자신들의 종교적 신념을 자유로이 행사함을 보호하기 위하여”(교리와 성약 134:7)
- ㄹ. “모든 부당 행위와 불만 사항의 시정을 마땅히 민법에 호소[하기 위하여]”(교리와 성약 134:11)

- 시민으로서 이러한 정부의 목적 달성을 돕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십이사도 정원회의 엘 톰 페리 장로의 다음 말씀을 읽는다.

“교회 회원인 우리는 수많은 서로 다른 국기 밑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나라에서 우리가 있는 곳과 위치를 이해한다는 것은 참으로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는 우리를 다스리는 국가의 역사와 유산과 국법을 잘 알아야 합니다. 정부의 일에 참여하는 권리를 우리에게 허용하는 나라에서는 우리의 선택의지를 활용하여 진리와 권리와 자유의 원리를 지지하고 수호하는 데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합니다.”(“뜻 깊은 축하 행사”, 성도의 빛, 1988년 1월호, 75~76쪽)

- 정부에 참여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진리와 권리와 자유를 지지하고 수호할 수 있는가?
- 교리와 성약 134편은 “법률을 공평과 정의로 집행할”(3절) 지도자를 찾고 지지해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다. 지도자를 선택할 때 우리는 그 밖에 어떤 자질을 구해야 하는가? 예를 찾아보기 위해(교리와 성약 98:10 참조) 지도자들을 지혜롭게 선택하도록 우리 자신을 어떻게 준비할 수 있는가?

우리가 정부와 정치에 참여할 때에는 우리는 “교회는 정치적으로 중립을 지킨다. 특정 정당이나 정강 또는 후보자를 지지하지 않는다. 후보자들은 자신이 교회나 교회 지도자들의 지지를 받고 있다고 암시해서는 안 된다.”(교회 지침서, 제2권: 신권 및 보조 조직 지도자 [1999년], 316~317쪽)는 것을 이해하고 그렇게 해야 한다.

### 2. 국법을 지킴

- 국법에 관한 우리의 책임은 무엇인가?(교리와 성약 58:21~22; 98:4~6; 134:5~6; 신앙개조 제12조 참조) 부모와 교사들과 지도자들은 어떻게 아이들에게 국법을 지키도록 가르칠 수 있는가?
- 우리는 법의 집행관(경찰, 보안관)과 다른 공무원들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교리와 성약 134:3, 6 참조) 그들의 노력에 대하여 우리는 어떻게 감사하게 여기고 있다는 것을 보여 줄 수 있는가?

- 종교와 정부 사이에 어떤 관계가 존재해야 하는가?(교리와 성약 134: 4, 9 참조. 이들 성구들은 정부는 종교적 의견이 타인의 권리와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한 종교에 대하여 법률로 간섭해서는 안 된다고 가르치고 있다.) 종교는 어떻게 정부를 강화시킬 수 있는가?

### 3. 지역 사회를 강화함

교회 지침서에 나와 있는 다음 사항을 읽어 본다.

“회원들은 사회를 도덕적, 경제적, 문화적으로 강화시킬 조치들을 지지함으로써 시민으로서의 임무를 행해야 한다. 회원들은 자신의 지역 사회를 발전시켜 가족들이 생활하고 양육하기에 좋은 장소로 만들기 위한 합당한 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제2권, 317쪽)

지역 사회를 강화함이라고 칠판에 쓴다.

- 우리가 지역 사회를 강화할 수 있는 방법에는 어떤 것이 있는가?(반원들의 대답에 추가하여 다음 사항을 토의한다. 토의하면서 제목을 칠판에 쓴다.)

다른 사람을 위하여 봉사함

- 왜 교회 회원들이 그들이 사는 지역 사회에서 봉사하는 것이 중요한가?
- 여러분이나 다른 교회 회원이 참여한 지역 사회 봉사 사업에는 어떤 것이 있는가?(이러한 경험들을 이야기해 주도록 반원들에게 부탁한다.) 여러분은 그렇게 해야 할 필요성을 어떻게 알게 되었는가? 그 일을 성공적으로 하기 위해 무엇을 했는가?
- 여러분이나 교회 회원들이 지역 사회에 봉사했던 개인적인, 형식에 얽매이지 않은 방법 중에는 어떤 것이 있는가?
- 오늘날 우리 지역 사회에서 봉사할 수 있는 기회에는 어떤 것이 있는가?(추가로 가르칠 개념 2에서 그에 대한 좋은 의견을 찾아볼 수 있다.) 어떻게 하면 우리는 지역 사회를 위한 봉사 기회를 더 잘 알 수 있는가?(대답에는 신문 읽기, 교회 지도자 모임에서 지역 사회의 필요 사항을 토론하기, 우리가 어떻게 도울 수 있는지 토론하기 위해 공무원들과 회의하기 등이 포함될 수 있다.)
- 지역 사회를 위한 봉사가 어떤 면에서 지역 사회에 유익을 주는가? 우리는 봉사할 때 어떤 방법으로 축복을 받게 되는가?

선출되었거나 임명된 공직자의 직위에서 봉사함

제일회장단이 교회 회원들에게 보낸 다음 서신을 읽는다.

“우리는 형제들과 자매들이 교육 위원회[미국 지방 공립학교의 관리 운영 기관]와 시의회와 군 의회, 시 위원회와 군 위원회 주 의회와 선출되거나 임명되는 다른 높은 공직에서 기꺼이 봉사하도록 강력히 권고합니다.”(제일회장단 서한, 1998년 1월 15일)

- 우리 사회를 위한 공공 봉사를 위한 직책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그러한 직책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지역 사회에 유익을 가져 올 수 있는가?

### 훌륭한 대업이나 활동을 지지함

- 반원들과 함께 교리와 성약 58편 27절을 읽는다. 우리는 지역 사회에서 훌륭한 대업에 참여하기 위해 어떻게 “열심히 노력” 할 수 있는가?

훌륭한 대업을 지지함으로써 자기가 사는 지역 사회와 국가에 크게 공헌한 후기 성도의 다음 이야기를 들려준다.

“1986년에 돌레누 스미스 자매가 토론토 온타리오 스테이크에서 청년 회장으로 봉사하고 있던 때에 그녀는 한 전문가에게 노변의 모임에서 점차로 증가하는 외설물(호색문화)의 문제점에 대하여 이야기해 주도록 부탁했다. 후에 그녀는 캐나다인 포 디슨시 (예절을 지키기 위한 캐나다인의 모임)라고 불리는 전국적인 단체에 관여하게 되었다. 이 단체는 수천 명의 외설물 반대자인 캐나다인을 동원하여 증가하는 외설물이 분명한 걱정거리임을 알리기 위하여 선출된 공직자들을 접촉하도록 하고 있었다. ...”

“... 1990년에 그녀가 그 단체의 회장으로 임명되자 그녀는 더욱 더 이 일에 관여하게 되었다. 이 단체의 회장으로서는 그녀는 외설물 규제에 관한 법률들을 만들고 수정하는 주나 연방 정부 기관 앞에서 수많은 발표와 연설을 했다. 그녀는 또한 그들 지역 사회에서 외설물이 퍼지는 것을 엄격히 통제하기 위하여 지방 정부 기관과 협조하여 일하는 수많은 시민 단체 앞에서도 연설했다.” (Donald S. Conkey, “Together We Can Make a Difference,” *Ensign*, 1996년 2월호, 68쪽)

- 지역 사회에서 우리가 지지를 보낼 수 있는 훌륭한 운동에는 어떤 것이 있는가? 우리는 우리 사회에 있는 악의 영향력에 대항하여 어떻게 싸울 수 있는가?
- 지역 사회에서 봉사하는 데 봉착하게 되는 어려운 점은 무엇인가? 이러한 문제들을 우리는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가?(한 가지 문제는 우리가 봉사할 필요가 있는 시간을 조정하는 것이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 한 가지 방법은 가족이나 워드 회원이, 가능한 경우, 함께 봉사하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 봉사하는 동안에 가족이 떨어져 있지 않고 함께 있을 수 있다.)

### 결론

십이사도 정원회의 엠 러셀 벨라드 장로의 다음 이야기를 들려준다.

“교회에서 우리는 종종 ‘세상에 살되 세상에 속하지 말라’는 말을 합니다. ... 이 말씀은 별도의 두 부분으로 된 두 개의 권고의 말씀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부분은 ‘세상에 살되’입니다. 참여하십시오, 세상 돌아가는 형편을 아십시오. 분별력을 키우고, 관용을 보이며, 다양성을 인식하도록 노력하십시오. 봉사와 참여를 통하여 사회에 뜻 있는 공헌을 하십시오. 두 번째 부분은 ‘세상에 속하지 말라’입니다. 그릇된 길을 따르지 마십시오, 옳지 않은 것을 수용하거나 받아들이기 위해 타협하지 마십시오. ...”

“교회의 회원들은 영향을 받기보다는 영향을 주어야 합니다. 우리는 죄와 악의 조류에 수동적으로 휩쓸려 가기보다는 그것을 막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는 문제점을 피하거나 무시하기보다는 그것을 해결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습니다.”(“TV의 영향력”, *성도의 빛*, 1989년 7월호, 98~99쪽)

어디에 살든지 관계없이 우리는 후기 성도로서 훌륭한 시민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한다. 반원들에게 훌륭한 정부를 지지하고 그들의 사회를 강화시키기 위하여 그들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하도록 격려한다.

**추가로 가르칠 개념**

다음 자료는 제언된 공과 개요를 보충해 주는 것이다. 여러분은 이러한 개념 가운데서 한 가지 이상을 공과의 일부로 활용할 수 있다.

**1. 지역 사회에서의 자원 봉사에 관한 보고**

미리 와드나 지부의 회원 중 한 명에게 여러분의 지역 사회에서 조직화된 자원 봉사와 이들 봉사에 참여하는 방법에 대한 보고를 해 주도록 부탁한다. 또는 지역 사회 봉사를 하고 있는 반원에게 그가 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설명하도록 부탁한다.

개인이나 집단으로서 우리가 지역 사회에 봉사하기 위해 사전에 교회 지도자들로부터 부름이나 지명을 기다릴 필요가 없다는 것을 토의의 일부로 강조한다.

**2. 지역 사회 봉사를 위한 좋은 아이디어**

반원들이 지역 사회 봉사를 하기 위한 방법을 생각해 내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다음과 같은 아이디어를 제언할 수 있다. 이 토론의 일부로서 반원들이 마태복음 25절 34~40절을 읽게 한다.

**건강 관련 봉사:** 병자를 위한 의복이나 음식을 만들, 병원 또는 이웃의 병든 아이를 돌봄, 가족이 없는 병원의 환자에게 꽃을 가져다줌. 특별한 명절에 환자들에게 선물을 전함.

**사회 봉사:** 젊은이들이 기술을 개발하기 위한 모임을 조직하거나 지도하는 것을 도움, 고아나 지역 사회 학교에 있는 사람들이나 장애인들에게 바느질, 요리, 공예, 또는 다른 기술들을 가르쳐 줌, 양로원에 있는 노인들에게 책을 읽어 줌, 여러분의 가족이나 이웃의 노인들을 방문하여 이야기함.

**3. 예의바른 행동을 통하여 지역 사회를 강화함**

고든 비 힝클리 회장의 다음 말씀을 들려준다.

“예의가 이루어 놓는 일은 참으로 놀랍습니다. 예의가 없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은 비극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도시의 차량들을 따라 운전하고 있을 때 우리는 매일 그런 것을 봅니다. 다른 사람이 끼어 들도록 양보하느라고 보낸 잠시 동안은 도움을 받은 사람에게도 좋지만 양보한 사람에게도 유익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예의바르고 공손하게 대할 때, 우리 마음속에는 특별한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한 일이 계속되면 그것은 우리 모두의 천성을 바꾸어 놓는 순화 과정의 일부가 됩니다.”(“깨끗할지어다”, 성도의 벗, 1996년 7월호, 53쪽)

- 우리는 매일 다른 사람에게 예의바른 태도로 대할 어떤 기회를 갖는가?(대답에는 우리가 일할 때, 운전할 때, 시장 볼 때, 단순히 길을 걸어갈 때가 포함될 수 있다.) 어떻게 예의가 지역 사회를 강화시킬 수 있는가?

# “가족은 하나님께서 제정하여 주신 것이다”

**목적** 반원들에게 가족은 영원히 중요하다는 것을 이해하도록 돕고 그들이 가족을 강화하도록 격려한다.

- 준비 사항**
1. “가족: 세상에 전하는 선언문”(성도의 빛, 1996년 6월호, 10~11쪽)을 기도하는 마음으로 공부한다. 공과 중 참고할 수 있도록 모든 반원은 이 선언문 사본을 하나씩 가지고 있어야 한다. 이 선언문은 이 교재의 265쪽에 나와 있으며 *반원 학습 지도서*(35686 320)의 25~26쪽에도 나와 있다. 이 선언문은 또한 별도의 인쇄물(35602 320 및 35538 320)로도 구할 수 있다.
  2. *반원 학습 지도서*(35686 320)에서 본 공과에 대한 자료를 살펴본다. 공과 시간에 자료를 참조할 수 있는 방법을 계획한다.
  3. 주의 집중 활동을 활용하려면, 반원들이 “가족은 영원해”(찬송가, 189장; *어린이 노래책*, 98쪽)을 함께 부를 수 있도록 준비한다. 또는 몇 명의 초등학교 아이들이 여러분의 반으로 와서 그 노래를 부르도록 초대한다.

*교사 유의 사항:* 반원 중에는 가족 상황이 다양할 수 있다. 그들의 차이점에 신경을 쓰고 모든 사람은 지상의 부모와 함께 이루는 가족의 일원이고 또한 하늘의 부모와 함께 이루는 가족의 일원이라고 강조한다.

## 공과 전개 제언

- 주의 집중 활동** 적절한 경우, 공과를 시작하기 위해 다음 활동이나 여러분 자신이 준비한 활동을 활용한다.
- 반원들이 “가족은 영원해”를 부르도록 하거나 초등학교 어린이들이 그 찬송가를 부르도록 초청한다.(“준비 사항” 3 참조)
- 노래를 부른 후 반원들에게 후렴에 나오는 가사를 상기시켜 준다. “나 언제나 가족과 함께 하도록 주님 방법 보여 주셨네”
- 이 공과에서는 제일회장단과 십이사도 정원회를 통해 주신 가족에 관한 주님의 가르침이 들어 있는 “가족: 세상에 전하는 선언문”을 토론하게 된다고 설명한다. 이 가르침에 따름으로써 우리들은 이생에서 가족을 강화하고 단합시킬 수 있으며 또한 영원한 가족으로서 살 준비를 할 수 있을 것이다.

**토론과 적용** 기도하는 마음으로 반원들의 필요 사항을 가장 잘 충족시켜 줄 수 있는 공과 자료를 선정한다. 반원들을 격려하여 성구의 원리와 관련된 경험을 이야기해 주도록 한다.

### 1. 가족은 하나님의 계획의 중심이다.

“가족: 세상에 전하는 선언문”은 1995년 9월에 본부 상호부조회 총회에서 고든 비 힝클리 회장이 발표했다고 설명한다. 그 이래로 세계 전역에 있는 교회 회원들과 다른 사람들을 위해 많은 언어로 다시 인쇄되었다. 이 선언문은 또한 많은 나라의 정부 지도자들에게도 증명되었다.



한 반원에게 이 선언문의 제목과 첫 두 단락을 읽도록 한다.

- 우리 자신의 가정과 지역 사회와 국가에서 하나님의 선지자가 하신 이와 같은 권고와 경고의 필요성을 시사하는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고든 비 힝클리 회장은 이렇게 가르쳤다. “왜 우리는 지금 가족에 대한 이러한 선언문을 갖고 있습니까? 그 이유는 바로 가정이 공격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계 도처에서 가정이 파괴되고 있습니다. 사회를 향상시키려면 그 장소는 가정에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영감을 주는 말씀들”, 성도의 벗, 1997년 8월호, 5쪽)

- 선언문에는 결혼과 가정은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것”이고 “그의 자녀들의 영원한 운명을 위하여 마련하신 계획의 중심” 이라고 명시되어 있다. 왜 가족이 그의 자녀들의 영원한 운명을 위하여 마련하신 계획의 중심인가?(교리와 성약 131:1~4; 고린도 전서 11:11 참조)
- 선언문에는 우리가 모두 그분의 형상대로 창조된 영의 자녀라고 명시되어 있다.(또한 창세기 1:26~27 참조) 이 교회는 우리의 잠재력에 대하여 무엇을 가르쳐 주는가? 여러분이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가족 구성원이라는 사실에 대한 지식이 지상에 있는 가족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에 어떤 영향을 주는가? 이 교리는 우리를 어떻게 강화할 수 있는가?

## 2. 가족은 성스러운 의식을 통해 영원히 함께 살 수 있게 되었다.

반원 한 명에게 선언문의 세 번째 단락을 읽도록 부탁한다.

- 이 단락은 지상 생활의 목적에 대하여 무엇이라고 가르치고 있는가? 우리의 지상에서의 경험은 우리가 영원한 진보를 하는 데 어떻게 도움이 되는가?
- 결혼과 가족이 영원하게 되기 위하여서는 무엇이 필요한가? (부부는 성전에서 인봉 의식을 받고 그 의식과 관련된 성약을 지켜야 한다.)
- 성전 성약을 지키겠다는 우리의 결심을 어떻게 강화할 수 있는가? 부모들은 그들의 자녀가 성전에 들어갈 준비를 하는 것을 어떤 면에서 도울 수 있는가?
- 우리가 가족들과 함께 영원히 살 수 있을 것이란 약속이 우리가 지금 가족들을 대하는 방식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 3. 생명을 창조하는 능력은 성스러운 것이다.

반원 한 명에게 선언문의 넷째 및 다섯째 단락을 읽도록 부탁한다.

- 하나님께서는 생명을 창조하는 능력의 사용과 관련하여 무엇이라고 명하셨는가? 우리의 영원한 진보에서 지상 경험이 어떻게 도움이 되는가?

십이사도 정원회의 헨리 비 아이어링 장로는 이렇게 가르쳤다.

“자녀들은 이 지상 생활 동안뿐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업입니다. 영생은 이 생에서 얻은 후손들과 영원히 함께 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영생은 또한 영원히 증식을 하는 것입니다. ...”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존중하며 출산의 능력을 신성하게 여겨야 한다고 명하신 이유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 지상 생활 동안 그러한 경건한 느낌을 갖지 않는다면, 어떻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와 같은 능력을 내세에서 우리에게 주실 수 있겠습니까?”(“가족”, 성도의 벗, 1998년 10월호, 17, 18쪽)

십이사도 정원회의 제프리 알 홀런드 장로는 이렇게 가르쳤다. “육체는 사람에게 없어서는 안 될 주요한 일부입니다. … 주님의 허락도 없이 (하나님이 주신) 다른 사람의 육신을 이용하는 것은 그 개인의 영혼 그 자체를 확대하는 것이며 생명의 주요 목적과 과정을 오용하는 것이라고 선언합니다. 성적인 죄를 짓는 가운데 그 생명, 즉 육과 영이 위험에 처하게 됩니다.”(“개인적인 순결”, *리아호나*, 1999년 1월호, 76쪽)

- 부모들은 자녀들이 성적 순결의 중요성을 이해하도록 돕기 위하여 무엇을 할 수 있는가?(*청소년의 힘을 위하여*[36550 320] 또는 *부모 지도서*[31125 320]에서 성적 순결에 관한 가르침을 찾아 자녀들과 함께 재검토해 보도록 부모들에게 제안할 수 있다.)

#### 4. 부모들은 서로를 돌보며 자녀들을 가르칠 신성한 의무가 있다.

반원 한 명에게 선언문의 여섯 번째 단락을 읽도록 부탁한다.

- 결혼한 부부가 서로에 대한 사랑을 강화하기 위하여 무엇을 할 수 있는가?

고든 비 힝클리 회장은 이렇게 가르쳤다. “결혼하면 서로간에 철저하게 충실하십시오. 이기심은 가정 생활의 행복을 파괴하는 큰 파괴자입니다. 만일 배우자의 안락과 복리와 행복을 여러분의 가장 큰 관심사로 삼는다면, 그리고 여러분의 개인적인 관심을 그와 같은 더 높은 목표를 위해 돌린다면 여러분의 결혼은 영원토록 지속될 것입니다.”(“살아 계신 선지자의 말씀”, *성도의 벗*, 1996년 4월호, 10쪽)

- 자녀들이 서로 사랑하고 배려하는 부모를 갖고 있는 것이 어떻게 그들에게 축복이 되는가?
- 부모들은 그들의 자녀에게 무엇을 가르쳐야 할 책임이 있는가?(모사야서 4:14~15; 교리와 성약 68:25~28; 93:4 참조) 이러한 원리들을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효과적인 방법에는 어떤 것이 있는가? 부모들의 가르침으로부터 여러분은 어떻게 유익을 얻었는가?
- 부모들이 그들의 자녀를 가르칠 수 있는 좋은 기회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대답에는 가정의 밤, 가족 기도, 식사 시간, 잠자는 시간, 함께 여행하기, 함께 일하기 등이 포함될 수 있다.) 반원들에게 이 상황들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그들의 자녀들을 가르쳤던(또는 그들의 부모가 자신들을 가르쳤던) 경험들을 나누도록 권유한다.
- 자녀들을 가르치는 것에서 교회의 역할은 어떤 것인가?(다음 인용문 참조) 자녀들을 가르치기 위하여 부모들은 어떻게 교회와 함께 일할 수 있는가?

스펜서 더블류 김볼 회장은 이렇게 말씀했다. “자녀들을 가르치는 책임은 부모에게 있습니다. 주 일학교와 초등학교, [상호향사회] 그밖에 다른 교회 조직은 2차적인 역할을 합니다.” (*The Teaching of Spencer W. Kimball*, ed. 에드워드 엘 김볼 [1982년], 332쪽)

#### 5. 성공적인 결혼과 가족은 의로운 원리에 기초를 두고 있다.

반원 한 명에게 선언문의 일곱 번째 단락을 읽도록 부탁한다.

- 선언문은 “가족 생활의 행복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근거를 둘 때 가장 훌륭하게 성취될 수 있다.”라고 가르치고 있다. 그리스도의 가르침이 어떻게 여러분의 가정에 행복을 가져왔는가?
- 선언문은 “성공적인 결혼과 가족은 신앙, 기도, 회개, 용서, 존경, 사랑, 동정심, 일, 그리고 건전한 오락 활동 등의 원리 위에 이루어지고 유지된다.”라고 선언하고 있다. 위에 열거한 원리 중

어떤 것이 특별히 여러분의 결혼과 가족에게 중요했는가? 가족에게 이들 원리를 가르치는 데 여러분이 알게 된 효율적인 방법에는 어떤 것이 있는가? (주님의 영을 받으면, 이들 원리 중 한두 개에 초점을 맞출 수도 있다. 선언문의 이 부분에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싶으면 추가로 가르칠 개념 4를 참조한다.)

- 선언문에 의하면 아버지들의 일차적인 책임은 무엇인가? “온화함과 … 거짓없는 사랑으로 … 되어야 하나니”(교리와 성약 121:41~46 참조)라는 말은 무슨 의미인가?
- 소년들과 청년들은 그들의 가족을 돌보기 위하여 지금 어떻게 자신을 준비시킬 수 있는가? 부모들이 젊은이들에게 학교 교육을 받고 실용적인 기술을 배우도록 어떻게 격려할 수 있는가?
- 선언문에는 어머니들의 일차적인 책임을 무엇이라고 묘사하고 있는가? 청년들이 이러한 책임을 완수하기 위하여 지금 자기 자신을 어떻게 준비할 수 있는가?

고든 비 힝클리 회장은 이렇게 가르쳤다.

“만일 예전의 신성한 가치들로 돌아가길 원한다면, 그 일은 가정에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진리를 배우고 성실성을 키우며 자율이 몸에 배도록 하고 사랑을 키우는 곳은 바로 이곳 가정입니다.”

“자매 여러분, 자녀들을 보호하십시오. … 어머니로서 여러분에게 자녀보다 더 소중한 것은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녀는 여러분이 현세나 영원한 세상에서 갖게 될 가장 값진 보물입니다. 나이가 들어 여러분이 이 세상에 데려온 자녀들을 바라보았을 때 그들에게서 의로운 삶과 유덕한 생활과 그들의 품행에서 성실성을 발견할 수 있게 된다면 여러분은 참으로 다행일 것입니다.”(“주님의 빛 안에서 걸어감”, 리아호나, 1999년 1월호, 98~99쪽)

- 아버지들은 그들의 자녀를 양육하는 데 어떻게 도울 수 있는가? 왜 부모가 동등한 동료로서 서로를 돕는 것이 중요한가?

## 6. 가족을 강화시키는 것은 모든 사람들의 책임이다.

선언문은 가족의 붕괴에 따른 심각한 결과에 대한 경고와 가족을 강화하도록 당부하는 권고로 끝을 맺고 있다. 반원 한 명에게 선언문의 마지막 두 단락을 읽도록 부탁한다.

- 여러분이 한 일 가운데 가정에 더 큰 힘과 단합을 가져오는 데 도움이 되었던 일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 개인 또는 가족으로서 우리가 속한 지역 사회에서 가족 강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

고든 비 힝클리 회장은 시장들과 다른 공직자들의 모임에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했다. “우리 나라의 여러 도시를 관리하고 계신 큰 영향력을 지니신 여러분에게 건축하고 관리하는 데 막대한 돈이 드는 교도소와 감옥을 계속 짓는 것보다는 학교를 개혁하고 훌륭한 시민이 되는 미덕을 가르치는 것이 훨씬 비용이 적게 들 것이라고 말씀드립니다. … 그렇지만 학교보다 훨씬 더 중요한 또 하나의 기관이 있습니다. 그것은 가정입니다. 저는 어떠한 나라도 그 나라에 있는 가정의 힘보다도 더 높게 발전할 수는 없다고 믿습니다.”(“U.S. Conference of Mayors,” *Ensign*, 1998년 11월호, 109쪽)

- 국가가 존속하기 위하여서는 왜 가족이 강해야 되는가?

반원들에게 그들의 가족을 생각해 보고 다음과 같은 질문들을 생각해 보라고 목표를 준다. 우리 가족 모두는 내가 그들을 사랑한다고 느끼고 있는가? 우리는 영원한 가족으로서 살려고 노력하고 있는가? 우리 가족을 강화하기 위하여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선언문에 나오는 원리들이 참되다는 것을 간증한다. 그리고 반원들에게 그 가르침을 계속 공부하고 생활에 적용하도록 격려한다.

**추가로 가르칠 개념**

여러분은 제언된 공과 개요를 보충하기 위하여 다음 개념 가운데서 한 가지 이상을 활용할 수 있다.

**1. 학대를 인식하고 피함**

선언문은 “배우자나 자녀를 학대 [하는 사람]은 …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 책임지게 되리라는 것”을 경고하고 있다. 교회 지도자들은 어떠한 종류의 학대에 대하여서도 반대한다는 것을 밝혀 왔다. 고든 비 헝클리 회장이 신권 소유자들에게 하신 아래에 인용한 말씀은 형제나 자매 모두에게 적용될 수 있다.

“절대로 아내를 학대해서는 안 됩니다. 자녀들도 절대 학대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들을 품속으로 불러들여 여러분의 사랑과 감사와 존경을 느끼게 하십시오. 좋은 남편이 되십시오. 그리고 훌륭한 아버지가 되십시오.”(“영감의 말씀”, *리아호나*, 1999년 6월호, 4쪽)

**2. “부모의 책임” 비디오 발표**

*교리와 성약 및 교회사 비디오 발표 자료(53912 320)*를 구할수 있다면, 상영 시간 7분인 “부모의 책임”을 보여 주는 것을 고려한다. 비디오를 보면서 다음 질문을 생각해 보라고 반원들에게 이야기 한다.

- 부모의 가르침을 통해 여러분은 어떤 방법으로 축복을 받아 왔는가?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으로부터 무엇을 배우기를 바라는가?

**3. 가족에 관한 추가적인 말씀**

십이사도 정원회의 로버트 디 헤일즈 장로의 다음 말씀을 읽는다.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은 가족의 사랑과 동반이 영원토록 계속되는 것입니다. 가족이 된다는 것은 가족 하나 하나를 돌보고 사랑하고 격려하고 강화시키는 큰 책임을 짊어지고 가족이 모두 죽을 때까지 의롭게 견디고 영원히 함께 살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만 구원하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우리 가족이 부모와 형제와 자매들이 구원받는 것도 똑같이 중요합니다. 만일 우리가 혼자 하나님 아버지께 돌아간다면 ‘나머지 가족들은 어디 있느냐?’ 라는 질문을 받게 될 것입니다.”(“영원한 가족”, *성도의 빛*, 1977년 1월호, 65쪽)

**4. 그룹 토론**

선언문의 일곱 번째 단락에 열거된 성공적인 결혼과 가족이 되기 위한 아홉 가지 원리를 칠판에 적는다. (“성공적인 결혼과 가족”이란 표현 뒤에 나와 있음) 반원을 여러 그룹으로 나누어 각 그룹에 한 개 이상의 원리를 준다. 반원들에게 그들의 가정에서 이러한 원리들을 확립하고 강화하는 것을 도울 방법을 생각해 보도록 요청한다. 각 그룹이 이것을 토의할 수 있도록 몇 분을 허용하고 난 후 각 그룹에서 한 사람씩 대표로 자기가 속한 그룹의 생각을 발표하도록 요청한다.

## 5. 선언문을 가정의 밤에서 토의함

반원들에게 이번 주 가정의 밤 때 가족 선언문을 토의해 보도록 제언한다. 다음 주 공과를 시작하기 전에 토의한 경험에 대하여 이야기해 줄 준비를 하라고 반원들에게 부탁한다.

### 가 족

## 세상에 전하는 선언문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 제일회장단 및 십이사도 평의회

**우** 리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의 제일회장단과 십이사도 평의회는 남녀간의 결혼은 하나님이 제정하여 주신 것이며 가족은 창조주께서 그의 자녀들의 영원한 운명을 위하여 마련하신 계획의 중심이라는 것을 엄숙하게 선언한다.

**모** 든 인간, 즉 남자와 여자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 사람은 모두 하늘 부모의 사랑하는 영의 아들과 딸이며, 따라서 각각 신성한 품성과 운명을 지니고 있다. 남녀의 성별은 각 개인의 전세와 현세와 영원에 걸친 개인의 신분과 목적을 결정하는 본질적인 특성이다.

**전** 세에서 영의 아들과 딸들은 하나님을 그들의 영원하신 아버지로 알고 경배하였으며, 그의 계획을 받아들였다. 그 계획에 의하여 그의 자녀들은 육신을 입고 지상 생활의 경험을 통하여 완전을 향해 발전하여 궁극적으로 영생의 상속자로서 자신의 신성한 운명을 실현할 수 있게 되었다. 하나님의 행복의 계획은 가족 관계를 무덤 너머까지 계속 되게 한다. 거룩한 성전에서 행해지는 신성한 의식과 성약은 개개인을 하나님의 면전에서 돌아갈 수 있게 하며 가족을 영원히 하나로 결속시켜 준다.

**하** 나님께서 아담과 이브에게 주셨던 최초의 계명은 그들이 남편과 아내로서 부모가 될 수 있는 잠재력에 관한 것이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자녀들에게 변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명하신 계명이 여전히 유효함을 선언한다. 더 나아가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출산의 신성한 능력은 남편과 아내로서 합법적으로 결혼한 남자와 여자 사이에서만 사용되어야 한다고 명하심을 선언한다.

**우** 리는 생명을 창조하는 방법을 하나님께서 정하여 주셨음을 선언한다. 우리는 생명이 존엄한 것이며,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에서 생명이 참으로 중요하다는 것을 분명히 밝힌다.

**남** 편과 아내는 배우자와 자녀들을 사랑하고 돌보아야 할 엄숙한 책임을 지니고 있다. '자식들은 어호와와 기업'(시편

127:3)이다. 부모는 자녀를 사랑과 의로움으로 양육하고, 그들에게 물질적으로나 영적으로 필요한 사항을 충족시켜 주며, 그들이 서로 사랑하고 봉사하며,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어디서 살든지 법률을 준수하는 시민이 되도록 가르쳐야 할 거룩한 의무를 지니고 있다. 남편과 아내 곧 어머니와 아버지는 이 의무의 이행에 대해 하나님 앞에 책임을 지게 될 것이다.

**가** 족은 하나님께서 제정하여 주신 것이다. 남녀간의 결혼은 그의 영원한 계획에서 반드시 필요한 요소이다. 자녀들은 결혼의 테두리 안에서 태어나 결혼 서약을 완전하고 성실하게 지키는 부모에게 양육 받을 권리가 있다. 가족 생활의 행복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근거를 둘 때 가장 훌륭하게 성취될 수 있다. 성공적인 결혼과 가족은 신앙, 기도, 회개, 용서, 존경, 사랑, 동정심, 일 그리고 건전한 오락 활동 등의 원리 위에서 이루어지고 유지된다. 하나님의 계획에 의하여 아버지는 자신의 가족을 사랑과 의로움으로 다스려야 하며, 생활에 필요한 것들을 마련하고 가족을 보호할 책임이 있다. 어머니의 주된 책임은 자녀를 양육하는 것이다. 이러한 신성한 책임을 수행할 때 아버지와 어머니는 동등한 동반자로서 서로를 도울 의무가 있다. 장애나 죽음이나 기타 다른 상황에 따라 이러한 원리를 개별적으로 조절할 필요가 있을 수도 있다. 필요한 경우, 친척이 도움을 주어야 한다.

**우** 리는 순결에 관한 성약을 어기거나, 배우자나 자녀를 확대하거나, 가족의 책임을 이행하지 않는 사람들은 언젠가 하나님 앞에 책임지게 되리라는 것을 경고한다. 더 나아가서 우리는 가족이 붕괴될 때 개인과 지역 사회와 국가에 고대와 현대의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재난이 닥칠 것이라는 사실을 경고한다.

**우** 리는 온 세상의 책임 있는 시민과 정부 관리들에게 가족을 사회의 기본 단위로 유지하고 강화하기 위한 방안들을 시행하여 줄 것을 요청한다.

본 선언문은 1995년 9월 23일 유타 주 솔트레이크시티에서 열린 상호부조회 총회에서 고든 비 형클러 회장이 말씀의 임부로 낭독한 것이다.

© 1995년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 판권 소유. (The Family-A Proclamation To The World, Korean) 10/95(10/95) Printed in Korea. 35602 320

**목적** 반원들이 시온에 대하여 경전이 가르치고 있는 것을 이해하도록 돕는다. 또한 시온을 세우도록 그들에게 영감을 불러넣는다.

- 준비 사항**
1. 기도하는 마음으로 다음 성구와 다른 자료들을 공부한다.
    - ㄱ. 교리와 성약 57:1~3; 64:33~43; 82:14~15; 97:8~28; 105:1~12; 모세서 7:12~19, 61~63, 68~69; 신앙개조 제10조
    - ㄴ. 우리의 유산, 37~38, 145~146쪽.
  2. 반원 학습 지도서(35686 320)에서 본 공과에 대한 자료를 살펴본다. 공과 시간에 자료를 참조할 수 있는 방법을 계획한다.
  3. 반원 한 명에게 모세서 7장 12~19, 68~69절에 기록된 예녹의 도시에 관한 이야기를 요약하도록 준비하라고 요청한다.
  4. 주의 집중 활동을 하려면, 각 반원을 위하여 종이와 필기 도구를 준비하여 가져온다.

**공과 전개 제언**

주의 집중 활동 적절한 경우, 공과를 시작하기 위해 다음 활동이나 여러분 자신이 준비한 활동을 활용한다.

반원들에게 종이와 필기 도구를 나누어 준다. 그들에게 인생에서 이루고 싶은 다섯 가지 중요한 일을 적어 보게 한다. 적을 시간을 준 후 선지자 조셉 스미스가 한 다음 말씀을 읽는다.

“우리는 시온의 건설을 우리의 가장 큰 목표로 삼아야 합니다. ... 사람이 시온과 시온의 스테이크에서만 평화를 얻을 수 있는 날이 곧 올 것입니다.”(선지자 조셉 스미스의 가르침, 조셉 필딩 스미스 편[1976년], 150~151쪽)

다음 질문에 대하여 대답은 하지 않고 깊이 생각만 해 보도록 반원에게 부탁한다.

- 여러분이 작성한 목록 중 몇 개가 시온을 건설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인가? 선지자 조셉 스미스의 권고에 따르면 여러분은 여러분이 작성한 목록을 어떻게 수정할 수 있는가?

교리와 성약에 있는 계시들 속에는 시온을 건설함과 관련된 많은 교훈이 들어 있다. 이 공과는 시온이란 무엇이며 시온 건설을 돕기 위하여 요구되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하여 토의한다.

**토론과 적용** 기도하는 마음으로 반원들의 필요 사항을 가장 잘 충족시켜 줄 수 있는 공과 자료를 선정한다. 반원들을 격려하여 성구의 원리와 관련된 경험을 이야기해 주도록 한다.

## 1. 시온이란 말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다.

시온이란 말은 경전 상에서 여러 가지 의미를 갖는다고 설명한다. 다음 성구를 반원들과 함께 읽는다. 각 성구에 나와 있는 시온의 의미를 찾아서 칠판에 적는다.

- ㄱ. 교리와 성약 97:21.(마음이 청결한 자)
- ㄴ. 교리와 성약 82:14.(교회와 교회의 스테이크들)
- ㄷ. 모세서 7:19.(예녹의 도시)
- ㄹ. 사무엘하 5:6~7; 열왕기상 8:1.(고대 예루살렘)
- ㅁ. 교리와 성약 45:66~67; 57:1~2; 신앙개조 제10조.(미국 미주리 주에 건설될 새 예루살렘)
- ㅂ. 히브리서 12:22~23.(승영에 이른 사람들이 사는 곳)

경전 상으로는 시온은 주님의 백성(마음이 청결한 자)을 뜻할 수도 있고 특정한 장소를 뜻할 수도 있고 양자 모두를 뜻할 수도 있다고 강조한다. 이 공과에서 우리 시대에 시온을 건설하는 것에 대하여 말할 때 그것은 우리가 사는 곳이 시온이라고 불릴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 2. 시온은 이전의 경륜의 시대에도 존재했다.

이전의 경륜의 시대에서도 시온이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존재했던 일이 몇 번 있었다고 설명한다. 예녹의 도시가 백성들이 건설했던 시온의 한 예다. 미리 지명 받은 반원이 모세서 7장 12~19, 68~69절에 기록된 사건들을 요약하도록 부탁한다.

- 예녹 시대의 시온의 특성은 무엇인가?(모세서 7:12~19참조) 왜 그들의 도시를 시온이라 불렀는가?(모세서 7:18 참조) “한 마음 한 뜻이 되어”란 무엇을 의미하는가?
- 복천년에는 예녹의 도시에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가?(모세서 7:61~63 참조. 예녹의 도시는 지상으로 돌아와 새 예루살렘의 일부가 될 것이다.) 예녹과 그의 백성에 관한 이야기가 왜 오늘날 우리에게 중요한가? (예녹의 도시의 운명을 우리가 이해하도록 돕는 것 외에 그 이야기는 우리가 시온을 건설하기 위하여 무엇을 해야 되는지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 3. 우리 시대의 성도들은 시온을 건설하도록 명령을 받아 왔다.

교리와 성약에서 가장 빈번하게 언급되는 주제 중의 하나는 후기에 시온을 건설하는 것이다. 이들 계시 가운데 시온에 관한 언급이 200곳 이상이 된다. 이들 중 일부는 지리적 위치에 대한 것이고, 일부는 마음의 상태에 대한 것이며 또 일부는 주님의 교회를 건설하는 것에 대한 것이다. 교회가 공식적으로 설립되기 이전부터 주님께서서는 여러 형제들에게 “시온의 대업을 일으켜 굳게 세우기를 구하라”(교리와 성약 6:6; 11:6; 12:6; 14:6 )라고 지시하셨다.

초기 성도들에게는 시온을 건설한다는 것이 마음이 청결하게 되고 하나가 되어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할 뿐만 아니라 시온이란 도시, 즉 새 예루살렘을 건설하는 것을 의미하기도 했다. 1831년 7월에 주님께서서는 선지자 조셉 스미스에게 시온의 도시는 인디펜던스를 도시의 중심부로 하여 미주리 주에 건설해야 한다고 계시하셨다.(교리와 성약 57:1~3 참조) 이 계시를 받은 후 많은 성도들이 미주리 주로 모여들었다. 그들은 잠시 번영했지만 그들 가운데 다툼과 분열이 일어났다. 또한 그 지

역에 살던 다른 정착민들과 갈등 관계에 놓이기도 하였다. 1833년 11월에 폭도들이 성도들을 그들의 집에서 몰아내었다. 몇 개월 후인 1834년 7월에 주님께서서는 성도들이 “시온의 구축을 잠시 동안 기다”(교리와 성약 105:9)려야 한다고 계시하셨다.(시온의 도시를 미주리 주에 건설하는 것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을 알기 위하여 12과 및 27과를 참조한다.)

- 왜 초기 성도들은 시온의 도시를 건설할 수 없었는가?(교리와 성약 101:6~8; 105:1~12 참조) 오늘날 우리가 시온을 건설하는 데 그들의 경험으로부터 도움이 될 수 있는 어떤 것을 배울 수 있는가? (시온을 건설하기 위하여서는 ... 시온을 도시에다 세우든, 우리의 스테이크에다 세우든, 우리의 집에 세우든 관계없이 ... 우리는 시온 백성의 자질, 즉 깨끗한 마음과 화합과 이타심을 계발하여야 한다는 것을 설명한다.)

비록 시온의 도시 건설이 연기되었지만 후기의 선지자들은 우리에게 우리의 마음속과 스테이크와 가정에 시온을 건설하려는 노력을 계속하도록 권고해 왔다고 설명한다. 해롤드 비 리 회장은 이렇게 말씀했다.

“의로운 자와 마음이 청결한 자가 거할 시온의 경계가 이제부터 넓혀져야 합니다. 또 시온의 스테이크가 강화되어야 합니다. 그리하여 전세계적으로 구원의 계획을 부지런히 실천함으로써 시온은 일어나 빛을 발하게 될 것입니다.”(Conference Report, 1973년 4월, 5쪽; *Ensign*, 1973년 7월호, 3쪽)

- 반원들과 함께 교리와 성약 82편 14~15절을 읽는다. 이들 성구에서 주님은 무엇을 명하셨는가? 우리가 시온을 건설하기 위하여 해야 할 구체적인 것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반원들에게 다음 경전 구절들을 읽어 보고 시온을 건설하는 것에 대하여 무엇이라고 가르치는지 확인해 보게 한다. 칠판에 내용을 요약한다. 토의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질문 중 일부를 선택한다.)
  - ㄱ. 교리와 성약 97:21.(마음이 청결한 자가 되도록 노력한다.) 주님께서 시온을 “마음이 청결한 자”(교리와 성약 97:21)라고 말하셨을 때 그것은 시온을 가장 간결하게 정의하신 것이다.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되기 위하여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는가?(모로나이서 7:47~48; 10:32 참조)
  - ㄴ. 교리와 성약 38:27.(하나가 되라) 예녹의 도시에 사는 사람들을 “한 마음 한 뜻이 되어”라고 묘사하고 있다. 하나가 되지 못한 것이 초기 성도들이 시온의 도시를 건설하지 못한 이유들 중의 하나이다.(교리와 성약 105:4 참조) 가족 간에 화합을 높이는 효율적인 방법에는 어떤 것이 있는가? 우리는 어떻게 우리 와드 안에서 좀 더 화합할 수 있는가?
  - ㄷ. 교리와 성약 64:34~35; 105:3, 5~6.(순종하는 것) 교리와 성약 105편에서 주님께서서는 불순종을 그 당시에 시온의 도시가 세워지지 않았던 이유 중의 하나로 지적하셨다. 복음의 원리에 순종함으로써 여러분의 가족은 어떤 점에서 강화되었는가? 회원들이 복음의 원리에 순종함으로써 여러분의 와드나 스테이크는 어떻게 강화되었는가?
  - ㄹ. 교리와 성약 105:3.(가난한 자와 고난당하는 자를 돌봄) 미주리 주에서 시온을 건설하려던 성도들은 “그들 가운데 있는 가난한 자와 고난당하는 자”(교리와 성약 105:3)를 돌보지 않는다고 주님으로부터 징계를 당했다. 왜 가난한 자를 돌보는 것이 시온을 건설하는 데 필요한가? 궁핍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도울 수 있는 기회에는 어떤 것이 있는가?
  - ㅁ. 교리와 성약 97:10~16.(성전들을 짓고 성전의 축복을 받는다.) 시온을 건설하는 데 왜 성전이 중요한가? (교리와 성약 97:13~16; 105:9~12 참조)



- 바. 교리와 성약 105:10.(서로 가르쳐서 더욱 온전히 알게 한다.) 가정과 교회의 정식 공과 수업에서 가르치는 것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어떤 면에서 우리는 우리의 의무를 더욱 완전히 알 필요가 있는가?  
 사. 교리와 성약 133:8~9.(세상에 복음을 전함) 주님께서는 교회의 장로들에게 사람들을 바벨론(세상)에서 시온으로 불러 내라고 지시하셨다. 어떤 면에서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시온의 스테이크를 강화하는 것인가?

#### 4. 경전에는 시온의 미래에 대하여 영광스러운 약속들이 포함되어 있다.

주님은 교리와 성약에서 마지막 날에 시온에 오게 될 수많은 축복에 대해 말씀하셨다. 이들 축복을 알아보기 위하여 반원들에게 교리와 성약 97편 18~25절을 읽게 하고 시온에 약속된 구체적인 축복들을 확인해 보도록 부탁한다.

- 가. 시온이 경계를 넓혀 영화롭게 되며 위대하게 될 것이다.(교리와 성약 97:18)  
 나. 시온이 지상의 국가들에 의해서 영광을 받을 것이다.(교리와 성약 97:19)  
 다. 주가 시온의 구원이 되실 것이다.(교리와 성약 97:20)  
 라. 시온이 기뻐할 것이다.(교리와 성약 97:21)  
 마. 시온은 주님의 양값음을 모면할 것이다.(교리와 성약 97:22~25)

- 이러한 축복을 받기 위하여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교리와 성약 97:25)
- 우리는 시온의 미래를 생각할 때 어떻게 느끼는가?

선지자 조셉 스미스는 이렇게 가르쳤다. “시온 건설은 모든 세대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관심의 초점이 되어 왔습니다. 그것은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들이 특별한 기쁨을 가지고 깊이 생각했던 주제입니다. 그들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즐거운 기대를 가지고 고대했습니다. 그들은 아름다운 예감과 즐거운 예감으로 고취되어 이날을 노래하고 글로 쓰고 예언하였습니다. … 우리는 하나님께서 후기의 영광을 가져 오도록 택하신 은총을 입은 백성입니다.”(선지자 조셉 스미스의 가르침, 조셉 필딩 스미스 편, 217쪽)

#### 결론

고든 비 힝클리 회장의 다음 말씀을 이야기해 준다.

“매우 믿을 수 없는 세상에서 저는 훌륭한 미래를 예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가치관을 굳게 지키고, 우리 유산의 터전 위에 쌓아 올리고, 주님 앞에 순종하는 생활을 하고, 복음대로만 생활한다면, 우리는 위대하고 훌륭한 방법으로 축복을 받을 것입니다. 우리는 유례없는 행복을 얻을 수 있는 열쇠를 발견한 그분의 소유가 된 백성들로 추앙 받을 것입니다.”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이사야 2:3)

“우리의 과거는 위대했으며, 우리의 현재는 훌륭하며, 우리의 미래는 영광스럽게 될 수 있습니다.” (‘미래를 바라보십시오’, 성도의 벗, 1998년 1월호, 69쪽)

반원들에게 그들의 마음속에, 또한 그들의 가족 가운데, 그리고 그들의 스테이크 안에 시온을 건설 하도록 격려한다. 영의 지시에 따라 공과 중에 토의한 진리에 대해 간증한다.

---

**추가로 가르칠 개념**

여러분은 제언된 공과 개요를 보충하기 위하여 다음 개념을 활용할 수 있다.

**시온에 관한 찬송가들**

반원들이 다음에 나오는 찬송가 중 하나를 부르거나 가사를 읽도록 준비한다. “높은 산 언덕 위”(2장), “애통하는 이스라엘”(10장), “아름다운 시온 위에다”(8장), 독창자와 몇 명의 소수 인원이 이들 찬송가 중 하나를 부르게 한다. 그 찬송가들이 시온 건설을 어떻게 찬양하고 있는가를 토론한다.

# 교회 역사 연대기 및 지도

# 교회 역사 연대기

## 1805년 12월 23일

조셉 스미스(1805~1844)가 조셉 스미스 일세와 루시 맥 스미스의 아들로 버몬트 주 샤론에서 태어났다(조역 1:3 참조).

## 1820년 이른 봄

선지자 조셉 스미스가 뉴욕 주 팔마이라와 맨체스터 군구 경계에 있는 자기 집 근처 나무 숲 속에서 첫번째 시현을 받았다(조역 1:15~17 참조).

## 1823년 9월 21~22일

조셉 스미스가 천사 모로나이의 방문을 받고 몰몬경 기록에 대한 이야기를 들음. 조셉은 근처의 산(쿠모라)에 묻혀 있는 금판을 보았다(조역 1:27~54 참조).

## 1827년 9월 22일

조셉 스미스가 쿠모라 산에서 모로나이로부터 금판을 받았다(조역 1:59 참조).

## 1829년 5월 15일

침례 요한이 펜실베이니아 주 하모니에서 조셉 스미스와 올리버 카우드리에게 아론 신권을 부여했다(교성 13; 조역 1:71~72 참조).

## 1829년 5월

조셉 스미스와 올리버 카우드리가 펜실베이니아 주 하모니와 뉴욕 주 콜스빌 사이에 있는 사스케하나 강변에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에게서 멜기세덱 신권을 받았다(교성 128:20 참조).

## 1829년 6월

몰몬경 번역이 완료되고 세 증인과 여덟 증인이 금판을 보았다(히후 11:3; 27:12~13; 교성 17 참조).

## 1830년 3월 26일

뉴욕 주 팔마이라에서 몰몬경 초판을 사용할 수 있었다.

## 1830년 4월 6일

뉴욕 주 페이엠티에서 교회가 조직되었다.

## 1830년 9월~10월

첫 선교사들이 부름을 받아 레이맨인(아메리카 인디언)에게 전도하였다(교성 28; 30; 32 참조).

## 1830년 12월~1831년 1월

성도들이 오하이오 주로 집합하라는 명을 받았다(교성 37; 38:31~32 참조).

## 1831년 7월 20일

미주리 주 인디펜던스에 시온 성(새 예루살렘)을 위한 부지가 선지자 조셉 스미스에게 제시되었다(교성 57; 신개 1:10 참조).

## 1833년 3월 18일

시드니 리그돈과 프레드릭 지 윌리엄스가 교회 제일회장단 보좌로 성별되고(교성 81 머리말을 참조), 이 마지막 왕국의 열쇠를 받았다(교성 90 머리말 및 6절 참조).

## 1833년 11월 7일

성도들이 미주리 주 잭슨 군에서 폭도들을 피하여 미주리 강을 건너 클레이 군으로 들어가기 시작하였다.

## 1834년 5월 5일

조셉 스미스 제일회장단 회장이 잭슨 군에서 추방당한 성도들을 구하려고 시온 진영의 지도자로서 오하이오 주 커틀랜드를 떠나 미주리 주로 향하였다.

## 1835년 2월 14일

십이사도 정원회가 오하이오 주 커틀랜드에서 조직되었다(교성 107:23~24 참조).

## 1835년 2월 28일

칠십인 제일 정원회 조직이 오하이오 주 커틀랜드에서 시작되었다.

## 1835년 8월 17일

오하이오 주 커틀랜드에서 교리와 성약이 교회의 표준 경전으로 받아들여졌다.

## 1836년 3월 27일

커틀랜드 성전이 헌납되었다(교성 109 참조).

## 1836년 4월 3일

예수 그리스도가 커틀랜드 성전에서 조셉 스미스와 올리버 카우드리에게 나타나셨다. 모세, 일라이어스 및 엘리야가 나타나 신권 열쇠를 전하였다(교성 110 참조).

## 1837년 7월 19일

히버 시 킴볼과 다른 여섯 사람이 최초의 해외 선교 사업으로 영국 리버풀에 도착하였다.

## 1838년 4월 26일

교회의 이름이 계시에 의하여 지정되었다(교성 115:4 참조).

## 1838년 12월 1일

선지자 조셉 스미스와 다른 사람들이 미주리 주 클레이 군 리버티에 있는 리버티 감옥에

수감되었다(교성 121~123 참조).

## 1840년 8월 15일

죽은 자를 위한 침례가 선지자 조셉 스미스에 의하여 공식적으로 발표되었다.

## 1841년 10월 24일

울슨 하이드 장로가 성지를 아브라함의 자손의 귀환을 위한 땅으로 헌납하였다(교성 68:1~3, 124:128~129 참조).

## 1842년 3월 17일

여성 상호부조회가 일리노이 주 나부에서 조직되었다.

## 1842년 5월 4일

완전한 성전 엔다우먼트 의식이 처음으로 주어졌다.

## 1844년 6월 27일

조셉 스미스와 하이럼 스미스가 카테지 감옥에서 순교하였다(교성 135 참조).

## 1846년 2월 4일

나부의 성도들이 서부로 이주하기 위하여 미시시피 강을 건너기 시작하였다. 동부에 있던 성도들이 브루클린호를 타고 뉴욕 시에서 캘리포니아로 향해하였다.

## 1846년 7월 16일

몰몬 대대가 아이오와 주에서 미군복무에 소집되었다.

## 1847년 4월

브리검 영 회장의 개척단이 윈터퀴터스를 떠나 서부로 여행하였다(교성 136 참조).

## 1847년 7월 24일

브리검 영 회장이 솔트레이크 계곡에 들어갔다.

## 1847년 12월 27일

교회 대회에서 브리검 영 회장, 히버 시 킴볼 장로, 윌라드 리차즈 장로가 제일회장단으로 지지 받았다.

## 1848년 5월~6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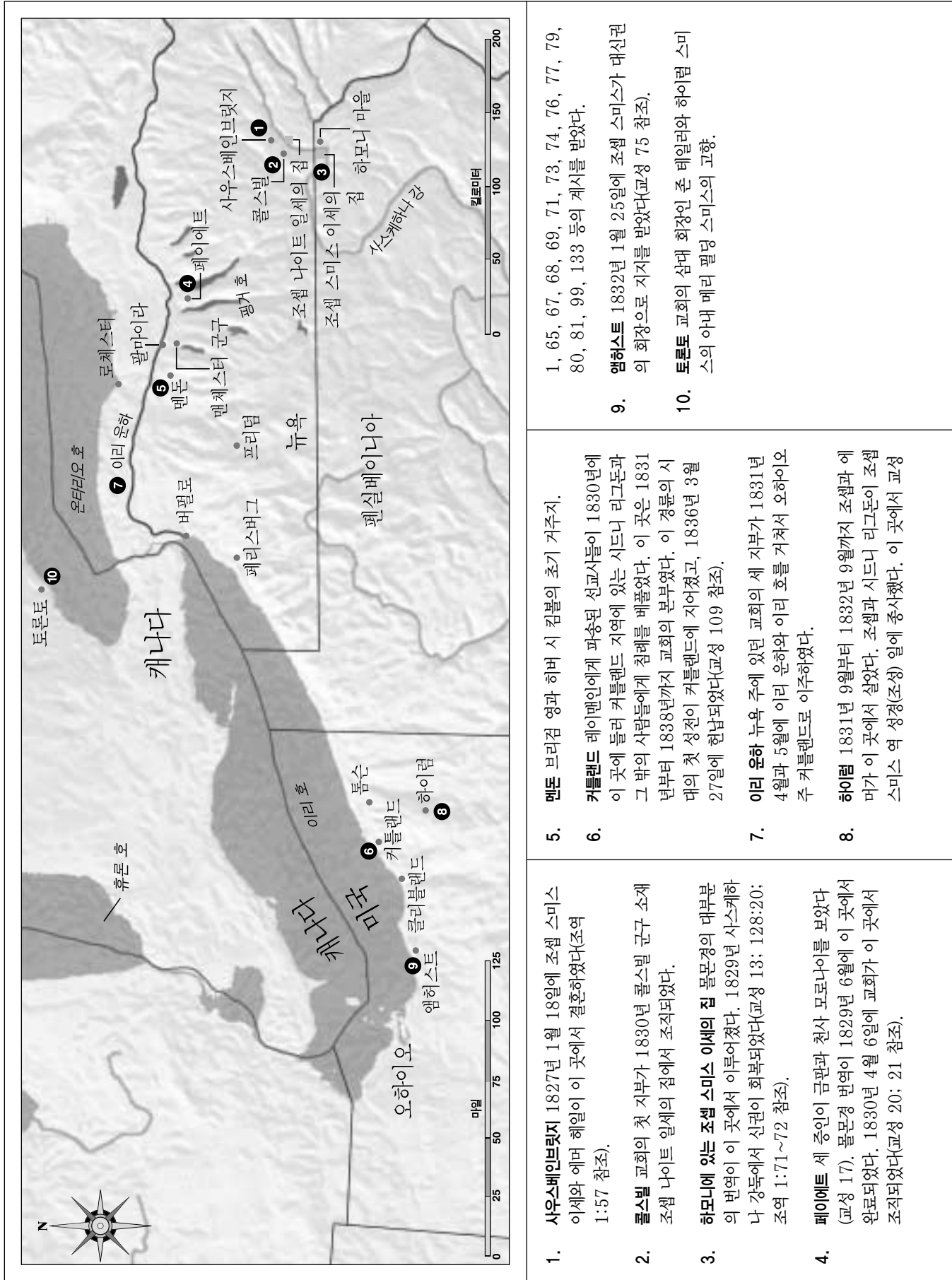
귀뚜라미가 솔트레이크 계곡에서 농작물을 먹어치웠다. 바다 갈매기 떼가 귀뚜라미를 해치워 밭이 완전히 파괴되는 것을 면하게 해 주었다.

## 1849년 12월 9일

주일학교가 리차드 밸런타인에 의하여 조직되었다.

|   |  |   |
|---|--|---|
| <p><b>1850년 6월 15일</b><br/>데저렛 뉴스(Deseret News)가 솔트레이크시티에서 발행되기 시작하였다.</p> <p><b>1856년 10월</b><br/>윌리와 마틴의 손수레 부대가 이른 폭설로 진군이 지연되었다. 솔트레이크 계곡에서 파견된 구조대에 발견되었다.</p> <p><b>1867년 12월 8일</b><br/>상호부조회가 브리검 영 제일회장단 회장 지시하에 재조직되었다.</p> <p><b>1869년 11월 28일</b><br/>청녀회 전신인 청녀 검약회가 조직되었다.</p> <p><b>1875년 6월 10일</b><br/>청남 프로그램의 전신인 청남 상호향상회가 조직되었다.</p> <p><b>1877년 4월 6일</b><br/>세인트조지 성전이 헌납되었다. 브리검 영 제일회장단 회장이 신권 조직과 시온의 스테이크들을 정비하라는 계시를 받았다.</p> <p><b>1878년 8월 25일</b><br/>오렐리아 스펜서 로저스가 유타 주 파밍턴에서 첫 초등학교 모임을 가졌다.</p> <p><b>1880년 10월 10일</b><br/>존 테일러가 교회의 제일회장단 회장으로 지지 받음. 값진 진주가 표준 경전으로 받아들여졌다.</p> <p><b>1883년 4월 14일</b><br/>존 테일러 제일회장단 회장이 칠십인 조직에 관하여 계시를 받았다.</p> <p><b>1889년 4월 7일</b><br/>윌포드 우드럽이 교회의 제일회장단 회장으로 지지 받았다.</p> <p><b>1890년 10월 6일</b><br/>복수 결혼 실행을 종결하는 “공식 선언”이 연차 대회에서 지지 받았다(선1 참조).</p> <p><b>1893년 4월 6일</b><br/>윌포드 우드럽 제일회장단 회장이 건설하는 데 40년이 걸린 솔트레이크 성전을 헌납하였다.</p> <p><b>1898년 9월 13일</b><br/>로렌조 스노우가 교회의 제일회장단 회장에 성임되었다.</p> <p><b>1899년 5월 17일</b><br/>로렌조 스노우 제일회장단 회장이 세인트 조지에서 십일조를 강조하라는 계시를 받았다(교성 119 참조).</p> <p><b>1901년 10월 17일</b><br/>조셉 에프 스미스가 교회의 제일회장단 회장에 성임되었다.</p> | <p>에 성임되었다.</p> <p><b>1918년 10월 3일</b><br/>조셉 에프 스미스 제일회장단 회장이 죽은 자의 구속에 대한 시현을 받았다(교성 138 참조).</p> <p><b>1918년 11월 23일</b><br/>히버 제이 그랜트가 교회의 제일회장단 회장에 성임되었다.</p> <p><b>1936년 4월</b><br/>대공황 동안 교회 보장 프로그램이 제정되어 가난한 자를 도왔다. 이후로 그 프로그램은 교회 복지 프로그램이 되었다. 이 프로그램은 히버 제이 그랜트 제일회장단 회장이 이전에 받은 계시에서 발전된 것이다.</p> <p><b>1941년 4월 6일</b><br/>십이사도 보조가 처음으로 부름 받았다.</p> <p><b>1945년 5월 21일</b><br/>조지 앨버트 스미스가 교회의 제일회장단 회장으로 성임되었다.</p> <p><b>1951년 4월 9일</b><br/>데이비드 오 맥케이가 교회의 제일회장단 회장으로 지지 받았다.</p> <p><b>1961년 9월 30일</b><br/>해롤드 비 리 장로가 제일회장단 회장의 지시 아래 가정과 개인을 강화하기 위해 모든 교회 프로그램이 신권을 통하여 서로 연관될 것임을 발표하였다.</p> <p><b>1964년 10월</b><br/>가정의 밤을 행할 것을 재강조하였다.</p> <p><b>1970년 1월 23일</b><br/>조셉 필딩 스미스가 교회의 제일회장단 회장에 성임되었다.</p> <p><b>1971년 1월</b><br/>교회의 새로운 잡지-엔사인, 뉴이라, 프렌드(Ensign, New Era, Friend)-발행이 시작되었다.</p> <p><b>1972년 7월 7일</b><br/>해롤드 비 리가 교회의 제일회장단 회장으로 성임되었다.</p> <p><b>1973년 12월 30일</b><br/>스펜서 더블류 김볼이 교회의 제일회장단 회장으로 성임되었다.</p> <p><b>1975년 10월 3일</b><br/>스펜서 더블류 김볼 제일회장단 회장이 칠십인 제일 정원회 재조직을 발표하였다.</p> <p><b>1976년 4월 3일</b><br/>두 편의 계시가 값진 진주에 추가되었다. 1981년 그 계시들은 교성 137과 138이</p> | <p>되었다.</p> <p><b>1978년 9월 30일</b><br/>인종이나 피부색에 상관없이 모든 합당한 회원에게 신권을 부여하라는 계시가 지지되었다(선2 참조).</p> <p><b>1979년 8월</b><br/>연구 보조 자료가 첨가된 후기 성도 판 흠정역(킹제임스역) 성경이 출판되었다.</p> <p><b>1981년 9월</b><br/>신판 물론경, 교리와 성약, 값진 진주가 영문으로 출판되었다.</p> <p><b>1984년 6월</b><br/>칠십인에서 부름받은 회원으로 구성된 지역 회장단이 시작되었다.</p> <p><b>1985년 11월 10일</b><br/>에즈라 태프트 벤슨이 교회의 제일회장단 회장으로 성임되었다.</p> <p><b>1989년 4월 1일</b><br/>칠십인 제이 정원회가 재조직되었다.</p> <p><b>1994년 6월 5일</b><br/>하워드 더블류 헌터가 교회의 제일회장단 회장으로 성임되었다.</p> <p><b>1995년 3월 12일</b><br/>고든 비 힝클리가 교회의 제일회장단 회장으로 성임되었다.</p> <p><b>1995년 4월 1일</b><br/>지역 대표제가 폐지되고 지역 관리 역원으로 알려진 새 지도자 직책이 발표되었다.</p> <p><b>1995년 9월 23일</b><br/>제일회장단과 십이사도 정원회에서 “가족, 세상에 전하는 선언문”을 출간하였다.</p> <p><b>1997년 4월 5일</b><br/>지역 관리 역원이 칠십인으로 성임되고 제삼, 제사, 제오 정원회가 발표되었다.</p> <p><b>1997년 10월 4일</b><br/>힝클리 제일회장단 회장이 소규모 성전 건립을 발표하였다.</p> <p><b>1997년 11월</b><br/>교회 회원수가 천만 명에 이르게 되었다.</p> <p><b>1998년 4월</b><br/>힝클리 제일회장단 회장은 2000년까지 의식을 집행하는 100개의 성전을 가질 목표를 발표하였다.</p> |
|---|--|---|

# 지도 1: 미국 뉴욕 주, 펜실베이니아 주 및 오하이오 주 지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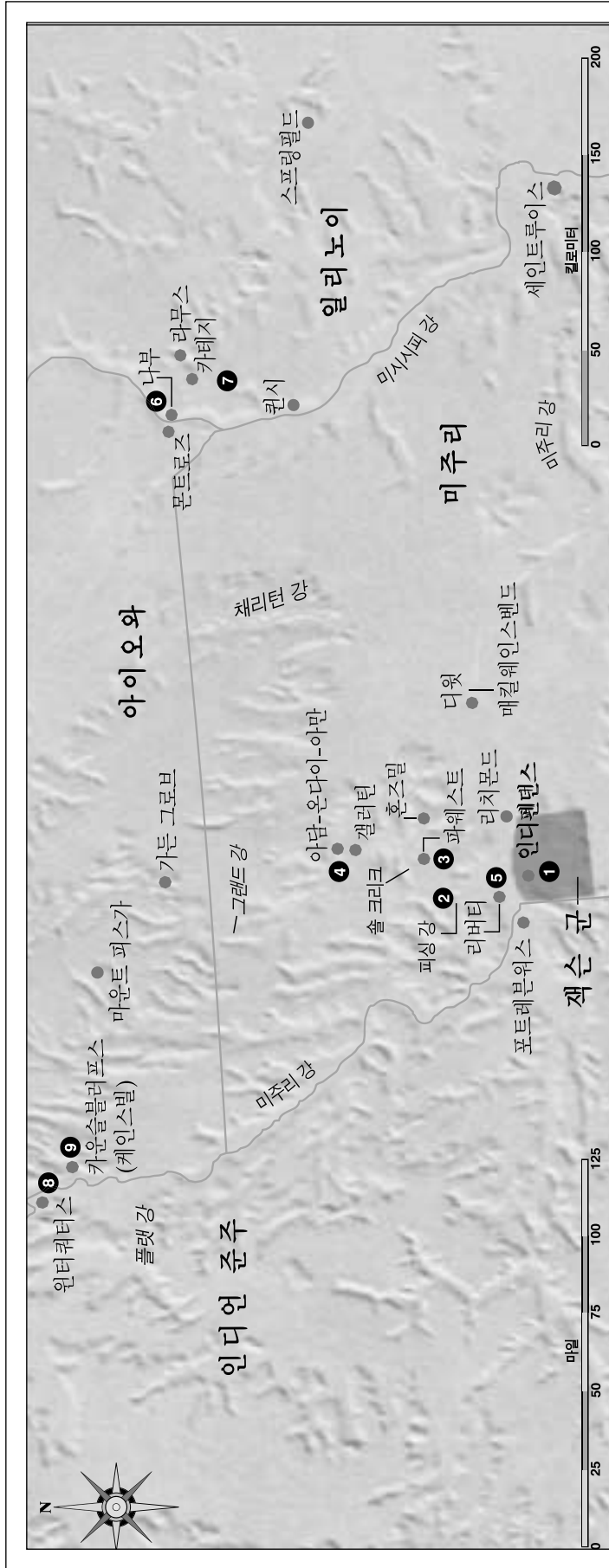


- 사우스베인브릿지** 1827년 1월 18일에 조셉 스미스 이세와 에머 헤일이 이 곳에서 결혼하였다(교역 1:57 참조).
- 콜스빌** 교회의 첫 지부가 1830년 콜스빌 군구 소재 조셉 나이트 일세의 집에서 조직되었다.
- 하모니에 있는 조셉 스미스 이세의 집** 몰몬경의 대부분의 번역이 이 곳에서 이루어졌다. 1829년 사스캐하나 강둑에서 신권이 회복되었다(교정 13; 128:20; 조역 1:71~72 참조).
- 페이엣** 세 증인이 금판과 천사 모로나이를 보았다(교정 17). 몰몬경 번역이 1829년 6월에 이 곳에서 완료되었다. 1830년 4월 6일에 교회가 이 곳에서 조직되었다(교정 20; 21 참조).

- 벤톤** 브리검 성과 히버 시 김벌의 초기 거주지.
- 커틀랜드** 레이먼인에게 파송된 선교사들이 1830년에 이 곳에 들러 커틀랜드 지역에 있는 시드니 리그돈과 그 밖의 사람들에게 침례를 베풀었다. 이 곳은 1831년부터 1838년까지 교회의 본부였다. 이 경륜의 시대의 첫 성전이 커틀랜드에 지어졌고, 1836년 3월 27일에 헌납되었다(교정 109 참조).
- 이리 운하** 뉴욕 주에 있던 교회의 세 지부가 1831년 4월과 5월에 이리 운하와 이리 호를 거쳐서 오하이오 주 커틀랜드로 이주하였다.
- 하이럼** 1831년 9월부터 1832년 9월까지 조셉과 에머가 이 곳에서 살았다. 조셉과 시드니 리그돈이 조셉 스미스 역 성경(조성) 일에 종사했다. 이 곳에서 교성

- 65, 67, 68, 69, 71, 73, 74, 76, 77, 79, 80, 81, 99, 133 등의 계시를 받았다.
- 앰허스트** 1832년 1월 25일에 조셉 스미스가 대신권의 회장으로 지지를 받았다(교정 75 참조).
- 토론토** 교회의 삼대 회장인 존 테일러와 하이럼 스미스의 아내 메리 필딩 스미스의 고향.

지도 2: 미국 미주리 주, 일리노이 주 및 아이오와 주 지역



|   |  |  |
|---|--|--|
| <p>1. <b>인디펜던스</b> 시온의 중심지로 확인되었던 곳(교성 57:3 참조). 1831년 8월 3일에는 성전 부지가 헌납되었다. 1833년에 성도들이 이 곳에서 쫓겨났다.</p> <p>2. <b>피싱 강</b> 1834년 조셉 스미스와 시온 진영은 잭슨 군의 성도들을 그들의 땅에 회복하기 위하여 오하이오 주 커틀랜드에서 미주리 주로 여행하였다. 교성 105는 이 강둑에서 주어졌다.</p> <p>3. <b>파웨스트</b> 이 곳은 미주리 주에서 가장 큰 몰몬 정착지였다. 성전 부지가 이 곳에서 헌납되었다(교성 115 참조). 1838년 7월 8일에 심이사도 정월회는 주님으로부터 영국 제도에서 선교사로 봉사하라는 부름을 받았다(교성 118 참조).</p> <p>4. <b>아담-온다이-아만</b> 주께서 미주리 주 북부의 이 지점을 만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담과 그의 의로운 후손을 만나</p> | <p>5. <b>리버티</b> <b>김옥</b> 1838년 12월부터 1839년 4월까지 조셉 스미스와 그 밖의 사람들이 부당하게 투옥되었다. 교회가 고난에 처해 있던 당시에 조셉은 주께 지시를 구하였고 교성 121~123을 받았다.</p> <p>6. <b>나부</b> 미시시피 강에 위치한 이 지역은 1839년부터 1846년에 걸쳐 성도들이 집합하던 장소였다. 이곳에 성전이 세워졌고 죽은 자를 위한 침례, 엔다우먼트, 가족 인봉과 같은 의식이 시작되었다. 이 곳에서 1842년 상호부조회가 조직되었다. 교성 124~129를 포함한 여러 계시가 주어졌다.</p> <p>7. <b>키테지</b> 이 곳에서 1844년 6월 27일에 선지자 조셉 스미스와 그의 형 하이럼이 순교하였다(교성 135 참조).</p> | <p>8. <b>윈터쿼터스</b> 솔트레이크 계곡으로 가는 도중에 있는 성도들을 위한 본부 정착지(1846~1848). 이스라엘 진영이 서부 여행을 위하여 조직되었다(교성 136 참조).</p> <p>9. <b>카운슬블러프스(케인스빌)</b> 1847년 12월 27일에 브리검 영을 회장으로 한 제일회장단이 이 곳에서 지지되었다.</p> |
|---|--|--|

# 지도 3: 교회의 서부 이동



- 1. 페이엣** 1831년 1월에 선지자 조셉 스미스는 오토 주 커틀랜드를 향해 페이엣트를 떠났다. 짐함이라는 주님의 명령하에 뉴욕의 세 지부가 1831년 4월과 5월에 뒤를 따랐다(교성 37, 38 참조).
- 2. 커틀랜드** 1831년 2월 1일부터, 선지자가 미주리 주 파웨스트로 이동한 1838년 1월 12일까지 교회의 본부였다.
- 3. 인디펜던스** 1831년 7월에 주께서 인디펜던스(미주리 주 잭슨 군 소재)를 시온의 중심지로 확인하셨다(교성 57:3 참조). 1833년 11월에 폭도들이 성도들을 잭슨 군에서 강제로 쫓아내었다.
- 4. 리버티** 1833년부터 1836년까지 잭슨 군의 성도들이 클레이 군으로 모여들었다. 그때 그들은 또다시 떠나는 요구를 받았다. 선지자 조셉 스미스와 그 밖의 사람들이 이 곳에서 투옥되었다.
- 5. 파웨스트** 1836~1838년 사이 성도를 위한 피난처가 이곳에 개설되었다. 이곳은 1838년에 교회의 본부였다. 1838~1839년 성도들은 일리노이 주로 피하지 않을 수 없었다.
- 6. 니부** 1839~1846년 사이 교회의 본부였다. 선지자와 그의 형 하이럼이 순교한 후 성도들은 서부로 이주하였다.
- 7. 카운슬블러프스** 1846년 6월에 개척단이 이곳에 도착하였다. 1846년 7월 21일 몰몬대대 대원들이 제임스 앨런의 인술 아래 떠났다.
- 8. 윈터쿼터스** 1846~1848년 사이 교회의 본부였다. 1847년 4월에 선발대가 브리검 영 회장의 지시하에 서부로 떠났다.
- 9. 포트레븐워스** 1846년 8월 몰몬 대대가 서부로 진군을 시작하기 전에 이곳에서 장비를 갖추었다.
- 10. 산티페** 1846년 10월 19일 이곳을 출발하여 진군하는 몰몬 대대를 필립 쿡이 지휘하였다.
- 11. 푸에블로** 병에 걸린 세 분전대가 푸에블로에 가서 요양할 것을 명령받았으며 이곳에서 1846~1847년의 겨울을 미시시피에서 온 성도들과 함께 보냈다. 이 일행은 1847년 7월에 솔트레이크 계곡에 들어왔다.
- 12. 샌디에이고** 1847년 1월 29일 몰몬 대대가 3,200킬로미터의 행군을 이곳에서 마쳤다.
- 13. 로스엔젤레스** 1847년 7월 16일 몰몬 대대가 이곳에서 해산하였다.
- 14. 새크라멘토** 해산된 대원 일부가 이곳에서 일하였고, 더 멀리 동쪽에 있는 아메리카 강 서터 제재소에서 일하면서 금 발견을 도왔다.
- 15. 솔트레이크시티** 1847년 7월 24일 브리검 영이 솔트레이크 계곡에 도착하였다.